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III

| 154 ~ 158 |

2019

〈일 러 두 기〉

1. 유구도면의 방위는 자북(磁北)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동서로 22.5°범위 내에 해당되면 남-북향, 22.6~67.5°는 북동-남서/북서-남동향, 67.6~90°는 동-서향으로 기준을 적용하였다.
2. GPS 좌표값은 측지기준계 : 세계측지계, 회전타원체 : GRS80, 투영법 : TM, 투영원점은 경도를 기준으로 124~126°는 서부원점, 126~128°는 중부원점, 128~130°는 동부원점, 130~132°는 동해원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3. 도면의 축소비율은 유구는 크기 및 성격에 따라 1/20~1/180을 적용하였으며, 유물은 토기 및 자기 1/3, 기와 1/4~1/6, 철기·석기·목기 1/2~1/3, 장신구 1/1~1/2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해당도면 하단에 축척을 함께 표기하였다.
4. 유구의 입·단면도에 표기한 수치는 해발고도를 의미한다.
5. 유물은 같은 기종이 4점 이상인 경우 표로서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토기류 중 호는 기고 및 동최대경이 45cm 이상일 경우 대호로 분류하였다.
6. 유물의 기고는 중심선을 계측하였으며, 片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7. 유물 기술 중 태토에 함유된 모래 입자의 굵기에 따라 0.1cm 미만을 세사립, 0.1~0.2cm는 사립, 0.3~0.4cm는 세석립, 0.5cm 이상은 석립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8. 토기(기와)는 소성된 상태에 따라 도질(경질), 연질로 구분하였다. 800℃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회청색, 회색, 흑회색을 띠며, 경도가 강하여 흡수성이 거의 없고 대체로 자연유로 인해 기면에 유리질의 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도질(경질)로, 산화염에서 구운 토기로 적갈색계통의 색조를 띠는 것을 연질로 구분하였다.
9. 인화문토기의 문양 중 종장연속문의 시문은 “宮川禎一”(1988, 『文様からみた新羅印花文陶器の變遷』,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論叢, 歴史學と考古學』, 高井悌三郎先生喜壽記念事業會)의 문양 시문수법을 참고하여 종방향으로 한번 찍었거나 겹쳐서 찍은 문양은 ‘A’시문수법, ‘^’자 또는 ‘V’자 형태로 꼭지점의 반대쪽을 벌어지게 찍은 문양은 ‘B’시문수법, 종방향으로 지그재그로 찍은 문양은 ‘C’시문수법으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0. 기와는 정치한 상태에서 4등분하여 좌측 상·하부, 우측 상·하부로 구분하고 잔존 및 결실 부위를 기술하였다.
11. 본문 표의 규격 중 () 안의 수치는 잔존치를 의미한다.
12. 유구의 토층과 유물의 색조는 “일본농림수산성 농림수산기술회의사무국 감수·재단법인 일본색채연구소 색표 감수, 『신판 표준토색첩』, 2007” 및 Albert H. Munsell, 『MUNSELL SOIL COLOR CHART』, 1994, revised edition을 참고하였다.
13. 본 보고서의 일러두기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에만 해당되며, 기타 기관의 일러두기는 별도로 표기하였다.
14. 본 보고서는 172개 유적을 조사완료일 순으로 편집하여 상반기(6월 27일)에 96개 유적을 14권으로, 하반기(12월 23일)에 76개 유적을 11권으로 각각 묶어 인쇄한다. 각 권별 유적 수록 목록은 Ⅱ 권부터 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에 게재하였다.
15. 학술적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목 차

154. 경산 조영동 251-22번지 외 1필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154-1
155. 홍천 신장대리 63-15번지 유적(강원고고문화연구원)	155-1
156. 경주 구황동 875-3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156-1
157.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한국문화재재단).....	157-1
158. 상주 무양동 202-1번지 유적(다온문화재연구원)	158-1

154. 경산 조영동 251-22번지 외 1필지 유적

목 차

I. 조사개요	154-7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54-9
III. 조사내용	154-15
1. 시굴조사.....	154-15
2. 발굴조사	154-17
1) 석곽묘	154-17
(1) 석곽묘 1호	154-17
2) 토광묘	154-19
(1) 토광묘 1호	154-19
(2) 토광묘 2호	154-20
(3) 토광묘 3호	154-23
(4) 토광묘 4호	154-23
IV. 조사성과	154-29

도 면 목 차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154-1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154-13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54-14
도면 4. 유구분포도	154-16
도면 5. 석곽묘 1호 및 출토유물	154-18
도면 6. 토광묘 1호	154-19
도면 7. 토광묘 1호 출토유물	154-21
도면 8. 토광묘 2호 및 출토유물	154-22
도면 9. 토광묘 3호	154-23
도면 10. 토광묘 4호	154-25
도면 11. 토광묘 4호 출토유물	154-27
도면 12. 상부 수습유물	154-28

도판 목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전(N-S), ②조사중(SW-NE))	154-35
도판 2. 조사대상지 조사후 전경(①SW-NE, ②NW-SE)	154-36
도판 3. 석곽묘 1호(①조사전(SW-NE), ②조사중(SW-NE), ③조사후 확장(SE-NW), ④유물 출토상태, ⑤~⑦벽석 축조상태)	154-37
도판 4. 석곽묘 1호 출토유물(1), 토광묘 1호(①조사전(SW-NE), ②조사후(SW-NE), ③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154-38
도판 5. 토광묘 1호(①②유물 출토상태, ③조사후(NW-SE), 2~4:출토유물)	154-39
도판 6. 토광묘 2호(①조사전(SW-NE), ②조사후(SW-NE), ③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5:출토유물)	154-40
도판 7. 토광묘 3호(①조사전(SW-NE), ②조사중(SW-NE), ③조사후(SW-NE), ④토층, ⑤바닥보강토)	154-41
도판 8. 토광묘 4호(①조사전(SW-NE), ②조사중(SW-NE), ③조사후(SW-NE), ④토층, ⑤유물 출토상태)	154-42
도판 9. 토광묘 4호 유물 출토상태	154-43
도판 10. 토광묘 4호 출토유물(6~26), 상부 수습유물(27)	154-44

I. 조사개요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경상북도 경산시 조영동 251-22, 251-94번지로 사업시행자 추준욱씨의 단독주택 신축예정부지(104㎡)이다. 조사 경위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대상지에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경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경산시는 조사대상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당동과 조영동고분군) 내에 위치하므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 전까지 매장문화재조사(입회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홍익문화재연구원에 입회조사를 의뢰하여, 2017년 7월 8일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대상지의 중앙에 설정한 트렌치에서 동-서 방향의 토광묘 3기와 경질토기편, 자기편 등이 확인되어 사업대상지 전면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¹⁾

이후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가 국비지원 대상임을 확인하고 2017년 7월 19일 문화재청 문화재 전자행정 협업포털시스템을 통해 본 재단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정밀 발굴조사 세부계획서는 8월 3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2017년 8월 9일 현장조사일수 7일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제2017-1053호)를 받았다. 그러나 2017년 10월 13일 조사대상지의 지장물 처리 지연에 의해 착수 연기요청이 접수되었다.

따라서 발굴조사는 지장물이 처리된 이후인 2017년 12월 5일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고려시대 석곽묘 1기, 토광묘 4기 등 총 5기가 확인되었다. 조사단에서는 확인된 유구 가 양호하지 못하여 기록 보존하는 것으로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2017년 12월 8일(현장조사일수 4일)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박 종 섭(문화재조사연구단장)

책임조사원 : 박 강 민(조사연구1팀 부팀장)

조 사 원 : 김 진 경(조사연구1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 김 근 재(조사연구1팀 연구원)

보 조 원 : 안 혜 민(조사연구1팀 연구원)

*()는 조사당시 직명임.

1) 홍익문화재연구원, 2017, 「문화재 보존조치(입회조사) 결과보고서-경산시 조영동 251-22번지 외 1필지 다가구 주택신축공사 부지」.

조사부지내 북서-남동 방향의 트렌치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상부 표토층을 제거하자 암반층을 굴착한 토광묘가 확인되어 확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서 방향의 토광묘 3기가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노출된 유물은 경질토기편, 자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강성귀 책임 하에 하혜진, 백은주, 박아림, 운영경, 김은희 등 본 재단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김진경, 강성귀, 황도담, 임나영이 담당하였으며, 유물 사진은 이재영(스카이뷰)이 촬영하였다. 원고는 박강민 책임 하에 Ⅰ~Ⅱ장 김진경, Ⅲ장 김진경(조사내용 및 유구), 강성귀·하혜진(유물), Ⅳ장 김진경이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박강민·박종섭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산시 조영동 251-22, 251-94번지에 해당하며, 지리적 좌표는 경·위도상 동경 128°48′70.82″, 북위 35°54′22.70″이다. 사적 제516호인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동쪽에 위치한 강산애아파트 정문에서 남동쪽으로 130m 정도 직진 후, 청운1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70m 정도 직진하면 우측 공지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적 환경²⁾으로 조사대상지는 금호강변에 연결되는 넓은 평야의 중앙에 형성된 능선의 사면부, 해발 62.5m 정도에 위치한다. 조영동은 주변으로 임당동과 부적동이 접하여 있으며, 지형적으로 북쪽으로 동에서 서쪽으로 흘러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오목천과 남쪽에서 북쪽으로 흘러 금호강으로 유입되는 남천의 사이에 형성된 경산분지의 나지막한 능선이 형성되어 있다. 조사대상지는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고도 약 67m 정도를 정점으로 완만히 이어지는 능선이 형성되었다.

역사적 환경³⁾으로 경산시는 고대 압량 또는 압독소국이었는데 102년(신라 파사왕 23년) 합병되었고, 642년(선덕왕 11년) 신라 주로 편입되었다. 757년(경덕왕 16년) 장산군으로 개칭되고, 940년(고려 태조 23년) 장산현으로 변경된다. 1310년(충선왕 2년) 경산현으로 다시 바뀐 후 이어지다 1895년(조선 고종 32년) 경산군으로 승격된다. 이후 1956년 경산읍을 거쳐 1989년 지금의 경산시의 모습을 갖췄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하는 조영동은 조선 후기 경산군 동면에 속하였다가 1914년 행정통폐합에 따라 고촌동과 대원동을 통합하여 조영동이 되어 압량면에 편입되었다. 1987년 1월 경산읍에 편입되었으며, 1988년 5월 동을 리로 개칭할 때 조영리가 되었다가 1989년 1월 경산읍에 시로 승격함에 따라 경산시 조영동이 되었다. 조영동은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북부동 관할 하에 있다.

고고학적 환경으로 조사대상지는 문화유적분포지도상 ‘경산 임당·조영동 고분군’⁴⁾의 남동쪽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가 포함되어 있는 조영동 고분군은 기원전 2세기 무렵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봉토분은 4~6세기에 조성되었다. 1987~1988년 영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⁵⁾가 실시되었으며, 이 후, 1995년~1997년에 걸쳐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⁶⁾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발굴조사⁷⁾되었다. 이중 영남대학교가 발굴 조사한 대형봉토분은 외형을 복원하였으며, 고분이 분포하는

2) 지리적 환경은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Ⅰ』(嶺南大學校博物館, 1991)을 참고하여 수정·가필하였다.

3) 역사적 환경은 『慶山 林堂洞 遺蹟Ⅰ』(嶺南文化財研究院, 1999)을 참고하여 수정·가필하였다.

4) 慶山市·大邱大學校 中央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慶山市-』.

5) 嶺南大學校博物館, 1991,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Ⅰ』.

嶺南大學校博物館, 1994,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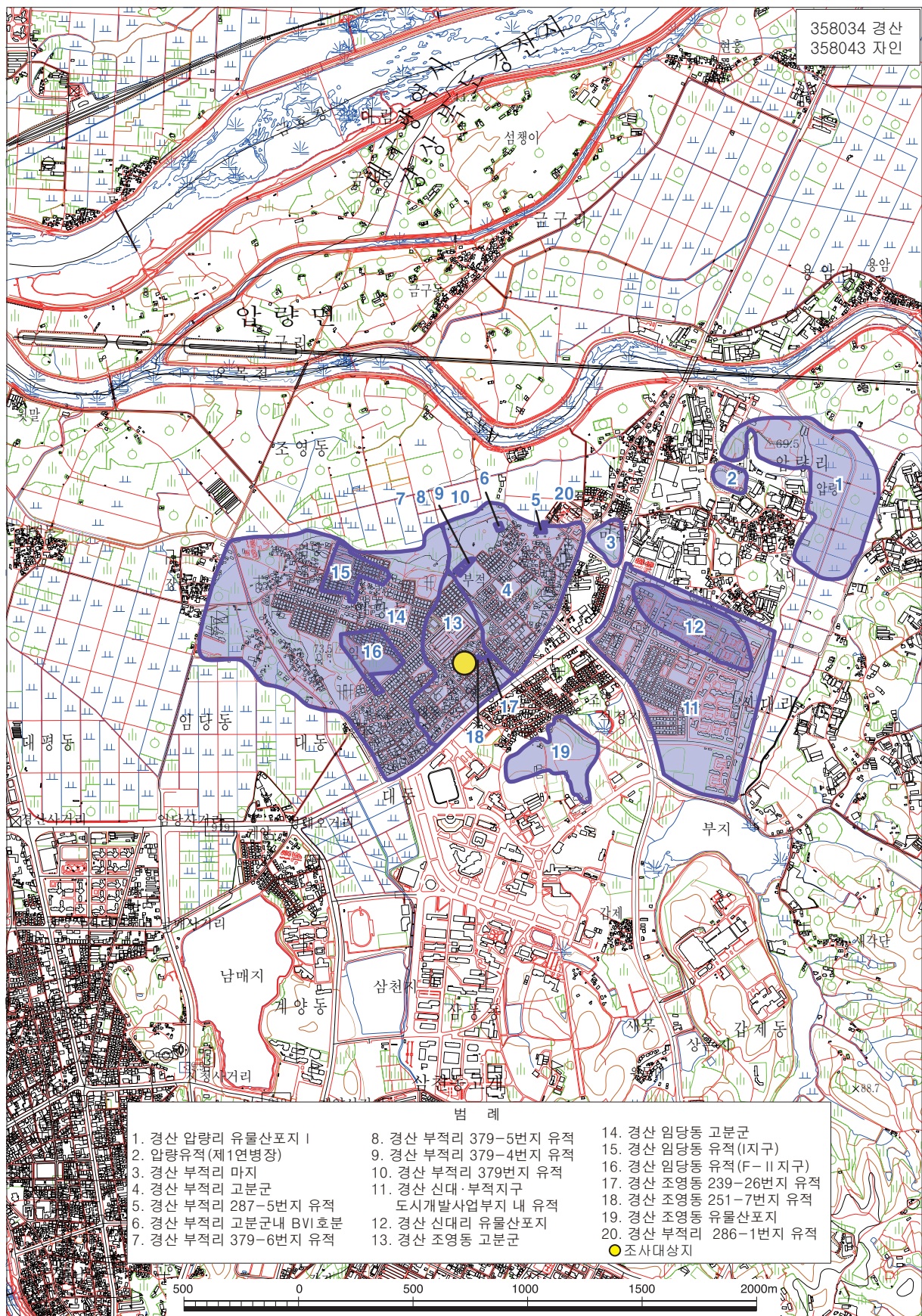
嶺南大學校博物館, 1997, 『慶山 林堂地域 古墳群Ⅲ』.

6) 嶺南文化財研究院, 1999, 『慶山 林堂洞 遺蹟Ⅰ』.

조사결과, 삼한시대 목관묘 5기, 조선시대 토광묘 18기, 야외노지, 건물지, 우물, 토성 등이 확인되었다.

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慶山 林堂 遺蹟Ⅰ~Ⅶ』.

조사결과, 원삼국시대 목관묘 77기, 옹관묘 19기, 삼국시대 목관묘 408기, 석관묘 75기, 석실묘 90기, 조선시대 토광묘 11기 등이 확인되었다.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주변으로는 1983년 사적 제300호로 지정되었다. 조영동 고분군이 발굴조사되면서 1989년 사적 제331호로 지정되었고, 두 고분군은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2011년 두 고분과 임당토성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적 제516호로 지정되었다.

근년에 주변으로 발굴조사가 실시된 유적으로는 북쪽으로 40m 정도 떨어져 경산 조영동 251-7번지 유적⁸⁾으로 원삼국시대 목관묘 1기, 고려시대 석곽묘 1기, 토광묘 3기 등이 발굴 조사되었으며, 북동쪽으로 84m 정도 떨어져 경산 조영동 239-26번지 유적⁹⁾에서는 석곽묘 1기, 회곽묘 1기 등이 조사되었다. 남서쪽으로 142m 정도 떨어져 경산 조영동 278-4번지 유적¹⁰⁾에서는 조선시대 토광묘 6기, 수혈유구 5기가 확인되었다.

북쪽으로 400m 정도 떨어져 경산 압량면 부적리 379번지 유적에서 원삼국~삼국시대 분묘 및 수혈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주변유적의 자세한 분포현황은 다음【표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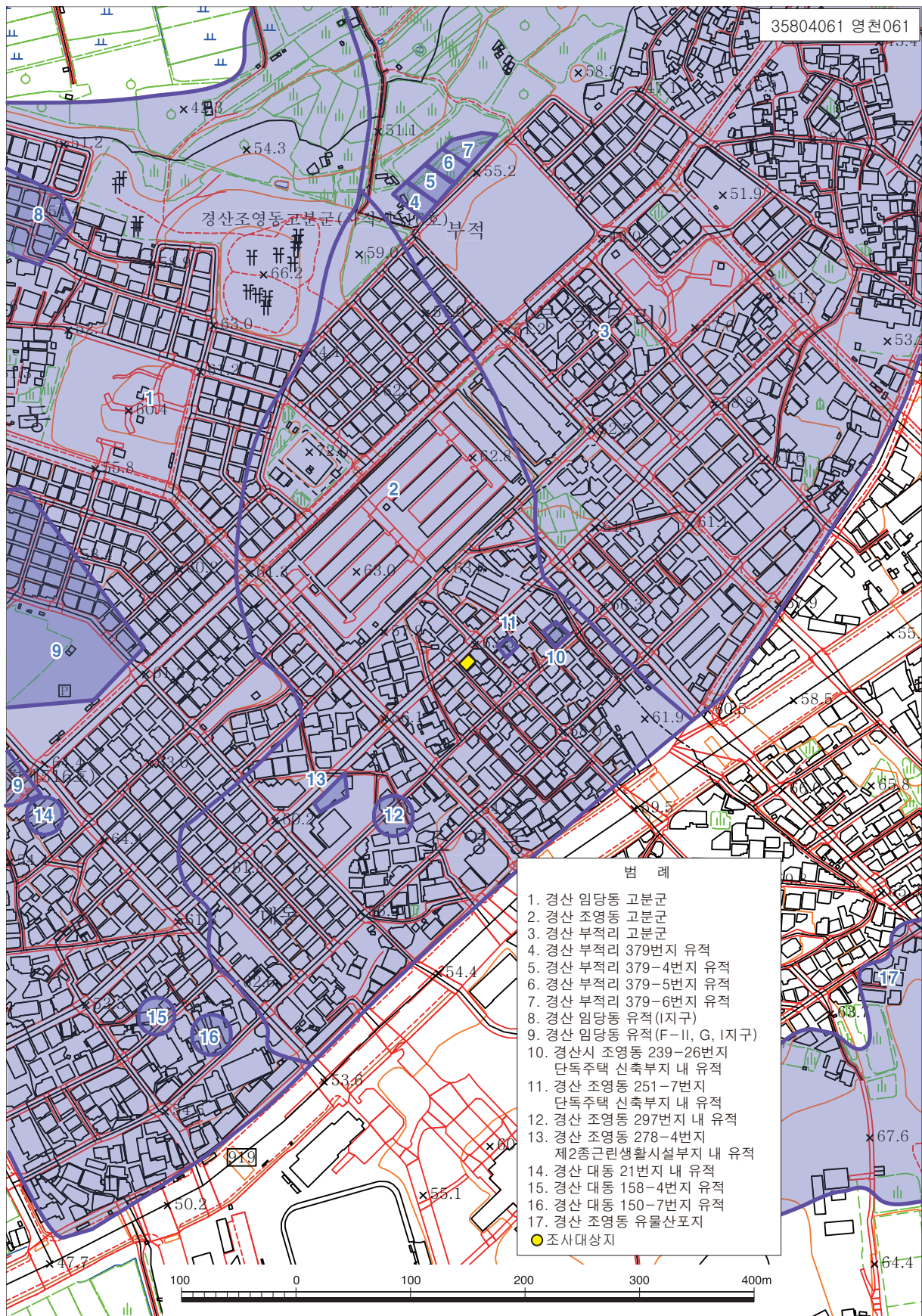
【표 1】 주변유적 분포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경산 부적리 마지	북동 752m	삼국시대 전적지	大邱大學校中央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慶山市-』	
2	경산 신대 · 부적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동쪽 540m	조선시대 분묘	성림문화재연구원, 2008, 『경산 신대 · 부적 조선묘군』	
3	경산 신대리 유물산포지	동쪽 850m	삼국 · 조선시대 유물산포지	大邱大學校中央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慶山市-』	
4	경산 부적리 고분군	동쪽 570m	삼국시대 고분군		
5	경산 부적리 고분군 내 BⅥ호분 유적	북쪽 460m	삼국시대 고분군	세종문화재연구원, 2017, 『경산 부적리 고분군 내 BⅥ호분 문화재 발굴조사(2차)현장자료집』	
6	경산 압량면 부적리 379번지 유적	북쪽 400m	원삼국~삼국시대 고분	한국문화재재단, 2017, 『2015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경북2- 경산 부적리 379번지 유적(금오문화재연구원)』	

8) 한국문화재재단, 2019, 『2017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V-25. 경산 조영동 251-7번지 유적(홍익문화재연구원)』.

9) 홍익문화재연구원, 2018, 『경산시 조영동 239-26번지(대학로67길 14-15) 단독주택 신축부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10) 한국문화재연구원, 2018, 『경산 조영동 278-4번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연번	유적명	이격 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7	경산 임당유적 C-I · II 지구	북쪽 310m	삼국시대 고분군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慶山 林堂 遺蹟 II』	
8	경산 조영동 고분군	범위내	삼국시대 고분군	大邱大學校中央博物館, 2006, 『文化遺蹟分布地圖 -慶山市-』	
9	경산 임당동 고분군	북서쪽 550m	삼국시대 고분군		
10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북서쪽 300m	삼국시대 고분군		사적 제516호
11	임당토성	서쪽 450m	삼국시대 토성		
12	경산 조영동 유물산포지	남서쪽 418m	청동기시대 유물산포지		
13	경산 임당 1호분	서쪽 500m	삼국시대 고분군	한빛문화재연구원, 2017, 「경산 임당 1호분 발굴조사」 현장자료집	
14	경산 조영동 251-7번지 유적	북동쪽 40m	삼국시대 고분	한국문화재단, 2019, 『2017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Ⅳ - 25. 경산 조영동 251-7번지 유적(홍익문화재단연구원)』	
15	경산 조영동 239-26번지 유적	북동쪽 84m	삼국시대 고분	홍익문화재단연구원, 2018, 「경산시 조영동 39-26번지 (대학로67길14-15) 단독주택 신축부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16	경산 조영동 278-4번지 유적	남서쪽 142m	조선시대 고분	한국문화재단연구원, 2018, 『경산 조영동 278-4번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지 내 유적』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1. 시굴조사

발굴조사에 대한 제토는 입회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암반층의 상면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제토범위는 동쪽과 남쪽은 주택의 담장과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도로와 전신주가 접하고 있어 안으로 50~100cm 정도 이격하여 설정하였다.

토층 퇴적양상은 상부에서부터 경작층-복토층-퇴적층-고려시대 유구확인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경작층은 갈색 사질토로 두께 10cm 정도이며, 경작과 관련된 폐기된 비닐, 생활쓰레기 등이 확인되었다. 복토층은 회백색 사질점토, 갈회색 사질토로 두께는 20~30cm 정도이다. 조사대상지의 경사면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가면서 낮아져서 복토층은 남서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두껍게 확인되었다. 내부에는 다량의 암반편과 비닐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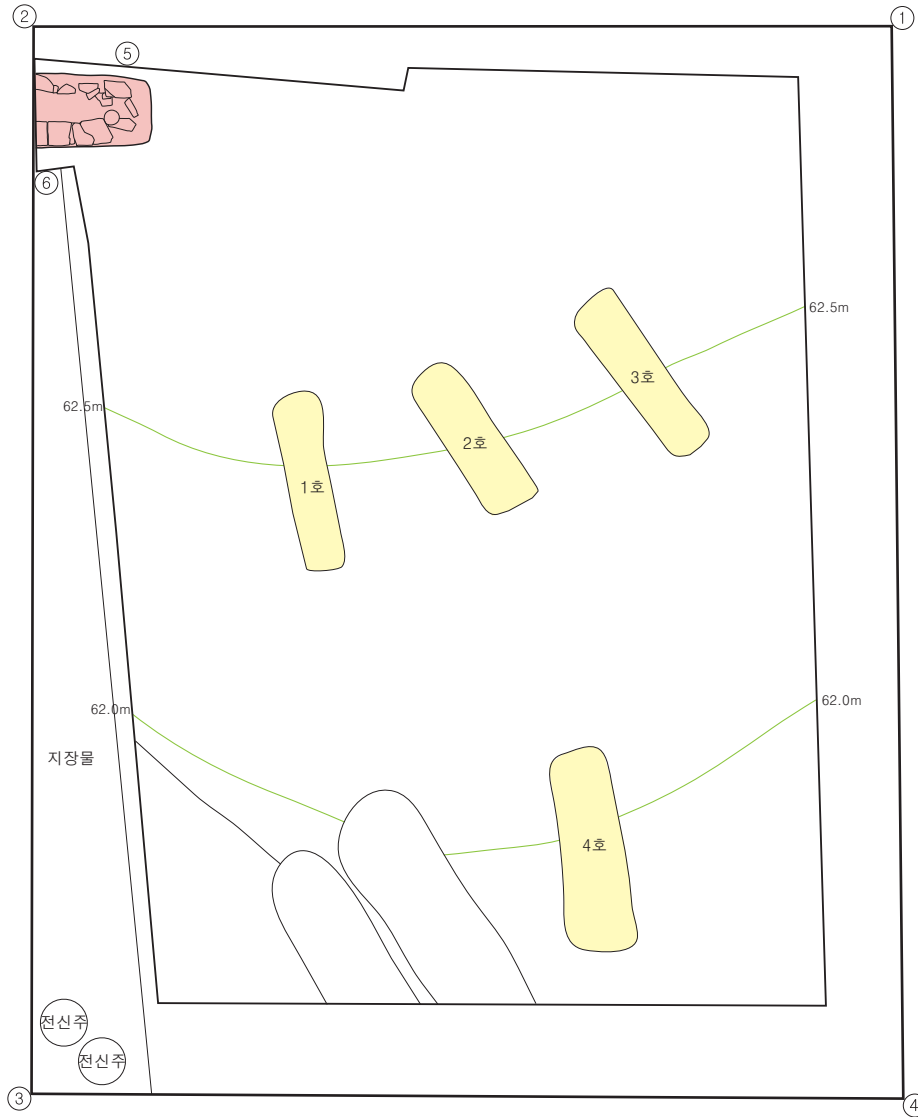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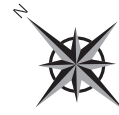
퇴적층은 흑갈색 사질점토로 두께는 10cm 정도이다. 남서쪽 경사면의 하단부쪽을 중심으로 확인되며, 북동쪽으로는 삭평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고려시대 유구확인층은 표토하 20~50cm 정도에서 확인되는 암반층으로 석곽묘, 토광묘 등이 확인되었다.

【표 2】 조사지역 기준 토층

	1층 : 갈색(10YR 4/4) 사질토	경작층 (두께 10cm)
	2층 : 회백색(10YR 8/1) 사질점토	복토층 (두께 20~30cm)
	3층 : 갈회색(10YR 6/1) 사질토+암반편	
	4층 : 흑갈색(10YR 3/2) 사질점토	퇴적층 (두께 10cm)
	5층 : 암반층	고려시대 유구확인층 (표토하 20~50cm)

발굴조사 결과, 고려시대 석곽묘 1기, 토광묘 4기 등 총 5기가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북쪽 조사경계에 맞물려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었으며, 토광묘는 조사대상지의 중앙과 남서쪽을 중심으로 등고선과 직교하게 조성되었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360372.124m		④	X	360380.317m	
	Y	177933.694m			Y	177942.912m	
	Z	63.15m			Z	62.84m	
②	X	360387.203m		⑤	X	360385.992m	
	Y	177937.168m			Y	177937.513m	
	Z	63.26m			Z	63.277m	
③	X	360379.403m		⑥	X	360386.357m	
	Y	177928.705m			Y	177936.030m	
	Z	62.29m			Z	62.78m	

: 석곽묘
 : 토광묘
 : 교란



도면 4. 유구분포도

2. 발굴조사

1) 석곽묘

(1) 석곽묘 1호

가. 유구(도면 5, 도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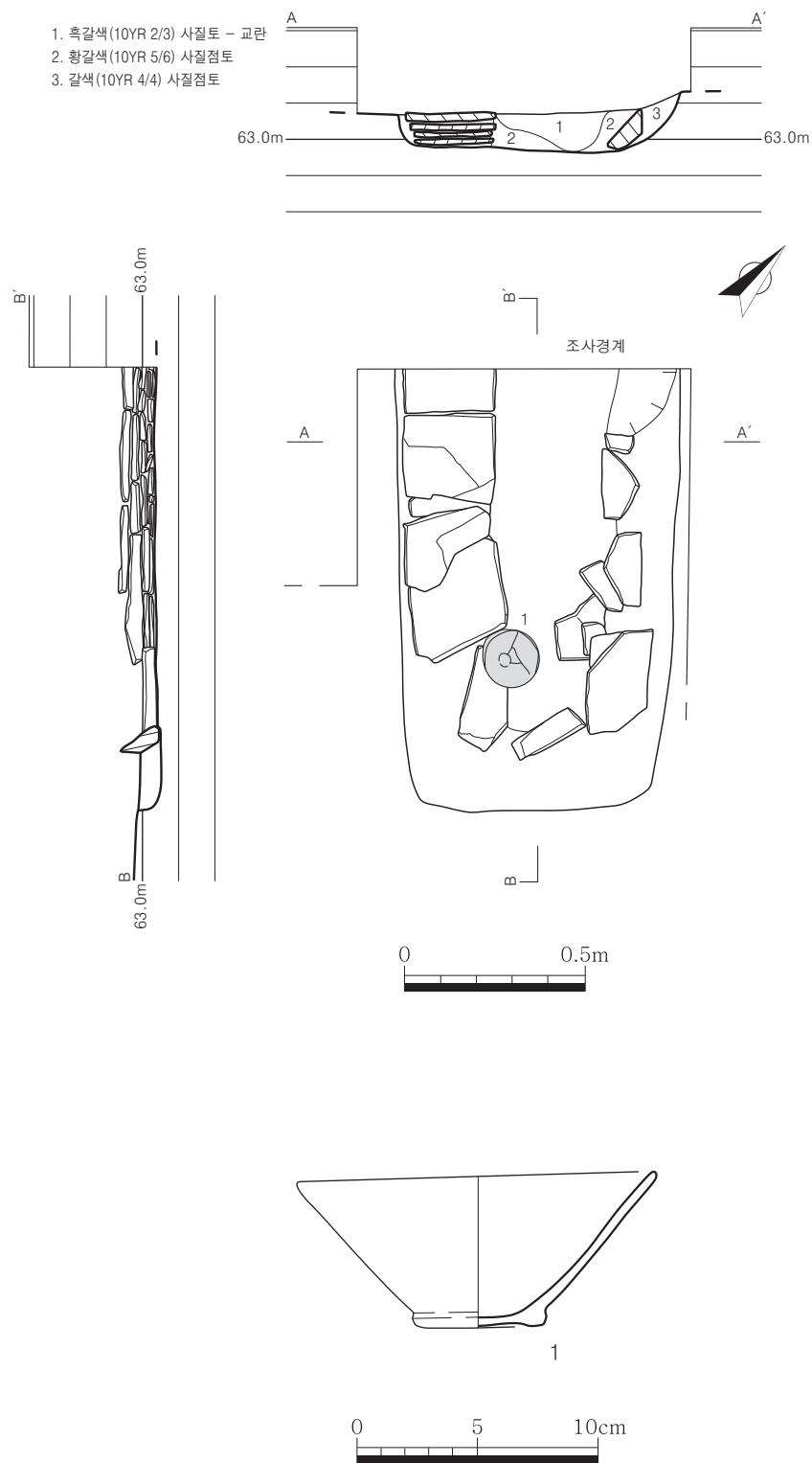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의 북쪽 조사경계의 모서리에 접하여 경계 밖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 최대한 확장하였으나, 1/2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된 석곽묘의 장축방향은 남동-북서(N-52°-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125cm, 너비 76cm, 깊이 15cm 정도이며, 석곽의 크기는 잔존길이 100cm, 너비 30cm, 깊이 15cm 정도이다. 후대 교란 등으로 인하여 상부가 삭평되어 벽석의 일부만 잔존하며, 토압에 의해 북장벽의 벽석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와 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묘광은 원지반을 굴착하여 축조한 후, 벽석과 묘광 사이에는 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넣었다. 벽석은 납작한 청석암반을 사용하여 평적으로 겹겹이 쌓아 축조였으며, 가장 많은 쪽이 4~6단 정도 잔존한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한 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남서쪽 단벽에서 청자 완 1점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1. 청자 완(도면 5-1, 도판 4-1)

완형이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회백색(2.5Y 7/1)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의 색조는 올리브황색(5Y 6/3)으로 전면 시유하였으나, 굽 접지면 일부는 박락되었다. 전면에서 가는 빙결이 확인된다. 굽 접지면에는 내화토빛을 받침흔 4개가 확인된다. 굽은 해무리굽의 형태를 띠며, 마무리가 정연하지 못한 편이다.

기고 6.3cm, 구경 14.6cm, 저경 4.1cm



도면 5. 석곽묘 1호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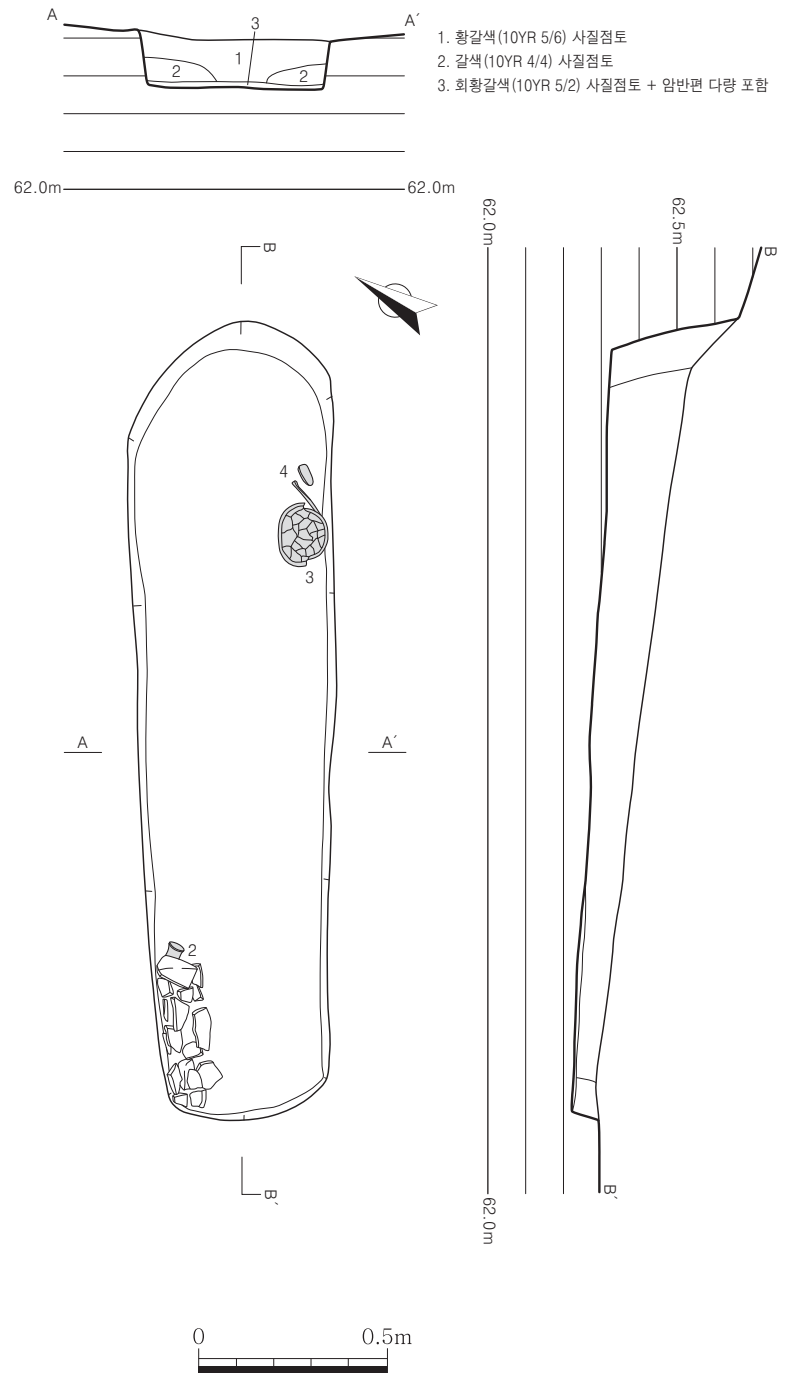
2) 토광묘

(1) 토광묘 1호

가. 유구(도면 6, 도판 4·5)

조사대상지의 중앙 해발 62.3m 정도에 위치하며, 동쪽으로 인접하여 토광묘 2호와 3호가 나란히 위치해 있다.

토광묘는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도록 축조되어 있었으며, 장축방향은 남서-북동(N-58°-W)향이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 세장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10cm, 너비 54cm, 깊이 7~34cm 정도이다. 벽면은 암반층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닥면은 굴착면을 정지한 후, 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갈색 사질점토를 2~4cm 정도 평탄하게 깔아 바닥면을 정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남서모서리 부분에서 토기병 1점이 파손된 채 출토되었으며, 북동장벽에서 청동 완 1점과 청동 순가락 1점이 확인되었다.



도면 6. 토광묘 1호

나. 유물

2. 토기병(도면 7-2, 도판 5-2)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이다. 바닥은 굽 없는 평저이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7.9cm, 저경 11.4cm

3. 청동 완(도면 7-3, 도판 5-3)

주조품으로 구연부 일부와 동체부의 2/3 정도가 결실되었다. 얇게 제작된 기면은 완만하게 벌어져 올라가며, 구연은 외반하고 구순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전면에 마연 정면흔이 확인된다.

기고 7.0cm, 구경 17.3cm, 저경 13.5cm, 중량 87.0g

4. 청동 숟가락(도면 7-4, 도판 5-4)

술부는 부분 박락되었으며, 선단부는 녹으로 인해 마모되어 있고, 부풀어진 녹흔이 부착되어 있다. 술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으로 양단으로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병부는 'S' 자형으로 크게 휘어져 있으며, 단면형태는 말각제형이다. 병부 말단은 좌우로 갈라진 연미형(燕尾形)이다.

길이 28.0cm, 술부길이 8.0cm, 술부너비 3.6cm, 병부두께 0.55cm, 중량 62.3g

(2) 토광묘 2호

가. 유구(도면 8, 도판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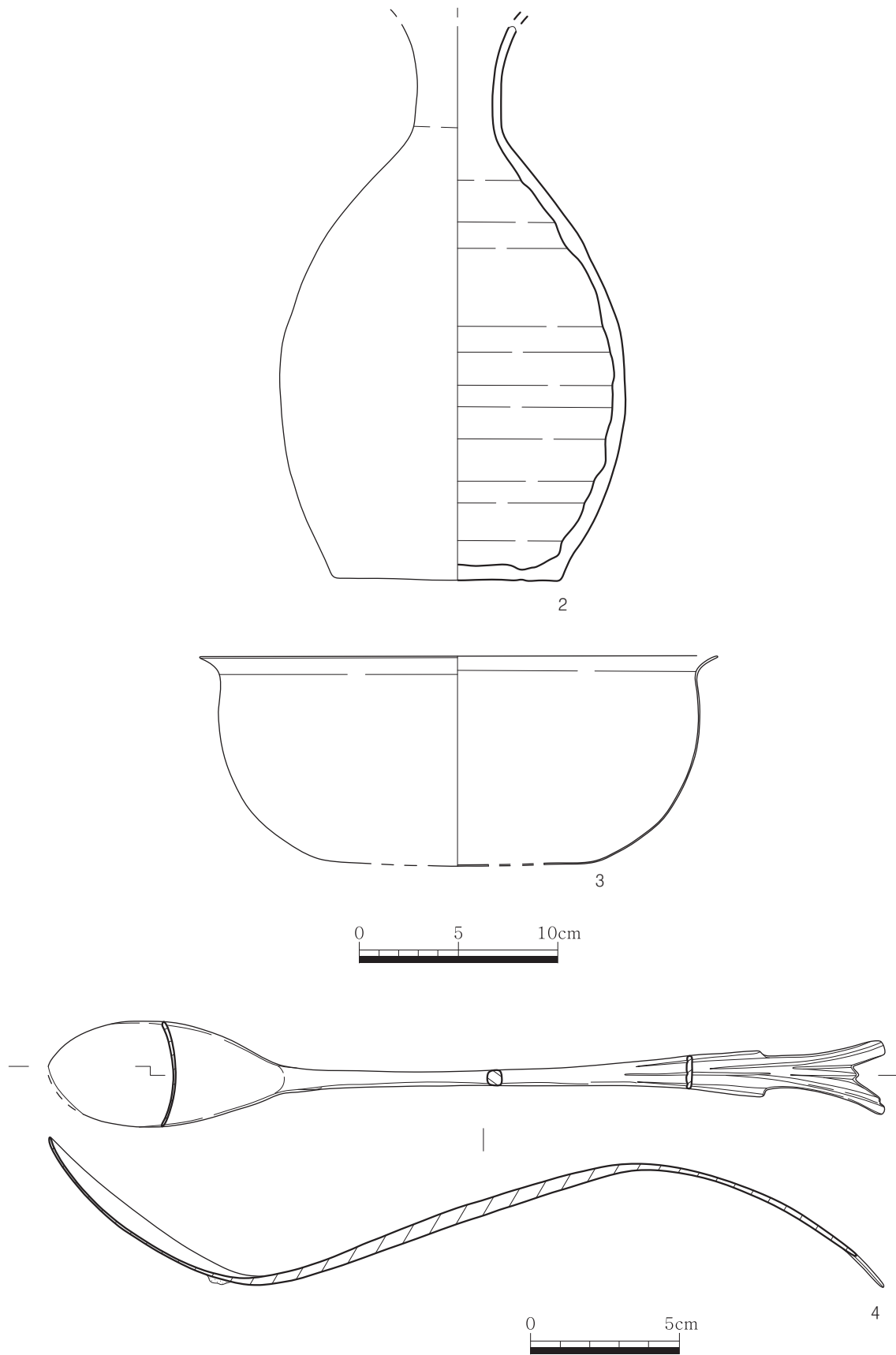
조사대상지의 중앙 해발 62.3m 정도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서쪽으로 150cm 정도 토광묘 1호, 동쪽으로 200cm 정도 떨어져 토광묘 3호가 위치하고 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12°-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축조하였다. 규모는 길이 197cm, 너비 56cm, 깊이 10~40cm 정도이다. 벽면은 암반층을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며,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닥은 생토면을 정지한 후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중앙에서 서장벽쪽으로 치우쳐 청동 숟가락 1점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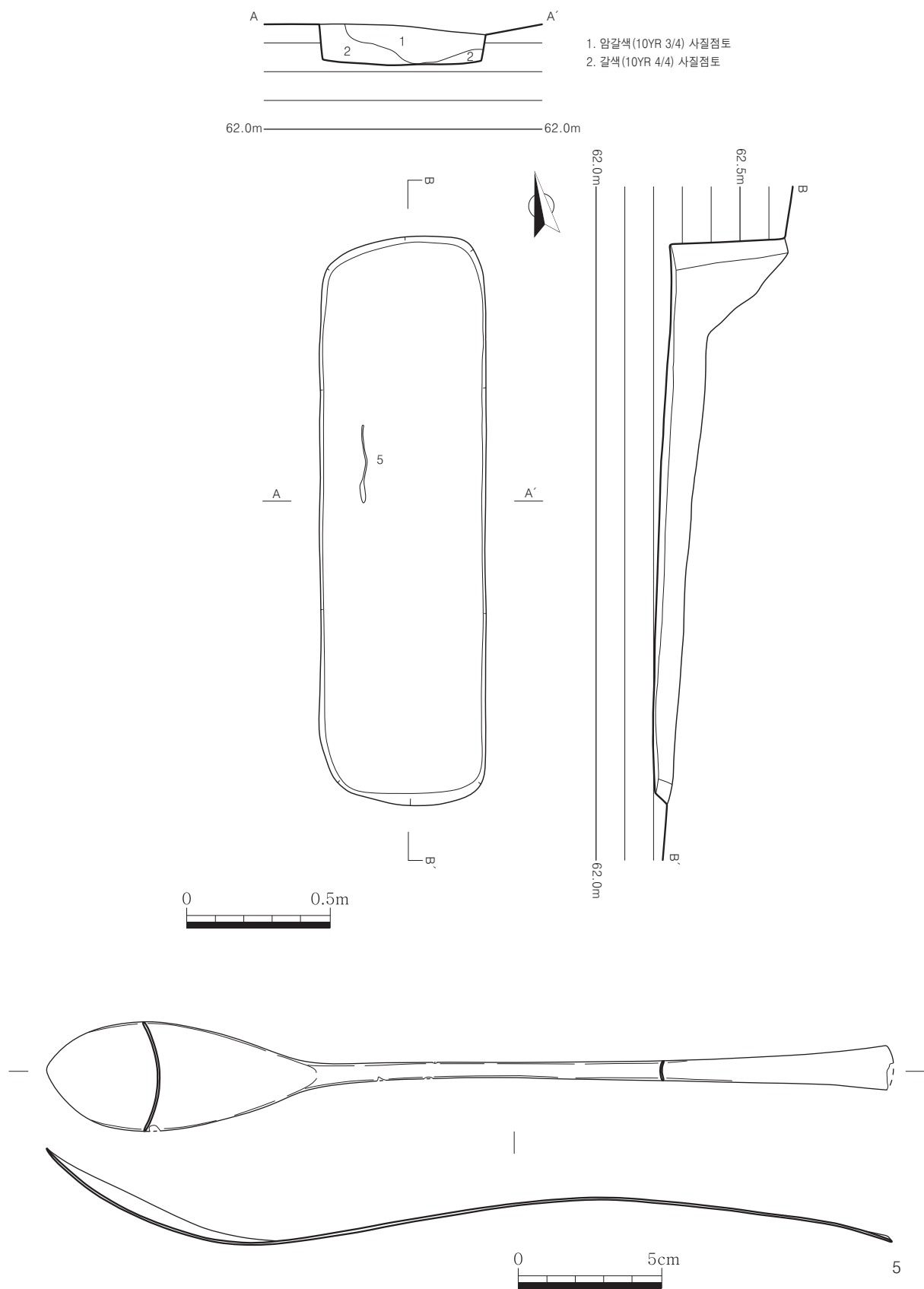
5. 청동 숟가락(도면 8-5, 도판 6-5)

술부에서 병부 말단까지 부분 결실되었고, 녹으로 인해 표면 박락이 확인된다. 술부의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으로 양단으로 갈수록 두께가 두꺼워진다. 병부는 곡선을 이루며 약간 휘어져 있고, 말단부로 갈수록 너비가 넓어져 끝은 둥글게 처리되었다. 병부의 단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길이 29.4cm, 술부길이 8.4cm, 술부너비 3.8cm, 병부두께 0.1cm, 중량 21.7g



도면 7. 토광묘 1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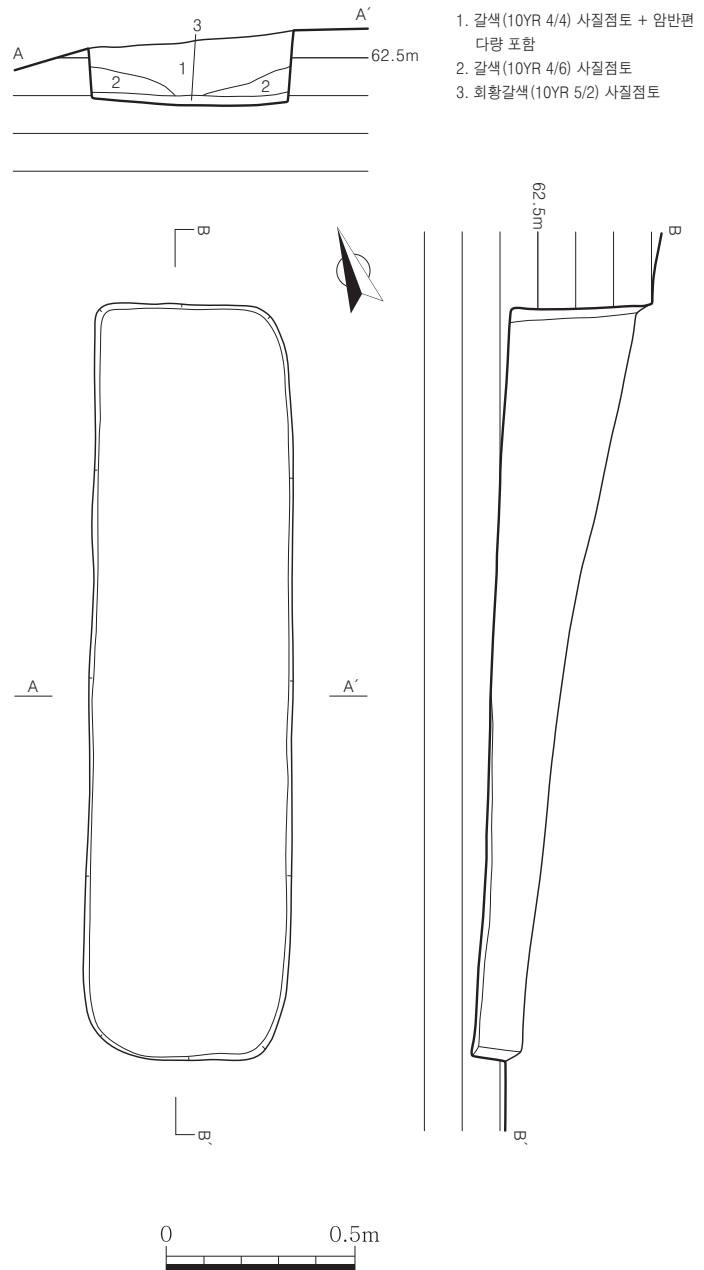


도면 8. 토광묘 2호 및 출토유물

(3) 토광묘 3호

가. 유구(도면 9, 도판 7)

조사대상지의 중앙 해발 62.3m 정도에 위치하며, 서쪽으로 200cm 정도 떨어져 토광묘 2호, 남동쪽으로 300cm 정도 떨어져 토광묘 4호가 위치해 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말각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20°-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축조하였다. 규모는 길이 200cm, 너비 54cm, 깊이 11~37cm 정도이다. 벽면은 암반층을 수직으로 굴착되었으며, 목관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바닥은 굴착면을 정지한 후, 암반편이 다량 포함된 회황갈색 사질점토를 사용하여 두께 2~4cm 정도로 바닥 전면에 깔아 정지한 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서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9. 토광묘 3호

(4) 토광묘 4호

가. 유구(도면 10, 도판 8·9)

조사대상지의 남서쪽 조사경계에 접하여 해발 61.9m 정도에 위치하며, 북동쪽으로 200cm 정도 떨어져 토광묘 2호가 위치하고 있다. 평면형태는 말각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서-북동(N-40°-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게 축조하였다.

묘광은 기반층인 암반층을 비스듬히 굴착하였으며, 규모는 길이 221cm, 너비 64cm, 잔존깊이 40cm 정도이다. 토층 단면양상은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벽면을 따라 보강토가 확인되었다. 보강토는 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를 사용하여 네 벽면에서 확인되었으며, 벽면을 따라 관정이 출토되는 것으로 미루어 목관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목관의 크기는 길이 212cm, 너비 42cm, 깊이 30cm 정도로 추정된다. 묘의 바닥면은 별다른 시설 없이 평탄하게 정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물은 토광묘의 네 모서리를 중심으로 관정 18점이 확인되었는데, 북단벽 모서리 조사과정에서 6점 정도가 보강토내부에서 확인되었으며, 바닥면에서 4점 정도가 확인되었다. 남쪽 단벽을 중심으로는 조사중 보강토 내부 양쪽모서리에 각각 2점씩 노출되었으며, 바닥면에서 3점이 확인되었다. 또 남서단벽쪽 바닥 중앙부분에서 철검 1점이 확인되었다. 또 남서모서리 충전토 내부에서 청동 숟가락 1점과 청동 젓가락 1쌍이 확인되었다.

나. 유물

6. 청동 숟가락(도면 11-6, 도판 10-6)

술부의 대부분이 결실되었으나 잔존하는 숟가락의 상태는 양호하다. 병부는 곡선을 이루며 약간 휘어져 있고, 말단부로 갈수록 너비가 넓어진다. 병부의 중앙부는 약하게 능이 형성되어 있어 단면형태는 편평한 이등변삼각형이다. 말단부는 둥글게 처리되었다.

잔존길이 20.7cm, 술부 잔존너비 3.2cm, 병부두께 0.2cm, 중량 22.7g

7. 청동 젓가락(도면 11-7, 도판 10-7)

1쌍이 확인된다. 부분적으로 녹혹이 발생하여 부풀어 있다. 단면형태는 방형이며, 두부에서 선단부로 갈수록 두께가 미세하게 얇아진다.

길이 24.3cm, 두께 0.25~0.4cm, 중량 21.4/22.1g

8. 철검(도면 11-8, 도판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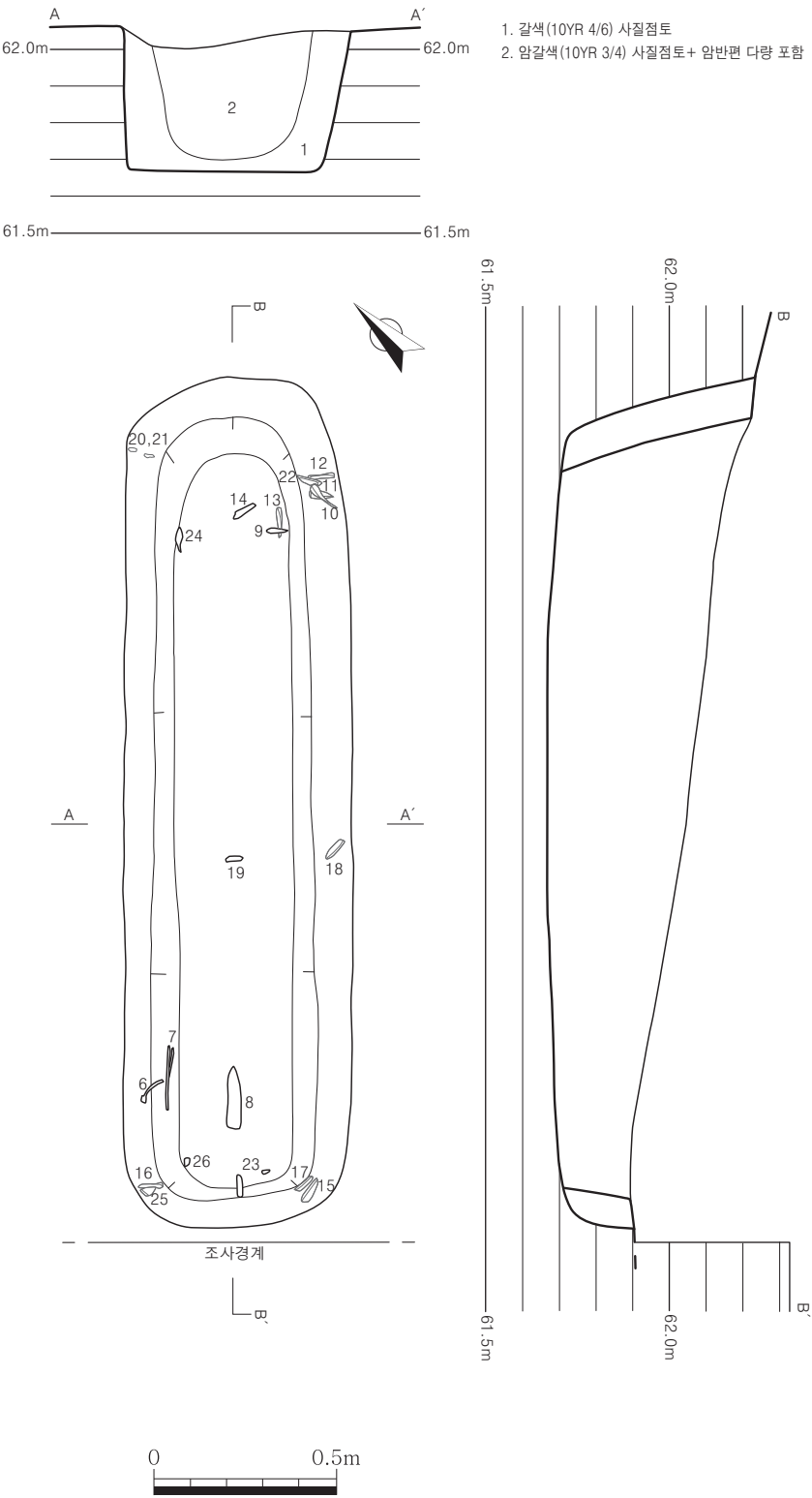
단조품으로 신부의 일부와 선단부가 모두 결실되었다. 신부는 직선적으로 선단부로 이어지다가 약간의 곡선으로 이루는 부분에서 결실되었다. 신부에는 유기물흔의 일부가 수착되어 있다. 단면형태는 세장한 이등변삼각형이다.

잔존길이 13.8cm, 너비 3.5cm, 두께 0.1cm, 중량 34.3g

9~26. 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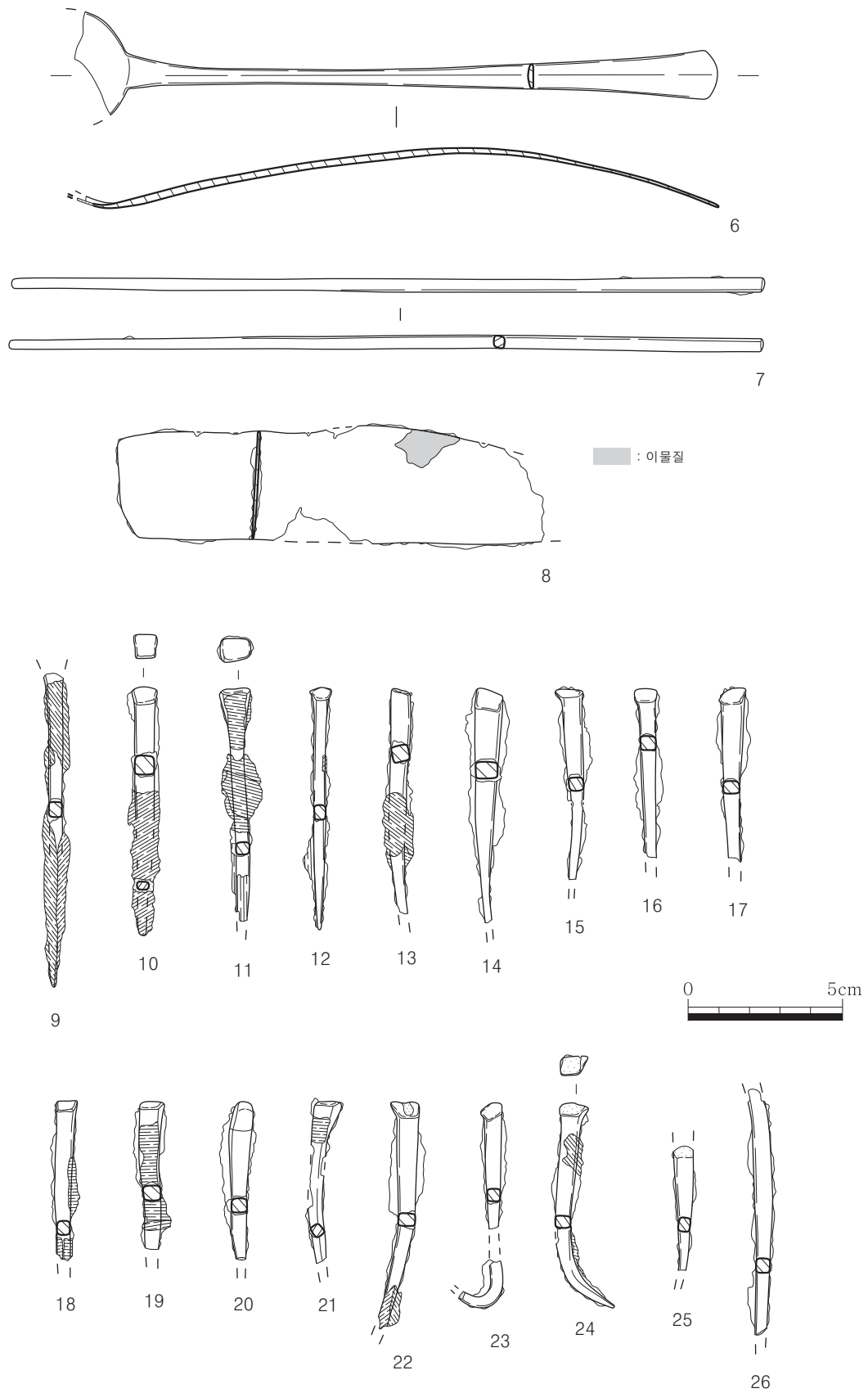
모두 18점이 출토되었다. 두부에서 말단부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며, 두부는 약간 돌출되어 평면형태 방형에 가깝고, 측면은 사방향으로 기울어 있다. 단면형태는 방형 또는 장방형이다. 세부 특징은 다음 표와 같다.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중량 (g)	특징
			길이 (잔존)	두부 너비	신부 두께		
9	11-9	10-9	(10.2)	-	0.4	9.7	두부 결실. 신부 상단과 하단부 목관의 목질흔 잔존, 단면형태 방형.



도면 10. 토광묘 4호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중량 (g)	특징
			길이 (잔존)	두부 너비	신부 두께		
10	11-10	10-10	8.0	0.8	0.7	9.5	완형. 신부 사방향의 목관의 목질흔 두껍게 수착됨, 단면형태 방형.
11	11-11	10-11	(7.5)	1.0	0.4	6.5	말단부 결실. 신부 전면 사방향의 목관의 목질흔 두껍게 수착됨, 단면형태 방형.
12	11-12	10-12	7.8	0.7	0.3	4.4	완형. 두부 돌출됨. 신부 목관의 목질흔 잔존, 단면형태 장방형.
13	11-13	10-13	(7.3)	0.6	0.6	8.3	말단부 결실. 신부 중위 목관의 목질흔 잔존, 단면형태 방형.
14	11-14	10-14	(7.6)	0.9	0.8	9.3	말단부 결실. 단면형태 방형.
15	11-15	10-15	(6.2)	0.9	0.4	5.2	하단부 결실. 두부 양단 돌출. 신부 단면형태 방형.
16	11-16	10-16	(5.5)	0.8	0.5	4.5	하부 결실. 신부 단면형태 방형.
17	11-17	10-17	(5.7)	0.8	0.6	5.1	하부 결실. 신부 단면형태 방형.
18	11-18	10-18	(5.1)	0.7	0.4	5.4	하부 결실. 신부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잔존, 단면형태 방형.
19	11-19	10-19	(4.8)	0.8	0.6	6.2	하부 결실. 신부 전면에 횡방향 목질흔 잔존, 단면형태 방형.
20	11-20	10-20	(5.1)	0.6	0.5	6.0	하부 결실. 단면형태 방형.
21	11-21	10-21	(5.3)	0.9	0.3	3.2	말단부 및 신부 측면 결실. 신부 상부 횡방향 목관 목질흔 잔존. 단면형태 방형.
22	11-22	10-22	(7.3)	0.8	0.5	9.3	말단부 결실. 신부 중위 약간 꺾임. 하단부 목관의 목질흔 잔존. 단면형태 방형.
23	11-23	10-23	(4.0)/ (1.6)	0.8	0.5	5.3	2개로 분리되어 잔존. 하단부 ‘ㄷ’자형으로 휘어짐. 신부 단면형태 방형.
24	11-24	10-24	6.6	0.8	0.5	6.3	하부 ‘ㄷ’자형으로 휘어짐. 신부 목관의 목질흔 잔존. 단면형태 방형.
25	11-25	10-25	(4.0)	—	0.3	2.8	두부 및 하부 결실. 신부 단면형태 장방형.
26	11-26	10-26	(7.9)	—	0.5	8.1	두부단 및 말단부 결실. 신부 단면형태 방형.



도면 11. 토광묘 4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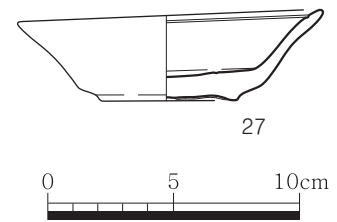
〈상부 수습유물〉

조사대상지의 북동쪽 상부 표토 제거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석곽묘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변으로 석곽묘가 유존하여 교란으로 확인된 유물로 추정된다.

27. 청자 접시(도면 12-26, 도판 10-27)

구연단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회백색(2.5Y 7/1)의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유약의 색조는 올리브 회색(2.5GY 6/1)으로 전면에 시유 하였으나, 굽 접지면 일부는 박락되었다. 전면에서 가는 빙렬이 확인된다. 내저면에는 굽보다 넓은 내저원각이 확인된다. 굽 접지면에서 굽은 모래 받침이 확인된다. 굽은 안굽의 형태를 띤다.

기고 3.4cm, 구경 11.9cm, 저경 4.8cm



도면 12. 상부 수습유물

Ⅳ. 조사성과

경산 조영동 251-22번지 외 1필지 유적 발굴조사는 단독주택 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 발굴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고려시대 석곽묘 1기, 토광묘 4기 등 총 5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석곽묘에서 청자 완 1점이 확인되었으며, 토광묘에서는 토기병 1점, 청동 완 1점, 청동 순가락 2점, 청동 시저 1벌, 철검 1점, 관정 18점 등이 확인되었다.

석곽묘는 1기가 확인되었는데 조사경계와 맞물려 전체적인 양상은 확인할 수 없었다. 축조양상은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도록 묘광을 설치하였으며, 벽석은 납작한 청석암반을 겹겹이 쌓아 평적하였다. 연구자료를 비교하여 보면, 영남지방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수혈식 석곽묘는 벽석의 축조 방법에 따라 판석을 수직 또는 평적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¹⁾ 이를 기준으로 경산 지역에서 확인된 석곽묘의 축조양상을 살펴보면 경산 신대리 유적¹²⁾에서는 두 양식의 석곽묘가 모두 확인되며, 경산 조영동 239-26번지 유적¹³⁾, 경산 조영동 251-7번지 유적¹⁴⁾에서는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본 조사대상지 석곽묘는 전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벽석은 평적하였으며, 바닥면은 특별한 시설이 없이 굴작면을 그대로 사용한 점은 동 시기 일반적으로 사용된 축조방식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은 청자 완 1점으로 형태는 해무리굽으로 굽 지름에 비해 굽 접지면이 좁으며, 기벽이 두껍고 유색은 탁하다.¹⁵⁾ 따라서 유물의 형태 등으로 볼 때, 11세기 4/4분기 정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토광묘는 4기가 확인되었는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되게 축조되었다. 평면형태는 3.4:1~3.8:1 정도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97~221cm, 너비 54~64cm 정도로 중형 정도의 크기에 속한다.¹⁶⁾ 매장주체부의 구조는 1~3호는 보강토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묘광을

11) 최윤경, 2016, 『고려시대 영남지역 석조묘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영남지역에서 확인되는 고려시대 석조묘의 축성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횡구식 석실묘와 수혈식 석곽묘가 동시기에 출현하는 단계로 10세기 초~10세기 중반정도이다. 2단계는 석조묘가 영남지역 전역에서 축조되는 단계로 10세기 정반~11세기 말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3단계는 축조가 감소되는 단계로 11세기 말~13세기 초에 해당된다.

12) 嶺南文化財研究院, 2010, 『慶山 新垓-夫迪地區 都市開發事業敷地內 慶山 新垓里 遺蹟Ⅱ』.

13) 홍익문화재단연구원, 2018, 「경산시 조영동 239-26번지(대학로67길14-15)단독주택 신축부지 발굴조사 약보고서」.

14) 한국문화재단, 2019, 『2017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V- 25. 경산 조영동 251-7번지 유적(홍익문화재단연구원)』.

15) 장남원, 2006, 『고려 중기 청자 연구』, 『이화연구총서3』.

중기 청자의 편년을 11세기 중기부터 13세기 중반까지 설정하였다. 이중 11세기말부터 한국식 해무리굽이 잔존하지만 12세기초 이후 대부분이 소멸되며, 청자의 기벽이 얇아지고 유색이 밝아지는 것이 많아진다. 12세기말부터 모래 빚음받침이 나타나며, 철화기법이 나타난다.

16) 박炫悅, 2010, 『高麗時代 土壙墓의 構造와 그 特徵』, 昌原大學校 大學院 文學碩士學位論文.

토광묘의 장·단축비율을 장방형과 세장방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기준은 장방형은 2:1~3:1, 세장방형은 3:1~5:1 정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묘광의 크기에 따라 소형은 길이 100~180cm, 너비 20~70cm이며, 중형은 길이 180~240cm, 너비 40~100cm, 대형은 길이 240~300cm, 너비 70~120cm 정도로 구분하였다.

파고 시신을 매장한 것¹⁷⁾으로 보이며, 4호는 묘광 주변으로 보강토 및 관정 등이 확인되어 목관을 안치하고 목관 주변으로 보강토를 채웠음을 알 수 있었다.

바닥시설은 1호, 3호, 4호에서 생토층을 굴착한 후, 바닥 전면에 암반편이 다량 포함된 갈색 사질점토를 깔아 정지하였다. 그 외 시상이나 요강, 관대 시설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토광묘는 전반적으로 능선과 직교하게 축조되었는데 자연스럽게 침향은 능선의 정상부를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¹⁸⁾

토광묘의 유물은 3호를 제외하고 청동 숟가락과 젓가락,¹⁹⁾ 청동 완 등 청동 제품과 토기병, 그리고 철검, 관정 등 철기류가 전체적으로 빈약하게 출토되었다. 청동 숟가락²⁰⁾은 총 3점으로 모두 묘광의 장벽 쪽에서 출토되었으나 위치가 각각 다르게 확인되었는데, 1호는 머리쪽, 2호는 중앙, 4호는 발치 쪽에서 확인되었다.

청동 숟가락의 형태는 술부는 모두 유엽형이다. 자루는 굴곡이 있는 'S'자 형태를 보이며, 술목에서 병 말단부로 갈수록 폭이 점점 넓어진다. 병 말단부의 형태는 연미형과 능형으로 두 가지의 형태가 출토되었다. 이 외에 도기병의 형태가 저부에서 구연으로 갈수록 너비가 넓어지는 형태를 보이며, 청동 완은 구연과 대각이 확인되었다.

청동 숟가락의 고려시대 대표적인 형태는 술목에서 점점 넓어지다가 병 말단부가 제비꼬리처럼 갈라지는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전형적인 것은 말단부에 못미쳐 한번 단이 지면서 날개를 이루며 두 갈래로 갈라지는 연미형 자루에 유엽형의 술부가 결합되는 형태이다. 고려시대 토광묘에서 청동 숟가락이 부장되는 시기는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초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11세기 말이나 12세기 전반경에는 술부가 유엽형이나 타원형으로 변화한다고 보고되어 있다.²¹⁾ 조사대상지 출토 청동 숟가락의 형태를 보면 술부는 유엽형이며, 연미형의 꼬리가 확인되고 있다. 청동 숟가락의 병 말단부와 병 부 및 술부의 형태, 청동 합이 부장되는 점²²⁾ 등으로 미루어 토광묘의 축조 시기는 12세기 중엽 정도

17) 박炫悅, 2010, 『高麗時代 土壙墓의 構造와 그 特徵』, 昌原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박미옥, 2006, 『고려 토광묘 연구-부장양상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러한 부장 양상은 고려시대 전 시기에 걸쳐 확인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다만 철정이 확인되지 않은 분묘의 경우라도 天板, 地板, 側板을 서로 결구할 수 있도록 깎아 나무췌기를 이용한 경우도 상주 청리유적(한국문화재 보호재단, 1999) 토광묘에서 확인된 예도 있다.

18) 이재철, 2013, 「경상도지역 고려시대 토광묘의 공간배치 변화에 대한 연구」, 『야외고고학 제17호』

19) 정의도, 2007, 『韓國古代靑銅匙箸研究-高麗時代-』, 『석당논총 38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청동숟가락의 분묘 매납은 12세기 요·금·원나라 등 북방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장법의 변화가 일어나 숟가락을 분묘에 부장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숟가락 부장의 풍습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당시 채식 위주였던 식단이 육류를 많이 섭취하게 되는 변화와 식탁에 국이 등장하면서 청동숟가락이 당시 식생활에 새로운 상징으로 인식되어 무덤에 부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젓가락이 숟가락에 비해 출토 빈도수가 낮은 것은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 윤성재, 2015, 「고려시대 분묘출토 청동수저」, 『역사실학회』역사와 실학 56.

수저는 음식을 먹기 위한 필수 도구로,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부장품으로 청동수저가 등장하는 것은 고려시대부터이며, 삼국시대의 무덤에서 숟가락이 출토된 것은 신라 금관총과 백제 무녕왕릉 등에서 부장품으로 청동수저가 출토된 예가 있지만 본격적으로 청동숟가락과 젓가락이 부장되기 시작하는 것은 11세기 후반부터이며,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 졌다.

21) 정의도, 2007, 『韓國古代靑銅匙箸研究-高麗時代-』, 『석당논총 38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2) 金大德, 2009, 『慶山地域 朝鮮時代 墳墓에 대하여』, 『聖林考古論叢』, 성림문화재연구원.

12세기에는 청동숟가락이 청동합이나 청자와 함께 부장되기 시작한다.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본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는 협소한 면적이지만 고려시대 묘 5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주변 조영동 251-7번지 유적, 조영동 239-26번지 유적, 임당 D-Ⅲ구역 유적 등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석곽묘 및 토광묘의 분포범위와 성격이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전(N-S), ②조사중(SW-NE))



도판 2. 조사대상지 조사후 전경(①SW-NE, ②NW-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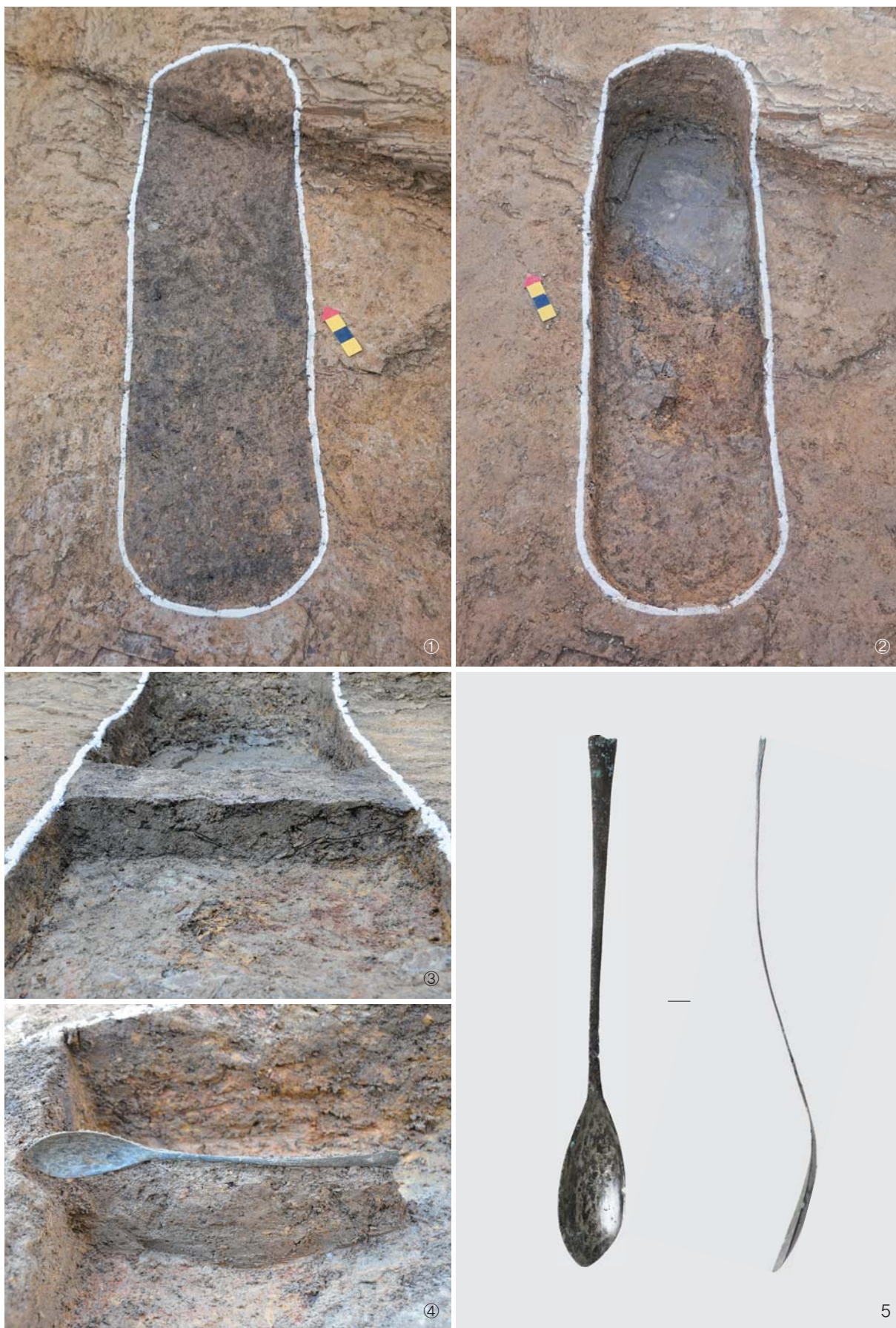
도판 3. 석곽묘 1호(①조사전(SW-NE), ②조사중(SW-NE), ③조사후 확장(SE-NW), ④유물 출토상태, ⑤~⑦벽석 축조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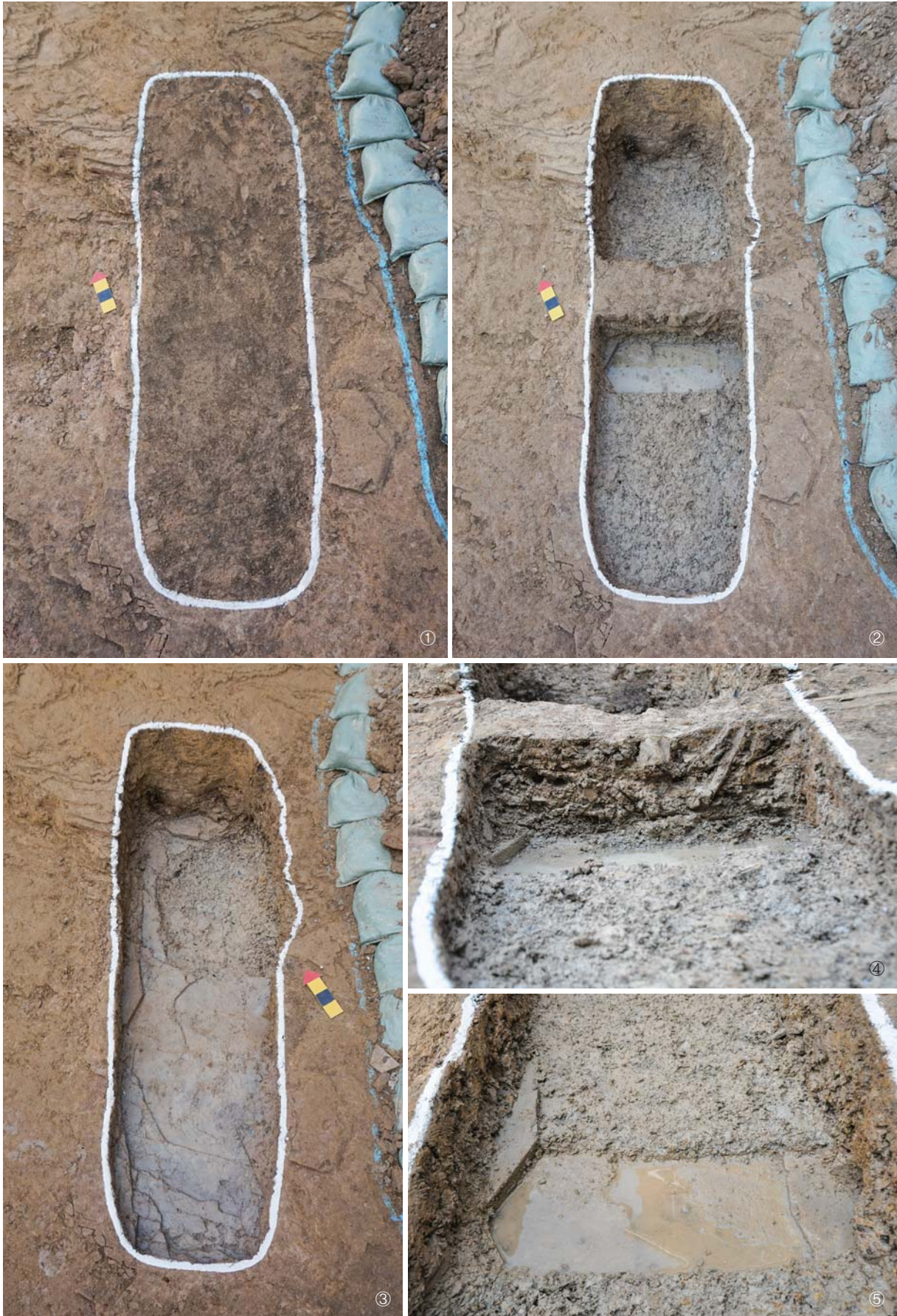
도판 4. 석곽묘 1호 출토유물(1), 토광묘 1호(①조사전(SW-NE), ②조사후(SW-NE), ③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도판 5. 토광묘 1호(①②유물 출토상태, ③조사후(NW-SE), 2~4: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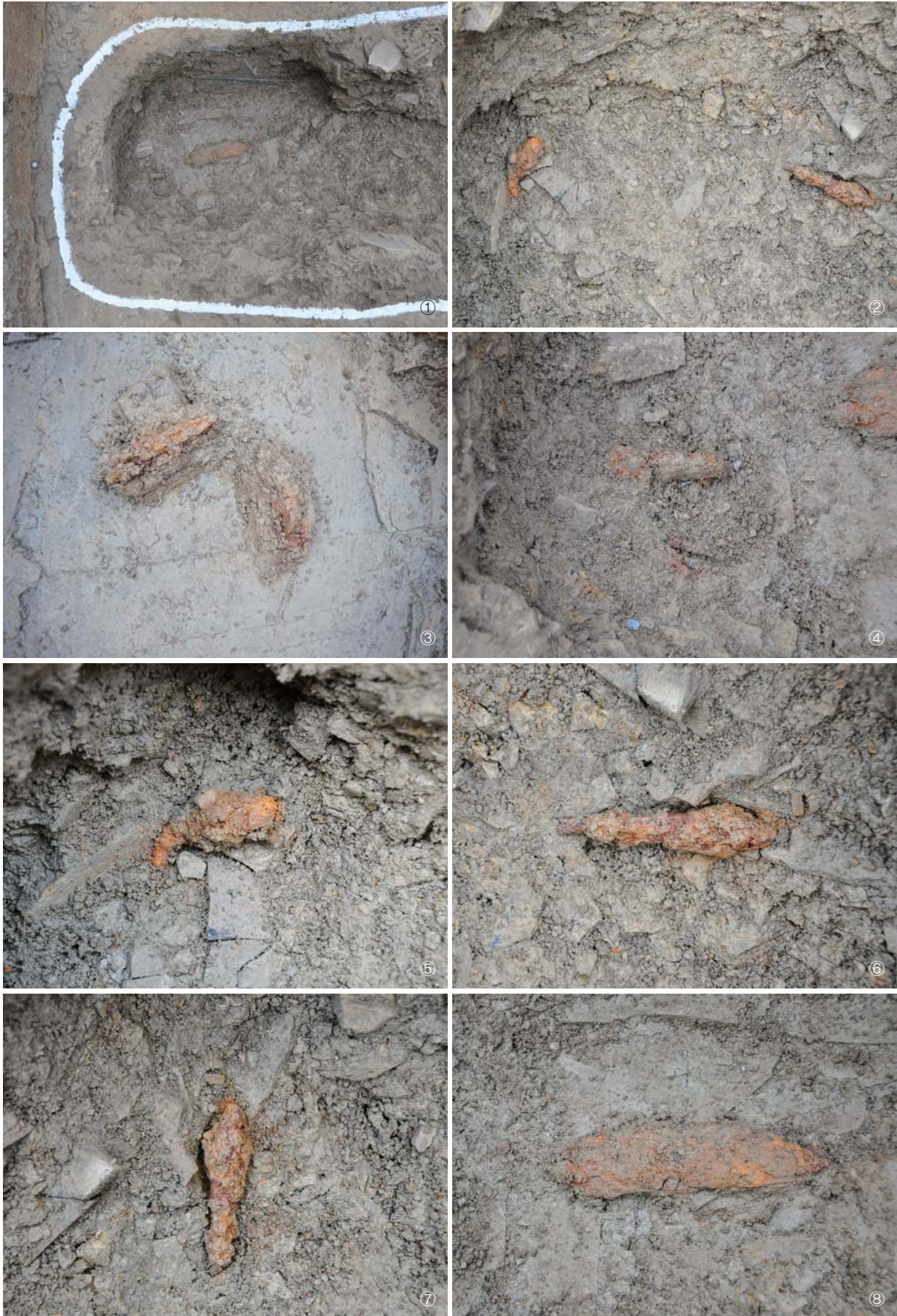
도판 6. 토광묘 2호(①조사전(SW-NE), ②조사후(SW-NE), ③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5:출토유물)



도판 7. 토광묘 3호(①조사전(SW-NE), ②조사중(SW-NE), ③조사후(SW-NE), ④토층, ⑤바닥보강토)



도판 8. 토광묘 4호(①조사전(SW-NE), ②조사중(SW-NE), ③조사후(SW-NE), ④토층, ⑤유물 출토상태)



도판 9. 토광묘 4호 유물 출토상태



도판 10. 토광묘 4호 출토유물(6~26), 상부 수습유물(27)

경산 조영동 251-22번지 외 1필지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053-0001	청자 완	1	석곽묘 1호	토도류	고려시대	6.3	14.6	4.1	5-1 4-1	Y
2017-1053-0002	토기병	1	토광묘 1호	토도류	고려시대	잔존 27.9	0.0	11.4	7-2 5-2	Y
2017-1053-0003	청동 완	1	토광묘 1호	금속류	고려시대	7.0	17.3	13.5	7-3 5-3	Y
2017-1053-0004	청동 순가락	1	토광묘 1호	금속류	고려시대	28.0	3.6	0.55	7-4 5-4	Y
2017-1053-0005	청동 순가락	1	토광묘 2호	금속류	고려시대	29.4	3.8	0.1	8-5 6-5	Y
2017-1053-0006	청동 순가락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20.7	3.2	0.2	11-6 10-6	Y
2017-1053-0007	청동 젓가락	2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24.3	0.4	0.25	11-7 10-7	Y
2017-1053-0008	철검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13.8	3.5	0.1	11-8 10-8	Y
2017-1053-0009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10.2	0.0	0.4	11-9 10-9	Y
2017-1053-0010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8.0	0.7	0.7	11-10 10-10	Y
2017-1053-0011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7.5	1.0	0.4	11-11 10-11	Y
2017-1053-0012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7.8	0.7	0.3	11-12 10-12	Y
2017-1053-0013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7.3	0.6	0.6	11-13 10-13	Y
2017-1053-0014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7.6	0.9	0.8	11-14 10-14	Y
2017-1053-0015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6.2	0.9	0.4	11-15 10-15	Y
2017-1053-0016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5.5	0.8	0.5	11-16 10-16	Y
2017-1053-0017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5.7	0.8	0.6	11-17 10-17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053-0018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5.1	0.7	0.4	11-18 10-18	Y
2017-1053-0019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4.8	0.8	0.6	11-19 10-19	Y
2017-1053-0020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5.1	0.6	0.5	11-20 10-20	Y
2017-1053-0021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5.3	0.9	0.3	11-21 10-21	Y
2017-1053-0022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7.3	0.8	0.5	11-22 10-22	Y
2017-1053-0023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4.0/1.6	0.8	0.5	11-23 10-23	Y
2017-1053-0024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6.6	0.8	0.5	11-24 10-24	Y
2017-1053-0025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4.0	0.0	0.3	11-25 10-25	Y
2017-1053-0026	관정	1	토광묘 4호	금속류	고려시대	잔존 7.9	0.0	0.5	11-26 10-26	Y
2017-1053-0027	청자 접시	1	상부 수습유물	토도류	고려시대	3.4	11.9	4.8	12-27 10-27	Y

掘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경산 조영동 251-22번지 외 1필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단			
	住所	(135-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編輯者	박종섭, 박강민, 김진경, 김근재, 강성귀, 하혜진				
調査 緣由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박강민, 김진경, 김근재, 안혜민				
遺蹟調査地番	경상북도 경산시 조영동 251-22, 251-94번지				
調査面積	104㎡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석곽묘	고려시대	1	청자 완		
토광묘	고려시대	4	청동 숟가락, 청동 젓가락, 관정, 토기병 등		

155. 홍천 신장대리 63-15번지 유적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목 차

I. 조사개요	155-9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55-11
1. 조사지역의 위치	155-11
2. 지리적 환경	155-11
3. 고고학적 환경	155-12
4. 역사학적 환경	155-16
III. 조사내용	155-21
1. 조사지역 현황 및 조사방법	155-21
2. 토층	155-22
3. 유구 및 유물	155-24
〈통일신라〉	155-24
(1) 와관묘	155-24
〈나말여초〉	155-29
(1) 수혈주거지	155-29
(2) 석렬유구	155-30
(3) 석축유구	155-33
(4) 매납유구	155-35
〈고려〉	155-37
(1) 방형 석렬유구	155-37
(2) 보도시설	155-38
(3) 1호 적석유구	155-40
(4) 2호 적석유구	155-43
(5) 1호 적심	155-44
(6) 2호 적심	155-44
(7) 3호 적심	155-46
(8) 부석(추정보도)유구	155-47
〈수습유물〉	155-49
IV. 조사성과	155-52

지 도 목 차

지도 1. 토양환경지도-퇴적양식(출처:흙토람)	155-11
지도 2. 지질도 상의 조사지역(1:50,000)	155-13
지도 3. 동여비고상의 조사지역	155-17
지도 4.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1918년)에서의 조사지역(1:50,000)	155-18
지도 5.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155-19
지도 6. 조사대상지 수치 지형도(1:5,000)	155-20

도면목차

도면 1. 조사지역 유구 배치도	155-21
도면 2. 조사지역 기준토층(동벽 중앙)	155-23
도면 3. 조사지역 내 탐색 pit 남벽토층	155-23
도면 4. 외관묘 평입단면도	155-24
도면 5. 외관묘 출토유물(1~2)	155-25
도면 6. 외관묘 출토유물(3)	155-26
도면 7. 외관묘 출토유물(4)	155-27
도면 8. 외관묘 출토유물(5)	155-28
도면 9. 수혈주거지 평단면도	155-29
도면 10. 수혈주거지 출토유물(6)	155-30
도면 11. 석렬유구 평단면도	155-31
도면 12. 석렬유구 출토유물(7~12)	155-32
도면 13. 석축유구 평단면도	155-33
도면 14. 석축유구 출토유물(13~20)	155-34
도면 15. 매납유구 평단면도	155-36
도면 16. 매납유구 출토유물(21~22)	155-36
도면 17. 방형 석렬유구 평단면도	155-37
도면 18. 보도시설 평단면도	155-38
도면 19. 보도시설 출토유물(23~27)	155-39
도면 20. 1호 적석유구 평단면도	155-41
도면 21. 1호 적석유구 출토유물(28~32)	155-42
도면 22. 2호 적석유구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33~34)	155-43
도면 23. 1호 적심 평단면도	155-45
도면 24. 2호 적심 평단면도	155-45
도면 25. 2호 적심 출토유물(35)	155-45
도면 26. 3호 적심 평단면도	155-46
도면 27. 3호 적심 출토유물(36~39)	155-47
도면 28. 부석(추정보도)유구 평단면도	155-48
도면 29. 부석유구 출토유물(40)	155-49
도면 30. 수습유물(41~45)	155-50

도 판 목 차

도판 1. ① 조사지역 원경, ② 조사지역 조사 전 전경	155-57
도판 2. 조사지역 전경 ① 1차, ② 2차	155-58
도판 3. 조사지역 기준토층 ① 남벽, ② 탐색 pit 남벽, ③ 동벽	155-59
도판 4. 외관묘 ① 조사 전 모습, ② 조사 후 모습	155-60
도판 5. 외관묘 ① 측면모습(북편), ② 측면모습(남편), 출토유물 1~3	155-61
도판 6. 외관묘 출토유물 4~5, 수혈주거지 ① 조사 전 전경	155-62
도판 7. 수혈주거지 ① 조사 후 전경, ② 구들모습, ③ 아궁이 피열모습, ④ 아궁이 세부, 출토유물 6	155-63
도판 8. 석렬유구 ① 조사 후 전경, ② 남편 세부, ③ 북편 세부, ④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7	155-64
도판 9. 석렬유구 출토유물 8~11	155-65
도판 10. 석렬유구 출토유물 12 / 석축유구 ① 노출 모습, ② 조사 후 모습	155-66
도판 11. 석축유구 ① 입면모습, ②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13~18	155-67
도판 12. 석축유구 출토유물 19~20 / 매납유구 ① 조사 후 모습	155-68
도판 13. 매납유구 ① 측면모습, ② 내부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21~22 / 방형 석렬유구 ③ 조사 후 전경	155-69
도판 14. 방형 석렬유구 ① 입면, ② 남서쪽 모서리 세부, ③ 남동쪽 모서리 세부, ④ 중앙 pit조사 후 모습, ⑤ pit내 토층모습	155-70
도판 15. 보도시설 ① 조사 후 전경(남-북), ② 조사 후 전경(동-서)	155-71
도판 16. 보도시설 ① 세부, ② 측면, 출토유물 23~25	155-72
도판 17. 보도시설 출토유물 26~27 / 1·2호 적석유구 ① 전경	155-73
도판 18. 1호 적석유구 ① 조사 전 전경, ② 조사 후 전경, ③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28	155-74
도판 19. 1호 적석유구 출토유물 29~32	155-75
도판 20. 2호 적석유구 ① 조사 후 전경, 출토유물 33~34	155-76
도판 21. 1·2호 적심 ① 전경 / 1호 적심 ② 조사 후 전경 / 2호 적심 ③ 조사 후 전경, 출토유물 35	155-77
도판 22. 3호 적심 ① 조사 후 전경, ② 단면 절개모습, ③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36~38	155-78
도판 23. 부석(추정보도)유구 ① 전경(남쪽에서), ② 남편 세부, ③ 중앙부 세부, ④ 남편 전경, ⑤ 남편 세부	155-79
도판 24. 부석(추정보도)유구 ①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40 / 수습유물 41~45	155-80

도판 25. ① 유구 실측 모습, ② 학술자문회의 모습.....	155-81
도판 26. ① 학술자문회의 모습, ② 유물선별회의 모습	155-82

I. 조사개요

발굴조사 대상지는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3-15번지로 최남희氏의 근린생활시설(치과의원)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234.5㎡)이다. 사업시행자는 건물 신축을 위해 홍천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홍천군에서는 조사지역이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보물 제80호)’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제3구역에 해당하므로, 공사 시행 전 입회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 시행 전 2017년 7월 28일에 조사지역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하였다.¹⁾ 입회조사 결과, 5개 층위가 확인되었는데, 4층에서 20~30cm 크기의 강자갈을 활용한 적석유구가 확인되었다. 또한 이 층위는 인근에서 기조사된 ‘홍천 신장대리 웨딩홀 신축부지 내 유적’에서 확인된 문화층과 연계되고, 다량의 기와와 도기편 등이 혼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공사 시행에 앞서 유적의 성격규명을 위한 정밀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문화재 보존조치(입회조사)결과서 및 의견서, 2017.08.01.)

이에 홍천군은 입회조사 결과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호(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문화재 보존대책을 통보하였다.(문화관광과-19899, 2017.08.09.)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협업포털을 통해 한국문화재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를 접수하였고, 재단에서는 우리 연구원에 발굴조사 대행을 의뢰하였다.(조사연구 1팀-2500, 2017.11.06.)

우리 연구원은 해당 지역에 대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실조사일수 10일에 대한 발굴조사 허가(제2017-1422호)를 받았고(발굴제도과-12915, 2017.11.08.),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하였다.(2017.11.22.)

현장조사는 2017년 11월 23일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방형 석렬유구 1기, 보도시설 1기, 적석유구 2기, 적심 3기가 확인되었고, 나말여초시기 문화층에서 석렬유구 1기와 석축유구 1기, 매납유구 1기,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 와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년 12월 5일에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학술자문회의 개최 결과, ‘하층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되지 않은 부분은 조사한 후 유구의 분포양상을 살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술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조사지역 남쪽 부분에 대해 하층 유구의 유무를 파악하고, 인근 건물의 민원으로 조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하층에서는 나말여초 시기의 주거지 1동, 미조사 부분에서는 고려시대 부석(추정보도)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후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전면복토를 실시하고, 2017년 12월 15일에 조사를 완료하였다.

홍천 신장대리(63-15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조사단 구성

1) 입회기관: 예맥문화재연구원

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지 현 병((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장)
자 문 위 원 : 정 계 옥(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심 재 연(한림대학교 한림고고학연구소 연구교수)
책임조사원 : 윤 석 인((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기획연구실장)
조 사 원 : 유 용 수((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조사연구4팀장)
준 조 사 원 : 신 유 리((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조사연구4팀 연구원)
보 조 원 : 안 소 희((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조사연구4팀 연구원)

*()는 조사당시 직명임.

본 발굴조사는 조사단장을 중심으로 윤석인의 책임하에 유용수가 담당하였으며, 신유리·안소희가 보조하여 실시하였다.

보고서 작성은 아래와 같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총 괄 : 지 현 병
연 구 기 획 : 윤 석 인
현 장 조 사 : 지 현 병·윤 석 인·유 용 수·신 유 리·안 소 희
유 물 정 리 : 유 용 수·신 유 리·안 소 희
복원 및 실측 : 유 용 수·신 유 리·안 소 희·조 지 은
유 구 도 면 : 유 용 수·신 유 리·안 소 희
유 물 도 면 : 유 용 수·신 유 리·안 소 희
유구사진촬영 : 유 용 수·신 유 리·안 소 희
유물사진촬영 : 유 용 수·신 유 리
기획 및 행정 : 고 길 환·김 현 아
보 고 서 작 성 : I. 조사개요 - 유 용 수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 유 용 수·신 유 리·안 소 희
 III. 조사내용 - 유 용 수·신 유 리·조 지 은
 IV. 조사성과(고찰포함) - 유 용 수
편 집 : 유 용 수·신 유 리
수정 및 교열 : 윤 석 인
최 종 교 열 : 지 현 병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조사지역의 위치

이번 조사지역은 홍천군 소재지 내에 위치하며, 행정구역상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3-15번지이며,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 53' 02.3", 북위 37° 41' 17.5"이다. 홍천읍내 방향으로 진입하는 홍천교를 건너 홍천교 북단에 있는 홍천사거리에서 우측으로 약 320m 진행하면 'GS수퍼마켓'과 'K 컨벤션웨딩홀'이 보이는데, 조사지역은 이 두 곳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지역 일대는 남서쪽으로 약 100m 이격된 지점에 보물 제80호로 지정된 '희망리 당간지주'가 있으며, '홍천 희망리 376-49번지 내 유적'을 비롯하여 '홍천 신장대리 웨딩홀 신축부지 내 유적', '홍천 신장대리 57-7번지 일원 주택부지 내 유적'등의 매장문화재 조사가 이뤄진 유적들이 인근에 다수 분포하고 있다.

2. 지리적 환경(지도 1~2)

조사지역이 위치한 홍천군은 강원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다. 군의 경계는 북쪽으로 춘천시와 인제군, 서쪽으로 경기도 가평군과 양평군, 동쪽으로는 인제군과 양양군, 남쪽으로는 평창군과 횡성군에 접하고 있다. 경위도상 동경 127°32'~128°36', 북위 37°33'~37°57'사이에 위치한다.

지형은 태백산맥의 서사면 일부를 차지하여 기복이 심하고 동부와 북부에는 1,000m 이상의 높은 산들이 연이어 있어 산지가 전체 면적의 87% 이상을 차지한다. 해발고도는 약

150~1,000m 내외를 이루고 있으며 내면 지역은 해발 800m 이상의 고원지대로 구성되어 있다.

북쪽에 약수산(1,306m) · 가칠봉(1,240m) · 가마봉(1,191m) · 응복산(1,360m) · 구룡덕봉(1,388m), 동쪽에는 오대산(1,563m) · 상왕봉(1,493m) · 두로봉(1,422m), 남쪽에는 계방산(1,577m) · 운무산(980m) · 수리봉(960m) · 발교산(998m) · 오음산(930m), 서쪽에 장락산(627m) · 나산(628m) 등이 솟아 있다. 이밖에도 팔봉산(302m) · 공작산(887m) · 응봉산(868m) · 매화산(752m) 등 많은 산들이 연이어 있다.

수계는 모두 북한강 수계에 속하며, 홍천군에서 가장 큰 하천인 홍천강은 두촌면 철정리에서 장남천과 내촌천이 합류해 화양강이 되면서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화촌면 내삼포리에 이르러 군업천과 합



지도 1. 토양환경지도-퇴적양식(출처:홍토탐)

류하고, 굴운리에서는 풍천리천과 합류한다. 풍천리천과 합류한 홍천강(화양강)은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홍천읍 검울리에서 덕치천과 합류하고, 연봉리에 이르러 장전평천과 합류, 북쪽으로 흐르다가 북방면 하화계리에서 성동천과 합류한다. 성동천과 합류한 홍천강은 북서쪽으로 흐르다가 굴지리에 이르러 굴지천과 합류하고 다시 남서쪽으로 흐르다가 남면 남노일리에 이르러 양덕원천과 합류하고, 곡류하여 서쪽으로 흐르며 서면 팔봉리에서 팔봉천, 어유포리에서 구만천과 합류한다. 합류한 홍천강은 계속 서쪽으로 곡류하며 반곡리에서 두미천, 중방대리에서 중방대천, 모곡리에서 길곡천과 합류해 북한강으로 흘러든다.

홍천군은 내륙산간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적지의 발달이 미약한 편이지만, 관내의 수계를 따라 소규모의 충적지가 분포하고 있으며 홍천분지를 비롯해 소규모의 하안단구나 산록완사면이 형성되어 있어 주요 생활터전이 되고 있다.

지질은 기반을 이루고 있는 선캄브리아기의 경기변성암복합체를 비롯해 주라기의 대보화강암과 백악기 화산암류 및 퇴적암류, 제4기의 충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양은 3차수 내지 4차수 하천을 따라 저구릉지, 범람원에 분포된 토양 등이 분포한다. 전면적의 50% 이상이 화강암지대이고, 배수가 양호해 산성화된 토양이 대부분이며 전반적으로 토양이 잘 발달하여 식생이 양호하다.

기후는 지형상 내륙산간지역에 위치해 있어 태백산맥으로 인한 기온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특히 여름철에는 편현상으로 한발이 심한 편이다. 연평균 기온 10°C, 1월 평균기온 -6.1°C, 8월 평균기온 24°C로 연교차가 심하다. 그러나 내면과 서석면 등지의 산간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연평균 강수량이 1,265mm로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많다. 평균기온이 낮아 식물생육기간이 짧은 고랭지기후를 나타낸다.

한편 조사지역인 신장대리는 홍천군 소재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 홍천강과 인접해 있어 조사지역 주변 일대가 충적대지에 해당한다.

3. 고고학적 환경(지도 3,4)

홍천군 일원은 수계를 따라 형성된 하안단구와 충적지에 구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분포하며, 시대순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구석기시대 유적으로는 사둔지 유적²⁾, 수삼수매장부지 유적³⁾, 작은솔밭 유적⁴⁾, 백이·송정·돌터거리 유적⁵⁾, 연봉 유적⁶⁾, 내·외삼포리 유적⁷⁾ 등이 있다. 2005년 조사된 백이 유적은 해발 156m내외의 고위면에 형성되어 있으며 주먹도끼류의 석기들과 주먹대패, 찌개, 여러면석기 등 비

2) 홍천군·강원대학교·강원문화연구소, 1996, 『홍천군의 선사유적』, 『홍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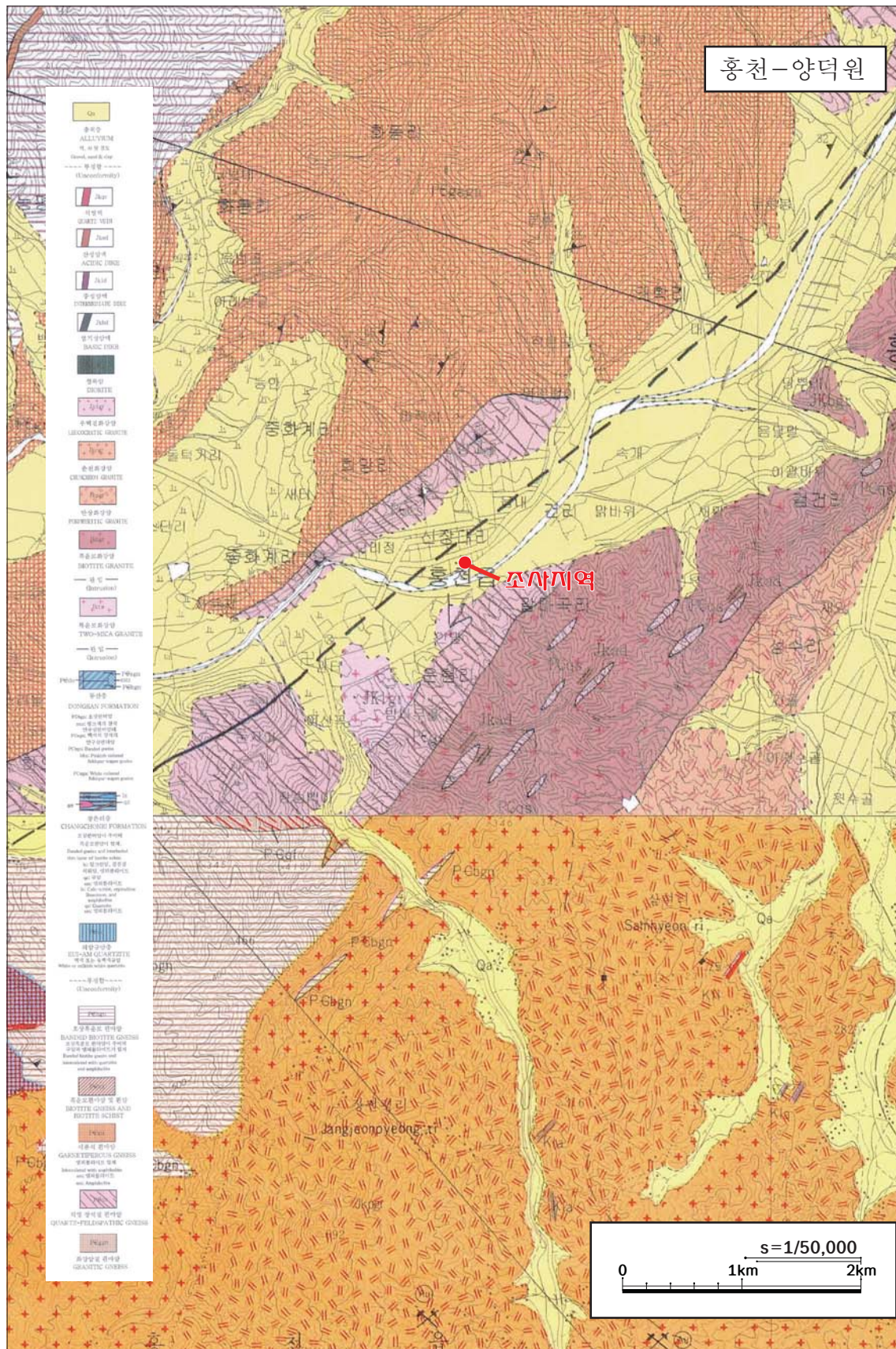
3)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홍천 하화계리 수삼수매장 건축부지내 구석기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4) 강원고고학연구소, 2004, 『홍천 하화계리Ⅲ 작은솔밭 구·중석기유적』.

5)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홍천 백이·돌터거리·송정유적』.

6) 강원문화재연구소, 2007, 『홍천 연봉 구석기유적』.

7) 강원문화재연구소, 2009, 『홍천 내·외삼포리 구석기유적』.



지도 2. 지질도 상의 조사지역(1:50,000)

교적 중·대형의 석기 갯춤새가 드러나 홍천강유역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석기구성상을 보여주고 있다. 중석기시대로 보고된 유적으로는 하화계리 사둔지 유적⁸⁾, 도둔 유적⁹⁾, 작은솔밭 유적이 있다. 그리고 홍천강 일대에서 본마을, 다리구석(708번지), 새말, 남노일리 유물산포지가 보고되었다.¹⁰⁾ 특히 사둔지 중석기유적에서는 석영이나 수정, 흑요석 등 다양한 암질로 만든 쯔돌날몸돌 및 쯔돌날 굽개, 밀개, 새기개, 뚜르개 등 세석기들이 수 천점 발굴되었으며, 이 유적의 발굴을 계기로 우리나라 후기구석기 최말기 혹은 중석기시대의 문화양상을 논의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하화계리 소단리 유적, 화촌면 성산리 유적 등에서 지표조사되었고,¹¹⁾ 최근에는 역내리 유적¹²⁾, 철정리Ⅱ 유적¹³⁾, 성산리 유적¹⁴⁾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와 수혈유구 야외노지 등이 조사되었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하화계리 소단리¹⁵⁾, 도둔, 능평리, 백이, 구만리¹⁶⁾, 화촌면 군업리¹⁷⁾, 외삼포리¹⁸⁾, 성산리, 남면 시동리, 동면 월운리, 후동리, 두촌면 장남리¹⁹⁾, 철정리²⁰⁾ 등이 보고되었고, 이중 하화계리²¹⁾, 외삼포리, 성산리, 철정리 유적은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으로 초기로부터 후기에 이르는 다수의 주거와 분묘 등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지표조사되어 보고된 월운리 유물산포지 및 고인돌과 개운리 유물산포지가 있다.²²⁾

철기시대 유적은 하화계리 사둔지 유적, 결운리 유적²³⁾, 화촌면 외삼포리 유적, 두촌면 철정리Ⅱ 유적이 있다. 특히 하화계리 유적²⁴⁾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주거지 6동, 폐기장 1기, 원형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여자형, 육각형 등이 확인되었고, 출토유물은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의 토기류와 살포, 꺾쇠, 정, 팽이, 철촉 등의 철기류가 확인되었다. 이 발굴조사를 통해 3~4세기경의 주거양상과 이 시기 북한강유역 정치세력의 양상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

8) 최복규 외, 1992, 「홍천 하화계리 중석기시대유적 발굴조사 보고」, 『중앙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9) 강원고고학연구소, 1996, 『홍천 하화계리 도둔 중석기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0) 국립춘천박물관, 2002·2003, 『연보』.

11) 강원고고학연구소, 1996, 앞의 책.

12)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a, 「역내리유적」, 『하화계리·철정리·역내리유적』.

13) 강원문화재연구소, 2010, 『홍천 철정리Ⅱ 유적』.

14)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 『홍천 성산리유적』.

15) 최복규 외, 1992, 「홍천 하화계리 고인돌 발굴조사보고」, 『중앙고속도로 건설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16) 홍천군·강원대학교·강원문화연구소, 1996, 앞의 책.

17)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6, 『강원도의 선사문화』.

홍천군·강원대학교·강원문화연구소, 1996, 앞의 책.

18) 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홍천 외삼포리유적』.

19)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7, 「선사유적」, 『홍천군의 전통문화』.

홍천군·강원대학교·강원문화연구소, 1996, 앞의 책.

20) 강원문화재연구소, 2010, 앞의 책.

21)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2, 『홍천 하화계리 취락』.

22) 국립춘천박물관, 2002·2003, 앞의 책.

23) 홍천군·강원대학교·강원문화연구소, 1996, 앞의 책.

24)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a, 앞의 책.

되고 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역내리 유적²⁵⁾과 역내리 고분군²⁶⁾이 있는데, 역내리 유적에서는 삼국시대 건물지와 주거지가, 역내리 고분군에서는 삼국시대 고분이 조사되었다. 역내리 고분군은 횡혈식 석실묘 1기와 횡구식 석실묘 13기가 조사되었으며, 이는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후반까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1호분의 고임식 천정구조로 보아 피장자가 고구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철정리 유적²⁷⁾에서 고구려토기가 출토된 수혈부 구상유구가 조사되어 인접한 역내리 고분군과의 관련성이 주목된다. 역사시대 유적으로는 먼저 관방 유적으로 석화 산성지, 대미 산성지, 오성 산성지, 방내리 성지, 오음 산성지, 성동리 산성지, 운무 산성지와 봉화산 봉수지, 와동리 봉수지, 장전평리 봉수지, 유목정리 봉수지 등이 있으며, 고분 유적은 홍천읍 희망리 석화산성 내에서 도굴된 분묘 2기가 확인된 바 있다. 이외에도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물걸리사지 발(시)굴조사를 통해 금당지를 비롯해 회랑지, 건물지, 적심 및 다수의 유물(통일신라말~고려시대)이 확인되었고²⁸⁾,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 강원고고문화연구원에서 물걸리사지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금당지(정면 3칸, 측면 4칸)를 포함하여 건물지 5동, 적심 2기 배수로 1기가 확인되었다.²⁹⁾ 또한,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보물 제80호)주변 유적 발(시)굴조사에서는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는 건물지 적심석을 비롯해 통일신라시대 인화문토기, 조선시대 백자 등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어 보물 제80호인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와 관련된 사찰의 건물지로 추정되는 유구와 관련 유물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³⁰⁾

조사지역은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홍천강이 크게 회절하며 형성된 충적지에 분포하고 있다. 토양환경도를 통해 살펴보면 하천변에 분포하는 충적지에 속하며, 홍천읍사무소를 중심으로 하는 읍내 중심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지질도에서 살펴보면 제4기 충적층에 해당하고 있어, 조사지역 일대가 모두 북한강 수계인 홍천강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충적지형임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부터 하천과 관련된 지형은 충적지와 하안단구 등이 발달하여 이와 관련된 유적이 북한강 유역에서 다수 확인되기도 한다. 홍천지역은 충적지의 발달이 미약하지만 북한강 수계 주변으로 홍천 철정리 유적, 성산리 유적, 하화계리 유적, 신장대리 유적 등 청동기~철기시대, 삼국~조선시대에 이르는 대규모 취락유적이 확인되기도 하였고, 역내리 등지에서는 신라고분 유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조사지역이 위치하는 신장대리 일대는 홍천 희망리사지와 희망리 당간지주(보물 제80호)를 중심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유적들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이다. 최근 주변에서 이뤄진 발굴조사 성과를 살펴보면, 먼저, 조사지역 동쪽에 연접해 홍천 신장대리 웨딩홀 신축부지 내 유적³¹⁾에서 삼국~통일신라시대 주거지 10동, 나말~조선시대 건물지 7동, 적심 22기, 석렬유구 2기 등이 조사된 바 있고, 조사지

25)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a, 앞의 책.

26)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b, 『홍천 역내리 고분군』.

27)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a, 앞의 책.

28) 國立春川博物館, 2007, 『洪川 物傑里寺址- 學術調査報告書』.

29)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洪川 物傑里 寺址 · 홍천 물걸리 삼층석탑(보물 제545호) 주변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0)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4,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보물 제80호) 주변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31)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홍천 신장대리 유적-홍천 신장대리 웨딩홀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역의 동남쪽에 위치하는 홍천 신장대리 57-7번지 일원 주택부지 내 유적³²⁾에서는 적심석과 주거지 1동이 조사되었으며, 신라~조선시대에 이르는 기와, 토기, 자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또, 조사지역 서남쪽, 희망리 당간지주 북편에 연접해 조사된 희망리 376-49번지 발굴조사³³⁾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적석유구 1기와 주거지 1동, 초기철기시대 주거지 1동 등이 조사되었다. 특히, 천석을 일정 두께로 채워 조성한 통일신라시대 대지조성층이 넓은 범위로 확인되기도 하였다. 가장 최근에 이뤄진 홍천 희망리 당간지주 주변유적 발굴조사³⁴⁾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수혈주거지 2동과 건물지 2동, 대지(절터)조성을 위해 조성한 석축·석렬 3개소, 와적층 1개소가 확인되었고, 희망리 당간지주에 대한 pit조사를 통해 축조시기가 통일신라시대임을 밝혔다. 또, 조선시대 유구로 건물지 1동과 적석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이처럼 조사지역 일원은 철기시대, 삼국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이 되어왔다.

4. 역사학적 환경(지도 5,6)

삼국시대의 홍천은 먼저 백제의 영토였던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고구려때에 벌력천현(伐力川縣)으로 불리었다가 신라 경덕왕 16년(753년) 녹효현(綠驍縣)으로 개칭되었고, 朔州(춘천)의 속현이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고려 현종 9년에 홍천(洪川)으로 고치고 춘주(春州, 지금의 춘천) 관할에 두었는데 본조(本朝, 즉 조선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같은 문헌에 홍천이 별호로 화산(花山)으로 불리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1395년 교주도와 강릉도가 합하여 강원도라고 하였고, 홍천현은 강원도 홍천현이 되었으며, 영월군, 횡성현과 함께 원주목의 관할을 받게 되었다. 1895년 조선팔도제가 폐지되고 23부 제도가 시행되면서 강원도는 춘천부와 강릉부로 분리되었고, 이때 홍천현은 홍천군으로 개칭되어 춘천부의 관할이 되었으며, 1896년 조선 13도 8부 1목 331군 제도의 시행에 따라 홍천군은 춘천부의 소속에서 강원도의 하부조직으로 지방행정단위가 변경되었다. 일제강점기 홍천군은 강원도에 속한 25군의 한 군으로 9면, 97동리가 속하게 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 인제군 신남면과 내면을 편입하여 종전 9개면에서 11개면이 되었다가 동년 10월 신남면이 인제군에 반납되면서 10개면이 되었다. 1963년 홍천면이 읍으로 승격되면서 1읍 9면이 되었다. 현재 홍천군은 1읍(홍천읍), 9면(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내면)으로 이뤄져 있다.³⁵⁾

32)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홍천 신장대리 유적 : 홍천 신장대리 57-7번지 일원 주택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33) 서울문화유산연구원, 2016, 『홍천 희망리(376-49번지)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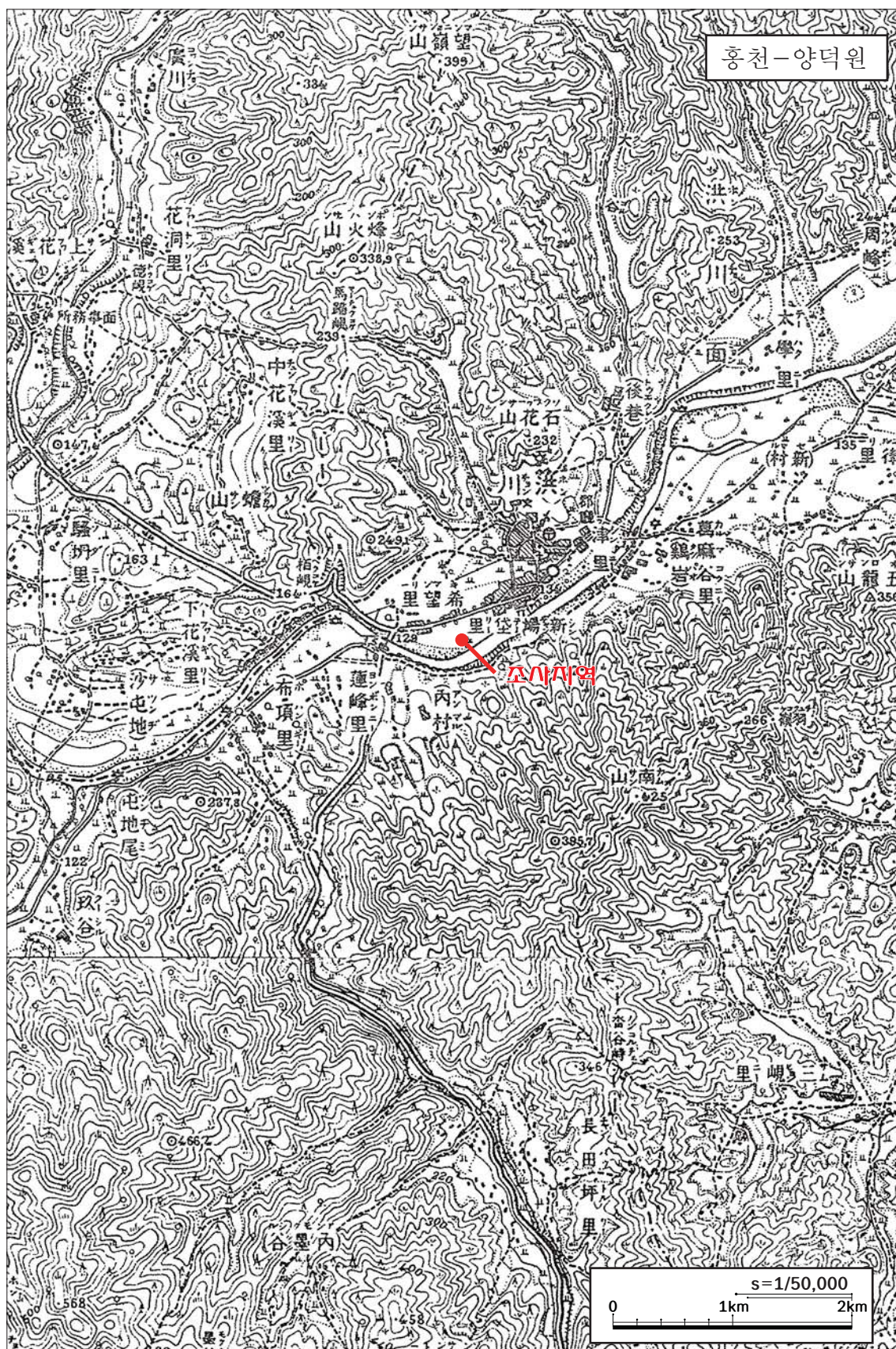
34) 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9, 『洪川 希望里 遺蹟』.

35) 洪川郡 · 강원대학교 강원문화연구소, 1996, 『洪川郡의 歷史』, 『洪川郡의 歷史와 文化遺蹟』.

江原文化財研究所 · 洪川郡, 2007,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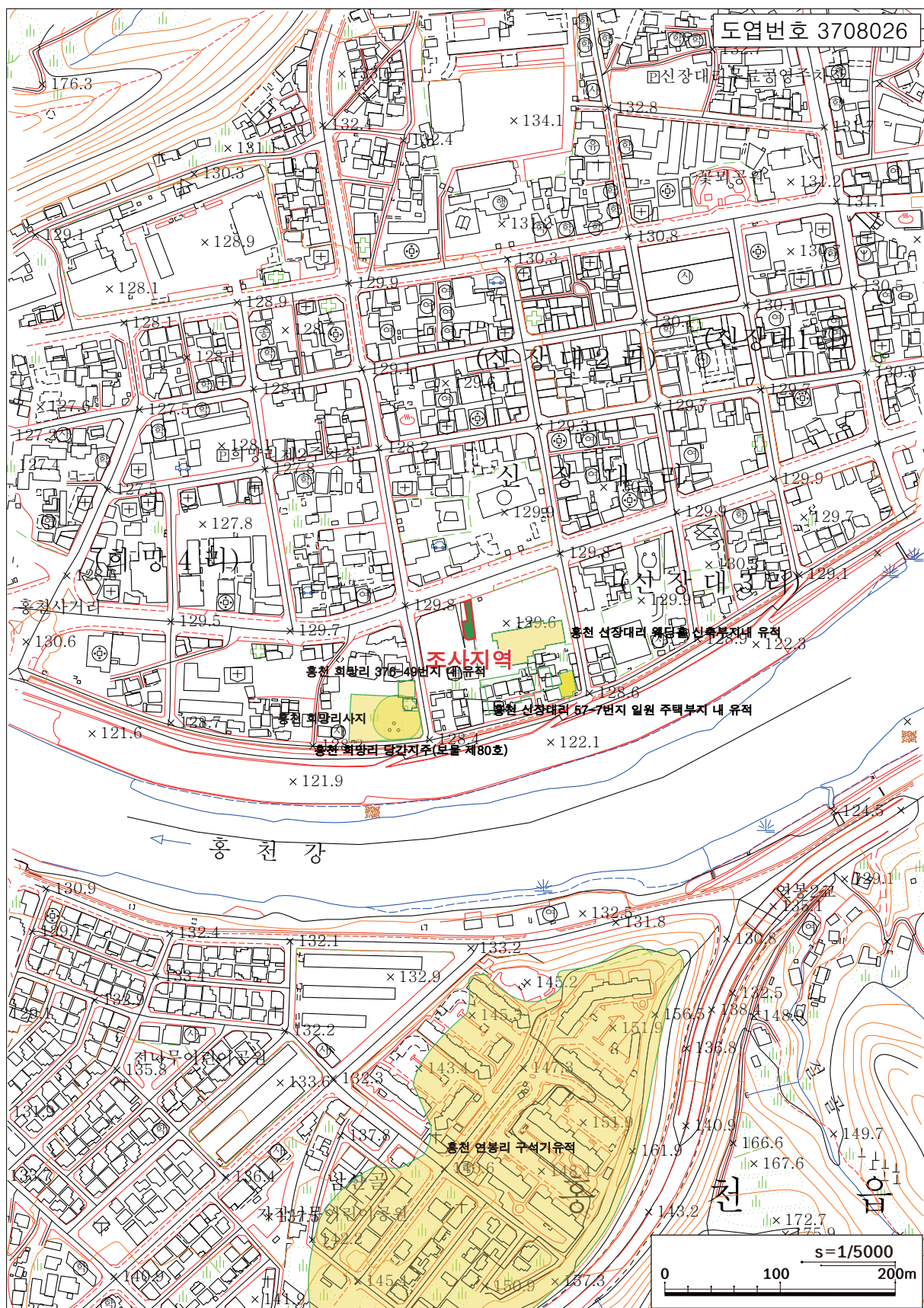
지도 3. 동여비고상의 조사지역



지도 4.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1918년)에서의 조사지역(1:50,000)



지도 5.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지도 6. 조사대상지 수치 지형도(1:5,000)

Ⅲ.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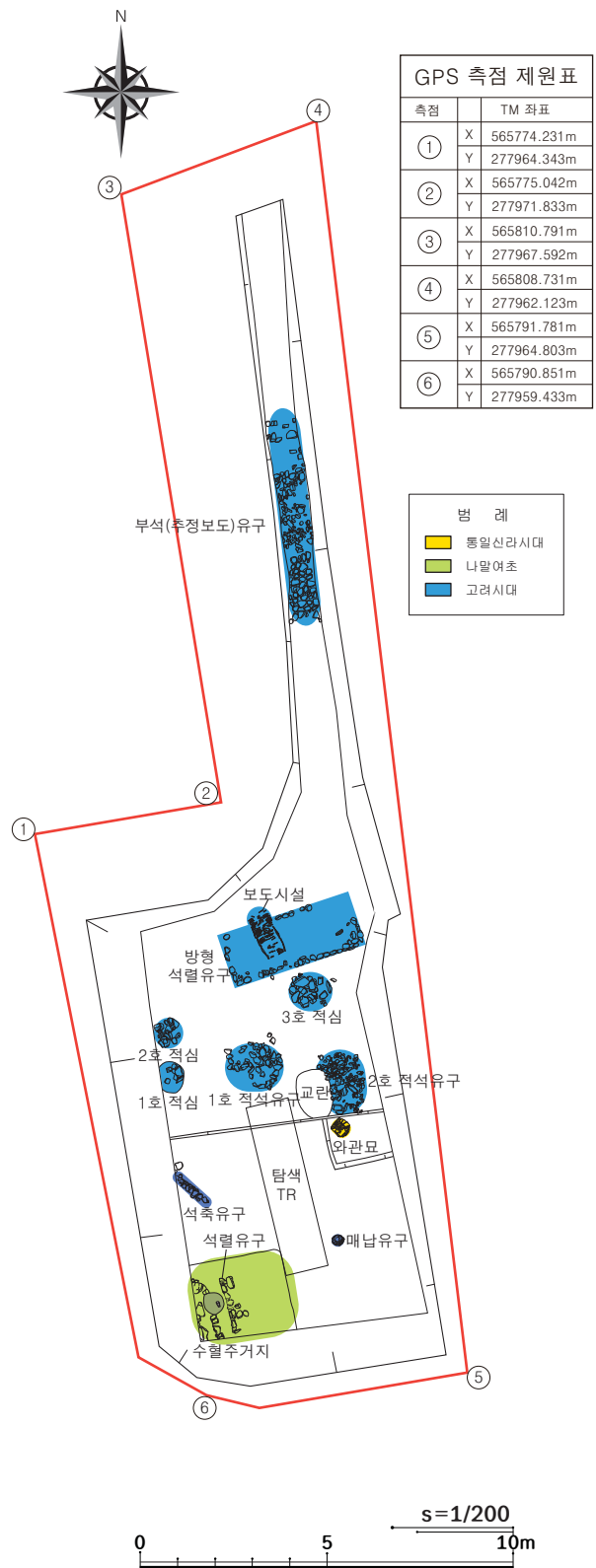
1. 조사지역 현황 및 조사방법 (도면 1, 도판 1~2)

조사지역은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3-15번지에 위치하며, 조사면적은 234.5㎡이다. 조사지역은 홍천강 북안의 해발 129m 안팎의 충적지로 북쪽으로는 홍천읍사무소, 서쪽으로는 GS슈퍼마켓, 동쪽으로는 K컨벤션웨딩홀이 있다.

조사지역은 기존의 건물을 철거한 뒤 평탄지로 조성되어 있는 상태로 입회조사 결과 문화층인 암갈색 사질점토층을 중심으로 20~30cm크기의 천석을 사용한 적석유구와 다량의 도기·기와편이 확인되어 이와 관련된 유적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조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조사지역에 대한 현황사진을 촬영하고, 제토범위를 설정하였다.

제토는 조사 경계에서 일정간격(50~70cm)을 두고 윤곽을 설정한 뒤 실시하였다. 제토과정에서 조사지역의 북서쪽에 연접한 건물의 주민이 건물기초 부설로 인한 붕괴우려를 나타내며 민원을 제기하여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북쪽 지역에 대해서는 건물과 2m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폭 1m가량으로 제토를 실시하였다. 조사지역에 대한 제토는 유구가 확인된 층위를 기준으로 실시하였고,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곳은 탐색pit를 설치하여 토층양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한 뒤 북쪽지역에 대해서는 가장 상층인 고려시대 문화층을 기준으로 제토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남쪽 부분은 나말여초 문화층과 그 아래의 통일신라시대 문화층까지 제토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3개의 문화층이 확인되었으며, 가장



도면 1. 조사지역 유구 배치도

상층인 고려시대 문화층에서는 방형 석렬유구 1기와 적석유구 2기, 적심 3기, 보도시설 1기, 부석(추정보도)유구 1기가 조사되었고, 나말여초 문화층에서는 석렬유구 1기와 석축유구 1기, 수혈주거지 1동, 매납유구 1기가 확인되었으며,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는 와관묘 1기를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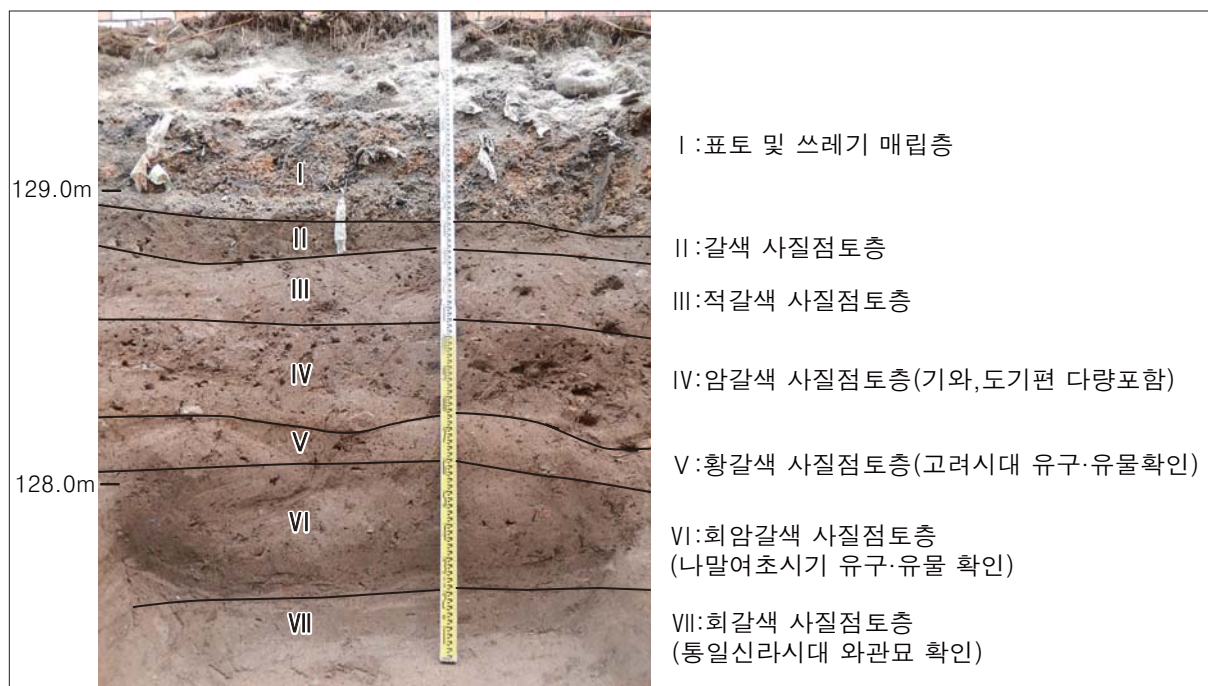
조사지역에 대한 층위는 동벽과 남벽에 기준토층을 설정하여 전체적인 퇴적양상과 층위별 조사를 통해 문화층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유구에 대한 개별 조사는 상층에 있는 유구의 사진 및 실측 조사를 한 후에, 중복되는 유구에 한하여 제거하고, 하층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단계별 유구도면을 작성하고 사진 촬영 및 실측 등의 기록을 철저히 남기도록 하였다.

2. 토층(도면 2,3, 도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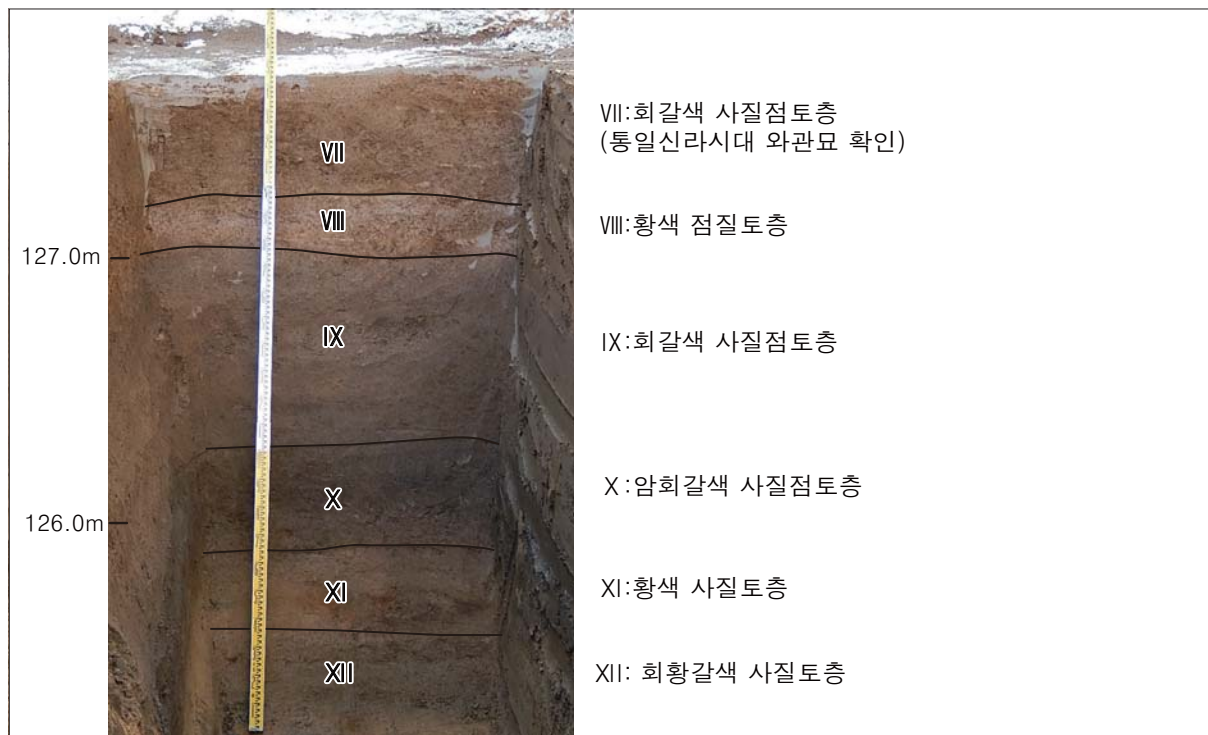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해발 129m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홍천강 북안의 충적지이다. 조사지역이 협소한 관계로 토층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두께로 확인되었고, 지형상의 큰 변화는 파악할 수 없었다. 기준토층은 하천과 직교하는 방향인 조사지역 동벽 중앙으로 설정하였고, 이후 조사지역 중앙에 토층양상을 살피기 위한 탐색 pit를 설치하여 생토층(하상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동벽 중앙부의 기준토층을 통해 살펴보면 I 층인 표토층은 최근까지 건물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철거하였고, 조사지역 전체에 60~70cm가량의 두께로 분포하고 있으며, 연탄재와 생활 쓰레기, 모래 등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로 퇴적되어 쉽게 흘러내리는 양상이다. II 층은 갈색 사질점토로 기존의 표토로 보인다. III 층은 적갈색 사질토층, IV 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층으로 조사지역 토층 전체에 30cm가량의 두께로 분포하며, 다량의 기와와 도기편이 혼입되어 있다. V 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부분적으로 망간이 끼어있으며, 고려시대 방형 석렬유구, 적석유구, 적심 등이 확인되었고, 조사지역 전체에 15~20cm두께로 분포한다. 그 아래로는 VI 층인 회암갈색 사질점토층이 퇴적되었으며, 두께는 40cm가량이며, 나말여초시기로 볼 수 있는 석렬과 석축이 확인되었다. VII 층은 회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부분적으로 환원되어 회색을 띠며, 통일신라시대의 와관묘가 확인되었다. 토층상으로 살펴볼 때 거의 1m 가량의 퇴적층에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고 있지만 시기차이는 크지 않은 특징을 보인다.

도면 3의 탐색 pit의 토층을 살펴보면 VIII 층(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아래로 황색 점질토층-회갈색 사질점토층-회갈색 사질점토층-암회갈색 사질점토층-황색 사질점토층-회황색 사질토층의 순으로 퇴적양상이 확인된다. 현 지표하 480cm가량 지점에서 하상층인 황갈색 사질토층이 확인되었다. 이는 통일신라 문화층 형성 이전에 XI 층과 XII 층을 통해 물의 범람 내지는 유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물이 빠져나가면서 유기물 등의 퇴적으로 암회갈색 사질점토층(X 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양화되는 과정을 거쳤으나, 안정화되지 못하여 문화층 형성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회갈색 사질점토층(X 층)을 보면, 층이 다른 층에 비해 두꺼우며, 내부에 실트층이 섞여 있는 것이 보여지는데, 이를 통해 암회갈색 사질점토층 형성 이후로 다시금 크지 않은 물의 범람이 여러 차례 있었고, 잔잔하게 물이 고여 있어 실트층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회갈색 사질점토층(VII 층, 통일신라시대 문화층) 이전에는 잦은 물의 범람으로 문화층이 형성되지 못했음을 토층의 양상을 통해 알 수 있다.



도면 2. 조사지역 기준토층(동벽 중앙)



도면 3. 조사지역 내 탐색 pit 남벽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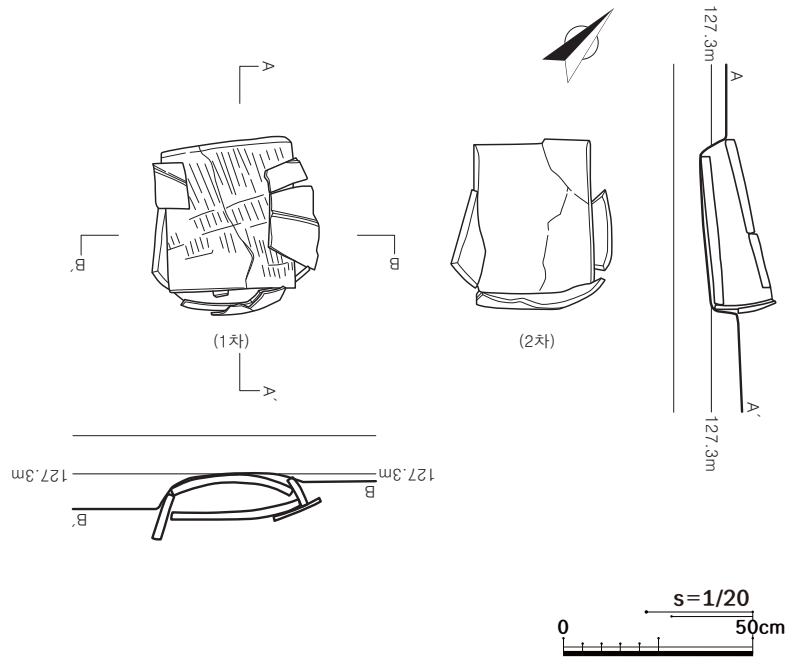
3. 유구 및 유물

〈통일신라〉

(1) 와관묘

가. 유구(도면 4, 도판 4~5-②)

와관묘는 조사지역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표하 220cm에서 확인되었다. 기준토층상 Ⅷ층인 회갈색 사질점토층에 해당한다. 이 층위 내 pit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다. 축조 방법은 암키와의 내면이 위쪽을 바라보게 하여 바닥에 놓고, 다른 암키와를 파쇄하여 그 편으로 좌·우측면에 세우고, 전·후면에는 도기편으로 세워 놓은 후에, 암키와 1장으로 외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덮었다. 추가로 토기편을 주변에 둘러 마감하였다.



도면 4. 와관묘 평단면도

사용된 암키와는 단판 타날 판을 이용한 선문기와이며, 토기는 1조의 돌대가 있는 회색 경질토기이다. 측면에 놓은 기와편과 토기편이 조각마다 접합이 되는데, 이는 완형의 기와·토기를 파쇄하여 그 편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용된 기와를 통해 볼 때, 그 시기는 통일신라시대로 편년된다.

규모는 장축 46cm이고, 단축 43cm이며, 깊이는 17cm이다. 주축방향은 N-22°-W으로 북서-남동향이다.

나. 유물

1. 도기 동체편(도면 5-1, 도판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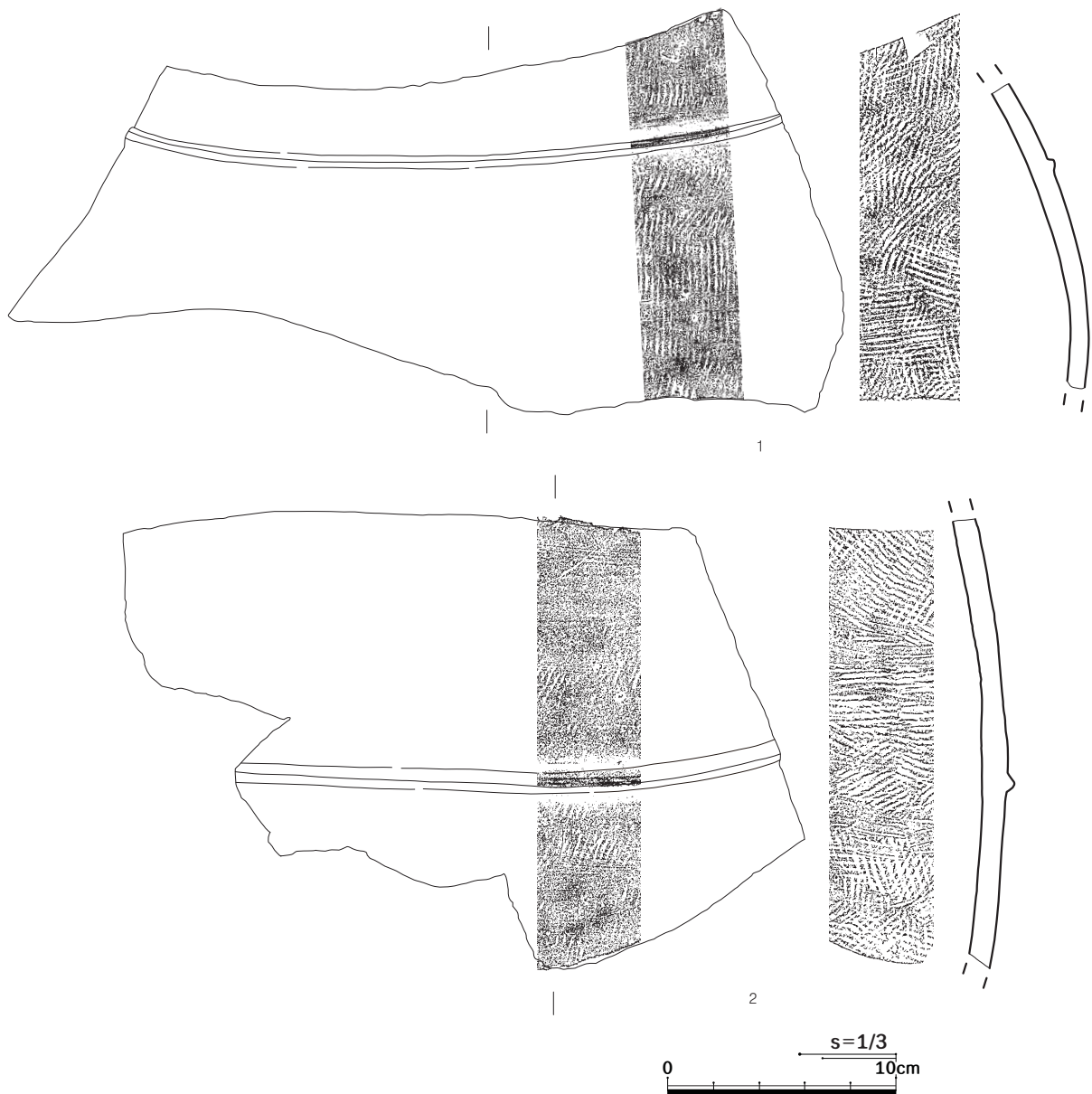
도기 동체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파악은 어렵다. 외면에는 1조의 돌대선이 돌아가며 내외면에 전체적으로 종방향과 사방향으로 타날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가 소량 혼입되었다. 색조는 내면 2.5Y 6/1 (황회색)과 외면 N 5/ (회색)을 띠고 있다.

잔존고 17cm, 잔존너비 36.6cm, 두께 0.9cm

2. 도기 동체편(도면 5-2, 도판 5-2)

도기 동체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어 정확한 기형파악은 어렵다. 외면은 1조의 돌대선이 돌아가고 중방향 또는 사방향으로 타날한 뒤 물손질하였다. 내면에도 사방향으로 타날하였고 일부 봉상구 조정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가 소량 혼입되었다. 색조는 N 7/ (회백색)을 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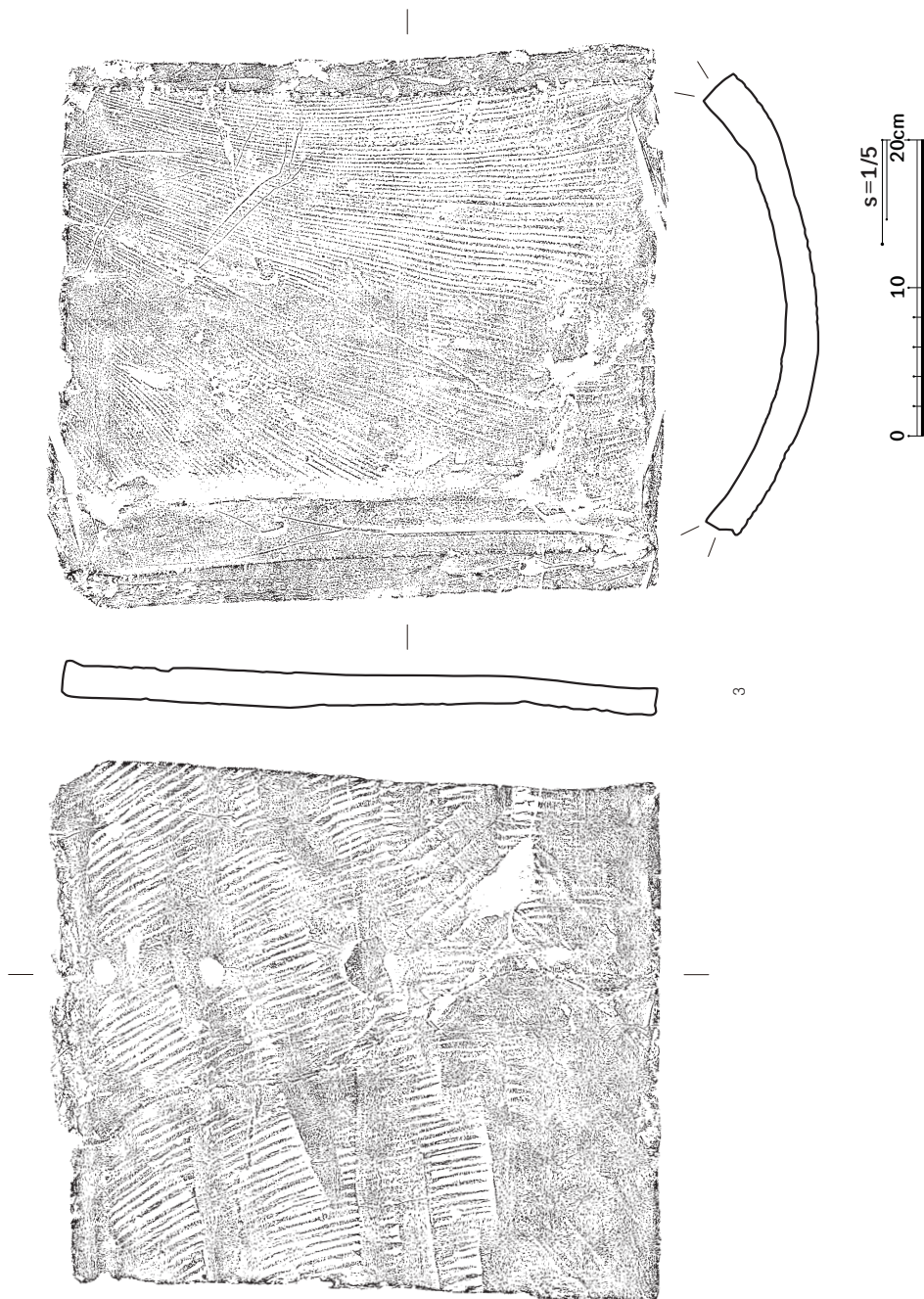
잔존고 19.5cm, 잔존너비 26.3cm, 두께 1cm



도면 5. 와관묘 출토유물(1~2)

3. 암키와편(도면 6-3, 도판 5-3)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와관묘에서 출토되었으며, 거의 완형으로 잔존한다. 외면에는 사선방향의 선문이 타날되었으며, 단판의 고판을 사용하여 횡방향으로 타날하였다. 도구에 의해 정면한 정면흔이 확인되며, 일부는 횡방향 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지워져 희미하다. 표면은 산화된 부분이 있어 상단부에는 적갈색을 띠며, 하단부에는 진한 회색을 띤다. 상단부에는 정면을 하여 모줄임을 하였다. 내면에는 사절흔, 점토접합흔, 포흔($8 \times 8/1\text{cm}^2$)이 관찰되며, 하단부에는 단부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와도분할흔은 양측이 다르며, 좌측은 두께의 $1/3 \sim 1/2$ 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있으며,



도면 6. 와관묘 출토유물(3)

와도질 이후 측면을 정면하여 매끄럽게 다듬었다. 우측은 두께의 1/3가량 안에서 밖으로 3차례에 걸쳐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길이 40cm, 너비 31cm, 두께 2.1cm

4. 암키와편(도면 7-4, 도판 6-4)

암회갈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와관묘에서 출토되었으며, 모서리 일부가 결실되었다. 외면에는 선문이 타날되었는데, 단판의 고판을 사용하여 사선방향과 종방향 등으로 타날하였다. 부분적으로 문양



도면 7. 와관묘 출토유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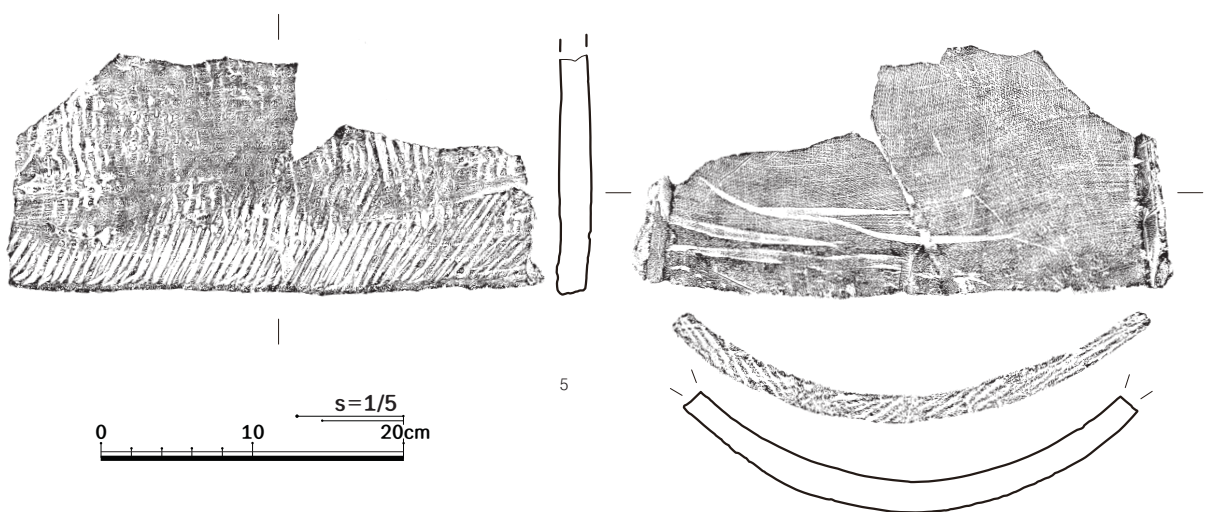
이 중첩되기도 하고, 물손질로 문양이 희미하게 된 부분도 있다. 상단부에는 횡방향의 물손질로 마무리하였고, 하단부에는 문양을 사선방향으로 타날하였으며, 하단부 바닥면에도 사선방향으로 문양을 타날하여 마무리하였다. 내면에는 사절흔, 눈테흔, 포흔($10 \times 11/1\text{cm}^2$)이 관찰되며, 하단부 약 3cm에서는 횡방향으로 깎은 후 물손질 정면하여 단부조정을 하였다. 또한 하단부에는 약 1.2cm 폭의 도구를 사용하여 종방향으로 눌러 내린 정면흔이 관찰된다. 와도분할흔은 좌우측이 다른데, 좌측은 두께의 $1/2 \sim 2/3$ 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있으며, 우측은 두께의 $1/3$ 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은 석립과 사립이 섞인 점토를 사용하였다.

길이 40.5cm, 너비 31.7cm, 두께 2.4cm

5. 암키와편(도면 8-5, 도판 6-5)

회갈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와관묘 측면에서 출토되었는데, 인위적으로 파쇄되어 한 편은 와관묘의 상단부 측면에, 다른 한 편은 하단부 측면에 기대어 출토되었다. 잔존상태는 하단부만 잔존하며, 나머지는 결실되었다. 외면에는 선문으로 단판의 고판을 사용하였으며, 고판의 길이는 약 6cm이다. 타날은 사선방향으로 타날하였으며, 단부에는 45° 에 가까운 사선방향으로 타날하여 마무리하였다. 하단부 바닥면에도 사선방향의 문양이 타날되었다. 중앙부에는 물손질로 문양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연철흔, 눈테흔, 포흔($10 \times 11/1\text{cm}^2$)이 관찰되며, 단부로부터 약 2cm 내외로 물손질 정면을 하여 포흔이 지워졌다. 와도분할흔은 좌우측이 다른데, 좌측은 두께의 $2/3$ 가량 안에서 밖으로 2차례에 걸쳐 와도질한 흔적이 있으며, 우측은 두께의 $2/3$ 가량 안에서 밖으로 1차례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은 석립과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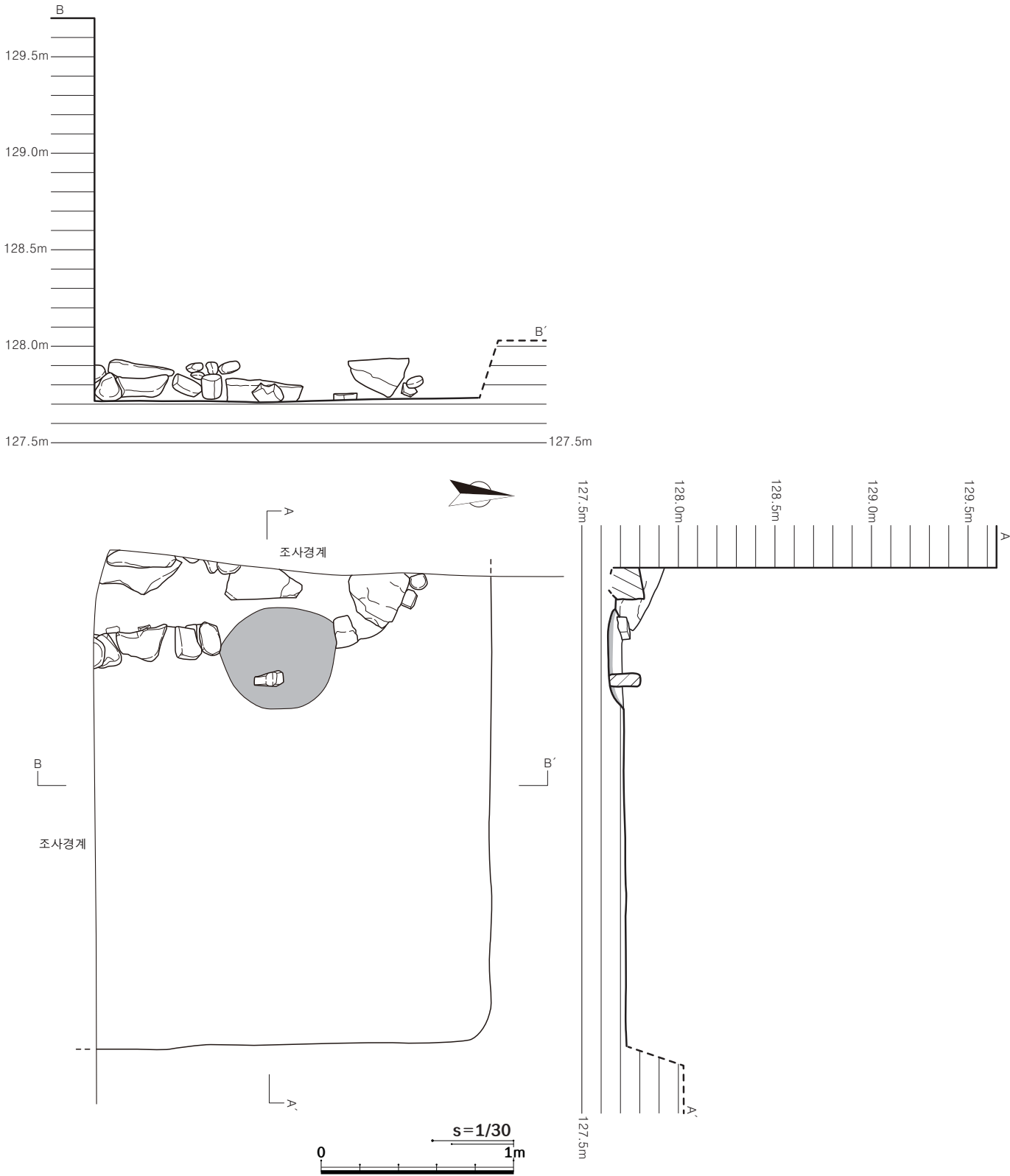
잔존 길이 15.5cm, 너비 30cm, 두께 2.1cm



도면 8. 와관묘 출토유물(5)

〈나말여초〉

(1) 수혈주거지



도면 9. 수혈주거지 평단면도

가. 유구(도면 9, 도판 6-①~7-④)

수혈주거지는 석렬유구 하부에서 확인되었으며, 중기에 해당하는 나말여초 시기의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석렬유구가 노출된 면에서 아궁이 부분의 피열면이 일부 확인되었고, 석렬유구를 걷어내고 하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아궁이와 연도부를 수반하는 구들이 확인되었다.

조성방식을 보면, 바닥면은 황색 점토가 부분적으로 섞여 있을 뿐 전체적인 다짐은 이뤄지지 않았다. 구들은 서벽에 위치하며, 평면형태는 ‘ㄱ’자 형이고, 1단으로 할석을 놓아 축조하였다. 연도부는 서쪽 모서리에 치우쳐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1열 고래로 파악된다. 아궁이는 1매의 천석을 중앙에 세워 지각석으로 사용하였고, 붓돌은 세워쌓기, 연도부는 눕혀쌓기로 축조하였다. 거의 바닥면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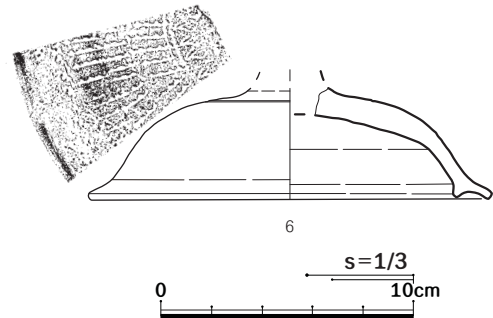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잔존하는 주거지의 규모는 동-서 248cm, 남-북 205cm이며, 장축방향은 동-서방향(W-20°-N)에 가깝다.

나. 유물

6. 토기 뚜껑편(도면 10-6, 도판 7-6)

전체의 1/4 가량만 잔존하여 도상복원 하였으나 꼭지가 결실되었다. 전체적인 기형은 투구 모양이며 드림부는 안턱식이다. 상면에는 꼭지 주위부터 구연까지 능형문-주름문-점열문 순으로 시문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가 소량 혼입되었다. 색조는 10YR 6/1 (갈회색)을 띠고 있다.

잔존고 4.4cm, 복원 드림경 16cm, 두께 0.6cm



도면 10. 수혈주거지 출토유물(6)

(2) 석렬유구

가. 유구(도면 11, 도판 8)

석렬유구는 조사지역 남서쪽 모서리에서 확인되었으며, 중층에 해당하는 나말여초 시기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석렬유구는 남쪽의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져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조성방식은 길이 20~24cm가량의 천석을 재료로 하여 치석면을 서쪽으로 하여 가로 또는 세로방향으로 눕혀쌓는 방식으로 하였다. 극히 일부만 존재하여 용도나 기능은 알기 어려우며, 관련된 적심이나 기타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석렬유구 아래에서 수혈주거지가 확인되었으나, 같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선후관계는 석렬유구가 수혈주거지보다 늦게 조성된 것이 확인되었으나, 시기차가 큰 폭으로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잔존하는 규모를 보면, 남-북 길이 200cm이고, 동-서 폭 50cm가량이다.

나. 유물

7. 토기 뚜껑편(도면 12-7, 도판 8-7)

가장자리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신부는 끝에서 위로 반전되었다. 상면은 산화되어 문양이 확인되지 않으며 중앙에 단면 원형의 봉상형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를 혼입하였다. 색조는 상면 2.5Y 7/1 (회백색)과 후면 N 5/ (회색)을 띠고 있다.

기고 2.3cm, 폭지경 1.4cm, 드림경 9cm

8. 토기 뚜껑편(도면 12-8, 도판 9-8)

가장자리의 1/4 가량이 결실되었다. 신부의 상면은 편평한 편이며 바닥면은 중앙에서 끝부분으로 갈수록 위쪽으로 반전한다. 꼭지는 윗면이 편평한 단추형의 꼭지가 부착되어 있다. 외면 상면에는 꼭지 주위부터 구연까지 이중원점문-수직형문-이중원점문 순으로 시문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를 혼입하였다. 색조는 N 6/ (회색)을 띠고 있다.

기고 2.2cm, 꼭지경 1.6cm, 드림경 9.5cm

9. 도기 저부편(도면 12-9, 도판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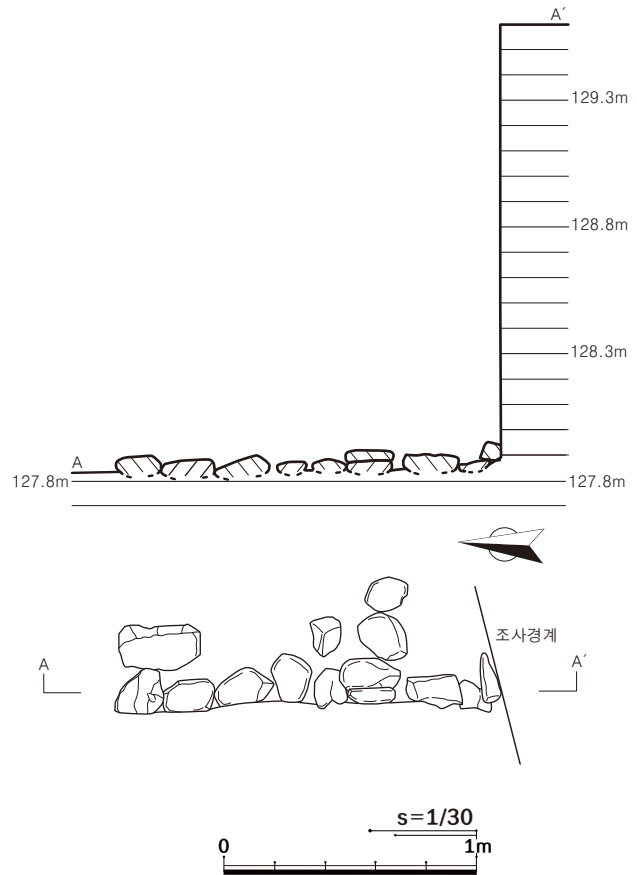
저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 하였다. 기형은 얇은 저부에서 동체로 둥글게 완만하게 이어진다. 내외면은 물레성형으로 인한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고 외면에는 흑반이 확인된다. 저부는 얇은 봉상구로 정면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굵은 모래를 혼입하였다. 색조는 외면 10YR 3/1 (흑갈색)과 내면 10YR 7/3 (황갈색)을 띠고 있다.

잔존고 4cm, 복원 저경 11cm, 두께 0.5cm

10. 수키와편(도면 12-10, 도판 9-10)

연한 회청색 경질의 토수키와편으로 석렬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단부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에는 종선문이 타날되었으며, 사선방향으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사절흔, 포흔이 관찰되며, 표면 정면으로 포흔이 희미하다. 상단부에는 횡방향으로 깎은 후 정면하여 마무리하였다. 와도분할흔은 양측 모두 결실되어 알 수 없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3.5cm, 잔존 너비 9.4cm, 두께 1.4cm



도면 11. 석렬유구 평단면도

11. 암키와편(도면 12-11, 도판 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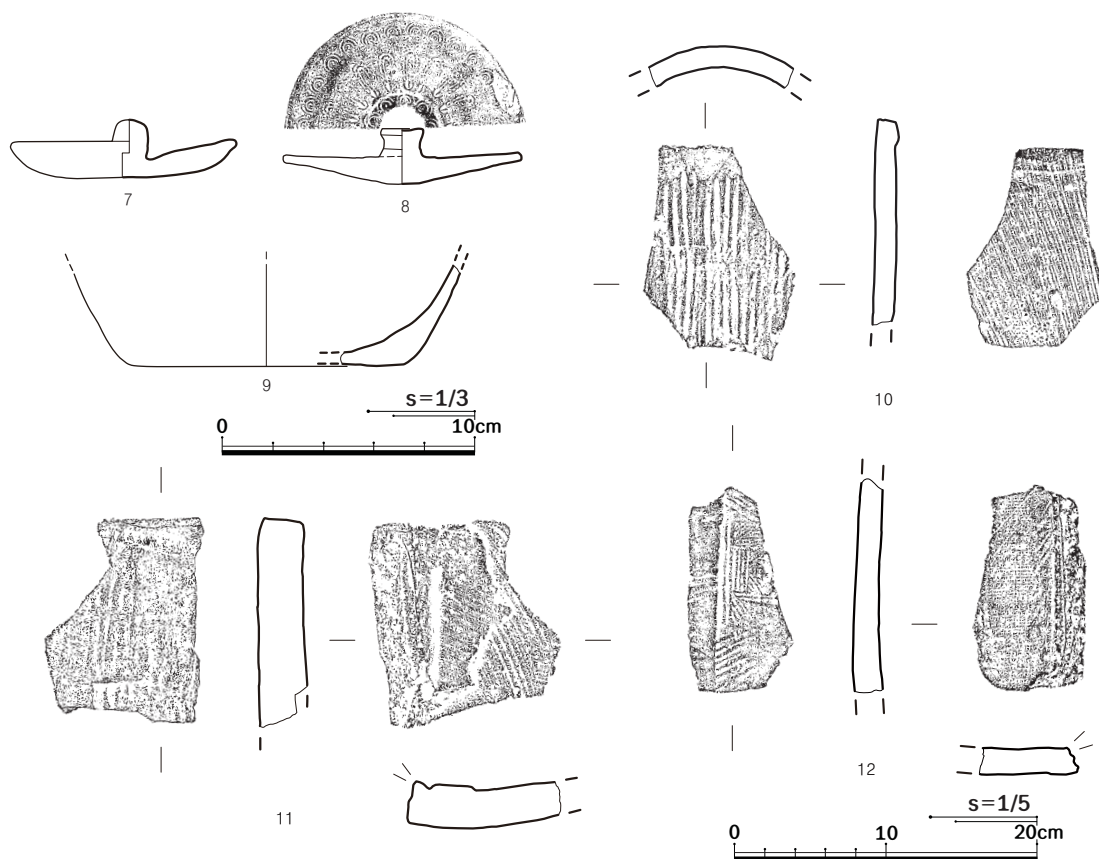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석렬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단부와 우측면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에는 종선문이 타날되었으며, 횡방향의 물손질로 인해 문양이 눌린 부분이 있다. 상단부에는 횡방향으로 모를 깎아서 마무리한 흔적이 있다. 내면에는 사절흔, 눈테흔, 포흔($6 \times 6/1\text{cm}^2$)이 관찰되며, 점토를 덧대어 붙인 접합흔이 있다. 와도분할흔은 우측이 확인되는데, 두께의 1/3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다량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3.5cm, 잔존 너비 9.5cm, 두께 3cm

12. 암키와편(도면 12-12, 도판 10-12)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석렬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좌측면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에는 복합문이며, 중앙에는 방곽 내 4조의 삼각형 문양이 위·아래쪽에 대칭을 이루며, 그 사이에 집선문과 4조의 삼각형 문양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들 문양을 중심으로 상·하단으로 사선방향의 집선문이 배치되었다. 내면에는 사절흔, 눈테흔, 포흔($8 \times 8/1\text{cm}^2$)이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물손질로 인해 문양이 희미하다. 와도분할흔은 좌측이 확인되는데, 두께의 1/4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4cm, 잔존 너비 7cm, 두께 1.6cm



도면 12. 석렬유구 출토유물(7~9:1/3, 10~12:1/5)

(3) 석축유구

가. 유구(도면 13, 도판 10~11-②)

석축유구는 조사지역 중앙부에서 서쪽에 치우친 지점에 위치하며, 중층에 해당하는 나말여초 시기의 층위에서 확인되었다. 수혈주거지와 165cm 가량 이격된 지점에 위치한다. 유구의 일부가 조사경계에 맞물려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형태나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잔존하는 규모를 보면, 길이 104cm이며, 폭 22cm이다. 석축의 방향은 북서-남동(W-40°-N) 방향이며, 조성 방식은 길이 20~30cm, 높이 10cm 내외의 천석을 이용해 3~4단으로 얹혀 쌓기로 축조하였으며, 확인되는 높이는 27cm이다. 어느 한쪽으로 면을 맞추지 않고, 양쪽 모두 돌출되어 있다.

유물은 주로 도기편이 출토되었으며, 생활 용기인 시루 바닥편과 선문기와편도 확인되었다.

나. 유물

13. 토기 뚜껑편(도면 14-13, 도판 1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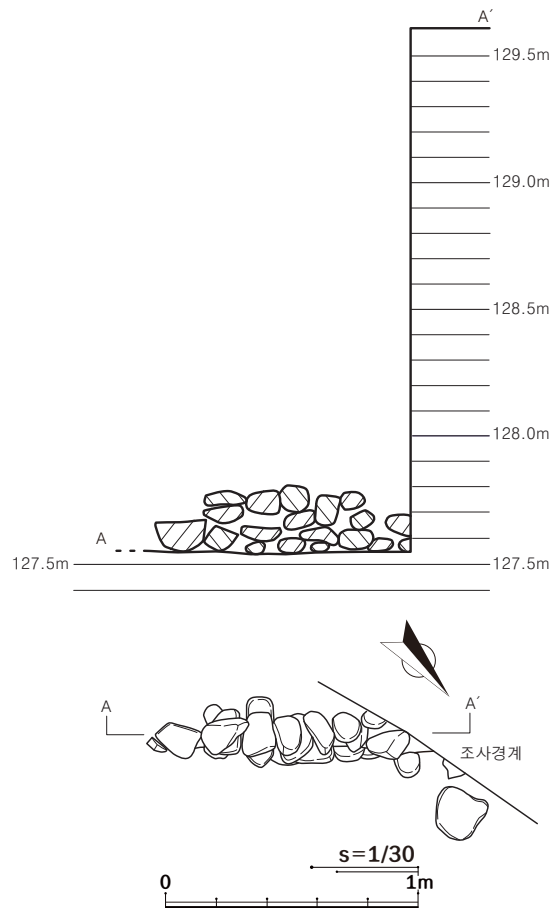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상복원 하였고 정확한 기형과악은 어려우며 드림부는 안쪽으로 돌출된 안턱식이다. 내외면 모두 물레성형으로 인해 굴곡진 회전물손질이 확인된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를 소량 혼입하였다. 색조는 내면 5YR 4/2 (회갈색)과 외면 10YR 2/1 (흑색)을 띠고 있다.

잔존고 3.8cm, 복원 드림경 20cm, 두께 0.5cm

14. 도기 완(도면 14-14, 도판 11-14)

동체와 저부가 절반가량 잔존하여 도상복원하였다. 바닥은 비교적 납작하며 물레성형 후 실패기로 바닥을 떼어낸 것으로 보인다. 기형은 저부에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다가 구연은 짧게 외반하고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 전체적으로 회전물손질하였고 일부에 봉상구 정면흔과 지두압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와 석립을 소량 혼입하였다. 색조는 2.5Y 6/1 (황회색)을 띠고 있다.

기고 6.7cm, 복원 구경 15.8cm, 복원 저경 8.6cm, 두께 0.4cm



도면 13. 석축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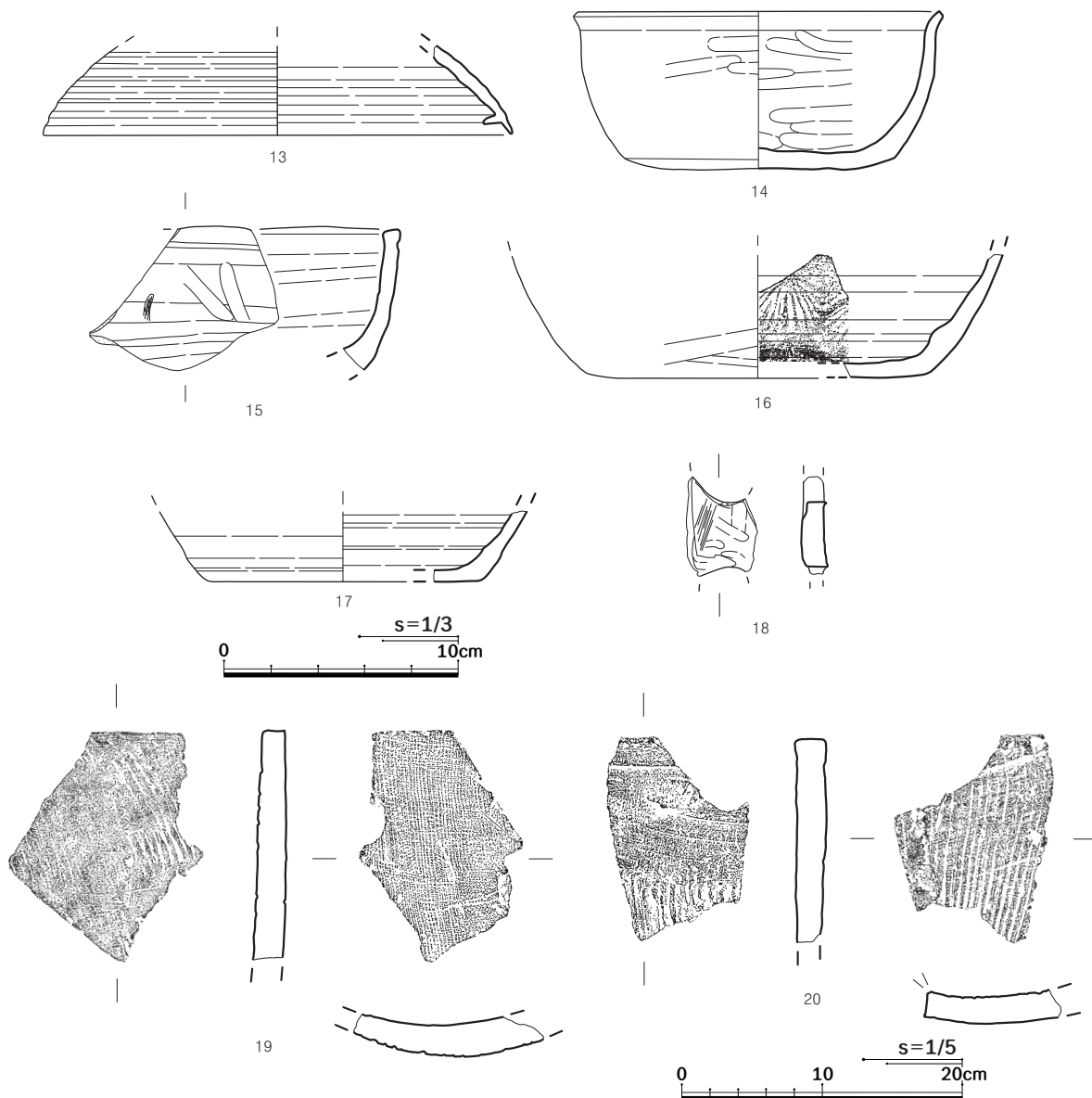
15. 도기 구연부편(도면 14-15, 도판 11-15)

구연과 동체 일부만 잔존하여 원래의 기형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잔존하는 상태로 보아 발형으로 추정된다. 구연부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형성되어 있으며 1조의 횡침선이 돌아가고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은 모두 회전물손질하였고 외면에 종방향의 봉상구 조정흔이 확인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를 혼입하였다. 색조는 2.5Y 6/1 (황회색)을 띠고 있다.

길이 6.1cm, 폭 8cm, 두께 0.6cm

16. 도기 저부편(도면 14-16, 도판 11-16)

저부와 동체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 하였으며 전체적인 기형파악은 어렵다. 바닥은 납작하며 기형은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간다. 내외면 모두 물레성형시 형성된 회전물손질흔이 확인되며 내면



도면 14. 석축유구 출토유물(13~18:1/3, 19·20:1/5)

일부에서 유문 내박자가 확인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를 혼입하였다. 색조는 내면 2.5Y 7/1 (회백색)과 속심 N 4/ (회색), 외면 2.5Y 7/2 (회황색)을 띠고 있다.

잔존고 5.3cm, 복원 저경 14.4cm, 두께 0.5cm

17. 도기 저부편(도면 14-17, 도판 11-17)

동체와 저부 일부만 잔존하여 도상복원 하였으며 전체적인 기형파악은 어렵다. 바닥은 납작하며 내외면 모두 물레성형으로 인한 회전물손질이 확인된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를 혼입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2.5Y 2/1 (흑색)과 속심 2.5Y 7/2 (회황색)을 띠고 있다.

잔존고 3cm, 복원 저경 11.4cm, 두께 0.5cm

18. 시루 바닥편(도면 14-18, 도판 11-18)

극히 일부만 남아있어 전체적인 기형파악은 어렵다. 바닥에는 지름 1.5cm의 구멍이 2개가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1.5cm의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를 혼입하였다. 색조는 내면 2.5Y 7/1 (회백색)과 외면 2.5Y 6/1 (황회색)을 띠고 있다.

길이 4.2cm, 폭 3cm, 두께 1cm

19. 암키와편(도면 14-19, 도판 12-19)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석축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단부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에는 사선 방향의 집선문이 타날되었는데,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을 하여 문양이 일부 지워지고 눌러서 희미하다. 내면에는 포흔($6 \times 6/1\text{cm}^2$)이 관찰되며, 일부 도구에 의해 눌린 흔적이 있다. 와도분할흔은 양측 모두 결실되어 알 수 없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6.8cm, 잔존 너비 13.6cm, 두께 2.3cm

20. 암키와편(도면 14-20, 도판 12-20)

적갈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석축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단부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에는 종방향의 선문이 타날되었으며, 상단부로 갈수록 횡방향의 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지워졌다. 상단부의 바닥면은 인위적으로 깎은 후 다듬어 마무리하였다. 내면에는 사절흔, 윤철흔, 포흔($9 \times 9/1\text{cm}^2$)이 관찰된다. 와도분할흔은 우측이 확인되는데, 두께의 3/4이상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속심은 회색과 적갈색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잔존 길이 14.6cm, 잔존 너비 10.2cm, 두께 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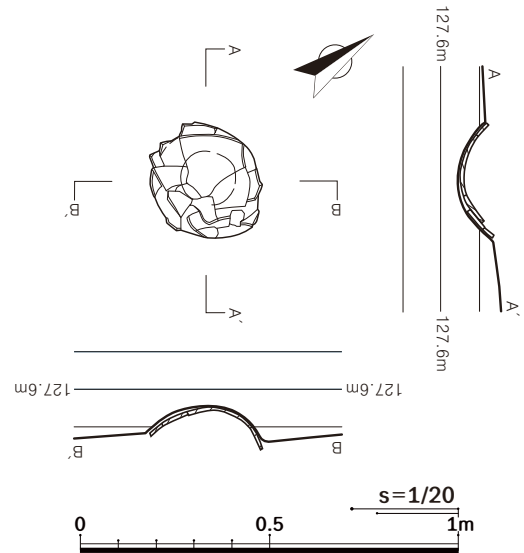
(4) 매납유구

가. 유구(도면 15, 사진 12-①)

매납유구는 석렬유구에서 동쪽으로 4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중층에 해당하는 나말

여초 시기의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도기
용 1점이 매납된 채 확인되었다. 주변으로 인접한 건
물지나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토기 내부토에서
유리구슬 1점이 확인되었다. 매납유구가 조사지역
의 가장자리에 인접하여 확인된 만큼, 조사지역 외
곽으로 매납유구와 관련된 건물지 등의 유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납유구는 조사지역 내 건물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분포하는 것을 볼 때, 건물지와 관
련된 진단구의 성격으로 추정된다.

잔존하는 규모는 남-북 30cm, 동-서 29cm가량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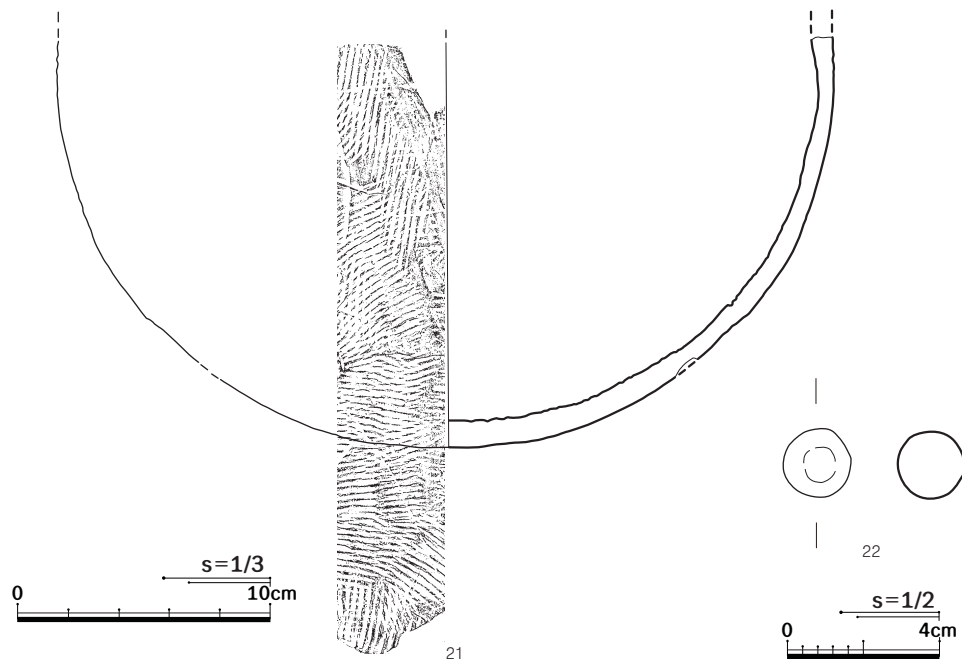
도면 15. 매납유구 평단면도

나. 유물

21. 도기호 편(도면 16-21, 도판 13-21)

저부와 동체 일부만 잔존하여 전체적인 기형파악은 어려우나 잔존상태로 보아 호형의 토기로 보인다.
저부는 원저이며, 내외면 모두 한 방향 또는 사방향으로 타날하였고 타날한 후에 회전물손질로 정면하
였다. 외면 일부에 흑반이 확인된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를 혼입하였다. 색조는 N 7/ (회백색)을
띠고 있다.

잔존고 11.2cm, 두께 0.8cm



도면 16. 매납유구 출토유물(21:1/3, 22:1/2)

22. 유리구슬(도면 16-22, 도판 13-22)

도기 호 내부 바닥면에서 출토된 유리구슬로 완형이나 외면의 마모가 심한편으로 색조는 불투명한 회백색을 띤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투공 등의 가공흔은 확인되지 않는다. 출토양상으로 보아 도기 호와 함께 진단구의 성격으로 매납된 것으로 보인다.

직경 1.8cm.

〈고려〉

(1) 방형 석렬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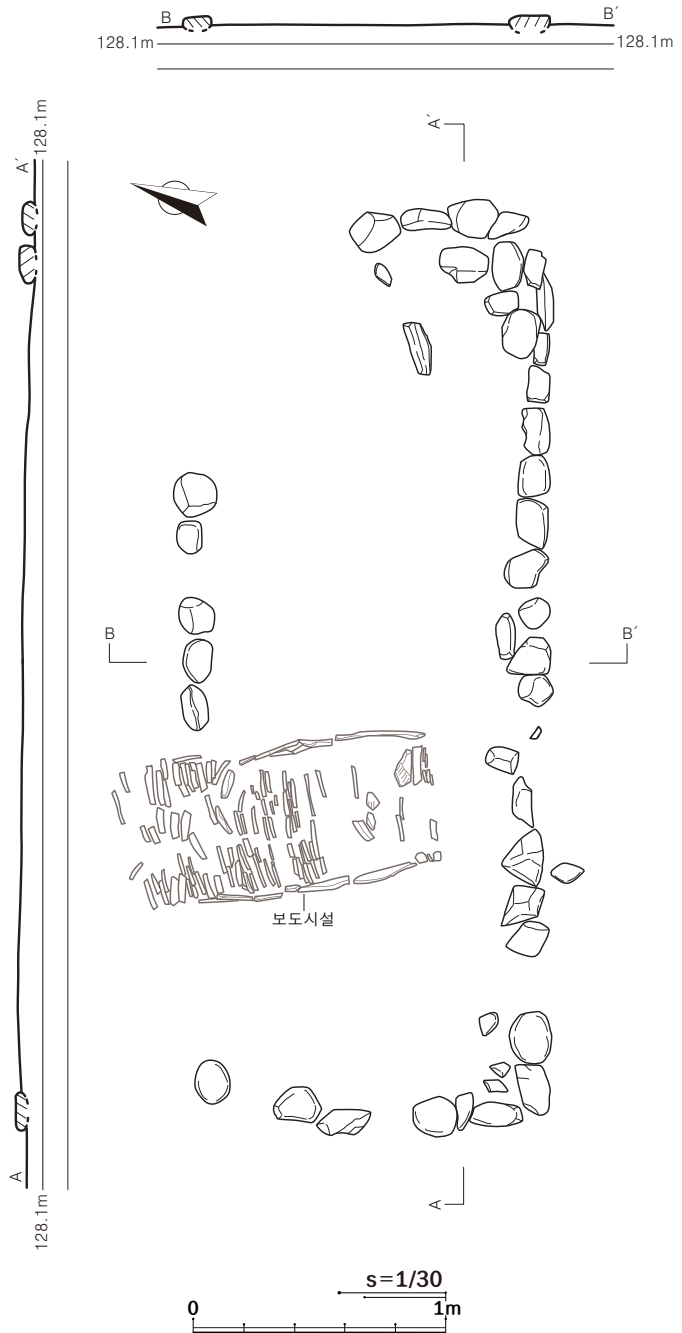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7, 도판 13-①~14)

방형 석렬유구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위치하며, 상층의 문화층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북동쪽 모서리 부분은 결실되었으며, 기와로 조성된 보도시설이 방형 석렬유구 중앙을 파괴하고 조성되었다.

조성방식은 약 $17 \times 20\text{cm}$ 가량의 천석을 놓히거나 세워 놓는 방식으로 축조하였으며, 1단으로 조성되었다. 석재 이외의 재료는 사용되지 않았다. 치석면은 모두 바깥쪽을 향해 있다. 석렬 남쪽 부분은 동쪽과 서쪽의 각모서리 부분에 삼각형의 형태로 천석을 덧대어 보강하였다. 내부에서 석렬과 관련된 어떤 시설도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 내부에 보도시설이 조성된 것을 볼 때, 방형 석렬유구가 보도시설보다 앞선 시기에 조성되었고, 이후에 파괴되고 보도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보아 시기차이는 크지 않으나 선후관계는 분명하다.

장축방향은 동-서방향($E-19^{\circ}-N$)으로,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규모는 동-서 길이 370cm이고, 남-북 폭 145cm이다.



도면 17. 방형 석렬유구 평단면도

정을 하였다. 와도분할흔은 양측 모두 결실되어 알 수 없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23.9cm, 잔존 너비 15.5cm, 두께 2.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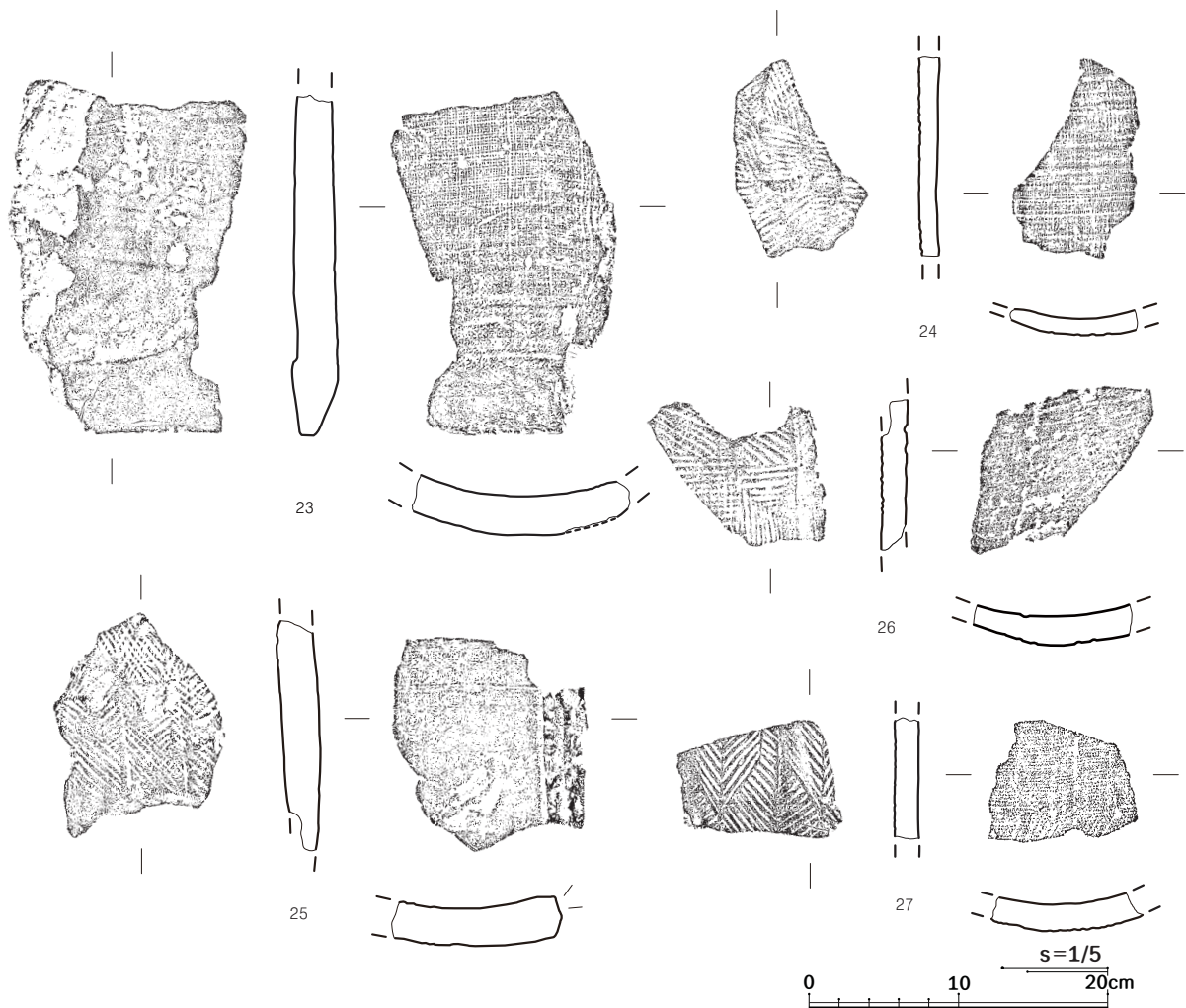
24. 암키와편(도면 19-24, 도판 16-24)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보도시설에서 출토되었으며, 네 변 모두 결실되었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중첩되게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포흔($8 \times 8/1\text{cm}^2$)이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물손질흔이 있다. 와도분할흔은 양측 모두 결실되어 알 수 없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3.5cm, 잔존 너비 9.1cm, 두께 1.1cm

25. 암키와편(도면 19-25, 도판 16-25)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보도시설에서 출토되었으며, 좌측면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타날되었는데, 중앙에 1조의 횡대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대칭되는 방향으로 어골문이 타날되었다. 문양



도면 19. 보도시설 출토유물(23~27)

은 횡방향으로 중첩되게 타날되었다. 내면에는 사절흔, 눈테흔, 포흔($7 \times 9/1\text{cm}^2$)이 관찰되며, 사선방향으로 점토접합흔이 확인되는데, 균열이 있다. 하단부는 결실되어 단부조정을 알 수 없다. 와도분할흔은 좌측이 확인되는데, 두께의 1/2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은 석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5.4cm, 잔존 너비 11.3cm, 두께 2.5cm

26. 암키와편(도면 19-26, 도판 17-26)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보도시설에서 출토되었으며, 네 변 모두 결실되었다. 외면에는 어골복합문으로 여러 겹의 방곽문처럼 보이는 집선문과 옆으로 횡방향의 집선문이 있으며, 그 위로 어골문이 배치되었다. 내면에는 사절흔, 점토접합흔, 포흔($11 \times 11/1\text{cm}^2$)이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물손질 정면으로 흔적이 지워졌다. 표면에는 약간의 균열이 관찰된다. 와도분할흔은 양측 모두 결실되어 알 수 없다. 태토는 가는 모래가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0.7cm, 잔존 너비 12.9cm, 두께 1.6cm

27. 암키와편(도면 19-27, 도판 17-27)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보도시설에서 출토되었으며, 네 변 모두 결실되었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타날되었는데, 중심이 약 7cm 가량 이격된 어골문이 배치되었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어골문이 배치되었다. 내면에는 사절흔, 포흔($7 \times 7/1\text{cm}^2$)이 확인되며, 부분적으로 물손질흔이 관찰된다. 와도분할흔은 양측 모두 결실되어 알 수 없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8.2cm, 잔존 너비 11cm, 두께 1.5cm

(3) 1호 적석유구

가. 유구(도면 20, 도판 17-①~18-③)

1호 적석유구는 조사지역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층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동편으로는 2호 적석유구가 있으며, 주변에는 적심과 방형 석렬유구가 인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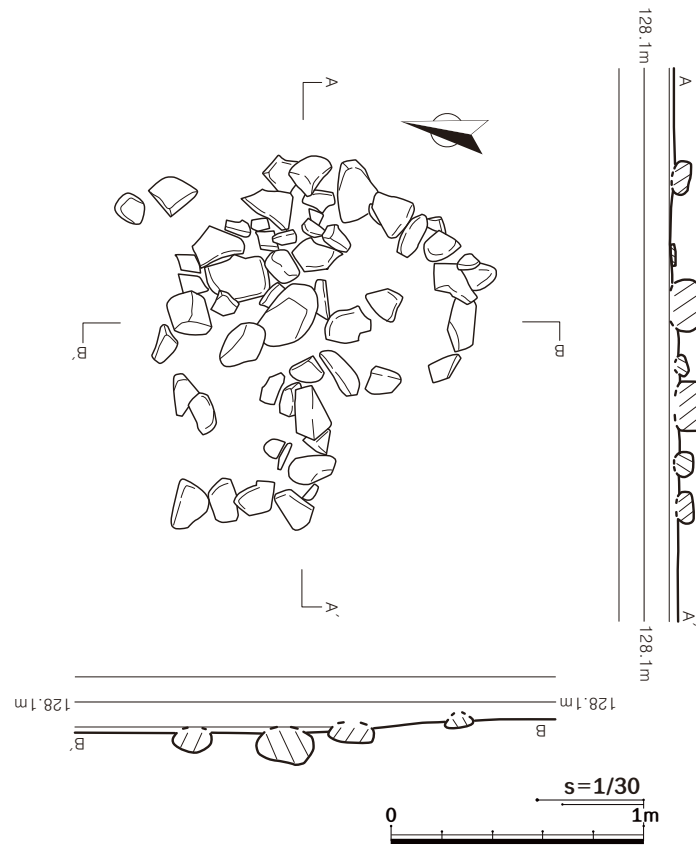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나, 잔존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규모는 장축 160cm, 단축 150cm이며, 장축 방향은 남-북방향($N-15^\circ-E$)에 가깝다. 2호 적석유구가 동쪽으로 인접해 있으나, 적석유구간의 관계와 용도가 명확하지 않다.

조성방식은 10~25cm가량의 천석과 기와 파편들을 혼용해 조성되었으며, 일부 도기편도 확인되었다.

나. 유물

28. 수키와편(도면 21-28, 도판 18-28)

회백색 경질의 수키와편으로 1호 적석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우측면 일부만 잔존한다. 외면에는 중앙에 사격자문의 문양대가 있고, 상하로 사선방향의 선문이 배치되었다. 내면에는 눈테흔, 와통연



도면 20. 1호 적석유구 평단면도

결흔, 포흔($12 \times 12/1\text{cm}^2$)이 관찰된다. 와도분할흔은 우측이 확인되는데, 두께의 1/3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3.5cm, 잔존 너비 8cm, 두께 0.9cm

29. 수키와편(도면 21-29, 도판 19-29)

회청색 경질의 토수기와편으로 1호 적석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단부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은 무문으로 종방향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있다. 내면에는 사절흔, 눈테흔, 포흔이 관찰되나 종방향과 사선방향으로 표면 정면을 하여 흔적이 다소 지워졌다. 와도분할흔은 좌측이 확인되는데, 두께의 1/3~1/2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7.7cm, 잔존 너비 8.4cm, 두께 2cm

30. 암키와편(도면 21-30, 도판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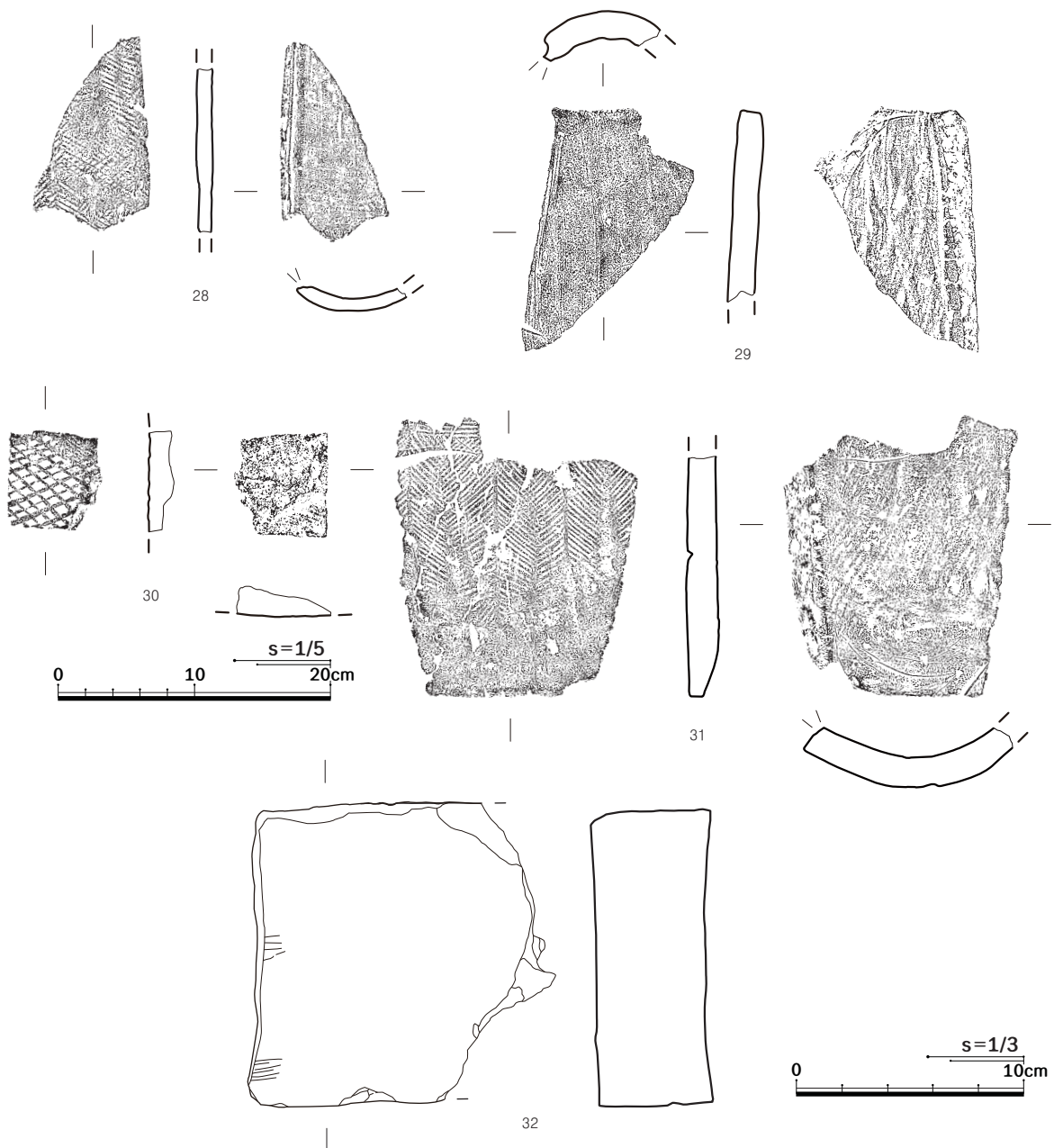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1호 적석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네 면 모두 결실되었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상단 일부는 물손질로 문양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표면이 박락되어 제작흔적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와도분할흔은 양측 모두 결실되어 알 수 없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7.2cm, 잔존 너비 6.7cm, 두께 2.1cm

31. 암키와편(도면 21-31, 도판 19-31)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1호 적석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단부는 결실되었다. 외면에는 어골복합문으로 중앙의 횡대로 보이는 문양이 관찰되며, 어골문은 그 아래에 배치된 형태이다. 표면에는 균열이 심하다. 내면에는 물손질로 문양이 거의 지워졌으며, 사절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하단부 약



도면 21. 1호 적석유구 출토유물(28~31:1/5, 32:1/3)

4.5cm에서는 횡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여 단부조정을 하였다. 와도분할흔은 우측이 확인되는데, 두께의 1/3~1/5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20.4cm, 잔존 너비 15cm, 두께 2.2cm

32. 전(도면 21-32, 도판 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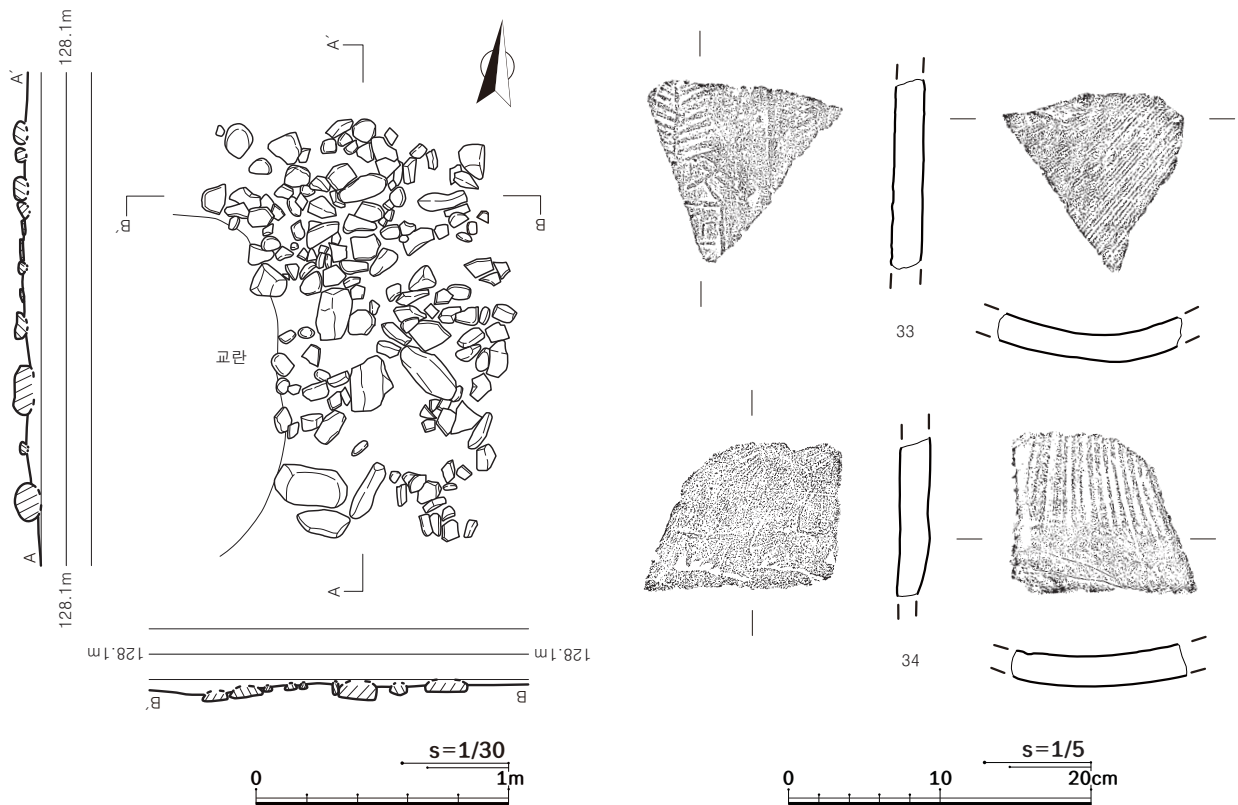
경질의 방형전으로 한쪽 변이 결실되었다. 상면이 사용면으로 비교적 고르며, 각 면마다 물손질흔적이 관찰되는데, 특히 하면이 물손질흔이 많다. 측면에는 도구를 사용하여 깎아서 정리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이 회색(N5/)을 띤다.

길이 13.3cm, 잔존 너비 13.2cm, 두께 4.8cm

(4) 2호 적석유구

가. 유구(도면 22, 도판 20)

2호 적석유구는 조사지역 동편에 치우쳐 확인되었으며, 상층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까우나 명확하지 않으며, 잔존 규모는 장축 165cm, 단축 125cm로 장축방향이 남-북방향($N-6^{\circ}-W$)이다.



도면 22. 2호 적석유구 평단면도 및 출토유물(33~34)

2호 적석유구는 조사전 입회조사를 통해 이미 확인된 유구이며, 서쪽에 인접하여 교란구덩이가 확인되었다. 교란구덩이 내부를 제거하고 구덩이를 통해 단면을 살펴 본 결과, 10~15cm 가량의 두께로 할석 및 천석을 이용하여 1~2단에 걸쳐 조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조성방식은 10~25cm 크기의 천석과 기와 파편들을 혼용해 다진 형태로 조성하였으며, 내부에서 일부 도기편도 확인되었다. 기와편은 수키와와 암키와 등의 평기와의 확인되며, 확인된 기와를 통해 살펴볼 때, 고려시대 중기로 추정된다.

나. 유물

33. 암키와편(도면 22-33, 도판 20-33)

회색 경질의 명문 암키와편으로 2호 적석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네 면 모두 결실되었다. 외면에는 상단으로 어골문이 있으며, 그 아래로 방곽내 명문이 시문되어 있다. 명문은 대부분 결실되어 파악하기 어렵다. 내면에는 사절흔과 포흔($8 \times 7/1\text{cm}^2$)이 관찰되며, 와도분할흔은 우측이 확인되는데, 두께의 1/3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은 석립과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2.6cm, 잔존 너비 12.6cm, 두께 1.8cm

34. 암키와편(도면 22-34, 도판 20-34)

연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2호 적석유구에서 출토되었으며, 하단부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에는 어골문이 관찰되며, 표면에 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거의 지워졌다. 내면에는 사절흔, 눈테흔이 관찰되며, 포흔은 일부 희미하게 확인된다. 하단부 약 4cm에서는 물손질 정면으로 단부조정을 하였다. 하단부 바닥면에는 제작시 건조단계에서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사립이 확인된다. 와도분할흔은 양측 모두 결실되어 파악하기 어렵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0.4cm, 잔존 너비 11.6cm, 두께 2cm

(5) 1호 적심

가. 유구(도면 23, 도판 21-①~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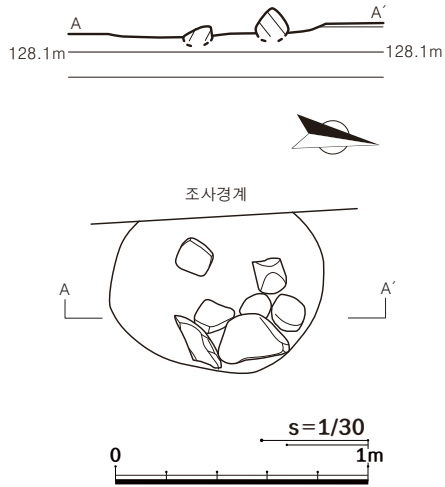
1호 적심은 상층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원형에 가까우나 상당부분 교란되어 정확한 현황파악은 어려우나 원형의 수혈을 파고 천석을 원형으로 채운 형태이다. 잔존 규모는 지름 85cm이며, 조성방식은 길이 15~25cm 크기의 천석을 얹혀쌓았다.

(6) 2호 적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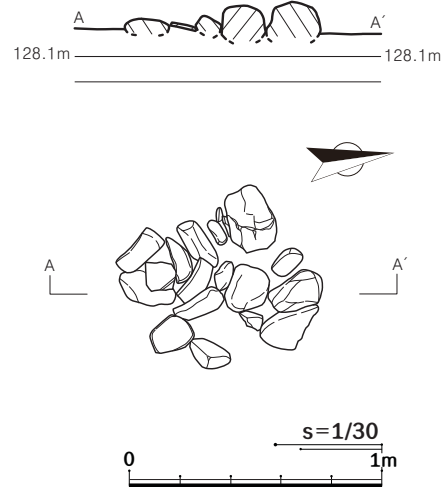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24, 사진 21-①,③)

2호 적심은 1호 적심으로부터 북쪽으로 113cm 이격되어 확인되었으며,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방형에 가까우며, 규모는 길이 75cm, 폭 70cm이다. 조성방식은 길이 20~30cm 가량

의 천석을 이용해 가장자리 쪽으로 면을 만들어 쌓았다.



도면 23. 1호 적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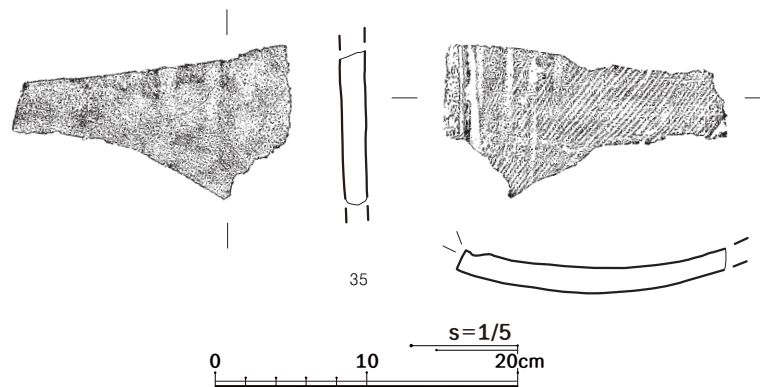
도면 24. 2호 적심 평단면도

나. 유물

35. 암키와편(도면 25-35, 도판 21-35)

연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2호 적심에서 출토되었으며, 우측면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은 무문이며, 약하게 물손질 흔적이 확인된다. 내면에는 사절흔, 눈테흔, 포흔($8 \times 9/1\text{cm}^2$)이 관찰되며, 종방향으로 물손질한 흔적이 있다. 와도분할흔은 우측이 확인되는데, 두께의 1/3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7.8cm, 잔존 너비 10.1cm, 두께 1.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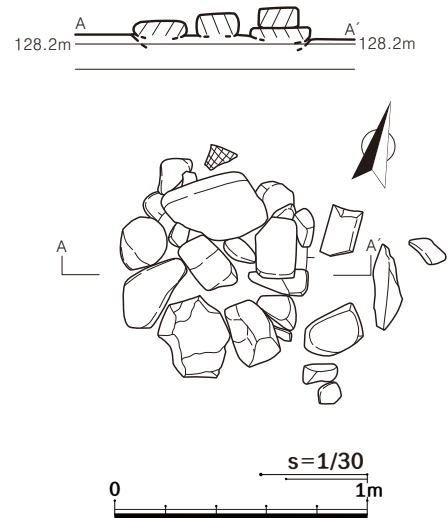
도면 25. 2호 적심 출토유물(35)

(7) 3호 적심

가. 유구(도면 26, 도판 22-①~③)

3호 적심은 방형 석렬유구와 2호 적석유구 사이에 위치하며,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지름이 약 77cm이다.

조성방식은 길이 17~42cm의 다양한 크기의 천석을 동심원으로 배치하여 축조하였고, 2~3단으로 얹혀 쌓아 조성하였다.



도면 26. 3호 적심 평단면도

나. 유물

36. 시루 바닥편(도면 27-36, 도판 22-36)

시루의 바닥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어 전체적인 기형 파악은 어렵다. 바닥에는 지름 2.5cm의 구멍이 3개가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약 2.5cm의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던 것으로 보인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를 혼입하였다. 색조는 내면 10YR 6/1 (갈회색)과 속심 2.5Y 7/1 (회백색), 외면 2.5Y 6/1 (황회색)을 띠고 있다.

길이 8.3cm, 폭 8cm, 두께 0.9cm

37. 암키와편(도면 27-37, 도판 2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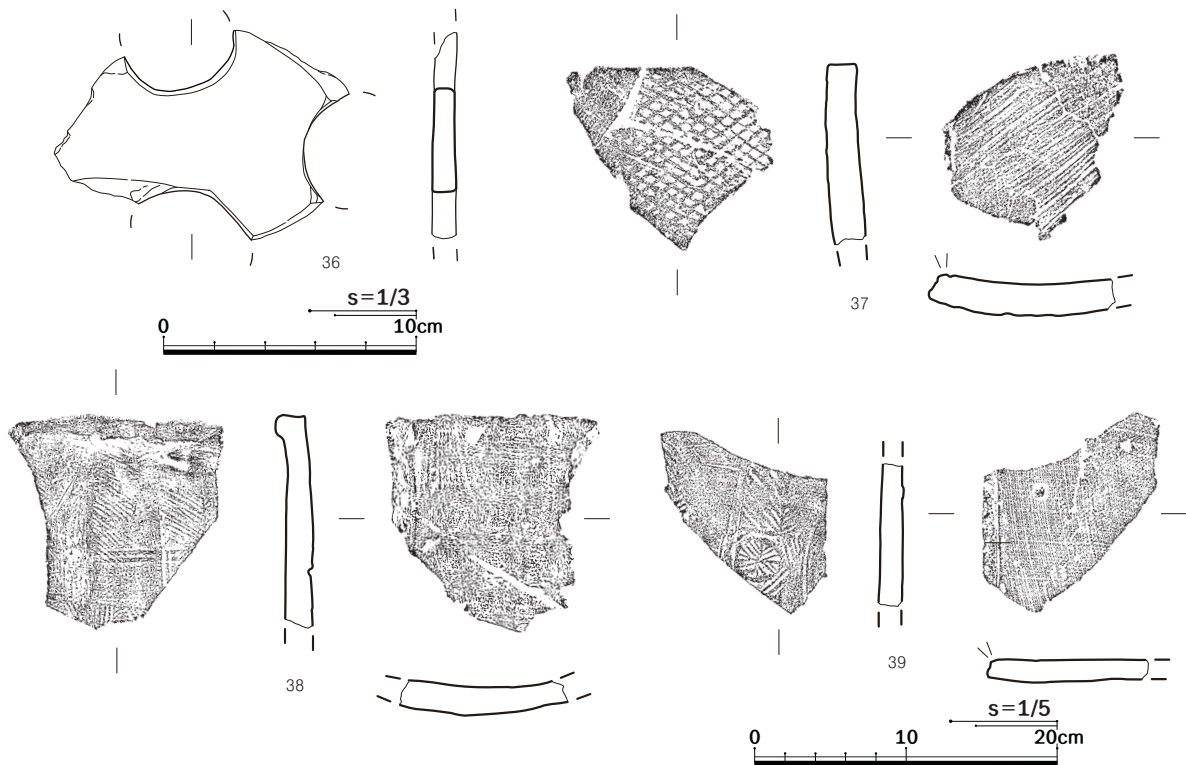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3호 적심에서 출토되었으며, 우측면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에는 사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좌측부분에는 물손질로 문양이 지워졌다. 내면에는 사절흔, 눈테흔이 관찰되며, 표면 물손질로 포흔은 거의 지워졌다. 와도분할흔은 우측이 확인되는데, 와도를 사용하여 한 차례 그은 후 떼어냈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2.1cm, 잔존 너비 13.4cm, 두께 2.2cm

38. 암키와편(도면 27-38, 도판 22-38)

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3호 적심에서 출토되었으며, 상단부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에는 어골복합문으로 방곽 내 능형문이 중앙에 있고, 이를 중심으로 상하에 어골문이 배치되었다. 상단부는 점토를 덧대어 인위적으로 두께를 두껍게 하였다. 내면에는 사절흔, 눈테흔, 포흔이 관찰되며, 표면 물손질로 문양이 희미하다. 와도분할흔은 우측이 확인되는데, 두께의 1/4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4.7cm, 잔존 너비 13.6cm, 두께 1.8cm



도면 27. 3호 적심 출토유물(36:1/3, 37~39:1/5)

39. 암키와편(도면 27-39, 도판 2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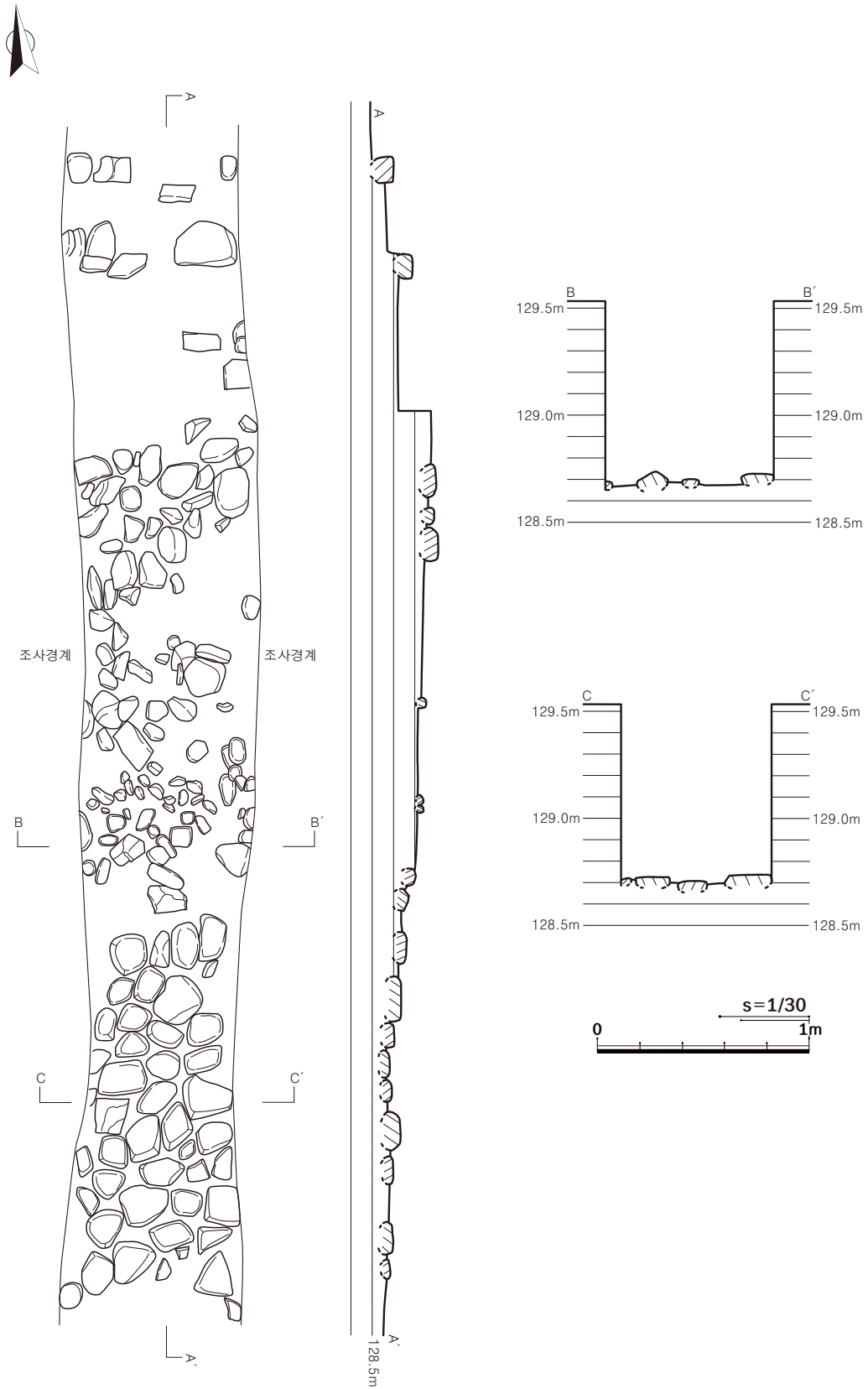
회청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3호 적심에서 출토되었으며, 우측면 일부가 잔존한다. 외면에는 어골 복합문으로 방곽 내 차륜문과 차륜문을 둘러싼 사선방향의 선문이 있으며, 그 위로 어골문이 배치되었다. 잔존하는 문양의 형태로 볼 때, 방곽 아래로 어골문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내면에는 사절흔, 포흔($8 \times 8/1\text{cm}^2$)이 관찰되며, 표면에 균열이 있다. 와도분할흔은 두께의 1/5가량 안에서 밖으로 와도질한 흔적이 관찰된다. 태토는 가는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9.8cm, 잔존 너비 10.8cm, 두께 1.5cm

(8) 부석(추정보도)유구

가. 유구(도면 28, 도판 23~24-①)

부석(추정보도)유구는 조사지역 북편에서 확인되었으며, 상층에 해당하는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확인되었다. 북쪽에 탐색트렌치를 설치하여 확인되었으며, 넓게 분포하고 있어 조사지역 좌측으로 있는 가건물 아래로 뻗어 나가는 것과 우측의 웨딩홀 주차장 쪽으로도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규모는 길이 550cm에 걸쳐 확인되었는데, 남쪽으로부터 425cm까지 천석을 이용하여 부석되었으며, 나머지 125cm 길이는 단을 이뤄 3열로 할석과 천석이 배치되어 마무리 되었다.



도면 28. 부석(추정보도)유구 평단면도

부석(추정보도)유구는 크게 4부분으로 나뉘볼 수 있다. 먼저 남쪽에서 폭 190cm에는 20cm 크기의 납작한 천석을 이용하여 편평하게 깔아서 조성하였다. 다음 북쪽으로 연이어 70m 폭으로는 7~10cm 정도 크기의 작은 천석을 무질서하게 놓았으며, 다음 북쪽으로 연이어 165cm 폭으로는 20~30cm 크기의 천석을 치석된 면없이 무질서하게 깔아 놓았다. 다음으로 북쪽 끝부분까지 120cm폭으로는 단을 이루며 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3열의 석렬이 배치되어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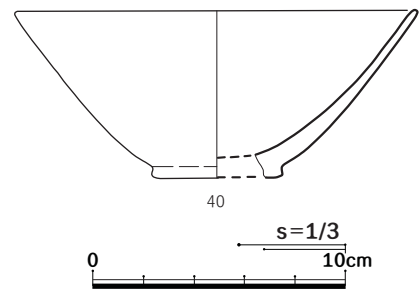
확인된 규모를 볼 때, 큰 규모의 건물지 부속시설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건물지는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되지 않아 관련성을 찾기는 어렵다.

나. 유물

40. 청자완(도면 29-40, 도판 24-40)

일부만 잔존하여 정확한 기형파악은 어려우나 완으로 추정된다. 측사면은 사선으로 벌어지면서 올라가며 구순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굽은 해무리굽으로 추정된다. 굽 접지면은 바깥쪽이 들려있고, 굽 외면은 약간 갈아내었다. 태토의 소성 후 색조는 회백색이다. 외면은 전면시유 하였으나 소성상태가 불량하여 산화되었고 색조는 회황색이다.

기고 6.6cm, 복원 구경 16cm, 복원 저경 5.2cm, 두께 0.3cm



도면 29. 부석유구 출토유물(40)

〈수습유물〉

41. 장경호 구연부편(도면 30-41, 도판 24-41)

구연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어 도상복원 하였으나 정확한 기형 파악은 어렵다. 반구형의 구연부로 경부부터 경부와 구연부가 연결되어 꺾이는 부분까지 파상문-2조의 횡침선-파상문 순으로 시문되었다. 구연부는 완만하게 바라지며 올라가다가 구연단에서 살짝 밖으로 바라졌으며 구연단은 짧게 각이 지다가 둥글게 올라간 후 날카롭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와 사립을 혼입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N 5/ (회색)과 속심 10R 5/3 (적갈색)을 띠고 있다.

기고 3.8cm, 복원 구경 34cm, 두께 1cm

42. 편구병 동체편(도면 30-42, 도판 24-42)

편구병의 동체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어 도상복원 하였으나 전체적인 기형파악은 어렵다. 외면의 일부는 산화되었으나 이중원점문이 4가지 형태로 순서대로 배치되어 시문되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가는 모래를 혼입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N 5/ (회색)과 속심 10R 4/1 (암적회색)을 띠고 있다.

잔존고 4cm, 두께 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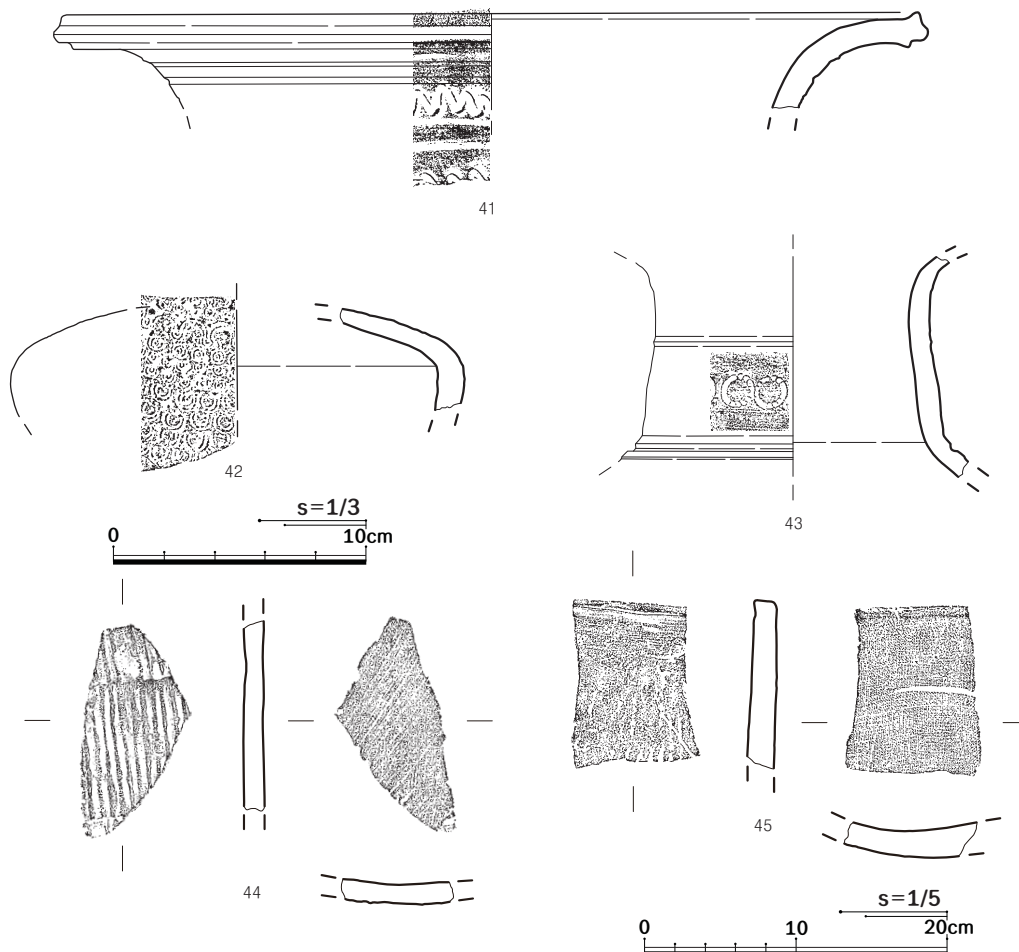
43. 도기 경부편(도면 30-43, 도판 24-43)

도기 경부편으로 일부만 남아 있어 도상복원 하였으나 전체적인 기형과 약은 어렵다. 경부는 약간 길며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구연부에서 바라진다. 전부에는 2조의 횡조선을 돌려 구분하고 있다. 경부에는 여러 개의 점문으로 구성된 인화문이 시문되었고 그 위로 2조의 횡침선을 돌렸다. 태토는 점토에 가는 모래를 혼입하였다. 색조는 내외면 N 5/ (회색)과 속심 2.5YR 4/2 (회적색)을 띠고 있다.

잔존고 8.7cm, 두께 0.9cm

44. 암키와편(도면 30-44, 도판 24-44)

암회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제토중에 출토되었으며, 네 면 모두 결실되었다. 외면에는 종선문이 타날되었으며, 약 8.5cm의 고판을 사용하여 단판 타날을 하였다. 내면에는 사절흔과 포흔이 관찰되나 물손질로 희미하다. 와도분할흔은 양측 모두 결실되어 알 수 없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도면 30. 수습유물(41~45)

사용하였으며, 속심은 회백색을 띤다.

잔존 길이 14.5cm, 잔존 너비 7.4cm, 두께 1.2cm

45. 암키와편(도면 30-45, 도판 24-45)

회갈색 경질의 암키와편으로 제토중에 출토되었으며, 상단부 일부만 잔존한다. 외면에는 종선문이 타날되었으나 물손질 정면으로 문양이 희미하며, 상단부에는 횡방향의 물손질 흔적이 관찰된다. 내면에는 포흔($9 \times 7/1\text{cm}^2$)이 관찰되며, 상단부에는 내외면으로 0.7cm 폭으로 깎아서 조정하였다. 와도분할 흔은 양측 모두 결실되어 알 수 없다. 태토는 굵은 사립이 포함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잔존 길이 11.4cm, 잔존 너비 9.4cm, 두께 1.7cm

Ⅳ. 조사성과

본 발굴조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병원신축) 신축부지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3-15번지(234.5㎡)에 대한 조사이다. 조사지역은 홍천강 북안의 충적지로 주변에 희망리 사지와 희망리 당간지주(보물 제 80호)를 비롯하여 동쪽으로 홍천 신장대리유적(예맥문화재연구원, 2014)과 홍천 신장대리유적(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등이 분포하여 삼국~통일신라시대 주거지와 나말~조선시대 건물지 등이 분포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³⁶⁾

조사결과, 통일신라~고려시대에 이르는 문화층 3개에서 총 13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문화층(상층)에서 방형 석렬유구 1기, 보도시설 1기, 적석유구 2기, 적심 3기, 부석(추정보도)유구 1기가 확인되었고, 나말여초시기 문화층(중층)에서 석렬유구 1기와 석축유구 1기, 수혈주거지 1동, 매납유구 1기, 통일신라시대 문화층(하층)에서 와관묘 1기가 확인되었다.

고려시대 유구인 방형 석렬유구는 천석을 방형으로 둘러서 축조하였고, 규모는 동-서 길이 360cm, 남-북 폭 145cm 가량이다. 1단으로 둘러 조성했으며, 각 모서리 부분에는 보강하듯 천석을 덧대어 축조하였다. 서쪽으로 치우쳐 방형 석렬유구를 파괴하고 조성된 유구는 보도시설이다. 이는 기와를 파쇄하여 외곽을 먼저 조성하고 내부에 기와편을 세워 조성하였다. 부석(추정보도)유구는 조사지역 북편에서 확인되었다. 민원문제로 인한 조사여건의 한계상 일부분만 확인되었는데, 편평하고 넓직한 천석을 이용하여 바닥을 깔았으며, 북쪽에도 천석을 깔았으나 불규칙하게 놓은 것이 확인되었다. 편평한 천석을 깔아놓아 조성된 예는 최근 강릉에서 조사된 굴산사지 내 '건물지 23' 남동편의 보도시설과 유사하다. 다만 금번 조사에서는 일부만 확인되어 부석유구를 보도시설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부석(추정보도)유구로 명명하였다.³⁷⁾

적석유구 2기는 방형에 가까우나 형태가 불분명 하며, 기와와 천석을 혼용해 무질서하게 1~2단으로 쌓아 제작하였다. 인근의 희망리 376-49번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적석유구가 형태와 규모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유사한 형태로 파악된다. 한편, 적심 3기는 각각 축조방식과 천석의 규모가 다르며, 간격 또한 일정치 않아 하나의 건물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인접한 “홍천 신장대리유적”(예맥문화재연구원, 2014)에서 조사된 건물지의 적심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어 조사지역 외곽으로 건물지의 전체적인 형태가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말여초 시기에 해당하는 석축유구와 석렬유구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축조되었으며, 조사지역 경계와 맞물려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접한 “홍천 신장대리유적”(예맥문화재연구원, 2014)에서 조사된 삼국~나말여초 시기 수혈주거지 내부의 구들시설을 보면, 축조방식이 유사한 것이 확인되어 이들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석렬유구 하부에서 평면형태 방형의 수혈주거지 1동이 확인되었는데, 서벽에 붙어 구들과 약간의 피열흔이 확인되었다. 구들의 방향은 남-북을 향하고

36) 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洪川 新場垓里遺蹟』.

국강고고학연구소, 2017, 『홍천 신장대리유적』.

37) 국립중앙문화재연구소, 2017, 『강릉 굴산사지(사적 제448호) 발굴조사 보고서Ⅱ』.

있는데, 수혈주거지 역시 인접한 “홍천 신장대리유적”에서 확인된 수혈주거지의 구들 방향과 구들 축조방식이 유사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와관묘는 강원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양식으로 단판타날을 이용한 선문기와를 사용해 축조하였고, 그 주변을 도기로 둘러 보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와 같은 와관묘는 완주 용암유적, 옥천 인정리유적, 언양 신화리유적 등지에서 확인된 바 있어 추후 자료집성을 통한 검토가 필요하다.³⁸⁾

이와 같이 금번 발굴조사는 매우 협소한 지역의 한계로 말미암아 각 유구별 규모나 방향성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그에 따라 성격이나 용도를 파악하는데도 무리가 따랐다. 그러나 인접한 지역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까지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유구의 성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금번 발굴조사된 유적은 인접한 홍천 신장대리 유적의 일부로 파악되며, 주변에서 조사된 유적들을 통해 유적 범위가 인근의 희망리 당간지주와 희망리 사지 일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향후 앞으로 일대의 매장문화재 조사가 더 이뤄진다면, 홍천읍내의 중심지역의 문화양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8) 전북문화재연구원, 2009, 『고속국도 제27호선 전주-남원간 건설공사부지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중원문화재연구원, 2012, 『옥천 인정리유적』.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2, 『언양 신화리유적(2)』.

도 판



도판 1. ① 조사지역 원경, ② 조사지역 조사 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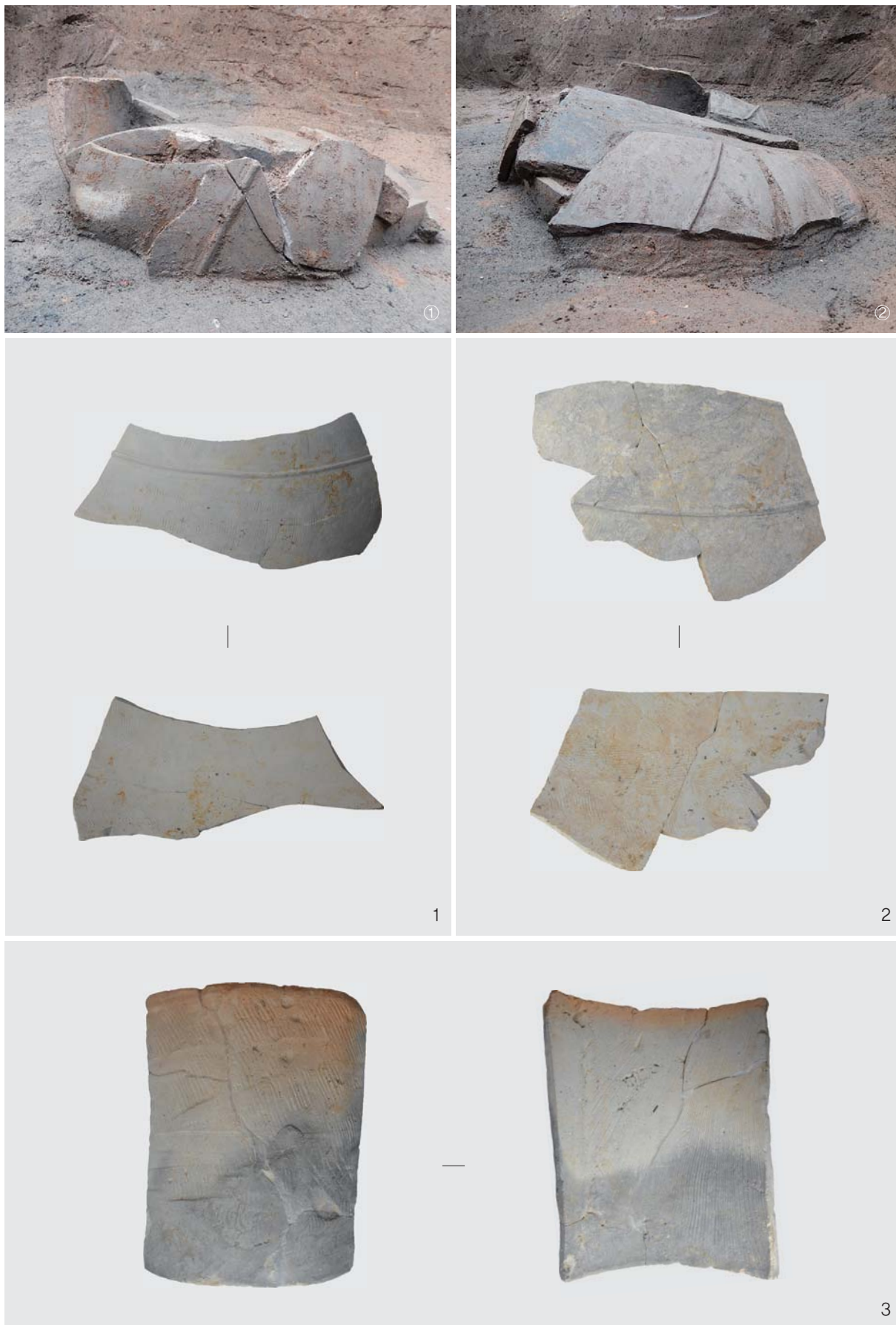
도판 2. 조사지역 전경 ① 1차, ② 2차



도판 3. 조사지역 기준토층 ① 남벽, ② 탐색 pit 남벽, ③ 동벽



도판 4. 와관묘 ① 조사 전 모습, ② 조사 후 모습



도판 5. 와관묘 ① 측면모습(북편), ② 측면모습(남편), 출토유물 1~3



도판 6. 와관묘 출토유물 4~5, 수혈주거지 ① 조사 전 전경



도판 7. 수혈주거지 ① 조사 후 전경, ② 구들모습, ③ 아궁이 피열모습, ④ 아궁이 세부, 출토유물 6



도판 8. 석렬유구 ① 조사 후 전경, ② 남편 세부, ③ 북편 세부, ④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7



도판 9. 석렬유구 출토유물 8~11



12



①



②

도판 10. 석렬유구 출토유물 12 / 석축유구 ① 노출 모습, ② 조사 후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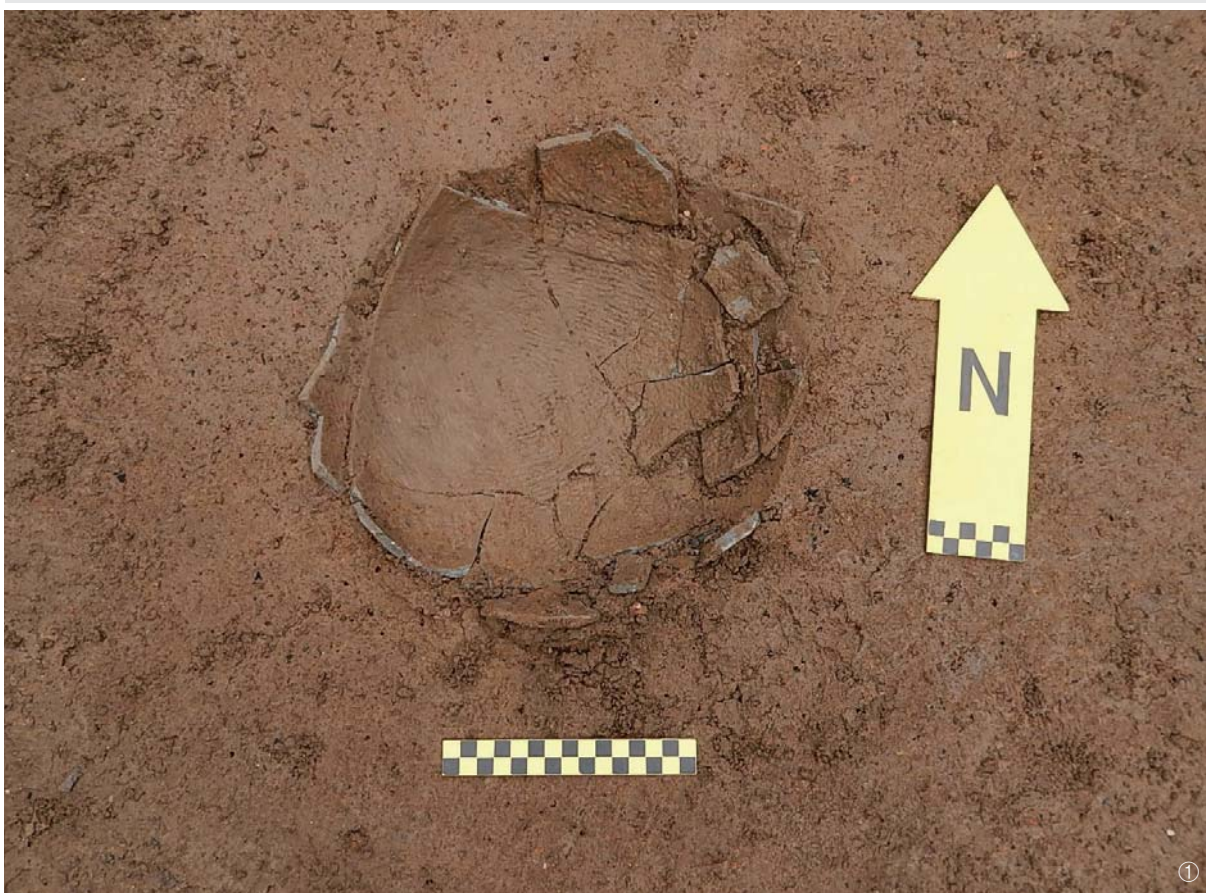
도판 11. 석축유구 ① 입면모습, ②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13~18



19



20



①

도판 12. 석축유구 출토유물 19~20 / 매납유구 ① 조사 후 모습



도판 13. 매납유구 ① 측면모습, ② 내부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21~22 / 방형 석렬유구 ③ 조사 후 전경



도판 14. 방형 석렬유구 ① 입면, ② 남서쪽 모서리 세부, ③ 남동쪽 모서리 세부, ④ 중앙 pit조사 후 모습, ⑤ pit내 토층모습



도판 15. 보도시설 ① 조사 후 전경(남-북), ② 조사 후 전경(동-서)



도판 16. 보도시설 ① 세부, ② 측면, 출토유물 23~25



도판 17. 보도시설 출토유물 26~27 / 1·2호 적석유구 ①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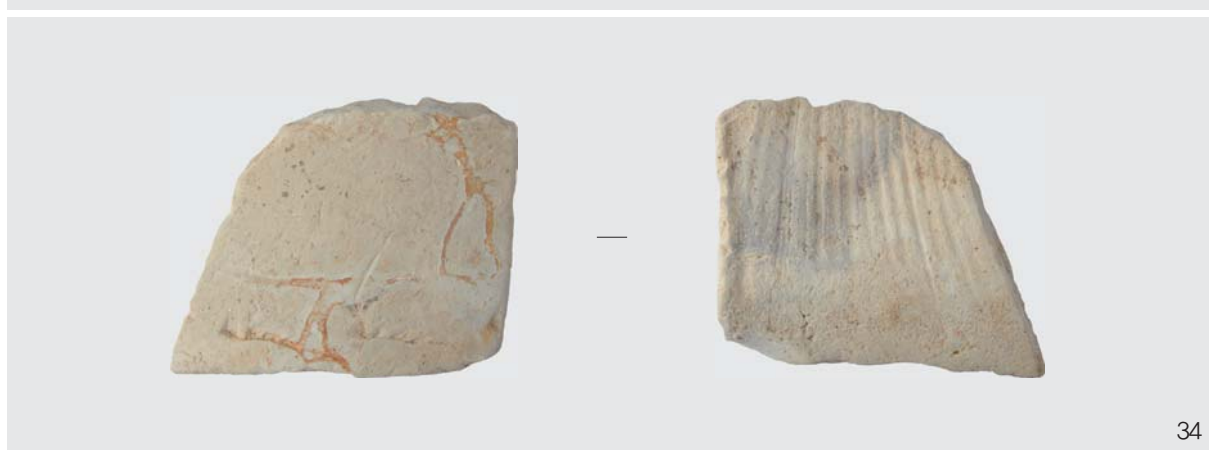
도판 18. 1호 적석유구 ① 조사 전 전경, ② 조사 후 전경, ③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28



도판 19. 1호 적석유구 출토유물 29~32



33



34

도판 20. 2호 적석유구 ① 조사 후 전경, 출토유물 33~34



도판 21. 1·2호 적심 ① 전경 / 1호 적심 ② 조사 후 전경 / 2호 적심 ③ 조사 후 전경, 출토유물 35



도판 22. 3호 적심 ① 조사 후 전경, ② 단면 절개모습, ③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36~38



도판 23. 부석(추정보도)유구 ① 전경(남쪽에서), ② 남편 세부, ③ 중앙부 세부, ④ 남편 전경, ⑤ 남편 세부



도판 24. 부석(추정보도)유구 ① 유물 출토 모습, 출토유물 40 / 수습유물 41~45



도판 25. ① 유구 실측 모습, ② 학술자문회의 모습



도판 26. ① 학술자문회의의 모습, ② 유물선별회의의 모습

홍천 신장대리 63-15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	도기 동체편	1	와관묘	토도류	통일신라	17	36.6	0.9	5-1 5-1	Y
2	도기 동체편	1	와관묘	토도류	통일신라	19.5	26.3	1	5-2 5-2	Y
3	암키와편	1	와관묘	토도류	통일신라	40	31	2.1	6-3 5-3	Y
4	암키와편	1	와관묘	토도류	통일신라	40.5	31.7	2.4	7-4 6-4	Y
5	암키와편	1	와관묘	토도류	통일신라	15.5	30	2.1	8-5 6-5	Y
6	토기 뚜껑편	1	수혈 주거지	토도류	나말여초	4.4	16	0.6	10-6 7-6	Y
7	토기 뚜껑편	1	석렬유구	토도류	나말여초	2.3	9	—	12-7 8-7	Y
8	토기 뚜껑편	1	석렬유구	토도류	나말여초	2.2	1.6	—	12-8 9-8	Y
9	도기 저부편	1	석렬유구	토도류	나말여초	4	—	11	12-9 9-9	Y
10	수키와편	1	석렬유구	토도류	나말여초	13.5	9.4	1.4	12-10 9-10	Y
11	암키와편	1	석렬유구	토도류	나말여초	13.5	9.5	3	12-11 9-11	Y
12	암키와편	1	석렬유구	토도류	나말여초	14	7	1.6	12-12 10-12	Y
13	토기 뚜껑편	1	석축유구	토도류	나말여초	3.8	20	0.5	14-13 11-13	Y
14	도기 완	1	석축유구	토도	나말여초	6.7	15.8	8.6	14-14 11-14	Y
15	도기 구연부편	1	석축유구	토도	나말여초	6.1	8	0.6	14-15 11-15	Y
16	도기 저부편	1	석축유구	토도	나말여초	5.3	14.4	0.5	14-16 11-16	Y
17	도기 저부편	1	석축유구	토도	나말여초	3	11.4	0.5	14-17 11-17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8	시루 바닥편	1	석축유구	토도	나말여초	4.2	3	1	14-18 11-18	Y
19	암키와편	1	석축유구	토도류	나말여초	16.8	13.6	2.3	14-19 12-19	Y
20	암키와편	1	석축유구	토도류	나말여초	14.6	10.2	2	14-20 12-20	Y
21	도기호 편	1	매납유구	토도	나말여초	11.2	—	0.8	16-21 13-21	Y
22	유리구슬	1	매납유구	옥석 유리	나말여초	1.8	—	—	16-22 13-22	Y
23	암키와편	1	보도시설	토도류	고려	23.9	15.5	2.6	19-23 16-23	Y
24	암키와편	1	보도시설	토도류	고려	13.5	9.1	1.1	19-24 16-24	Y
25	암키와편	1	보도시설	토도류	고려	15.4	11.3	2.5	19-25 16-25	Y
26	암키와편	1	보도시설	토도류	고려	10.7	12.9	1.6	19-26 17-26	Y
27	암키와편	1	보도시설	토도류	고려	8.2	11	1.5	19-27 17-27	Y
28	수키와편	1	1호 적석유구	토도류	고려	13.5	8	0.9	21-28 18-28	Y
29	수키와편	1	1호 적석유구	토도류	고려	17.7	8.4	2	21-29 19-29	Y
30	암키와편	1	1호 적석유구	토도류	고려	7.2	6.7	2.1	21-30 19-30	Y
31	암키와편	1	1호 적석유구	토도류	고려	20.4	15	2.2	21-31 19- 31	Y
32	전	1	1호 적석유구	토도류	고려	13.3	13.2	4.8	21-32 19-32	Y
33	암키와편	1	2호 적석유구	토도류	고려	12.6	12.6	1.8	22-33 20-33	Y
34	암키와편	1	2호 적석유구	토도류	고려	10.4	11.6	2	22-34 20-34	Y
35	암키와편	1	2호 적심	토도류	고려	17.8	10.1	1.6	25-35 21-35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36	시루 바닥편	1	3호 적심	토도	고려	8.3	8	0.9	27-36 22-36	Y
37	암키와편	1	3호 적심	토도류	고려	12.1	13.4	2.2	27-37 22-37	Y
38	암키와편	1	3호 적심	토도류	고려	14.7	13.6	1.8	27-38 22-38	Y
39	암키와편	1	3호 적심	토도류	고려	9.8	10.8	1.5	27-39 22-39	Y
40	청자완	1	부석 (추정보도)	토도류	고려	6.6	16	5.2	29-40 24-40	Y
41	장경호 구연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고려	3.8	34	1	30-41 24-41	Y
42	편구병 동체편	1	수습유물	토도류	고려	4	—	1	30-42 24-42	Y
43	도기 경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고려	8.7	—	0.9	30-43 24-43	Y
44	암키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고려	14.5	7.4	1.2	30-44 24-44	Y
45	암키와편	1	수습유물	토도류	고려	11.4	9.4	1.7	30-45 24-45	Y

掘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홍천 신장대리 63-15번지 유적 - 홍천 신장대리(63-15번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住所	(26355)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지래울로 41				
	TEL	(033) 743-8916~7		FAX	(033) 743-8920	
執筆・編輯者	지현병, 윤석인, 유용수, 신유리, 안소희, 조지은					
調査 緣由	건물 신축					
發掘調査者	지현병, 윤석인, 유용수, 신유리, 안소희					
遺蹟調査地番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63-15					
調査面積	234.5㎡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와관묘	통일신라시대	1기	도기편, 암키와			
수혈주거지	나말여초	1기	토기 뚜껑편			
석렬유구		1기	토기 뚜껑편, 도기 저부편, 수키와편, 암키와편			
석축유구		1기	토기 뚜껑편, 도기 동체편			
매납유구		1기	도기호 편, 유리구슬			
방형 석렬유구	고려시대	1기	-			
보도시설		1기	암키와편			
적석유구		2기	수키와편, 암키와편, 전			
적심		3기	암키와편, 시루 바닥편			
부석(추정보도) 유구		1기	청자완			

156. 경주 구황동 875-3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목 차

I. 조사개요	156-11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56-13
III. 조사내용	156-20
1. 시굴조사.....	156-20
2. 발굴조사	156-20
〈통일신라시대〉	156-24
- 상부 문화층 -	
1) 건물지	156-26
(1) 건물지 1호	156-26
(2) 건물지 2호	156-26
(3) 건물지 3호	156-33
2) 적심	156-35
3) 담장지	156-38
(1) 담장지 1호	156-38
(2) 담장지 2호	156-38
(3) 담장지 3호	156-40
(4) 담장지 4호	156-40
4) 배수로	156-41
(1) 배수로 1호	156-41
5) 기단석렬	156-41
(1) 기단석렬 1호	156-41
(2) 기단석렬 2호	156-42
(3) 기단석렬 3호	156-44
(4) 기단석렬 4호	156-44
(5) 기단석렬 5호	156-48
6) 석조유구	156-48
(1) 석조유구 1호	156-48
(2) 석조유구 2호	156-50
7) 우물	156-52
(1) 우물 1호	156-52

8) 매납유구	156-55
(1) 매납유구 1호	156-55
(2) 매납유구 2호	156-56
(3) 매납유구 3호	156-56
(4) 매납유구 4호	156-59
(5) 매납유구 5호	156-60
9) 부석유구	156-62
(1) 부석유구 1호	156-62
－ 하부 문화층 －	
10) 배수로	156-64
(1) 배수로 2호	156-64
11) 기단석렬	156-66
(1) 기단석렬 6호	156-66
(2) 기단석렬 7호	156-67
(3) 기단석렬 8호	156-70
12) 석조유구	156-75
(1) 석조유구 3호	156-75
(2) 석조유구 4호	156-76
(3) 석조유구 5호	156-76
13) 석렬유구	156-77
(1) 석렬유구 1호	156-77
(2) 석렬유구 2호	156-77
(3) 석렬유구 3호	156-79
(4) 석렬유구 4호	156-82
14) 우물	156-82
(1) 우물 2호	156-82
15) 보도시설	156-84
16) 매납유구	156-85
(1) 매납유구 6호	156-85
17) 부석유구	156-86
(1) 부석유구 2호	156-86
(2) 부석유구 3호	156-87
18) 수혈유구	156-87
IV. 조사성과	156-105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156-14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156-15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56-19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156-21
도면 5. 상부문화층 유구분포도	156-23
도면 6. 조사대상지 토층도(동-서)	156-25
도면 7. 건물지 1호	156-27
도면 8. 건물지 2호	156-29
도면 9. 건물지 2호 출토유물	156-32
도면 10. 건물지 3호	156-34
도면 11. 적심 1~6호	156-36
도면 12. 적심 7~9호	156-37
도면 13. 담장지 1호	156-38
도면 14. 담장지 2호	156-39
도면 15. 담장지 3호	156-40
도면 16. 담장지 4호	156-40
도면 17. 배수로 1호	156-41
도면 18. 기단석렬 1호	156-42
도면 19. 기단석렬 2호 및 출토유물	156-43
도면 20. 기단석렬 3~5호 및 출토유물(9~11:4호, 12:5호)	156-45
도면 21. 석조유구 1·2호	156-49
도면 22. 석조유구 1·2호 출토유물(13:1호, 14~16:2호)	156-51
도면 23. 우물 1호	156-53
도면 24. 우물 1호 출토유물	156-54
도면 25. 매납유구 1호 및 출토유물	156-55
도면 26. 매납유구 2호 및 출토유물	156-57
도면 27. 매납유구 3호 및 출토유물	156-58
도면 28. 매납유구 4호 및 출토유물	156-60
도면 29. 매납유구 5호 및 출토유물	156-61
도면 30. 부석유구	156-62
도면 31. 하부문화층 유구분포도	156-63
도면 32. 배수로 2호 및 출토유물	156-65

도면 33. 기단석렬 6호	156-66
도면 34. 기단석렬 7호	156-68
도면 35. 기단석렬 7호 출토유물	156-69
도면 36. 기단석렬 8호	156-71
도면 37. 기단석렬 8호 출토유물1	156-73
도면 38. 기단석렬 8호 출토유물2	156-74
도면 39. 석조유구 3호	156-75
도면 40. 석조유구 4호	156-76
도면 41. 석조유구 5호	156-76
도면 42. 석렬유구 1호 및 출토유물	156-78
도면 43. 석렬유구 2호	156-79
도면 44. 석렬유구 3호 및 출토유물	156-80
도면 45. 석렬유구 4호	156-81
도면 46. 우물 2호	156-83
도면 47. 보도시설	156-84
도면 48. 매납유구 6호 및 출토유물	156-85
도면 49. 부석유구 2호	156-86
도면 50. 부석유구 3호	156-87
도면 51. 수혈유구 1~6호	156-89
도면 52. 수혈유구 7호	156-90
도면 53. 수혈유구 8~12호 및 12호 출토유물	156-91
도면 54. 수혈유구 13~17호	156-93
도면 55. 수혈유구 18 · 19호 및 18호 출토유물	156-96
도면 56. 수혈유구 20~23호 및 23호 출토유물	156-97
도면 57. 수혈유구 24~29호	156-98
도면 58. 수혈유구 30~35호 및 32호 출토유물	156-99
도면 59. 수혈유구 36~42 · 44호	156-100
도면 60. 수혈유구 43 · 45~48호 및 43호 출토유물	156-101
도면 61. 상부 수습유물	156-103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전(NE→SW), ②시굴조사후(NW→SE))	156-111
도판 2. 조사대상지 시굴조사(①트렌치 조사후(NW→SE), ②토층, ③석균(E→W), ④적심(E→W))	156-112
도판 3. 조사대상지 상부문화층 조사중 전경(①②항공촬영)	156-113
도판 4. 건물지 1호(①조사중(SW→NE), ②입면)	156-114
도판 5. 건물지 1호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1, ③④적심2, ⑤⑥적심3, ⑦⑧적심4) …	156-115
도판 6. 건물지 2호 조사중(①상부 조사(W→E), ②하부 조사(W→E))	156-116
도판 7. 건물지 2호 상부 조사중(①SW→NE, ②E→W)	156-117
도판 8. 건물지 2호(①②입면), 건물지 2호 상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③④적심1, ⑤⑥적심2)	156-118
도판 9. 건물지 2호 상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3, ③④적심4, ⑤⑥적심5, ⑦⑧적심6)	156-119
도판 10. 건물지 2호 상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7, ③④적심8), 건물지 2호 기와무지 조사중(⑤NE→SW)	156-120
도판 11. 건물지 2호 하부 조사중(①②NW→SE)	156-121
도판 12. 건물지 2호 하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1, ③④적심2, ⑤⑥적심3, ⑦⑧적심4)	156-122
도판 13. 건물지 2호 하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5, ③④적심6, ⑤⑥적심7, ⑦⑧적심8)	156-123
도판 14. 건물지 2호 하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9, ③④적심10, ⑤⑥적심11, 1·2:출토유물)	156-124
도판 15. 건물지 2호 출토유물(3~5), 건물지 3호 조사중(①NE→SW)	156-125
도판 16. 건물지 3호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1, ③④적심2, ⑤⑥적심3, ⑦⑧적심4)	156-126
도판 17. 적심 1호(①조사중, ②단면), 적심 2호(③조사중, ④단면), 적심 3호(⑤조사중, ⑥단면), 적심 4호(⑦조사중, ⑧단면)	156-127
도판 18. 적심 5호(①조사중, ②단면), 적심 6호(③조사중, ④단면), 적심 7호(⑤조사중, ⑥단면), 적심 8호(⑦조사중, ⑧단면)	156-128
도판 19. 적심 9호(①조사중, ②단면), 담장지 1호(③조사중(SE→NW), ④입면, ⑤단면), 담장지 2호 단면(⑥)	156-129
도판 20. 담장지 2호 조사중(①NW→SE, ②SW→NE)	156-130
도판 21. 담장지 2호 출토유물(6·7), 담장지 3호(①조사중(SW→NE), ②입면)	156-131

도판 22. 담장지 3호 토층(①), 담장지 4호(②단면, ③조사중(SW→NE), ④입면)	156-132
도판 23. 배수로 1호(①조사중(NE→SW), ②③입면, ④단면 토층)	156-133
도판 24. 기단석렬 1호(①③조사중(SE→NW), ②④입면)	156-134
도판 25. 기단석렬 1호 토층(①), 기단석렬 2호(②조사중(SE→NW), ③④입면, ⑤단면, 8:출토유물)	156-135
도판 26. 기단석렬 3호(①조사중(SE→NW), ②③토층, ④입면)	156-136
도판 27. 기단석렬 3호 입면(①~③)	156-137
도판 28. 기단석렬 4호(①조사중(NE→SW), ②조사중(NW→SE))	156-138
도판 29. 기단석렬 4호 입면(①②)	156-139
도판 30. 기단석렬 4호(①②토층, ③석군 조사중(NW→SE))	156-140
도판 31. 기단석렬 4호 석군(①②입면, ③④토층, 9~11:출토유물)	156-141
도판 32. 기단석렬 5호(①조사중(NW→SE), ②입면)	156-142
도판 33. 기단석렬 5호(①입면, ②토층, ③④배수로 조사중, 12:출토유물)	156-143
도판 34. 석조유구 1호(①조사중, ②~⑤입면)	156-144
도판 35. 석조유구 1호(①단면 토층, 13:출토유물), 석조유구 2호 조사중(②)	156-145
도판 36. 석조유구 2호(①~④입면, ⑤⑥토층)	156-146
도판 37. 석조유구 2호 출토유물(14~16), 우물 1호(①조사중(S→N), ②단면 토층)	156-147
도판 38. 우물 출토유물(17~19), 매납유구 1호 조사중(①~③).....	156-148
도판 39. 매납유구 1호(①세부, 20·21:출토유물), 매납유구 2호(②조사전(NE→SW), ③조사중(NE→SW), ④조사후(NE→SW), ⑤토층).....	156-149
도판 40. 매납유구 2호 출토유물(22), 매납유구 3호(①조사전(S→N), ②조사중(W→E), ③세부, 23·24:출토유물)	156-150
도판 41. 매납유구 4호(①조사중(NE→SW), ②세부, 25:출토유물), 매납유구 5호(③조사전(NE→SW), ④조사중(NE→SW), 26:출토유물)	156-151
도판 42. 매납유구 5호(①조사후(NE→SW), ②세부), 부석유구 1호(③조사중(SE→NW), ④단면 토층)	156-152
도판 43. 조사대상지 하부문화층 조사중 전경(①항공촬영, ②SE→NW)	156-153
도판 44. 배수로 2호(①조사중(SE→NW), ②③입면)	156-154
도판 45. 배수로 2호(①단면 토층, 27~29:출토유물)	156-155
도판 46. 기단석렬 6호(①조사중(SW→NE), ②③입면, ④토층)	156-156
도판 47. 기단석렬 7호(①조사중(NE→SW), ②③입면)	156-157
도판 48. 기단석렬 7호(①토층, 30~33:출토유물)	156-158
도판 49. 기단석렬 8호(①조사중(NE→SW), ②③입면)	156-159
도판 50. 기단석렬 8호(①토층, ②유물 출토상태, 출토유물1)	156-160
도판 51. 기단석렬 8호 출토유물2	156-161

도판 52. 기단석렬 8호 출토유물3, 석조유구 3호(①조사중(SE→NW), ②입면)	156-162
도판 53. 석조유구 3호(①입면, ②③단면 토층), 석조유구 4호 조사중(④E→W)	156-163
도판 54. 석조유구 4호(①②입면, ③단면 토층), 석조유구 5호(④입면 및 토층, ⑤조사중(E→W))	156-164
도판 55. 석렬유구 1호(①조사중(SW→NE), ②입면, ③토층, 40·41:출토유물)	156-165
도판 56. 석렬유구 2호(①조사중(SW→NE), ②입면, ③단면 토층), 석렬유구 3호 토층(④)	156-166
도판 57. 석렬유구 3호(①조사중(SE→NW), ②입면, 42~44:출토유물)	156-167
도판 58. 석렬유구 4호(①조사중(NW→SE), ②입면, ③토층)	156-168
도판 59. 우물 2호(①②NE→SW)	156-169
도판 60. 우물 2호(①조사중, ②단면)	156-170
도판 61. 우물 2호 단면 토층(①~⑤), 보도시설 단면 토층(⑥)	156-171
도판 62. 보도시설(①NE→SW, ②세부, ③입면)	156-172
도판 63. 보도시설 바닥세부(①), 매납유구 6호(②조사중(S→N), ③단면 토층, 45:출토유물), 부석유구 2호(④조사중(SE→NW), ⑤단면)	156-173
도판 64. 부석유구 3호(①조사중(SW→NE), ②토층), 조사대상지 하부문화층 수혈유구 전경(③NW→SE)	156-174
도판 65. 수혈유구 1호(①조사후(W→E), ②토층), 수혈유구 2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3호(⑤조사후(S→N), ⑥토층), 수혈유구 4호(⑦조사후(E→W), ⑧토층)	156-175
도판 66. 수혈유구 5호(①조사후(E→W), ②토층), 수혈유구 6호(③조사후(W→E), ④토층), 수혈유구 7호(⑤조사후(N→S), ⑥토층), 수혈유구 8호(⑦조사후(E→W), ⑧토층)	156-176
도판 67. 수혈유구 9호(①조사후(SE→NW), ②토층), 수혈유구 10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11호(⑤조사후(W→E), ⑥토층), 수혈유구 12호(⑦조사후(S→N), ⑧토층)	156-177
도판 68. 수혈유구 12호 출토유물(46), 수혈유구 13호(①조사후(S→N), ②토층), 수혈유구 14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15호(⑤조사후(W→E), ⑥토층)	156-178
도판 69. 수혈유구 16호(①조사후(E→W), ②토층), 수혈유구 17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18호(⑤조사후(S→N), ⑥토층, 47:출토유물)	156-179
도판 70. 수혈유구 19호(①조사후(S→N), ②토층), 수혈유구 20호(③조사후(W→E), ④토층), 수혈유구 21호(⑤조사후(S→N), ⑥토층), 수혈유구 22호(⑦조사후(S→N), ⑧토층)	156-180
도판 71. 수혈유구 23호(①조사후(S→N), ②토층, 48:출토유물), 수혈유구 24호 (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25호(⑤조사후(S→N), ⑥토층)	156-181

도판 72. 수혈유구 26호(①조사후($S \rightarrow N$), ②토층), 수혈유구 27호(③조사후($S \rightarrow N$), ④토층), 수혈유구 28호(⑤조사후($S \rightarrow N$), ⑥토층), 수혈유구 29호(⑦조사후($N \rightarrow S$), ⑧토층)	156-182
도판 73. 수혈유구 30호(①조사후($S \rightarrow N$), ②토층), 수혈유구 31호(③조사후($S \rightarrow N$), ④토층), 수혈유구 32호(⑤조사후($S \rightarrow N$), ⑥토층, 49:출토유물)	156-183
도판 74. 수혈유구 33호(①조사후($S \rightarrow N$), ②토층), 수혈유구 34호(③조사후($S \rightarrow N$), ④토층), 수혈유구 35호(⑤조사후($S \rightarrow N$), ⑥토층), 수혈유구 36호(⑦조사후($S \rightarrow N$), ⑧토층)	156-184
도판 75. 수혈유구 37호(①조사후($S \rightarrow N$), ②토층), 수혈유구 38호(③조사후($S \rightarrow N$), ④토층), 수혈유구 39호(⑤조사후($S \rightarrow N$), ⑥토층), 수혈유구 40호(⑦조사후($N \rightarrow S$), ⑧토층)	156-185
도판 76. 수혈유구 41호(①조사후($S \rightarrow N$), ②토층), 수혈유구 42호(③조사후($S \rightarrow N$), ④토층), 수혈유구 43호(⑤조사후($S \rightarrow N$), ⑥토층), 수혈유구 44호(⑦조사후($S \rightarrow N$), ⑧토층)	156-186
도판 77. 수혈유구 45호(①조사후($N \rightarrow S$), ②토층), 수혈유구 46호(③조사후($E \rightarrow W$), ④토층), 수혈유구 47호(⑤조사후($S \rightarrow N$), ⑥토층), 수혈유구 48호(⑦조사후($S \rightarrow N$), ⑧토층)	156-187
도판 78. 수혈유구 43호 출토유물(50), 상부 수습유물(51~57)	156-188

I. 조사개요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75-3번지로 사업시행자 최정주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404㎡)이다. 조사경위 및 경과를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경주시에 건축신고를 하였고, 경주시는 신청지가 국가지정문화재(경주 분황사 모전석탑-국보 제30호) 주변지역으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득한 후 시행되어야 할 사항임을 통보하였으며, 사업시행 전 시굴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다.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가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됨을 경주시를 통하여 확인하고, 2017년 6월 12일에 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본 재단에서는 7월 27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 1일 현장조사일수 3일에 대한 문화재청 허가(제2017-1008호)를 받았다.

시굴조사는 2017년 8월 3일~8월 4일 현장조사일수 2일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트렌치 1~3에서 적심 10기, 석군 4기, 석렬 1기와 통일신라시대 기와편 및 토기편 등이 확인되어 전체면적에 대한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발굴조사는 2017년 8월 21일에 현장조사일수 20일에 대한 문화재청의 변경허가를 받았고, 9월 4일에 착수하였다. 이후 상부·하부 2개의 문화층에서 유구간 중복양상이 확인됨에 따라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3차에 걸쳐 현장조사일수를 연장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¹⁾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문화층에서 건물지 3동, 적심 9개, 담장지 4기, 배수로 2기, 기단석렬 8기, 석렬유구 4기, 석조유구 5기, 매납유구 6기, 우물 2기, 보도시설 1기, 부석유구 3기, 수혈유구 48기 등 총 95기의 유구와 관련된 유물 57점이 확인되었다.

학술자문회의는 2017년 11월 6일에 실시하였다.²⁾ 회의 결과, 유구는 여러 차례 중복 조성되었으나, 보존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므로 해체조사를 통해 중복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기록보존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단에서는 유구에 대한 해체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록보존 한 후 2017년 12월 14일(현장조사일수 56일)에 완료하였다.

1) 조사기간은 1차는 15일, 2차는 8일 연장신고로 진행하였으며, 3차는 연장일수가 30일을 초과하여 변경허가를 득하였다.

2) 학술자문회의 자문위원 : 강봉원(경주대학교 교수), 조원창(한일문화재연구원장).

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굴조사	발굴조사
조 사 단 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책임조사원	박 강 민(조사연구1팀 부팀장)	박 강 민(조사연구1팀 부팀장)
조 사 원	염 정 희(조사연구1팀 연구원)	우 하 영(조사연구1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김 태 훈(조사연구1팀 연구원)	김 태 훈(조사연구1팀 연구원)
보 조 원	이 나 리(조사연구1팀 연구원)	이 나 리(조사연구1팀 연구원)

*()는 조사당시 직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강성귀 책임 하에 하혜진, 박아림, 백은주, 황도담, 이영호, 윤영경, 이정숙 등 본 재단 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우하영, 김태훈, 황도담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의 사진은 이재영(스카이뷰)이 촬영하였다.

원고는 박강민 책임 하에 I ~ II장 우하영, III장 우하영(조사내용 및 유구), 강성귀 · 하혜진(유물), IV장 우하영이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박강민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본 발굴조사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75-3번지이고, 경·위도상 동경 128° 13'50.77", 북위 35°50'32.55"이다. 조사대상지는 경주소방서 교차로에서 임해로 남쪽으로 100m 정도 진행하며 왼쪽 주택지 내에 위치한다. 북쪽은 도로, 동쪽과 서쪽은 담장, 남쪽은 주택과 접해 있었다.

자연·지리적³⁾으로 구황동은 경주분지의 중심에 위치하고, 경주분지는 동쪽과 북동쪽의 명활산(245m)과 소금강산(178m)으로부터 흘러들어온 퇴적물이 북천을 중심으로 한 하천을 따라 유입되어 형성되었다. 북천은 토함산(745m)에서 발원하여 보문지역을 북서류하고, 이후 경주시 동쪽에 위치한 선상지가 시작되는 북천 상류의 산지에서 평지로 바뀌는 경사면의 급변점인 곡구(谷口)쪽까지 서남서류하다가 분황사 부근에서부터 서북서 방향으로 흘러 형산강에 유입한다. 따라서 분황사 부근의 북천 좌안은 공격면에 해당된다. 조사대상지는 분황사 부근 북천 좌안 해발 54m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 북천의 범람에 많은 영향을 받았던 곳으로 추정된다.

역사적⁴⁾으로 구황동의 '구황(九黃)'은 신라 진흥왕 14년 궁궐을 짓기 위해 공사 중 아홉 마리 황룡이 나타나 승천하고 이곳에 절을 짓고 황룡사(黃龍寺)라 했으며, 아홉 마리의 황룡이 나타난 곳이라 하여 '구황' 또는 '구황룡'이라 칭하였다. 황룡사는 고려 고종 25년(1238) 몽고의 침입으로 모두 불타 버렸는데, 그 후 고려 말의 충신 김충한의 후손 김요가 처음 들어와 불탄 황룡사터를 개척하여 '구황'을 이루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구황리가 되었고, 1931년 경주읍에 편입되었으며, 1955년 경주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구황동이 되었다. 1998년 행정동인 월성동으로 운영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고학적으로 조사대상지는 '황룡사지(사적 제6호)'⁵⁾, '분황사'⁶⁾ 등 불교 관련 유적과 '전랑지'⁷⁾, '신라왕경유적'⁸⁾ 등 왕경 관련 유적이 인접한다. 조사대상지 반경 500m 내에서 확인된 유적으로는 '경주 구황동 880-16번지 유적'⁹⁾, '경주 황오동 3-7번지 유적'¹⁰⁾, '경주 구황동 872-2번지 유적'¹¹⁾, '경

3) 자연·지리적 내용은 『신라고분 환경조사 분석보고서Ⅱ』(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08)를 참고하여 수정·가필하였다.

4) 역사적 내용은 『慶州風物地理誌』(김기문, 2006)를 참고하여 수정·가필하였다.

5)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1984, 『皇龍寺 發掘調査報告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경주 구황동 황룡사연구센터 건립예정부지 유적』.

6)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5, 『芬皇寺I』.

7)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殿廊址·南古壘 報告書』.

8)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新羅王京』.

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9, 『慶州 隍城洞 535-18番地 遺蹟-慶州 九隍洞 880-16番地 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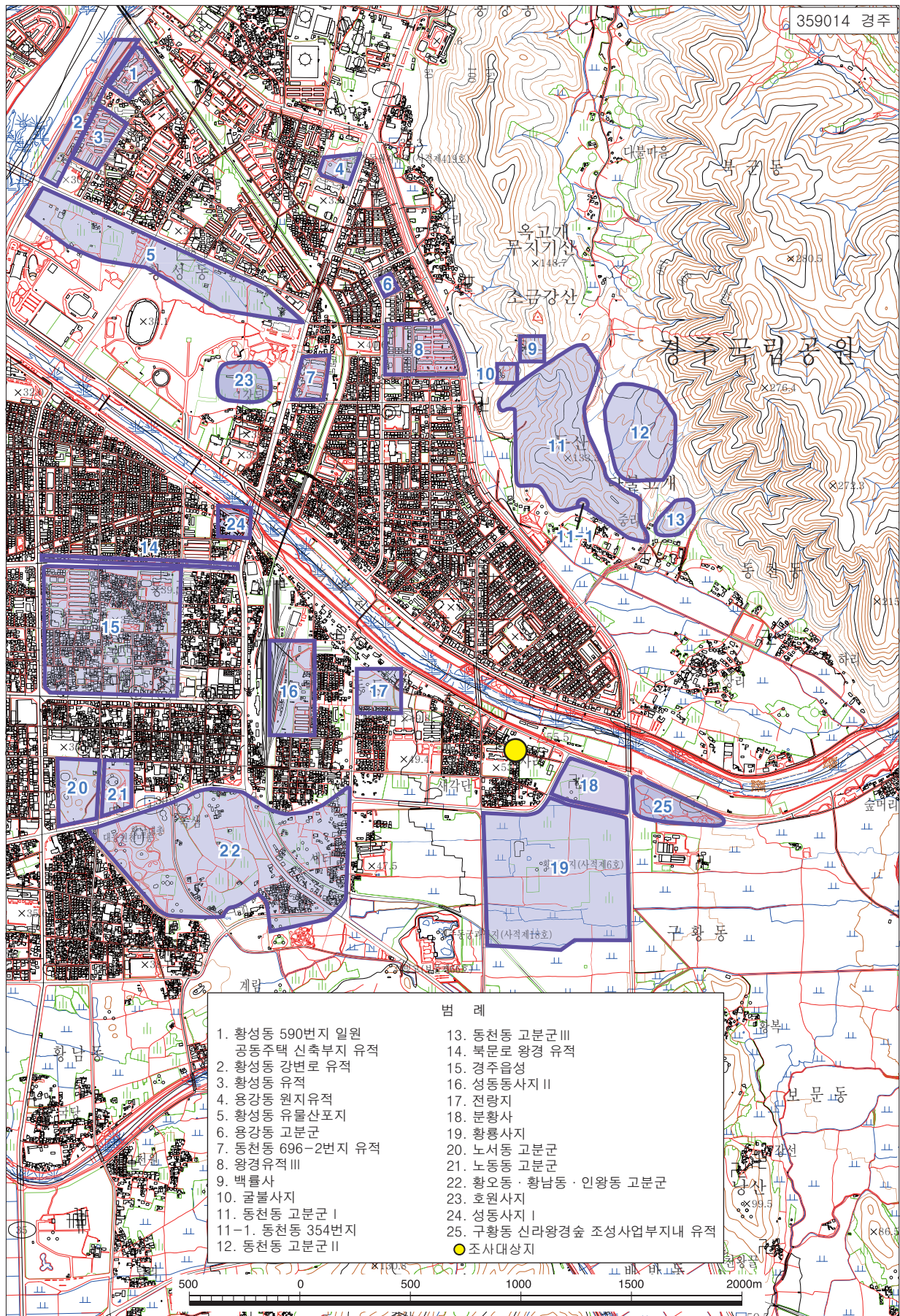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 배수로, 우물, 공방지 등이 확인되었다.

10) 新羅文化遺産調査團, 2009, 『王京遺蹟Ⅹ-慶州 皇伍洞 3-7番地 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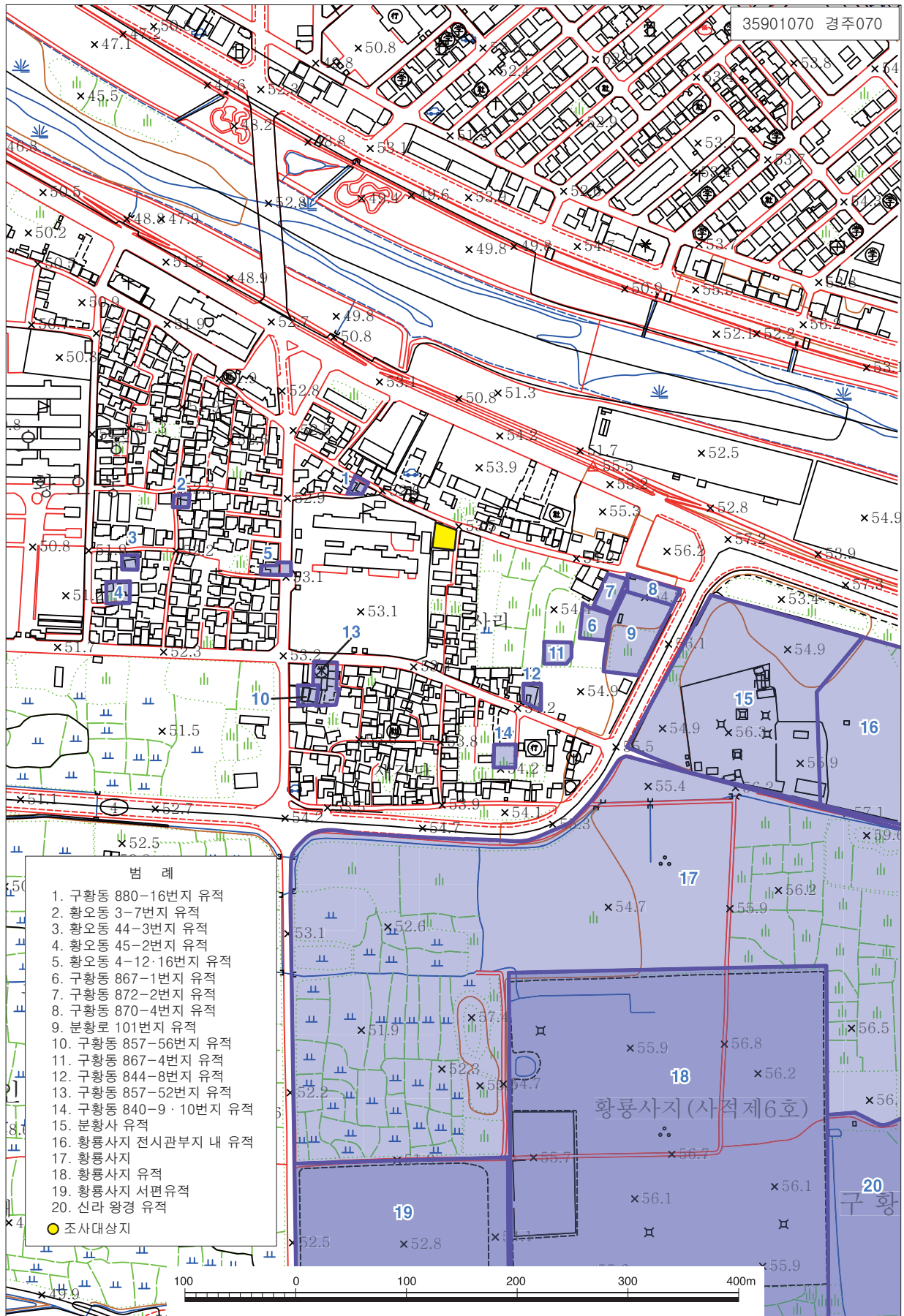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동-서·남-북방향 도로유구, 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11)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Ⅶ-경남2·대구·경북1- 경주 구황동 872-2번지 유적』.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건물지, 담장지, 배수로, 석렬유구, 석군 등이 확인되었다.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주 구황동 870-4번지 유적¹²⁾, ‘경주 분황로 101번지유적’¹³⁾, ‘경주 구황동 844-8번지 유적’¹⁴⁾, ‘경주 황오동 12-15번지 유적’¹⁵⁾, ‘경주 황오동 44-3번지 유적’¹⁶⁾, ‘경주 황오동 45-2번지 유적’¹⁷⁾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들 유적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건물지, 담장, 배수로, 석축유구, 우물 등이 확인되었다.

주변유적의 분포현황은 다음【표 1】과 같다.

【표 1】 주변유적 분포 현황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경주 성동동 사지Ⅱ	북서쪽 970m	통일신라시대 사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2	경주 성동동 전랑지	북서쪽 550m	통일신라시대 관청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殿廊址·南古壘 報告書』	사적 제88호
3	경주 황오동 12-15번지 유적	북서쪽 386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적심 조선시대 우물	한국문화재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 -경북4- 경주 황오동 12-15번지 유적』	
4	경주 황오동 42-4번지 유적	북서쪽 335m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배수로, 석조유구, 석렬유구, 적심, 우물	한국문화재재단, 2019,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XIII -81. 경주 황오동 42-4번지 유적』	
5	경주 동천동 삼성아파트 신축부지내 유적	북동쪽 52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6	경주 구황동 880-16번지 유적	서쪽 8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지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9, 『慶州 隍城洞 535-18番地 遺蹟 -慶州 九黃洞 880-16番地 遺蹟』	
7	경주 황오동 4-12, 4-16번지 유적	서쪽 148m	삼국시대 수혈유구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배수로	한국문화재재단, 2018,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 -경북7- 경주 황오동 4-12, 16번지 유적』	
8	경주 황오동 3-7번지 유적	서쪽 250m	통일신라시대 도로유구, 배수로	新羅文化遺産調査團, 2009, 『王京遺蹟Ⅹ-慶州 皇伍洞 3-7蕃地 遺蹟』	

12) 한국문화재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 - 경북 2 - 경주 구황동 870-4번지 유적』.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지, 매납유구, 배수로, 석축유구, 석군 등이 확인되었다.

13) 진흥문화재연구원, 2016, 『경주 분황로 101번지 유적』.

14) 한국문화재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 - 경북 2 - 경주 구황동 844-8번지 유적』.

15) 한국문화재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 - 경북4 - 경주 황오동 12-15번지 유적』.

16) 한국문화재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I - 경북 5 - 경주 황오동 44-3번지 유적』.

17) 한국문화재재단, 2015, 『2012년도 소규모발굴조사 보고서 X - 경북 2 - 경주 황오동 45-2번지 유적』.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9	경주 황오동 44-3번지 유적	남서쪽 290m	통일신라시대 수혈유구, 적심	한국문화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I -경북5- 경주 황오동 44-3번지 유적』	
10	경주 황오동 45-2번지 유적	남서쪽 305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고려시대 수혈유구, 적심 조선시대 부석유구	한국문화재단, 2015,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경북2- 경주 황오동 45-2번지 유적』	
11	경주 구황동 872-2번지 유적	동쪽 15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도로유구	한국문화재단, 2013,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I -경남2·대구·경북1- 경주 구황동 872-2번지』	
12	경주 구황동 870-4번지 유적	동쪽 17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적심, 배수로	한국문화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 -경북2-경주 구황동 870-4번지 유적』	
13	경주 분황로 101번지 유적	남동쪽 19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매납유구	眞興文化財研究院, 2016, 『경주 분황로 101번지 유적』	
14	경주 구황동 844-8번지 유적	남동쪽 168m	통일신라시대 석조유구, 담장지, 배수로	한국문화재단, 2016, 『2014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IV -경북2- 경주 구황동 844-8번지 유적』	
15	구황동 분황사유적	남동쪽 250m	삼국시대 사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6	분황사	남동쪽 250m	통일신라시대 사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17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남동쪽 580m	시기미상 제방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08, 『경주 구황동 신라왕경 숲 조성사업 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18	남고루	남서쪽 950m	고려시대 토루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殿廊址·南古壘 報告書』	사적 제17호
19	황룡사지	남쪽 270m	삼국시대 사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사적 제6호
20	황룡사연구센터 건립예정부지내 유적	남쪽 450m	통일신라시대 원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1 『경주 황룡사연구센터 건립예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연번	유적명	이격거리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21	경주 구황동 구황로 유적	남동쪽 590m	삼국~통일신라시대 담장지, 도로유구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22	도림사지	남동쪽 720m	통일신라시대 사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23	경주 인왕동 556, 566번지 유적	남서쪽 86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도로유구, 담장지, 암거유구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仁旺洞 556·566番地 遺蹟』	
24	경주 구황동 왕경발굴지	남동쪽 64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지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2, 『新羅王京』	
25	동궁과 월지 I	남서쪽 70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경주 동궁과 월지 I』	
26	임해전지	남서쪽 760m	통일신라시대 관아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사적 제18호
27	천주사지	남서쪽 980m	통일신라시대 사지	國立慶州博物館·慶州市, 2008, 『文化遺蹟分布地圖-慶州市-』	
28	미탄사지	남동쪽 940m	통일신라시대 사지	국립경주박물관, 2007, 『味吞寺址』	
29	경주 구황동 857-56번지 유적	남서쪽 19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지, 도로시설	한국문화재단, 2018,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X -경북1- 경주 구황동 857-56번지 유적』	
30	경주 구황동 867-4번지 유적	남동쪽 137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부석유구, 수혈유구	한국문화재단, 2018,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XI -경북2- 경주 구황동 867-4번지 유적 (신라문화유산연구원)』	
31	경주 구황동 867-5번지 유적	남동쪽 135m	통일신라시대 배수로 부석유구, 수혈유구	화랑문화재연구원, 2018, 『경주 구황동 왕경유적-경주 구황동 867-5번지 도로부지 내』	
32	경주 구황동 867-1번지 유적	남동쪽 155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배수로, 담장유구, 우물, 석조유구, 석렬유구	한국문화재단, 2018,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XI -경북2- 경주 구황동 867-1번지 유적』	
33	경주 황오동 78-1·8번지 유적	남서쪽 920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지, 적심, 석조유구	한국문화재단, 2018, 『2016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VI -경북7- 경주 황오동 78-1·8번지 유적』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1. 시굴조사

트렌치의 설치는 조사대상지의 평면형태와 지형을 고려해 남-북 방향으로 2개소를 설치하고, 추가 확인조사를 위해 트렌치 1과 2의 중간지점에 트렌치 3을 설치하였다. 트렌치 2의 동장벽쪽은 확인된 유구의 전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확장하였다. 트렌치 규모는 【표 2】와 같다.

트렌치 제토 및 유구 확인은 전체적인 층위를 파악한 후 유구가 확인되는 문화층까지 제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먼저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제토를 실시한 후 수작업으로 정리하면서 토층 퇴적양상과 유구 및 유물의 유존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2】트렌치 현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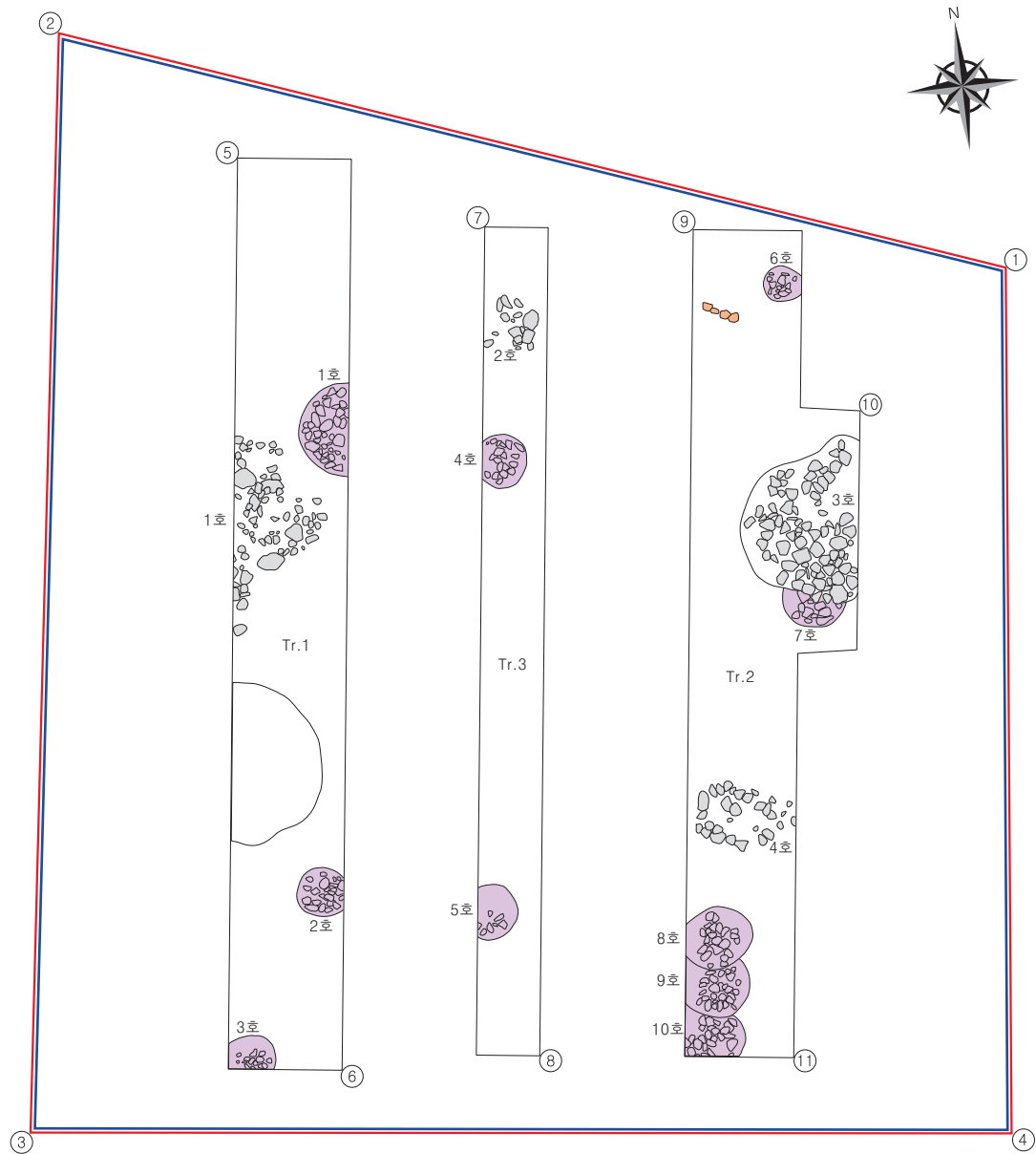
트렌치번호		규모(cm)			장축 방향	조사내용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1,900	210	30	남-북	적심 3, 석군 1	-
2	트렌치	1,720	200	30~40	남-북	적심 5, 석군 2, 석렬유구 1	-
	확장부	500	120	30	남-북		-
3		1,720	120	30	남-북	적심 2, 석군 1	-

시굴조사 결과, 표토하 20~40cm 정도에서 확인된 갈색 사질점토에서 적심 10기, 석군 4기, 석렬 유구 1기 등 총 15기의 유구와 통일신라시대 기와편, 인화문토기편 등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시굴조사면적 전체에 대해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2. 발굴조사

발굴조사를 위한 제토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표토하 20~40cm 정도의 갈색 사질점토의 상면을 중심으로 전면 제토하였다. 제토 범위는 북쪽은 도로, 동쪽은 담장, 남쪽은 주택, 서쪽은 화랑초등학교 담장과 접해 있어 안전 등을 고려해 조사경계에서 50~160cm 정도 거리를 두고 설정하였다.

개별유구에 대한 노출 작업은 확인된 유구 하부로 중첩된 유구가 확인되어 조사대상지 중앙부에 남-북·동-서 방향으로 “十” 자상의 독을 설치하여 유구 간 중복양상을 파악하면서 실시하였다. 또한, 크게 2개 문화층으로 구분되어 상부와 하부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부 문화층은 상부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360582.111m	④	X	360562.986m	⑦	X	360581.943m	⑩	X	360577.567m
	Y	220853.761m		Y	220852.25m		Y	220843.667m		Y	220850.671m
	Z	54.33m		Z	54.472m		Z	54.112m		Z	54.185m
②	X	360589.055m	⑤	X	360583.821m	⑧	X	360565.588m	⑪	X	360564.973m
	Y	220836.43m		Y	220838.939m		Y	220843.008m		Y	220848.165m
	Z	54.454m		Z	54.154m		Z	54.151m		Z	54.099m
③	X	360564.652m	⑥	X	360565.664m	⑨	X	360582.756m			
	Y	220835.737m		Y	220839.25m		Y	220847.816m			
	Z	54.565m		Z	54.152m		Z	54.15m			

- : 적심
- : 석렬유구
- : 석군
- : 교란
- : 발굴조사대상지
- : 사업대상지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문화층의 유구를 해체조사한 후 실시하였다. 우물은 상·하부 문화층의 유구를 해체조사한 후 기계를 이용한 단면을 절개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하부문화층은 남쪽과 북쪽을 구분해 남쪽 수혈유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후 북쪽 조사중 토사를 남쪽에 적치하였다. 각 문화층에서 노출된 유구의 평면배치 양상 및 개별 탐색트렌치를 통해 중복여부 및 미확인 유구를 살피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의 전반적인 토층의 퇴적양상은 조사대상지의 지형을 고려해 북쪽과 남쪽으로 대별된다. 남쪽은 표토층→통일신라시대 상부 문화층→통일신라시대 하부 문화층 순으로 확인되었고, 북쪽은 표토층→통일신라시대 상부 문화층→유물포함층→통일신라시대 하부 문화층→퇴적층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토층(1층)은 현대 폐기물이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이며, 두께 20~40cm 정도로 조사대상지 전체에서 확인되었다.

통일신라시대 상부 문화층(2층, 3층)은 표토하 20~80cm 정도(해발 53.2~53.9m 정도)에서 확인되는 갈색 사질점토로 조사대상지 전체에서 확인되었다. 상부 문화층의 지형은 남쪽이 높고 북쪽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물포함층(4층)은 토기편 및 기와편과 목탄 및 소토알갱이 등이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이며, 두께 50~60cm 정도로 조사대상지 북쪽에서만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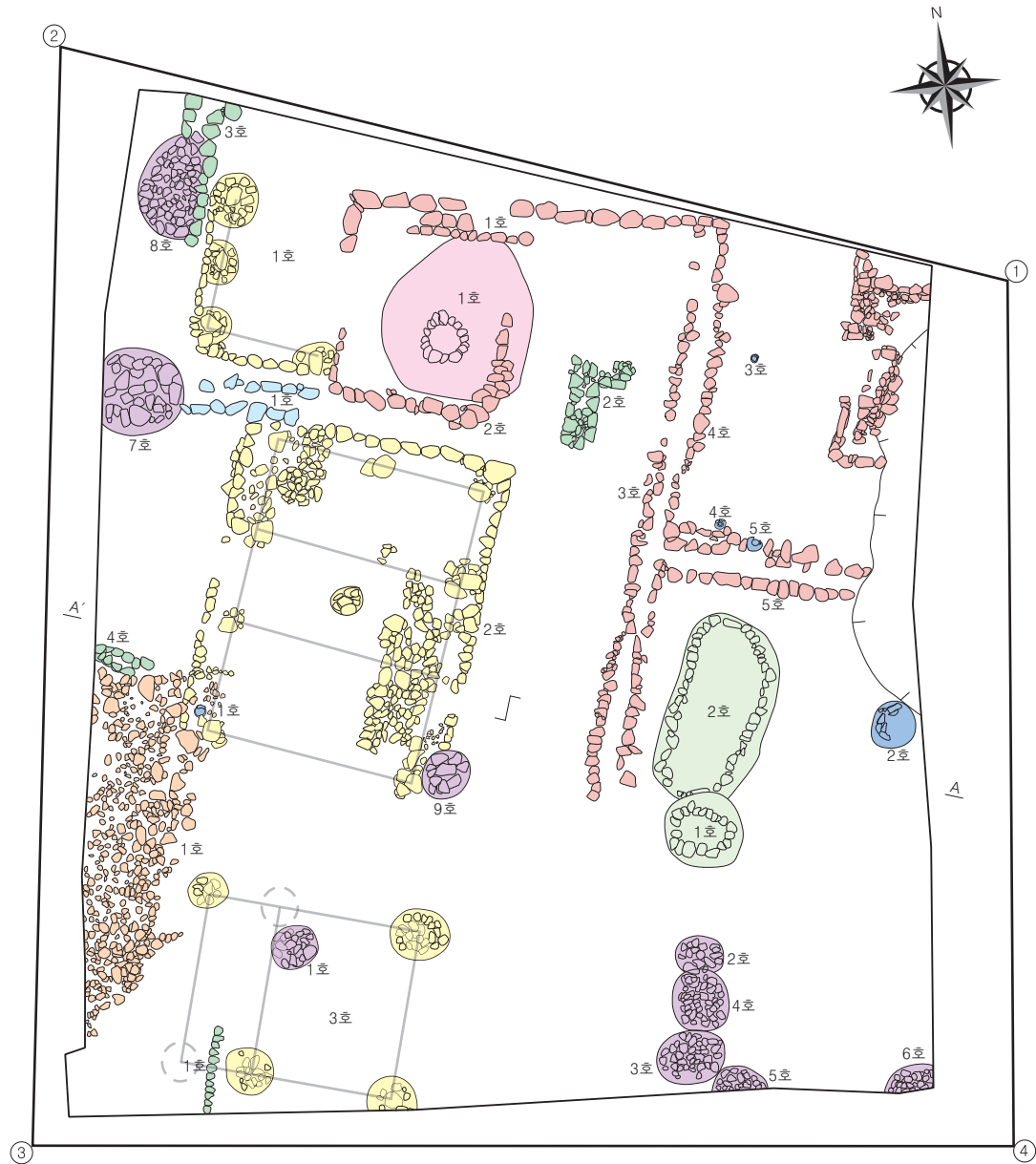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하부 문화층(5층, 7층)은 중앙부의 경사면을 기준으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으로 조사대상지 남쪽은 표토하 60cm 정도(해발 53.5m 정도)에서 확인되는 적갈색 사질점토(7층)¹⁸⁾이고, 조사대상지 북쪽은 표토하 170cm 정도(해발 52.4m 정도)의 목탄과 소토알갱이가 혼입된 두께 20~35cm 정도의 갈색 사질점토(5층)이다.

하상퇴적층(6층)은 조사대상지 중앙부 경사면 아래쪽인 북쪽에서만 확인되며, 모래 및 자갈로 구성된 암갈색 사질토이다.

【표 3】 조사대상지 토층(남쪽 경계부)

	1층 :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	표토층 (두께 20~40cm)
	2층 : 갈색(10YR 4/4) 사질점토	통일신라시대 상부문화층 (표토하 20~80cm, 해발 53.2~53.9m)
	7층 : 적갈색(10YR 2/3) 사질점토	통일신라시대 하부문화층, (표토하 60cm, 해발 53.5m)

18) 적갈색 사질점토(7층)의 분포는 조사대상지 남쪽에서만 확인되었다. 다만, 조사대상지 북쪽 우물 1호와 2호의 단면절개작업시 최하단석 아래에서 적갈색 사질점토(7층)가 확인되어 조사대상지 북쪽은 표토하 370cm 정도(해발 50.4m 정도)에서 확인됨을 알 수 있었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360582.111m		③	X	360564.652m	
	Y	220853.761m			Y	220835.737m	
	Z	54.33m			Z	54.565m	
②	X	360589.055m		④	X	360562.986m	
	Y	220836.43m			Y	220852.25m	
	Z	54.454m			Z	54.472m	

- 기단석렬
- 건물지
- 담장지
- 배수로
- 부석유구
- 적심
- 매납
- 석조유구
- 우물



도면 5. 상부문화층 유구분포도

【표 4】 조사대상지 토층(북쪽 경계부)

	1층 : 암갈색(10YR 3/3) 사질점토	표토층 (두께 20~40cm)
	2층 : 갈색(10YR 4/4) 사질점토	통일신라시대 상부문화층 (표토하 20~80cm, 해발 53.2~53.9m)
	3층 : 갈색(10YR 3/6) 사질점토	
	4층 :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유물포함층 (두께 50~60cm)
	5층 : 갈색(10YR 4/6) 사질점토	통일신라시대 하부문화층, (표토하 170cm, 해발 52.4m)
	6층 : 암갈색(10YR 3/4) 사질토	퇴적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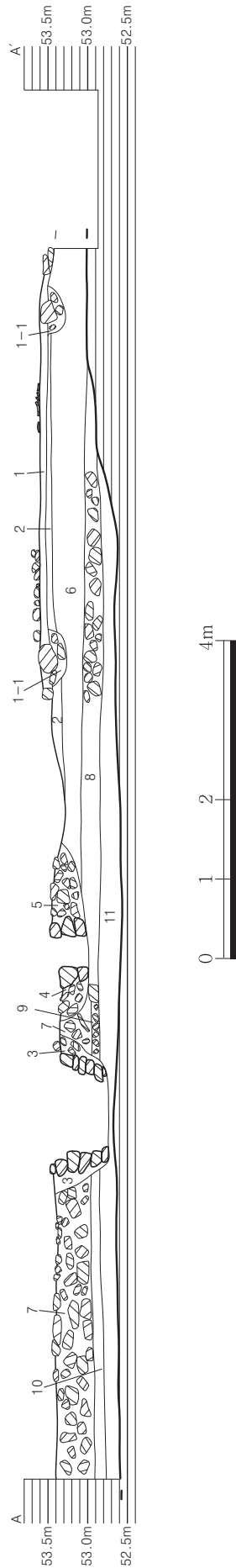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발굴조사 결과, 통일신라시대 상부 문화층에서 건물지 3동, 적심 9기, 담장지 4기, 배수로 1기, 기단석렬 5기, 석조유구 2기, 우물 1기, 매납유구 5기, 부석유구 1기 등 총 31기와 통일신라시대 하부 문화층에서 배수로 1기, 기단석렬 3기, 석조유구 3기, 석렬유구 4기, 우물 1기, 보도시설 1기, 매납유구 1기, 부석유구 2기, 수혈유구 48기 등 총 64기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상부와 하부 문화층에서 총 95기의 유구와 관련된 유물 57점이 출토되었다.

－ 상부 문화층 －

상부문화층 유구의 배치는 건물지 2호를 기준으로 북쪽에 건물지 1호, 담장지 3호와 기단석렬 2호 및 배수로 1호, 남쪽에 건물지 3호, 동쪽에 기단석렬 3호~5호와 석조유구 2호가 위치하며, 남→북방향의 축선을 가지고 있다. 중복양상은 건물지 2호→부석유구 1호·적심 9호, 적심 7호→배수로 1호, 적심 8호→담장 3호, 우물 1호·기단석렬 3호→기단석렬 1호·2호, 기단석렬 3호·4호→기단석렬 1호, 석조유구 2호→석조유구 1호 순으로 확인되었다.

도면 6. 조사대상지 토층도(동-서)



1) 건물지

(1) 건물지 1호

가. 유구(도면 7, 도판 4·5)

조사대상지 북서쪽, 해발 53.5m 정도에 위치한다. 남쪽에 배수로 1호, 동쪽에 기단석렬 1호와 2호, 서쪽에 담장지 3호가 위치한다. 본 유구 적심①이 적심 8호를 파괴하였다.

초석 및 적심은 4개가 확인되었고, 초석 및 적심의 잔존양상으로 보아 동-서 1칸, 남-북 2칸 구조가 확인되었다. 주축방향은 북동-남서(N-30°-E)향이고, 규모는 길이 480cm, 너비 240cm 정도이다. 초석 및 적심간 거리는 동-서 길이 240cm, 남-북 길이 135~140cm 정도이다.

적심은 평면형태 원형이고, 크기는 직경 84~116cm, 깊이 14~28cm 정도이다. 적심 내부에는 길이 8~24cm 정도의 할석과 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넣어 축조하였다. 적심①~④ 상부에는 길이 35~50cm 정도의 할석 1매씩을 놓아 초석을 구성하였다. 초석이 놓여진 적심 상부로는 석렬이 확인되었다. 석렬은 초석의 바깥쪽에 접해서 평면형태는 ‘ㄴ’자형으로 남-북향의 석렬 남쪽에서 동쪽으로 수직에 가깝게 꺾여 동-서방향의 석렬로 이어지며, 1단 정도 잔존한다. 남-북방향 석렬은 길이 16~21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고, 동-서방향 석렬은 길이 26~43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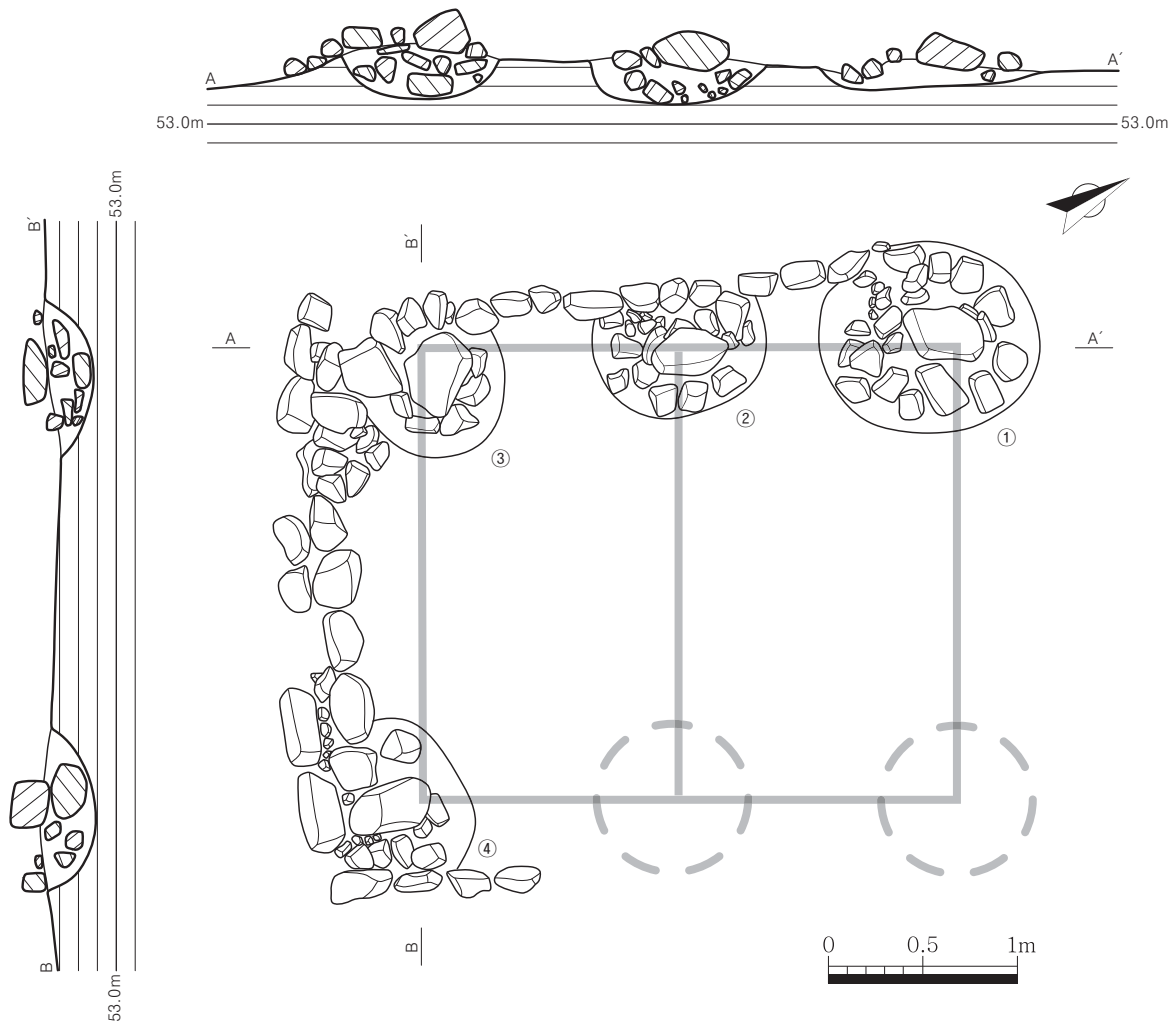
【표 5】 건물지 1호 적심 속성표

적심 번호	초석 규모(cm)		적심 규모(cm)		적심석	내부토	비고
	길이	높이	직경	깊이			
①	35	18	116	14	8~24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②	41	20	95	22	8~24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③	50	24	84	28	8~24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④	48	20	86	28	8~24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2) 건물지 2호

가. 유구(도면 8, 도판 6~14)

조사대상지 중앙에서 서쪽에 치우쳐, 해발 53.5m 정도에 위치한다. 북쪽에 배수로 1호와 기단석렬 2호, 동쪽에 기단석렬 3호, 남쪽에 건물지 3호가 위치한다. 남서쪽에 부석유구 1호 및 매납유구 1호, 남동쪽에 적심 9호가 후축되었다.



도면 7. 건물지 1호

건물은 초석 및 적심이 조성된 면을 기준으로 상부의 개축 건물과 하부의 기존 건물로 구분된다.

상부의 개축 건물은 초석 및 적심이 총 9개가 확인되었고, 이중 7개의 잔존양상으로 보아 동-서 1칸, 남-북 4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2개는 중앙부에 장축방향으로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29^{\circ}-E$)향이고, 규모는 잔존길이 606cm, 너비 420cm 정도이다. 초석 및 적심간 거리는 동-서 길이 420cm, 남-북 길이 178~220cm 정도이다.

적심은 평면형태 원형이고, 규모는 직경 59~94cm, 깊이 10~25cm 정도이다. 적심 내부에는 길이 8~30cm 정도의 할석과 암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넣어 축조하였다. 적심①~④⑥~⑧ 상부에는 크기 $31\sim46\times20\sim32$ cm 정도의 할석 1매씩을 놓아 초석을 조성하였다. 초석④⑧이 위치하는 북서쪽과 동남쪽으로는 길이 27cm 정도의 할석이 한 겹 정도 깔려서 확인되었는데, 상부의 개축건물의 사용면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부의 기존 건물은 초석 및 적심이 총 11개와 평면형태 ‘ㄷ’자형의 기단석렬이 확인되었다. 초석 및

적심 11개 중 9개의 잔존양상으로 보아 동-서 1칸, 남-북 4칸 구조가 확인되었으며, 2개는 북쪽 적심④⑧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29°-E)향이고, 규모는 잔존길이 615cm, 너비 420cm 정도이다. 초석 및 적심간 거리는 동-서 길이 420cm, 남-북 길이 140~180cm 정도이다.

적심은 평면형태 원형이고, 규모는 직경 64~84cm, 깊이 10~25cm 정도이다. 적심 내부에는 길이 10~35cm 정도의 할석과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넣어 축조하였다. 적심②③⑥⑦⑩⑪ 상부에는 크기 28~67×16~29cm 정도의 할석 1매씩을 놓아 초석을 조성하였다. 기단석렬은 북쪽, 동쪽, 서쪽이 유존하고, 남쪽은 유실되어 확인되지 않았으며, 1~2단 정도 잔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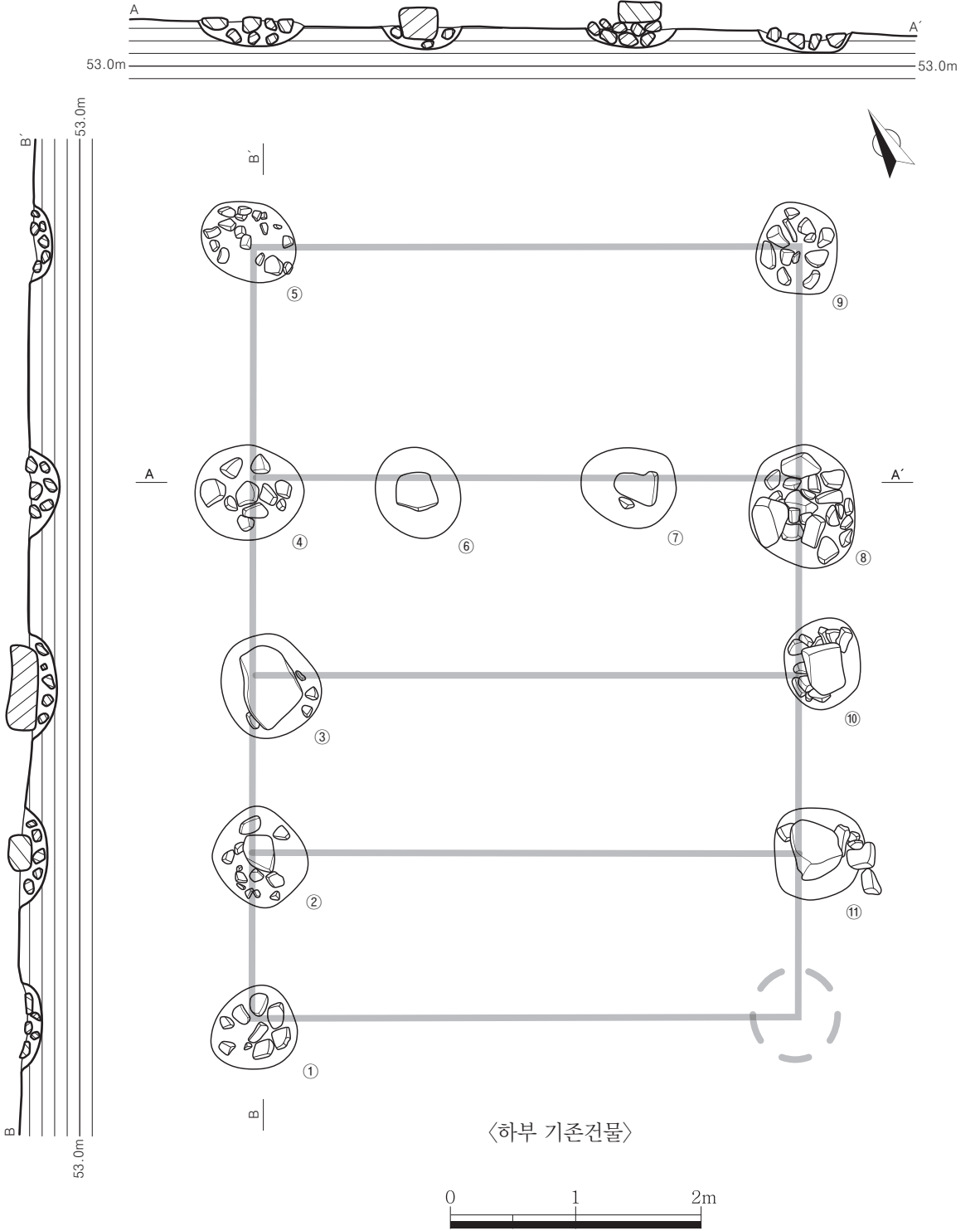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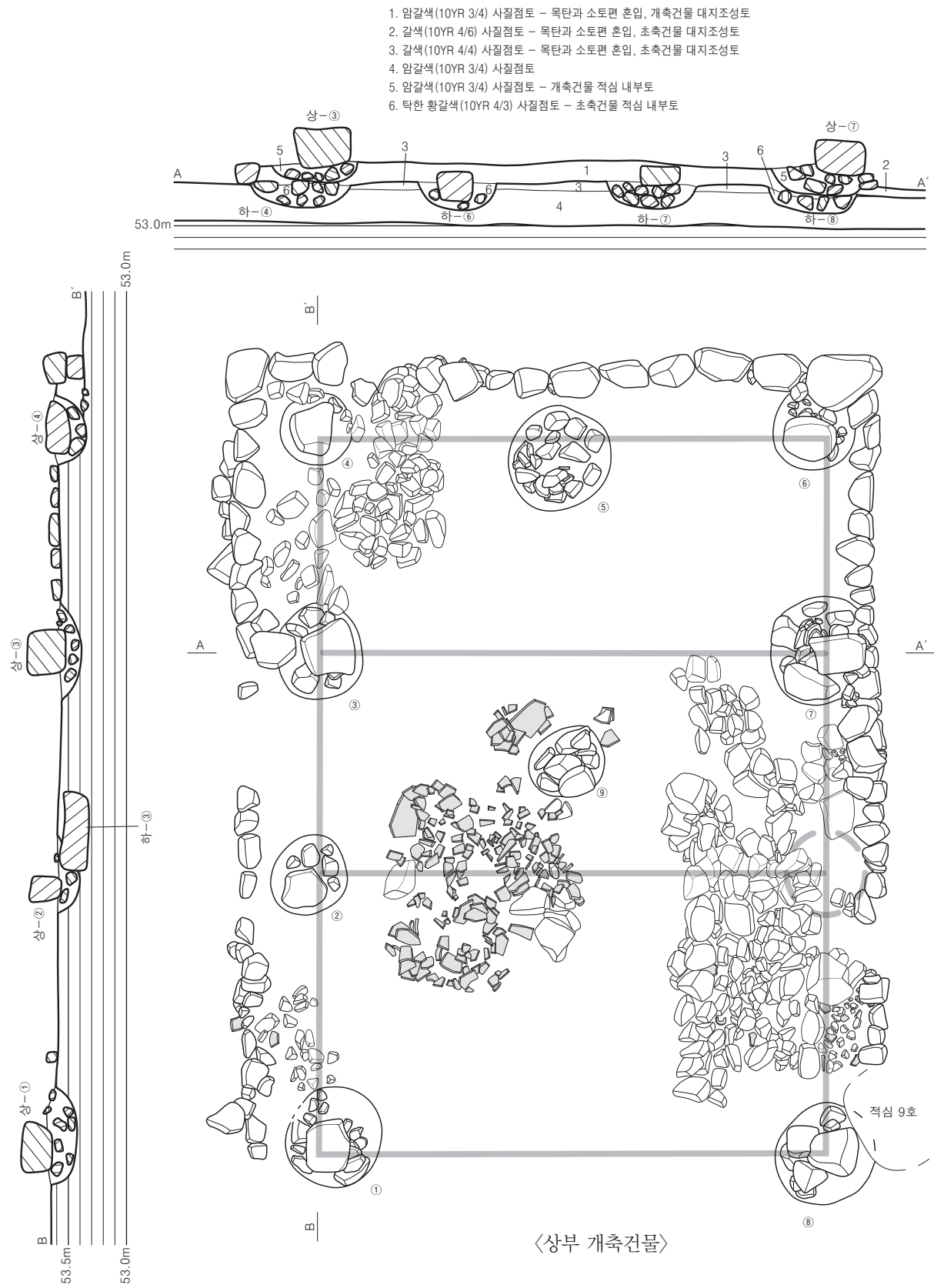
상기 내용과 동-서방향의 토층 조사결과, 유구의 축조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축조양상은 기단석렬 3호 기단 조성토 상부에 목탄과 소토알갱이가 혼입된 갈색 사질점토를 두께 8cm 정도로 깔고, 기존 건물의 적심을 설치하였다. 상부에는 길이 14~27cm 정도의 할석으로 바깥면을 바르게 한 기단을 조성하면서 내부에는 목탄과 소토펜이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를 두께 14~20cm 정도 조성하였다. 기단 상면에는 개축 건물의 적심을 설치하였다. 개축과 기존 건물은 너비와 주축방향이 동일하며, 적심 배치는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확인되었다. 일치하는 적심을 살펴보면, 개축건물 적심-①과 기존건물 적심-①(이하 개·적-①과 기·적-①로 표기), 개·적-③과 기·적-④, 개·적-④와 기·적-⑤, 개·적-⑦과 기·적-⑧, 개·적-⑥과 기·적-⑨ 등 총 5개가 일치함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상부의 개축건물 중앙부 노출중 다수의 기와가 노출되었으며, 이 중 쌍조문수막새, 암키와, 수키와 각 1점을 선별 수습하였고, 상부의 개축건물 할석 노출 중 석제추, 철정 각 1점이 출토되었다.

하부의 기존건물에서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표 6】 건물지 2호 적심 속성표

구분	적심 번호	초석 규모(cm)		적심 규모(cm)		적심석	내부토	비고
		길이	높이	직경	깊이			
상부 개축 건물	①	44	27	86	24	10~30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②	31	24	66	18	10~20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③	46	32	80	17	10~25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④	44	20	59	25	8~10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⑤	—	—	89	17	10~25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⑥	46	21	70	15	10~20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⑦	43	22	94	20	10~30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⑧	43	31	87	10	10~30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⑨	—	—	60	21	10~30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도면 8. 건물지 2호

구분	적심 번호	초석 규모(cm)		적심 규모(cm)		적심석	내부토	비고
		길이	높이	직경	깊이			
하 부 기 존 건 물	①	28	18	66	10	10~20c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②	67	20	79	21	10~20c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③	—	—	84	22	10~15c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④	—	—	74	24	10~20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⑤	—	—	64	17	10~15c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⑥	31	26	67	22	10~15c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⑦	32	16	67	25	10~15c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⑧	—	—	79	19	10~35c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⑨	—	—	76	21	10~20c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⑩	41	29	72	24	10~20c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⑪	47	23	73	15	10~25c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나. 유물

1. 석제추(도면 9-1, 도판 14-1)

이암제로 우측 상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색조는 회백색(2.5Y 8/1)이다. 전체적으로 마연하였으며, 중앙부에는 너비 1.2~2.0cm 정도의 오목한 홈이 형성되어 있다. 한쪽 끝에 직경 0.6cm 정도의 구멍을 뚫었는데, 구멍은 양쪽에서 뚫었다.

잔존길이 7.6cm, 너비 4.4cm, 두께 1.4~1.8cm, 중량 88.9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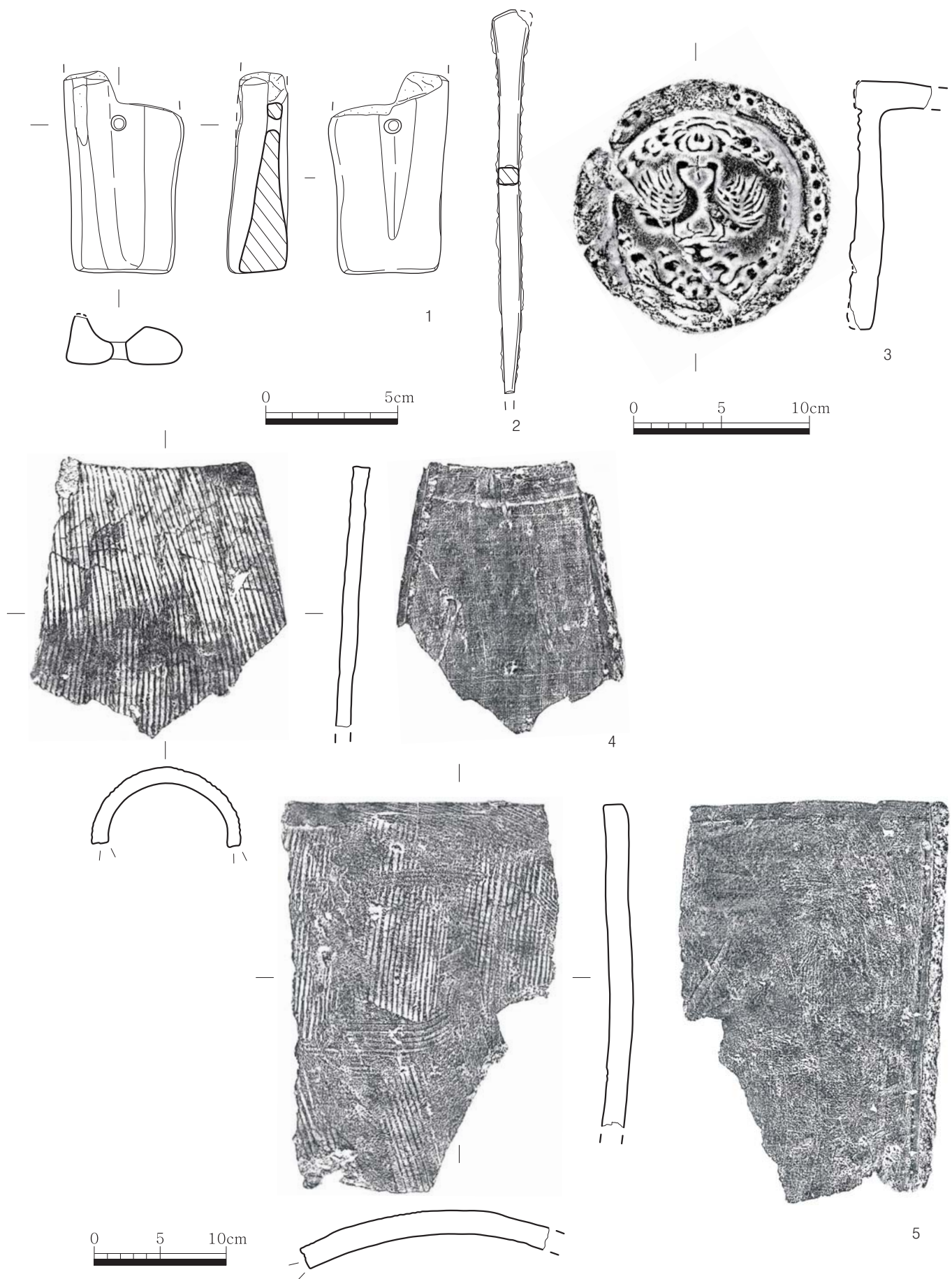
2. 철정(도면 9-2, 도판 14-2)

단조품으로 두부 일부와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두부에서 말단부로 갈수록 너비가 좁아진다. 단면형태는 두부에서 장방형이다가 말단부로 갈수록 방형이 된다.

잔존길이 14.5cm, 두부너비 1.4cm, 두께 0.7cm, 중량 36.8g

3. 쌍조문수막새(도면 9-3, 도판 15-3)

드림부만 잔존하며, 주연부의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



도면 9. 건물지 2호 출토유물

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N 5/), 속심의 색조는 회백색(10YR 8/1)이다. 주연부는 돌출하였고,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에는 두 마리의 새가 마주보고 꽃의 줄기를 함께 물고 있으며, 꽃의 줄기가 좌우로 흘러내려 아래의 수목문과 연결된다. 드림부 내면에는 물손질 흔과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13.8cm, 두께 1.8cm

4. 수키와(도면 9-4, 도판 15-4)

하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에 가깝다. 내면에서 포목흔과 상단부에 포목겹침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선문 중판 타날하였다. 와도흔은 양측에서 확인되며, 좌측은 내→외로 1/2, 우측은 외→내로 2/3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0.5cm, 잔존너비 11.8cm, 두께 1.2cm

5. 암키와(도면 9-5, 도판 15-5)

우측과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5Y 5/1)이다. 내면에는 포목흔이 확인되며, 물손질 정면하였다. 상단부는 깎기 정면하였다. 외면은 선문 중판 타날 후, 일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흔은 좌측에서 확인되며, 내→외로 1/2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30.1cm, 잔존너비 20.4cm, 두께 1.7cm

(3) 건물지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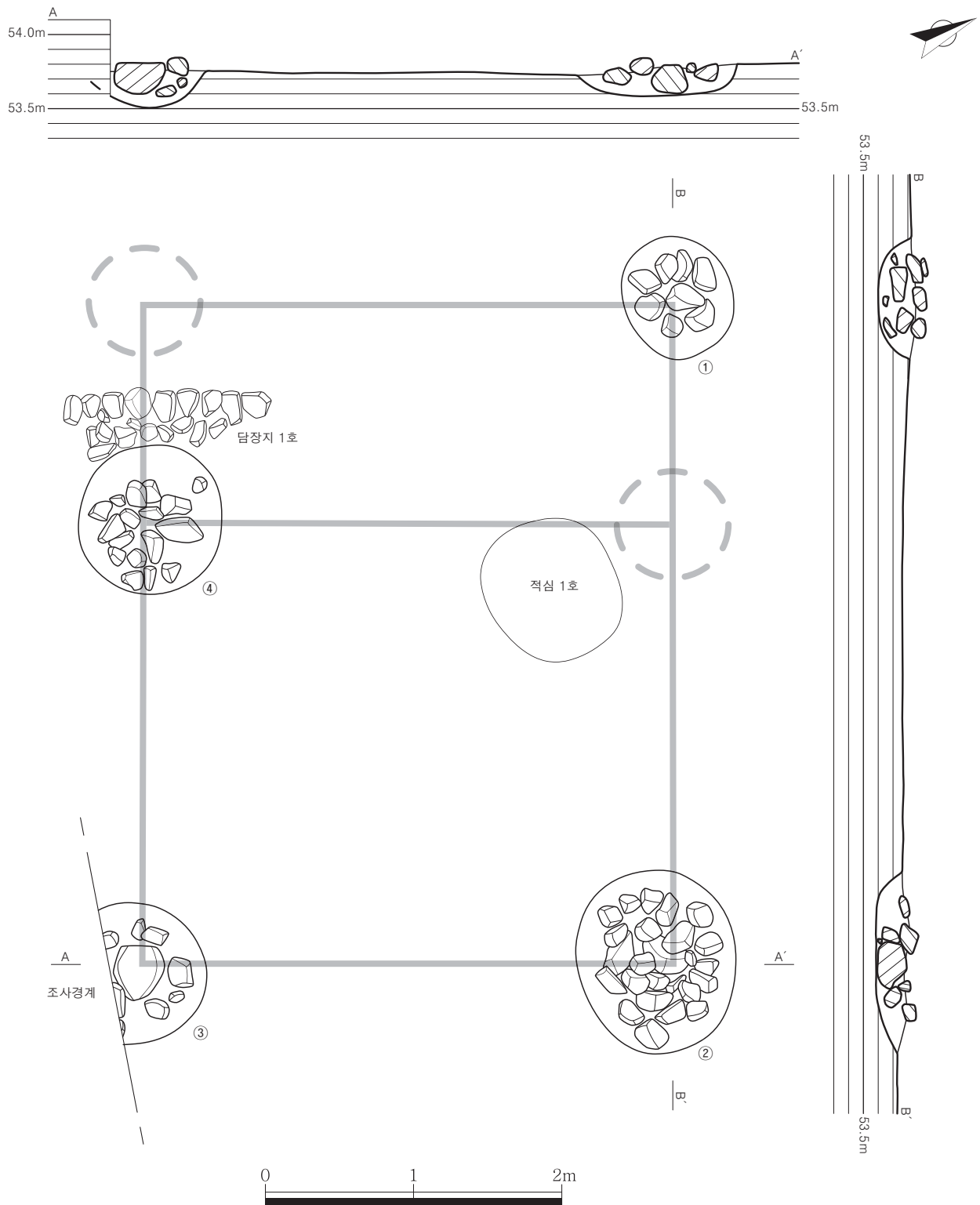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0, 도판 15·16)

조사대상지 남서쪽, 해발 53.7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부석유구 1호, 북쪽에 건물지 2호, 동쪽에 적심 2~6호가 위치하고, 담장지 1호와 적심 1호가 후축되었다.

초석 및 적심은 4개가 확인되었고, 남쪽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지만 잔존양상으로 보아 동-서 2칸, 남-북 1칸 구조로 축선은 북서-남동(N-25°-W)향이다. 확인된 규모는 동-서 길이 450cm, 남-북 길이 360cm 정도이다. 초석 및 적심간 거리는 동-서 150~300cm, 남-북 360cm 정도이다.

적심은 평면형태 원형이고, 규모는 직경 83~108cm, 깊이 16~24cm 정도이다. 적심 내부에는 길이 10~30cm 정도의 할석과 갈색 사질점토를 채워 넣어 축조하였다. 적심① 상부에는 크기 36×21cm 정도의 할석 1매를 놓아 초석을 구성하였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10. 건물지 3호

【표 7】건물지 3호 적심 속성표

적심 번호	초석 규모(cm)		적심 규모(cm)		적심석	내부토	비고
	길이	높이	직경	깊이			
①	—	—	83	19	10~25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②	—	—	108	16	10~30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③	36	21	94	24	10~20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④	—	—	100	30	10~20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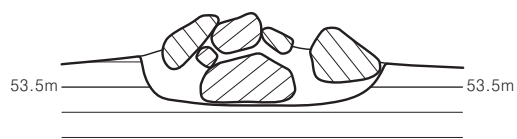
2) 적심

가. 유구(도면 11·12, 도판 15·16)

상부 문화층에서 총 9개가 해발 53.2~53.9m 정도에 위치하고, 남서쪽에 1호와 9호, 남동쪽에 2호~6호, 북서쪽에 7호와 8호가 위치한다. 갈색 사질점토층을 평면형태 원형으로 굴착하고 내부에 6~44cm 정도의 할석과 암갈색·갈색·탁한 황갈색 사질점토를 채워넣었다. 적심간 정형성은 확인되지 않으며, 적심간 중복양상은 4호→2호·3호 순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8】적심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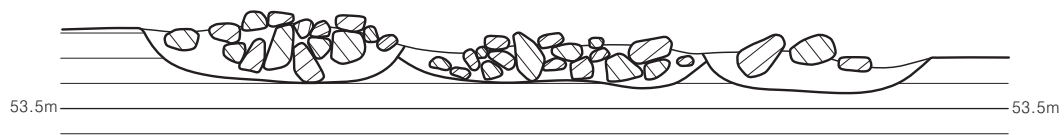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규모(cm)		적심석	내부토	비고
			직경	깊이			
1호	11	17	99	22	14~28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2호	11	17	91	15	13~21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적심 4호 선축
3호	11	17	104	20	9~20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적심 4호 선축
4호	11	17	125	19	6~21cm 정도 크기의 할석	탁한 황갈색 사질점토	적심 2호·3호 후축
5호	11	18	116	24	6~14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6호	11	18	잔존 92	41	7~18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7호	12	18	151	47	7~25cm 정도 크기의 할석	갈색 사질점토	
8호	12	18	150	41	6~23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건물지 1호 적심① 후축, 담장지 3호 후축
9호	12	19	93	24	19~44cm 정도 크기의 할석	암갈색 사질점토	건물지 2호 상부적심⑧ 선축



적심 1호



적심 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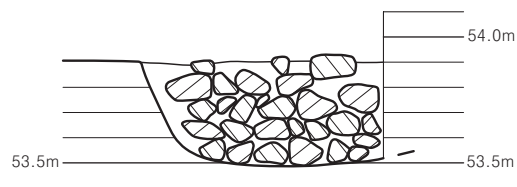


적심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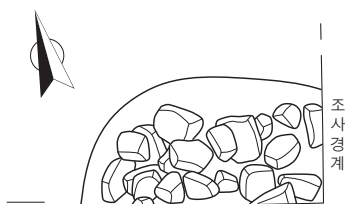


적심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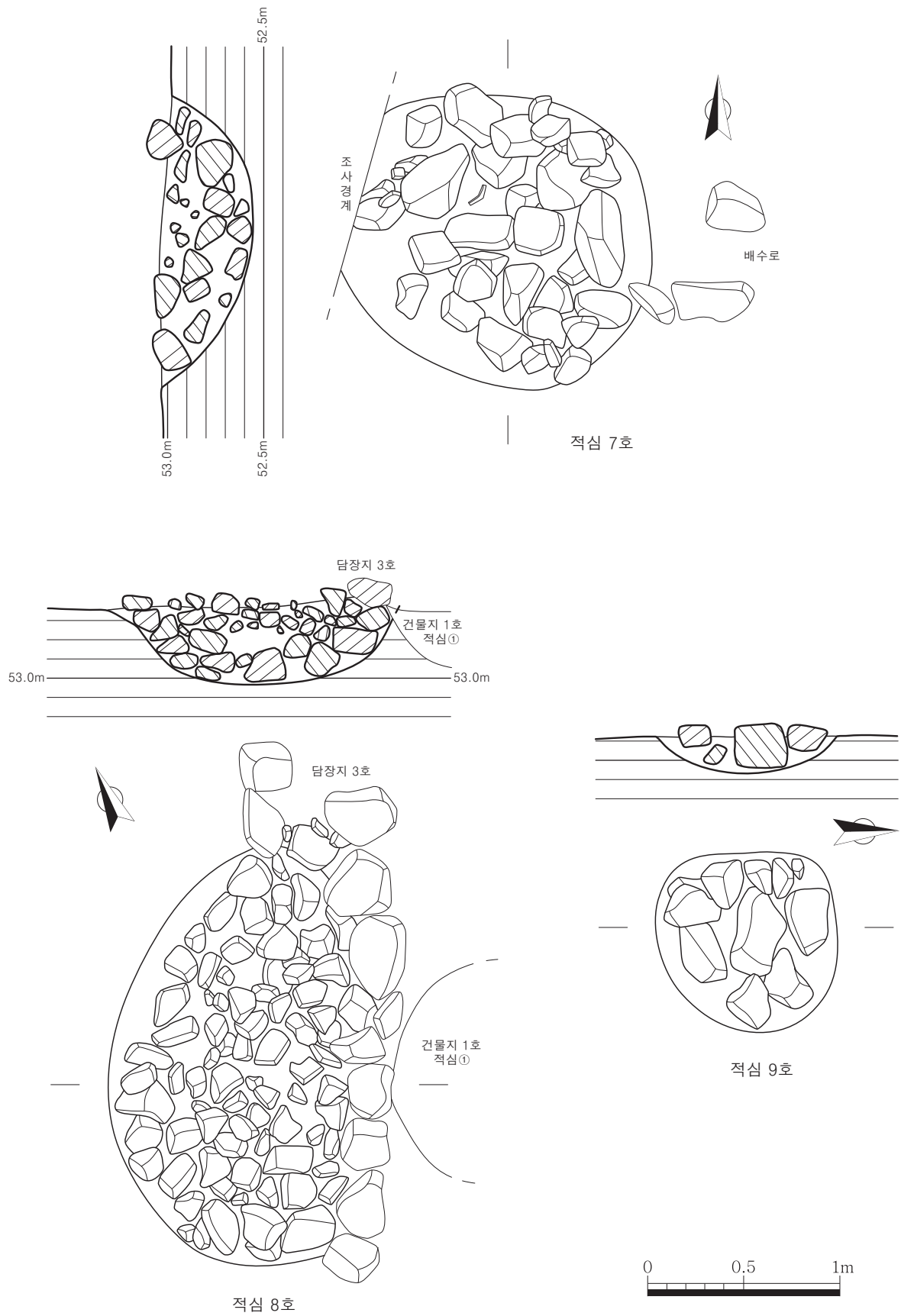
적심 4호



적심 6호



도면 11. 적심 1~6호



도면 12. 적심 7~9호

3) 담장지

총 4기가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1단 만이 잔존하고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지는 등 잔존양상이 미비한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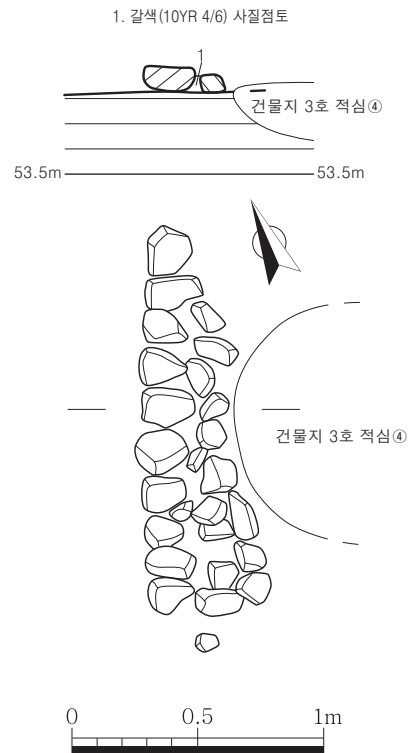
(1) 담장지 1호

가. 유구(도면 13, 도판 19)

조사대상지 남서쪽, 해발 53.8m 정도에 위치한다. 건물지 3호의 적심④가 담장의 동쪽 바른면을 파괴하고 후축되었고, 남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담장 석렬은 1단 만이 잔존하며, 진행방향은 남-북(N-23°-E)향이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153cm, 잔존 너비 33cm, 높이 9cm 정도이다. 길이 16~22cm 정도의 할석을 바깥 면을 바르게하여 쌓고, 내부에는 길이 9cm 정도의 할석과 갈색 사질점토를 채워넣었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13. 담장지 1호

(2) 담장지 2호

가. 유구(도면 14, 도판 19·20)

조사대상지 북쪽 중앙부, 해발 53.6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기단석렬 2호, 동쪽에 기단석렬 3호가 위치한다.

담장석렬은 북동-남서(N-26°-E)방향의 석렬이 북쪽 끝에서 동쪽으로 수직으로 꺾여 동-서방향 석렬과 이어진다. 진행방향인 동쪽과 남쪽은 유실되었고, 1단 만이 잔존한다. 확인된 규모는 동-서 길이 63cm, 남-북 길이 180cm, 너비 68cm, 높이 16cm 정도이다. 길이 27~33cm 정도의 할석을 바깥 면을 바르게하여 쌓고, 내부에는 길이 9cm 정도의 할석과 갈색 사질점토를 채워넣었다.

유물은 내부 조사 중 연화문수막새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6. 연화문수막새(도면 14-6, 도판 21-6)

드림부만 잔존하며, 문양부 일부와 주연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외면의 색조는 회색(N 4/), 내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5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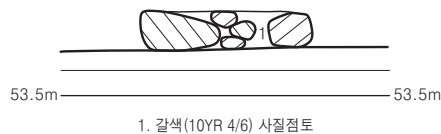
6/1)이다. 문양부는 중판 연화문으로 내판과 외판의 꽃잎을 서로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내판은 7엽의 꽃잎 내 물방울형 자엽을 배치하여 꽃술과 같이 나타내었다. 외판은 6엽의 꽃잎 내 삼산형 또는 삼엽형의 자엽을 배치하였고, 자엽 내부에도 작은 삼산형 또는 삼엽형의 소자엽을 배치하였다. 간엽은 외판에 'Y'자형을 배치하였다. 자방은 반구형으로 돌출되었다. 드림부 내면에서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10.9cm, 두께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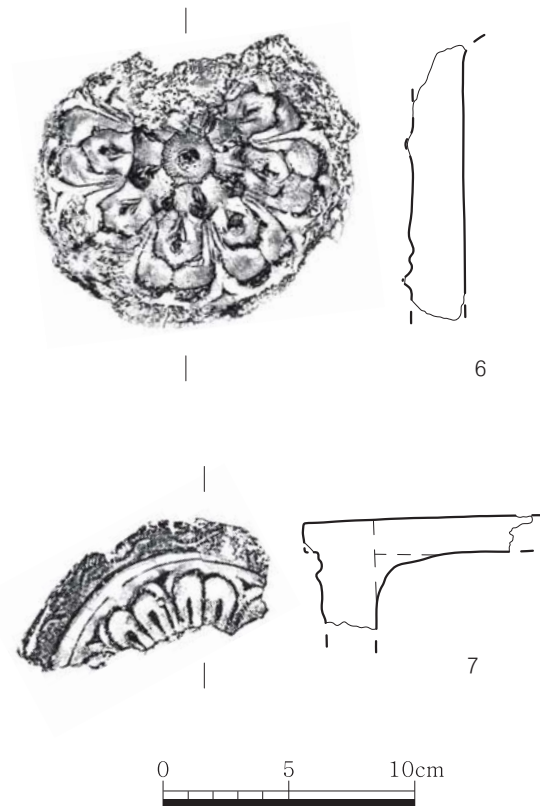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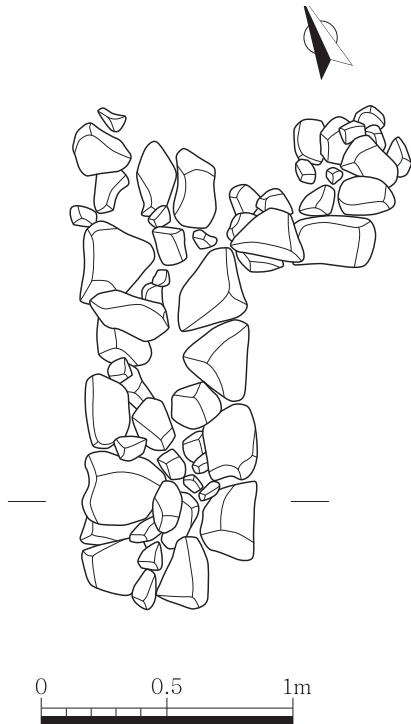
7. 연화문수막새(도면 14-7, 도판 21-7)

드림부와 기와부의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색(5Y 4/1)에 가깝다. 주연부는 돌출되었으며, 당초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는 가장자리에 원권을 돌렸으며, 꽃잎은 4엽이 확인된다. 꽃잎 내에는 물방울형 자엽을 배치하였다. 간엽은 역삼각형을 배치하였다. 기와부는 외면에서 물손질흔, 내면에서 포목흔과 점토보강흔이 확인된다.

- 드림부 : 잔존직경 4.3cm, 두께 2.1cm
- 기와부 : 잔존길이 6.3cm, 두께 1.5cm



1. 갈색(10YR 4/6) 사질점토



도면 14. 담장지 2호

(3) 담장지 3호

가. 유구(도면 15, 도판 21·22)

조사대상지 북서쪽, 해발 53.4m 정도에 위치한다. 동쪽에 건물지 1호가 위치하고, 적심 8호가 하부에 선축되었다. 남쪽은 유실되었으며, 북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담장석렬은 진행방향이 북동-남서($N-26^{\circ}-E$)향이고, 1단 만이 잔존한다. 규모는 길이 318cm, 너비 79cm, 높이 17cm 정도이다. 길이 23~44cm 정도의 할석을 바깥 면을 바르게하여 쌓고, 내부에는 길이 11cm 정도의 할석과 갈색 사질점토를 채워넣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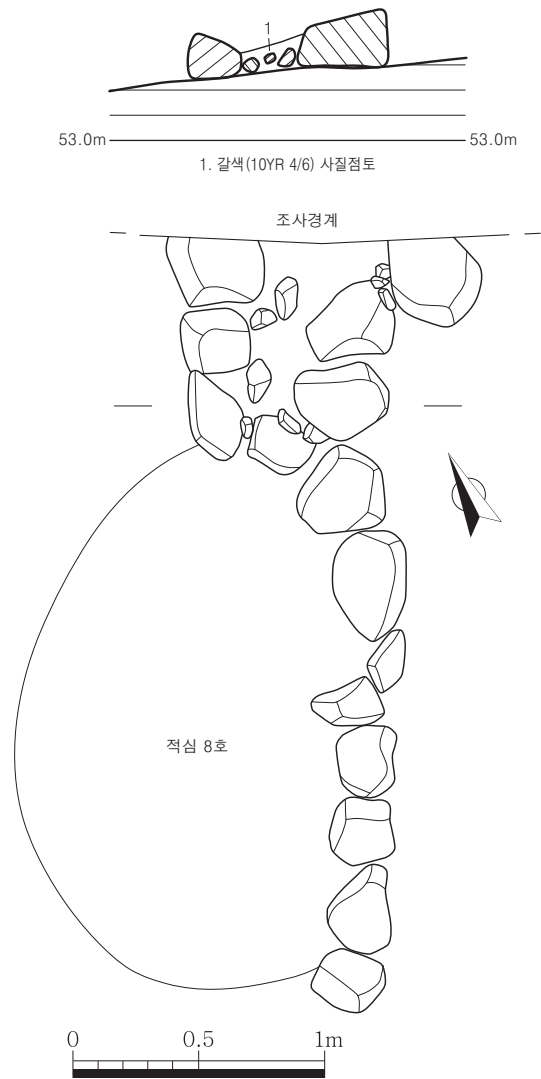
(4) 담장지 4호

가. 유구(도면 16, 도판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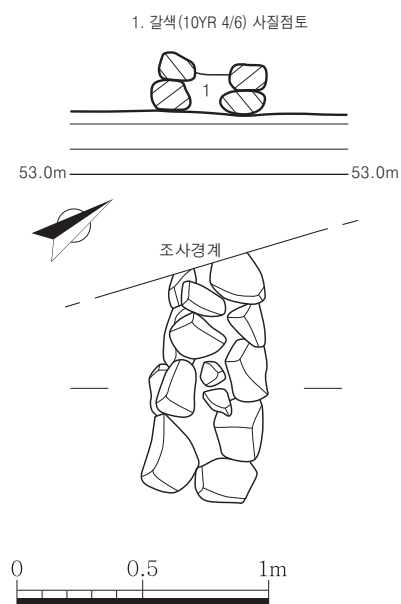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북서쪽, 해발 53.2m 정도에 위치한다. 동쪽에 건물지 2호가 위치하고, 부석유구 1호가 상부에 후축되었다. 동쪽은 유실되었으며, 서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담장석렬은 진행방향이 북서-남동($N-57^{\circ}-W$)향이고, 2단 정도 잔존한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98cm, 너비 46cm, 높이 24cm 정도이다. 길이 17~23cm 정도의 할석을 바깥 면을 바르게하여 쌓고, 내부에는 갈색 사질점토를 채워넣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15. 담장지 3호



도면 16. 담장지 4호

4) 배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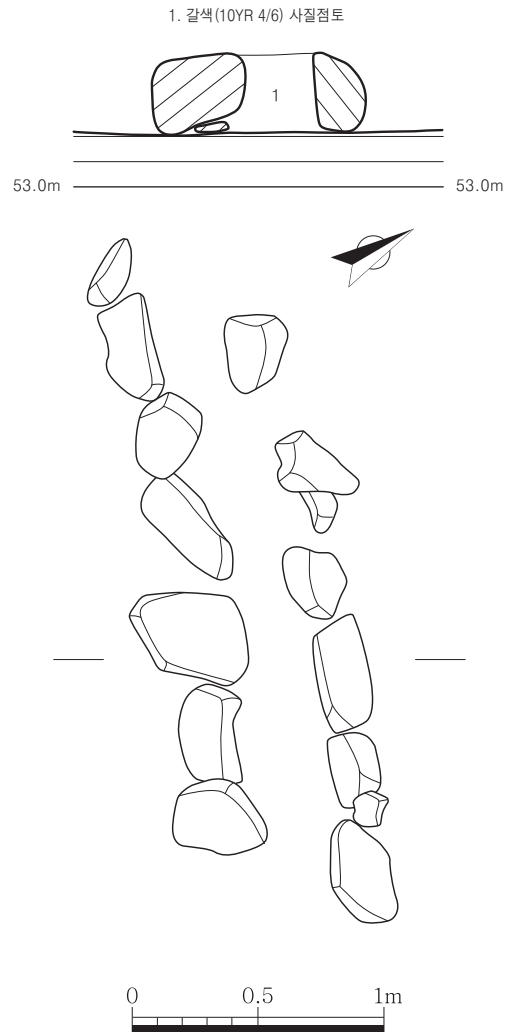
(1) 배수로 1호

가. 유구(도면 17, 도판 23)

조사대상지 서쪽 해발 53.5m 정도에 위치한다. 남쪽에 건물지 2호, 북쪽에 기단석렬 2호와 건물지 1호가 위치하고, 적심 7호가 하부에 선축되었다.

평면형태는 ‘—’자형이고, 진행방향은 동-서($N-70^{\circ}-W$)향으로 바닥은 서쪽이 높고 동쪽으로 완만하게 낮아진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140cm, 너비 36cm, 깊이 24cm 정도이다. 길이 32~43cm 정도의 할석과 천석을 횡평적하여 벽석을 조성하였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17. 배수로 1호

5) 기단석렬

상부 문화층에서 총 5기가 확인되었다. 장축방향은 건물지 및 담장지와 나란하거나 직교한다. 중복양상은 기단석렬 3호 · 4호 · 5호 → 기단석렬 1호 순으로 확인되었다.

(1) 기단석렬 1호

가. 유구(도면 18, 도판 24 · 25)

조사대상지 북쪽 해발 53.5m 정도에 위치한다. 남쪽에 기단석렬 2호와 담장지 2호가 위치하고, 우물 1호와 기단석렬 2호와 4호 및 건물지 1호가 선축되었다.

평면형태 ‘ㄱ’자형으로, 동-서($N-71^{\circ}-W$)방향 석렬 서쪽 끝에서 수직에 가깝게 꺾여 남-북방향 석렬로 이어진다. 남쪽은 유실되었고, 동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지며, 1단만이 잔존한다. 확인된 규모는 동-서 길이 792cm, 남-북 길이 104cm, 높이 17cm 정도이다. 기단조성토인 흑갈색 사질점토를 굴착하고, 길이 34~63cm 정도의 할석을 남쪽과 동쪽을 바른면으로 평적한 후 굴착면과 석렬 사이에

는 황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동-서 석렬 남쪽 50cm 정도 거리에는 같은 방향의 석렬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264cm, 높이 10cm 정도이고, 북쪽과 남쪽의 높이차는 7cm 정도의 단을 가진다. 길이 16~34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다. 남쪽과 북쪽의 동-서 석렬 사이에는 길이 29~46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여 남쪽 석렬의 높이에 맞춰 평평하게 조성하였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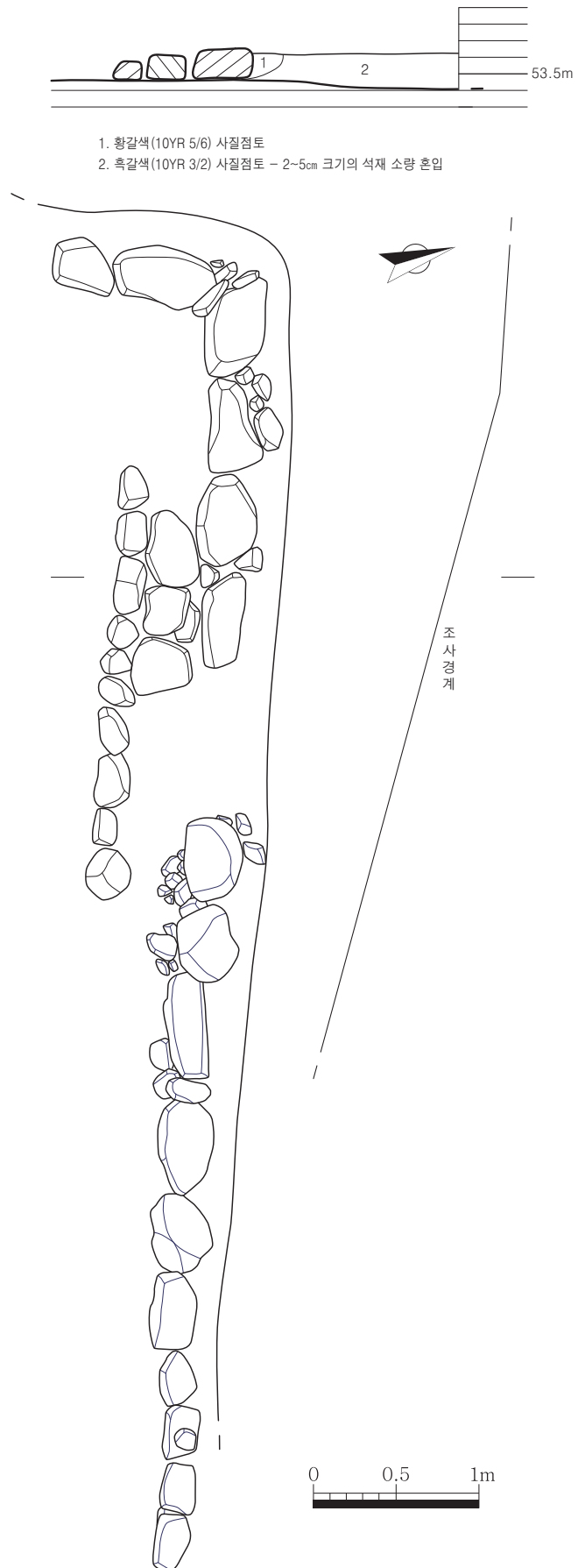
(2) 기단석렬 2호

가. 유구(도면 19, 도판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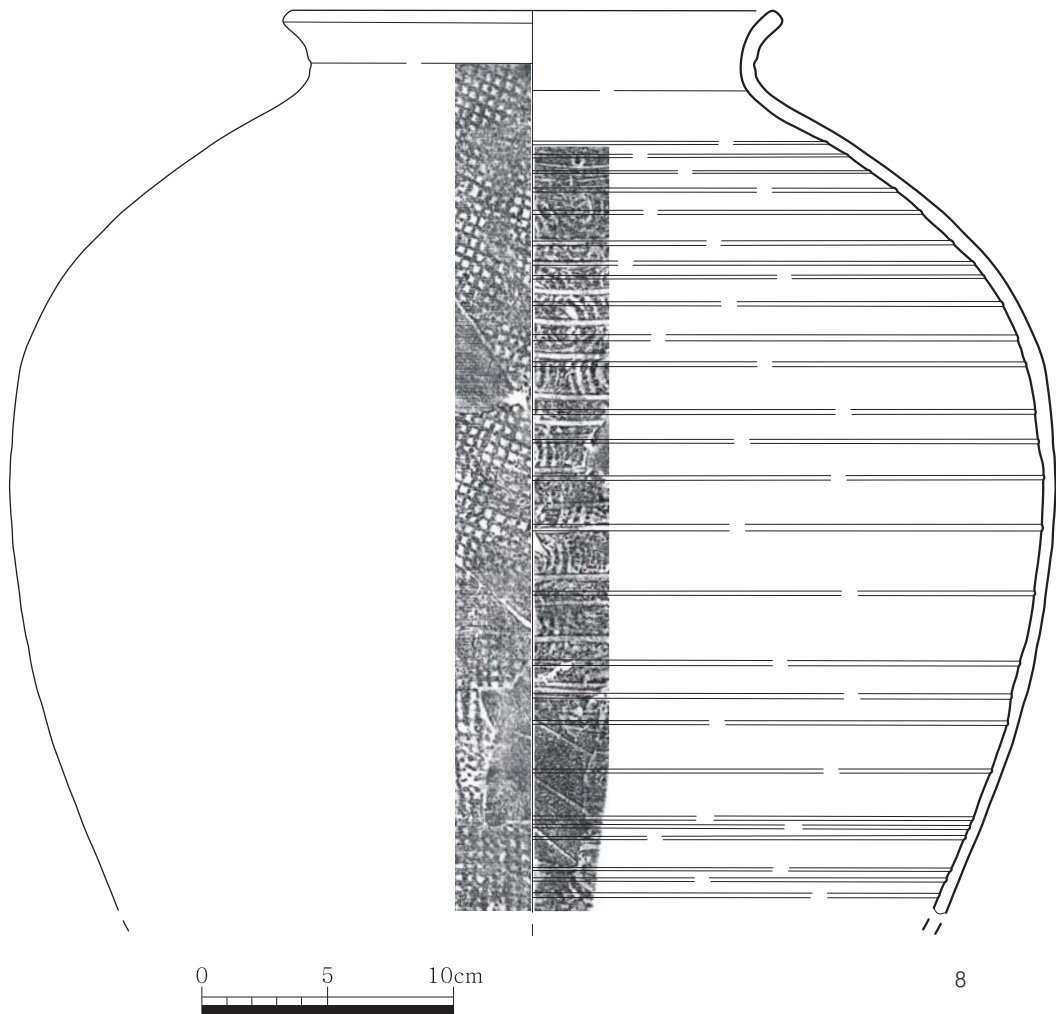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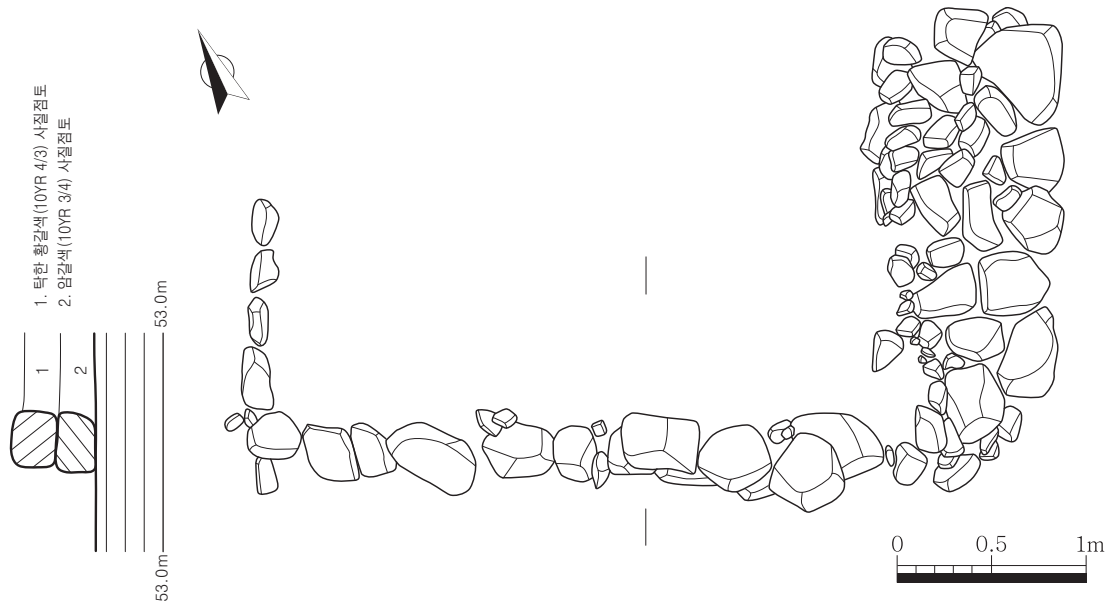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북쪽 해발 53.5m 정도에 위치한다. 남쪽에 건물지 2호, 서쪽에 건물지 1호, 북쪽에 기단석렬 1호, 동쪽에 담장지 2호가 위치하고, 우물 1호와 건물지 1호가 선축되었다.

평면형태 ‘ㄷ’자형으로, 동-서(N-68°-W) 방향 석렬 동쪽과 서쪽 끝에서 북쪽 방향으로 수직에 가깝게 꺾여 남-북방향 석렬로 이어진다. 1~2단 정도 잔존한다. 확인된 규모는 동-서 길이 384cm, 서쪽 남-북 길이 112cm, 동쪽 남-북 길이 198cm, 높이 27cm 정도이다. 석렬 조성과 함께 뒤쪽에는 암갈색·탁한 황갈색 사질점토를 쌓아 기단토를 조성하였다. 동-서 및 동쪽 남-북 석렬은 길이 24~55cm 정도의 할석을 남쪽과 동쪽을 바른면으로 평적하였고, 서쪽 남-북 석렬은 길이 23~33cm 정도의 할석을 서쪽을 바른면으로 평적하였다.

유물은 기단내부토에서 단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8. 기단석렬 1호



도면 19. 기단석렬 2호 및 출토유물

나. 유물

8. 단경호(도면 19-8, 도판 25-8)

구경부 일부와 동체부 상부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적갈색(5YR 5/3)이다. 구경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내면은 내박자 조정 후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외면은 집선문 타날하였다.

잔존기고 35.7cm, 복원구경 19.0cm, 복원동최대경 41.4cm

(3) 기단석렬 3호

가. 유구(도면 20, 도판 26·27)

조사대상지 중앙부 해발 52.8m 정도에 위치한다. 동쪽에 기단석렬 4호와 5호, 서쪽에 건물지 2호와 우물 1호가 위치한다. 기단석렬 1호가 상부에 후축되었다.

평면형태 ‘一’자형으로, 주축방향은 북동-남서(N-29°-E)향이다. 석렬 남쪽 끝에서 동남쪽으로 완만하게 꺾여, 동쪽에 인접한 기단석렬 5호의 남쪽 동-서 석렬과 이어지고, 북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기단조성토인 갈색사질점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고, 석렬을 조성한 후 석렬 뒤쪽에는 길이 15cm 정도의 할석과 암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석렬은 2~4단 정도 잔존한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1,254cm, 높이 19~48cm 정도이다. 길이 19~24cm 정도의 할석을 동쪽을 바른면으로 최하단부터 4단까지 허튼층쌓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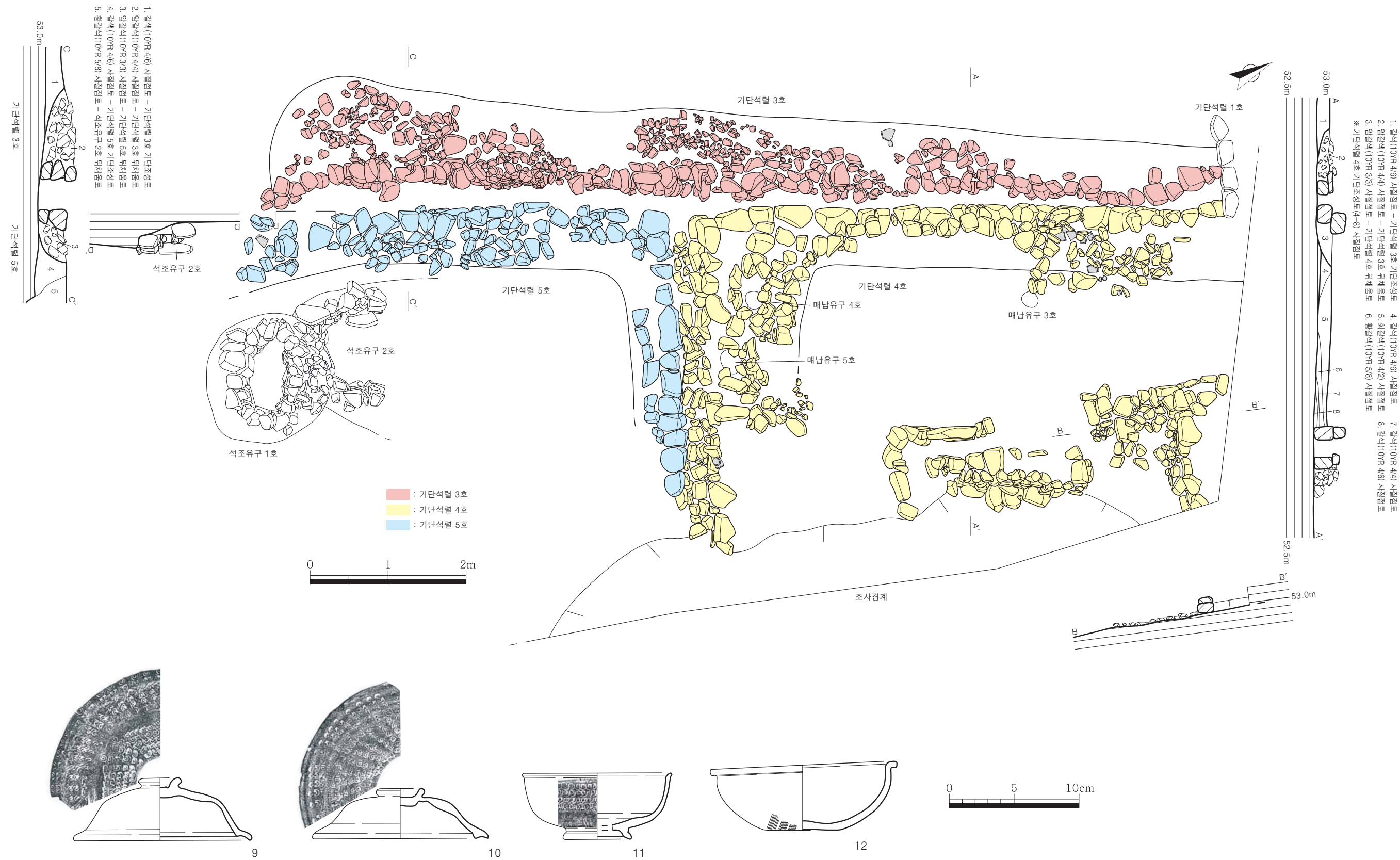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4) 기단석렬 4호

가. 유구(도면 20, 도판 28~31)

조사대상지 북동쪽 해발 52.8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기단석렬 3호, 남쪽에 기단석렬 5호가 위치하고, 기단석렬 1호가 상부에 후축되었으며, 기단내부토에서 매납유구 3호~5호 총 3기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기단석렬, ‘ㄱ’자형 석렬, 석군이 확인되었다.

기단석렬의 평면형태는 ‘ㄴ’자형으로, 북동-남서(N-29°-E)방향 석렬 남쪽 끝에서 동쪽방향 수직에 가깝게 동-서방향 석렬로 이어지고, 석렬의 북쪽과 동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석렬은 1~3단 정도 잔존한다. 확인된 규모는 동-서 길이 527cm, 남-북 길이 704cm, 높이 23~48cm 정도이다. 기단조성토인 갈색 사질점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고, 석렬을 조성한 후 석렬 뒤쪽에는 길이 7~14cm 정도의 할석과 암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기단석렬 최하단석은 길이 37~42cm 정도의 할석을 서쪽과 남쪽을 바른면으로 평적하였고, 그 상부로는 길이 17~24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다. 기단석렬 뒤쪽에는 기단조성토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고, 길이 7~14cm 정도의 할석과 암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도면 20. 기단석렬 3~5호 및 출토유물(9~11:4호, 12:5호)

석렬은 기단 내부 동쪽에 위치한다. 북동-남서(N-27°-E)방향의 석렬에 남쪽 끝에서 동쪽으로 꺾여 평면형태 ‘ㄴ’자형이 확인되었으며, 서쪽과 동쪽은 유실되었다. 확인된 규모는 남-북 길이 153cm, 북쪽 동-서 길이 31cm, 남쪽 동-서 길이 102cm, 내부 너비 24cm, 높이 40cm 정도이다. 석렬은 2단정도 잔존하며, 최하단에는 길이 24~34×17~25cm 정도의 할석으로 안쪽을 바른면으로 수적하고, 2단에는 길이 17~35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으며, 내부 바닥 남쪽에는 길이 24cm 정도의 할석을 깔았다. 석렬 뒤쪽에는 기단 내부토인 황갈색·회갈색·황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되어 있어 석렬은 기단조성과 동시에 조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남쪽 동-서 석렬에 사용된 석재 중 불의 영향으로 적색으로 변색된 양상과 석렬 내부에서 목탄알갱이와 소토알갱이가 혼입된 토양이 확인되어 부뚜막과 관련된 시설로 추정된다.

북동쪽 석군은 평면형태 ‘ㄴ’자형 석렬 북쪽에 접해 위치한다. 길이 15cm 정도의 할석을 한 겹으로 깔아 평평한 면을 조성하였고, 북쪽에는 길이 24cm 정도의 할석을 2단으로 쌓아 동-서 방향의 석렬을 조성하였다. 석군의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정확한 용도는 알 수 없으나, 추정 부뚜막에 인접해 평평한 면이 확인되어 본 유구의 사용면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기단 조성토 내부에서 개 2점과 대부완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9. 개(도면 20-9, 도판 31-9)

기형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적색(2.5YR 4/2)이다. 내외면에 회올리브색(7.5Y 5/3)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는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상위에는 종장연속 마제형문이 역방향으로 인화되어 있으며, ‘A’시문수법과 ‘B’시문수법을 혼합하여 인화하였다. 중위부터는 종장연속 마제형문을 ‘A’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다.

기고 4.8cm, 복원구경 13.4cm, 꼭지고 0.8cm, 꼭지경 2.9cm

10. 개(도면 20-10, 도판 31-10)

기형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적색(2.5YR 4/2)이다. 신부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상위에는 종장연속 마제형문을 ‘B’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으며, 중위부터는 역방향의 종장연속 마제형문을 ‘A’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다.

기고 3.9cm, 복원구경 11.4cm, 꼭지고 0.6cm, 꼭지경 3.2cm

11. 대부완(도면 20-11, 도판 31-11)

기형의 1/3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적색(2.5YR 4/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종장연속 마제형문을 'B'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다.

기고 5.1cm, 복원구경 11.3cm, 대각고 0.9cm, 복원저경 5.0cm

(5) 기단석렬 5호

가. 유구(도면 20, 도판 32·33)

조사대상지 북동쪽, 해발 52.8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기단석렬 3호, 북쪽에 기단석렬 4호가 위치하고, 석조유구 2호와 매납유구 2호가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ㄷ'자형으로, 북동-남서(N-29°-E)방향 석렬 남쪽과 북쪽 끝에서 각각 동쪽방향으로 수직에 가깝게 동-서방향 석렬로 이어진다. 북쪽 동-서석렬은 동쪽이 유실되었고, 남쪽 동-서석렬은 조사경계 동쪽 밖으로 이어진다. 석렬은 1~3단 정도 잔존한다. 확인된 규모는 남-북 길이 505cm, 북쪽 동-서 길이 423cm, 남쪽 동-서 길이 655cm, 높이 23~41cm 정도이다. 기단석렬은 기단조성토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고, 길이 13~21cm 정도의 할석과 암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남-북 석렬과 북쪽의 동-서 석렬은 최하단석에 길이 37~42cm 정도의 할석을 서쪽과 북쪽을 바른면으로 평적하였고, 그 상부로는 길이 17~24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다. 남쪽의 동-서 석렬은 길이 16~23cm 정도의 할석으로 1~2단 정도 허튼층 쌓기하였다. 석렬 뒤쪽에는 기단조성토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고, 길이 13~21cm 정도의 할석과 암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유물은 기단 조성토 내부에서 완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2. 완(도면 20-12, 도판 33-12)

완형이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신부 외면의 하위에서 물손질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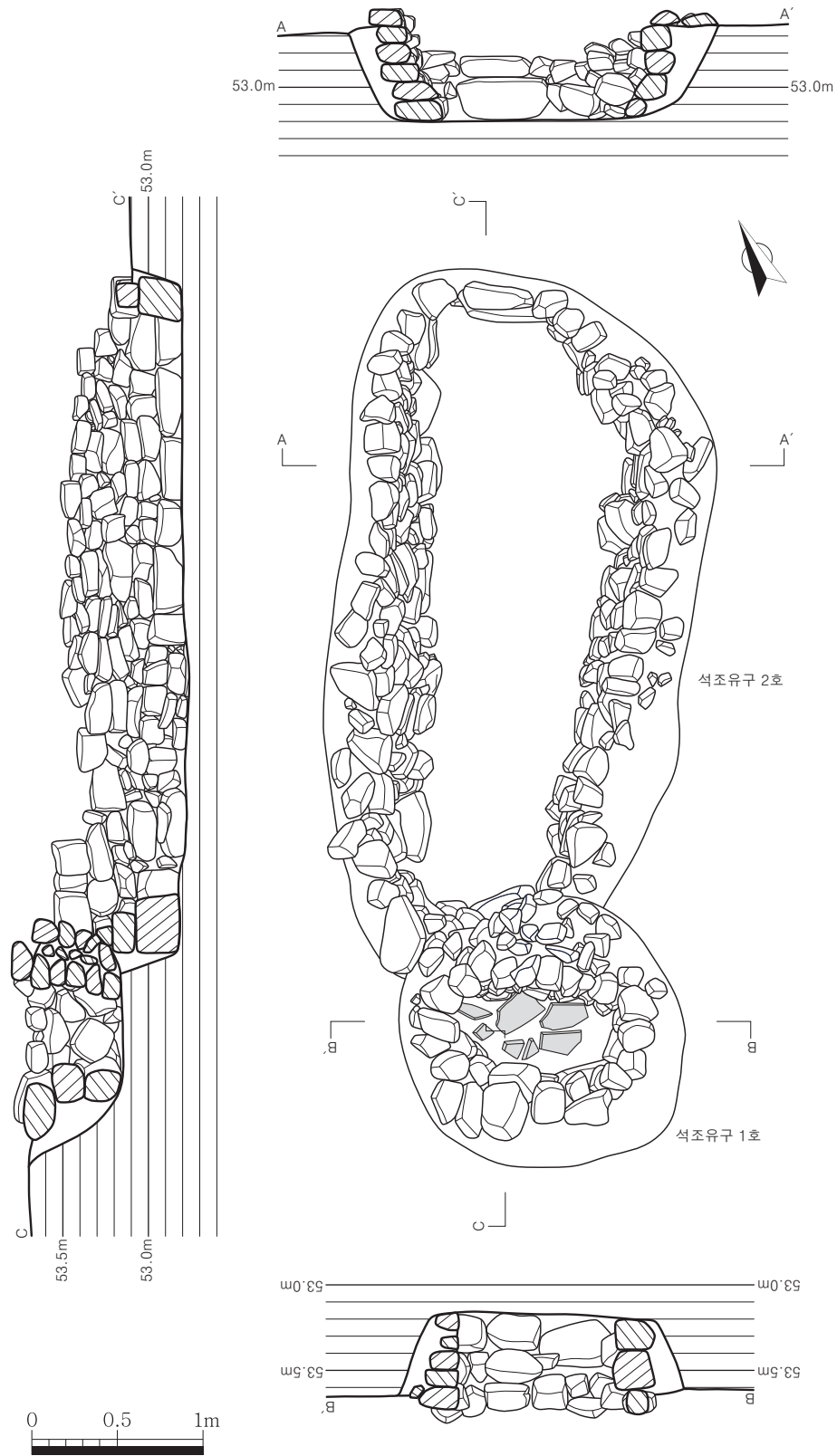
기고 5.0cm, 구경 14.3cm, 저경 5.5cm

6) 석조유구

(1) 석조유구 1호

가. 유구(도면 21, 도판 34·35)

조사대상지 남동쪽, 해발 53.7m 정도에 위치한다. 남쪽에 적심 2호~6호, 서남쪽에 건물지 3호가 위치하고, 기단석렬 5호와 석조유구 2호 하부에 선축되었다.



도면 21. 석조유구 1·2호

수혈은 갈색 사질점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평면형태 원형에 가깝다. 수혈의 규모는 동-서 길이 169cm, 남-북 길이 160cm, 깊이 61cm 정도이다.

석조는 평면형태 말각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31°-E)향이다. 석조의 규모는 길이 138cm, 너비 50cm, 잔존 높이 62cm 정도이다. 벽석은 5단 정도 잔존한다.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길이 18~34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고, 최하단은 평면형태 말각장방형으로 조성한 후 2~5단까지는 평면형태 타원형에 가깝게 조성하였다. 바닥에는 길이 13~37cm 정도의 암키와편을 한겹 정도로 깔았다. 굴광과 벽석 사이에는 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유물은 바닥에서 암키와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3. 암키와(도면 22-13, 도판 35-13)

좌측 상단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이다. 내면에서 포목흔과 윤철흔이 확인되며, 부분 물손질 정면하였다. 외면은 선문 중판 타날 후, 상단부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흔은 좌측에서 확인되며, 내→외로 1/4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5.7cm, 잔존너비 22.9cm, 두께 1.2cm

(2) 석조유구 2호

가. 유구(도면 21, 도판 35·36)

조사대상지 남동쪽 해발 53.4m 정도에 위치한다. 기단석렬 5호 내부에 위치하고, 동쪽에 매납유구 2호가 위치한다. 석조유구 1호가 유구의 남쪽 상부를 파괴하고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26°-E)향이다. 기단석렬 5호 내부토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말각장방형의 수혈을 조성하고, 굴광면을 따라 벽석을 쌓아 축조하였다. 수혈의 확인된 규모는 길이 414cm, 너비 154~214cm, 깊이 29~54cm 정도이다. 석조의 규모는 길이 336cm, 너비 70~106cm, 잔존 높이 71cm 정도이다.

벽석은 3~7단 정도 잔존한다. 최하단석은 길이 27~41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고, 상부로는 길이 14~31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다.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내부에는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으며, 굴광과 벽석 사이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유물은 내부조사 중 개, 대부완, 동곳 각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4. 개(도면 22-14, 도판 37-14)

신부 및 구연부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적색(2.5Y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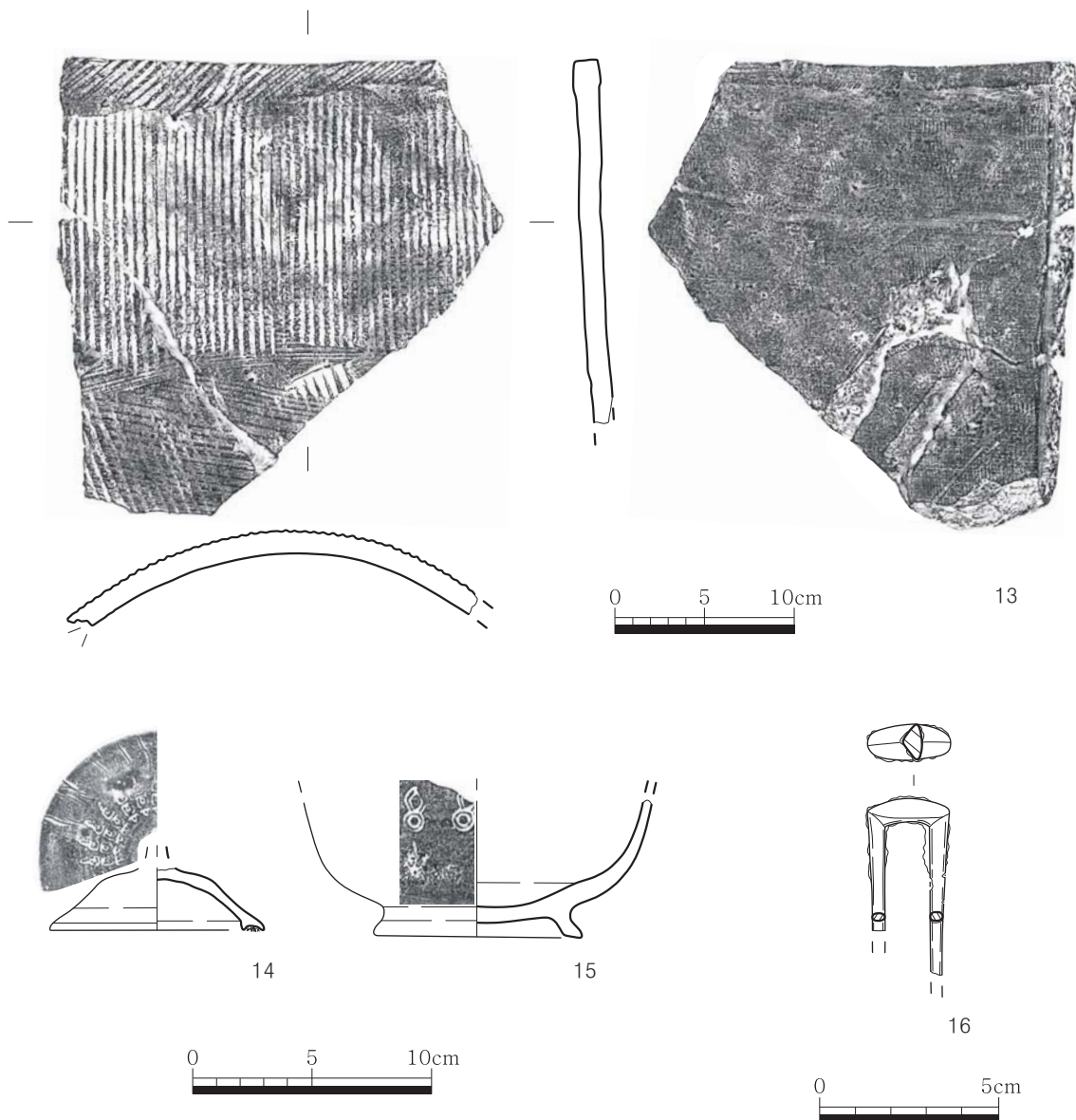
4/2)이다. 외면에 올리브흑색(5Y 3/1) 자연유가 흡착되었다. 신부에는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구연부에서 짙흔이 확인된다.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외면에는 중장연속 마제형문을 'B'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다.

잔존기고 2.6cm, 복원구경 8.9cm

15. 대부완(도면 22-15, 도판 37-15)

신부의 하위와 대각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이중능형문과 이중원문의 합성문을 인화하였다.

잔존기고 5.7cm, 대각고 1.3cm, 저경 8.7cm



도면 22. 석조유구 1·2호 출토유물(13:1호, 14~16:2호)

16. 동곳(도면 22-16, 도판 37-16)

각부의 하부가 결실되었으며, 전면에 녹혹이 두껍게 형성되어 부풀어 있다. 두부는 ‘ㄷ’자형으로 구부러 놓았으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단면형태는 두부가 부채꼴모양이며, 각부는 타원형이다.

잔존길이 5.0cm, 두부길이 2.3cm, 두부너비 1.0cm, 두부두께 0.6cm, 각부두께 0.25cm, 중량 9.0g

7) 우물

(1) 우물 1호

가. 유구(도면 23, 도판 37)

조사대상지 북쪽 중앙부 해발 53.5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건물지 1호, 남쪽에 건물지 2호, 동쪽에 기단석렬 3호가 위치하고, 기단석렬 1호와 2호 하부에 선축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단면형태는 상광하협의 형태를 이룬다. 수혈의 규모는 상부 306cm, 최하단부는 140cm 정도이며, 깊이 253cm 정도이다.

벽석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통형으로 일정한 너비를 유지하여 쌓았다. 벽석의 내경은 60cm 정도이다. 벽석은 18단 정도가 확인되었다. 벽석의 최하단에서 3단 정도까지는 길이 32~45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고, 상부로 길은 17~29cm 정도의 할석으로 허튼층 쌓기하였다. 바닥은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내부에는 다량의 할석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굴광과 벽석 사이에는 갈색 사질점토로 덧채움하였다.

유물은 내부 조사중 연화문수막새, 단경호, 호 구정부 각 1점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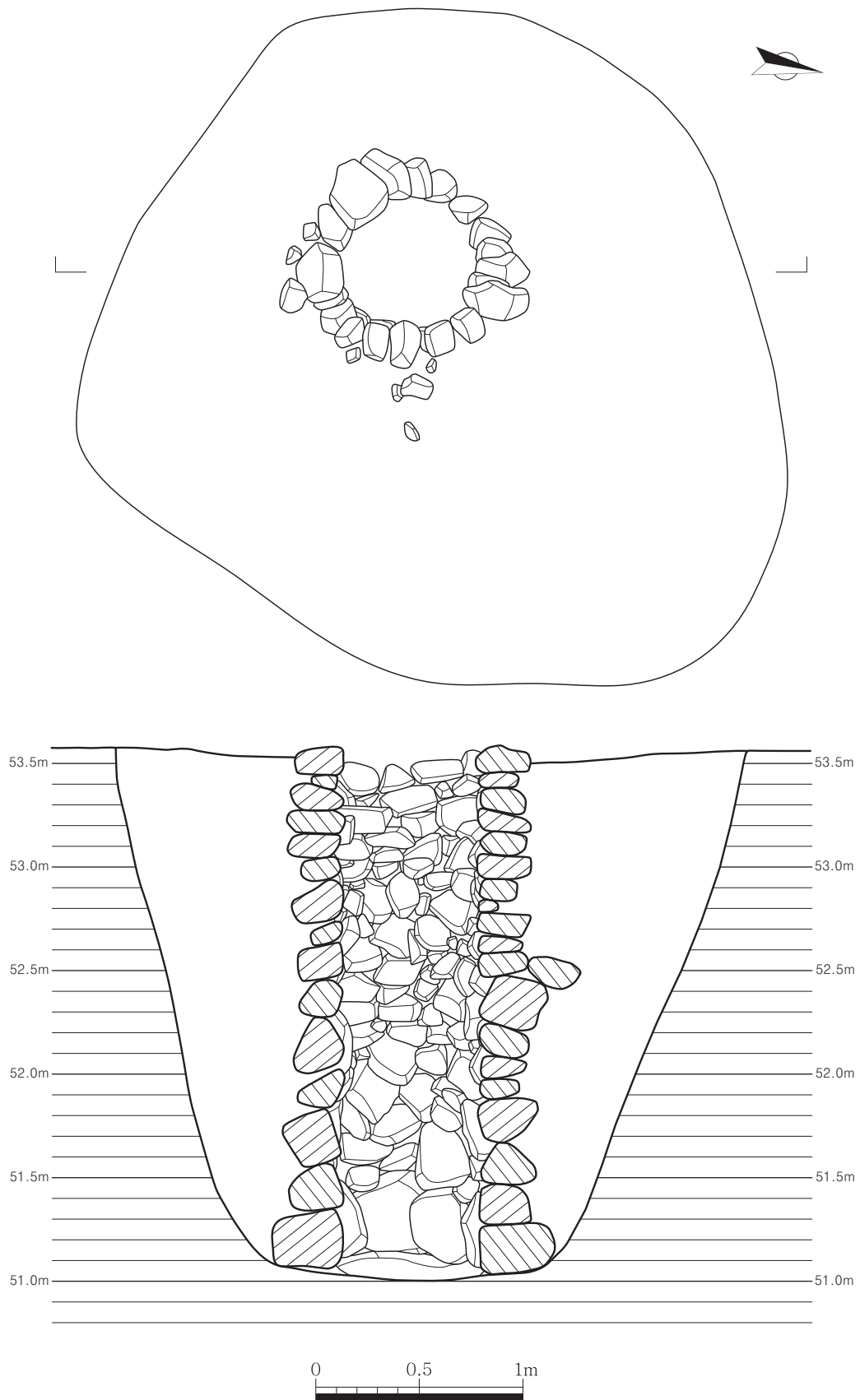
17. 연화문수막새(도면 24-17, 도판 38-17)

드림부와 기와부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황색(2.5Y 7/2)에 가깝다. 주연부에는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는 중판연화문으로 내판에는 타원형의 꽃잎을 7엽 배치하였다. 외판에는 물방울 모양의 꽃잎을 13엽 배치하였으며, 꽃잎 주변에 화륜권을 돌렸다. 자방은 반구형이다. 기와부의 내면에서 포목흔이, 드림부의 내면에서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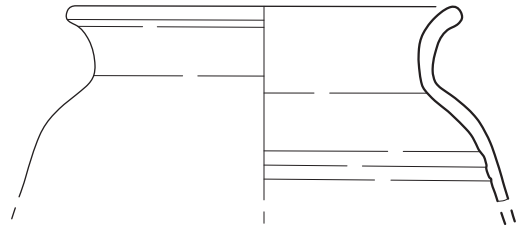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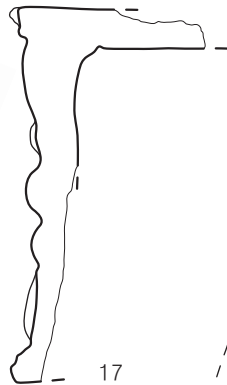
- 드림부 : 직경 14.9cm, 두께 2.0cm
- 기와부 : 잔존길이 5.0cm, 두께 1.6cm

18. 단경호(도면 24-18, 도판 3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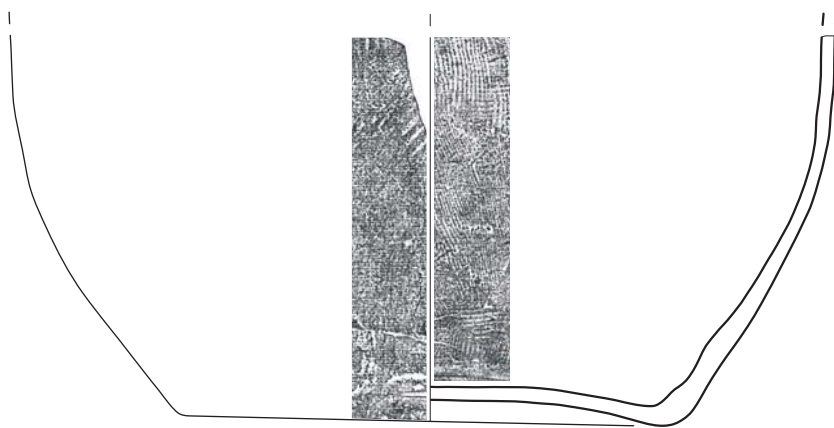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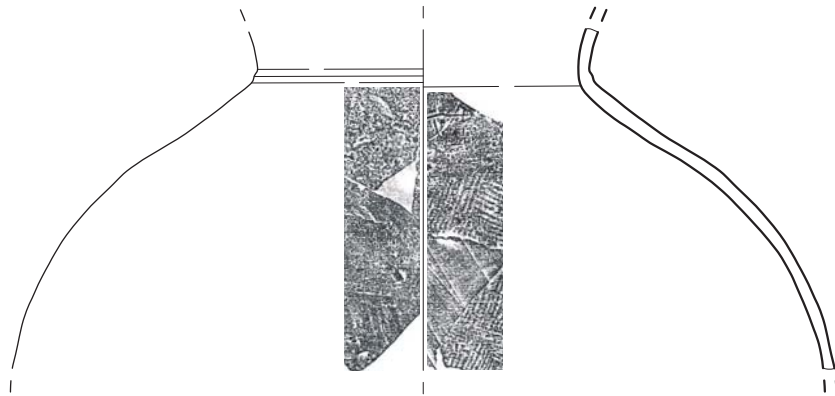
구정부 일부 및 동체부 상위 일부, 저부 및 동체부 하위 일부로 분리되어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적갈색(10R 4/3)이다. 내외면에 회올리브색(7.5Y 5/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



도면 23. 우물 1호



19



18



도면 24. 우물 1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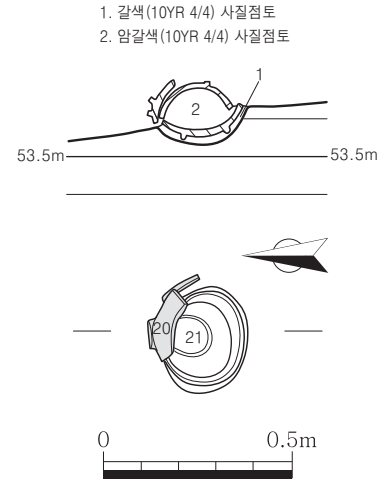
으로 산화バリ되었다. 동체부 내면은 선문 내박자 조정하였으며, 외면은 선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2.9/15.0cm, 저경 19.1cm

19. 호 구경부편(도면 24-19, 도판 38-19)

구경부 및 동체부 상위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7.7cm, 복원구경 15.1cm



8) 매납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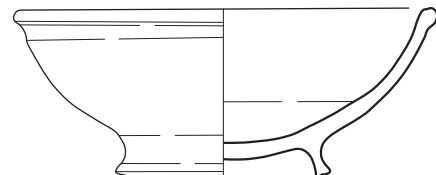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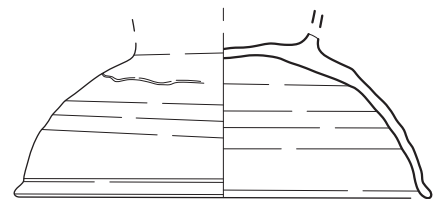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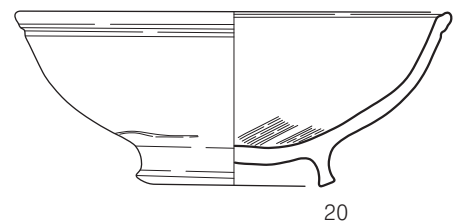
(1) 매납유구 1호

가. 유구(도면 25, 도판 38·39)

조사대상지 서쪽 경계부 해발 53.8m 정도에 위치한다. 부석유구 1호가 상부에 후축되었고, 건물지 2호가 선축되었다.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3cm, 깊이 10cm 정도이다. 수혈 내부에는 유개대부완을 바르게 놓고, 유개대부완 상부에는 대부완을 뒤집어 1점을 포개어 놓았다. 수혈과 유개대부완 사이에는 갈색 사질점토를 덧채움하였다.

유물은 대부완 1점, 유개대부완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0. 대부완(도면 25-20, 도판 39-20)

구연부 및 신부의 일부와 대각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신부 내면 하위에서 물손질

도면 25. 매납유구 1호 및 출토유물

정면흔이 확인되며, 외면에서 대각 접합흔이 확인된다.

기고 6.9cm, 복원구경 17.0cm, 대각고 1.5cm, 저경 6.6cm

21. 유개대부완(도면 25-21, 도판 39-21)

대부완을 개로 사용하였다. 구연부 및 신부 일부, 대각이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암회색(N 3/), 속심은 회황색(2.5Y 7/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신부 외면 하위에서 대각 접합흔이 확인된다.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4/)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개 : 잔존기고 6.5cm, 구경 16.3cm
- 대부완 : 기고 6.7cm, 구경 16.3cm, 꼭지고 1.7cm, 꼭지경 7.3cm

(2) 매납유구 2호

가. 유구(도면 26, 도판 39)

조사대상지 동쪽 경계부, 해발 53.4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석조유구 2호가 위치한다. 기단석렬 5호의 기단토 내부에 조성된 진단구로 추정된다.

기단석렬 5호 내부토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100cm, 깊이 22cm 정도이다. 수혈 내부에는 대호를 바르게 놓아 매납하였다. 수혈과 대호 사이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를 뒷채움하였다.

유물은 대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2. 대호(도면 26-22, 도판 4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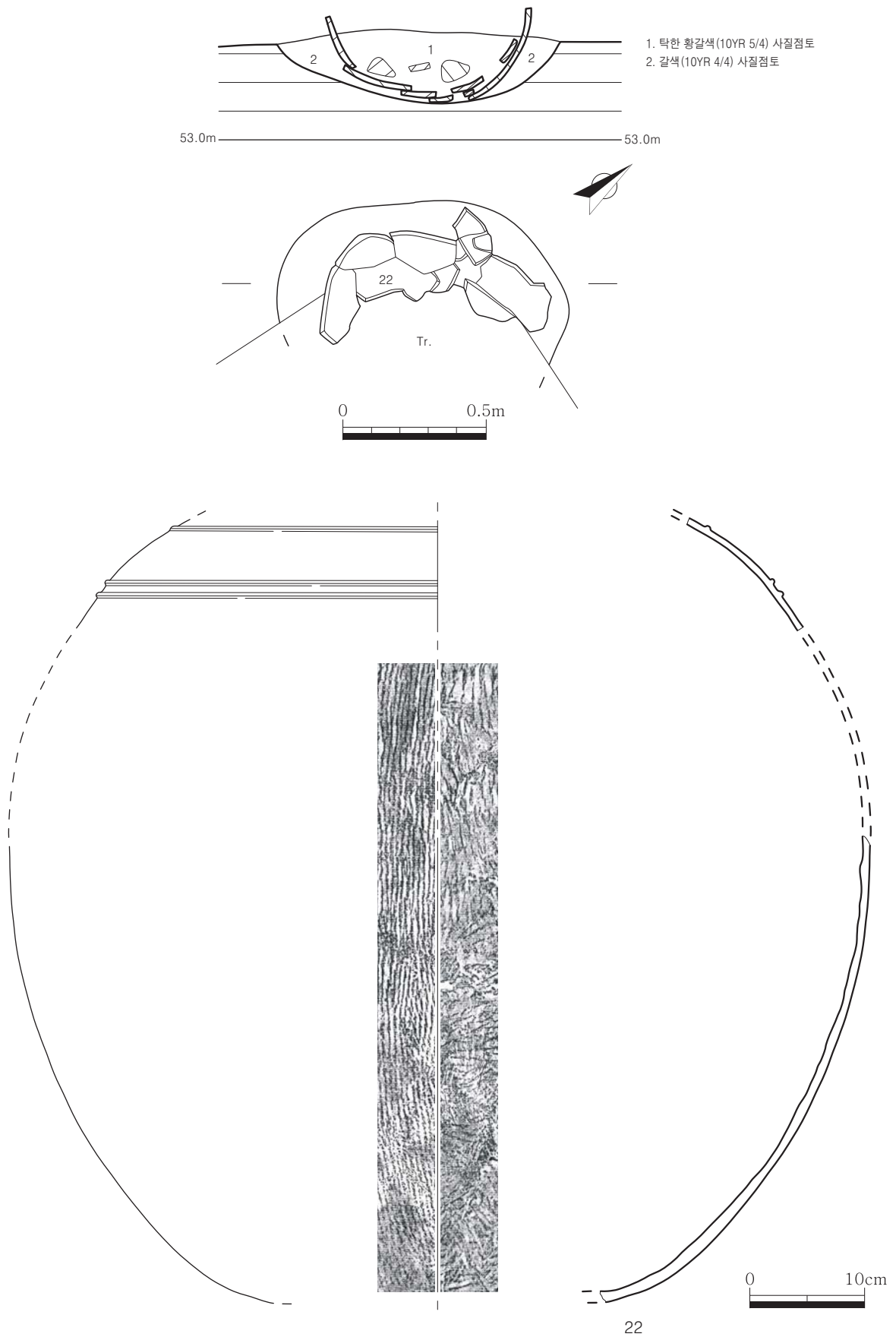
전부와 동체부 하부로 분리되어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백색(7.5YR 7/1)이다. 전부 외면에는 1조와 2조의 돌대를 돌렸다. 외면은 승문 타날하였으며, 내면은 선문 내박자 조정하였다. 동체부 하부에는 회백색을 띠는 부정형의 받침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 전부 19.7cm, 동체부하부 40.5cm

(3) 매납유구 3호

가. 유구(도면 27, 도판 40)

조사대상지 북동쪽, 해발 53.4m 정도에 위치한다. 기단석렬 4호의 기단토 내부에 조성된 진단구로 추정된다.



도면 26. 매납유구 2호 및 출토유물

기단석렬 4호 내부토인 암갈색 사질점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6cm, 깊이 8cm 정도이다. 수혈 내부에는 대부완을 바르게 놓아 매납하고, 수막새 문양면을 아래로 해서 뚜껑으로 사용하였다. 수혈과 완 사이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를 뒷채유물은 연화문수막새, 대부완 각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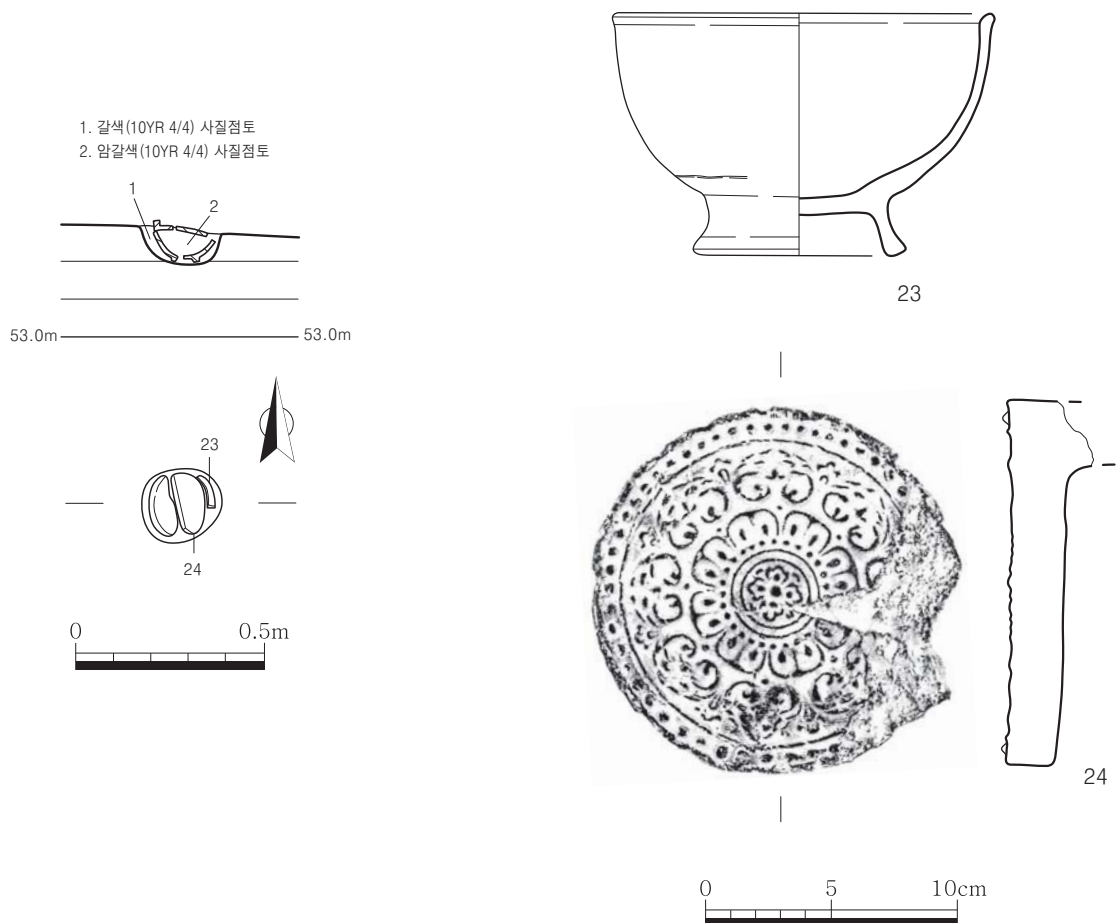
23. 대부완(도면 27-23, 도판 40-23)

구연부 및 신부의 1/2 정도와 대각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2.5Y 7/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신부 외면 하위에서 대각 접합흔이 확인된다.

기고 9.6cm, 복원구경 14.8cm, 대각고 2.4cm, 저경 7.1cm

24. 연화보상화문수막새(도면 27-24, 도판 40-24)

드림부만 잔존하며, 주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과 속심의 색조는 황회색(2.5Y 4/1)에 가깝다. 주연부에는 연주



도면 27. 매납유구 3호 및 출토유물

문을 배치하였다. 문양부는 중판연화보상화문으로 내판에는 8엽의 꽃잎 내에 물방울형 자엽을 배치하였다. 외판에는 8엽의 보상화문을 내판의 꽃잎과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보상화문은 중앙에 삼엽초문을 배치하고, 좌·우에 넝쿨문양을 대칭으로 표현하였다. 내판의 간엽은 구슬문을 1과씩 배치하였고, 외판에는 삼엽형과 그 아래에 ‘∩’형의 문양을 더한 형태의 간엽을 배치하였다. 자방은 평평하며, 가장자리에 이중의 원권을 두르고 외곽에 연주문을 배치하였다. 원권 내부에는 4엽의 소화문을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에서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직경 14.5cm, 두께 2.2cm

(4) 매납유구 4호

가. 유구(도면 28, 도판 41)

조사대상지 북동쪽, 해발 53.3m 정도에 위치한다. 기단석렬 4호의 기단토 내부에 조성된 진단구로 추정된다.

기단석렬 4호 기단석렬 뒷채움에 사용된 할석과 암갈색 사질점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22cm, 깊이 9cm 정도이다. 수혈 내부에는 유개대부완을 바르게 놓아 매납하였다. 수혈과 유개대부완 사이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를 뒷채움하였다.

유물은 유개대부완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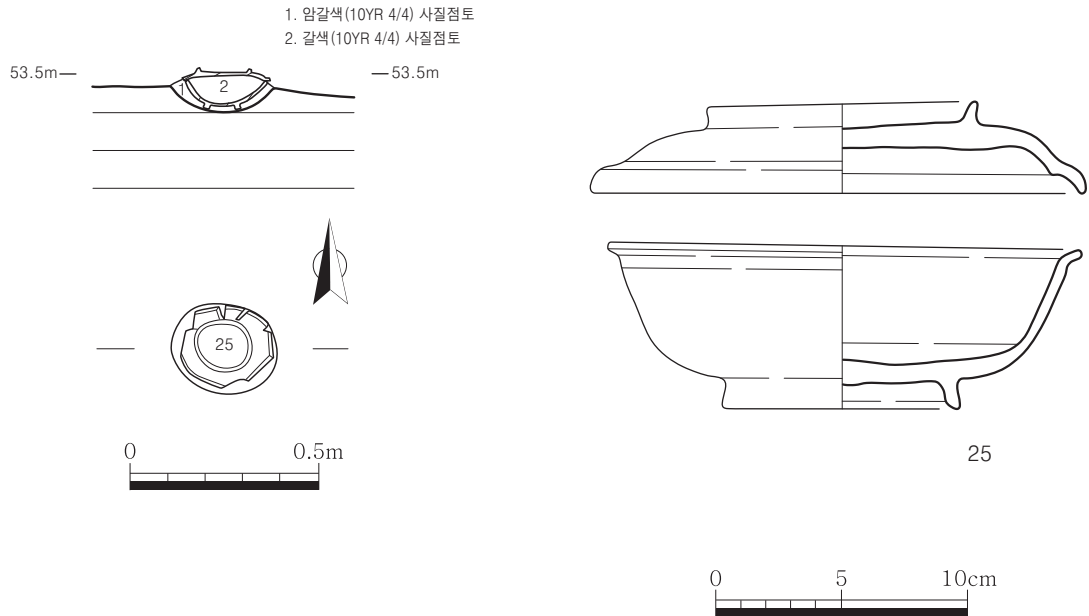
나. 유물

25. 유개대부완(도면 28-25, 도판 41-25)

개는 구연부, 신부 및 꼭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적회색(2.5YR 4/1)이다. 외면에 회올리브색(7.5Y 5/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대부완은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적회색(2.5YR 4/1)이다. 외면에 회올리브색(7.5Y 5/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 개 : 기고 3.6cm, 구경 19.3cm, 꼭지고 0.9cm, 꼭지경 10.5cm
- 대부완 : 기고 6.5cm, 구경 18.6cm, 대각고 1.2cm, 저경 9.1cm



도면 28. 매납유구 4호 및 출토유물

(5) 매납유구 5호

가. 유구(도면 29, 도판 41·42)

조사대상지 북동쪽, 해발 53.1m 정도에 위치한다. 기단석렬 4호의 기단토 내부에 조성된 진단구로 추정된다.

기단석렬 4호 기단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59cm, 깊이 8cm 정도이다. 수혈 내부에는 편병 저부를 바르게 놓아 매납하고, 수혈과 편병 저부 사이에는 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편병 상부로는 기단석렬 4호 석렬 뒷채움토인 할석이 적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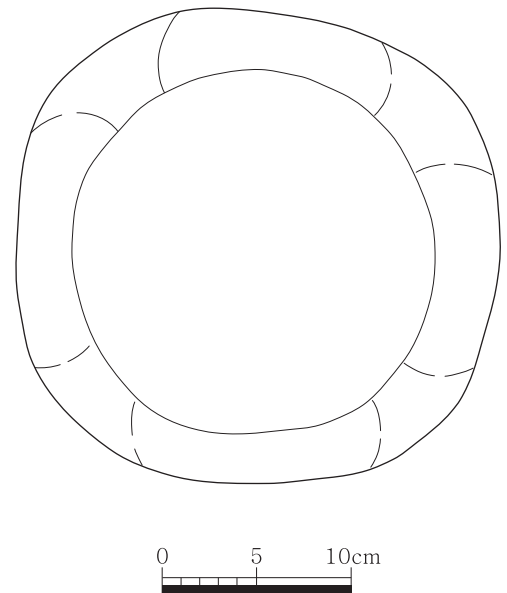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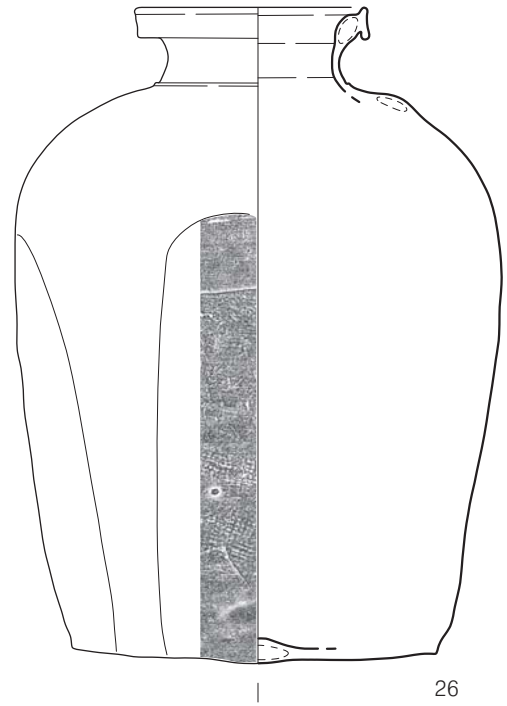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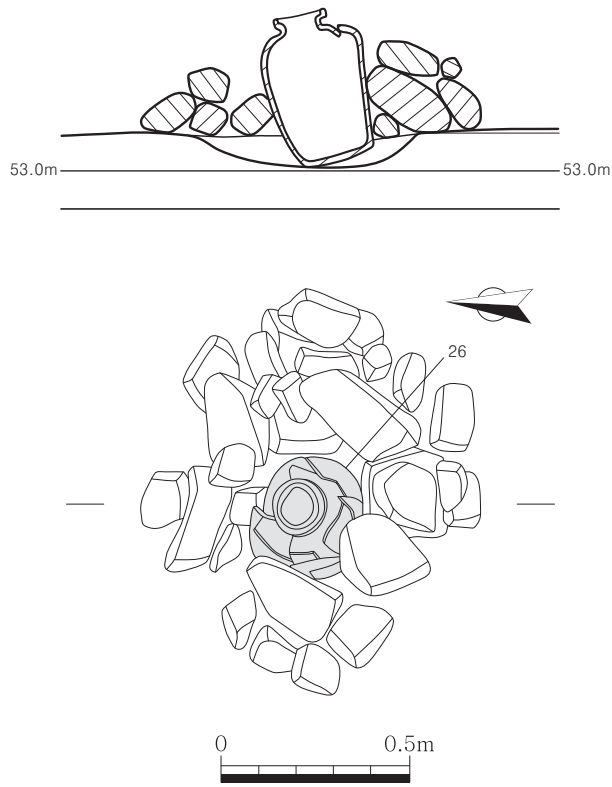
유물은 편병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6. 편병(도면 29-26, 도판 41-26)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 속심은 회적색(2.5Y 4/2)이다. 내외면에 회올리브색(7.5Y 5/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동체부에는 기포가 형성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외면에서 집선문 타날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4면 편병으로 동체부의 4면에서 눌러진 흔적이 확인된다.

기고 34.8cm, 구경 11.9cm, 저경 19.2cm



도면 29. 매납유구 5호 및 출토유물

9) 부석유구

(1) 부석유구 1호

가. 유구(도면 30, 도판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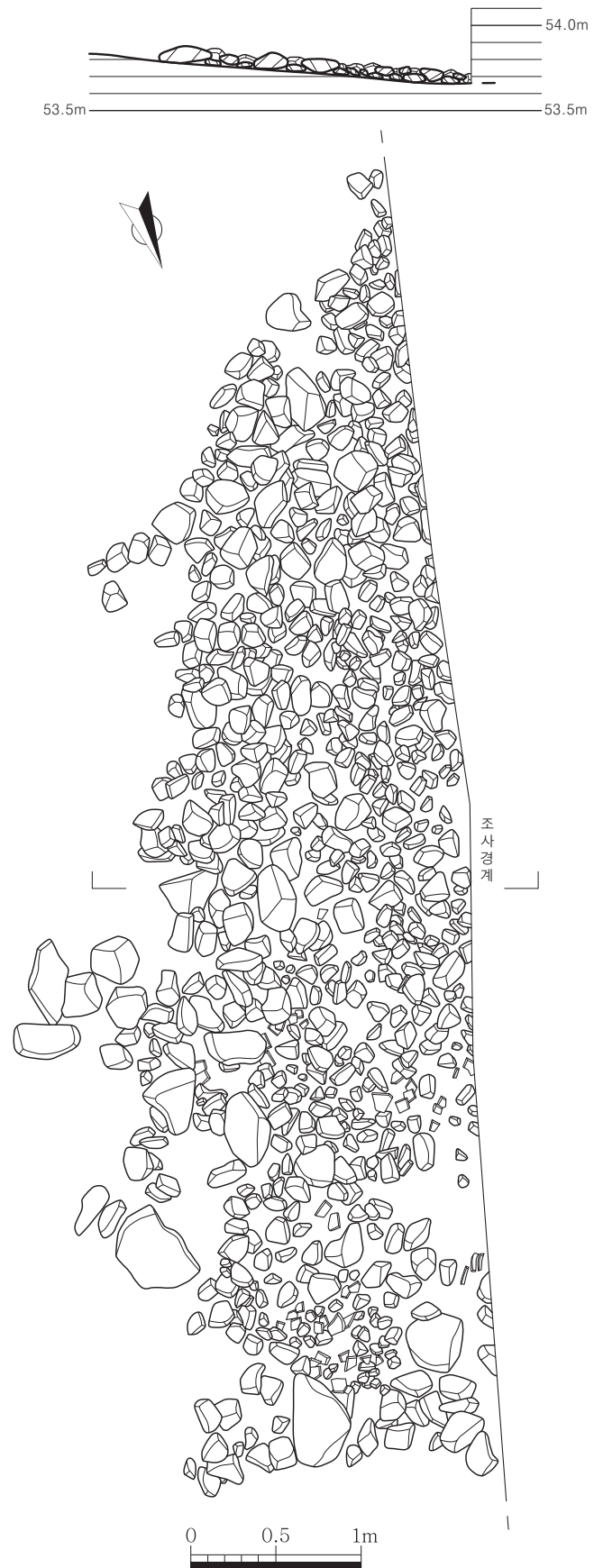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서남쪽, 해발 53.8m 정도에 위치한다. 매납유구 1호와 건물지 2호, 담장지 4호가 선축되었다.

갈색 사질점토층에 길이 7~32cm 정도의 천석과 할석을 한겹 또는 두겹 정도로 깔았다. 서쪽 경계 밖으로 이어져 정확한 평면 형태는 알 수 없었고, 확인된 규모는 동-서 길이 210cm, 남-북 길이 750cm, 높이 22cm 정도이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 하부 문화층 -

하부문화층에서는 기단석렬 3기, 석조유구 3기, 석렬유구 4기, 배수로 1기, 우물 1기, 보도시설 1기, 매납유구 1기, 부석유구 2기, 수혈유구 48기 등 총 6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지형상 중앙부에 경사면을 기준으로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으며, 조사대상지 남쪽에서는 수혈유구 48기와 석조유구 2기가 확인되었고, 조사대상지 북쪽에서는 우물 1기, 보도시설, 기단석렬 등이 확인되었다.



도면 30. 부석유구 1호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360582.111m	③	X 360564.652m
	Y 220853.761m		Y 220835.737m
	Z 54.33m		Z 54.565m
②	X 360589.055m	④	X 360562.986m
	Y 220836.43m		Y 220852.25m
	Z 54.454m		Z 54.472m

- : 기반석렬
- : 석렬유구
- : 배수로
- : 부석유구
- : 매납
- : 석조유구
- : 우물
- : 보도시설
- : 수혈유구



도면 31. 하부문화층 유구분포도

10) 배수로

(1) 배수로 2호

가. 유구(도면 32, 도판 44·45)

조사대상지 북쪽 해발 52.6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석렬유구 4호, 동쪽에 부석유구 2호가 위치한다. 기단석렬 6호가 선축되었고, 석조유구 5호가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一’자형이고, 진행방향은 북동-남서(N-35°-E)향으로 북쪽과 남쪽은 유실된 상태이며, 1~2단 정도 잔존한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500cm, 너비 146cm, 깊이 31cm 정도이다. 갈색 사질점토를 수직으로 굴착하고, 굴착면을 따라 길이 18~32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여 벽석을 조성하였다. 내부에는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된 양상이 확인되었고, 벽석과 굴광선 사이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바닥은 남쪽이 높고 북쪽으로 완만하게 낮아진다.

유물은 유구 확인 조사 중 대부완 2점, 수키와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7. 대부완(도면 32-27, 도판 45-27)

기형의 1/3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적색(2.5YR 4/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역삼각형문과 결합된 종장연속 마제형문을 ‘A’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다.

기고 7.1cm, 복원구경 16.5cm, 대각고 1.3cm, 복원저경 7.2cm

28. 대부완(도면 32-28, 도판 4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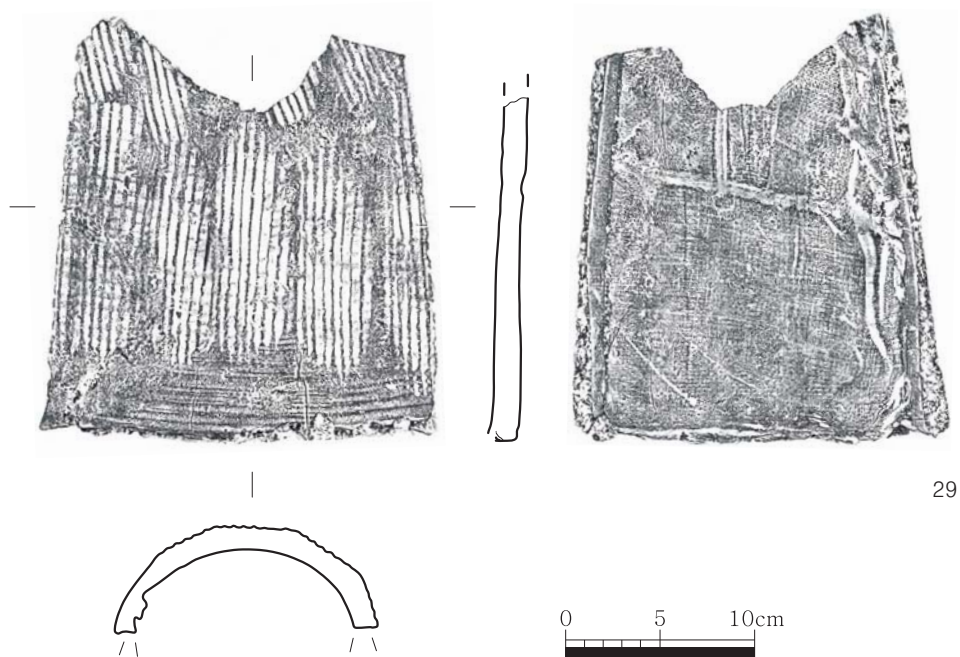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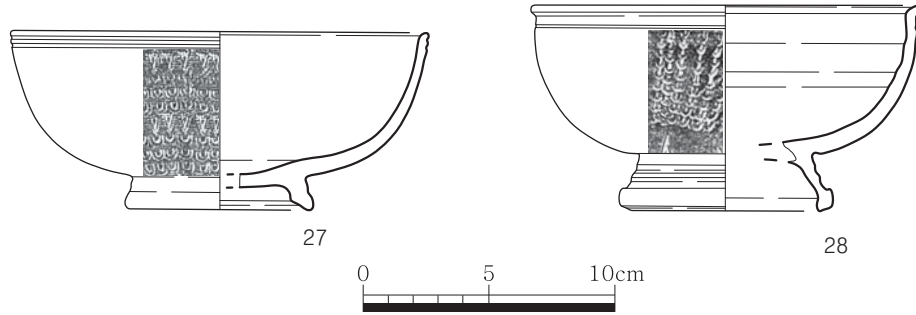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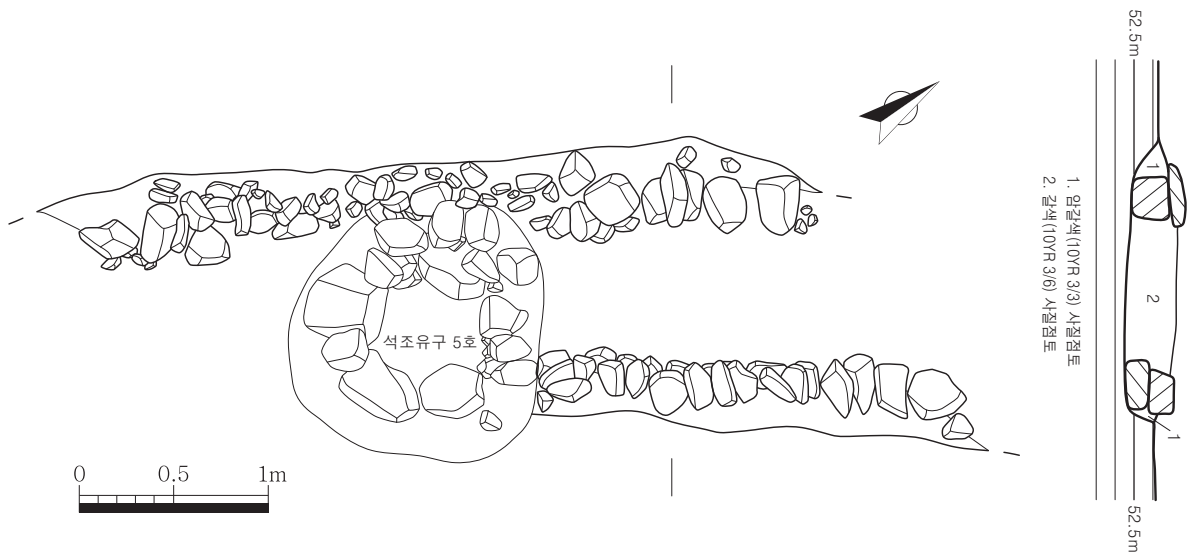
신부의 1/2, 대각의 1/3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4/)이다. 내외면에는 회올리브색(7.5Y 5/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종장연속 마제형문을 ‘A’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다.

기고 8.1cm, 복원구경 15.2cm, 대각고 2.2cm, 복원저경 7.3cm

29. 수키와(도면 32-29, 도판 45-29)

상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7.5Y 4/1), 속심은 회색(N 5/)에 가깝다. 내면에서 포목흔과 포목겹침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선문 중판 타날하였으며, 하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흔은 양측에서 확인되며, 내→외로 1/2~2/3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2.1cm, 너비 15.7cm, 두께 1.1cm



도면 32. 배수로 2호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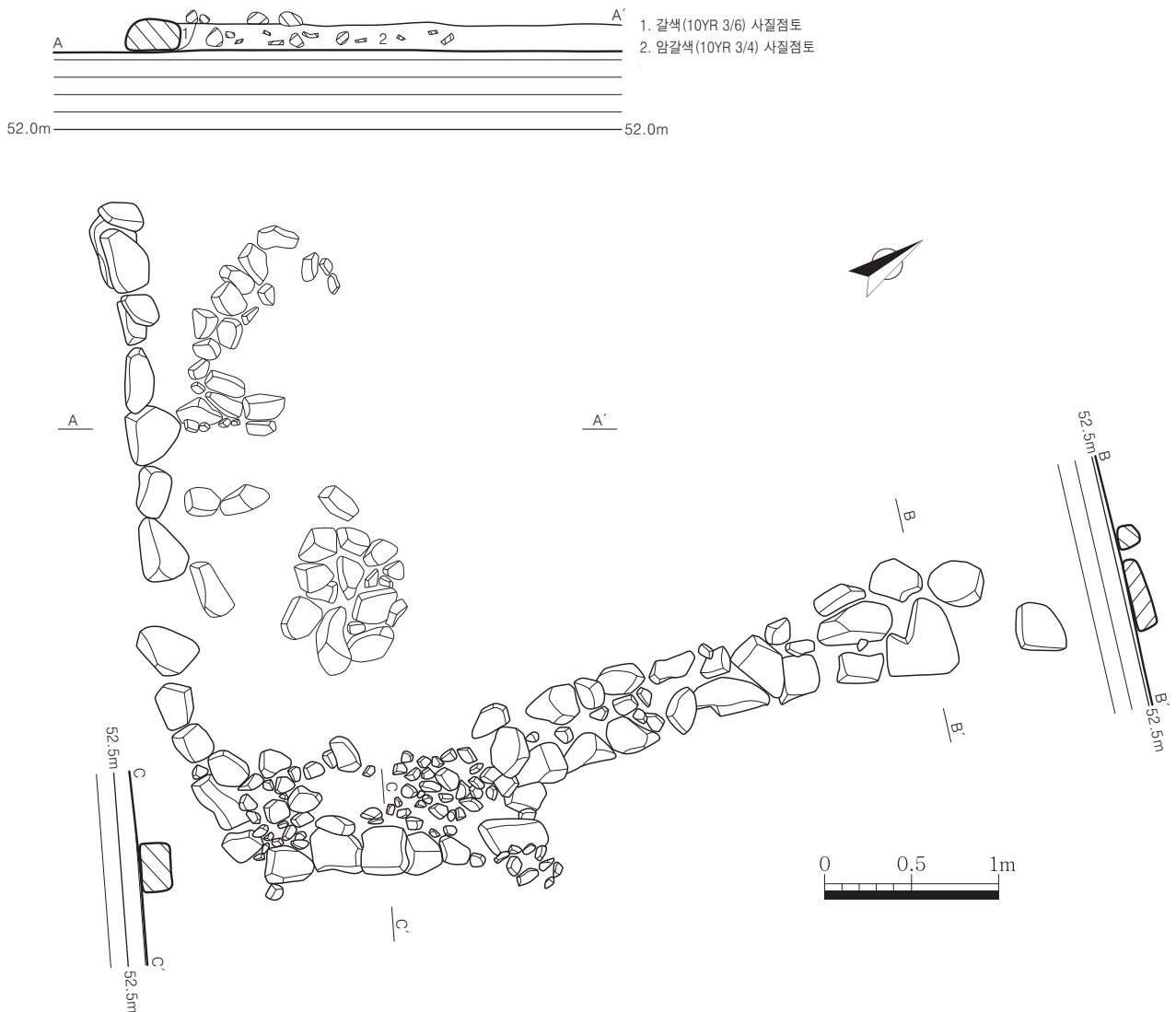
11) 기단석렬

(1) 기단석렬 6호

가. 유구(도면 33, 도판 46)

조사대상지 북쪽 중앙부, 해발 52.4m 정도에 위치한다. 동쪽에 보도시설, 남쪽에 부석유구, 서쪽에 석렬유구 4호가 위치한다. 배수로 2호가 동-서방향 석렬을 파괴하고 후축되었다.

평면형태는 ‘L’자형으로, 북동-남서(N-25°-E)방향 석렬 남쪽 끝에서 서쪽방향으로 수직에 가깝게 동-서방향 석렬로 이어진다. 남동쪽에는 동쪽으로 돌출된 부분이 확인되었다. 석렬은 1~2단 정도 잔존한다. 확인된 규모는 남-북 길이 507cm, 동-서 길이 387cm, 높이 19~25cm 정도이다. 석렬은



도면 33. 기단석렬 6호

길이 18~38cm 정도의 할석을 동쪽과 남쪽을 바른면으로 평적하였다. 석렬 뒤쪽에는 기단조성토인 길이 12~17cm 정도의 할석이 포함된 암갈색 사질점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고, 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남동쪽 돌출부는 남-북 방향 석렬의 남쪽 부분에 동쪽으로 40cm 정도 돌출되었으며, 돌출된 남-북 길이 165cm 정도이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기단석렬 7호

가. 유구(도면 34, 도판 47·48)

조사대상지 북동쪽 해발 52.4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보도시설, 남쪽에 기단석렬 8호, 북쪽에 석렬유구 2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장축방향은 북동-남서(N-29°-E)방향이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520cm, 너비 290~360cm, 높이 43cm 정도이다. 기단석렬의 구성과 함께 목탄과 모래가 혼입된 황갈색·갈색 사질점토를 평평하게 쌓아 기단토를 조성하였다. 북쪽과 동쪽 석렬은 1단 만이 잔존하고, 길이 39~60cm 정도의 할석을 바깥을 바른면으로 횡평적하였다. 서쪽과 남쪽 석렬은 1~2단 정도 잔존하며, 길이 29~33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다.

유물은 기단 조성토 내부에서 완, 수키와, 암키와, 환형석기 각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0. 완(도면 35-30, 도판 48-30)

기형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암회색(N 3/), 속심은 회등색(7.5YR 6/4)이다. 저부에서 회백색(7.5YR 5/3)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5.0cm, 복원구경 9.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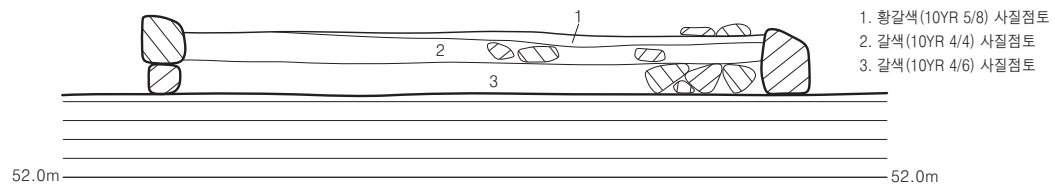
31. 수키와(도면 35-31, 도판 48-31)

좌측 하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2.5Y 8/2)에 가깝다. 내면에서 포목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선문+‘X’자문의 복합문을 중판 타날한 후 하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흔은 좌측에서 확인되며, 내→외로 1/2 정도 분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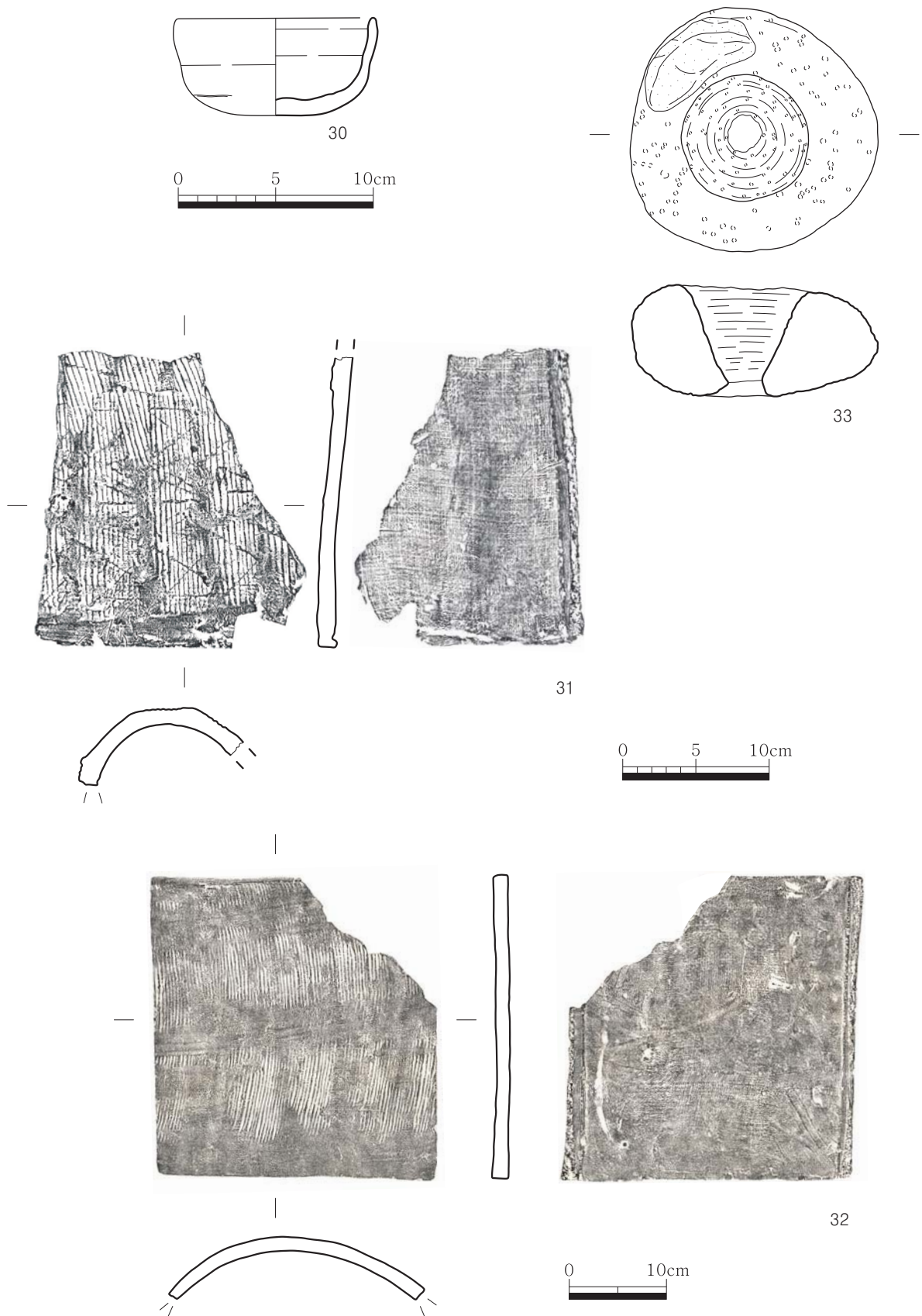
잔존길이 20.6cm, 잔존너비 12.5cm, 두께 1.0cm

32. 암키와(도면 35-32, 도판 48-32)

우측 상단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도면 34. 기단석렬 7호



도면 35. 기단석렬 7호 출토유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에 가깝다. 내면에서 포목흔이 확인되며, 대부분 물손질 하였다. 외면은 선문 중판 타날 후 일부 물손질하였다. 와도흔은 양측에서 확인되며, 좌측은 내→외로 1/4~1/2 정도, 우측은 외→내로 1/2~2/3 정도 분할하였다.

길이 31.1cm, 너비 27.5cm, 두께 1.4cm

33. 환형 석제품(도면 35-33, 도판 48-33)

소형 돌확으로 추정된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타원형으로 가공하였다. 중앙에는 문설주를 꽃아 사용한 원형의 회전 마연된 흔적이 확인된다. 하부는 후대에 의도적으로 뚫은 원형 소형 투공이 확인된다.

길이 16.8cm, 두께 7.7cm, 투공직경 8.6cm

(3) 기단석렬 8호

가. 유구(도면 36, 도판 49·50)

조사대상지 동쪽, 경계부 해발 52.5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우물 2호, 북쪽에 기단석렬 7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ㄷ’자형이고, 남-북(N-29°-E)방향 석렬 북쪽과 남쪽 끝에서 동쪽방향으로 수직에 가깝게 동-서 방향 석렬로 이어진다. 동-서방향 남쪽 석렬은 동쪽이 유실되었고, 동-서 방향 북쪽 석렬은 동쪽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지며, 석렬은 1단만 잔존한다. 확인된 규모는 남-북 길이 380cm, 북쪽 동-서 길이 525cm, 남쪽 동-서 길이 615cm, 높이 42cm 정도이다.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 북쪽 석렬은 길이 41~70cm 정도의 할석을 바깥을 바른면으로 평적하였고, 석렬 뒤쪽에는 기단조성토인 갈색 사질점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고, 길이 10~17cm 정도의 할석과 암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유물은 기단조성토 내부에서 대부완 1점, 연화문수막새 2점, 수키와 2점, 암키와 1점 등 총 6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4. 대부완(도면 37-34, 도판 50-34)

구연부 일부와 대각의 대부분이 결실되었으며, 신부가 찌그러졌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회백색(2.5Y 7/1), 내면과 속심은 황회색(2.5Y 6/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는데 외면은 회전성형흔이 확인된다. 구연부 하단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렸으며, 잔존한 대각에서 방형 투공 1개가 확인된다.

잔존기고 8.1~8.9cm, 구경 14.6~17.5cm



도면 36. 기단석렬 8호

35. 연화문수막새(도면 37-35, 도판 50-35)

드림부만 잔존하며, 주연부는 일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6/1), 속심은 황회색(2.5Y 5/1)이다. 주연부는 무문이며, 외면 가장자리에서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문양부는 단판연화문으로 꽃잎은 6엽을 배치하였고, 꽃잎 중앙에는 능각을 시문하였다. 간엽은 'T'자형을 배치하였다. 자방은 돌출형으로, 1+5과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에서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15.8cm, 두께 1.8cm

36. 연화문수막새(도면 37-36, 도판 51-36)

드림부와 기와부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황회색(2.5Y 6/1), 내면과 속심은 황회색(2.5Y 5/1)이다. 주연부는 무문이며, 외면 가장자리에서 도구조정흔이 확인된다. 문양부는 단판연화문으로 꽃잎은 6엽을 배치하였고, 꽃잎 중앙에는 능각을 시문하였다. 간엽은 'T'자형을 배치하였다. 자방은 돌출형으로, 1+4과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에서 선문 타날흔과 점토보강흔이 확인되었다. 기와부 외면은 선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서 포목흔이 확인된다.

- 드림부 : 잔존직경 14.7cm, 두께 2.3cm
- 기와부 : 잔존길이 3.0cm, 두께 1.2cm

37. 수키와(도면 37-37, 도판 51-37)

하부가 일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황회색(2.5Y 5/1), 내면과 속심은 황회색(2.5Y 6/1)에 가깝다. 내면에는 점토합흔과 포목흔이 희미하게 확인되며, 외면에서 물손질 정면되었다. 와도흔은 양측에서 확인되며, 전면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8.1cm, 너비 15.1cm, 두께 1.3cm

38. 수키와(도면 38-38, 도판 5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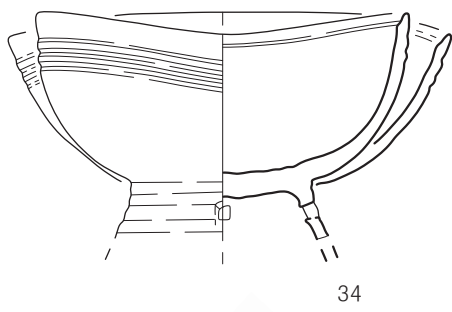
상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에 가깝다. 내면은 포목흔, 사절흔 및 물손질흔이 확인되며, 외면에는 물손질 정면되었다. 와도흔은 양측에서 확인되며, 좌측은 외→내로 1/2 정도, 우측은 내→외로 1/2 정도 분할하였다.

잔존길이 21.3cm, 너비 17.5cm, 두께 0.9cm

39. 암키와(도면 38-39, 도판 52-39)

상·하단부의 극히 일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4/1), 속심은 회갈색(7.5YR 5/3)에 가깝다. 내면에서 포목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선문 중판 타날 후 일부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흔은 양측에서 확인되며, 내→외로 1/3~1/2 정도 분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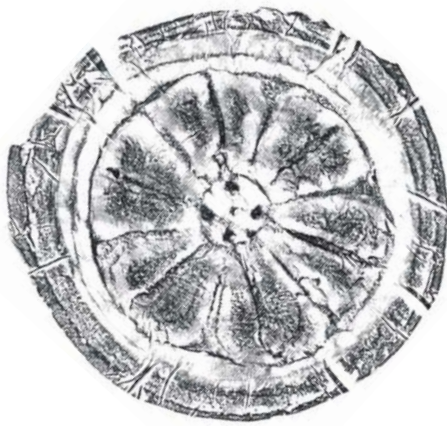
길이 35.0cm, 너비 30.3cm, 두께 1.3cm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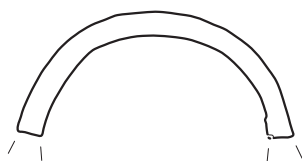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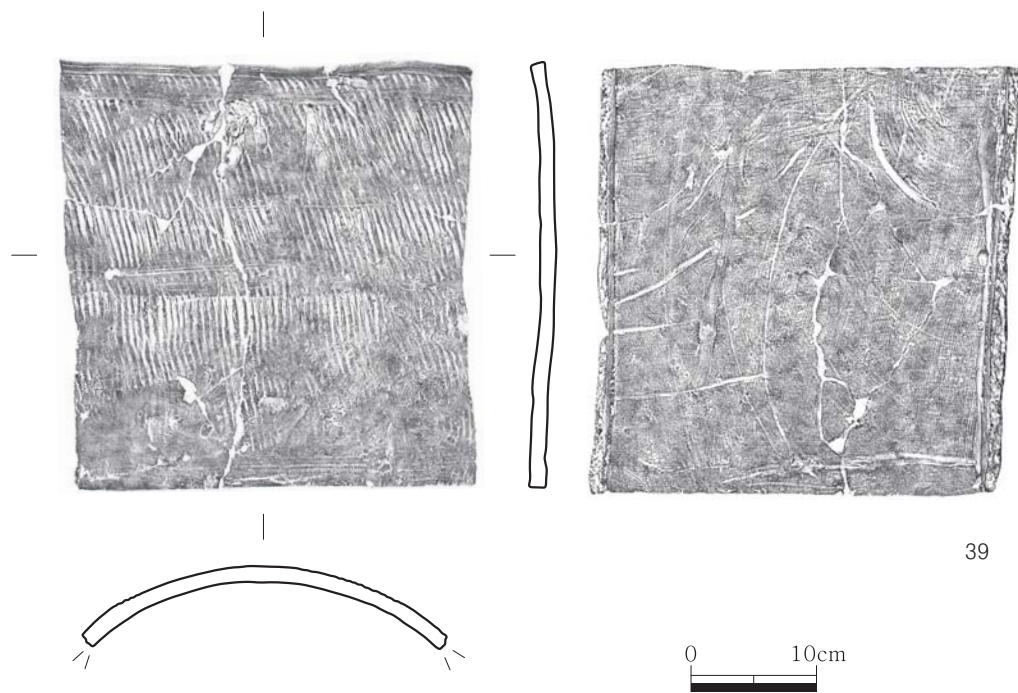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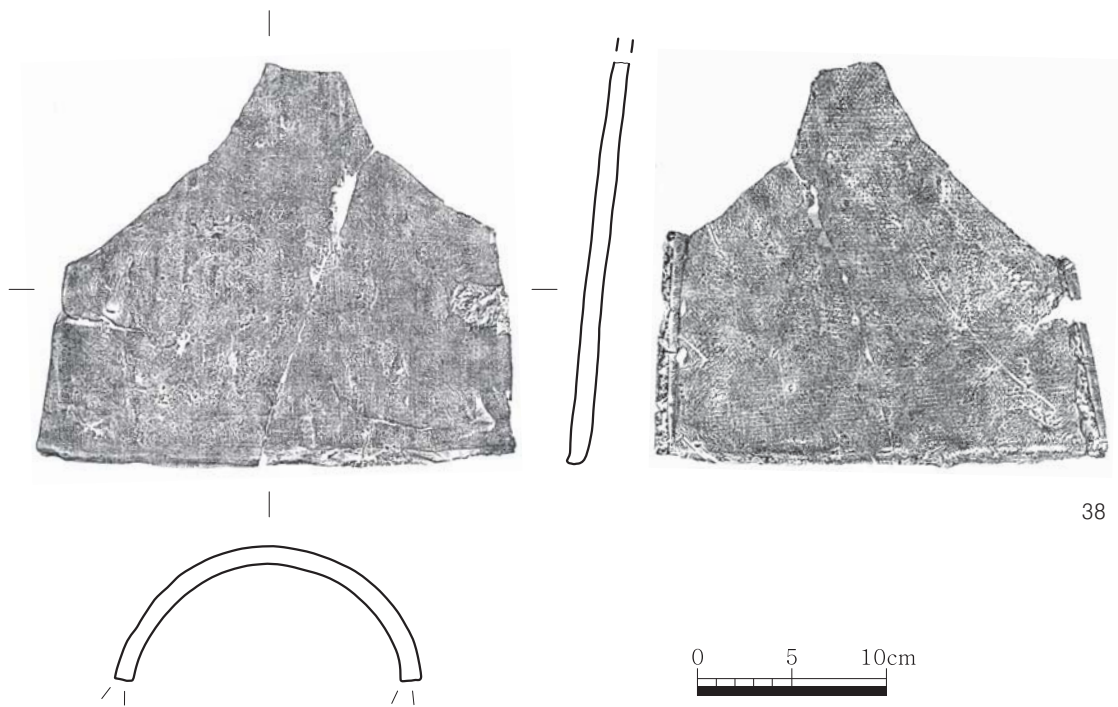
35



37



도면 37. 기단석렬 8호 출토유물1



도면 38. 기단석렬 8호 출토유물2

12) 석조유구

(1) 석조유구 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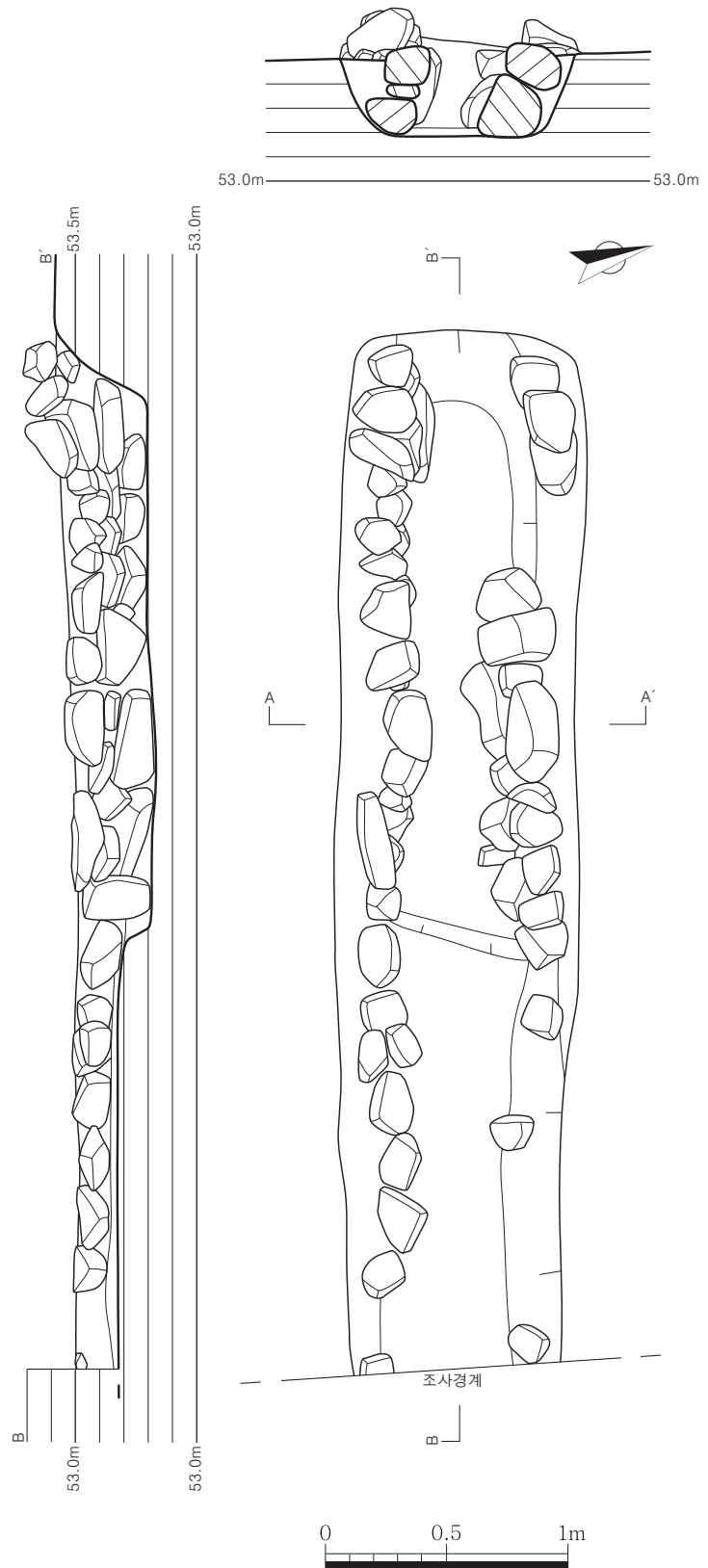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39, 도판 52·53)

조사대상지 남동쪽 경계부 해발 53.6m 정도에 위치한다. 주변에 수혈유구 3호·5호·22호·32호·43호가 인접해 위치하고, 수혈유구 4호는 선축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동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져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잔존양상으로 보아 장방형으로 추정되며, 장축 방향은 동-서($N-75^{\circ}-W$)방향이다. 적갈색 사질점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고, 수혈 중앙에 단을 두어 서쪽이 더 깊게 굴착하였다. 수혈의 규모는 길이 427cm, 너비 97cm, 깊이 18~35cm 정도이다. 석조의 규모는 길이 395cm, 너비 48cm 정도이다.

벽석은 1~3단 정도 잔존하며, 서쪽 단벽은 유실된 상태였다. 벽석은 단이 낮은 서쪽 최하단으로 길이 29~33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고, 서쪽의 상단과 동쪽으로는 길이 17~22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다. 굴광과 벽석 사이에는 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고, 석조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39. 석조유구 3호

(2) 석조유구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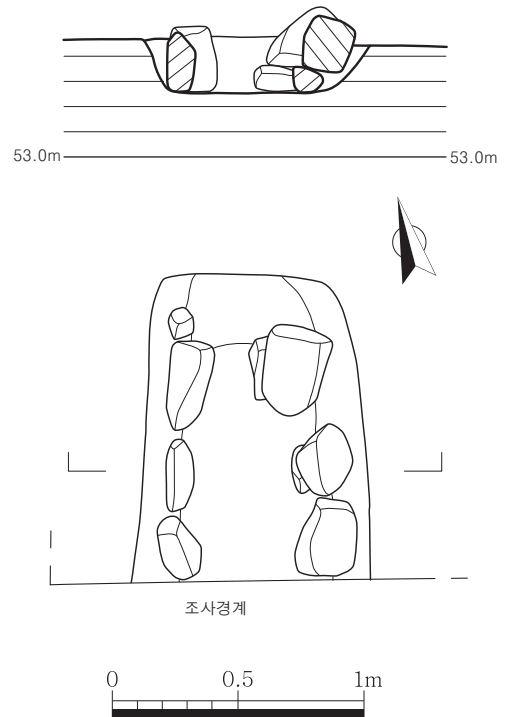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0, 도판 53·54)

조사대상지 남서쪽 경계부 해발 53.5m 정도에 위치한다. 주변에 수혈유구 18호·20호가 위치한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남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져 정확히는 알 수 없으며, 잔존양상으로 보아 주축방향은 남-북(N-15°-E)방향이다. 적갈색 사질점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수혈의 규모는 길이 124cm, 너비 89cm, 깊이 26cm 정도이다. 석조의 규모는 길이 100cm, 너비 67cm 정도이다.

벽석은 1단만 잔존하며, 북벽은 유실된 상태였다. 벽석은 크기 24~37×22~36cm 정도의 할석을 수직하였고, 동벽 하부에는 길이 18cm 정도의 할석을 끼워 고임돌로 사용하였다. 굴광과 벽석 사이에는 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고, 석조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40. 석조유구 4호

(3) 석조유구 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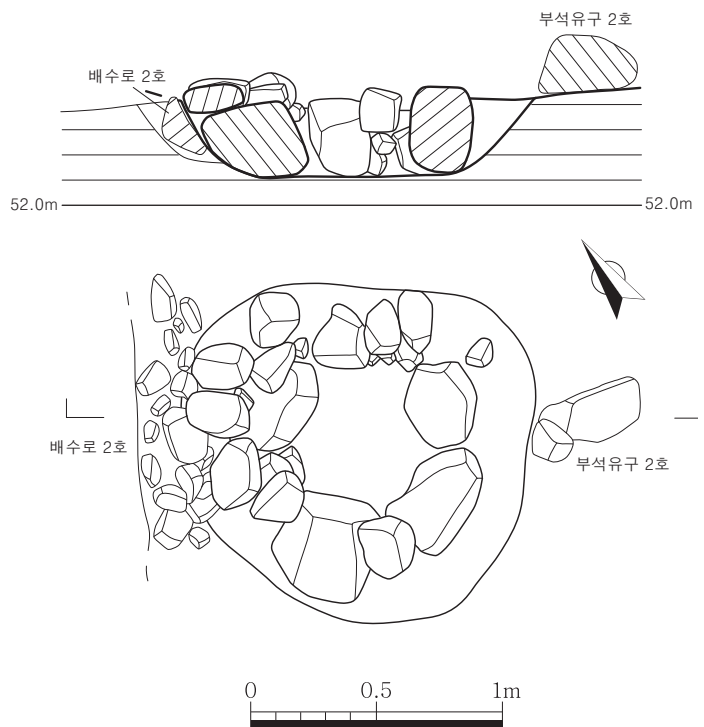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1, 도판 54)

조사대상지 북쪽의 중앙에서 서쪽에 치우쳐 해발 52.6m 정도에 위치한다. 배수로 2호와 부석유구 2호가 선착되었다.

수혈은 평면형태 원형이고, 갈색 사질점토를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다. 수혈의 규모는 직경 140cm, 깊이 26cm 정도이다. 석조의 규모는 직경 95cm 정도이다.

벽석은 1~2단 정도 잔존한다. 벽석은 최하단으로 길이 40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고, 상단으로 24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다. 굴광과 벽석 사이에는 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고, 석조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41. 석조유구 5호

13) 석렬유구

(1) 석렬유구 1호

가. 유구(도면 42, 도판 55)

조사대상지 북쪽의 북서쪽 해발 52.6m 정도에 위치한다. 석렬유구 3호와 4호가 선축되었다.

평면형태 ‘—’자형으로 주축방향은 동-서(N-74°-W)향이다. 1단만이 잔존하며, 동쪽은 유실되었고, 서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297cm, 높이 15cm 정도이다. 길이 21~36cm 정도의 할석을 남쪽이 바른면으로 평적하였다.

유물은 개 1점, 등잔형토기 1점 등 총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40. 개(도면 42-40, 도판 55-40)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 속심은 회적색(2.5YR 4/2)에 가깝다. 외면에 올리브흑색(5Y 3/1)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되었다. 신부 내면의 상위에는 회색(N 4/)을 띠는 원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3.3cm, 구경 7.5cm, 꼭지고 1.3cm

41. 등잔형토기(도면 42-41, 도판 55-41)

5등식으로 3개의 등잔과 영락부,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소형의 완형 등잔으로, 등잔 내부에 구멍을 뚫어 구연단에 뚫려 있는 구멍과 통하도록 하였다. 등잔 하위에는 영락이 달려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고리가 일부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갈색(5YR 4/2)이다. 내외면에 회올리브색(7.5Y 5/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대부분의 구연부는 속이 비어있으며, 신부 중앙에는 원형의 구멍이 뚫려있다. 대각에는 2조의 돌대를 돌려 구획하였다. 등잔은 구연부 상단에 5개를 접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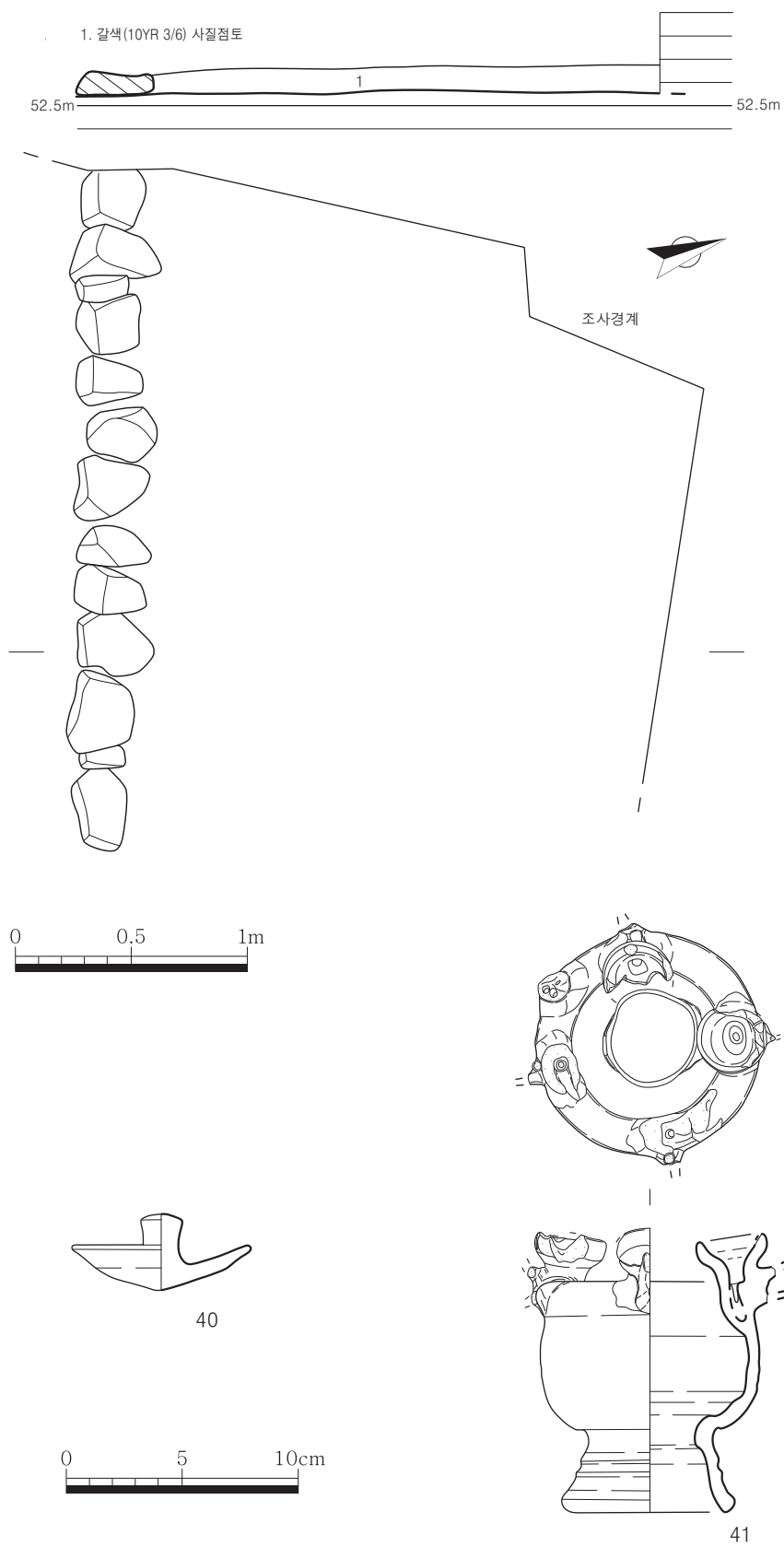
기고 9.9~12.2cm, 구경 8.5cm, 대각고 3.6cm, 복원저경 6.5cm

(2) 석렬유구 2호

가. 유구(도면 43, 도판 56)

조사대상지 북쪽의 북동쪽 해발 52.5m 정도에 위치한다. 남쪽에 기단석렬 7호, 서쪽에 보도시설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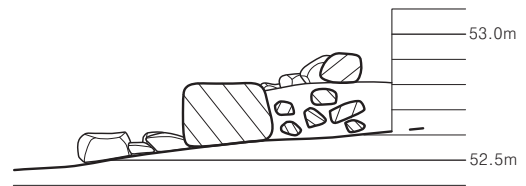
평면형태 ‘—’자형으로 주축방향은 동-서(N-75°-W)향이다. 1~2단만이 잔존하며, 석렬의 동쪽과



도면 42. 석렬유구 1호 및 출토유물

서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385cm, 높이 24cm 정도이다. 길이 35~43cm 정도의 할석을 남쪽이 바른면으로 평적하였는데, 2단은 들어쌓기하였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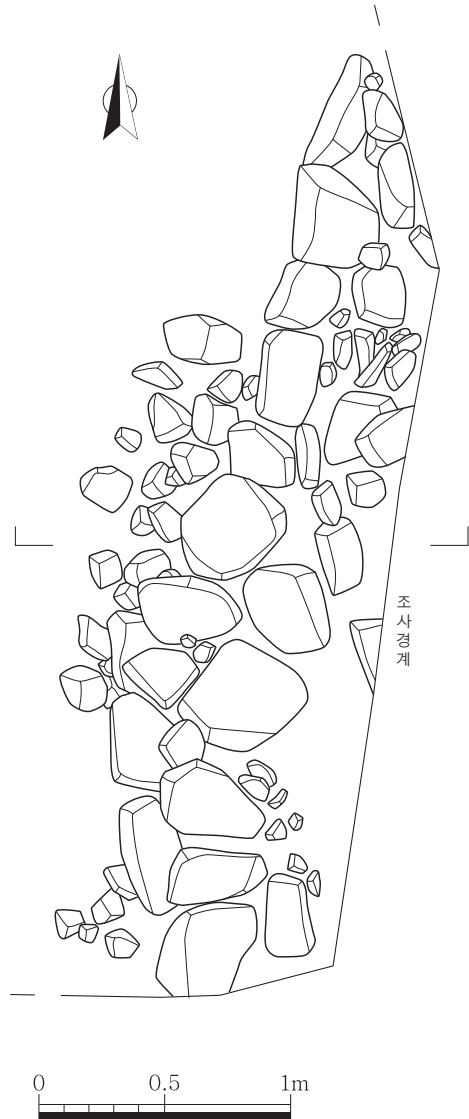
(3) 석렬유구 3호

가. 유구(도면 44, 도판 56·57)

조사대상지 북서쪽, 해발 52.4m 정도에 위치한다. 동쪽에 석렬유구 4호가 위치하고, 상부에 석렬유구 1호가 후축되었다.

평면형태 ‘—’자형으로 주축방향은 남-북(N-24°-E)향이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512cm, 높이 22cm 정도이고, 1~2단만이 잔존한다. 길이 26~37cm 정도의 할석을 동쪽이 바른면으로 평적하였다.

유물은 개, 연화문수막새, 토구 각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42. 개(도면 44-42, 도판 57-42)

신부와 구연부의 일부 및 꼭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갈색(7.5YR 4/2)이다. 내외면 일부에 회올리브색(7.5Y 5/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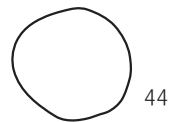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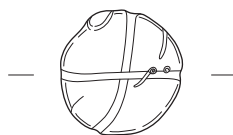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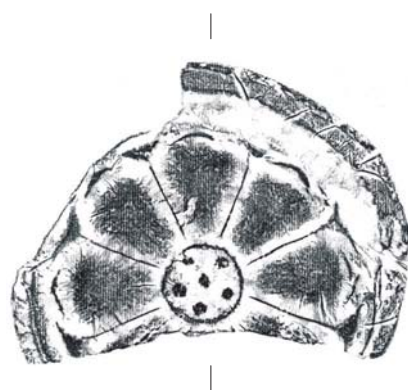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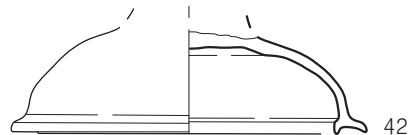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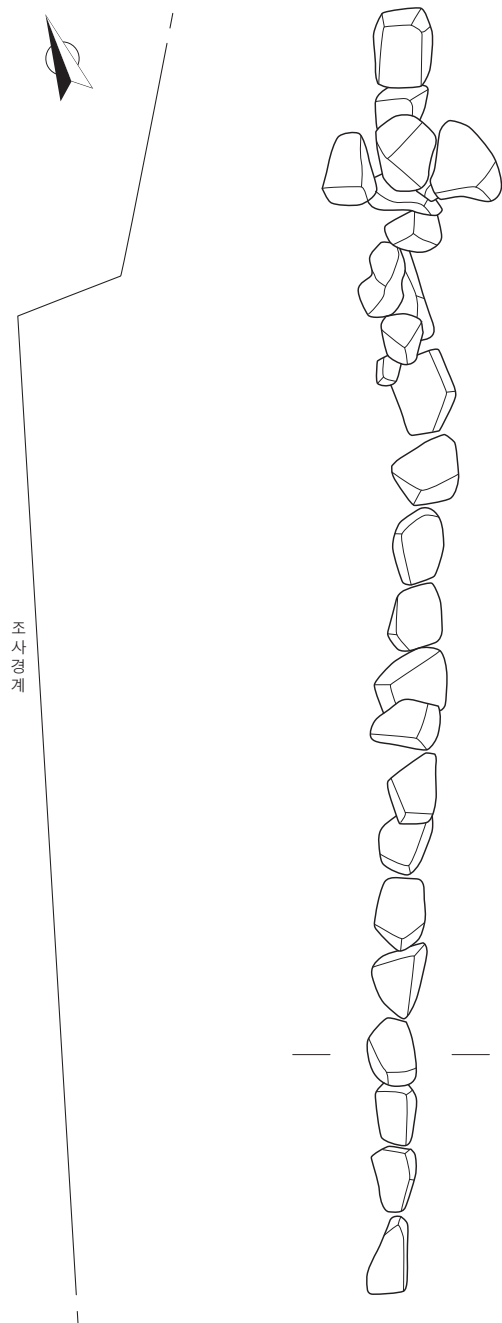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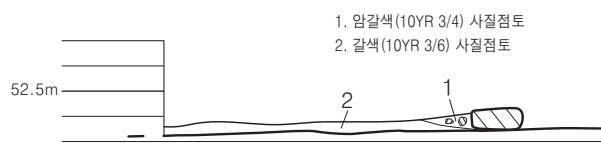
잔존기고 4.2cm, 구경 11.8cm

도면 43. 석렬유구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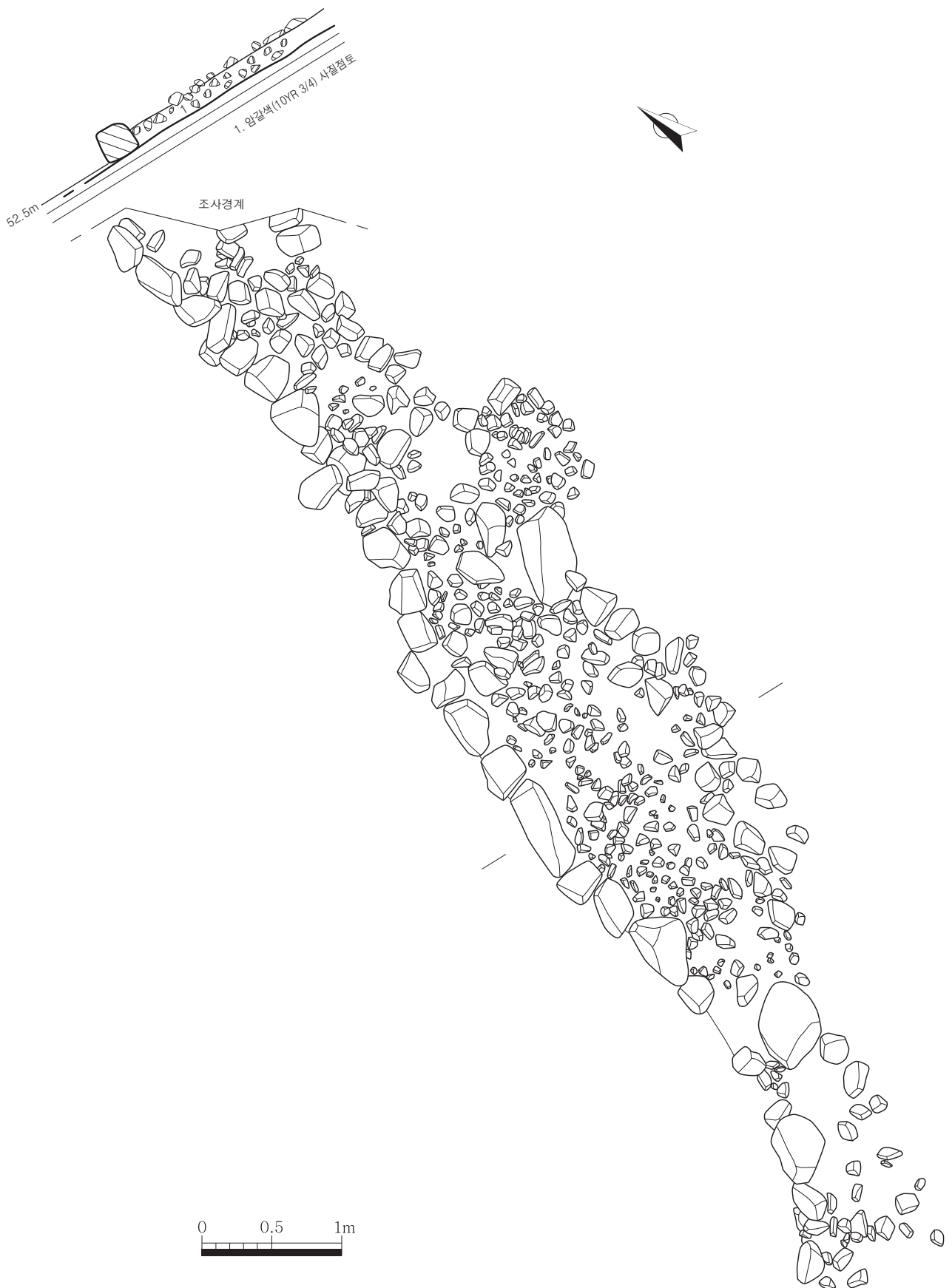
43. 연화문수막새(도면 44-43, 도판 57-43)

드림부의 1/3 정도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등색(10YR 6/3)이다. 주연부는 무문이다. 문양부는 단판연화문으로 꽃잎은 5엽이 잔존한다. 간엽은 ‘T’자형을 배치하였다. 자방은 돌출형으로, 1+5과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에서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잔존직경 9.7cm, 두께 1.8cm



도면 44. 석렬유구 3호 및 출토유물



도면 45. 석렬유구 4호

44. 토구(도면 44-44, 도판 57-44)

완형이다. 도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황회색(2.5Y 6/1)이다. 형태는 구형(球形)이며, 외면에는 사방으로 십자형태의 침선문을 돌렸다.

직경 3.1cm, 두께 2.9cm

(4) 석렬유구 4호

가. 유구(도면 45, 도판 58)

조사대상지 북서쪽 해발 52.5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석렬유구 3호가 위치하고, 상부에 석렬유구 1호가 후축되었다.

평면형태 ‘一’자형으로 주축방향은 남-북(N-24°-E)향이다. 1단만이 잔존하며, 북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910cm, 높이 22cm 정도이다. 석렬은 길이 31~72cm 정도의 할석을 서쪽이 바른면으로 평적하였다. 석렬 뒤쪽 50cm 거리까지는 크기 10cm 할석이 혼합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성토되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14) 우물

(1) 우물 2호

가. 유구(도면 46, 도판 5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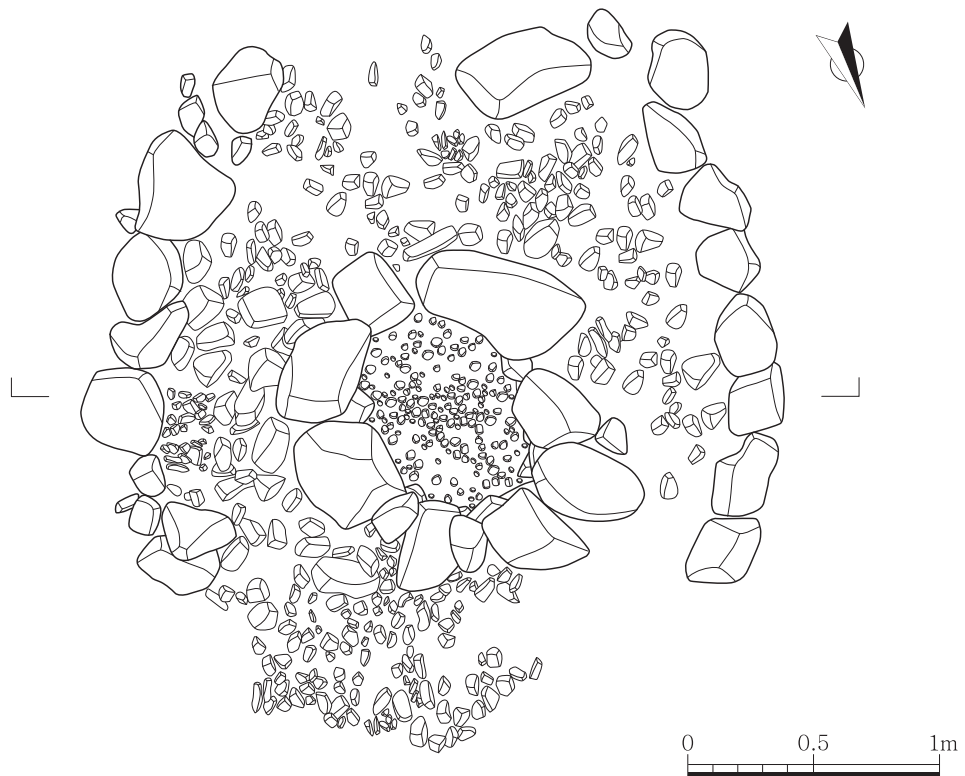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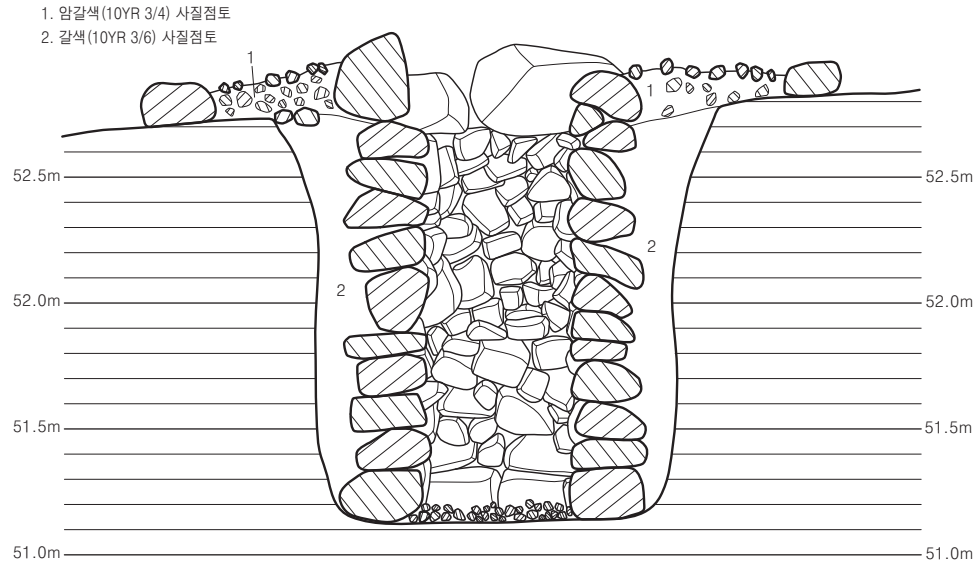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중앙부 해발 52.7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기단석렬 6호와 부석유구 2호, 동쪽에 기단석렬 8호가 위치하고, 북쪽으로 보도시설이 이어진다. 유구는 수혈과 벽석 및 상부 부석시설 확인되었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단면형태는 상광하협의 형태를 이룬다. 굴광의 규모는 상부직경 175cm, 하부직경 134cm 정도이며, 깊이 164cm 정도이다.

벽석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단면형태는 통형으로 일정한 너비를 유지하여 쌓았다. 벽석의 내경은 56cm 정도이다. 벽석은 12단 정도가 확인되었다. 벽석의 3~4단은 길이 27~34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고, 5~11단은 길이 15~32cm 정도의 할석으로 평적하였으며, 최상단벽석은 길이 34~70cm 정도의 할석을 평적하였다. 바닥은 3~6cm 정도의 잔자갈을 두께 8cm 정도로 깔았다. 내부에는 다량의 할석과 암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있었으며, 굴광과 벽석 사이에는 갈색 사질점토로 뒷채움하였다.

상부 부석시설은 수혈 상부로 벽석과 거리를 두고, 평면형태 원형의 석렬을 조성하였다. 석렬의 규모는 직경 280cm, 높이 16~36cm 정도이고, 1단이 잔존한다. 석렬은 길이 29~40cm 정도의 할석을 바깥을 바른면으로 평적하였고, 석렬과 벽석 사이에는 길이 5~9cm 정도의 잔자갈이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를 채워넣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46. 우물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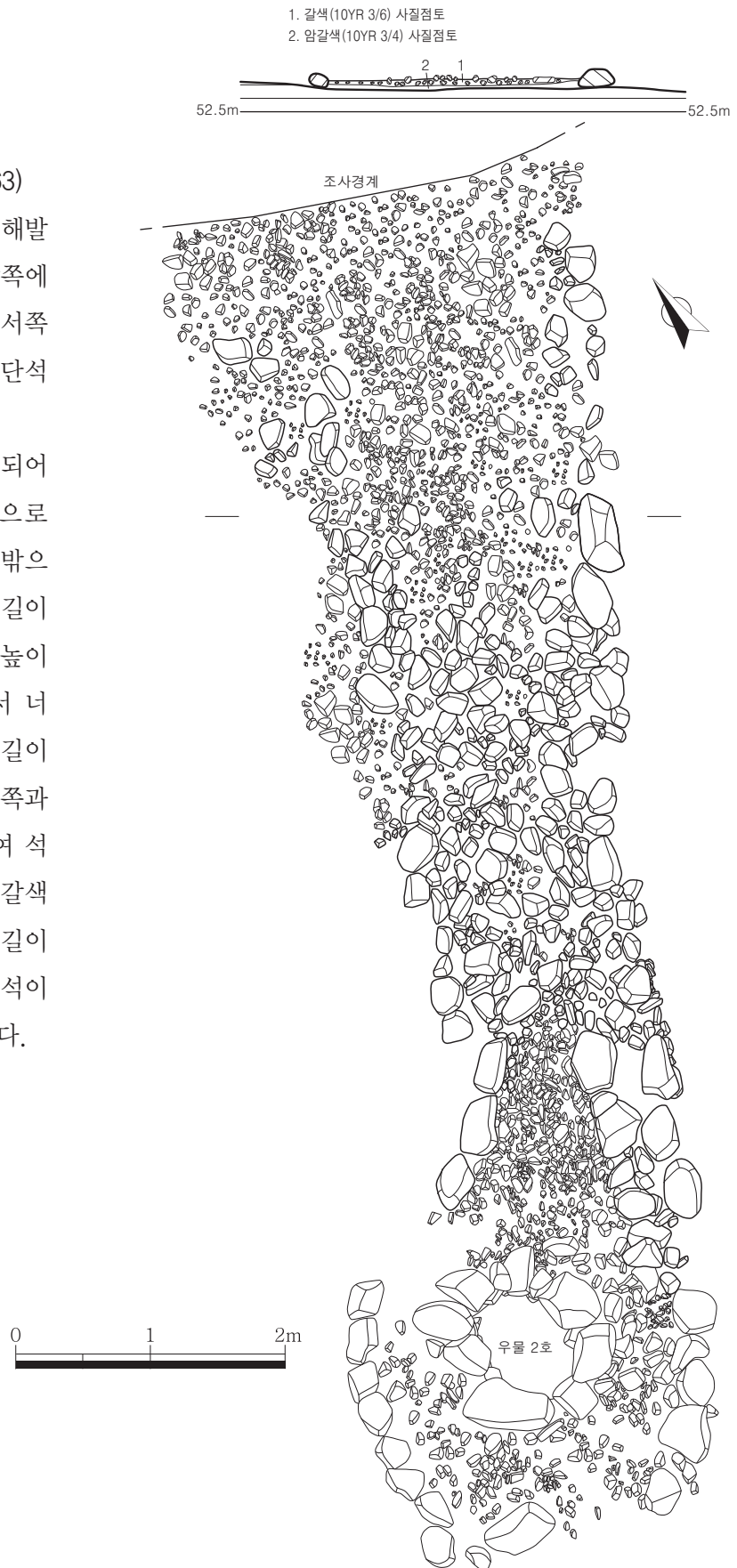
15) 보도시설

가. 유구(도면 47, 도판 61~63)

조사대상지 북쪽의 중앙부, 해발 52.6m 정도에 위치한다. 남쪽에 우물 2호가 연결되어 있고, 서쪽에 기단석렬 6호, 동쪽에 기단석렬 7호가 위치한다.

우물 2호의 북쪽으로 연결되어 북동-남서($N-29^{\circ}-E$)방향으로 확인되며, 북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확인된 규모는 길이 790cm, 너비 149~225cm, 높이 20cm 정도로 북쪽으로 가면서 너비가 넓어진다. 축조양상은 길이 40~59cm 정도의 할석을 동쪽과 서쪽을 바른면으로 횡평적하여 석렬을 조성하고, 내부에는 암갈색 사질점토를 채우고, 상부에 길이 8~24cm 정도의 자갈 및 할석이 혼입된 갈색 사질점토를 깔았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47. 보도시설

16) 매납유구

(1) 매납유구 6호

가. 유구(도면 48, 도판 63)

조사대상지 북쪽, 해발 52.6m 정도에 위치한다. 기단석렬 8호의 기단석렬 하부에 조성된 진단구로 추정된다.

갈색 사질점토를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수혈을 조성하였다. 수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직경 34cm, 깊이 16cm 정도이다. 수혈 내부에는 단경호를 바르게 놓아 매납하고, 수혈과 단경호 사이에는 갈색 사질점토를 뒷채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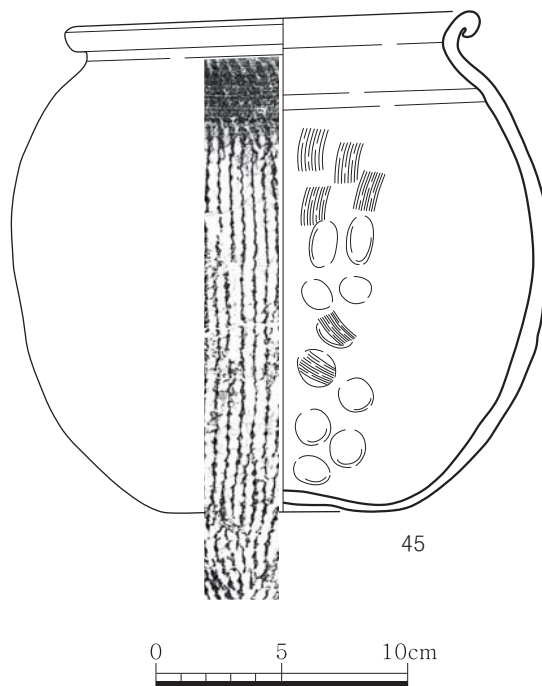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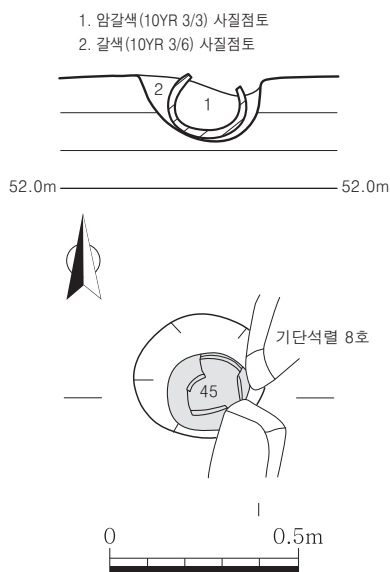
유물은 단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45. 단경호(도면 48-45, 도판 63-45)

구경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암회색(N 3/), 속심은 회적갈색(5YR 5/4)이다. 동체부 외면 일부는 속심과 같은 회적갈색을 띤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승문 타날후 구경부와 견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19.5cm, 구경 15.6cm, 동최대경 21.1cm



도면 48. 매납유구 6호 및 출토유물

17) 부석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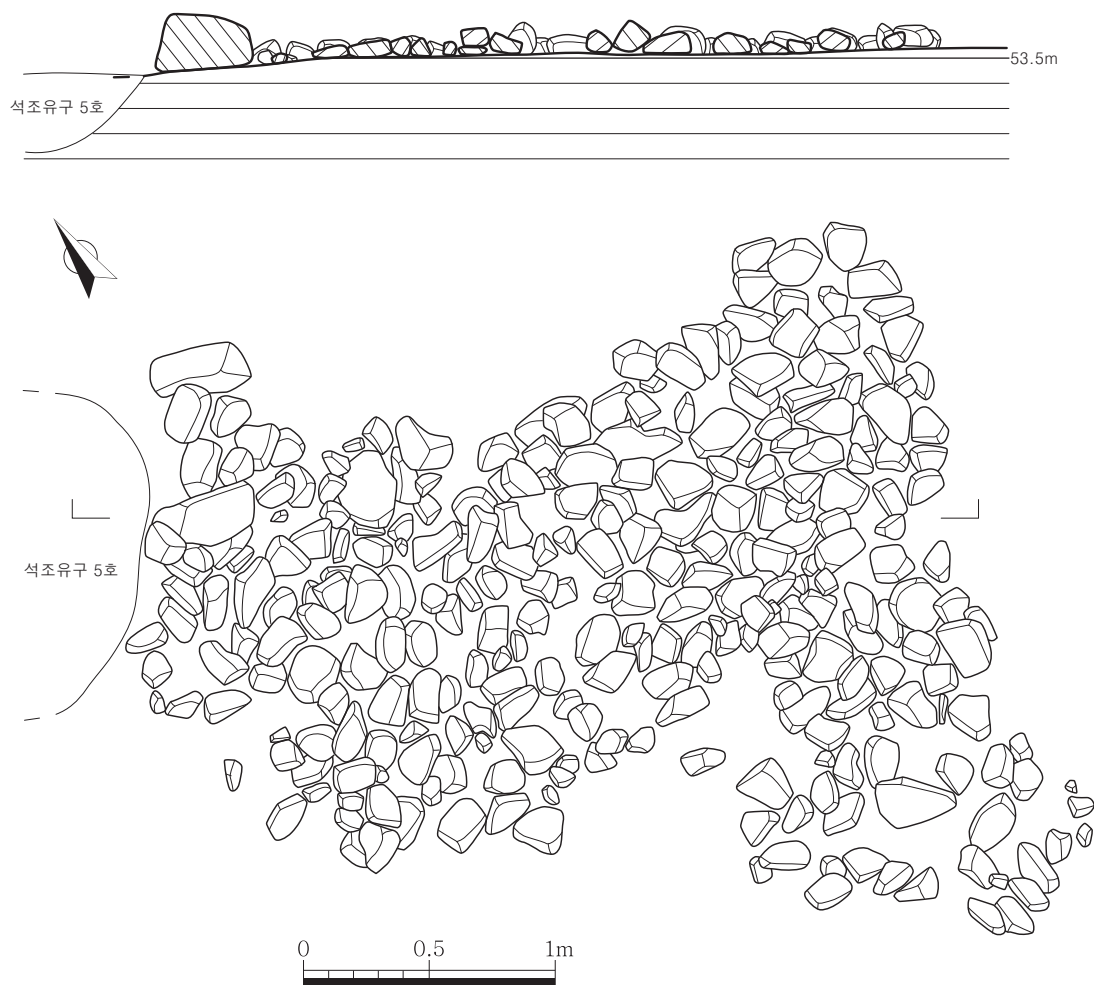
(1) 부석유구 2호

가. 유구(도면 49, 도판 63)

조사대상지 북쪽의 중앙부, 해발 52.7m 정도에 위치한다. 동쪽에 우물 2호, 북쪽에 기단석렬 6호가 위치하고, 서쪽에 석조유구 5호가 후측되었다.

평면형태는 동-서가 긴 부정형이고, 확인된 규모는 동-서 길이 315cm, 남-북 길이 270cm, 높이 17cm 정도이다. 길이 11~32cm 정도의 천석과 활석을 한겹 정도로 깔았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도면 49. 부석유구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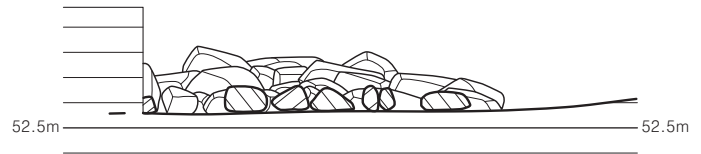
(3) 부석유구 3호

가. 유구(도면 50, 도판 64)

조사대상지 북쪽 경계부, 해발 52.6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에 석렬유구 4호, 동쪽에 보도시설이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북쪽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져 알 수 없었고, 확인된 규모는 동-서 길이 410cm, 남-북 길이 148cm, 높이 19cm 정도이다. 길이 21~46cm 정도의 천석과 할석을 한겹 정도로 깔았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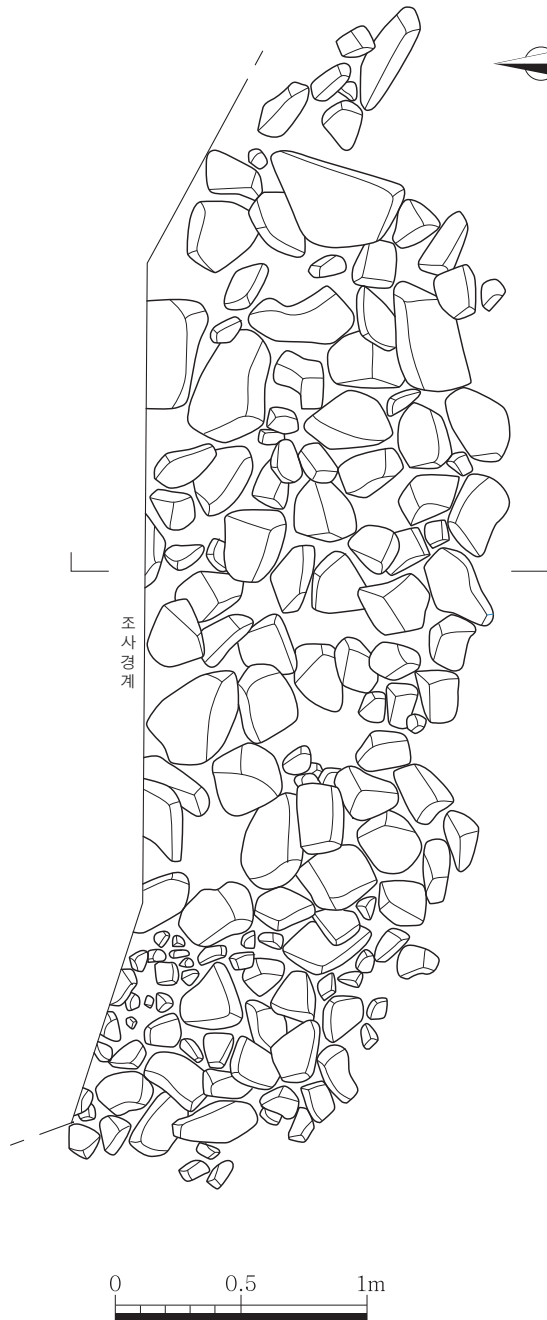


18) 수혈유구

가. 유구

조사대상지 남쪽에서 총 48기가 정형성 없이 수혈유구 간 중복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 6개이며, 이외 42기는 모두 부정형이다. 확인된 규모는 원형인 경우 직경 25~90cm, 깊이 17~48cm 정도이고, 부정형의 경우 동-서 길이 33~378cm, 남-북 길이 33~377cm 정도로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중복양상을 살펴보면, 7호→47호·48호, 16호→15호, 28호→27호 순으로 확인되었다. 내부토는 암갈색·갈색 사질점토 등이 확인되었다. 각 유구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표 9】에 간략히 기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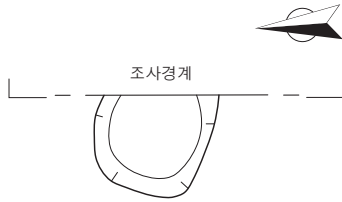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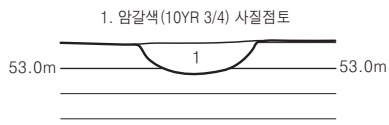
유물은 내부조사 중 12호에서 연화문 수막새 1점, 18호·23호·32호에서 연화문수막새 각 1점, 43호에서 개 1점 등 총 5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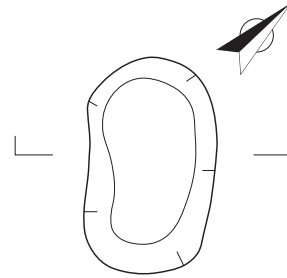
도면 50. 부석유구 3호

【표 9】수혈유구 속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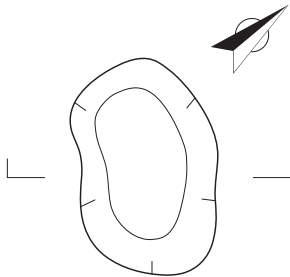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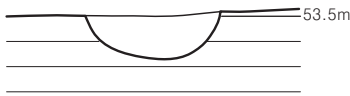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잔존)규모(cm)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호	51	65	부정형	(40)	46	12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2호	51	65	부정형	84	50	18	갈색(10YR 4/4) 사질점토	—
3호	51	65	부정형	87	55	16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4호	51	65	부정형	121	60	33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석조유구 3호 후축
5호	51	66	부정형	57	57	18	갈색(10YR 4/4) 사질점토	—
6호	51	66	부정형	63	60	26	갈색(10YR 4/4) 사질점토	—
7호	52	66	부정형	378	377	20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수혈유구 47·78호 후축
8호	53	66	부정형	62	79	25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9호	53	67	부정형	70	124	16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10호	53	67	부정형	127	(120)	9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11호	53	67	부정형	72	96	14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12호	53	67	부정형	99	88	66	갈색(10YR 4/4) 사질점토	연화문수막새 1점 출토
13호	54	68	원형	44	40	18	갈색(10YR 4/4) 사질점토	—
14호	54	68	부정형	187	100	18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15호	54	68	부정형	132	193	22	갈색(10YR 4/4) 사질점토	수혈유구 16·38호 선축
16호	54	69	부정형	36	55	24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수혈유구 15호 후축
17호	54	69	부정형	82	99	40	갈색(10YR 4/4) 사질점토	—
18호	55	69	부정형	111	125	80	갈색(10YR 4/4) 사질점토	수키와 1점 출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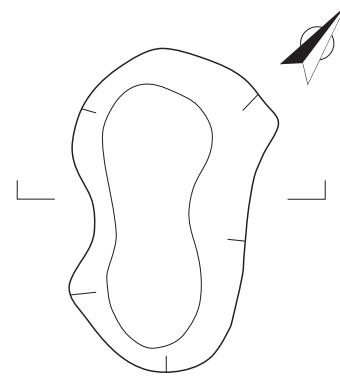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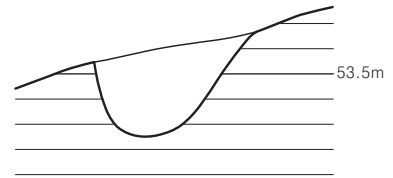
수혈유구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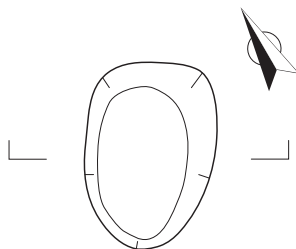
수혈유구 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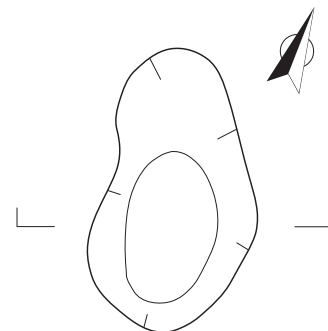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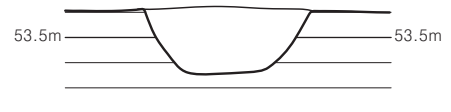
수혈유구 3호



수혈유구 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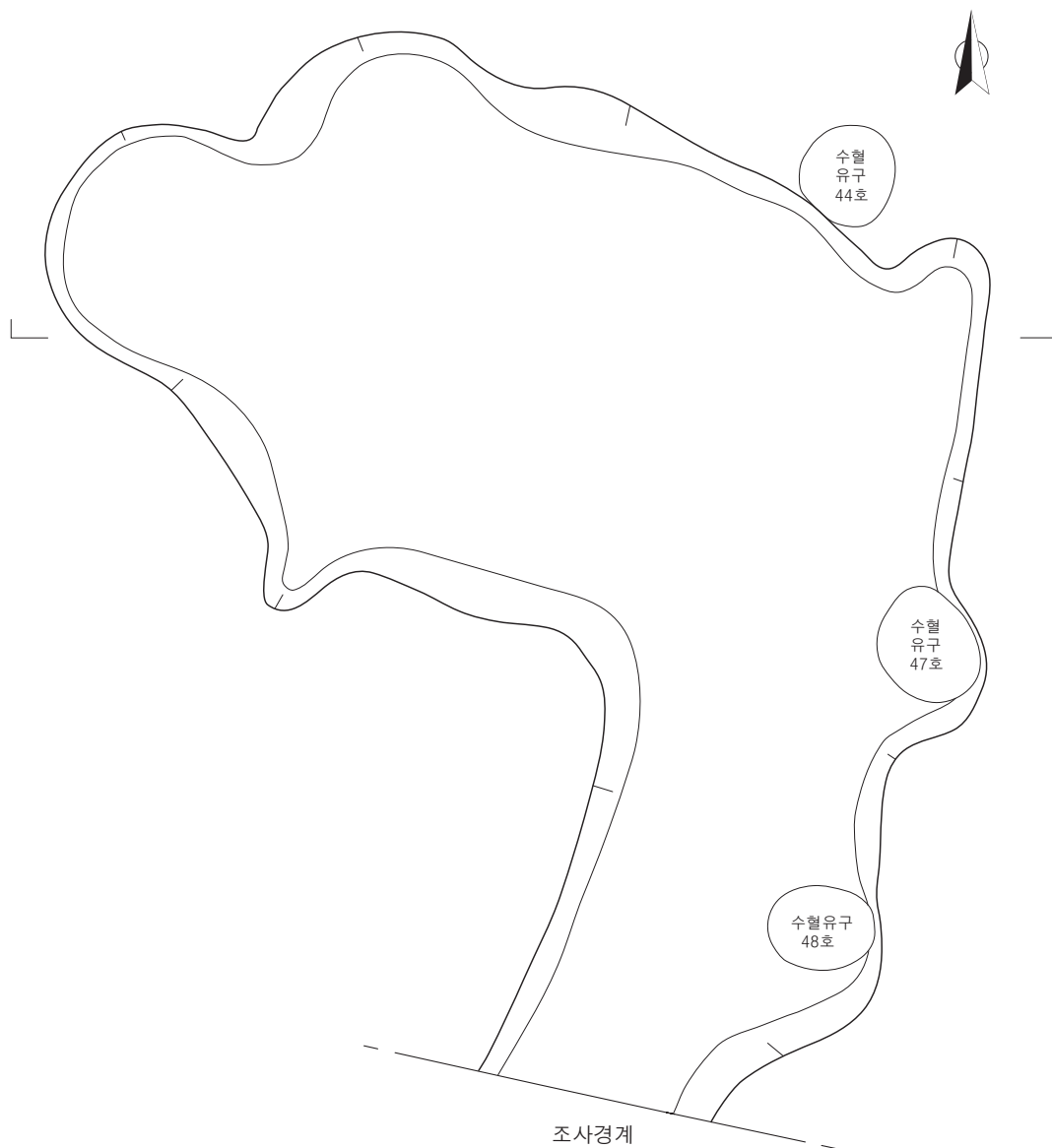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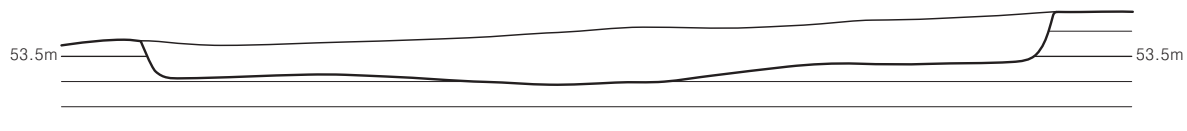
수혈유구 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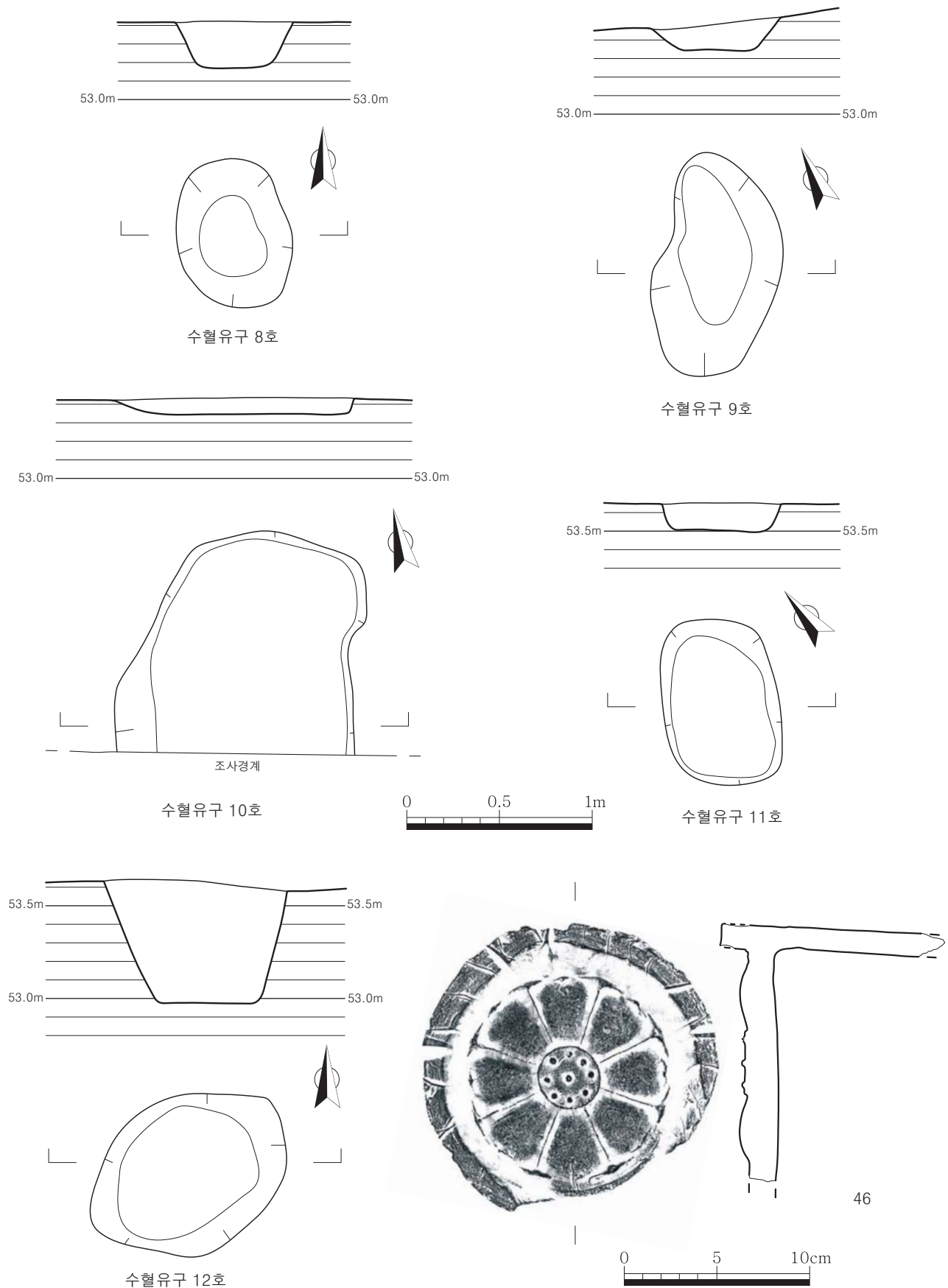
수혈유구 6호



도면 51. 수혈유구 1~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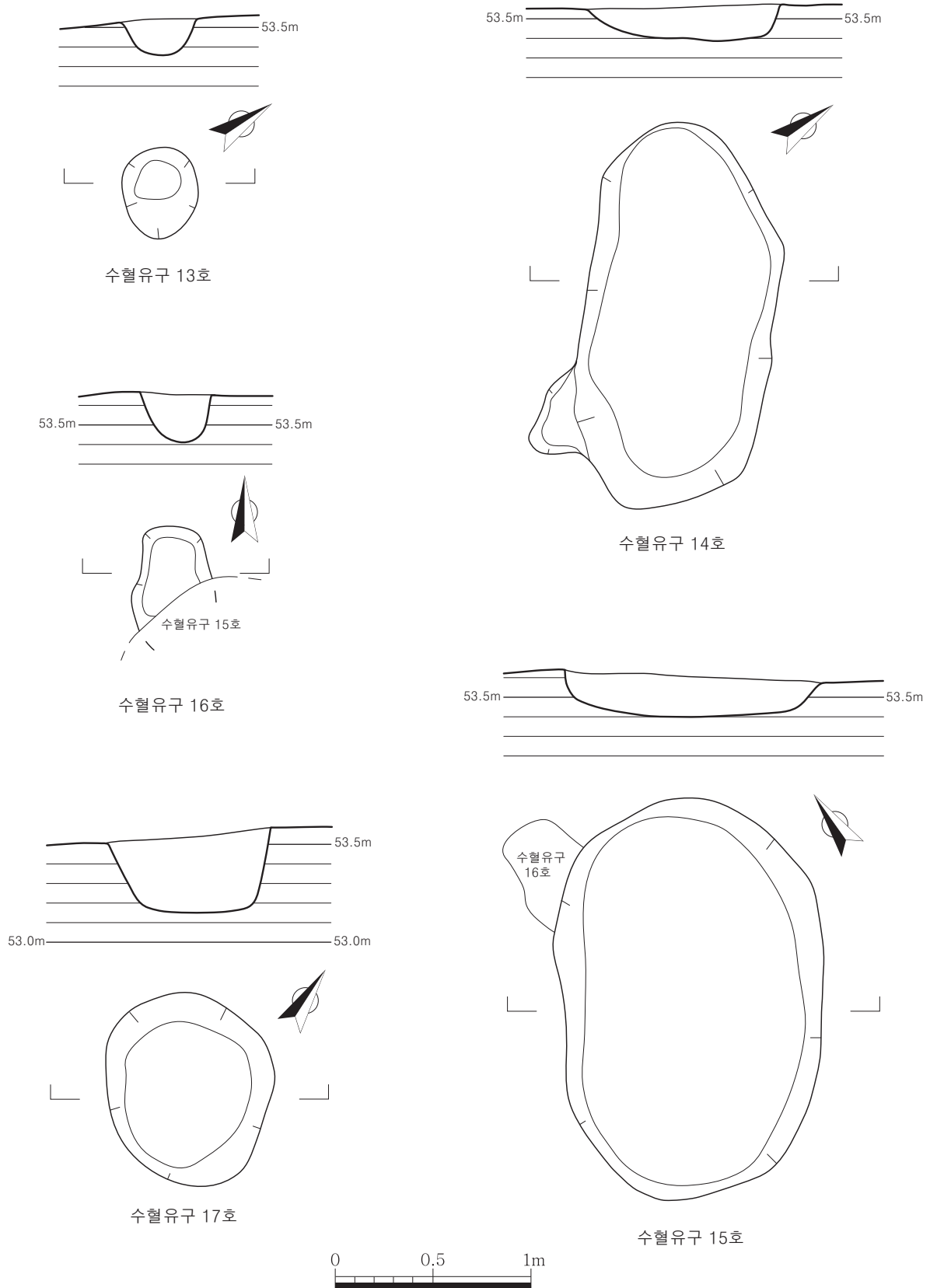


도면 52. 수혈유구 7호



도면 53. 수혈유구 8~12호 및 12호 출토유물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잔존)규모(cm)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9호	55	70	부정형	92	82	49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20호	56	70	부정형	(15)	52	26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21호	56	70	부정형	85	123	53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22호	56	70	부정형	80	50	12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23호	56	71	부정형	120	106	70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수키와 1점 출토
24호	57	71	부정형	92	74	37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25호	57	71	원형	90	90	40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26호	57	72	부정형	56	72	27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27호	57	72	원형	(82)	90	48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수혈유구 28호 선축
28호	57	72	부정형	54	(71)	17	갈색(10YR 4/4) 사질점토	수혈유구 27호 후축
29호	57	72	부정형	33	35	24	갈색(10YR 4/4) 사질점토	—
30호	58	73	부정형	36	36	22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31호	58	73	부정형	52	58	10	갈색(10YR 4/4) 사질점토	—
32호	58	73	부정형	57	49	27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수키와 1점 출토
33호	58	74	부정형	38	50	21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34호	58	74	원형	25	26	17	갈색(10YR 4/4) 사질점토	—
35호	58	74	원형	35	40	29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36호	59	74	원형	45	43	24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도면 54. 수혈유구 13~17호

유구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평면 형태	(잔존)규모(cm)			내부토	비고
				길이	너비	깊이		
37호	59	75	원형	34	34	21	갈색(10YR 4/4) 사질점토	—
38호	59	75	부정형	(26)	33	13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수혈유구 17호 선축, 수혈유구 15호 후축
39호	59	75	원형	51	51	25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40호	59	75	부정형	(38)	41	18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41호	59	76	부정형	53	42	22	갈색(10YR 4/4) 사질점토	—
42호	59	76	부정형	67	48	15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
43호	60	76	부정형	66	(6)	18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개 1점 출토
44호	59	76	부정형	38	40	19	갈색(10YR 4/4) 사질점토	—
45호	60	77	부정형	64	48	30	갈색(10YR 4/4) 사질점토	—
46호	60	77	부정형	(38)	48	14	갈색(10YR 4/4) 사질점토	—
47호	60	77	부정형	38	45	15	갈색(10YR 4/4) 사질점토	수혈유구 7호 후축
48호	60	77	부정형	42	34	20	갈색(10YR 4/4) 사질점토	수혈유구 7호 후축

나. 유물

〈수혈유구 12호〉

46. 연화문수막새(도면 53-46, 도판 68-46)

드림부와 기와부 일부가 잔존한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5/1), 속심은 회색(7.5Y 4/1)에 가깝다. 주연부는 무문이며, 물손질흔이 확인된다. 문양부는 단판연화문으로 꽃잎은 8엽을 배치하였고, 꽃잎 끝이 솟아 올라 있다. 간엽은 'T'자형을 배치하였다. 자방은 돌출형으로, 1+8과의 연자를 배치하였다. 드림부 내면에서 점토보강흔과 물손질흔이 확인되었다. 기와부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서 포목흔

이 확인된다. 와도흔은 좌측에서 확인되며, 전면 분할 하였다.

- 드림부 : 직경 14.1cm, 두께 1.8cm
- 기와부 : 잔존길이 9.3cm, 두께 1.3cm

〈수혈유구 18호〉

47. 수키와(도면 55-47, 도판 69-47)

좌측 일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등색(10YR 7/4)이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외면은 사선문이 결합된 선문 중판 타날하였으며, 상·하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흔은 양측에서 확인되며, 내→외로 1/2 정도 분할하였다.

길이 30.3cm, 너비 14.2cm, 두께 1.4cm

〈수혈유구 23호〉

48. 수키와(도면 56-48, 도판 71-48)

좌측이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갈회색(10YR 4/1)이며, 속심은 등색(5YR 6/8)이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외면은 선문 중판 타날하였으며, 하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흔은 우측에서 확인되며, 내→외로 1/6~1/2 정도 분할하였다.

길이 28.2cm, 잔존너비 11.8cm, 두께 1.3cm

〈수혈유구 32호〉

49. 수키와(도면 58-49, 도판 73-49)

좌측 하단부가 결실되었다. 경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회황등색(10YR 7/2), 내면은 갈회색(10YR 6/1), 속심은 회등색(7.5YR 7/3)이다. 내면에서 포목흔과 연결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선문 중판 타날하였으며, 하단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흔은 양측에서 확인되며, 좌측은 외→내로 1/2 정도, 우측은 내→외로 2/3 정도 분할하였다.

길이 29.2cm, 너비 14.2cm, 두께 1.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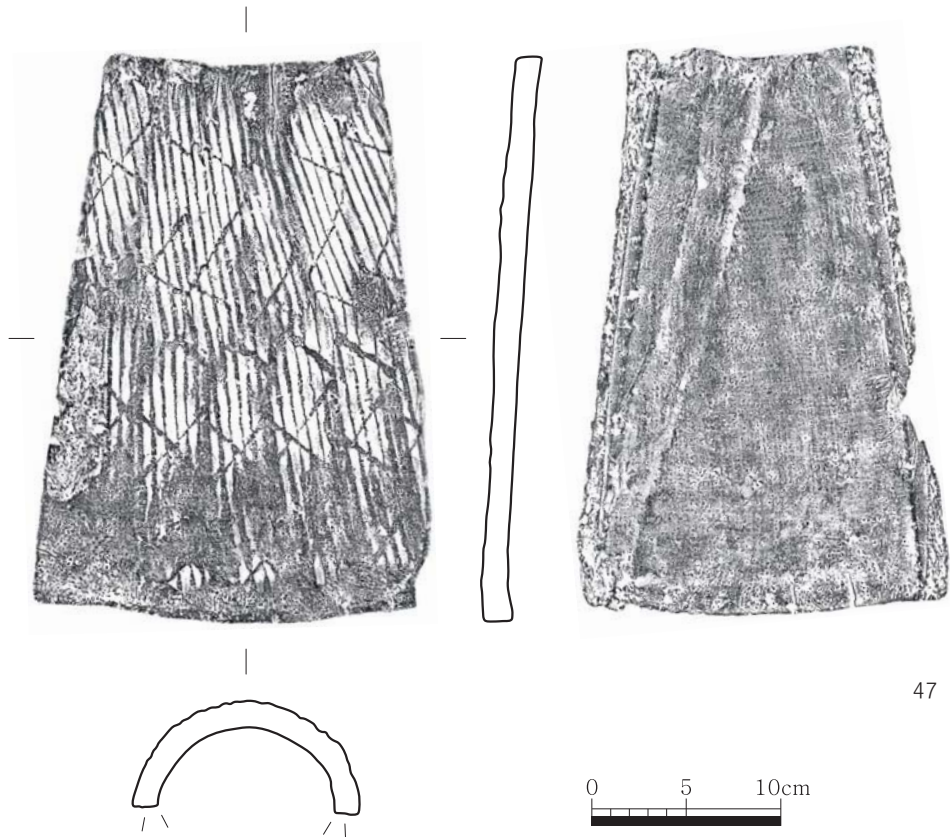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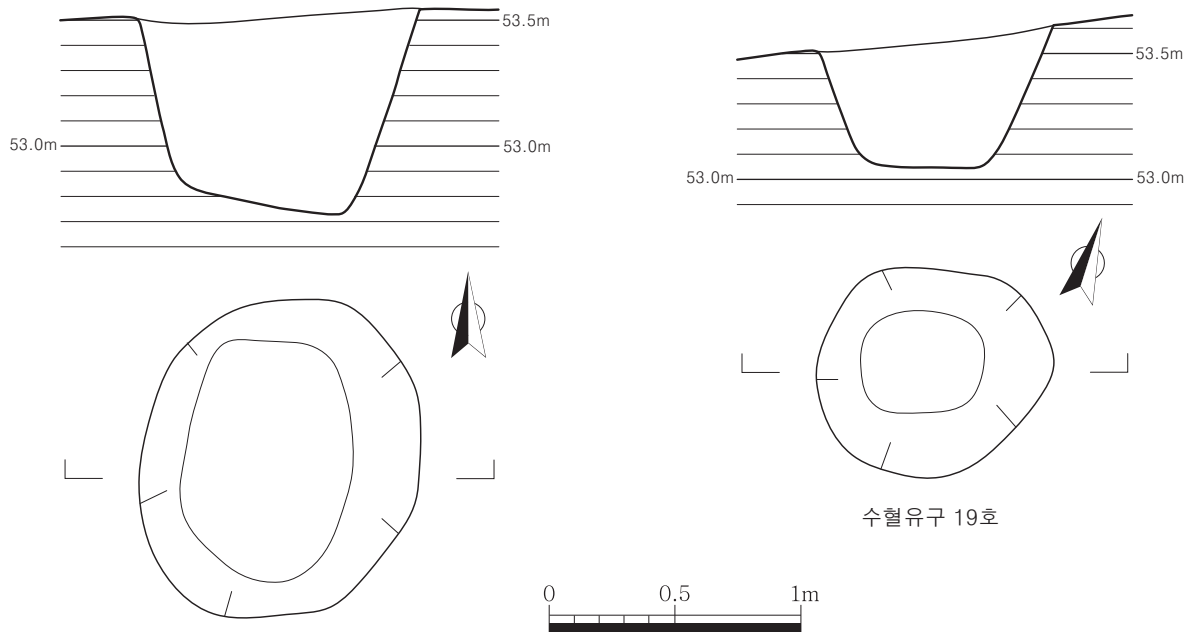
〈수혈유구 43호〉

50. 개(도면 60-50, 도판 78-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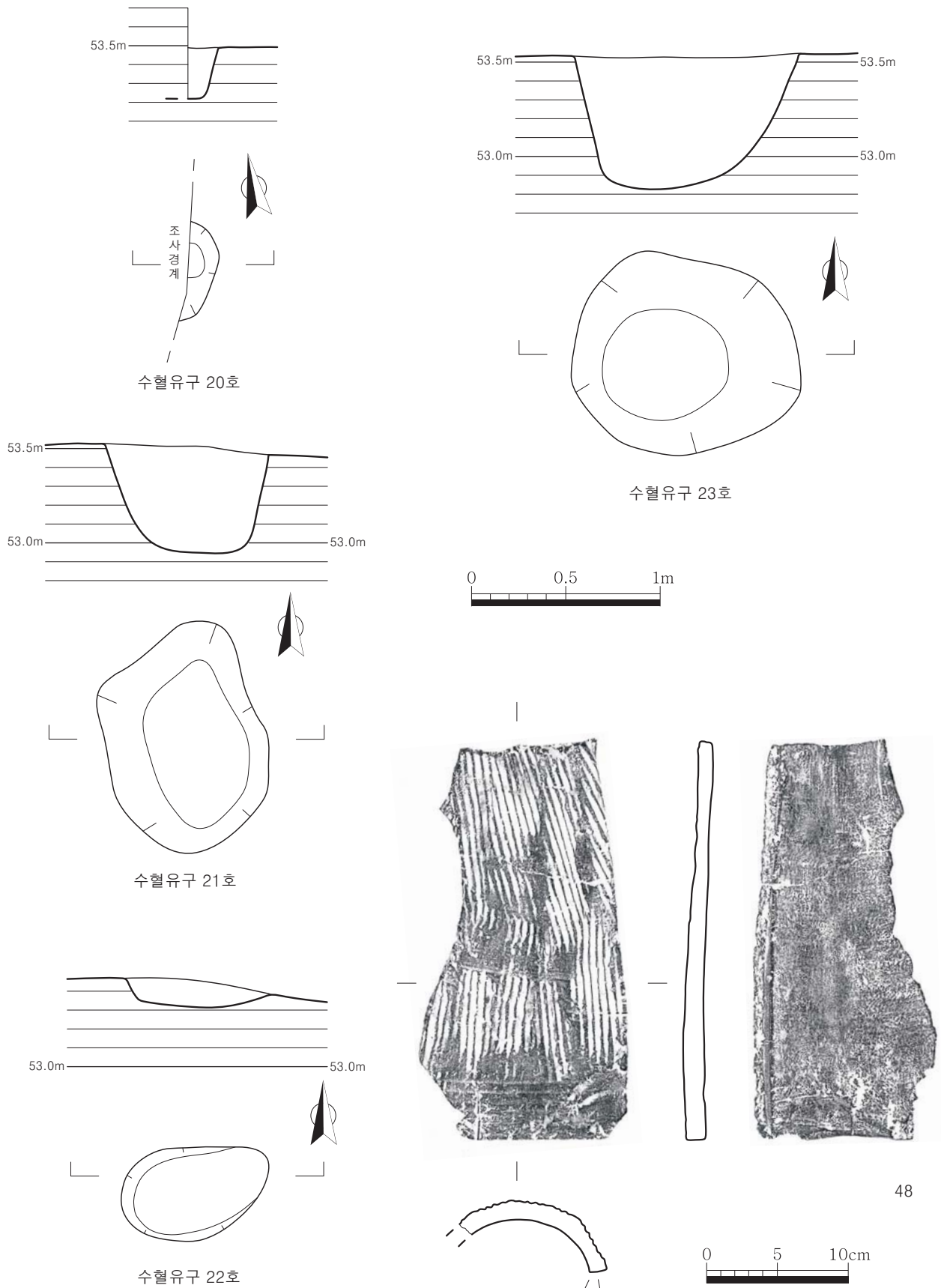
신부의 일부와 꼭지가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이다. 내외면 일부에 회올리브색(7.5Y 5/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구연부에서 짙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었다. 신부 상위와 중위에는 종장연속 마제형문을 'B'

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으며, 하위에는 횡장연속문으로 이중반원문을 3열 인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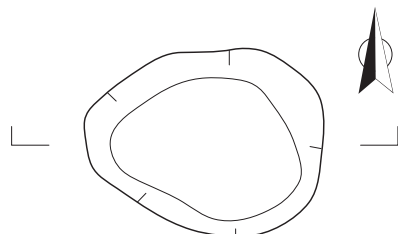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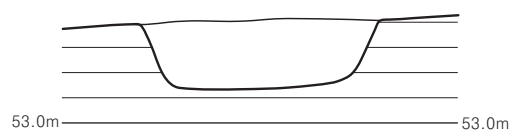
기고 4.8cm, 복원구경 13.7cm, 꼭지고 0.8cm, 꼭지경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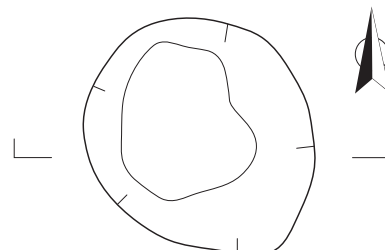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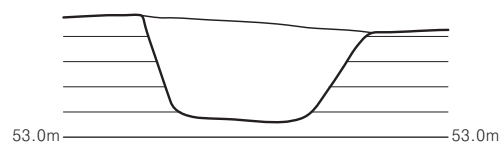
도면 55. 수혈유구 18·19호 및 18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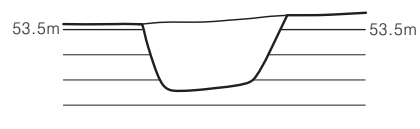
도면 56. 수혈유구 20~23호 및 23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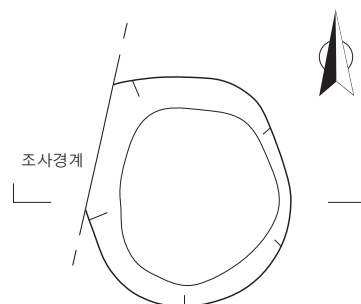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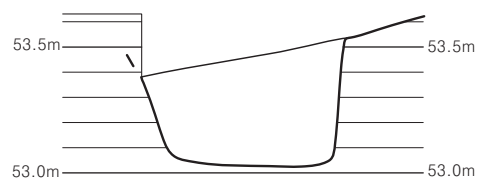
수혈유구 2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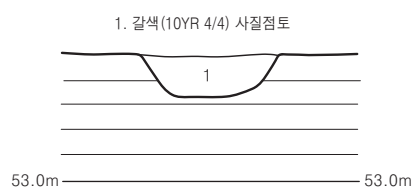
수혈유구 25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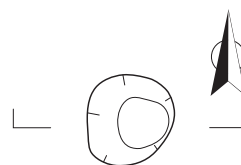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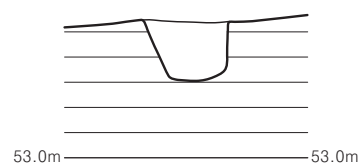
수혈유구 26호



수혈유구 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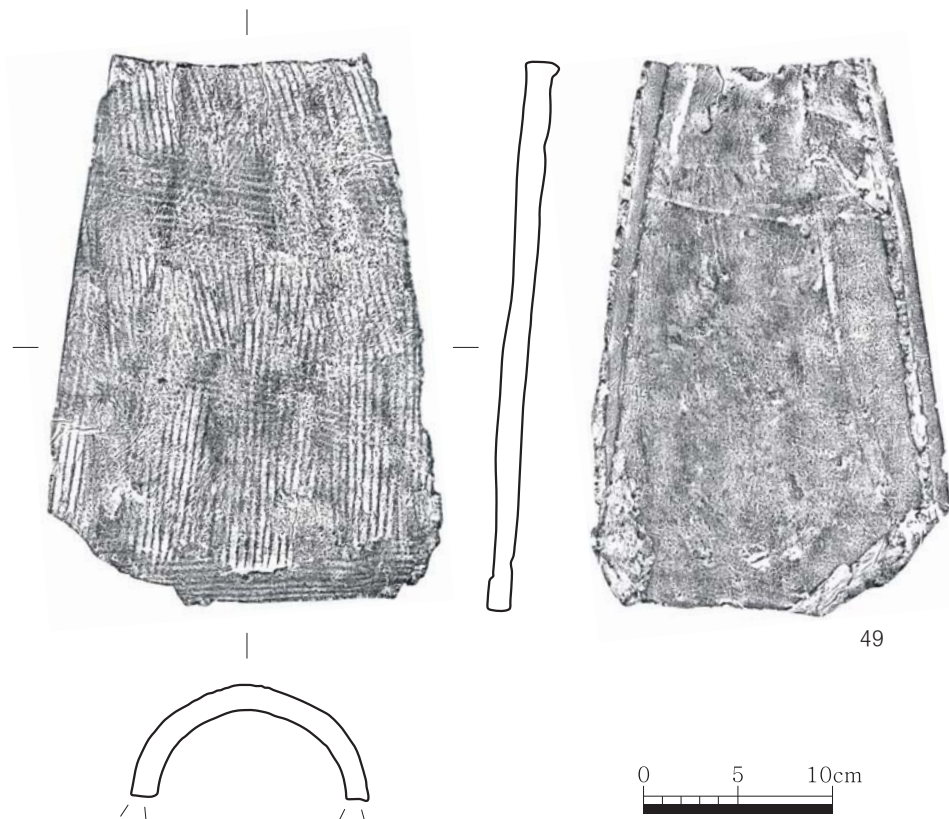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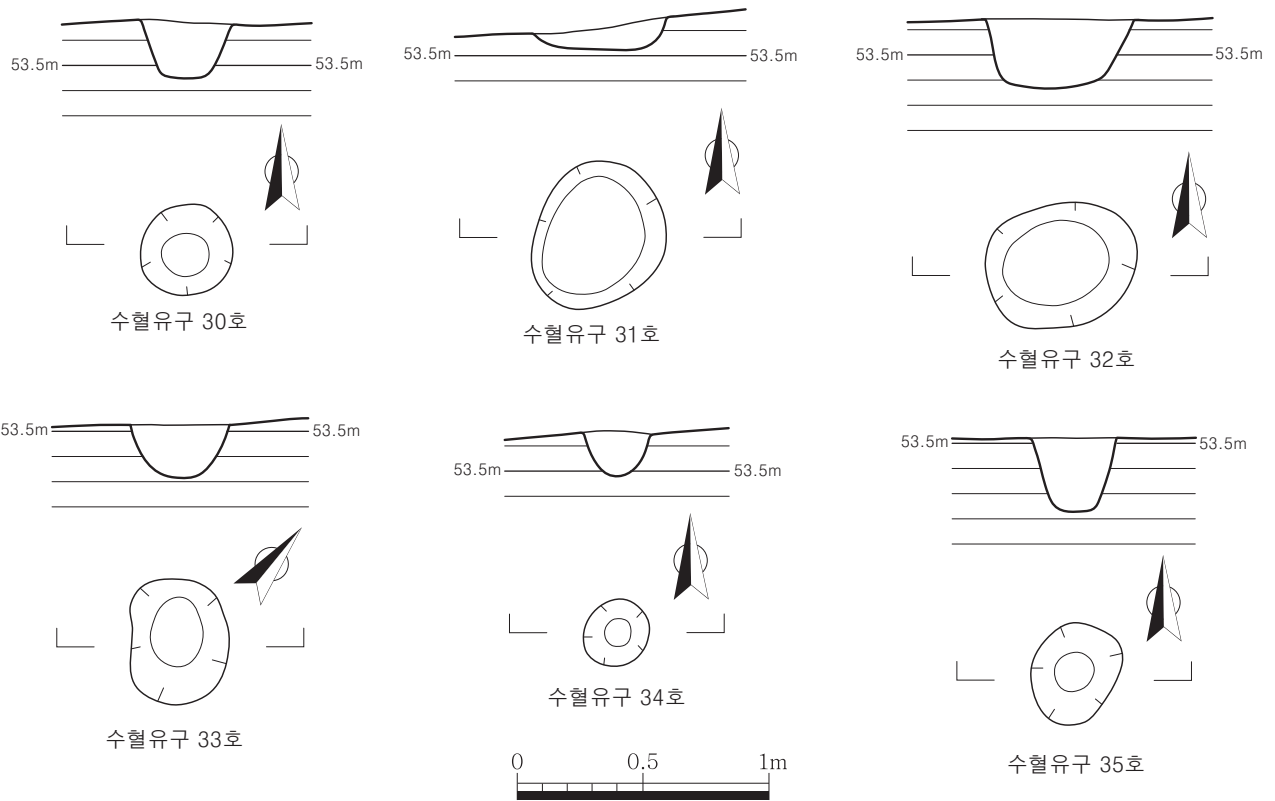


수혈유구 2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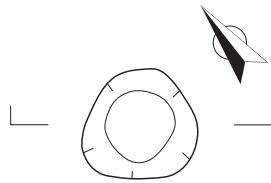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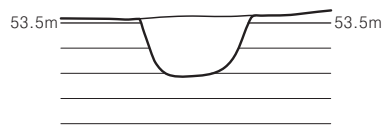


수혈유구 2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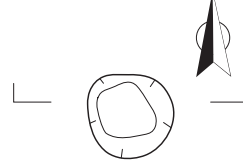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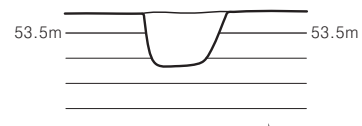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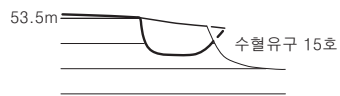
도면 58. 수혈유구 30~35호 및 32호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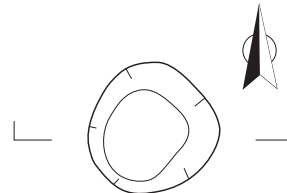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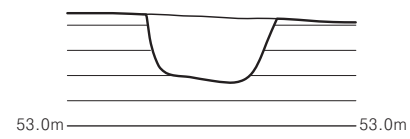
수혈유구 3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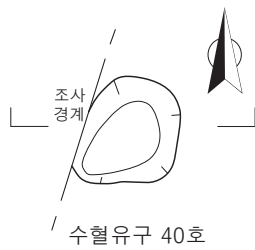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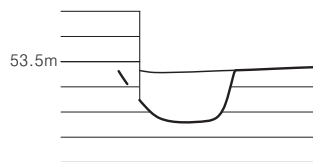
수혈유구 3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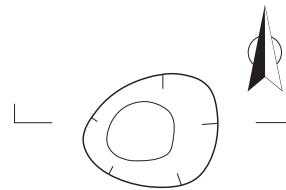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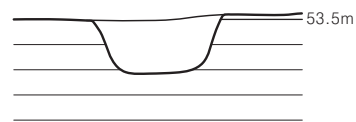
수혈유구 3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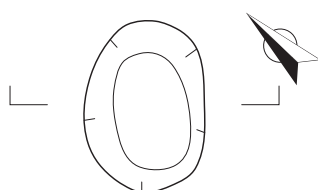
수혈유구 3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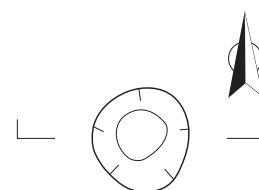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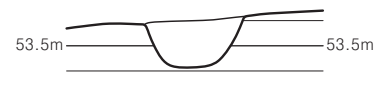
수혈유구 40호



수혈유구 4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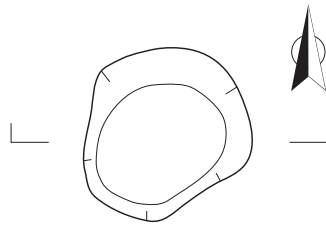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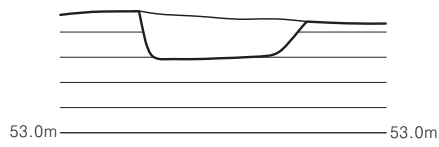


수혈유구 4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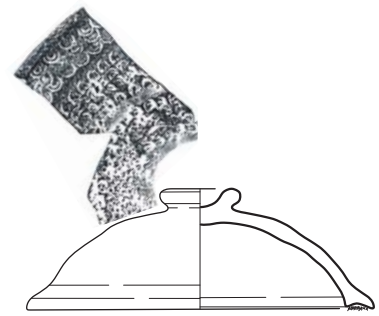


수혈유구 4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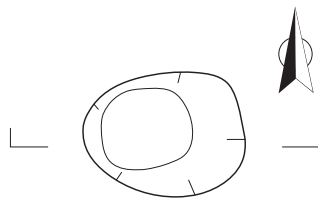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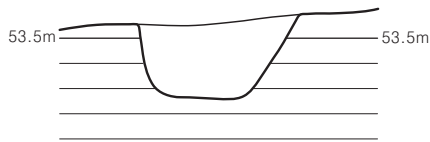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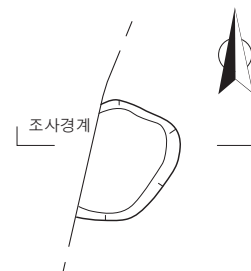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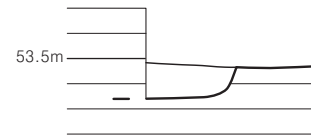
수혈유구 4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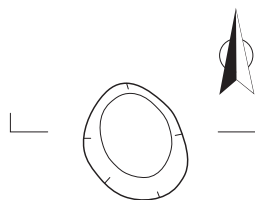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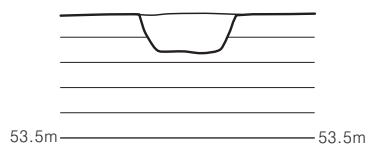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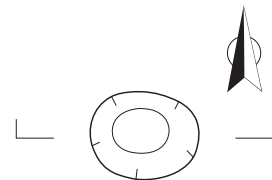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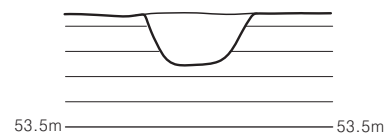
수혈유구 45호



수혈유구 46호



수혈유구 47호



수혈유구 48호



도면 60. 수혈유구 43·45~48호 및 43호 출토유물

〈상부 수습유물〉

51. 유개대부완(도면 61-51, 도판 78-51)

개는 완형이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N 4/)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원문과 변형수적형문, 원점문, 마제형문이 결합된 합성문을 'B'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으며, 하위에는 원문을 인화하였다.

대부완은 완형이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회색(N 4/)이다. 외면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신부에는 점열문을 'A'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다.

- 개 : 기고 3.6cm, 구경 19.3cm, 꼭지고 0.9cm, 꼭지경 10.5cm
- 대부완 : 기고 6.5cm, 구경 18.6cm, 대각고 1.2cm, 저경 9.1cm

52. 개(도면 61-52, 도판 78-52)

구연부의 극히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1.8cm, 복원구경 4.5cm, 꼭지고 0.7cm

53. 등잔(도면 61-53, 도판 78-53)

완형이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대체로 회색(N 4/)이다. 저부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3.7cm, 구경 9.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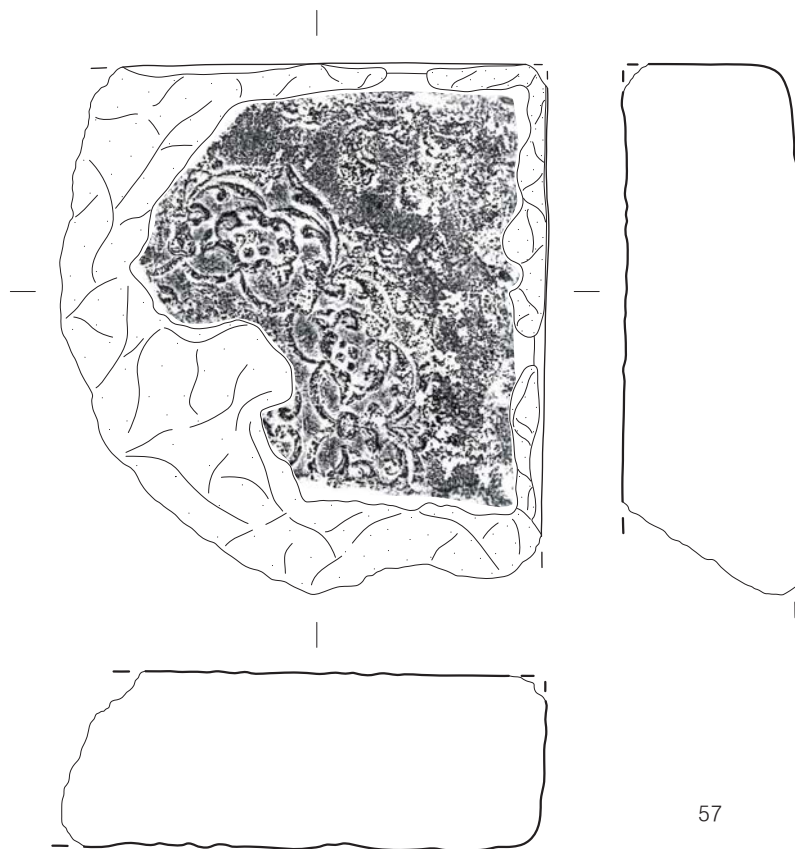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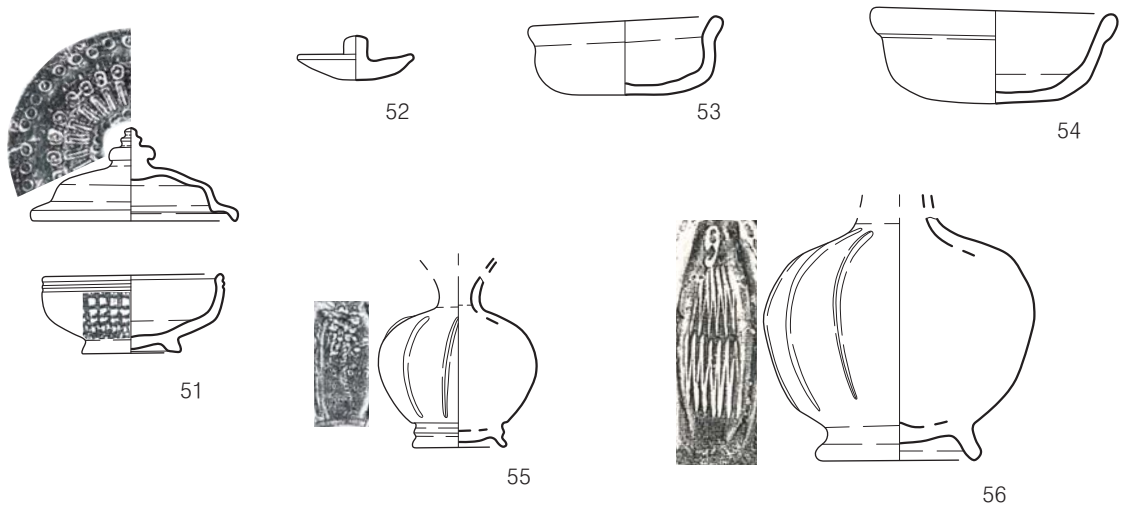
54. 등잔(도면 61-54, 도판 78-54)

완형이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의 색조는 대체로 황회색(2.5Y 6/1)이다. 저부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2.9cm, 구경 7.1cm

55. 덧띠무늬병(도면 61-55, 도판 78-55)

구경부와 저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암회색(N 3/), 속심은 회색(N 5/)이다. 외면은 자연유가 흡착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의 덧띠를 부착하였으며, 그 사이에



도면 61. 상부 수습유물

종장연속 점열문을 'C'시문수법으로 인화하였다.

잔존기고 6.7cm, 저경 3.6cm

56. 덧띠무늬병(도면 61-56, 도판 78-56)

구경부와 저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이다. 외면은 회올리브색(7.5Y 5/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외면에는 종방향의 덧띠를 부착하였으며, 그 사이에 세침선 2줄을 'C'시문수법으로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9.6cm, 저경 6.0cm

57. 보상화문전(도면 61-57, 도판 78-57)

우측 상부 일부만 잔존하며, 표면 일부가 마모되었다.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사립과 세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4/)이다. 상면에 보상화문을 배치하였다.

잔존길이 21.0cm, 잔존너비 19.3cm, 두께 6.8cm

IV. 조사성과

본 유적은 경주시 구황동 875-3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기간은 시굴조사가 2일간, 발굴조사가 56일간 실시되었다.

구황동 일원에는 황룡사지(사적 제6호), 분황사 오층전탑(국보 제30호), 전랑지(사적 제88호) 등 국가 사적 및 국보 등과 신라왕경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었던 신라왕경유적과 구황동 원지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택지의 개발 등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남-북 도로유구, 대형의 배수로, 건물지, 담장, 우물 등 다종다양한 유구들이 밀집해서 분포함이 확인된 바 있다.

본 발굴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 상·하부 2개의 문화층에서 총 95기의 유구와 관련된 유물 57점이 확인되었다. 조사성과는 유구와 유물을 나누어 기술하며, 유구는 상부와 하부문화층으로 구분한 후 각 문화층의 개별 유구의 배치와 중복양상을 파악해 보고 조성순서를 살펴보았다. 유물은 기존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유구의 조성순서 등과 출토유물 등을 파악해 하부문화층의 중심시기와 상부문화층의 초축 및 중심시기를 살펴보았다.

상부문화층에서는 건물지 3동, 적심 9기, 담장지 4기, 배수로 1기, 기단석렬 5기, 석조유구 2기, 우물 1기, 매납유구 5기, 부석유구 1기 등 총 31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의 배치는 건물지 2호를 기준으로 북쪽에 건물지 1호 및 담장지 3호와 기단석렬 2호 및 배수로 1호, 남쪽에 건물지 3호, 동쪽에 기단석렬 3호~5호와 석조유구 2호가 위치한다. 중복양상은 건물지 2호→부석유구 1호·적심 9호, 적심 7호→배수로 1호, 적심 8호→담장 3호, 우물 1호·기단석렬 3호→기단석렬 1호·2호, 기단석렬 3호·4호→기단석렬 1호, 석조유구 2호→석조유구 1호 순으로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총 3동이 확인되었다. 1호와 2호는 북서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3호는 남서쪽에 위치한다. 축선방향이 1호가 N-30°-E, 2호가 N-29°-E, 3호가 N-25°-E 정도로 비슷한 축선으로 조성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축선은 확인된 모든 유구에서도 동일한 방향이 확인되었다. 건물은 주 칸 개수와 거리를 살펴보면, 1호는 동-서 1칸, 남-북 2칸이고, 동-서 주칸거리가 240cm, 남-북 주칸거리가 135~140cm 정도로 3동 중 주칸 거리가 제일 짧게 확인되었다. 3호는 동-서 2칸인데, 서쪽 1칸은 150cm, 동쪽 1칸의 300cm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어 서쪽 1칸은 퇴칸으로 추정된다. 2호는 동-서 주칸거리가 420cm, 남-북 주칸거리가 140~220cm 정도로 유적 내에서는 제일 큰 규모이다.

건물지는 대부분 유실되었거나 경계 밖으로 이어져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었지만, 2호의 경우 적심의 설치면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 건물로 구분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2호의 상부와 하부 건물지는 장축방향과 너비가 동일하며, 적심의 배치는 일부 일치하는 부분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초축된 하부의 기존 건물의 축선과 규모를 유지하고, 상부의 개축 건물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단석렬은 북쪽과 북동쪽에서 총 5기가 확인되었다. 3호는 조사대상지 중앙부 남-북방향의 석렬을 동쪽이 바른면으로 조성하고, 서쪽부분으로 대지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호의 대지 조성면을

이용한 유구는 건물지 2호와 우물 1호 및 후축된 기단석렬 1호·2호로 판단된다.¹⁹⁾ 기단석렬 3호의 동쪽에는 기단석렬 4호와 5호가 동일한 축선방향으로 조성되었다. 각각의 기단석렬이 남-북·동-서 방향이 만나는 평면형태 ‘T’자형으로 각각의 기단 사이는 배수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기단 석렬간 너비는 30cm 정도이고, 바닥의 높낮이는 동고서저, 남고북저로 확인되어 유수의 흐름을 추정할 수 있었다.

매납유구는 매납된 기중에 따라 1호·3호·4호는 대부완, 2호는 대호, 5호는 병으로 구분되며, 대부완의 뚜껑을 1호는 대부완, 3호는 수막새, 4호는 개를 사용하였다. 매납된 위치는 1호의 경우 부석유구 하부에 조성되었고, 2호는 기단석렬 5호 기단토, 3호~5호는 기단석렬 4호 기단토에서 확인되었다. 매납유구는 매납된 위치의 유구에 진단구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복양상과 배치양상 등으로 보아 상부문화층의 초축된 유구는 기단석렬 3호~5호, 건물지 2호 하부, 적심 7호와 8호이고, 이후 초축된 유구의 개보수 또는 신축과 증축 등으로 후축된 유구들은 건물지 1호와 건물지 2호 상부, 담장지 3호, 기단석렬 1호와 2호, 배수로 1호, 건물지 3호, 석조유구 1호 등이다. 마지막으로 상부문화층의 가장 늦은 시기의 유구는 부석유구 1호로 확인되었다.

하부문화층은 기단석렬 3기, 석조유구 3기, 석렬유구 4기, 배수로 1기, 우물 1기, 보도시설 1기, 매납유구 1기, 부석유구 2기, 수혈유구 48기 등 총 6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이 중 건물지 및 관련된 적심이 1기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단 내부에서도 특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아 유구의 상부가 상당부분 유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유구의 배치는 지형상 중앙부 경사면을 기준으로 남쪽에서 수혈유구 48기와 석조유구 2기가 확인되었고, 북쪽에서 수혈유구 48기와 석조유구 2기를 제외한 우물 등 14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지형이 낮은 북쪽의 유구배치는 우물 2호와 우물 북쪽에 연결된 남-북방향의 보도시설을 중심으로 동쪽의 기단석렬 7호와 8호, 서쪽에 기단석렬 6호와 석렬유구 3호와 4호가 위치한다. 지형이 높은 남쪽의 유구배치는 남서쪽과 남동쪽에 석조유구 3호와 4호가 위치하고 주변으로는 수혈유구 48기가 산재한다. 수혈유구는 경사면과 지형이 낮은 북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아 당시 수혈의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형이 높은 남쪽을 선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복양상은 석렬유구 3호·4호→석렬유구 1호, 기단석렬 6호→배수로 2호→석조유구 5호, 수혈유구 4호→석조유구 3호 순으로 확인되었다.

우물은 하부문화층 중앙에 1기가 확인되었다. 굴광은 단면형태 상광하협이고, 벽석은 너비가 일정한 통형이다. 굴광면 상부에는 평면형태 원형의 석렬이 확인되었고, 직경 280cm 정도이다. 이러한 우물 상부의 석렬은 왕경유적에서 평면형태 원형²⁰⁾과 방형으로 다수 확인되며, 상부 석렬 주변에는 배수로나 인접한 양상도 관찰된다. 본 유적의 우물 주변에서는 배수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주변에 인접한 기단석렬과 우물 석렬 및 북쪽으로 연결된 보도시설의 석렬 사이로 배수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보도시설은 우물의 상부 석렬과 연결해서 확인되었다. 양쪽 가장자리로 석렬을 조성하고, 내부에

19) 건물지 1호와 선축된 적심 7호·8호 등도 기단석렬 3호의 대지조성면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경주 동궁과 월지』.

월지 동북지역의 우물 1호 상부 석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직경은 180cm 정도로 확인되었다.

흙과 잔자갈을 놓아 이동이 용이하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조유구는 3기가 확인되었다. 5호는 원형으로 주변유구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호와 4호는 모두 조사경계 밖으로 어어져 정확한 평면형태와 구조는 알 수 없지만, 잔존양상으로 보아 장방형으로 판단된다. 3호 내부에는 서쪽 바닥을 낮게 조성해 높이 차이를 둔 점이 특이하다.

수혈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 6개 이외 42기는 모두 부정형이다. 확인된 규모는 다양하게 확인되었다. 내부에서 특별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고, 상부시설과도 단절된 문화층에서 확인되어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었다. 중복양상을 살펴보면, 7호→47호·48호, 16호→15호, 28호→27호 순으로 확인되었다.

중복양상과 배치양상 등으로 보아 하부문화층 북쪽의 초축된 유구는 우물 2호, 보도시설, 기단석렬 6호~8호, 석렬유구 3호·4호이고, 이후 신축과 증축 등으로 후축된 유구는 배수로 2호, 석렬유구 2호, 석조유구 5호 등이다. 하부문화층 남쪽은 수혈유구 간 중복된 양상이고, 석조유구는 3호가 수혈유구 4호보다 후축된 양상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토도류 53점, 금속류 2점, 석제류 2점으로 총 57점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중 상부와 하부 문화층에서 모두 확인된 대부완, 개, 연화문수막새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상부와 하부문화층 출토품을 대비해 보도록하겠다.

대부완은 총 8점이 확인되었다. 기형이 상부문화층 출토품(매납유구 4호)은 대각이 짧고 굽의 형태로만 잔존하는 양상이고, 신부의 깊이가 얇다. 하부문화층 출토품(기단석렬 8호, 배수로 2호)은 대각이 팔자형이고, 투공이 유존하며, 신부의 깊이가 깊다. 신부의 문양대는 상부와 하부 모두 종장연속마제형문이 확인되었고, 하부출토품(기단석렬 8호, 배수로 2호)에서 횡침선문과 구연단 아래 횡침선문 등이 확인되었다.

개는 총 9점이 확인되었다. 기형은 상부 출토품(기단석렬 4호, 석조유구 2호)은 신부의 형태가 꼭지에서 한번 꺾이는 ‘凸’자형이고, 꼭지는 굽형이다. 하부 출토품(석렬유구 3호, 수혈유구 43호)은 신부의 형태가 반구형이고, 꼭지는 굽형이다. 또한, 꼭지가 봉형에 신부의 형태가 뒤집어놓은 솔뚜껑처럼 ‘凹’자형인 형태가 상·하부 문화층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문양대는 상·하부에서 모두 종장연속마제형문이 확인되었다. 개의 신부기형이 반구형에서 ‘凸’자형 형태로 변화상이 관찰되며 이는 8세기초~중엽²¹⁾ 정도로 판단된다.

연화문수막새는 총 8점이 확인되었다. 제작방법²²⁾에서 상부출토품(담장지 2호, 우물 1호)은 수키와 가공접합법이고, 하부출토품(기단석렬 8호)은 주연접합법이 확인되었다. 문양대는 중판(담장지 2호, 우물 1호, 기단석렬 8호)이 6점으로 대부분으로 차지한다. 우물 1호 출토 중판연화문수막새의 문양대는 인접 유적인 안압지, 황룡사지, 신라왕경유적에서 다수가 확인된바 있다. 문양대가 단판(석렬유구

21) 최병현, 2011, 「신라 후기양식토기의 편년」, 『영남고고학보』59, 영남고고학회.

최병현의 4기에 해당된다.

22) 주연접합법은 문양대에 주연부를 덧대는 형태이고, 수키와 가공접합법은 문양대와 주연이 일체이고 뒷면에 수키와를 덧대는 형태이다.

3호, 수혈유구 12호)은 2점으로 모두 하부문화층에서 확인되었고, 무문의 높은 주연부를 가진 형태이다. 중판연화문 제작기술의 정형화가 7세기 중반 이후로 보고 있으며, 제작기법에서 주연접합법이 7세기 전반 말 이후에 사라지고, 수키와 가공접합법이 7세기 전반 말 이후에 등장한다고 한다.²³⁾

등잔형토기는 하부문화층 석렬유구 1호에서 출토되었다. 기형이 대부완 형태에 구연에 등잔 5개를 덧붙여져 있고, 신부바닥이 뚫려 대각과 통하는 형태이다. 대부완의 기형이 안압지 완성 이후에 폐기된 층 출토품²⁴⁾과 유사하고, 등잔형 토기는 경주 덕천리 유적 1호 출토품²⁵⁾과도 유사하다.

쌍조문암막새는 상부문화층 건물지 1호에서 출토되었다. 주연은 돌출되어 연주문이 배치되어 있고, 문양면에 한쌍의 새가 서로 마주보고 꽃의 줄기를 물고 있다. 동궁과 월지 95번, 안압지 371번과 동형으로 판단된다²⁶⁾.

연화보상화문수막새는 매납유구 3호 뚜껑으로 사용되었다. 문양대에는 중판에 복엽의 연화문과 보상화문이 확인되며, 동궁과 월지 93번과 안압지 349번과 동형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석조유구 2호에서 동곳, 건물지 2호에서 석제추가 확인되었다.

유적의 시기는 상기 내용을 종합해 살펴보면, 하부문화층의 선축된 기단석렬 8호 출토 수막새의 제작기법이 주연접합법이고, 석렬유구 3호에서 반구형 신부를 가진 개가 확인되었고, 후축된 석렬유구 1호에서 등잔형토기가 출토되었다. 따라서 하부문화층의 중심시기는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상부문화층의 초축시기는 석조유구 2호, 기단석렬 4호 출토 개의 신부형태가 ‘凸’자형이고, 우물 1호에서 수키와 가공접합법의 수막새가 확인되고 이전 하부문화층의 하한을 감안했을 때 8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된다. 상부문화층의 중심시기는 건물지 2호 상부건물 적심 노출중 확인된 기와무지에서 집선문과 장판타날의 기와가 확인되어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본 유적에서는 상·하부 문화층에서 신축과 증축·보축 등 수차례 반복되는 중복에 의해 잔존상태가 좋지 않고 조사면적이 협소하여 동시기 건물의 배치양상 및 구체적인 건물지 성격은 알 수는 없었으나, 7세기 중반에서 8세기 중엽에 건물이 조성되고 상부에 대지가 조성되면서 건물지 조영되어 9세기 말엽까지 조영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유적 주변으로는 신라왕경과 관련된 다수의 유적이 분포하는 곳으로 금번 발굴조사에서도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어 향후 신라왕경 연구에 좋은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바란다.

23) 어수민, 2012, 『신라 연화문 수막새 제작기술의 확립과 전개-경주지역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홍보식, 2003, 『신라 후기 고분문화 연구』, 춘추각.

안압지 완성이 674년으로 폐기된 유물은 674년 이후로 보고 있다.

25) 중앙문화재연구원, 2005, 『경주 덕천리 유적』.

26) 문화재관리국, 1978, 『안압지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4, 『경주 동궁과 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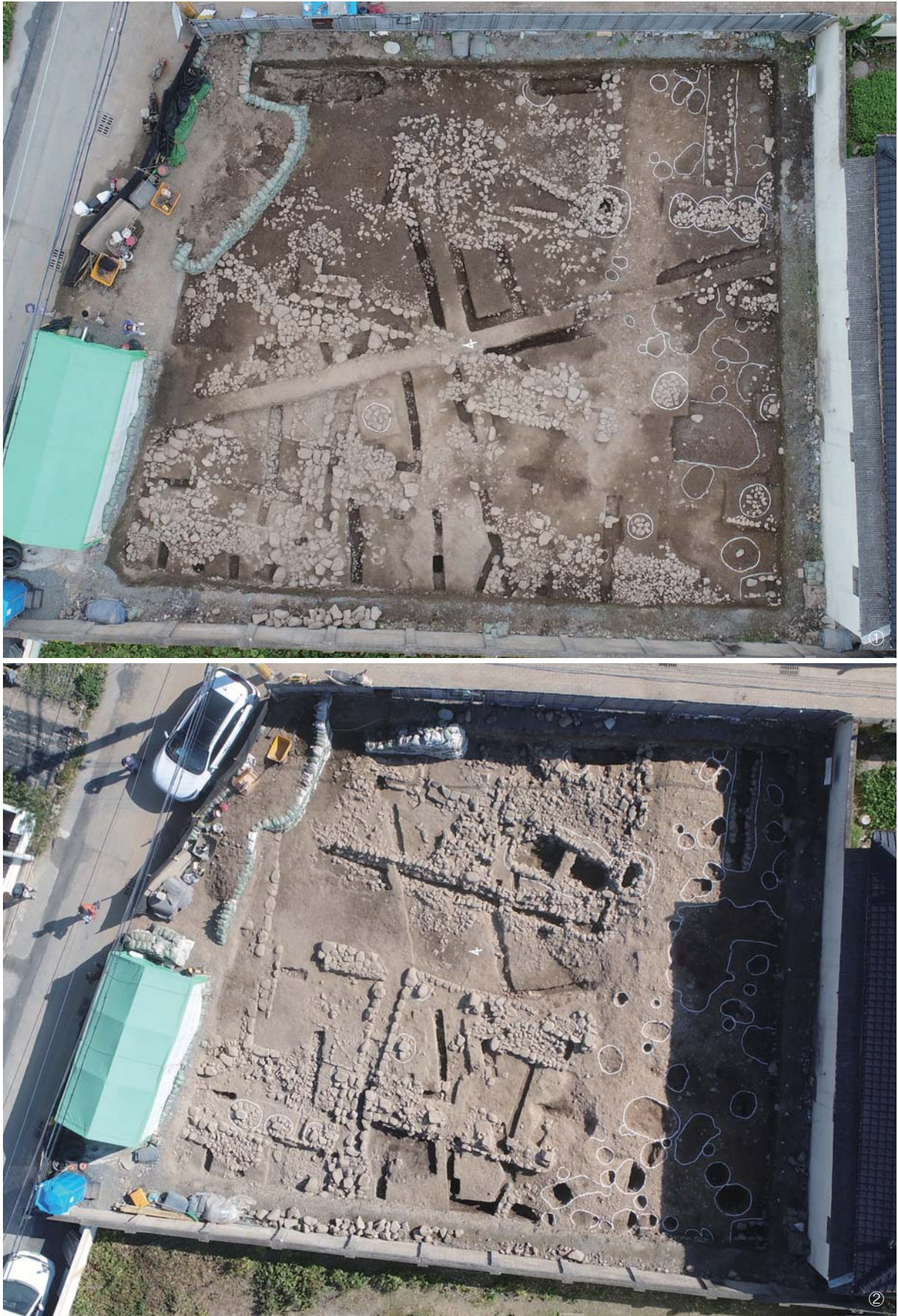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전(NE→SW), ②시굴조사후(NW→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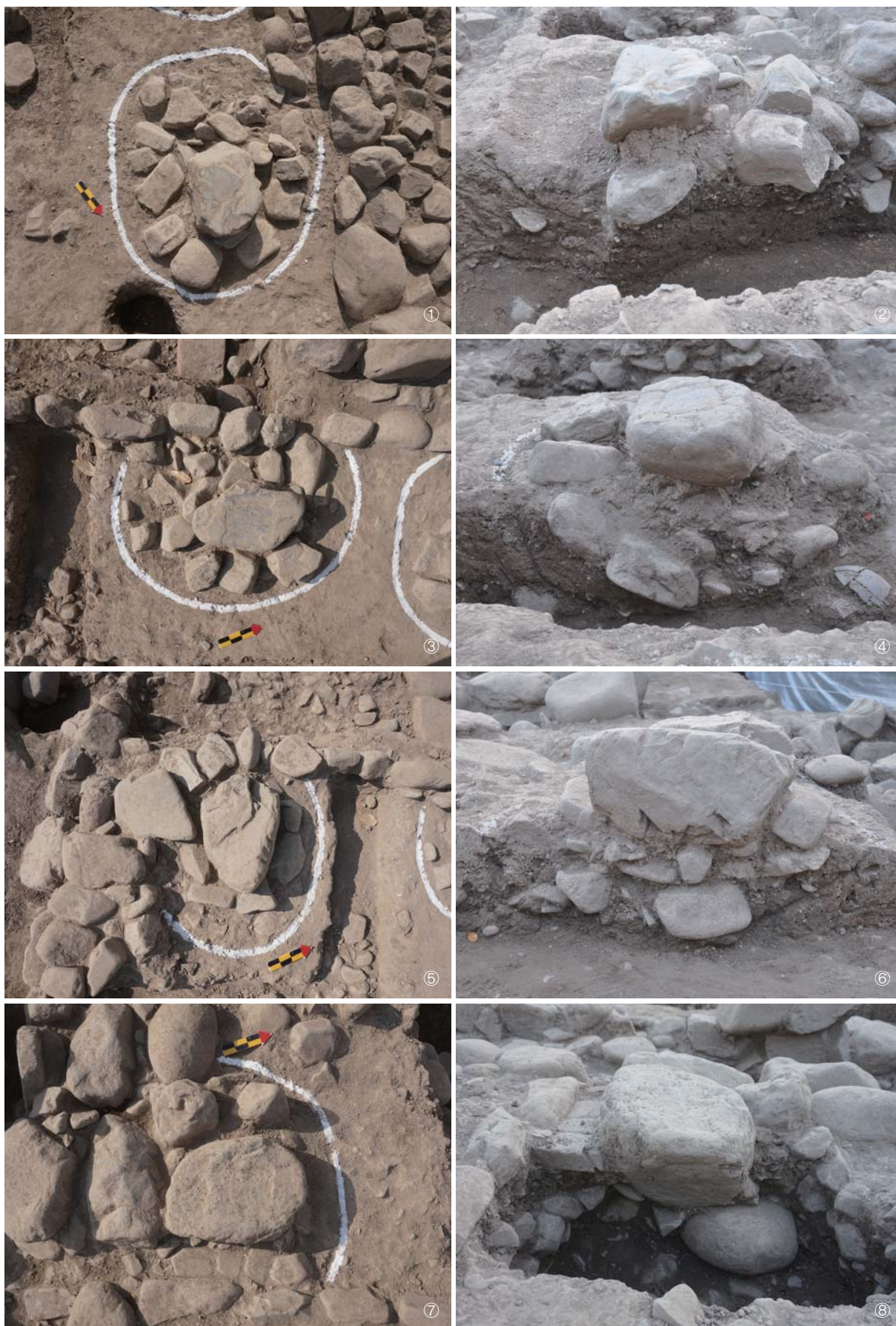
도판 2. 조사대상지 시굴조사(①트렌치 조사후(NW→SE), ②토층, ③석군(E→W), ④적심(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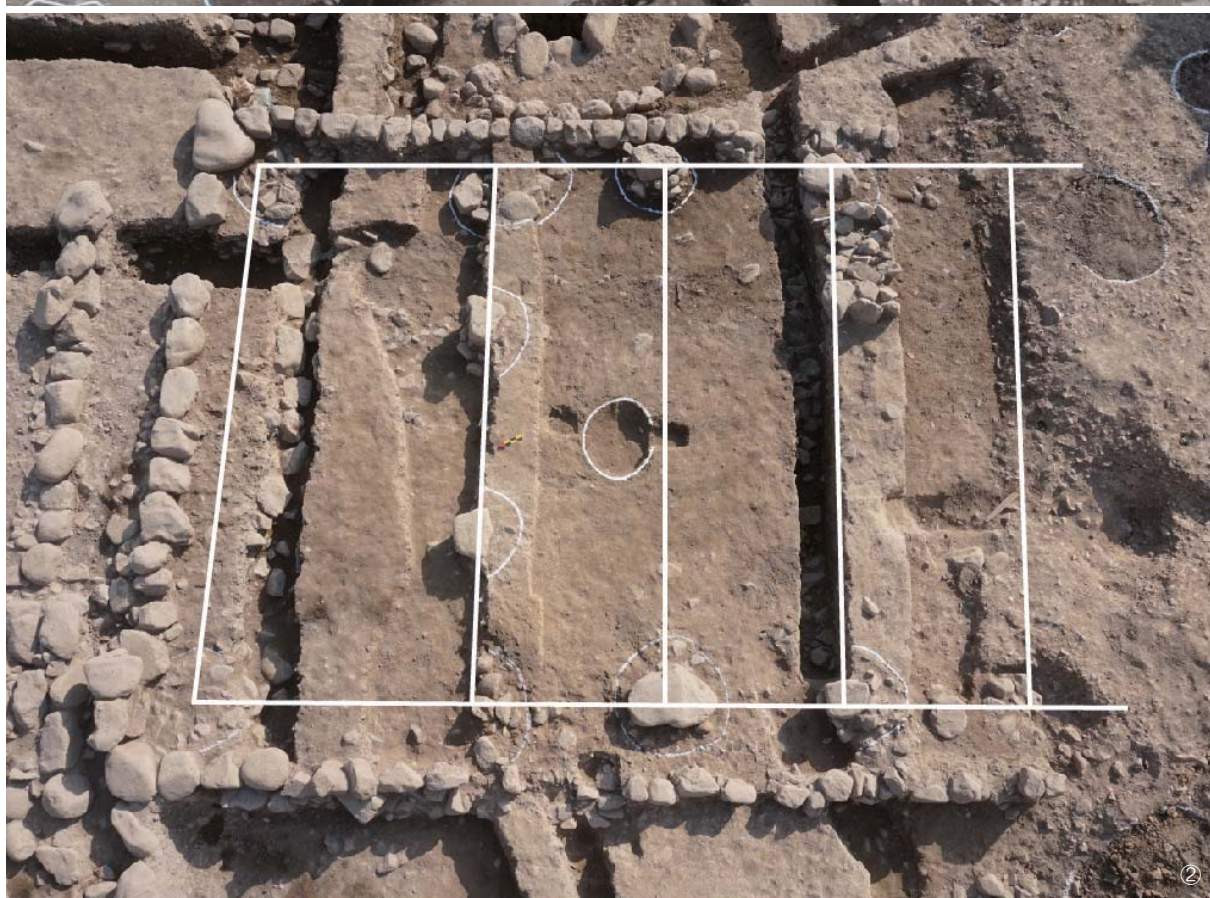
도판 3. 조사대상지 상부문화층 조사중 전경(①②항공촬영)



도판 4. 건물지 1호(①조사중(SW-NE), ②입면)



도판 5. 건물지 1호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1, ③④적심2, ⑤⑥적심3, ⑦⑧적심4)



도판 6. 건물지 2호 조사중(①상부 조사(W→E), ②하부 조사(W→E))



도판 7. 건물지 2호 상부 조사중(①SW→NE, ②E→W)



도판 8. 건물지 2호(①②입면), 건물지 2호 상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③④적심1, ⑤⑥적심2)



도판 9. 건물지 2호 상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3, ③④적심4, ⑤⑥적심5, ⑦⑧적심6)



도판 10. 건물지 2호 상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7, ③④적심8), 건물지 2호 기와무지 조사중(⑤NE→SW)



도판 11. 건물지 2호 하부 조사중(①②NW→SE)



도판 12. 건물지 2호 하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1, ③④적심2, ⑤⑥적심3, ⑦⑧적심4)



도판 13. 건물지 2호 하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5, ③④적심6, ⑤⑥적심7, ⑦⑧적심8)



도판 14. 건물지 2호 하부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9, ③④적심10, ⑤⑥적심11, 1·2:출토유물)



도판 15. 건물지 2호 출토유물(3~5), 건물지 3호 조사중(①NE-SW)



도판 16. 건물지 3호 적심 조사중 및 단면(①②적심1, ③④적심2, ⑤⑥적심3, ⑦⑧적심4)



도판 17. 적심 1호(①조사중, ②단면), 적심 2호(③조사중, ④단면), 적심 3호(⑤조사중, ⑥단면), 적심 4호(⑦조사중, ⑧단면)



도판 18. 적심 5호(①조사중, ②단면), 적심 6호(③조사중, ④단면), 적심 7호(⑤조사중, ⑥단면), 적심 8호(⑦조사중, ⑧단면)



도판 19. 적심 9호(①조사중, ②단면), 담장지 1호(③조사중(SE→NW), ④입면, ⑤단면), 담장지 2호 단면(⑥)



도판 20. 담장지 2호 조사중(①NW→SE, ②SW→NE)



도판 21. 담장지 2호 출토유물(6·7), 담장지 3호(①조사중(SW→NE), ②입면)



도판 22. 담장지 3호 토층(①), 담장지 4호(②단면, ③조사중(SW→NE), ④입면)



도판 23. 배수로 1호(①조사중(N-E→S-W), ②③입면, ④단면 토층)



도판 24. 기단석렬 1호(①③조사중(SE→NW), ②④입면)



도판 25. 기단석렬 1호 토층(①), 기단석렬 2호(②조사중(SE→NW), ③④입면, ⑤단면, 8:출토유물)



도판 26. 기단석렬 3호(①조사중(SE-NW), ②③토층, ④입면)



도판 27. 기단석렬 3호 입면(①~③)



도판 28. 기단석렬 4호(①조사중(NE→SW), ②조사중(NW→SE))



도판 29. 기단석렬 4호 입면(①②)



도판 30. 기단석렬 4호(①②토층, ③석군 조사중(NW→SE))



도판 31. 기단석렬 4호 석군(①②입면, ③④토층, 9~11:출토유물)



도판 32. 기단석렬 5호(①조사중(NW→SE), ②입면)



도판 33. 기단석렬 5호(①입면, ②토층, ③④배수로 조사중, 12:출토유물)



도판 34. 석조유구 1호(①조사중, ②~⑤입면)



도판 35. 석조유구 1호(①단면 토층, 13:출토유물), 석조유구 2호 조사중(②)



도판 36. 석조유구 2호(①~④입면, ⑤⑥토층)



도판 37. 석조유구 2호 출토유물(14~16), 우물 1호(①조사중(S→N), ②단면 토층)



17



18



19



①



②



③

도판 38. 우물 출토유물(17~19), 매납유구 1호 조사중(①~③)



도판 39. 매납유구 1호(①세부, 20·21:출토유물), 매납유구 2호(②조사전(NE→SW), ③조사중(NE→SW), ④조사후(NE→SW), ⑤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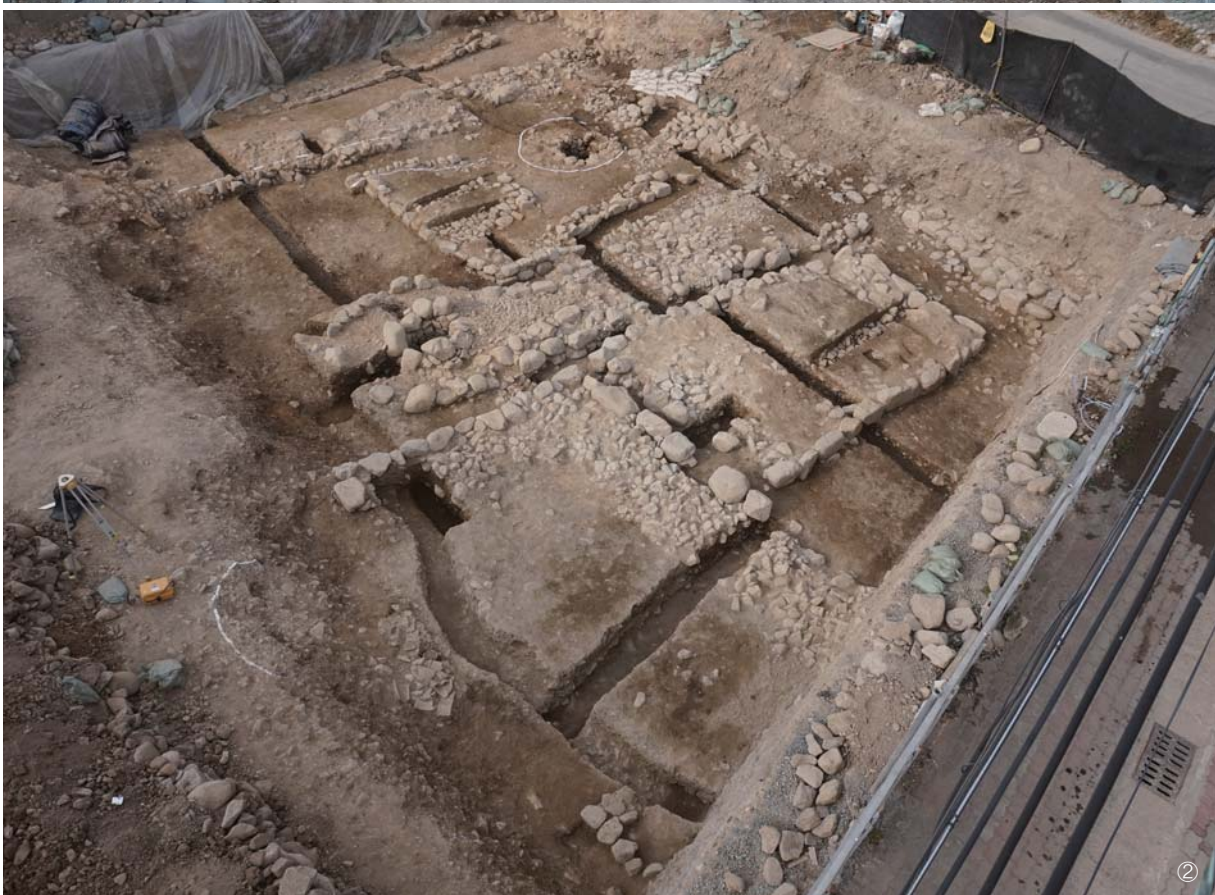
도판 40. 매납유구 2호 출토유물(22), 매납유구 3호(①조사전(S→N), ②조사중(W→E), ③세부, 23·24:출토유물)



도판 41. 매납유구 4호(①조사중(NE→SW), ②세부, 25:출토유물), 매납유구 5호(③조사전(NE→SW), ④조사중(NE→SW), 26:출토유물)



도판 42. 매납유구 5호(①조사후(NE→SW), ②세부), 부석유구 1호(③조사중(SE→NW), ④단면 토층)



도판 43. 조사대상지 하부문화층 조사중 전경(①항공촬영, ②SE→NW)



도판 44. 배수로 2호(①조사중(SE→NW), ②③입면)



도판 45. 배수로 2호(①단면 토층, 27~29:출토유물)



도판 46. 기단석렬 6호(①조사중(SW→NE), ②③입면, ④토층)



도판 47. 기단석렬 7호(①조사중(NE-SW), ②③입면)



도판 48. 기단석렬 7호(①토층, 30~33:출토유물)



도판 49. 기단석렬 8호(①조사중(NE-SW), ②③입면)



34



35

도판 50. 기단석렬 8호(①토층, ②유물 출토상태, 출토유물1)



도판 51. 기단석렬 8호 출토유물2



39



도판 52. 기단석렬 8호 출토유물3, 석조유구 3호(①조사중(SE→NW), ②입면)



도판 53. 석조유구 3호(①입면, ②③단면 토층), 석조유구 4호 조사중(④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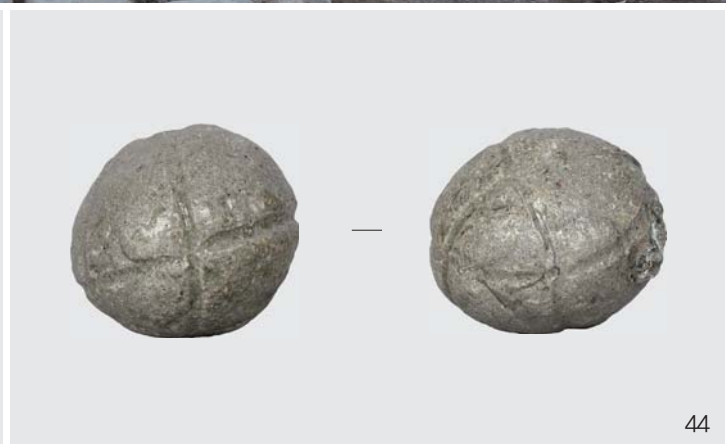
도판 54. 석조유구 4호(①②입면, ③단면 토층), 석조유구 5호(④입면 및 토층, ⑤조사중(E-W))



도판 55. 석렬유구 1호(①조사중(SW→NE), ②입면, ③토층, 40·41:출토유물)



도판 56. 석렬유구 2호(①조사중(SW→NE), ②입면, ③단면 토층), 석렬유구 3호 토층(④)



도판 57. 석렬유구 3호(①조사중(SE-NW), ②입면, 42~44:출토유물)



도판 58. 석렬유구 4호(①조사중(NW→SE), ②입면, ③토층)



도판 59. 우물 2호(①②NE→SW)



도판 60. 우물 2호(①조사중, ②단면)



도판 61. 우물 2호 단면 토층(①~⑤), 보도시설 단면 토층(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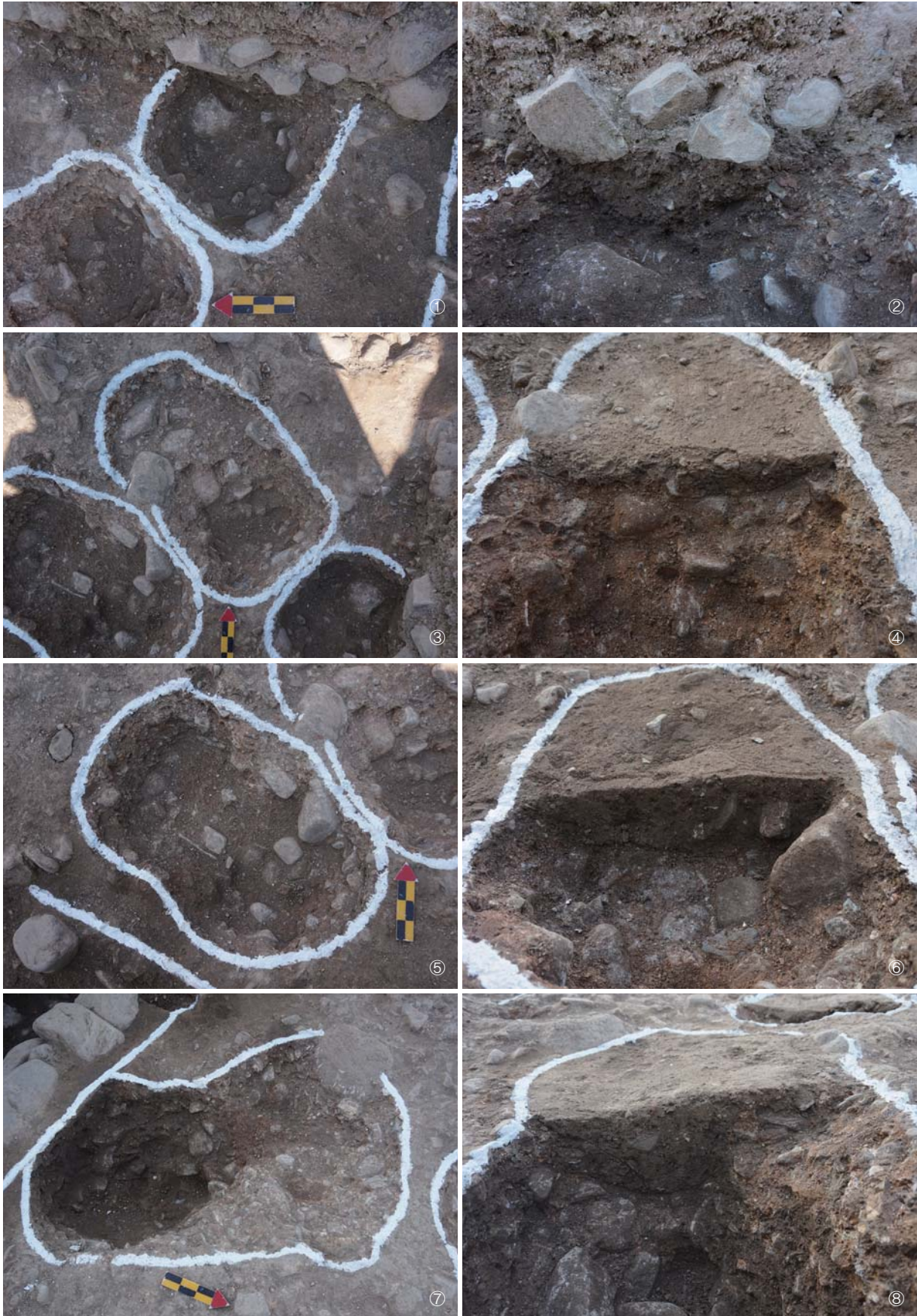
도판 62. 보도시설(①NE-SW, ②세부, ③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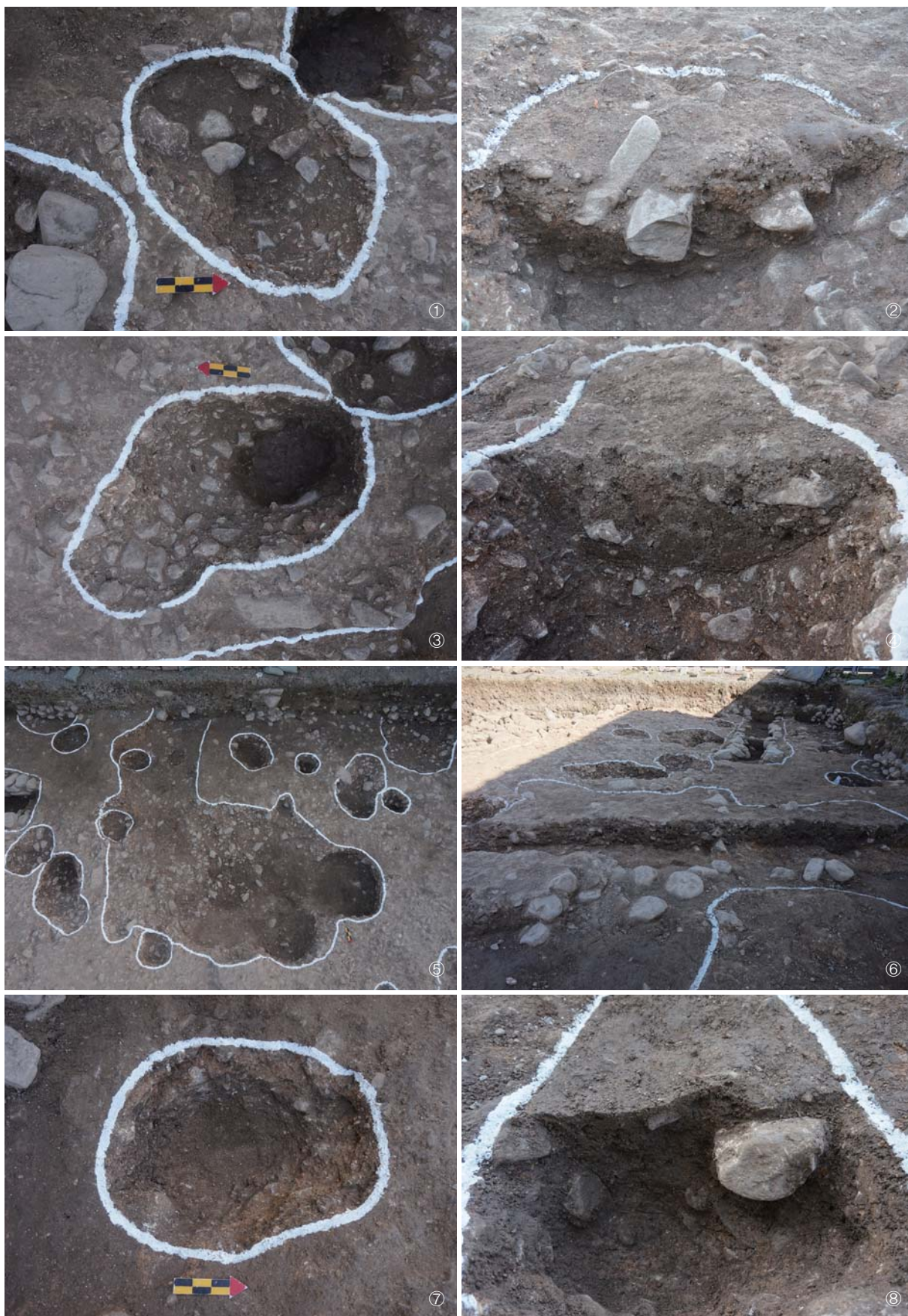
도판 63. 보도시설 바닥세부(①), 매납유구 6호(②조사중(S→N), ③단면 토총, 45:출토유물), 부석유구 2호(④조사중(SE→NW), ⑤단면)



도판 64. 부석유구 3호(①조사중(SW→NE), ②토층), 조사대상지 하부문화층 수혈유구 전경(③NW→SE)



도판 65. 수혈유구 1호(①조사후(W→E), ②토층), 수혈유구 2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3호(⑤조사후(S→N), ⑥토층), 수혈유구 4호(⑦조사후(E→W), ⑧토층)



도판 66. 수혈유구 5호(①조사후(E→W), ②토층), 수혈유구 6호(③조사후(W→E), ④토층), 수혈유구 7호(⑤조사후(N→S), ⑥토층), 수혈유구 8호(⑦조사후(E→W), ⑧토층)



도판 67. 수혈유구 9호(①조사후(SE→NW), ②토층), 수혈유구 10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11호(⑤조사후(W→E), ⑥토층), 수혈유구 12호(⑦조사후(S→N), ⑧토층)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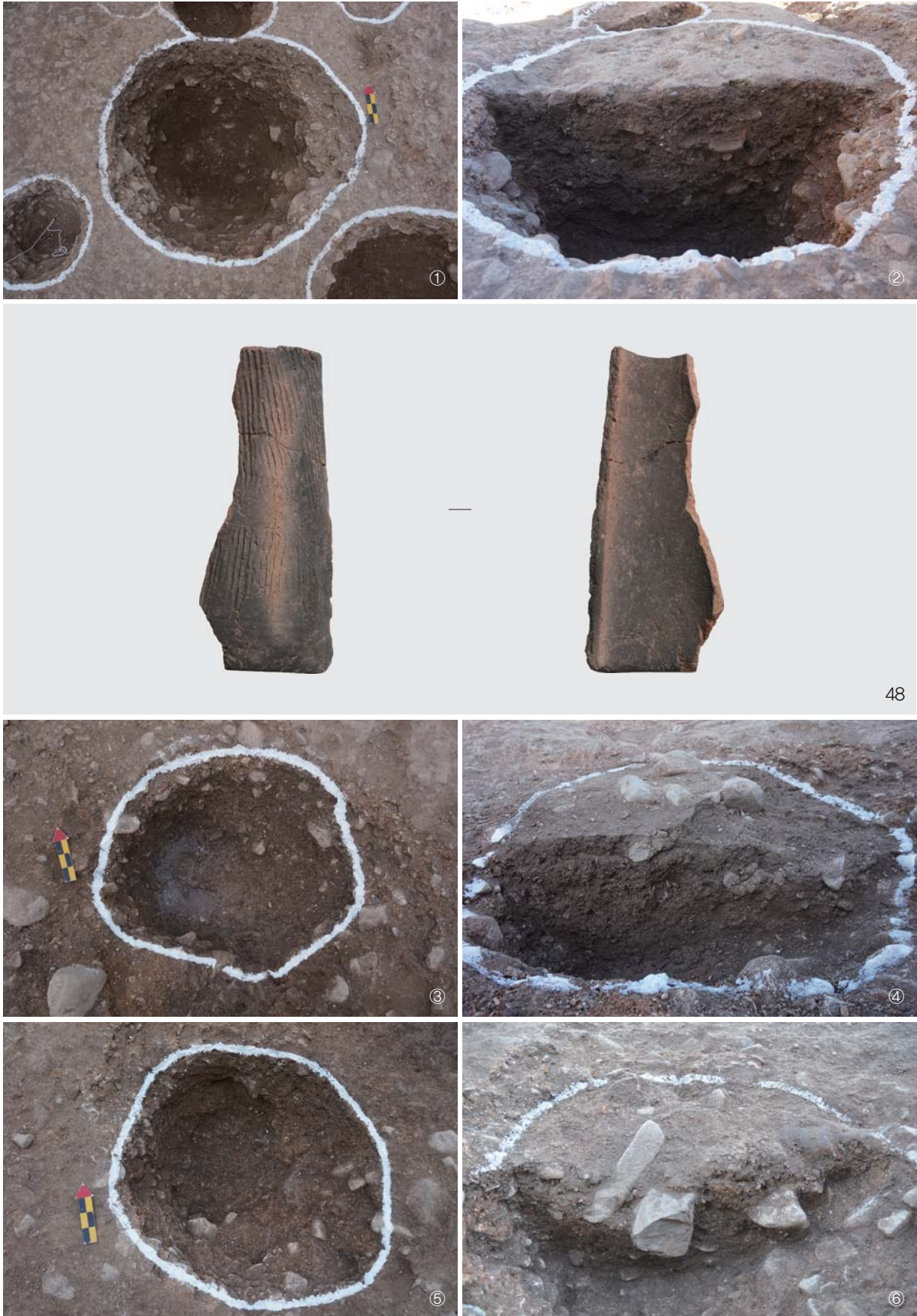
도판 68. 수혈유구 12호 출토유물(46), 수혈유구 13호(①조사후(S→N), ②토층), 수혈유구 14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15호(⑤조사후(W→E), ⑥토층)



도판 69. 수혈유구 16호(①조사후(E→W), ②토층), 수혈유구 17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18호(⑤조사후(S→N), ⑥토층, 47:출토유물)



도판 70. 수혈유구 19호(①조사후(S→N), ②토층), 수혈유구 20호(③조사후(W→E), ④토층), 수혈유구 21호(⑤조사후(S→N), ⑥토층), 수혈유구 22호(⑦조사후(S→N), ⑧토층)



도판 71. 수혈유구 23호(①조사후(S-N), ②토층, 48:출토유물), 수혈유구 24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25호(⑤조사후(S-N), ⑥토층)



도판 72. 수혈유구 26호(①조사후(S→N), ②토층), 수혈유구 27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28호(⑤조사후(S→N), ⑥토층), 수혈유구 29호(⑦조사후(N→S), ⑧토층)



도판 73. 수혈유구 30호(①조사후(S→N), ②토층), 수혈유구 31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32호(⑤조사후(S→N), ⑥토층, 49: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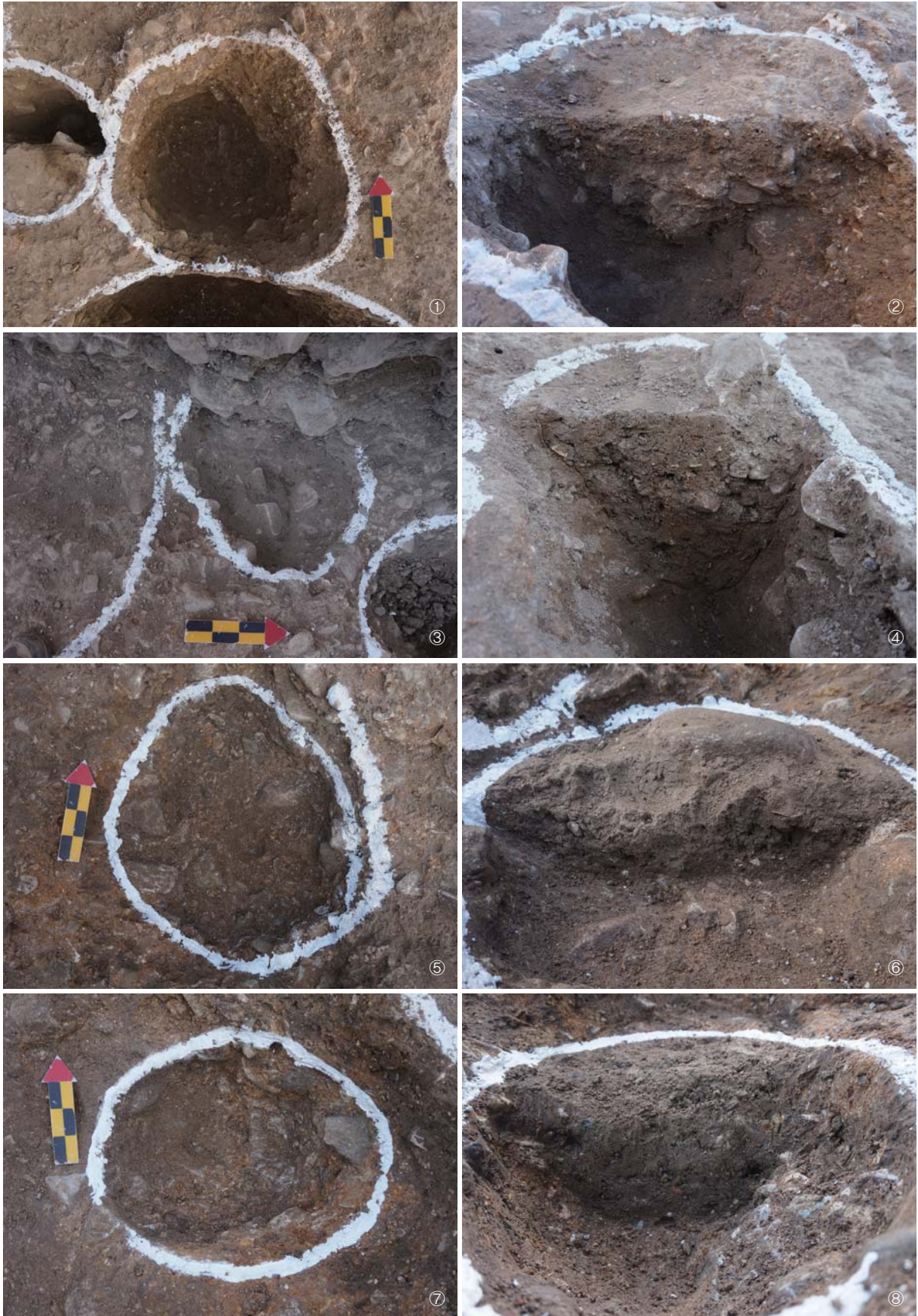
도판 74. 수혈유구 33호(①조사후(S→N), ②토층), 수혈유구 34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35호(⑤조사후(S→N), ⑥토층), 수혈유구 36호(⑦조사후(S→N), ⑧토층)



도판 75. 수혈유구 37호(①조사후(S→N), ②토층), 수혈유구 38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39호(⑤조사후(S→N), ⑥토층), 수혈유구 40호(⑦조사후(N→S), ⑧토층)



도판 76. 수혈유구 41호(①조사후(S→N), ②토층), 수혈유구 42호(③조사후(S→N), ④토층), 수혈유구 43호(⑤조사후(S→N), ⑥토층), 수혈유구 44호(⑦조사후(S→N), ⑧토층)



도판 77. 수혈유구 45호(①조사후(N-S), ②토층), 수혈유구 46호(③조사후(E-W), ④토층), 수혈유구 47호(⑤조사후(S-N), ⑥ 토층), 수혈유구 48호(⑦조사후(S-N), ⑧토층)



도판 78. 수혈유구 43호 출토유물(50), 상부 수습유물(51~57)

경주 구황동 875-3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008-0001	석제추	1	건물지 2호	옥석 유리류	통일신라	잔존 7.6	4.4	1.4~1.8	9-1 14-1	Y
2017-1008-0002	철정	1	건물지 2호	금속류	통일신라	잔존 14.5	1.4	0.7	9-2 14-2	Y
2017-1008-0003	쌍조문수막새	1	건물지 2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13.8	0.0	1.8	9-3 15-3	Y
2017-1008-0004	수키와	1	건물지 2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20.5	잔존 11.8	1.2	9-4 15-4	Y
2017-1008-0005	암키와	1	건물지 2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30.1	잔존 20.4	1.7	9-5 15-5	Y
2017-1008-0006	연화문수막새	1	담장지 2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10.9	0.0	2.0	14-6 21-6	Y
2017-1008-0007	연화문수막새	1	담장지 2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4.3/ 잔존6.3	0.0	2.1/1.5	14-7 21-7	Y
2017-1008-0008	단경호	1	기단석렬 2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35.7	복원 19.0	0.0	19-8 25-8	Y
2017-1008-0009	개	1	기단석렬 4호	토도류	통일신라	4.8	복원 13.4	0.0	20-9 31-9	Y
2017-1008-0010	개	1	기단석렬 4호	토도류	통일신라	3.9	복원 11.4	0.0	20-10 31-10	Y
2017-1008-0011	대부완	1	기단석렬 4호	토도류	통일신라	5.1	복원 11.3	복원 5.0	20-11 31-11	Y
2017-1008-0012	완	1	기단석렬 5호	토도류	통일신라	5.0	14.3	5.5	20-12 33-12	Y
2017-1008-0013	암키와	1	석조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25.7	잔존 22.9	1.2	22-13 35-13	Y
2017-1008-0014	개	1	석조유구 2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2.6	복원 8.9	0.0	22-14 37-14	Y
2017-1008-0015	대부완	1	석조유구 2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5.7	0.0	8.7	22-15 37-15	Y
2017-1008-0016	동곳	1	석조유구 2호	금속류	통일신라	잔존 5.0	1.0	0.6	22-16 37-16	Y
2017-1008-0017	연화문수막새	1	우물 1호	토도류	통일신라	14.9/ 잔존5.0	0.0	2.0/1.6	24-17 38-17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008-0018	단경호	1	우물 1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12.9/15.0	0.0	19.1	24-18 38-18	Y
2017-1008-0019	호 구경부편	1	우물 1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7.7	복원 15.1	0.0	24-19 38-19	Y
2017-1008-0020	대부완	1	매납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	6.9	복원 17.0	6.6	25-20 39-20	Y
2017-1008-0021	유개대부완	2	매납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6.5/ 6.7	16.3/16.3	0.0/0.0	25-21 39-21	Y
2017-1008-0022	대호	1	매납유구 2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19.7/ 잔존40.5	0.0	0.0	26-22 40-22	Y
2017-1008-0023	대부완	1	매납유구 3호	토도류	통일신라	9.6	복원 14.8	7.1	27-23 40-23	Y
2017-1008-0024	연화보상화문 수막새	1	매납유구 3호	토도류	통일신라	14.5	0.0	2.2	27-24 40-24	Y
2017-1008-0025	유개대부완	2	매납유구 4호	토도류	통일신라	3.6/6.5	19.3/18.6	0.0/9.1	28-25 41-25	Y
2017-1008-0026	편병	1	매납유구 5호	토도류	통일신라	34.8	11.9	19.2	29-26 41-26	Y
2017-1008-0027	대부완	1	배수로 2호	토도류	통일신라	7.1	복원 16.5	복원 7.2	32-27 45-27	Y
2017-1008-0028	대부완	1	배수로 2호	토도류	통일신라	8.1	복원 15.2	복원 7.3	32-28 45-28	Y
2017-1008-0029	수키와	1	배수로 2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22.1	15.7	1.1	32-29 45-29	Y
2017-1008-0030	완	1	기단석렬 7호	토도류	통일신라	5.0	복원 9.8	0.0	35-30 48-30	Y
2017-1008-0031	수키와	1	기단석렬 7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20.6	잔존 12.5	1.0	35-31 48-31	Y
2017-1008-0032	암키와	1	기단석렬 7호	토도류	통일신라	31.1	27.5	1.4	35-32 48-32	Y
2017-1008-0033	환형 석제품	1	기단석렬 7호	옥석 유리류	통일신라	16.8	0.0	7.7	35-33 48-33	Y
2017-1008-0034	대부완	1	기단석렬 8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8.1~8.9	14.6~17.5	0.0	37-34 50-34	Y
2017-1008-0035	연화문수막새	1	기단석렬 8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15.8	0.0	1.8	37-35 50-35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008-0036	연화문수막새	1	기단석렬 8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14.7/ 잔존3.0	0.0	2.3/1.2	37-36 51-36	Y
2017-1008-0037	수키와	1	기단석렬 8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28.1	15.1	1.3	37-37 51-37	Y
2017-1008-0038	수키와	1	기단석렬 8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21.3	17.5	0.9	38-38 51-38	Y
2017-1008-0039	암키와	1	기단석렬 8호	토도류	통일신라	35.0	30.3	1.3	38-39 52-39	Y
2017-1008-0040	개	1	석렬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	3.3	7.5	0.0	42-40 55-40	Y
2017-1008-0041	등잔형토기	1	석렬유구 1호	토도류	통일신라	9.9~12.2	8.5	복원 6.5	42-41 55-41	Y
2017-1008-0042	개	1	석렬유구 3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4.2	11.8	0.0	44-42 57-42	Y
2017-1008-0043	연화문수막새	1	석렬유구 3호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9.7	0.0	1.8	44-43 57-43	Y
2017-1008-0044	토구	1	석렬유구 3호	토도류	통일신라	3.1	0.0	2.9	44-44 57-44	Y
2017-1008-0045	단경호	1	매납유구 6호	토도류	통일신라	19.5	15.6	0.0	48-45 63-45	Y
2017-1008-0046	연화문수막새	1	수혈유구 12호	토도류	통일신라	14.1/ 잔존9.3	0.0	1.8/1.3	53-46 68-46	Y
2017-1008-0047	수키와	1	수혈유구 18호	토도류	통일신라	30.3	14.2	1.4	55-47 69-47	Y
2017-1008-0048	수키와	1	수혈유구 23호	토도류	통일신라	28.2	잔존 11.8	1.3	56-48 71-48	Y
2017-1008-0049	수키와	1	수혈유구 32호	토도류	통일신라	29.2	14.2	1.3	58-49 73-49	Y
2017-1008-0050	개	1	수혈유구 43호	토도류	통일신라	4.8	복원 13.7	0.0	60-50 78-50	Y
2017-1008-0051	유개대부완	2	상부 수습	토도류	통일신라	3.6/6.5	19.3/18.6	0.0/9.1	61-51 78-51	Y
2017-1008-0052	개	1	상부 수습	토도류	통일신라	1.8	복원 4.5	0.0	61-52 78-52	Y
2017-1008-0053	등잔	1	상부 수습	토도류	통일신라	3.7	9.4	0.0	61-53 78-53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008-0054	등잔	1	상부 수습	토도류	통일신라	2.9	7.1	0.0	61-54 78-54	Y
2017-1008-0055	덧띠무늬병	1	상부 수습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6.7	0.0	3.6	61-55 78-55	Y
2017-1008-0056	덧띠무늬병	1	상부 수습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9.6	0.0	6.0	61-56 78-56	Y
2017-1008-0057	보상화문전	1	상부 수습	토도류	통일신라	잔존 21.0	잔존 19.3	6.8	61-57 78-57	Y

掘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경주 구황동 875-3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編輯者	박강민 · 우하영 · 김태훈 · 강성귀 · 하혜진				
調査 緣由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 박강민 · 우하영 · 김태훈 · 이나리 · 염정희				
遺蹟調査地番	경상북도 경주시 구황동 875-3번지				
調査面積	404㎡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건물지	통일신라시대	3	쌍조문수막새, 수키와, 암키와, 석제추, 철정 등		
담장지		4	연화문수막새 등		
적심		9	-		
배수로		2	대부완, 수키와		
기단석렬		8	개, 대부완, 단경호, 연화문수막새, 수키와 등		
석조유구		5	개, 대부완, 동곳, 암키와 등		
우물		2	연화문수막새, 단경호		
부석유구		3	-		
석렬유구		4	개, 등잔형토기, 연화문수막새, 토구 등		
보도시설		1	-		
매납유구		6	유개대부완, 대호, 연화보상화문수막새, 편병 등		
수혈유구		48	연화문수막새, 수키와 등		

157.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

한국문화재재단



원색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항공촬영)



원색도판 2. 목각묘 2호 출토유물 일괄



원색도판 3. 석곽묘 4~6호 전경



원색도판 4. 석곽묘 4호 출토유물 일괄

목 차

I. 조사개요	157-13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57-15
III. 조사내용	157-19
1. 시굴조사.....	157-19
2. 발굴조사	157-22
1) 목곽묘	157-22
(1) 목곽묘 1호	157-23
(2) 목곽묘 2호	157-24
(3) 목곽묘 3호	157-31
(4) 목곽묘 4호	157-34
(5) 목곽묘 5호	157-37
(6) 목곽묘 6호	157-40
(7) 목곽묘 7호	157-42
(8) 목곽묘 8호	157-43
(9) 목곽묘 9호	157-45
(10) 목곽묘 10호	157-45
2) 옹관묘	157-46
(1) 옹관묘 1호	157-46
(2) 옹관묘 2호	157-48
3) 석곽묘	157-50
(1) 석곽묘 1호	157-50
(2) 석곽묘 2호	157-54
(3) 석곽묘 3호	157-63
(4) 석곽묘 4호	157-65
(5) 석곽묘 5호	157-75
(6) 석곽묘 6호	157-78
(7) 석곽묘 7호	157-82
(8) 석곽묘 8호	157-87
(9) 석곽묘 9호	157-88
(10) 석곽묘 10호	157-92
(11) 석곽묘 11호	157-98

(12) 석곽묘 12호	157- 99
(13) 석곽묘 13호	157-104
(14) 석곽묘 14호	157-109
4) 구상유구	157-112
(1) 구상유구 1호	157-112
(2) 구상유구 2호	157-112
5) 수혈유구	157-115
IV. 조사성과	157-116

도면목차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157-16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157-17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157-18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157-20
도면 5. 유구분포도	157-21
도면 6. 목곽묘 1호 및 출토유물	157-23
도면 7. 목곽묘 2호	157-25
도면 8. 목곽묘 2호 출토유물1	157-26
도면 9. 목곽묘 2호 출토유물2	157-28
도면 10. 목곽묘 2호 출토유물3	157-30
도면 11. 목곽묘 3호	157-32
도면 12. 목곽묘 3호 출토유물	157-33
도면 13. 목곽묘 4호	157-35
도면 14. 목곽묘 4호 출토유물	157-36
도면 15. 목곽묘 5호 및 출토유물1	157-38
도면 16. 목곽묘 5호 출토유물2	157-39
도면 17. 목곽묘 6호 및 출토유물	157-41
도면 18. 목곽묘 7호 및 출토유물	157-42
도면 19. 목곽묘 8호	157-43
도면 20. 목곽묘 9호 및 출토유물	157-44
도면 21. 목곽묘 10호	157-45
도면 22. 옹관묘 1호 및 출토유물	157-47
도면 23. 옹관묘 2호	157-48
도면 24. 옹관묘 2호 출토유물	157-49
도면 25. 석곽묘 1호	157-51
도면 26. 석곽묘 1호 출토유물	157-53
도면 27. 석곽묘 2·3호	157-55
도면 28. 석곽묘 2호	157-56
도면 29. 석곽묘 2호 출토유물1	157-59
도면 30. 석곽묘 2호 출토유물2	157-61
도면 31. 석곽묘 3호 및 출토유물	157-64
도면 32. 석곽묘 4~6호	157-67

도면 33. 석곽묘 4호	157- 69
도면 34. 석곽묘 4호 출토유물1	157- 71
도면 35. 석곽묘 4호 출토유물2	157- 73
도면 36. 석곽묘 4호 출토유물3	157- 74
도면 37. 석곽묘 5호 및 출토유물.....	157- 77
도면 38. 석곽묘 6호	157- 79
도면 39. 석곽묘 6호 출토유물	157- 81
도면 40. 석곽묘 7·8호.....	157- 83
도면 41. 석곽묘 7호	157- 84
도면 42. 석곽묘 7호 및 주구 출토유물	157- 86
도면 43. 석곽묘 8호	157- 87
도면 44. 석곽묘 9호	157- 88
도면 45. 석곽묘 9호 출토유물	157- 91
도면 46. 석곽묘 10호	157- 93
도면 47. 석곽묘 10호 출토유물	157- 96
도면 48. 석곽묘 11호 및 출토유물	157- 98
도면 49. 석곽묘 12~14호	157-100
도면 50. 석곽묘 12호	157-102
도면 51. 석곽묘 12호 출토유물.....	157-103
도면 52. 석곽묘 13호 및 출토유물1.....	157-105
도면 53. 석곽묘 13호 출토유물2	157-108
도면 54. 석곽묘 14호 및 출토유물	157-110
도면 55. 구상유구 1호	157-113
도면 56. 구상유구 2호 및 출토유물	157-114
도면 57. 수혈유구	157-115

도판 목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원경(항공사진), ②시굴 조사전(SE→NW))	157-133
도판 2. 조사대상지 시굴조사 후 전경(①SW→NE, ②항공사진)	157-134
도판 3. 트렌치 조사후(①트렌치 2(SW→NE), ②트렌치 3(SW→NE), ③트렌치 4(SW→NE), ④트렌치 5(SW→NE), ⑤트렌치 6(SW→NE))	157-135
도판 4. 조사대상지 발굴조사 중 전경(①항공사진, 목곽묘 1호(②조사전(SE→NW), ③유물노출 후(SE→NW), ④토층(SE→NW), 1:출토유물)	157-136
도판 5. 목곽묘 2·3·7호 조사전(①NW→SE), 목곽묘 2호(②유물 노출후(NW→SE), ③④토층, ⑤⑥유물 출토상태)	157-137
도판 6. 목곽묘 2호 출토유물1	157-138
도판 7. 목곽묘 2호 출토유물2	157-139
도판 8. 목곽묘 3호(①유물 노출후(NW→SE), ②조사후(NW→SE), ③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21·22:출토유물)	157-140
도판 9. 목곽묘 4호(①조사전(SW→NE), ②유물 노출후(SW→NE), ③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23·24:출토유물)	157-141
도판 10. 목곽묘 5호(①조사전(S→N), ②유물 노출후(S→N), ③조사후(S→N), ④토층, ⑤묘광 바닥 굴지구흔)	157-142
도판 11. 목곽묘 5호 출토유물(①②:유물 출토상태, 26~31:출토유물)	157-143
도판 12. 목곽묘 6호(①유물 노출후(NW→SE), ②토층, 32:출토유물), 목곽묘 7호(③유물 노출후(W→E), ④토층, 33:출토유물)	157-144
도판 13. 목곽묘 8호(①조사전(SE→NW), ②조사후(NW→SE), ③토층), 목곽묘 9호 (④유물 노출후(NW→SE), ⑤토층, 34:출토유물)	157-145
도판 14. 목곽묘 10호(①조사후(NW→SE), ②충전토 제거후(NW→SE)), 옹관묘 1호 (③조사전(W→E), ④옹관 노출후(W→E), ⑤옹관 세부, 35:출토유물)	157-146
도판 15. 옹관묘 2호(①조사전(W→E), ②1차 노출후(W→E), ③2차 노출후(W→E), 36·37:출토유물)	157-147
도판 16. 석곽묘 1호(①조사전(SE→NW), ②유물 노출후(SE→NW), ③조사후(SE→NW), ④내부 토층, ⑤시상단면)	157-148
도판 17. 석곽묘 1호(①북장벽 축조상태, ②북장벽 묘광 토층, ③유물 출토상태, 38~42:출토유물)	157-149
도판 18. 석곽묘 2·3호 전경(①SW→NE), 석곽묘 2호(①조사전(NW→SE), ②유물 노출후(NW→SE))	157-150
도판 19. 석곽묘 2호(①동단벽 축조상태, ②남장벽 축조상태, ③북장벽 축조상태, ④바닥	

	축조상태, ⑤동단벽 묘광 토층, ⑥북장벽 묘광 토층, ⑦남장벽 묘광 토층, ⑧시상 축조상태, ⑨~⑫유물 출토상태) ……………	157-151
도판 20.	석곽묘 2호 출토유물1 ……………	157-152
도판 21.	석곽묘 2호 출토유물(59~65), 석곽묘 3호(①유물 노출후(NW→SE), ②조사후(NW→SE) ……………	157-153
도판 22.	석곽묘 3호(①동단벽 축조상태, ②북장벽 축조상태, ③남장벽 축조상태, ④서단벽 축조상태, ⑤토층, ⑥남장벽 묘광 토층, ⑦북장벽 묘광 토층, ⑧⑨유물 출토상태) …	157-154
도판 23.	석곽묘 3호 출토유물(66~71), 석곽묘 4~6호 전경(①S→N) ……………	157-155
도판 24.	석곽묘 4호(①유물 노출후(W→E), ②조사후(W→E), ③북단벽 축조상태, ④서장벽 축조상태, ⑤~⑦유물 출토상태) ……………	157-156
도판 25.	석곽묘 4호 출토유물1 ……………	157-157
도판 26.	석곽묘 4호 출토유물2 ……………	157-158
도판 27.	석곽묘 4호 출토유물3 ……………	157-159
도판 28.	석곽묘 5호(①유물 노출후(SW→NE), ②벽석 축조상태, ③동단벽 묘광 토층, 88~93:출토유물) ……………	157-160
도판 29.	석곽묘 6호(①유물 노출후(W→E), ②북단벽 축조상태, ③동장벽 축조상태, ④서장벽 축조상태, ⑤바닥 축조상태, ⑥북단벽 묘광 토층, ⑦남단벽 묘광 토층) ……………	157-161
도판 30.	석곽묘 6호(①~③유물 출토상태, 94~100:출토유물) ……………	157-162
도판 31.	석곽묘 7호·8호(①전경(W→E)), 석곽묘 7호(②유물 노출후(N→S), ③조사후(N→S), ④서장벽 축조상태, ⑤서장벽 묘광 토층) ……………	157-163
도판 32.	석곽묘 7호(①②유물 출토상태, ③주구 토층, 101~106:출토유물), 석곽묘 8호(④조사후 (SW→NE), ⑤조사전(NW→SE)) ……………	157-164
도판 33.	석곽묘 9호(①조사전(SW→NE), ②유물 노출후(SW→NE), ③동장벽 축조상태, ④바닥 축조상태, ⑤⑥유물 출토상태) ……………	157-165
도판 34.	석곽묘 9호 출토유물1 ……………	157-166
도판 35.	석곽묘 10호(①전경(SW→NE), ②유물 노출후(NW→SE), ③조사후(NW→SE) ……	157-167
도판 36.	석곽묘 10호(①동장벽 축조상태, ②남단벽 축조상태, ③서장벽 축조상태, ④동장벽 묘광 토층, ⑤유물 출토상태, ⑥주구 토층, 116~118:출토유물) ……………	157-168
도판 37.	석곽묘 10호 출토유물(119~124), 석곽묘 11호(③유물 노출후(SW→NE), ④유물 출토상태, 125:출토유물) ……………	157-169
도판 38.	석곽묘 12~14호(①조사전(NE→SW), ②유물 노출후(SW→NE)) ……………	157-170
도판 39.	석곽묘 12호(①유물 노출후(NW→SE), ②조사후(NW→SE), ③남장벽 축조상태, ④서단벽 축조상태, ⑤동단벽 축조상태, ⑥북단벽 축조상태, ⑦석곽묘 12·13호 묘광 중복 상태, ⑧유물 출토상태) ……………	157-171
도판 40.	석곽묘 12호 출토유물1 ……………	157-172

- 도판 41. 석곽묘 13호(①유물 노출후(SW→NE), ②조사후(SW→NE), ③북장벽 축조상태) … 157-173
- 도판 42. 석곽묘 13호(①남장벽 축조상태, ②서단벽 축조상태, ③북서 모서리 축조상태,
④남장벽 묘광 토층, ⑤~⑧유물 출토상태) … 157-174
- 도판 43. 석곽묘 13호 출토유물1 … 157-175
- 도판 44. 석곽묘 14호(①유물 노출후(N→S), ②서장벽 축조상태, ③남단벽 축조상태, ④바닥
축조상태, ⑤⑥유물 출토상태, 143~147:출토유물) … 157-176
- 도판 45. 구상유구 1호(①조사전(SW→NE), ②조사후(SW→NE), ③토층, 구상유구 2호
(④조사전(항공사진)) … 157-177
- 도판 46. 구상유구 2호(①조사후(항공사진), ②동쪽 토층, ③서쪽 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148:출토유물, 수혈유구(⑤조사전(항공사진), ⑥조사후(S→W)) … 157-178

I. 조사개요

본 조사대상지(710㎡)는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1002번지로 사업시행자 김홍식씨의 농·어업시설 신축부지이다. 조사 경위 및 경과를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농·어업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창녕군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창녕군은 신청지가 ‘초곡리 소장미 마을 고분군’¹⁾ 표기지역 내이므로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령 규정에 따라 문화재조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되어야 할 사항임을 통보하였다.

이에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가 소규모 국비지원 대상에 해당됨을 창녕군을 통하여 확인하고, 2017년 7월 27일에 본 재단에 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본 재단에서는 2017년 8월 31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9월 10일에 현장조사일수 4일에 대한 문화재청의 허가(제2017-1170호)를 받았다. 시굴조사는 2017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현장조사일수 3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트렌치 3개소에서 삼국시대 와질토기 및 도질토기가 확인되는 추정 목곽묘 3기·석곽묘 5기·추정 옹관묘 1기·수혈유구 7기 및 시대미상 구상유구 1기 등 총 17기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체 시굴조사 범위(1,222㎡)²⁾ 중 원지형이 훼손되어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북동쪽과 남서쪽 경계부 면적 512㎡를 제외한 710㎡에 대한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³⁾

이후, 본 재단에서는 2017년 9월 29일에 사업시행자에게 발굴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12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장조사일수 30일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 발굴조사는 10월 25일에 착수하였으며, 조사결과, 원삼국~삼국시대 목곽묘 10기와 옹관묘 2기·석곽묘 14기·구상유구 2기·수혈유구 1기 등 총 29기가 확인되었다.

2017년 11월 22일에 개최한 학술자문회의⁴⁾에서는 창녕지역에서 가야시대 목곽묘가 처음으로 확인된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유구들이 입지한 원지형을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석곽묘는 해체조사 후 하부에 목곽묘가 유존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후, 본 조사단에서는 학술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석곽묘의 해체조사 및 추가적인 목곽묘 유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유적 보존여부 판단을 위한 문화재청 전문가검토회의를 요청하였다. 2017년 12월 15일 개최된 전문가검토회의⁵⁾에서는 석곽묘 주구의 형태 재확인 등 보충조사 후 기록 보존하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1) 昌寧郡·東亞文化研究院,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昌寧郡－』.

2) 당초 사업면적(1,438㎡) 중 민묘가 조성되어 조사 및 개발이 불가능한 북동쪽 부지를 제외한 1,222㎡에 대한 면적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였다.

3) 한국문화재단, 2017, 「창녕 초곡리 1002번지 농·어업시설 신축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식보고서」.

4) 학술자문회의 자문위원 : 이희준(경북대학교 교수), 김수남(홍익문화재연구원 원장).

5) 전문가검토위원 : 박광춘(동아대학교 교수), 조영제(경상대학교 박물관장), 이동희(인제대학교 교수).

이에 조사단에서는 보충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 12월 15일(현장조사일수 30일)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시굴조사	발굴조사
조 사 단 장	박 종 섭(조사연구실장)	박 종 섭(문화재조사연구단장)
책임조사원	박 무 식(조사연구1팀 부팀장)	박 무 식(조사연구1팀 부팀장)
조 사 원	이 도 현(조사연구1팀 연구원)	하 혜 진(조사연구1팀 연구원)
준 조 사 원	신 동 민(조사연구1팀 연구원)	신 동 민(조사연구1팀 연구원)
보 조 원	문 준 호(조사연구1팀 연구원)	문 준 호(조사연구1팀 연구원)

*()는 조사당시 직명임.

발굴조사 후 보고서 작업은 다음과 같이 분담하여 진행하였다.

유물정리 및 복원, 실측, 도면 일러스트작업은 강성귀 책임 하에 백은주, 박아림, 김유정, 이영호, 윤영경, 김은희, 김정애, 이정숙 등 본 재단 연구원이 분담하여 작성하였다. 도면 및 도판편집은 강성귀, 하혜진, 황도담이 담당하였으며, 유물의 사진은 이재영(스카이뷰)이 촬영하였다.

원고는 박종섭 책임 하에 I ~ II장 하혜진, III장 하혜진(조사내용 및 유구) · 강성귀 · 하혜진(유물), IV장 신동민이 작성하였으며, 교정 및 교열은 박무식 · 노재민 · 박종섭이 하였다.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1002번지에 해당하며, 경·위도상 동경 128° 24'23.97", 북위 35° 34'34.43"에 위치한다. 창녕군 이방면사무소에서 우포늪 방향으로 우포 2로를 따라 1.2km 정도 진행하면 좌측에 형성된 우만 마을의 동쪽 끝, 산지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는 북고남저의 남서 사면부에 위치한다. 민묘 및 수목이 남아 금번 발굴조사에서 제외된 북동쪽 구간의 남쪽은 절토되어 2~2.5m 정도 높이로 단애면이 형성되어 있으며, 소로 및 경작지와 경계를 이루는 부지 남쪽 경계부에는 원지형을 절토한 후 옹벽을 설치한 상태였다.

자연·지리적으로 조사대상지는 북동쪽에 위치한 구룡산(해발 208m)에서 남서쪽으로 뻗어내린 구룡의 남쪽 사면부인 해발 31~35m 정도에 위치한다. 서쪽으로 300m 정도 떨어져 초곡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초곡천은 낙동강 지류인 토평천과 합류하여 낙동강으로 흐르고 있다.

창녕군 이방면은 경상남도 창녕군 서북부에 위치한 면으로, 동쪽은 대합면(大合面), 남쪽은 유어면(遊漁面), 서쪽은 낙동강을 경계로 합천군과 의령군, 북쪽은 달성군과 접하고 있다. 대체로 200m 이하의 구룡성 산지를 이루며, 곳곳에 독지골산(해발 219m)·구룡산 등이 솟아 있다. 낙동강이 서쪽 경계를 따라 곡류하며, 평야는 낙동강과 그 지류연안을 따라 소규모로 발달했다.

역사적⁶⁾으로 창녕군 이방면은 삼국시대 비화가야의 일부지역이며, 1897년(고종34년)에 북부 7개리를 옥야면(沃野面), 남부 6개리를 이방면(梨房面)으로 구분하였으며, 1914년 창녕군 옥야면과 이방면을 통합하여 그대로 이방면이라 하였다. ‘이방(梨房)’은 배말리와 문방산(文房山)의 지명을 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輿地圖書』에 “이방면은 관문에서 40리, 어촌면은 15리 거리에 있다”라고 하였다. 두 지명은 『海東地圖』 이후부터 군현지도에 수록하고 있다. 초곡리는 이방면의 중동부로 안리 동쪽에 넓게 자리한 지역이다. 초곡의 동쪽은 대합면 대곡리, 내울리, 신당리, 주매리 등과 이어져 있다.

고고학적으로, 조사대상지는 문화유적분포지도 상 ‘초곡리 소장미 마을 고분군’⁷⁾ 분포범위 내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반경 1km 이내에는 매장문화재산포지 및 발굴조사된 유적이 없으며, 반경 1.5km 이내에 이방면 안리유물산포지 I·II⁸⁾가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된 유적으로는 서쪽으로 1.8km 정도 떨어져 건물지 관련유구가 확인된 ‘이방면 안리 850번지 유적’⁹⁾이 위치하는 등 대체로 매장문화재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다.

6) 역사적 환경은 昌寧郡誌編纂委員會, 2003, 『昌寧郡誌』上,를 참고하여 수정·가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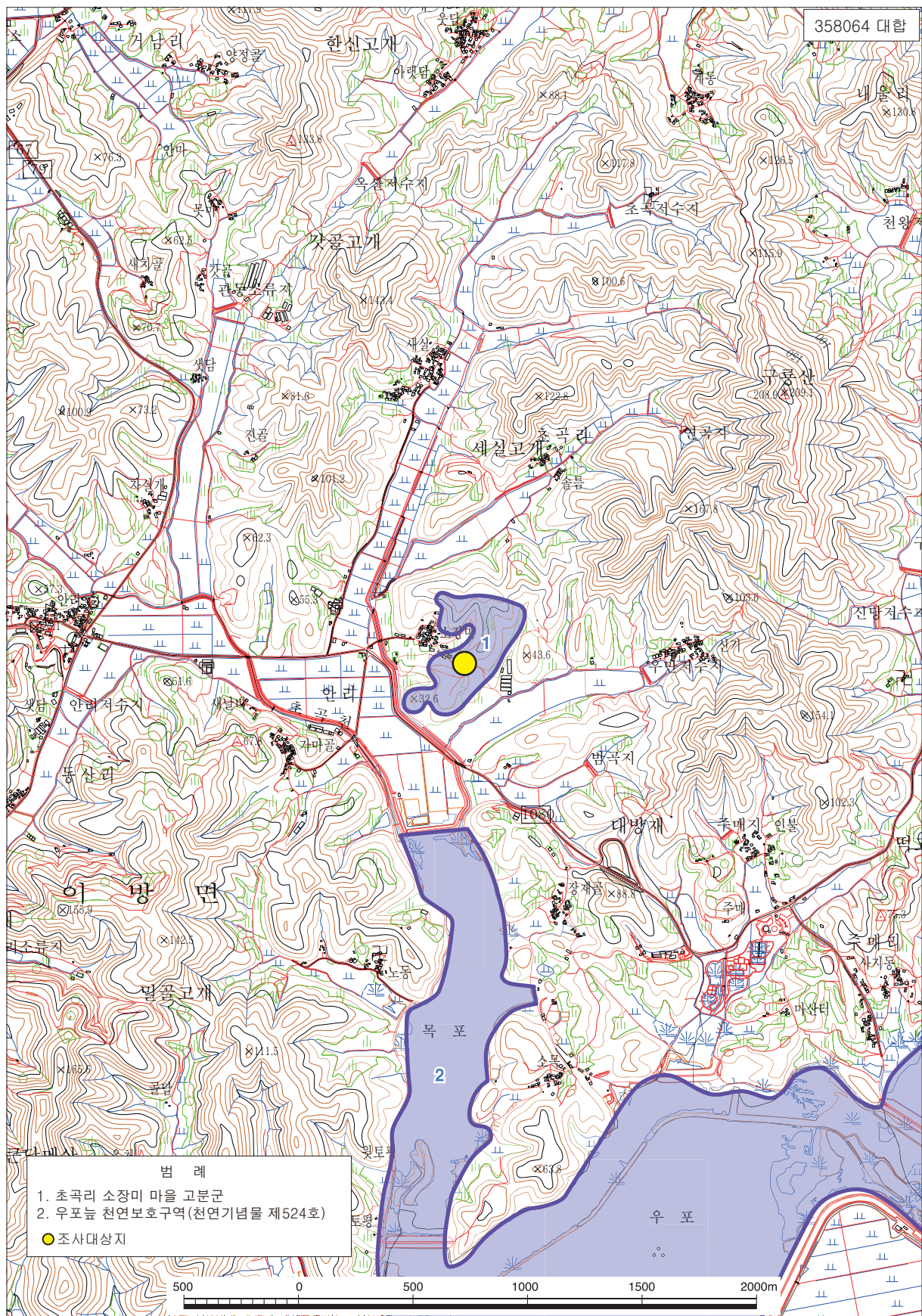
7) 東亞大學校博物館·昌寧郡,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昌寧郡(墳墓遺蹟)－』.

소장미마을에서 신기부락으로 들어가는 길 옆 야산의 북에서 남으로 뻗은 구룡의 사면에 약 10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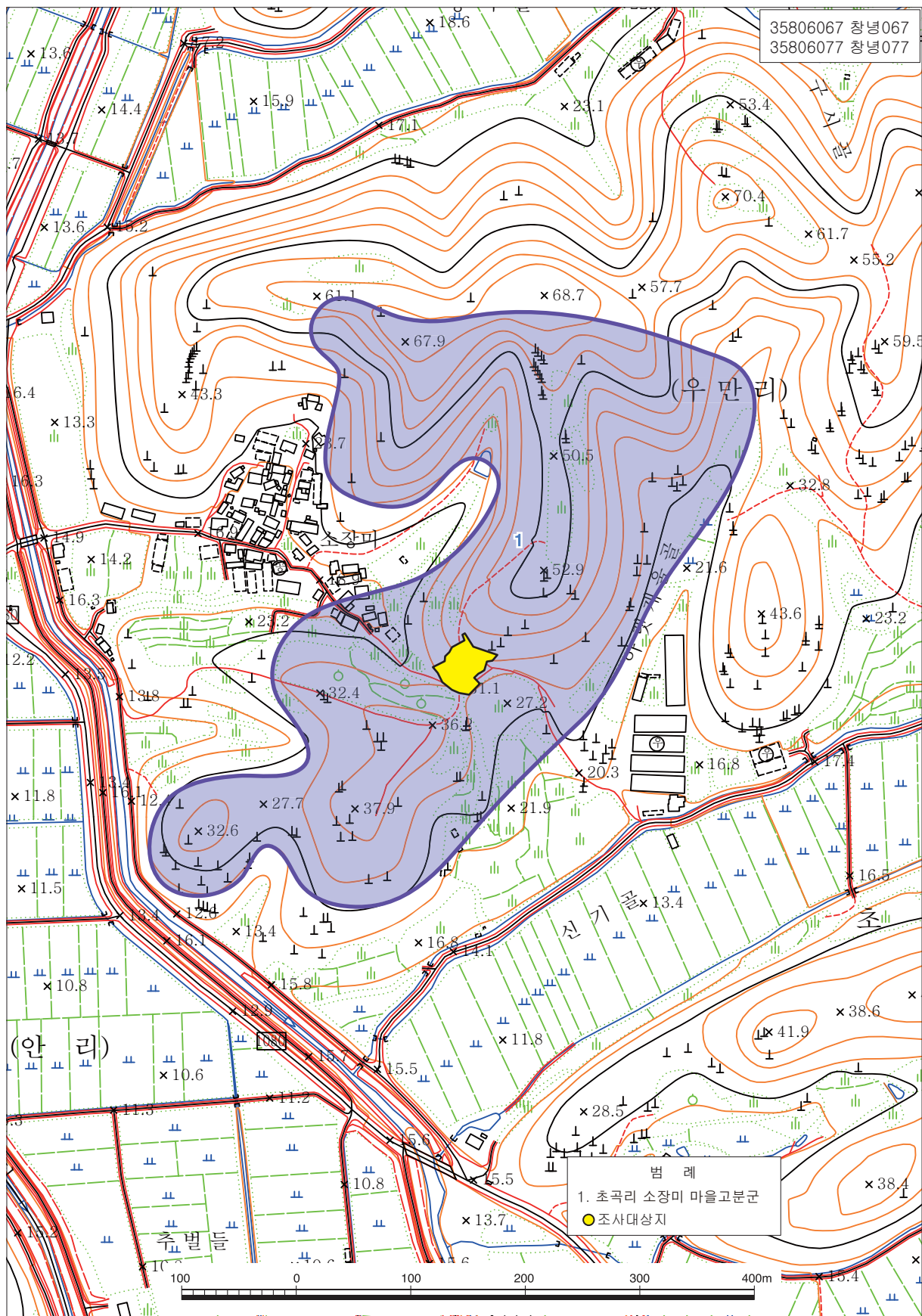
8) 昌寧郡·東亞文化研究院, 2005, 『文化遺蹟分布地圖－昌寧郡－』.

9) 동서문물연구원, 2008, 「창녕 산토끼노래마을 조성부지내 유적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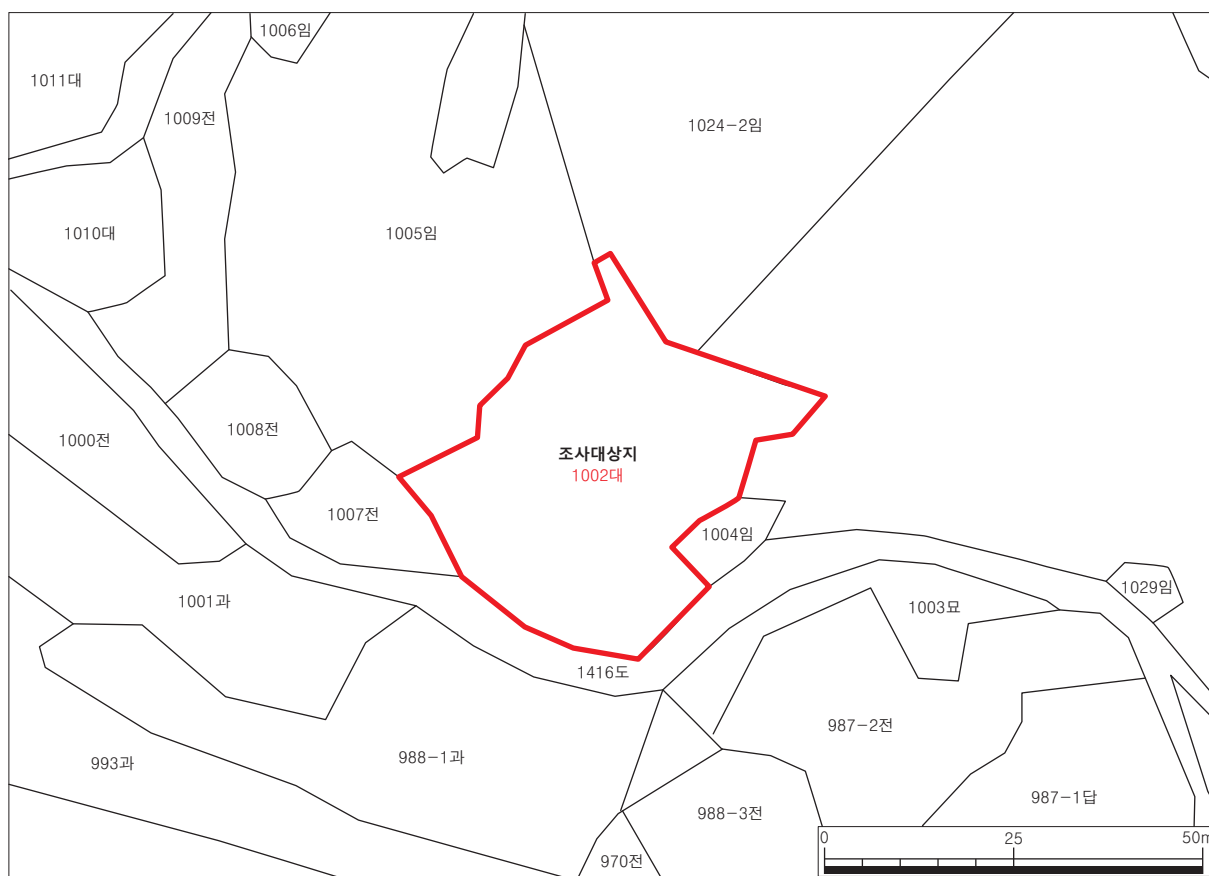
조사결과, 건물지의 적심으로 판단되는 적심 3개가 확인되어 수습조사를 실시하였다.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지형도(1:5,000)



도면 3. 조사대상지 지적도(1:1,000)

Ⅲ. 조사내용

1. 시굴조사

시굴조사를 위한 트렌치는 북고남저의 지형을 고려하여 등고선과 직교한 북동-남서 방향으로 4개소를 설치하였다. 트렌치 4는 확인된 유구의 정확한 평면형태 및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장벽의 남쪽을 길이 700cm, 너비 400cm 정도로 확장하여 조사하였다. 한편, 확장된 구간의 동쪽에서 석곽묘의 벽석으로 판단되는 석재가 표토상에서 확인되어 노출조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부지 남쪽 경계를 따라 옹벽이 설치된 구간에는 원지형의 삭평 정도 및 유구의 유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북동-남서 방향으로 트렌치 3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다.

【표 1】 시굴조사 트렌치 속성표

트렌치번호	규모(cm)			장축 방향	조사내용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1,340	200	5~52	북동-남서	유구 및 유물 없음	—
2	2,700	200	21~63	북동-남서	구상유구 1기, 수혈유구 2기	—
3	2,800	200	5~62	북동-남서	추정 목곽묘 1기, 추정 옹관묘 1기, 수혈유구 3기	—
4	트렌치	2,400	200	북동-남서	추정 목곽묘 2기, 석곽묘 5기, 수혈유구 2기	—
	확장부	700	400			—
5	300	140	12~85	북동-남서	삼국시대 경질토기편	—
6	360	100	10~133	북동-남서	유구 및 유물 없음	—
7	300	140	10~130	북동-남서	유구 및 유물 없음	—

조사결과, 원지형이 훼손된 조사대상지 북동쪽과, 남서쪽 경계부를 제외한 전면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표토하 30~50cm 정도의 풍화암반층 및 갈색 사질점토층에서 추정 목곽묘 3기, 추정 옹관묘 1기, 석곽묘 5기, 구상유구 1기, 수혈유구 7기 등 총 17기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정밀발굴조사는 전체 시굴조사 범위(1,222m²)¹⁰⁾ 중 원지형이 훼손되어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북동쪽과 남서쪽 경계부 면적 512m²를 제외한 710m²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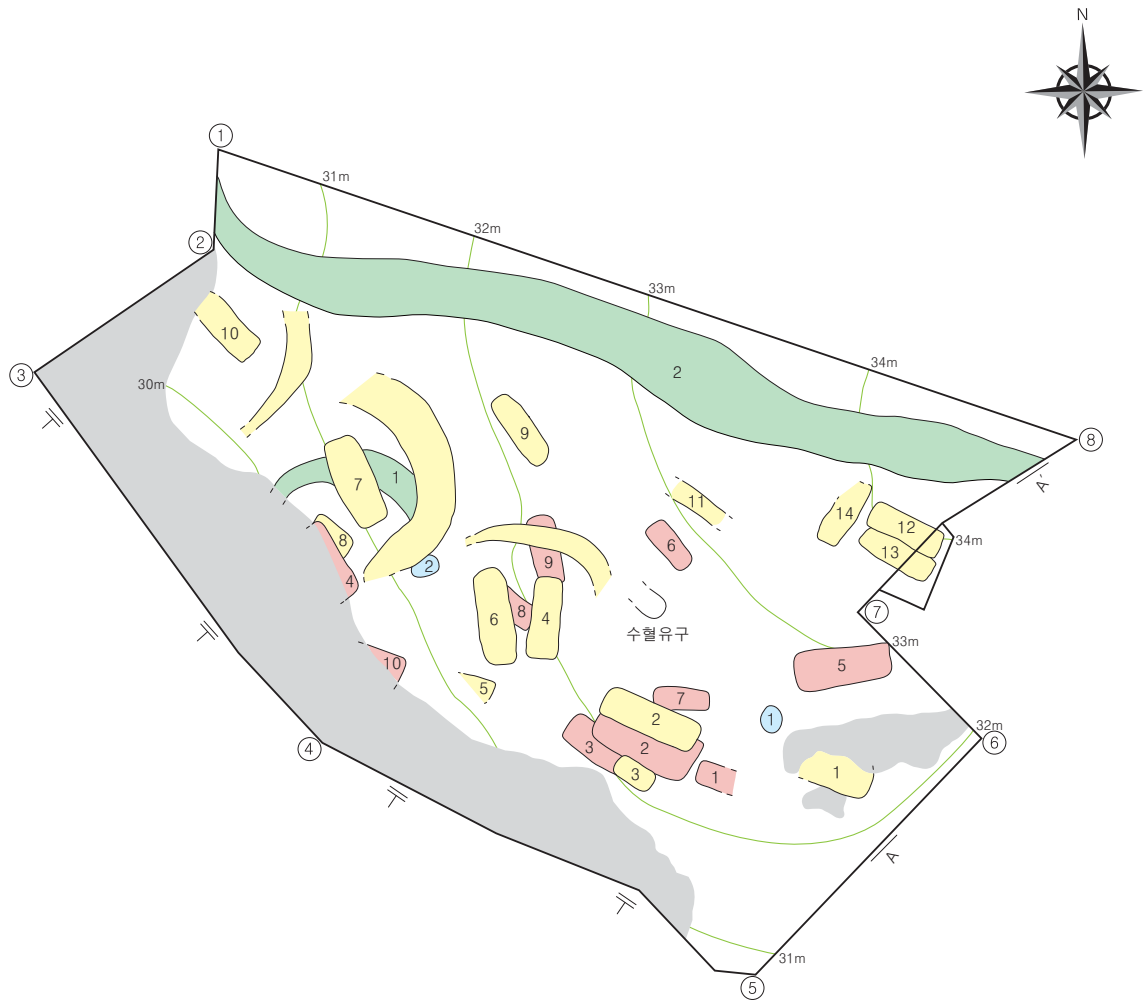
10) 당초 사업면적(1,438m²) 중 민묘가 조성되어 조사 및 개발이 불가한 북동쪽 부지를 제외한 1,222m²에 대한 면적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였다.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331187.962m	②	X	331220.632m	③	X	331219.265m
	Y	146239.822m		Y	146221.356m		Y	146218.798m
	Z	34.613m		Z	37.270m		Z	36.951m
⑤	X	331176.311m	⑥	X	331176.501m	⑦	X	331167.231m
	Y	146209.723m		Y	146204.011m		Y	146219.315m
	Z	30.075m		Z	28.012m		Z	29.610m
⑨	X	331176.158m	⑩	X	331181.205m	⑪	X	331191.243m
	Y	146235.827m		Y	146231.006m		Y	146198.328m
	Z	32.271m		Z	33.291m		Z	29.492m
⑬	X	331189.713m	⑭	X	331199.830m	⑮	X	331213.867m
	Y	146194.693m		Y	146205.852m		Y	146221.325m
	Z	27.603m		Z	30.737m		Z	36.245m
⑰	X	331199.84m	⑱	X	331204.791m	⑲	X	331185.584m
	Y	146211.562m		Y	146225.802m		Y	146206.601m
	Z	32.210m		Z	35.185m		Z	30.580m
④	X	331199.881m	⑧	X	331167.311m	⑫	X	331176.311m
	Y	146205.826m		Y	146224.695m		Y	146209.723m
	Z	30.888m		Z	30.473m		Z	30.075m
⑥	X	331176.311m	⑩	X	331176.311m	⑫	X	331176.311m
	Y	146224.695m		Y	146224.695m		Y	146209.723m
	Z	30.473m		Z	30.075m		Z	30.075m
⑧	X	331176.311m	⑩	X	331176.311m	⑫	X	331176.311m
	Y	146224.695m		Y	146224.695m		Y	146209.723m
	Z	30.473m		Z	30.075m		Z	30.075m
⑩	X	331176.311m	⑫	X	331176.311m	⑭	X	331176.311m
	Y	146224.695m		Y	146224.695m		Y	146209.723m
	Z	30.473m		Z	30.075m		Z	30.075m
⑫	X	331176.311m	⑭	X	331176.311m	⑯	X	331176.311m
	Y	146224.695m		Y	146224.695m		Y	146209.723m
	Z	30.473m		Z	30.075m		Z	30.075m
⑭	X	331176.311m	⑯	X	331176.311m	⑰	X	331176.311m
	Y	146224.695m		Y	146224.695m		Y	146209.723m
	Z	30.473m		Z	30.075m		Z	30.075m
⑰	X	331176.311m	⑱	X	331176.311m	㉑	X	331176.311m
	Y	146224.695m		Y	146224.695m		Y	146209.723m
	Z	30.473m		Z	30.075m		Z	30.075m

- : 추정목곽묘
- : 석곽묘
- : 추정옹관묘
- : 구상유구
- : 수혈유구
- : 발굴조사대상지
- : 사업대상지

도면 4. 시굴조사 트렌치 배치도



GPS 측점 제원표					
측점		TM 좌표	측점		TM 좌표
①	X	331199.881m	⑤	X	331167.311m
	Y	146205.826m		Y	146224.695m
	Z	30.888m		Z	30.473m
②	X	331176.311m	⑥	X	331176.158m
	Y	146209.723m		Y	146235.827m
	Z	30.075m		Z	32.271m
③	X	331191.243m	⑦	X	331181.205m
	Y	146198.328m		Y	146231.006m
	Z	29.492m		Z	33.291m
④	X	331176.311m	⑧	X	331187.962m
	Y	146209.723m		Y	146239.822m
	Z	30.075m		Z	34.613m

- 목곽묘
- 석곽묘
- 옹관묘
- 구상유구
- 수혈유구
- 교란



도면 5. 유구분포도

2. 발굴조사

제토는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표토하 30~50cm 정도의 삼국시대 문화층(갈색 사질점토층, 생토층) 상면을 중심으로 전면 실시하였다. 먼저, 굴삭기를 이용한 기계 제토를 실시하고 수작업으로 유구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지 동쪽 경계부 밖으로 석곽묘 일부가 이어지고 있어 경계부 밖으로 1m 정도 확장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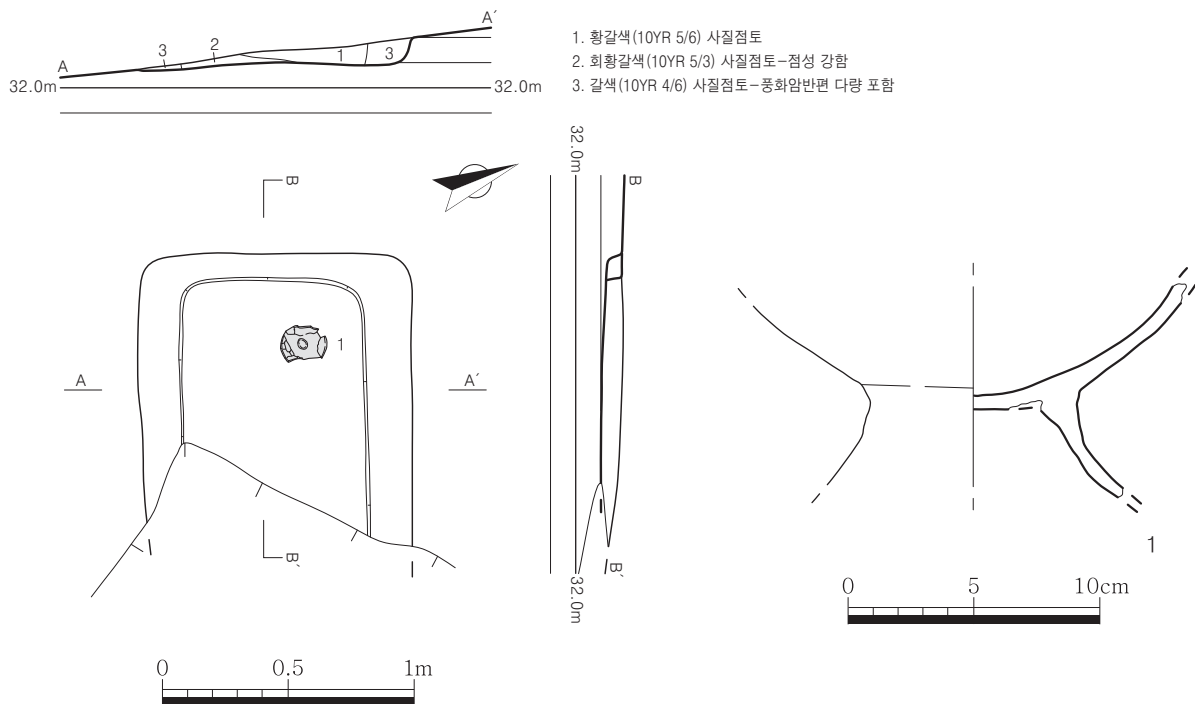
【표 2】 조사대상지 토층(남쪽)

	1층 :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	표토층 (두께 0~30cm 정도)
	2층 : 갈색(10YR 4/6) 사질점토 - 풍화암반편 다량 혼입 두께 15~45cm	자연퇴적층 (원삼국~삼국시대 문화층, 표토하 0~30cm)
	3층 : 황갈색(10YR 5/6) 풍화암반층	생토층 (원삼국~삼국시대 문화층, 표토하 30~50cm)

조사대상지의 토층 퇴적양상은 조사대상지 북쪽 및 중앙부와 남쪽이 다르게 확인되었다. 능선 상부인 북쪽 및 중앙부는 후대 경작 행위 등으로 인해 자연퇴적층이 삭평되어 표토층(1층)→생토층(3층) 순으로 확인되거나 생토층이 지표상에 바로 노출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능선 하부인 남쪽은 표토층(1층)→자연퇴적층(2층)→생토층(3층)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토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층으로 다량의 풍화암반편 및 나무뿌리와 쓰레기가 혼입되어 있었다. 자연퇴적층은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갈색 사질점토층으로 30~45cm 정도의 두께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의 동쪽에서는 지표상에 바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양상이다. 생토층은 표토하 50cm 정도에서 확인된 황갈색 풍화암반층이다. 조사대상지의 북쪽은 지표상에 바로 노출되어 있었다. 유구는 중앙부와 북쪽은 풍화암반층에서, 남쪽은 자연퇴적층과 풍화암반층에서 원삼국~삼국시대 고분과 구상유구,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1) 목곽묘

해발 30.0~33.0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지 남동쪽에서 4기, 북동쪽에서 1기, 중앙에서 3기, 남서쪽에서 2기가 확인되었다. 목곽묘 5호와 6호를 제외한 대부분은 석곽묘에 의해 일부 파괴되었다. 장축방향은 등고선 방향과 나란한 동-서향 또는 남-북향, 북서-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도면 6. 목곽묘 1호 및 출토유물

(1) 목곽묘 1호

가. 유구(도면 6, 도판 4)

조사대상지 남동쪽, 해발 32.2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북서쪽에 인접하여 목곽묘 2·3·7호가 위치한다. 유구의 동쪽은 후대에 파괴되어 서쪽 일부만 남아있으며, 유물이 지표상에 노출된 상태였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67°-W)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115cm, 너비 109cm, 깊이 10cm 정도이다. 내부에는 황갈색 사질점토와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목곽과 묘광 사이는 풍화암반면이 다량 혼입된 갈색 사질점토로 충전하였다. 충전토의 범위를 통해 볼 때 목곽의 크기는 잔존길이 95cm, 너비 74cm 정도이다. 바닥은 생토층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서단벽쪽에서 대부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 대부호(도면 6-1, 도판 4-1)

동체부 하위와 대각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와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황색(2.5Y 6/3), 속심은

회황색(2.5Y 6/2)이다. 표면의 마모가 심하여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기고 8.9cm

(2) 목곽묘 2호

가. 유구(도면 7, 도판 5)

조사대상지 남동쪽, 해발 32.2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목곽묘 3호의 북장벽 상부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되었으나, 북장벽은 석곽묘 2호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북서-남동(N-64°-W)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02cm, 잔존너비 186cm, 깊이 21cm 정도이며, 장단비는 2.2:1이다. 충전토의 범위를 통해 볼 때 목곽의 크기는 길이 350cm, 잔존너비 130cm 정도이다. 내부에는 상부에서부터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명갈색 사질점토, 명적갈색 사질점토, 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어 있었다. 목곽과 묘광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명적갈색 사질점토로 충전하였다. 바닥은 평평하며,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유물은 총 19점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서단벽쪽에 부장하였다. 서단벽쪽에서 양이부호 1점과 대부호 3점, 호 저부편 1점 등 5점이 출토되었다. 이 외 첨저용 1점이 북장벽 중앙부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는데, 목개 상부에 매납된 유물로 바닥면까지 함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철기류는 주로 묘광의 동쪽 바닥면에서 ‘/’자상으로 출토되었다. 철모 3점과 철부 2점, 철촉 5점, 철검과 도자 각 1점씩 등 12점이 출토되었으며, 철착 1점은 서단벽과 가까운 바닥면에서 출토되었다.

나. 유물

2. 대부호(도면 8-2, 도판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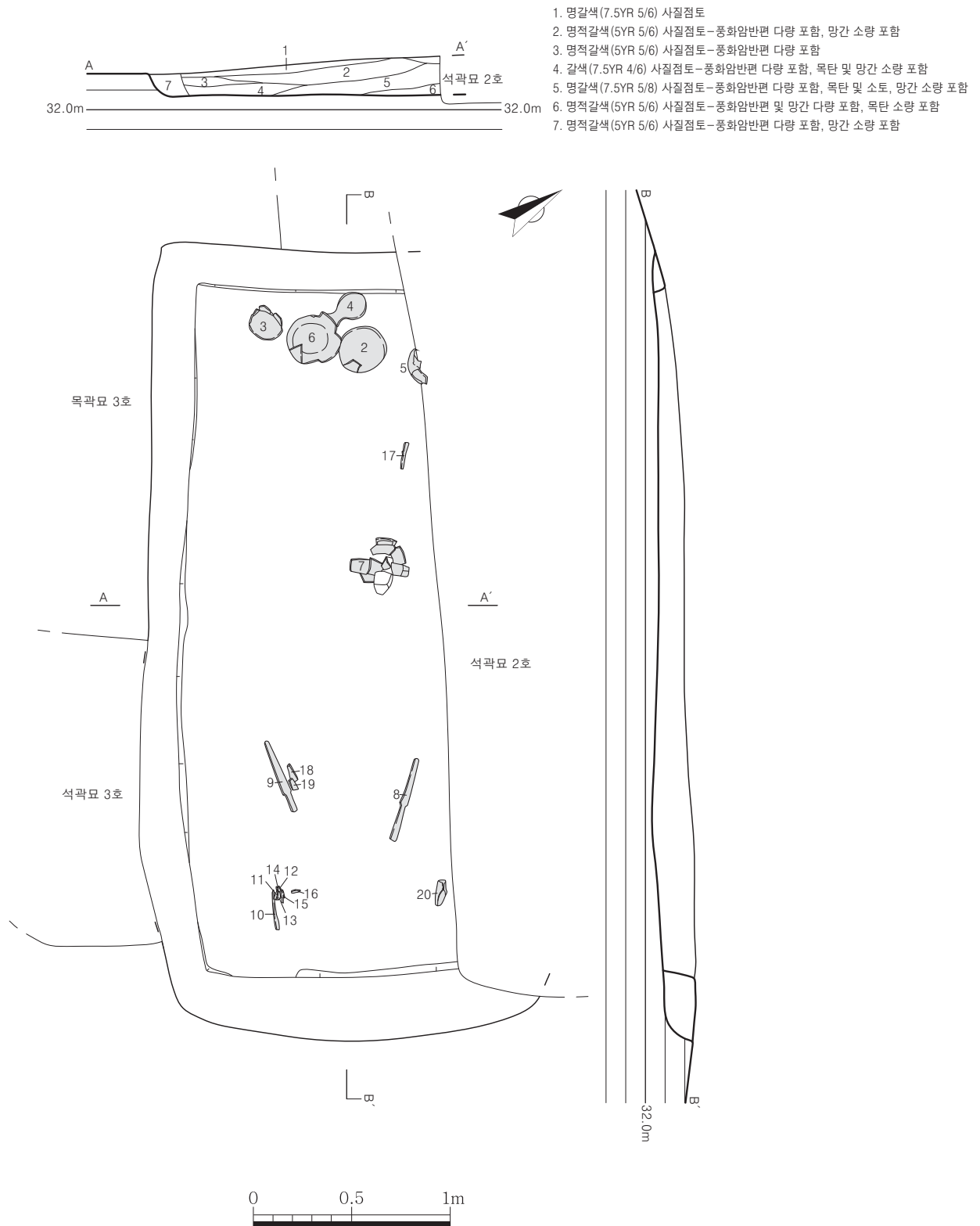
동체부만 잔존한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등색(7.5YR 6/4)이다. 동체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격자문 타날하였으며, 동체부 중상위에는 위에서부터 4조, 3조, 3조의 횡침선을 돌렸다. 동체부 하위에서 대각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20.4cm, 동최대경 20.7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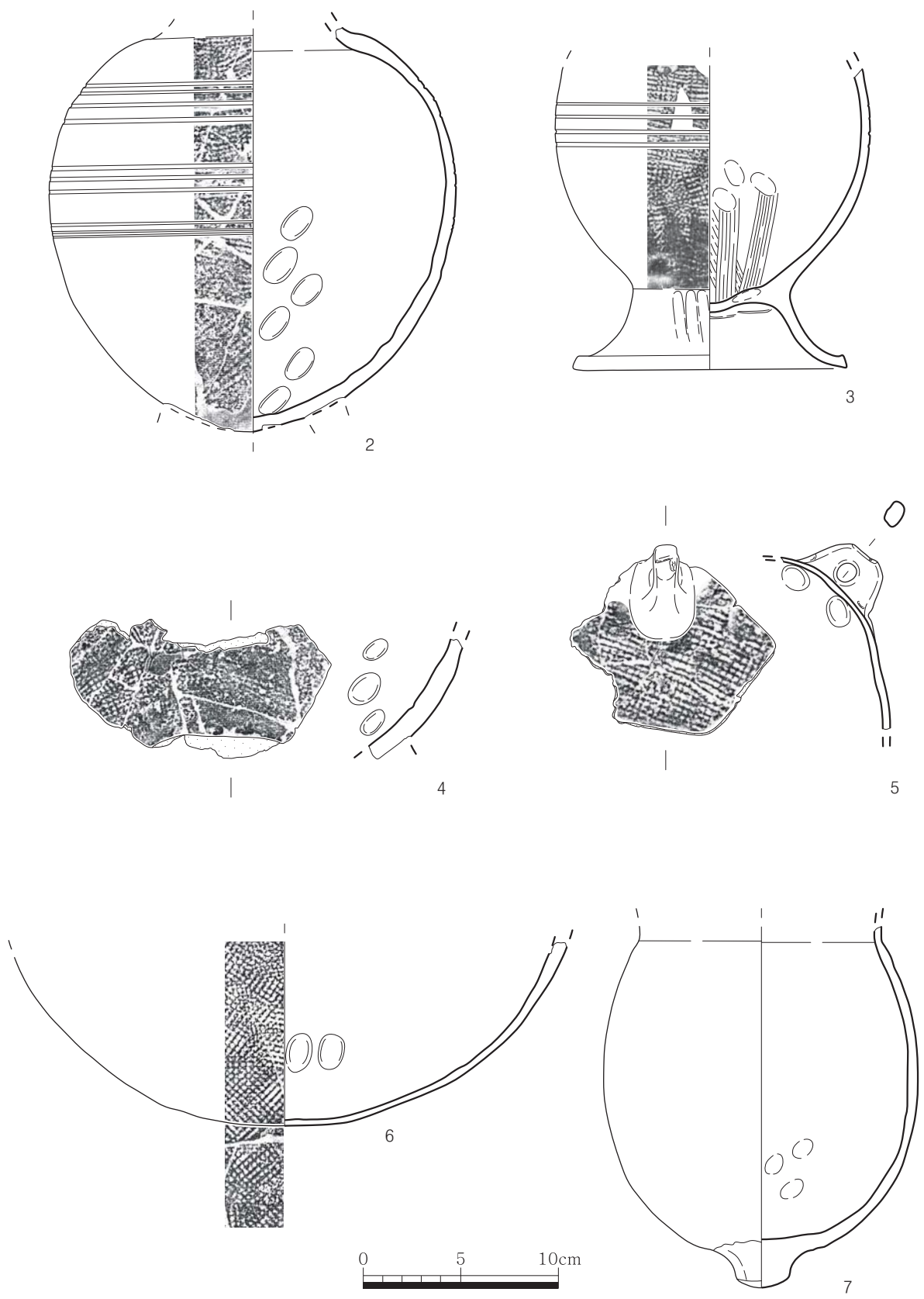
3. 대부호(도면 8-3, 도판 6-3)

동체부 일부와 대각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6/1), 속심은 회색(N 5/)이다. 동체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격자문 타날 후, 중위에 4조의 침선을 돌렸다. 동체부 하위는 대각 접합 후 종방향으로 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외면은 도구로 조정한 후,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5.5cm, 동최대경 16.1cm, 저경 14.0cm



도면 7. 목곽묘 2호



도면 8. 목각묘 2호 출토유물1

4. 대부호편(도면 8-4, 도판 6-4)

동체부 하위만 잔존한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등색(7.5YR 6/6)이다. 동체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격자문 타날하였다. 동체부 하위에서 대각이 떨어져 나간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6.1cm

5. 양이부호편(도면 8-5, 도판 6-5)

동체부와 이(耳)만 잔존한다. 와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등색(10YR 6/4)이다. 동체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외면은 격자문 타날하였다. 이(耳)의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원형의 투공을 뚫었다.

잔존기고 9.4cm

6. 호 저부편(도면 8-6, 도판 6-6)

호 저부만 잔존한다. 와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황색(2.5Y 6/2), 속심은 황회색(2.5Y 5/1)이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격자문 타날하였다.

잔존기고 9.7cm

7. 첨저웅(도면 8-7, 도판 6-7)

동체부 상위와 저부가 분리되어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등색(7.5R 6/6)에 가깝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외면에서 타날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저부 외면에는 뉴를 부착하여 돌출시켰고,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18.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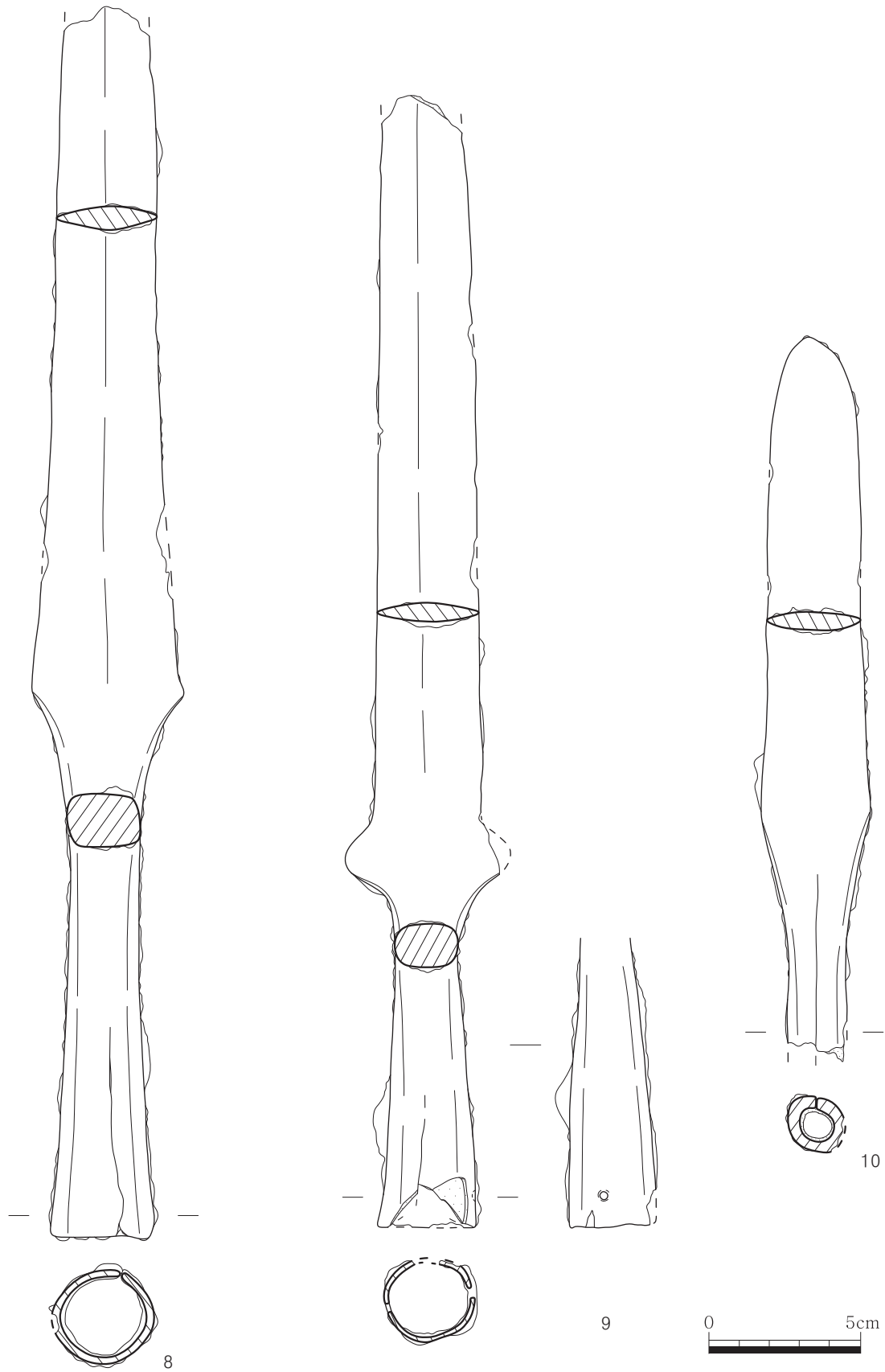
8. 철모(도면 9-8, 도판 6-8)

단조품으로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봉부는 공부에 비해 긴 편이며, 단면형태는 중앙에 약하게 능이형성되어 있는 능형이다. 관부는 신부에서 넓어져 둔각으로 꺾여 공부와 연결된다. 공부는 단면형태 원형으로 말아 단접하였으며, 공부 상위의 단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을 이룬다.

잔존길이 40.5cm, 신부너비 3.7cm, 신부두께 0.9cm, 공부외경 3.1×3.1cm, 중량 538.0g

9. 철모(도면 9-9, 도판 6-9)

단조품으로 공부 일부와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봉부는 공부에 비해 긴 편이며, 중앙에 약하게 능이형성되어 있어 단면형태는 능형이다. 관부는 삼각형으로 돌출되었으며, 공부는 단면형태 원형으로 말



도면 9. 목각묘 2호 출토유물2

아 단접하였으며, 공부 상위는 단면형태 말각장방형을 이룬다. 공부 양 측면에는 자루를 고정하기 위해 박았던 못 구멍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37.1cm, 신부너비 3.5cm, 신부두께 0.7cm, 공부외경 2.9×2.4 cm, 중량 322.0g

10. 철모(도면 9-10, 도판 6-10)

단조품으로 공부 말단이 결실되었다. 봉부는 짧은 편이며, 단면형태는 볼록렌즈형이다. 관부는 둔각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공부로 이어지고, 잔존하는 공부는 단면형태 원형으로 말아 단접하였다.

잔존길이 23.8cm, 신부너비 2.1cm, 공부외경 1.8×2.0 cm, 중량 196.8g

11. 유경식 철촉(도면 10-11, 도판 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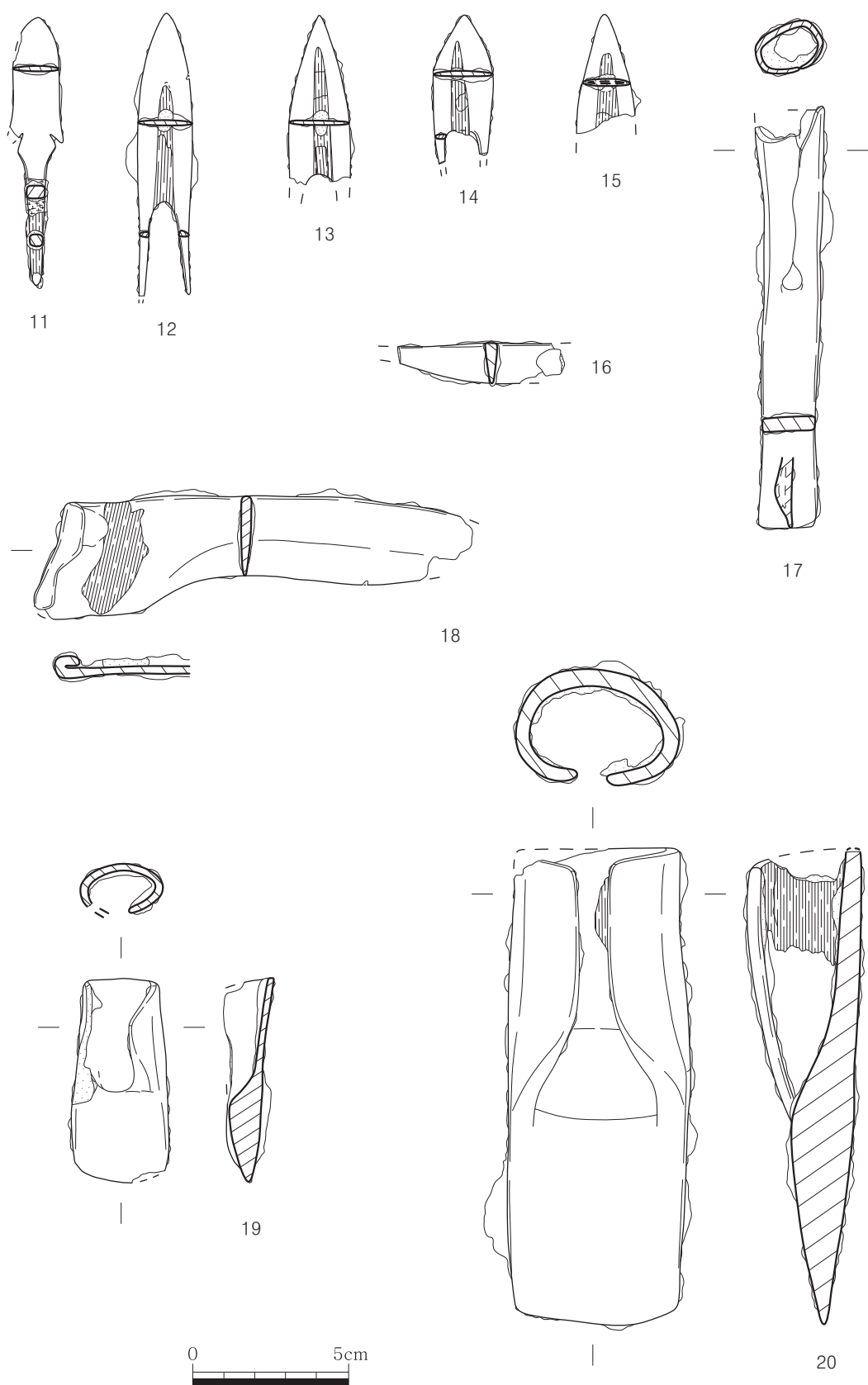
단조품으로 신부 하단의 양쪽 말단을 짧게 올려내어 자를 형성한 역자형이다. 표면에 녹이 수착되어 있으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세장한 볼록렌즈형이다. 頸部の 평면형태는 마름모형이며, 莖部는 화살대 목질흔과 수피흔이 확인된다.

길이 8.7cm, 두부너비 1.5cm, 두부두께 0.15cm, 莖部두께 0.4cm, 중량 8.9g

12~15. 무경식 철촉

무경식 역자형 철촉 4점이 출토되었다. 표면에 녹이 수착되어 있으나 잔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신부 선단부 가까이까지 화살대의 목질이 확인된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세장한 볼록렌즈형이고, 刺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다.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중량 (g)	특 징
			길이 (잔존)	촉두 너비	촉두 두께		
12	10-12	7-12	9.0	1.8	0.2	10.8	한쪽 刺의 말단 결실, 완형에 가까움. 두부 화살대 목질흔 두껍게 잔존. 단면형태는 신부 세장한 볼록렌즈형, 刺는 이등변삼각형.
13	10-13	7-13	(5.5)	2.0	0.15	5.9	양쪽 刺 결실. 신부는 화살대 목질흔 두껍게 잔존.
14	10-14	7-14	(4.8)	1.9	0.2	5.9	양쪽 刺 말단 결실. 신부와 刺가 짧음. 두부 화살대 목질흔 잔존.
15	10-15	7-15	(3.8)	1.8	0.2	3.2	신부의 일부만 잔존. 녹혹 발생으로 단면이 두툼함. 화살대 목질흔 잔존.



도면 10. 목곽묘 2호 출토유물3

16. 도자편(도면 10-16, 도판 7-16)

단조품으로 신부의 일부만 잔존한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다.

잔존길이 5.3cm, 신부너비 1.3cm, 신부두께 0.4cm, 중량 7.7g

17. 철착(도면 10-17, 도판 7-17)

단조품으로 공부 말단이 결실되었다. 공부는 단면형태 말각장방형으로 말아 단접하였다. 신부는 일정한 두께와 너비를 유지하다가 인부를 형성하였다. 인부는 직선적이며, 녹혹으로 부풀어 있다.

길이 12.9cm, 인부너비 2.0cm, 공부외경 2.2×1.6 cm, 중량 65.6g

18. 철검(도면 10-18, 도판 7-18)

단조품으로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기부는 ‘ㄷ’자형으로 꺾여 있으며, 자루는 목질흔이 종방향으로 잔존한다. 기부에서 둔각으로 부드럽게 꺾여 인부로 이어져 폭이 좁아진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중위에서부터 마연하여 세장한 오각형을 이룬다.

잔존길이 14.0cm, 기부너비 3.6cm, 신부너비 2.6cm, 신부두께 0.4cm, 중량 57.0g

19. 철부(도면 10-19, 도판 7-19)

소형의 철부로 단조품이다. 인부 및 공부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표면의 일부는 녹혹이 발생하여 부풀어 있다. 인부는 호상을 이루며, 공부는 단면형태 타원형으로 말아놓았다.

길이 6.5cm, 인부너비 3.0cm, 공부외경 2.7×1.5 cm, 중량 45.8g

20. 철부(도면 10-20, 도판 7-20)

단조품으로 공부의 말단이 결실되었으며, 표면의 일부는 부식되어 겹겹이 갈라짐이 확인된다. 인부는 약한 호상을 이루며, 공부는 단면형태 타원형으로 말아놓았다. 공부 내면에는 자루 목질흔이 잔존한다.

길이 15.4cm, 인부너비 5.2cm, 공부외경 5.2×3.7 cm, 중량 650.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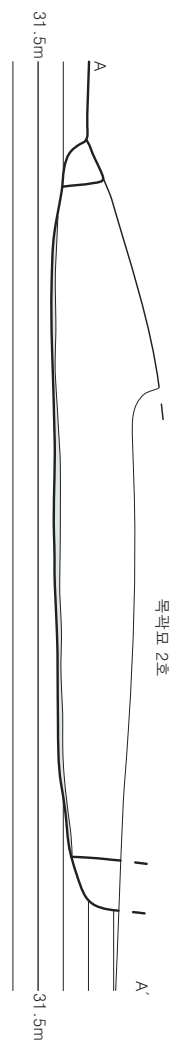
(3) 목곽묘 3호

가. 유구(도면 11, 도판 5·8)

조사대상지 남동쪽, 해발 32.0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북장벽 상부는 목곽묘 2호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동단벽 상부는 석곽묘 3호에 의해 파괴되었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53^{\circ}-W$)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07cm, 너비 134cm, 깊이 41cm 정도이며, 장단비는 2.3:1이다. 충전토의 범위를 통해 볼 때 목곽의 크기는 길이 271cm, 너비 88cm 정도이다. 내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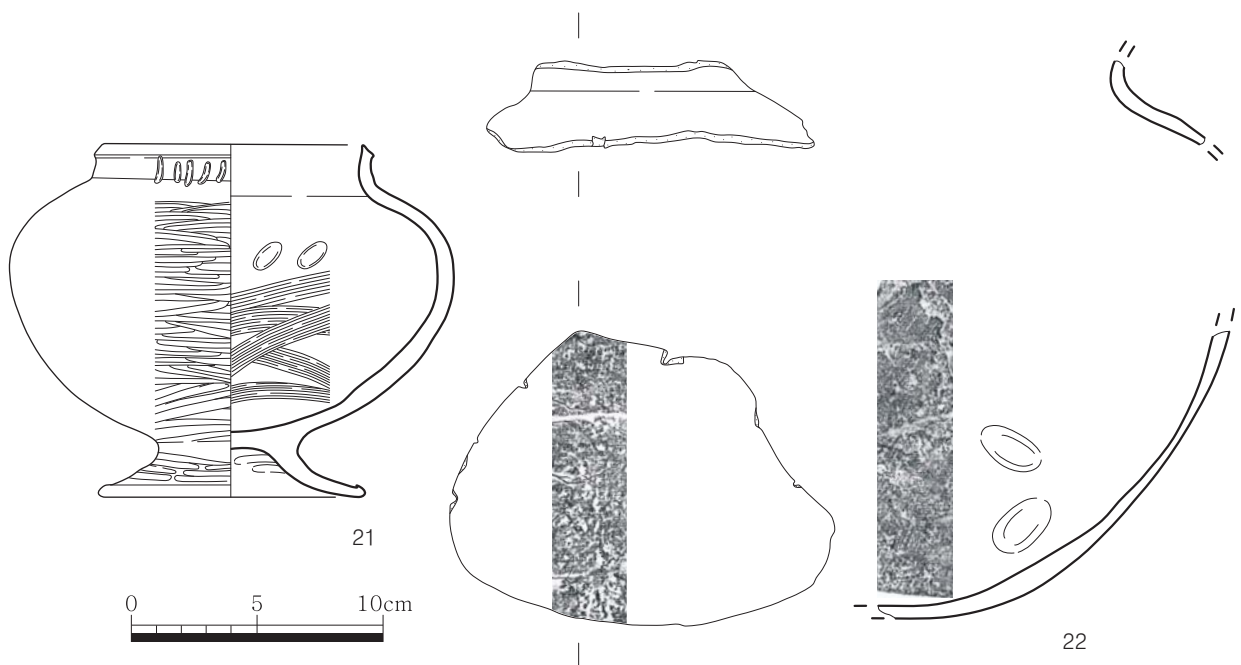
-



157-32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명갈색 점질토와 회황갈색 점질토 등이 퇴적되었다. 목곽과 묘광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명갈색 점질토와 갈색 점질토, 회갈색 점질토로 충전하였다. 바닥은 평평하며, 목곽이 부식된 흔적으로 판단되는 회황갈색 점질토가 3~5cm 정도의 두께로 바닥면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동단벽쪽에서 두께가 5cm 정도의 목곽흔이 ‘ㄱ’자형으로 확인되었다.

유물은 총 2점이 출토되었다. 서단벽쪽 바닥에서 단경호 1점, 북서쪽 바닥에서 목개 상부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대부직구호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2. 목곽묘 3호 출토유물

나. 유물

21. 대부직구호(도면 12-21, 도판 8-21)

구연부와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구경부 및 동체부 내외면과 속심의 색조는 갈회색(7.5YR 4/1), 대각의 내외면과 속심의 색조는 회황색(2.5Y 6/2)이다. 구경부의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외면에서 종방향의 마흔흔이 등간격으로 확인된다. 동체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횡방향으

로 마연하였다. 대각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부분적으로 횡방향의 마연흔이 확인된다.

기고 14.0cm, 구경 10.2cm, 동최대경 17.6cm, 대각고 2.2cm, 저경 10.5cm

22. 단경호(도면 12-22, 도판 8-22)

구경부와 동체부 상위 일부 및 저부 일부가 분리되어 잔존한다. 와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황색(2.5Y 6/2), 속심은 등색(7.5YR 6/6)이다. 동체부 상위와 저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저부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저부 외면에서 타날흔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 동체부 상위 : 잔존기고 3.3cm
- 저부 : 잔존기고 11.3cm

(4) 목곽묘 4호

가. 유구(도면 13, 도판 9)

조사대상지 남쪽, 해발 30.7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남장벽쪽, 1/2 정도는 후대 교란으로 유실되었으며, 북장벽 상부는 석곽묘 8호에 의해 파괴되었다. 남동쪽으로 목곽묘 10호가 인접해 있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28°-W)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34cm, 잔존너비 75cm, 깊이 47cm 정도이며, 충전토의 범위를 통해 볼 때 목곽의 크기는 길이 285cm, 잔존너비 56cm 정도이다. 내부에는 상부에서부터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회갈색 사질점토와 명갈색 사질점토, 등색 사질점토, 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었다. 목곽과 묘광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회갈색 사질점토와 명갈색 사질점토, 등색 사질점토로 충전하였다. 바닥은 평평하며,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유물은 총 2점이 출토되었다. 중앙부에서 단경호 1점과 호 1점이 출토되었으며, 출토 위치 및 양상으로 볼 때, 목개 상부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유물

23. 단경호(도면 14-23, 도판 9-23)

구경부의 극히 일부와 동체부가 분리되어 잔존한다. 와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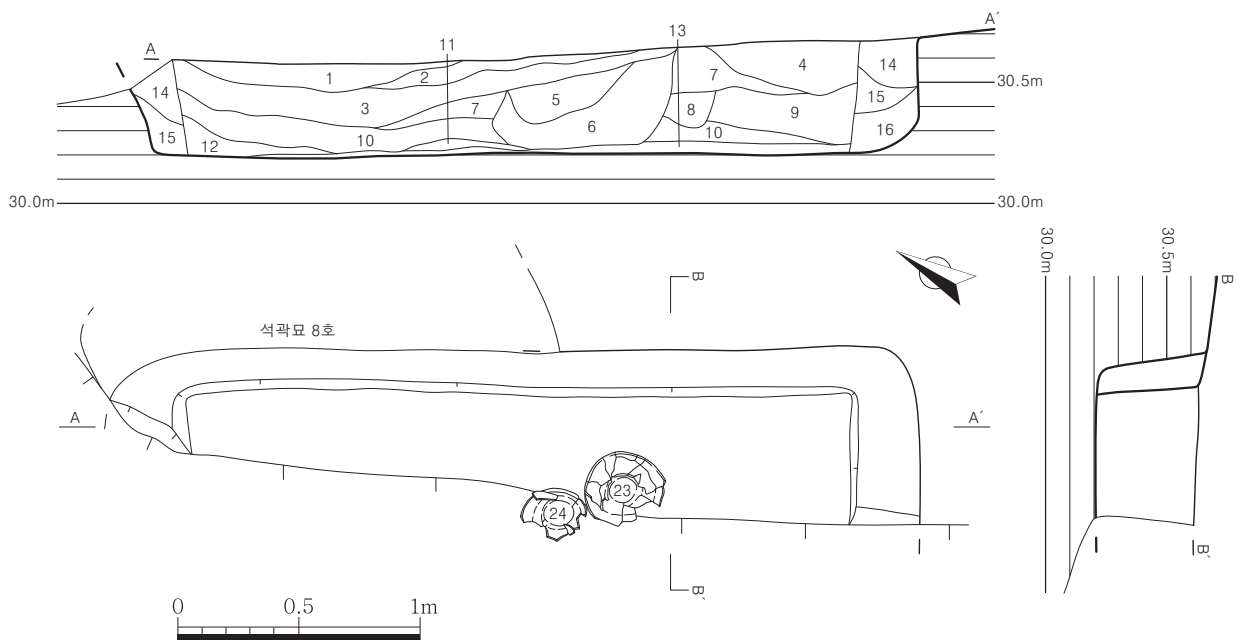
- 구경부 : 잔존기고 5.2cm
- 동체부 : 잔존기고 19.3cm, 동최대경 31.9cm

24. 호(도면 14-24, 도판 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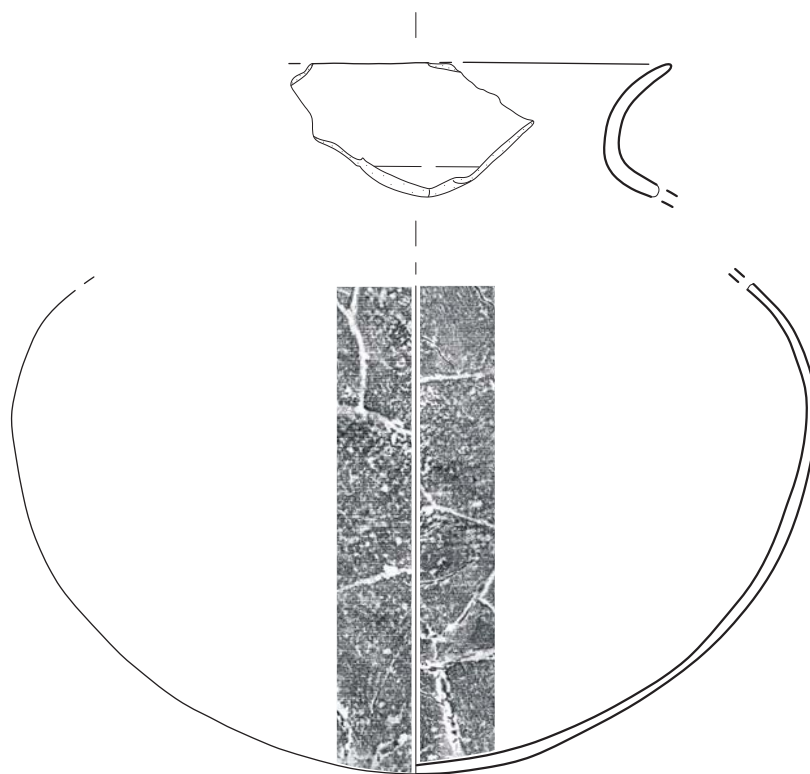
동체부 하위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와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이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외면은 격자문 타날하였다.

잔존기고 17.4cm, 동최대경 28.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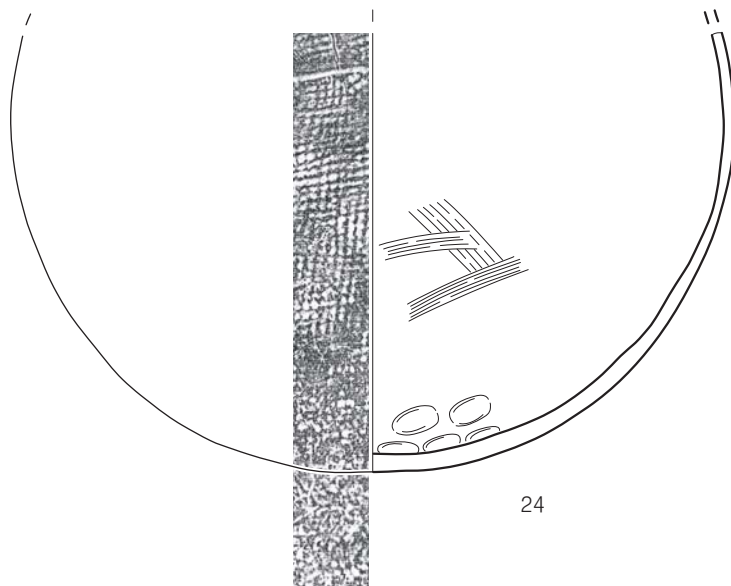
1. 회갈색(7.5YR 5/4)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다량 포함, 소토 및 목탄 소량 포함
2.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다량 포함
3. 명갈색(7.5YR 5/8)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다량 포함, 소토 및 목탄 소량 포함
4. 등색(7.5YR 6/6)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다량 포함
5. 갈색(7.5YR 4/4)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및 망간 다량 포함
6.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다량 포함, 망간 소량 포함
7. 회갈색(7.5YR 5/4)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다량 포함
8. 등색(7.5YR 6/6)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및 망간 소량 포함
9.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다량 포함, 망간 소량 포함
10. 갈색(7.5YR 4/6)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다량 포함
11. 갈색(7.5YR 4/4)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다량 포함, 망간 소량 포함
12.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및 목탄 소량 포함
13. 명갈색(7.5YR 5/6)+암갈색(7.5YR 3/4) 사질점토-점성 강함
14. 회갈색(7.5YR 5/4)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다량 포함, 망간 소량 포함
15.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풍화암반편 다량 포함
16. 등색(7.5YR 6/6) 사질점토-풍화암반편 소량 포함, 점성 강함



도면 13. 목곽묘 4호



23



24



도면 14. 목곽묘 4호 출토유물

(5) 목곽묘 5호

가. 유구(도면 15, 도판 10·11)

조사대상지 동쪽, 해발 32.9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남쪽에는 석곽묘 1호, 북쪽에는 석곽묘 13호가 인접해 있다. 조사전 유구의 상부는 후대에 교란 및 삭평되어 유물이 노출된 상태였다.

묘광은 풍화암반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83°-W)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79cm, 너비 153cm, 깊이 20cm 정도이며, 장단비는 2.4:1이다. 충전토의 범위를 통해 볼 때 목곽의 크기는 길이 319cm, 너비 111cm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묘광과 목곽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로 충전하였다. 한편, 벽면과 바닥에서 너비가 7~15cm 정도의 굴지구흔이 확인되었다. 바닥은 굴지구흔으로 인한 요철면을 메우기 위해 회갈색 점질토를 2~3cm 정도 깔아 평평하게 정지하였다.

유물은 총 7점이 출토되었다. 동단벽쪽 바닥에서 철모 2점과 철부 1점, 남장벽쪽 중앙부 바닥에서 철검 1점과 철착 1점,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북장벽쪽 중앙에는 목개 상부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호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25. 호편(도면 15-25, 도판 11-25)

동체부의 극히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이 회황등색(10YR 7/4), 내면과 속심은 회황색(2.5Y 7/2)이다.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외면은 승문 타날하였다.

잔존기고 8.1cm

26. 철검(도면 16-26, 도판 1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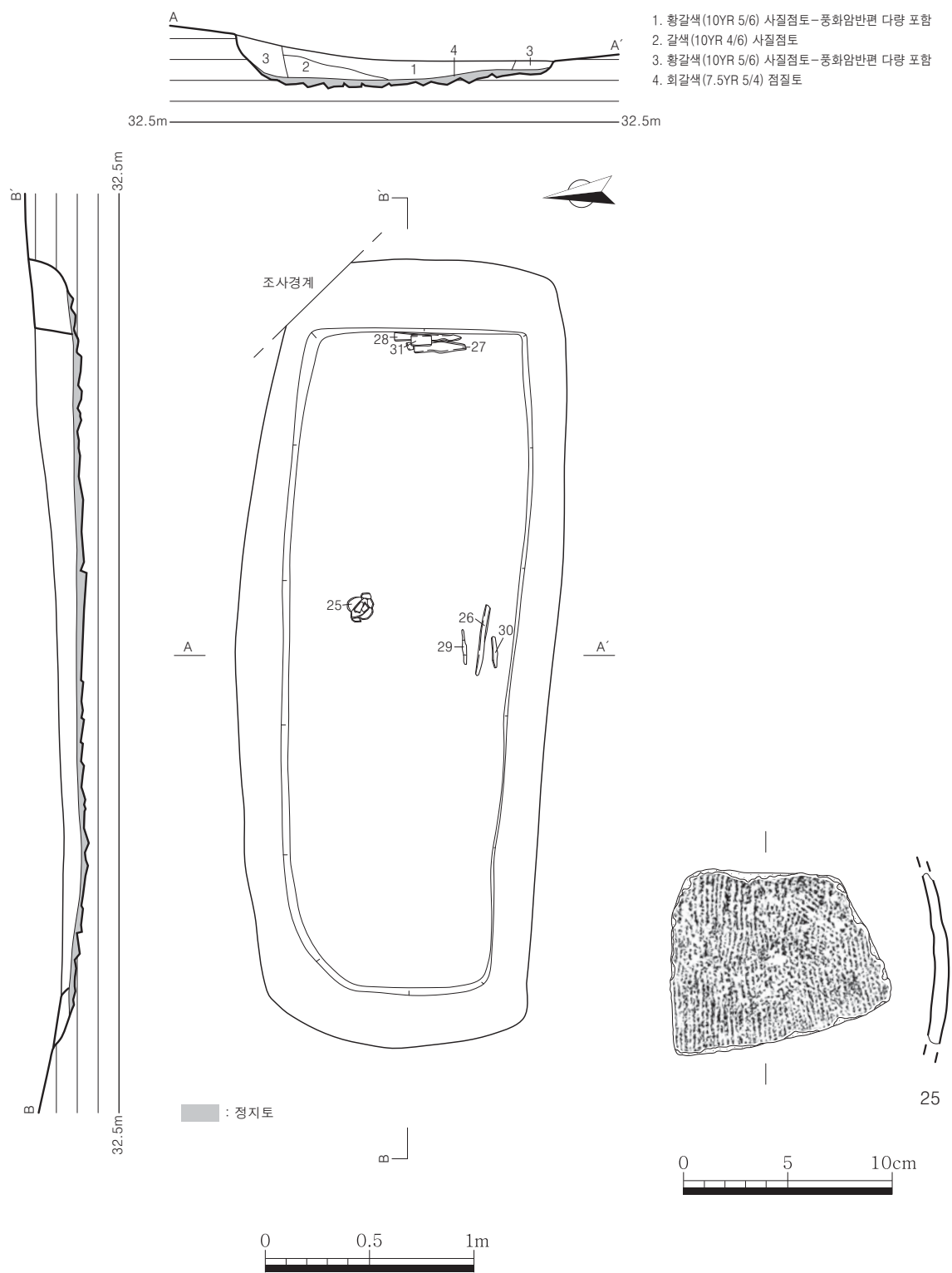
단조품으로 양 인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반적으로 너비가 좁은 세장한 형태이며, 신부는 능이형성되어 있어 단면형태 능형이다. 관부는 뚜렷하지 않은 편이다. 병부는 신부에서 좁아진 부분과 너비 1.2cm로 별도로 제작된 철판을 단접하여 제작하였으며, 일부는 철판이 박락되었다. 경부 말단에는 자루와 결합하였던 못이 박혀있다.

길이 34.4cm, 신부너비 2.0cm, 신부두께 0.5cm, 신부경 너비 1.2cm, 중량 78.3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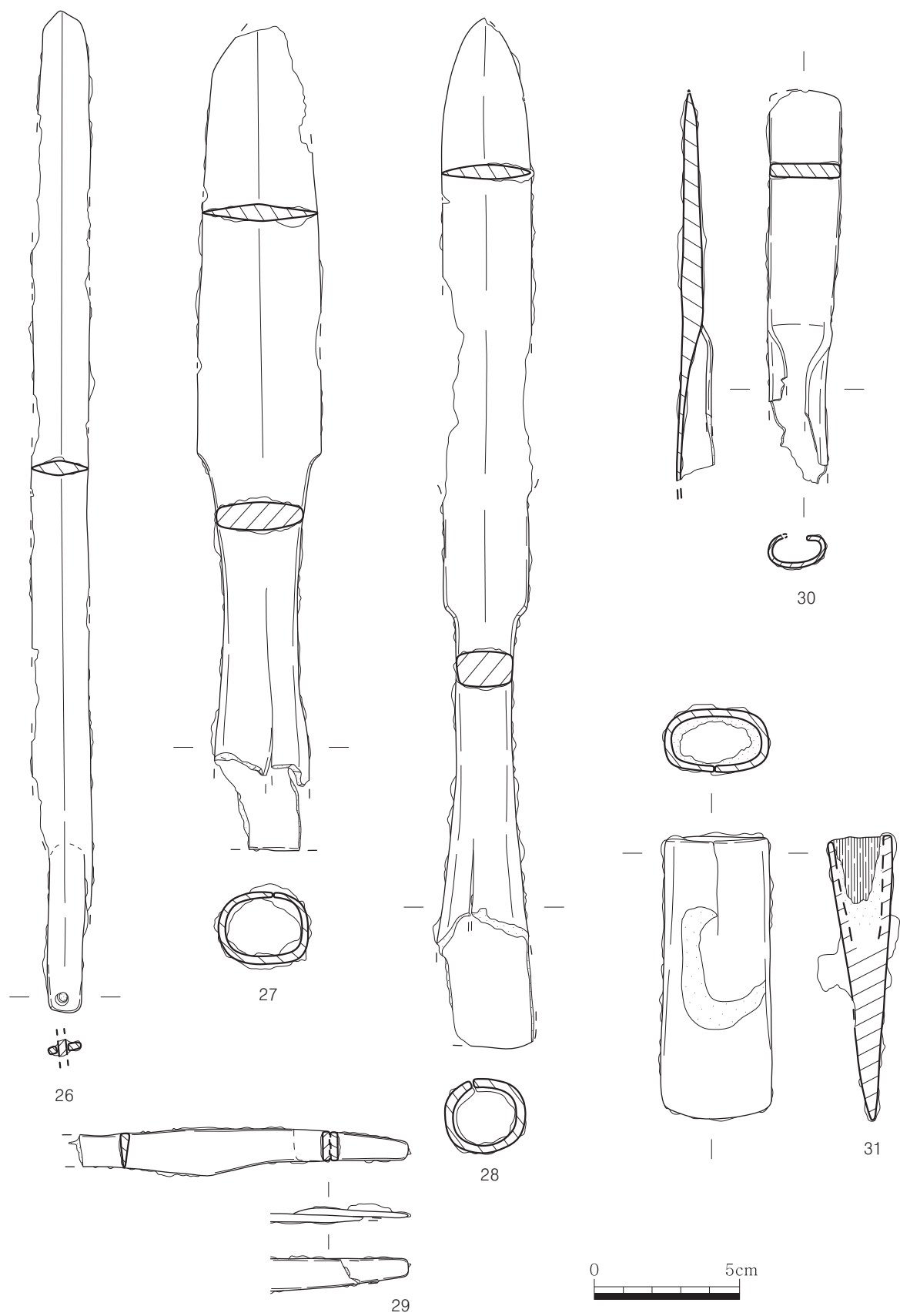
27. 철모(도면 16-27, 도판 11-27)

단조품으로 선단부와 공부 말단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봉부는 중앙에 능이형성되어 있으며, 단면형태는 능형이다. 관부는 짧게 둔각을 이루며 공부로 좁아지고, 공부는 말각방향으로 말아 단접하였다. 공부 상단은 단면형태 말각장방형을 이룬다.

잔존길이 28.1cm, 신부너비 4.2cm, 신부두께 0.7cm, 공부외경 3.1×2.5cm, 중량 260.6g



도면 15. 목곡묘 5호 및 출토유물1



도면 16. 목곽묘 5호 출토유물2

28. 철모(도면 16-28, 도판 11-28)

단조품으로 인부의 일부와 공부 말단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봉부는 중앙에 약하게 능이 형성되어 있으며, 단면형태는 능형이다. 관부는 2단으로 봉부에서 둔각을 이루며 좁아지고 단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공부는 원형으로 말아 단접하였다.

길이 35.4cm, 신부너비 3.1cm, 신부두께 0.5cm, 공부외경 2.8×2.6cm, 중량 265.2g

29. 도자(도면 16-29, 도판 11-29)

단조품으로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며, 병부는 장방형이다. 병부는 부식으로 인해 크게 부풀어 있으며, 표면의 일부는 겹겹이 박락되었다.

잔존길이 11.7cm, 신부너비 1.2cm, 신부두께 0.3cm, 중량 18.4g

30. 철착(도면 16-30, 도판 11-30)

단조품으로 공부의 대부분과 인부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공부는 단면형태 타원형으로 말아 놓았으며, 신부는 일정한 두께와 너비를 유지하다가 인부에서 삼각상으로 날을 형성하였다. 인부는 약간 호상을 이룬다.

잔존길이 13.5cm, 인부너비 2.5cm, 공부외경 2.0×1.1cm, 중량 70.7g

31. 철부(도면 16-31, 도판 11-31)

단조품으로 표면의 일부는 녹혹으로 일부 박락되었다. 인부는 약간 호상을 이루며, 공부는 단면형태 말각장방형으로 말아 단접하였다. 공부 내면에는 자루 목질흔이 두겹게 수착되어 있다.

길이 9.9cm, 인부너비 3.8cm, 공부외경 3.6×2.2cm, 중량 184.4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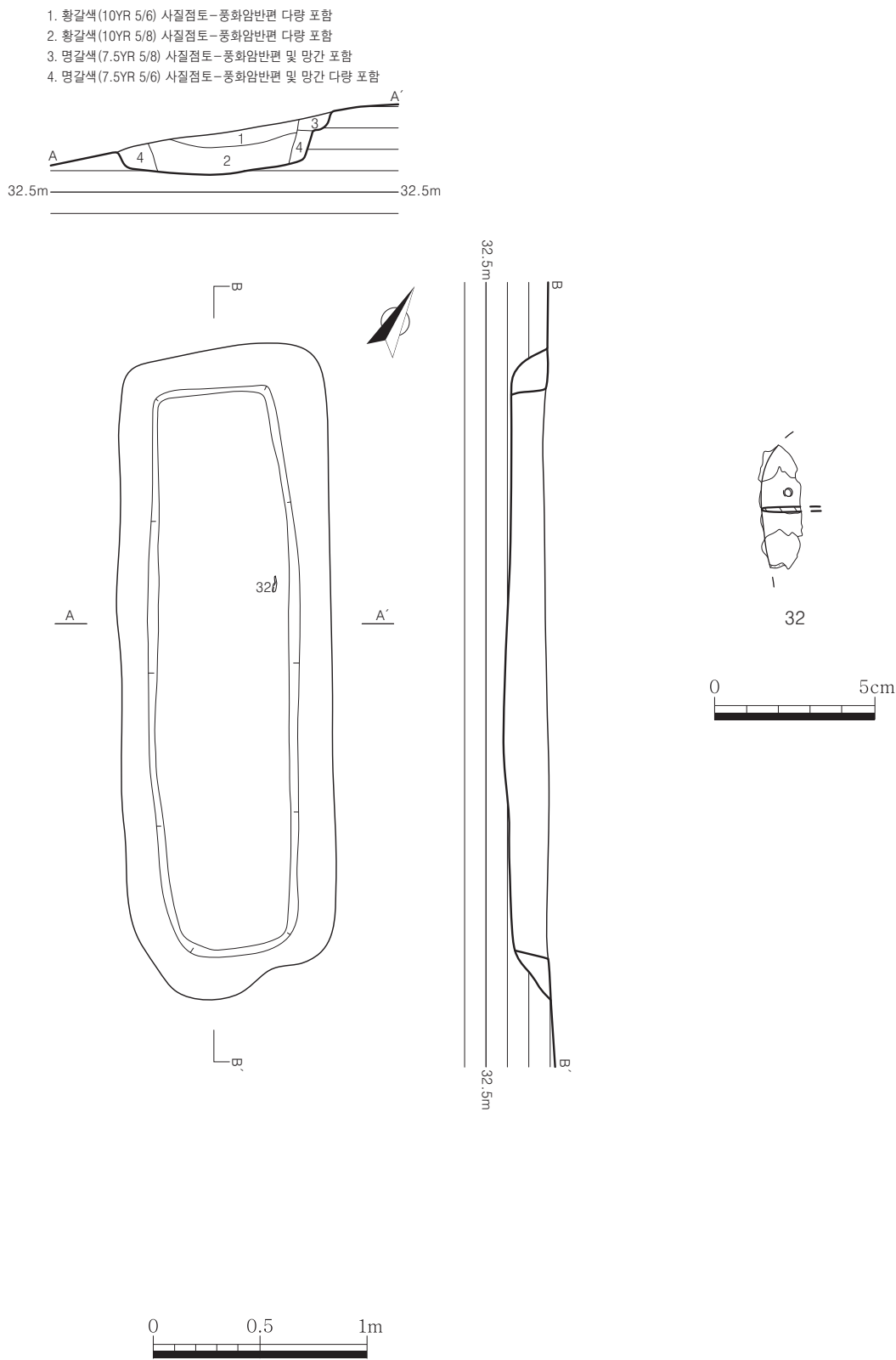
(6) 목곽묘 6호

가. 유구(도면 17, 도판 12)

조사대상지 북동쪽, 해발 32.9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북동쪽으로는 석곽묘 11호, 남서쪽으로는 수혈유구가 인접해 있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북장벽은 2단으로, 나머지 벽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28°-W)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04cm, 너비 101cm, 깊이 22cm 정도이며, 장단비는 3.0:1이다. 충전토의 범위를 통해 볼 때 목곽의 크기는 길이 266cm, 너비 71cm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묘광과 목곽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명갈색 사질점토로 충전하였다. 바닥은 평평하며,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유물은 북서쪽 바닥에서 불명철기편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17. 목곽묘 6호 및 출토유물

나. 유물

32. 불명철기편(도면 17-32, 도판 1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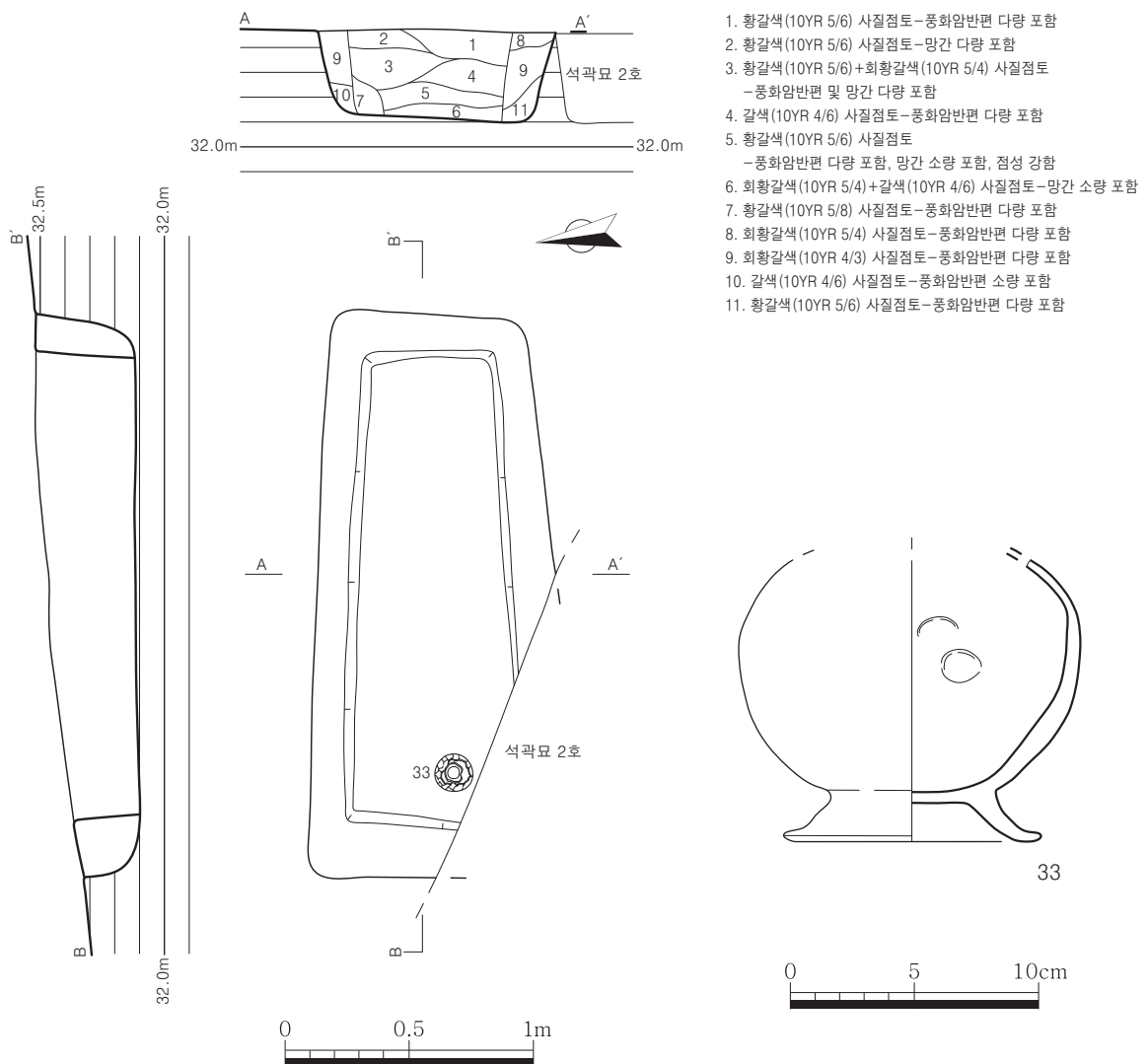
단조품으로 일부만 잔존한다. 녹흑으로 전면이 부풀어 있다. 단면형태는 단부로 갈수록 두께가 얇아지며, 원두정을 박았던 흔적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3.8cm, 잔존너비 1.2cm, 중량 2.7g

(7) 목곽묘 7호

가. 유구(도면 18, 도판 12)

조사대상지 남동쪽, 해발 32.5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남서쪽 모서리는 석곽묘 2호에 의해 파괴되었다. 남쪽으로는 목곽묘 1·2·3호가 인접해 있다.



도면 18. 목곽묘 7호 및 출토유물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제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82^{\circ}-W$)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27cm, 너비 97cm, 깊이 35cm 정도이며, 장단비는 2.3:1이다. 충전토의 범위를 통해 볼 때 목곽의 크기는 길이 192cm, 너비 68cm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 갈색 사질점토, 암황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다. 묘광과 목곽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 갈색 사질점토, 회황갈색 사질점토로 충전하였다. 바닥은 평평하며,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유물은 서단벽쪽에서 대부호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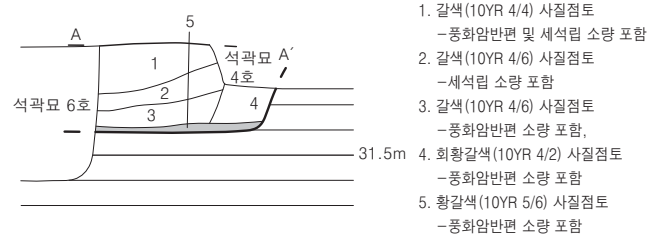
나. 유물

33. 대부호(도면 18-33, 도판 12-33)

동체부와 대각 일부만 잔존한다. 와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이다. 동체부 내면에서 지두 흔이 확인된다. 표면의 마모가 심하여 정확한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잔존기고 11.3cm, 동최대경 13.7cm,

복원저경 1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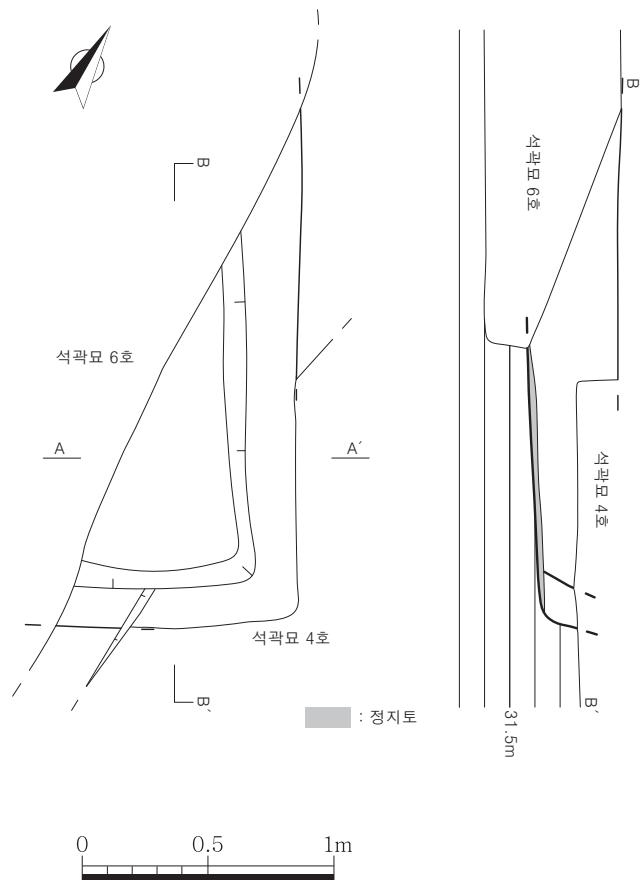


(8) 목곽묘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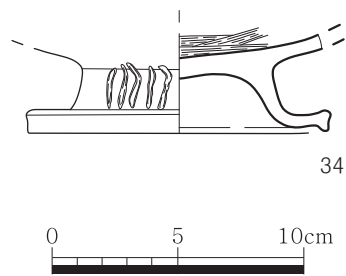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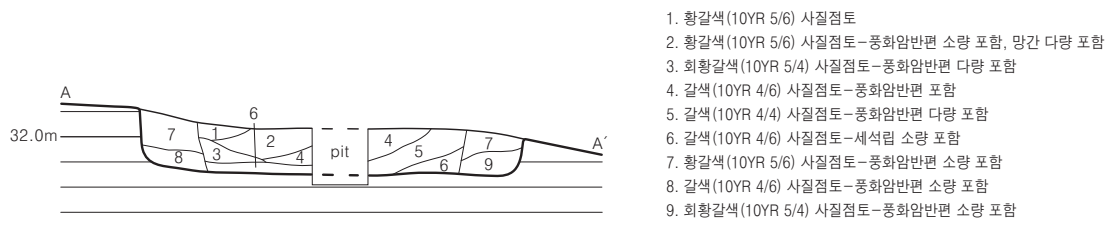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9, 도판 13)

조사대상지 중앙부, 해발 31.7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후축된 석곽묘 4호와 6호에 의해 대부분 파괴되어 남동쪽 모서리 일부만 잔존한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38^{\circ}-W$)향이다. 묘광의 잔존 규모는 길이 202cm, 너비 93cm, 깊이 36cm 정도이며, 충전토의 범위를 통해 볼 때 목곽의 잔존 크기는 길이 137cm, 너비 71cm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묘광과 목곽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소량 혼입된 회황갈색 사질점토로 충전하였다. 바닥에는 황갈색 사질점토를 2~3cm



도면 19. 목곽묘 8호



도면 20. 목곽묘 9호 및 출토유물

정도 두께로 깔아 평평하게 정지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9) 목곽묘 9호

가. 유구(도면 20, 도판 13)

조사대상지 중앙부, 해발 32.1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중앙부는 석곽묘 4호 주구에 의해 바닥까지 파괴되었으며, 남서쪽 모서리는 석곽묘 4호에 의해 바닥까지 파괴되었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7^{\circ}-W$)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82cm, 너비 157cm, 깊이 24cm 정도이며, 장단비는 1.8:1이다. 충전토의 범위를 통해 볼 때 목곽의 크기는 길이 229cm, 너비 114cm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와 회황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어 있었다. 묘광과 목곽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 등으로 충전하였다. 바닥은 평평하며,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유물은 남단벽쪽에서 대부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4. 대부호(도면 20-34, 도판 1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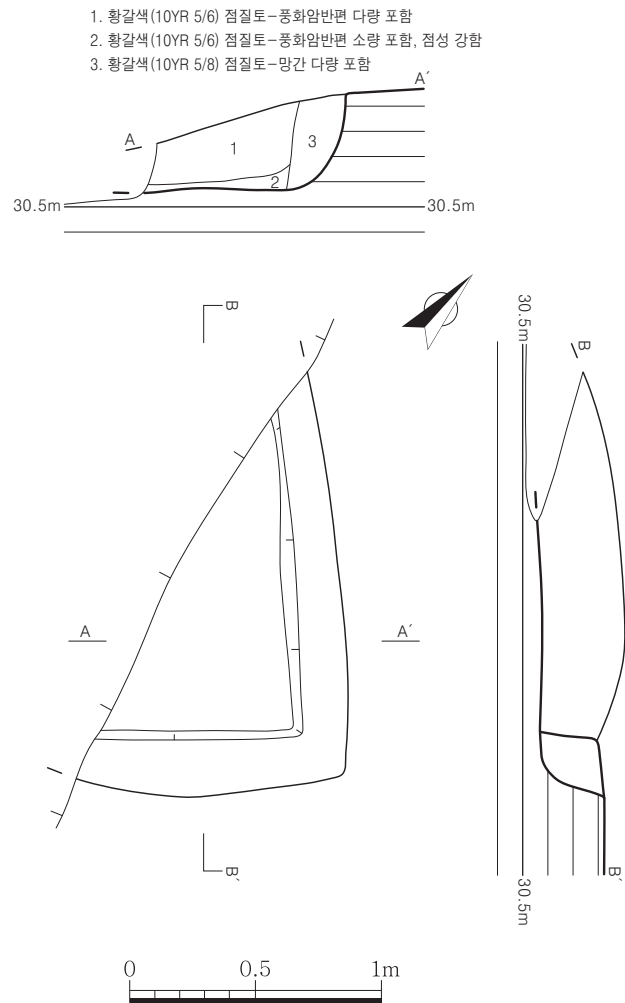
저부 일부와 대각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 속심은 회적갈색(5YR 5/3)이다. 저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 외면은 종방향으로 마연하였으며,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3.9cm, 저경 12.1 cm

(10) 목곽묘 10호

가. 유구(도면 21, 도판 14)

조사대상지 남쪽 중앙, 해발 30.9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후대 교란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어 북동쪽



도면 21. 목곽묘 10호

일부만 잔존한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66°-W)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161cm, 잔존너비 107cm, 깊이 37cm 정도이며, 충전토의 범위를 통해 볼 때 목곽의 크기는 잔존길이 129cm, 잔존너비 82cm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혼입된 황갈색 점질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묘광과 목곽 사이는 망간이 다량 혼입된 황갈색 점질토로 충전하였다. 바닥은 평평하며,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옹관묘

조사대상지의 동쪽에서 1기, 중앙부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후대 유구의 중복 및 삭평으로 인해 잔존양상은 좋지 않다.

(1) 옹관묘 1호

가. 유구(도면 22, 도판 14)

조사대상지 동쪽, 해발 32.6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전 유구의 상부는 후대 삭평으로 인해 옹관의 일부가 노출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남-북(N-50°-W)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95cm, 너비 74cm, 깊이 25cm 정도이다.

옹관은 양이부호의 구연부를 북쪽으로 향하게 횡치하였다. 내부에는 함몰된 양이부호편과 회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옹관과 묘광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회황갈색 사질점토로 충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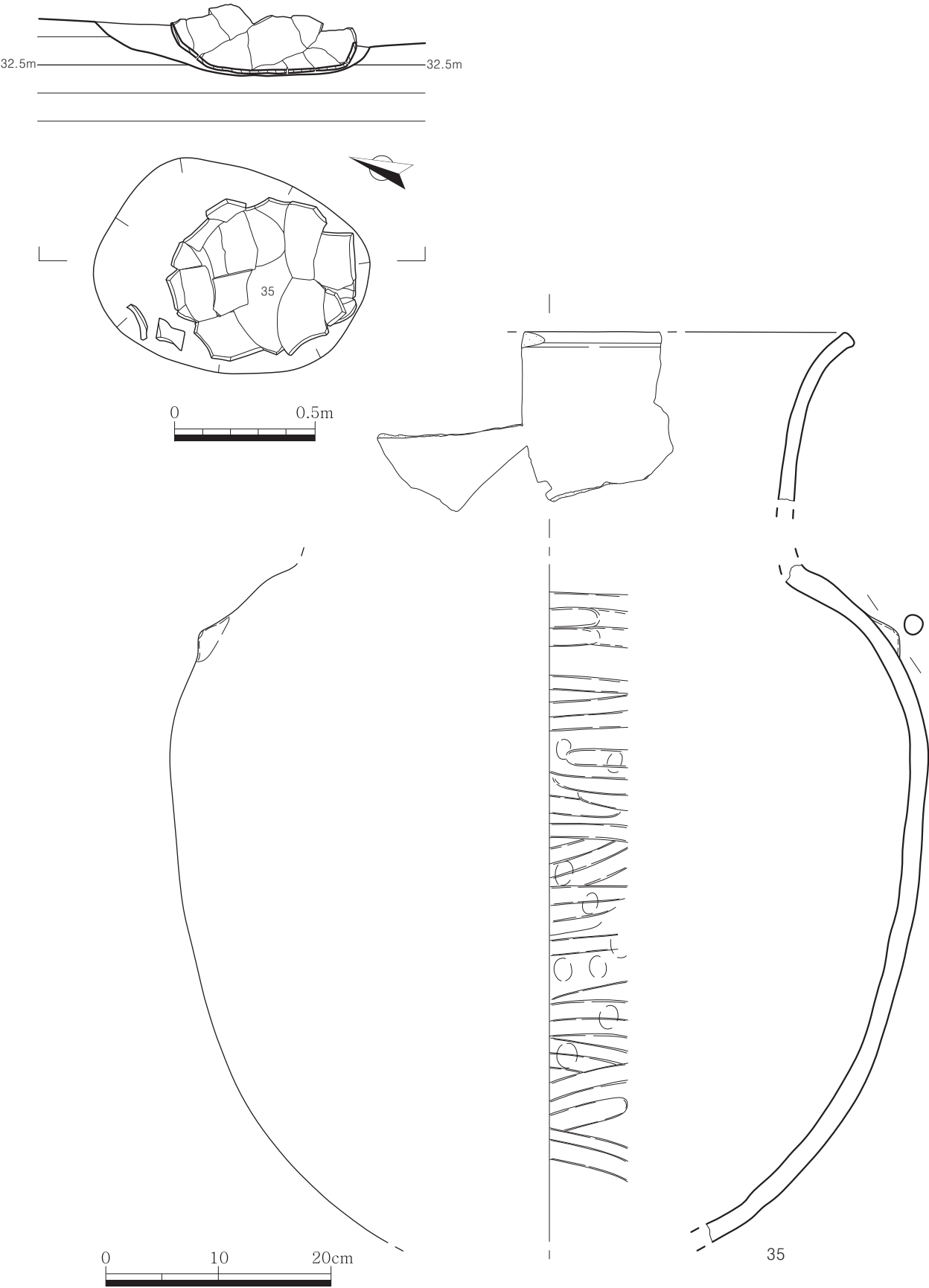
유물은 옹관으로 사용된 양이부호 1점만 출토되었다.

나. 유물

35. 양이부호(도면 22-35, 도판 14-35)

구경부의 극히 일부와 동체부 1/3 정도가 분리되어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 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동체부 상위에는 단면형태가 원형인 이(耳)를 대칭으로 부착하였다.

- 구경부 : 잔존기고 15.0cm
- 동체부 : 잔존기고 60.3cm, 복원동최대경 67.4cm



도면 22. 옹관묘 1호 및 출토유물

(2) 옹관묘 2호

가. 유구(도면 23, 도판 15)

조사대상지 서쪽, 해발 31.3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북쪽 상부는 석곽묘 7호의 주구에 의해 파괴되었다. 조사전 유구의 상부는 후대 삭평으로 인해 옹관 일부가 노출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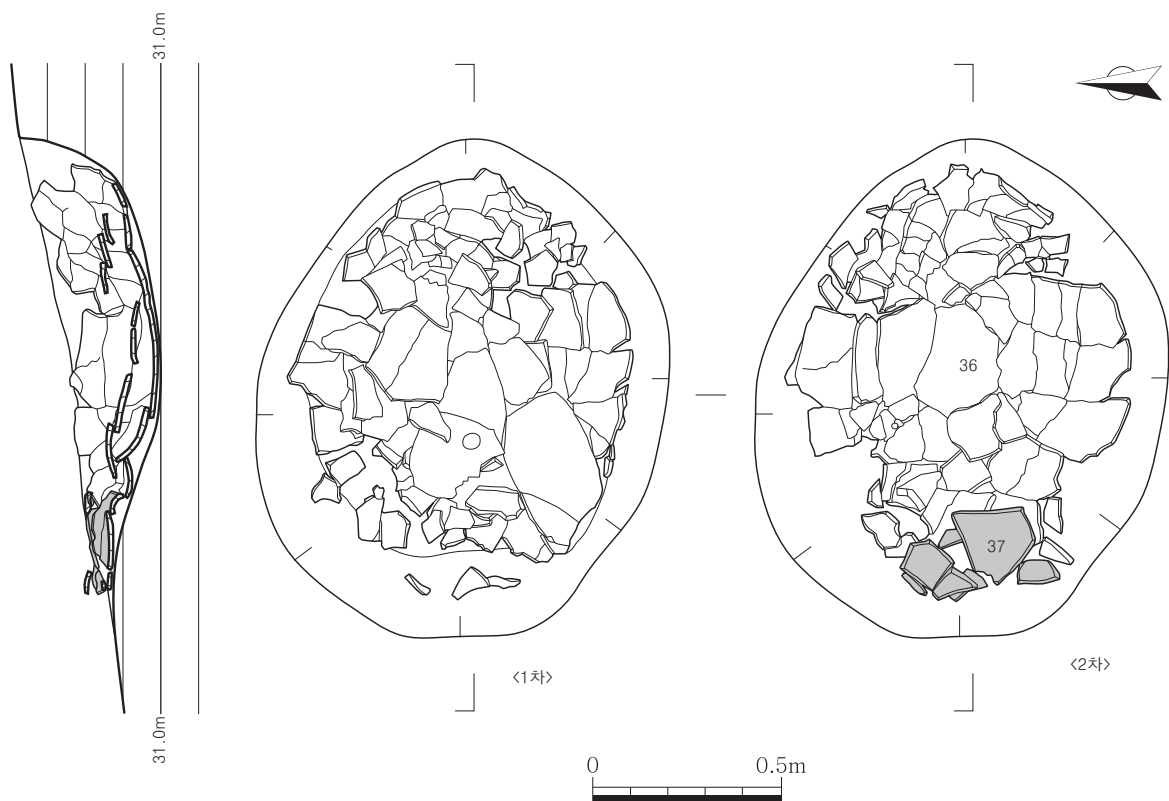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장축방향은 동-서($N-82^{\circ}-W$)향이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31cm, 너비 108cm, 깊이 25cm 정도이다. 내부에는 양이부침저용의 동체부가 깨져 함몰되어 있었다. 옹관은 출토된 유물의 위치를 통해 볼 때, 이용식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용인 양이부침저용의 구연부가 서쪽으로 오도록 횡치한 후, 구연부는 연질호를 사용하여 막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옹관과 묘광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회황갈색 사질점토로 충전하였다.

유물은 주용인 양이부침저용 1점과 막음용으로 판단되는 연질호편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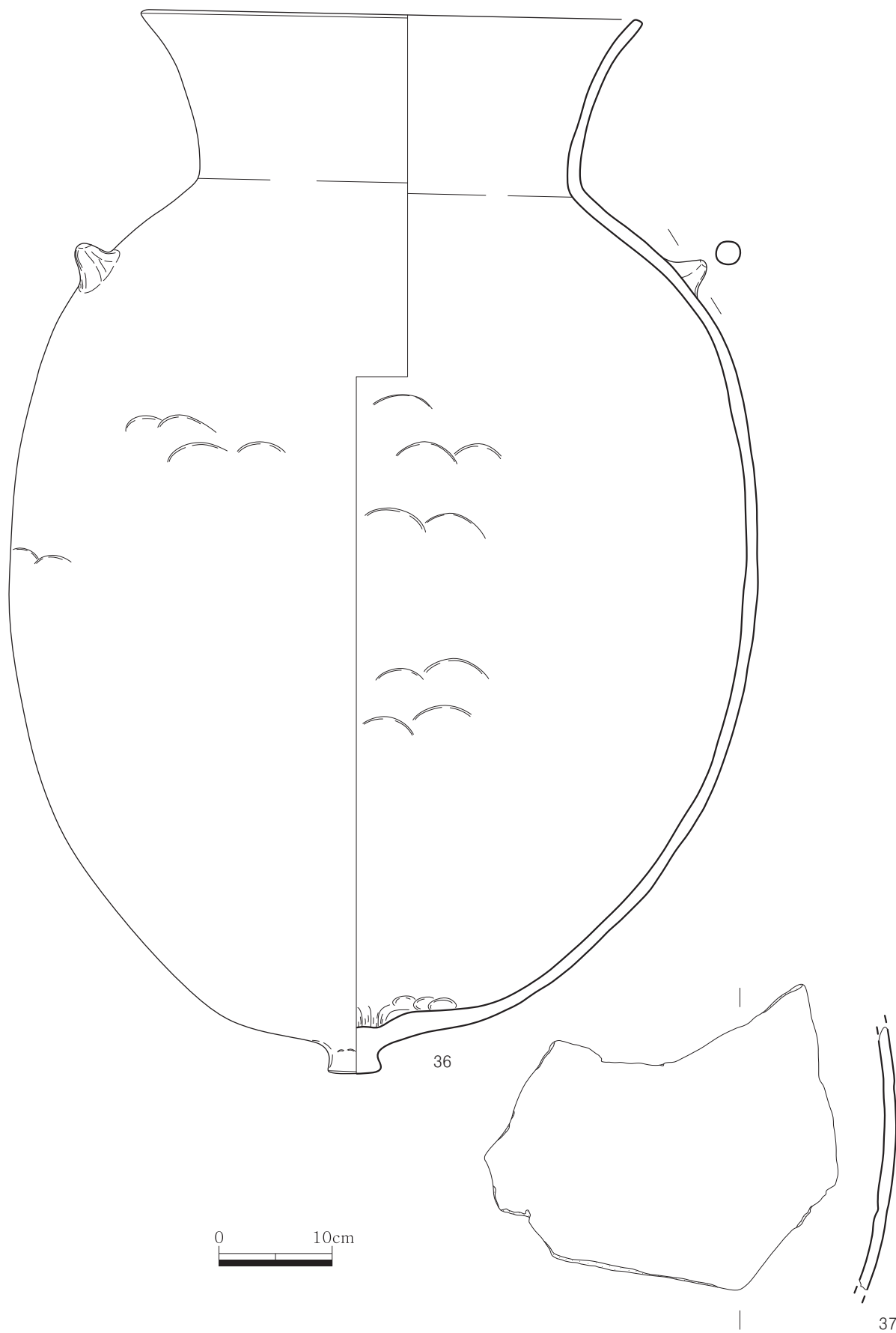
나. 유물

36. 양이부침저용(도면 24-36, 도판 15-36)

구연부의 2/3 및 동체부의 1/3 정도가 결실되어 도면 복원하였다. 와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다.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 세석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황색



도면 23. 옹관묘 2호



도면 24. 웅관묘 2호 출토유물

(2.5Y 7/2), 속심은 등색(7.5YR 6/6)이다. 내외면은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내면에서 내박 자흔이, 외면에서 타날흔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동체부 상위에는 단면형태가 원형인 이(耳)를 대칭 되도록 부착하였다. 저부에는 뉴를 부착하여 돌출시켰고, 조르기 후 물손질로 정면하였다.

기고 93.3~94.2cm, 복원구경 43.2cm, 동최대경 66.3cm

37. 연질호편(도면 24-37, 도판 15-37)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등색(7.5YR 6/6)이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23.1cm

3) 석곽묘

조사대상지 전면에서 총 14기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2기 또는 3기씩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크게 4개의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1군은 2·3호, 2군은 4·5·6호, 3군은 7·8호, 4군은 12·13·14호이다. 2군과 3군의 북쪽과 동쪽에는 주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4군은 석곽묘가 ‘ㄷ’자상으로 배치되어 있다. 각 군집묘에서 소형 석곽묘(3·5·8호)는 배장묘로 추정된다. 묘광의 장축방향은 대부분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며, 4·14호는 등고선과 직교한다.

(1) 석곽묘 1호

가. 유구(도면 25, 도판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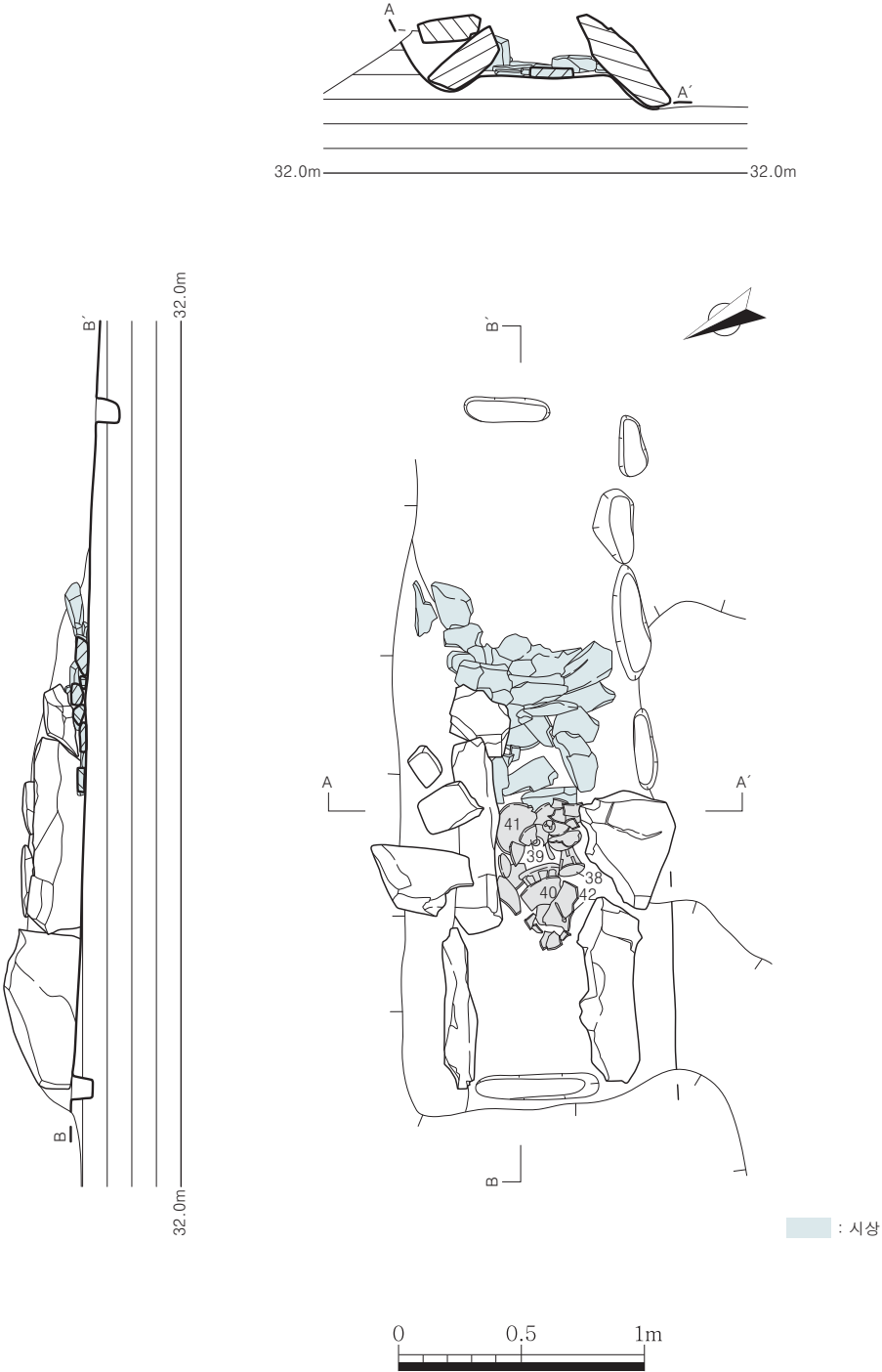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동쪽, 해발 32.4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상부와 주변은 후대 교란으로 인해 양단벽과 장벽쪽 벽석 일부가 유실된 상태였으며, 조사전 유물이 상부에 노출되어 있었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¹¹⁾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64°-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291cm, 너비 109cm 정도이며, 석곽의 크기는 길이 264cm, 너비 60cm, 깊이 30cm 정도이며, 장단비는 4.4:1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포함된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양장벽에서만 1단 정도 잔존하며, 양단벽과 장벽의 동쪽은 벽석을 축조하였던 흙만 바닥에서 확인되었다. 벽석의 최하단은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면에 일부 흙을 만든 후, 그 흙에 38~80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직하였다. 최하단석 상부에는 24~33cm 정도 크기의 판석을 평적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황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시상은 유물부장공간을 제외한 전면에 20~24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1겹 깔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물부장공간

11) 평면형태의 분류기준은 장단비 1:4 미만은 장방형, 장단비 1:4 이상은 세장방형으로 구분하였다.

조수현, 2003, 「경주지역 수혈식석곽묘에 관한 일고찰」, 경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면 25. 석곽묘 1호

은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총 5점이 출토되었다. 서단벽쪽에서 유개고배 1점과 개 1점, 대부장경호 1점, 대부호 1점, 철촉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38. 유개고배(도면 26-38, 도판 17-38)

개는 꼭지 일부와 신부의 1/3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흑갈색(2.5Y 3/1), 속심은 황회색(2.5Y 4/1)이다. 내외면에 회올리브색(5Y 4/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신부 내면 상위에서 짙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상위에는 7조, 중위에는 2조의 침선을 돌렸으며, 하위 두 단에 5~6치구의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꼭지에는 세장방형 투창 4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고배는 2단투창 고배로 구연단 및 대각단 일부와 신부의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4/1), 속심은 회백색(2.5Y 7/1)이다. 내외면에 암올리브색(5Y 4/3)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신부 내면 하위와 대각단 내면에서 짙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중위에는 1조의 침선을 돌려 구분하였으며, 침선 상위에는 6치구, 하위에는 5치구의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상·하단으로 구분하였으며, 상단에는 7조, 하단에는 10조의 침선을 돌렸다. 각 단에는 세장방형 투창 4개를 등간격으로 엇갈리게 뚫었다.

- 개 : 기고 9.1cm, 구경 15.2cm, 꼭지고 3.5cm, 꼭지경 5.7cm
- 고배 : 기고 15.1cm, 구경 13.0cm, 대각고 10.0cm, 저경 10.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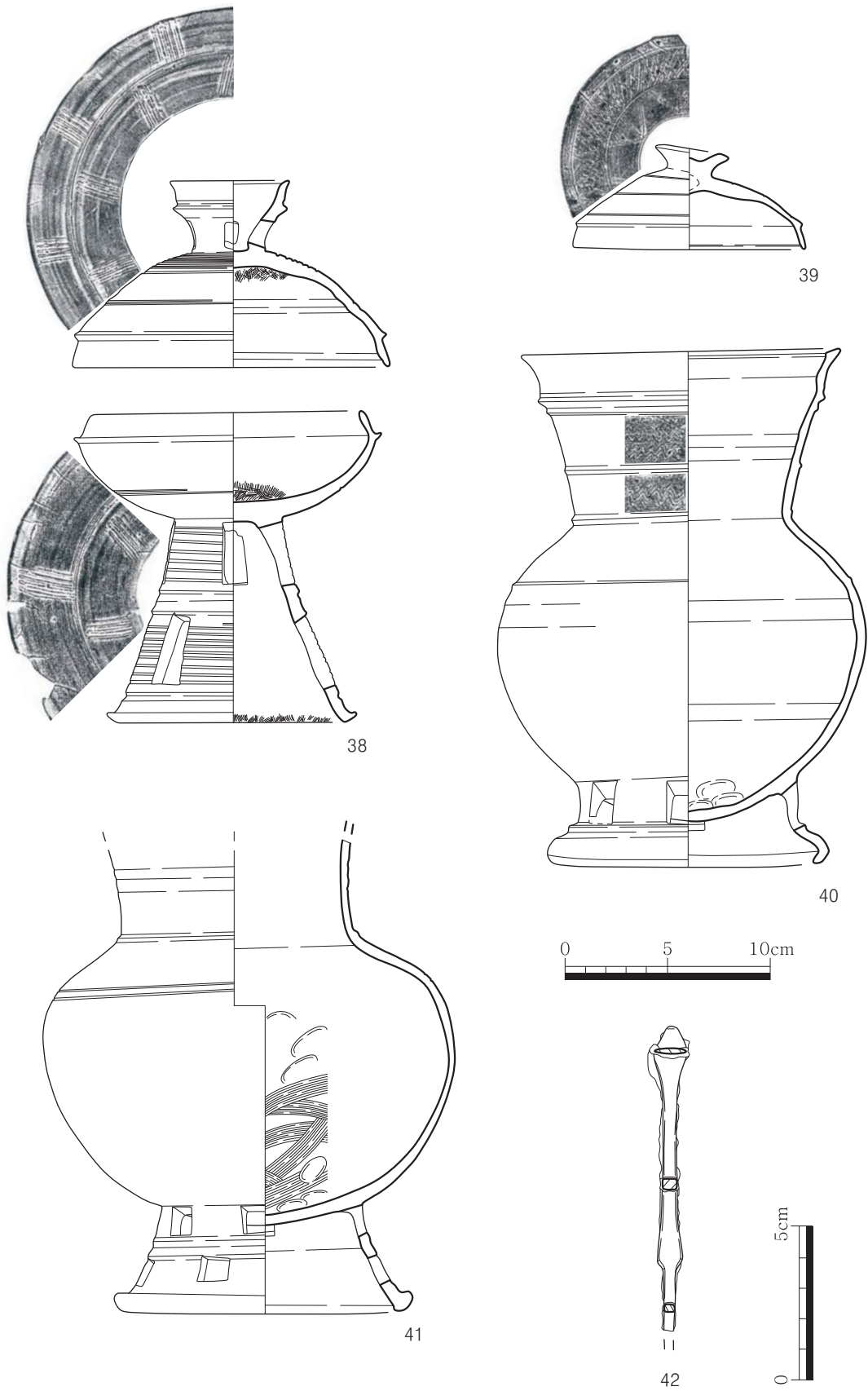
39. 개(도면 26-39, 도판 17-39)

신부와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5Y 6/1), 속심은 회갈색(5YR 4/2)이다. 내면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신부의 외면 상위에서 회색(N 4/)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기포가 형성되었다. 신부에는 1조의 침선을 3열 돌려 3단으로 구분하였으며, 가운데 단에는 삼각집선문, 하단에는 사격자문을 시문하였다.

기고 5.1cm, 구경 11.2cm, 꼭지고 1.2cm, 꼭지경 2.7cm

40. 대부장경호(도면 26-40, 도판 17-40)

구경부 및 동체부,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갈회색(7.5YR 4/1), 속심은 회갈색(5YR 4/2)이다. 내외면의 일부에 올리브갈색(2.5Y 4/3)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저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도면 26. 석곽묘 1호 출토유물

구경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구경부는 2조와 1조의 돌대를 각 1열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으며, 하위 두 개 단에 5치구의 파상문을 2열과 1열씩 시문하였다. 견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렸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7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25.1cm, 구경 15.4cm, 동최대경 17.9cm, 대각고 4.5cm, 저경 12.5cm

41. 대부호(도면 26-41, 도판 17-41)

구경부 대부분 및 동체부와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 속심은 회갈색(7.5YR 4/2)이다. 저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구경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구경부는 2조의 돌대를 돌려 구획하였다. 견부에는 2조의 침선을 돌렸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한 후, 장방형 투창 7개를 등간격으로 위아래가 엇갈리게 뚫었다.

기고 22.5~23.0cm, 동최대경 19.9cm, 대각고 5.3cm, 저경 13.4cm

42. 유경식 철촉(도면 26-42, 도판 17-42)

단조품으로 莖部の 말단이 결실되었다. 두부의 평면형태는 능형이며, 단면형태는 볼록렌즈형이다. 신부는 세장한 편이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莖部는 단면형태 장방형이다.

잔존길이 9.8cm, 두부너비 1.0cm, 두부두께 0.2cm, 중량 7.6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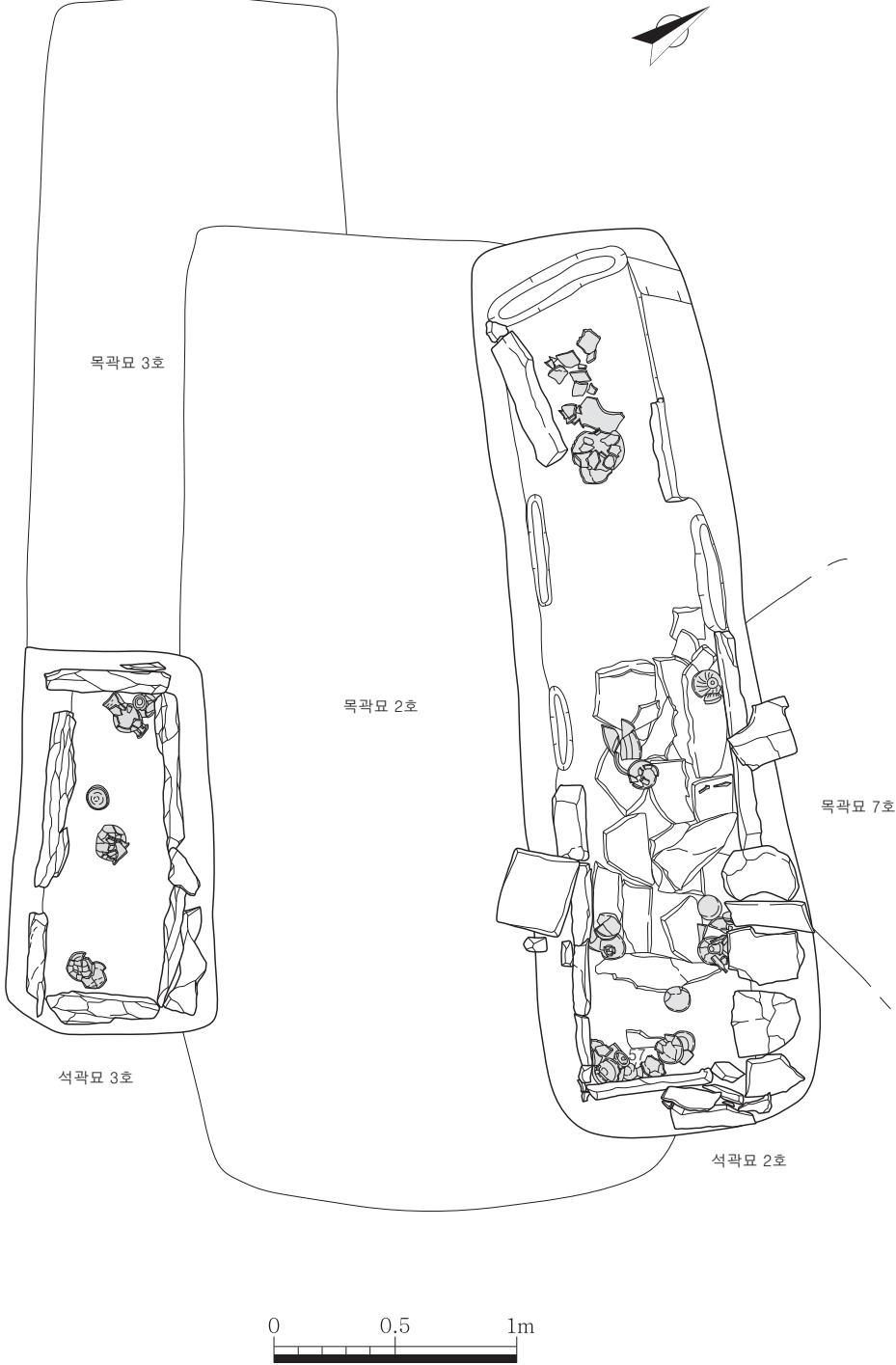
(2) 석곽묘 2호

가. 유구(도면 27·28, 도판 18·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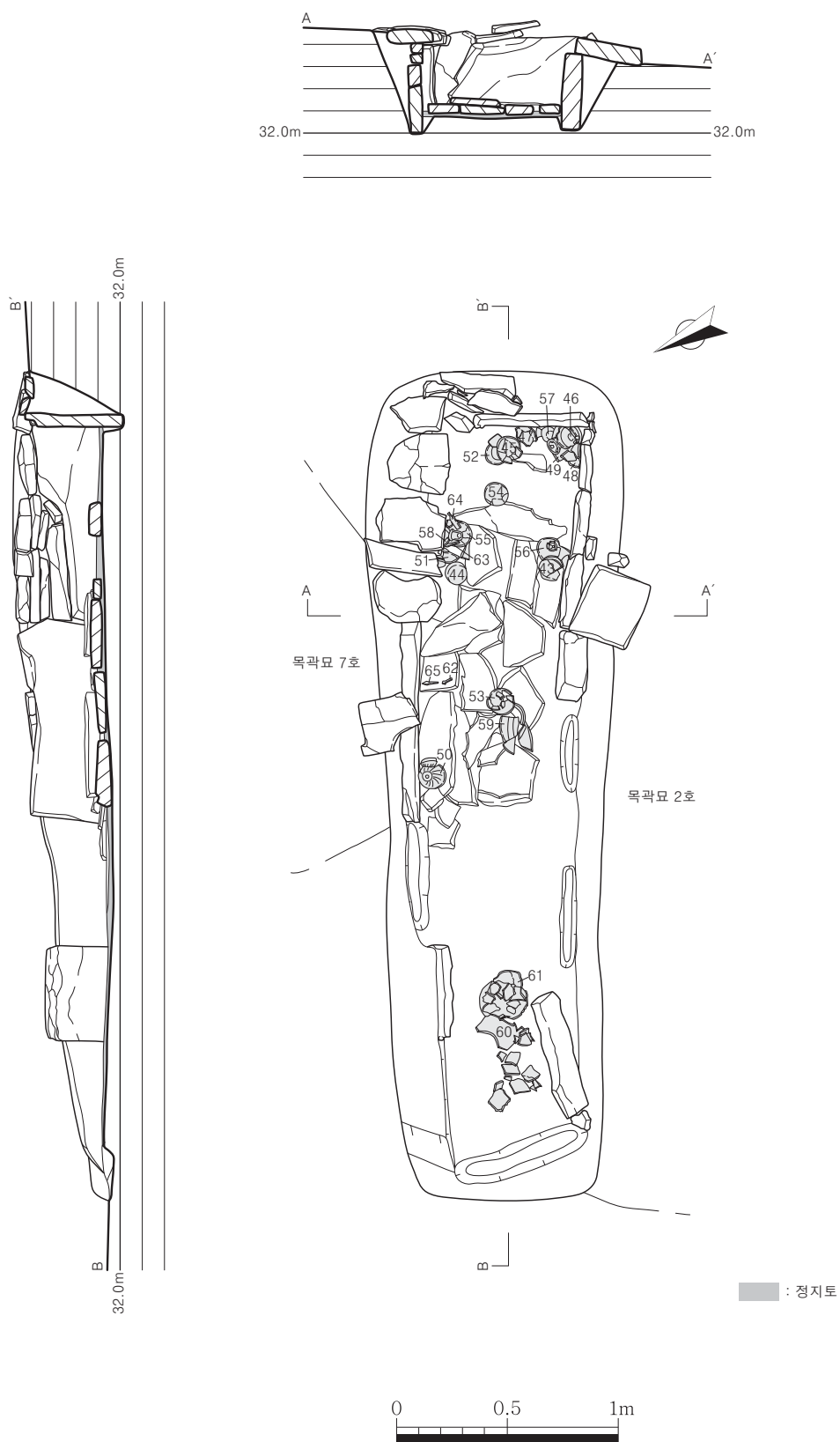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남동쪽, 해발 32.4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목곽묘 2호의 북쪽과 목곽묘 7호의 남서쪽을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남쪽으로는 동일한 묘역 내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석곽묘 3호가 143cm 정도 떨어져서 위치한다. 조사전 유구 서쪽은 후대 삭평으로 인해 유물이 노출된 상태이며, 벽석 일부가 유실된 상태였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64°-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75cm, 너비 96cm 정도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322cm, 너비 61cm, 깊이 34cm 정도이며, 장단비는 5.2:1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1~5단 정도 잔존한다. 벽석의 최하단석은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면에 일부 홈을 만든 후, 그 홈에 28~90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직하여 축조하였다. 최하단석 상부는 23~32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평적하여 축조하였다. 바닥은 벽석 축조 후 전면에 갈색 사질점토를 2~3cm 정도를 깔아 정지한 후 시상을 마련하였다. 시상은 양단벽의 유물부장공간을 제외한 전면에 14~50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1겹 깔아 마련하였다. 시상의 중앙부 서쪽은 유실되었다. 유물부장공간은 정지면을 그대로 사



도면 27. 석곽묘 2·3호



도면 28. 석곽묘 2호

용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유물은 총 23점이 출토되었으며, 양단부장 하였다. 동단벽 남쪽 모서리에서 유개고배 1점과 고배 3점, 개 4점이, 서단벽에서 장경호 구연부편 1점과 단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시상 동쪽과 서쪽에서 유개고배 2점과 고배 4점, 개 2점, 장경호 1점, 철축 3점,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43. 유개고배(도면 29-43, 도판 20-43)

신부의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6/1), 속심은 회갈색(5YR 5/2)이다. 외면에 회올리브색(7.5Y 5/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신부에 기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고배는 1단투창 고배로 전체의 1/3 정도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한 대각에서 3개의 투창이 확인된다.

- 개 : 기고 6.3cm, 구경 13.4cm, 꼭지고 1.4cm, 꼭지경 1.3cm
- 고배 : 기고 8.8cm, 구경 8.6cm, 대각고 5.1cm, 저경 7.8cm

44. 유개고배(도면 29-44, 도판 20-44)

개는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신부 외면에는 회백색(2.5Y 7/1), 내면에는 회적갈색(2.5YR 5/3)을 띠는 원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신부 외면 상위에서 꼭지 접합흔이 확인된다.

고배는 2단투창 고배로 구연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2.5Y 7/1)에 가깝다. 신부 내면과 대각단에서 등색(7.5YR 7/6)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제형 투창 3개씩을 등간격으로 엇갈리게 뚫었다.

- 개 : 기고 5.6cm, 구경 11.5cm, 꼭지고 0.9cm, 꼭지경 1.6cm
- 고배 : 기고 8.6~9.1cm, 구경 9.4cm, 대각고 5.3cm, 저경 7.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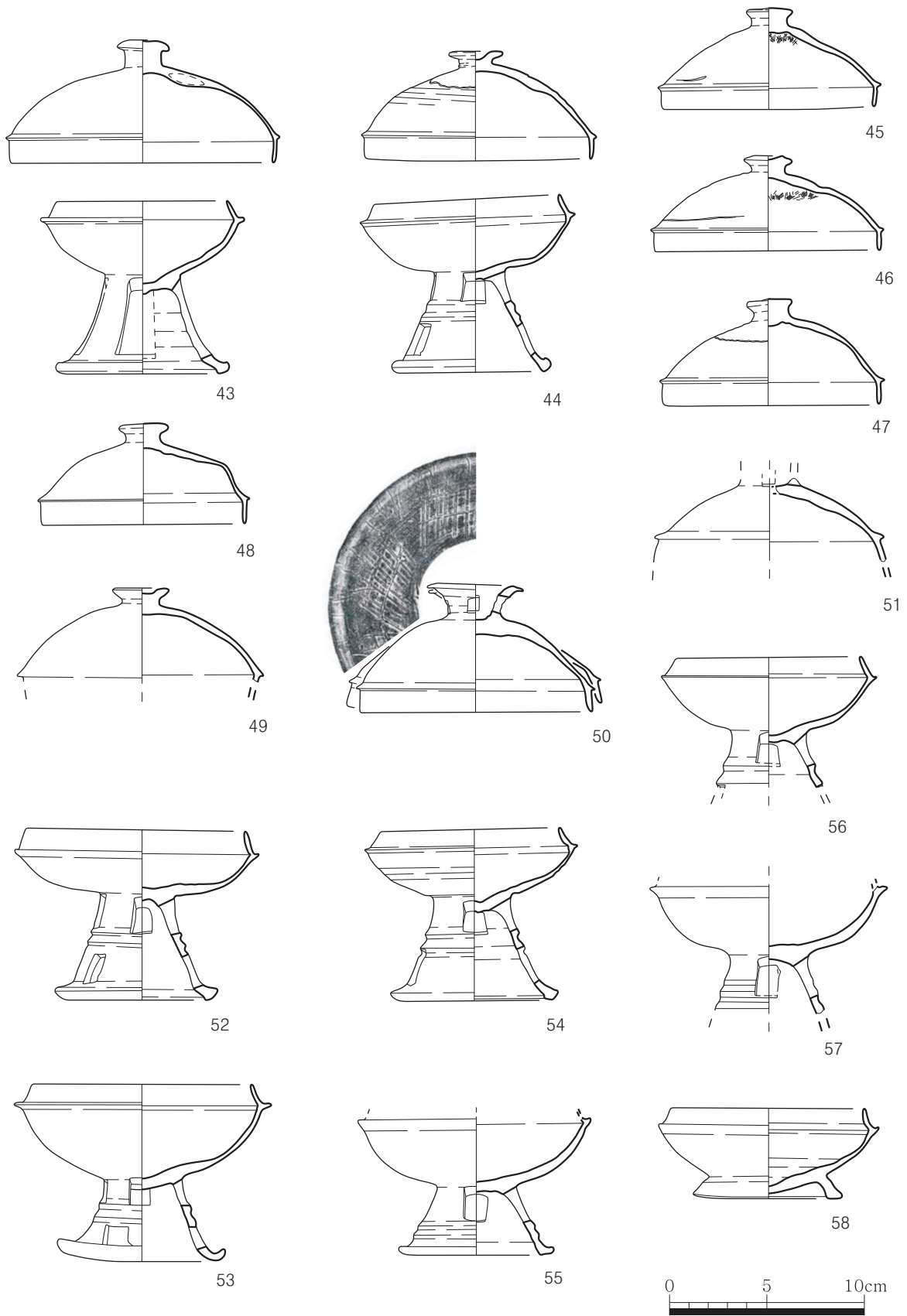
45~51. 개

모두 7점이 출토되었다. 50은 와질토기이며, 그 외는 모두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징
45	29-45	20-45	기고 5.2 구경 10.7 꼭지고 0.8 꼭지경 2.3	구연부 및 신부 일부 결실. 신부 찌그러짐. 색조는 내외면 회색(5Y 5/1), 속심 회적색(10R 4/2). 신부 내면 일부 회올리브색(7.5Y 4/2) 자연유 흡착,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 신부 외면 황회색(2.5Y 6/1)을 띠는 원형 소성흔 확인. 신부 외면 하위 다른 토기의 구연단면 일부 부착, 내면 상위 짙흔 확인.
46	29-46	20-46	기고 4.9 구경 11.5 꼭지고 0.9 꼭지경 1.4	구연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5Y 5/1), 속심 회색(5Y 4/1). 신부 내면 회올리브색(7.5Y 4/2) 자연유 흡착,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 신부 외면 회색(N 6/)을 띠는 원형 소성흔 확인. 신부 외면 하위 다른 토기의 구연단면 일부 부착, 내면 상위 짙흔 확인.
47	29-47	20-47	기고 5.5 구경 10.9 꼭지고 1.1 꼭지경 2.2	구연부 및 신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 신부 외면 상위 회백색(2.5Y 7/1)을 띠는 원형 소성흔 확인. 신부 상위 꼭지 접합흔 확인.
48	29-48	20-48	기고 5.2 구경 10.3 꼭지고 0.9 꼭지경 2.3	신부 1/2 정도 결실되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 꼭지 및 신부 내외면 상위 회등색(7.5YR 6/4)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 확인.
49	29-49	20-49	잔존기고 4.8 꼭지고 0.8 꼭지경 2.6	꼭지 및 신부 일부 잔존하는 것을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
50	29-50	20-50	기고 6.5 구경 11.8~13.0 꼭지고 1.9 꼭지경 3.9	꼭지단 및 구연단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갈회색(5YR 5/1), 속심 회갈색(5YR 4/2). 신부 종방향으로 8치구, 횡방향으로 2치구로 이루어진 집선문 등간격으로 6개 시문. 꼭지 장방형 투창 3개 등간격으로 뚫음.
51	29-51	20-51	잔존기고 4.3	꼭지 및 신부 일부 잔존하는 것을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 잔존한 꼭지에서 1개의 투창흔 확인.

52~58. 고배

2단투창 고배 4점과 1단투창 고배 1점, 단각고배 1점, 대각 단 수를 알 수 없는 고배 1점 등 모두 7점이 출토되었다. 대체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2단투창 고배는 대각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으로 구획한 후, 각 단에 제형 또는 장방형 투창 3~4개씩을 엇갈리게 뚫었다. 1단투창 고배는 상단에 장방형 투창 2개를 뚫었다.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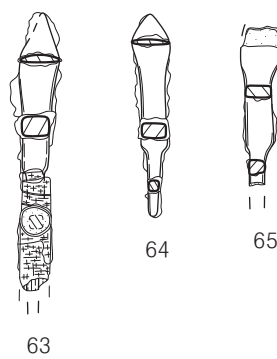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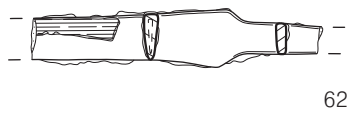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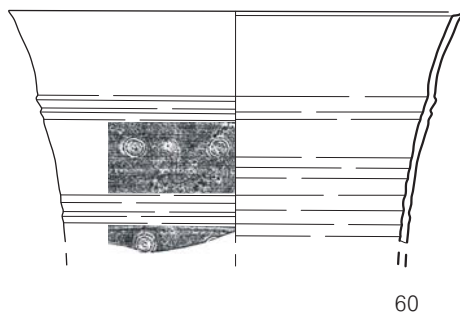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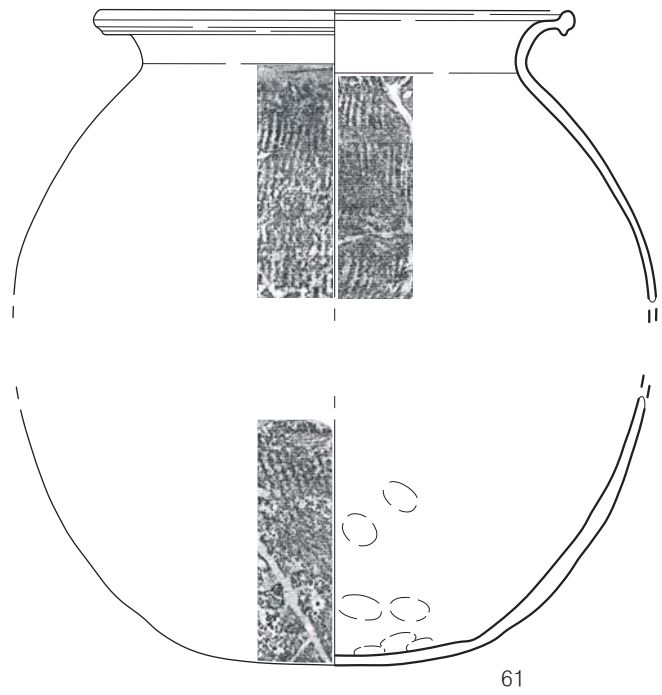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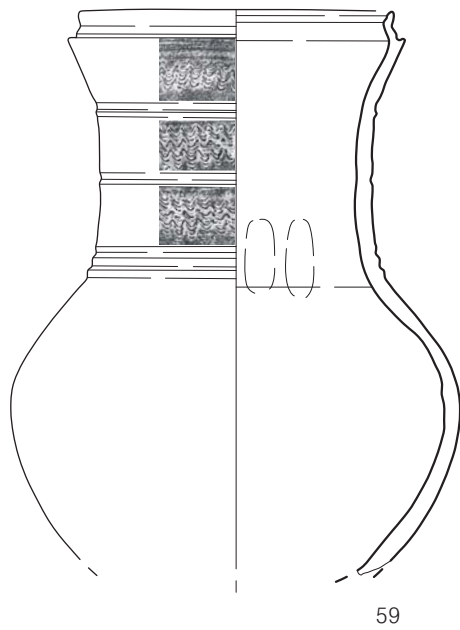
도면 29. 석곽묘 2호 출토유물1

유물 번호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징
52	29-52	20-52	기고 8.7 복원구경 11.1 대각고 5.5 저경 7.1	2단투창 고배. 구연부 및 신부, 대각 일부 결실되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 대각 중위 2조의 돌대 돌려 2단으로 구분, 각 단에 제형 투창 3개씩 엇갈리게 뚫음.
53	29-53	20-53	기고 9.1 구경 11.1 대각고 4.2 저경 7.8	2단투창 고배. 구연부 및 신부의 1/3 정도와 대각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2.5Y 7/1). 대각 중위 2조의 돌대 돌려 2단으로 구분, 각 단에 장방형과 방형 투창 4개씩 엇갈리게 뚫음.
54	29-54	20-54	기고 8.8 복원구경 9.0 대각고 5.4 저경 8.0	2단투창 고배. 구연부 및 신부의 1/2 정도 결실되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 신부 내면 하위 회황등색(10YR 6/4)를 띠는 부정형 소성흔 확인. 대각 중위 2조의 돌대 돌려 2단으로 구분, 각 단에 제형 투창 3개씩 엇갈리게 뚫음.
55	29-55	20-55	잔존기고 7.0 대각고 3.5 저경 6.5	1단투창 고배. 구연부 및 신부, 대각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 대각 중위 2조의 돌대 돌려 2단으로 구분, 상단에 장방형 투창 2개 뚫음.
56	29-56	20-56	잔존기고 6.6 구경 9.3	2단투창 고배. 구연부 및 신부, 대각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백색(2.5Y 7/1), 속심 회색(N 6/). 대각 중위 2조의 돌대 돌려 2단으로 구분, 상단에서 3개, 하단에서 1개의 투창 확인.
57	29-57	20-57	잔존기고 5.5	신부 및 대각 일부 잔존.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 잔존한 대각에서 3개의 투창 확인.
58	29-58	20-58	기고 4.7 구경 9.8 대각고 1.2 저경 6.3	단각고배. 구연부 및 신부, 대각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2.5Y 7/1).

59. 장경호(도면 30-59, 도판 21-59)

구경부 및 동체부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4/), 속심은 회적색(2.5YR 4/2)이다. 내외면에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동체부 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경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구경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구경부는 1조의 돌대를 2열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으며, 1단에는 7치구, 나머지 단에는 11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22.4cm, 복원구경 12.3cm, 복원동최대경 17.7cm



60. 장경호 구연부편(도면 30-60, 도판 21-60)

구경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 속심은 회적색(2.5YR 5/2)이다. 내외면에 회올리브색(7.5Y 5/3) 자연유가 흡착되어 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 물손질 정면하였다. 구경부는 2조의 돌대를 2열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으며, 하위 두 개 단에 점원문을 등간격으로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9.1cm, 복원구경 18.0cm

61. 단경호(도면 30-61, 도판 21-61)

구경부와 동체부의 1/2 정도 및 동체부 하위와 저부가 분리되어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황색(2.5Y 7/2), 속심은 등색(7.5YR 7/6)이다. 저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동체부 내면에서 집선문 내박자흔이 확인되며, 외면은 집선문 타날하였다.

기고 26.0cm, 복원구경 18.4cm

62. 도자(도면 30-62, 도판 21-62)

단조품으로 선단부와 병부 말단이 결실되었다. 신부는 칼집으로 추정되는 목질흔이 길이방향으로 수작되어 있으며,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다. 관부는 양쪽에 형성되어 있으며, 둔각을 이루며 병부로 이어진다. 병부의 단면형태는 말각장방형이다.

잔존길이 7.7cm, 신부너비 1.3cm, 신부두께 0.3cm, 중량 11.4g

63. 철촉(도면 30-63, 도판 21-63)

단조품으로 莖部 말단이 결실되었다. 두부는 녹혹으로 인해 부풀어 있다. 두부의 평면형태는 능형이며, 단면형태는 편볼록렌즈형이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莖部는 직경 0.8cm의 화살대 목질과 화살대를 묶었던 수피흔이 두껍게 잔존한다.

잔존길이 7.3cm, 두부너비 1.1cm, 두부두께 0.2cm, 중량 9.7g

64. 철촉(도면 30-64, 도판 21-64)

단조품으로 완형이다. 표면의 일부는 녹혹으로 박락되었다. 두부의 평면형태는 능형이며, 단면형태는 편볼록렌즈형이다. 신부와 莖部の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길이 5.3cm, 두부너비 1.0cm, 두부두께 0.15cm, 중량 4.4g

65. 철촉(도면 30-65, 도판 21-65)

단조품으로 선단부와 말단부가 결실되었다. 두부는 녹혹으로 박리되었다. 신부와 莖部는 단면형태 장방형이다.

잔존길이 4.3cm, 두부너비 1.0cm, 중량 4.4g

(3) 석곽묘 3호

가. 유구(도면 27·31, 도판 18·21·22)

조사대상지 남동쪽, 해발 32.2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목곽묘 3호의 동단벽 일부를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남쪽으로는 동일한 묘역 내 조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석곽묘 2호가 인접해 있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53°-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58cm, 너비 85cm 정도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125cm, 너비 48cm, 깊이 34cm 정도이며, 장단비는 2.6:1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1단만 잔존하며,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면에 일부 흙을 만든 후, 그 흙에 35~72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직하여 축조하였다. 바닥은 별도의 시상을 마련하지 않고 굴착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유물은 총 6점이 출토되었으며, 양단부장 하였다. 동단벽 남쪽 모서리에서 고배 1점과 개 1점이, 서단벽 북쪽 모서리에서 고배 1점과 대부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중앙부에서 개 1점과 단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66. 개(도면 31-66, 도판 23-66)

구연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6/1), 속심은 회색(N 4/)이다. 내외면에 회올리브색(7.5Y 4/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신부 외면 하위에는 다른 토기의 구연단편이, 내면에는 이물질이 부착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2치구의 '八'자형 선문을 시문하였다.

기고 5.6cm, 구경 12.1cm, 꼭지고 0.7cm, 꼭지경 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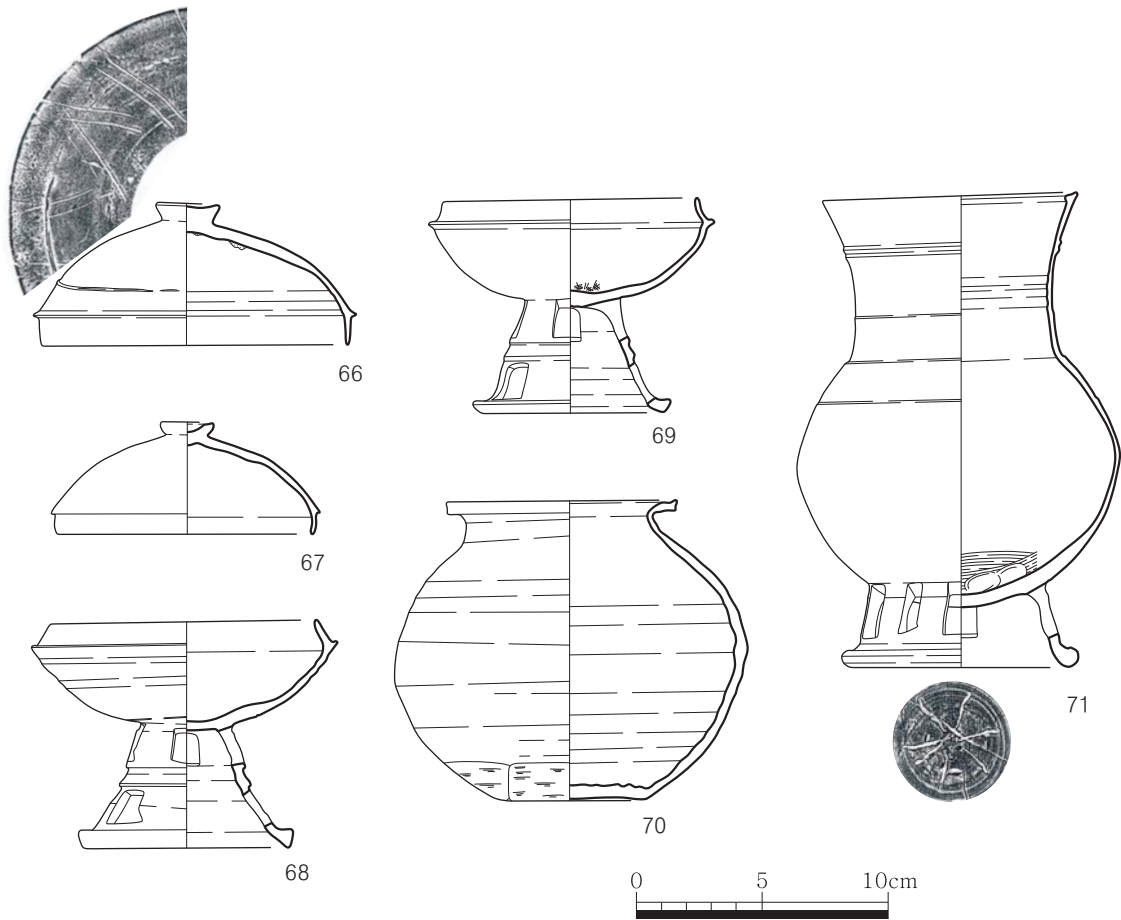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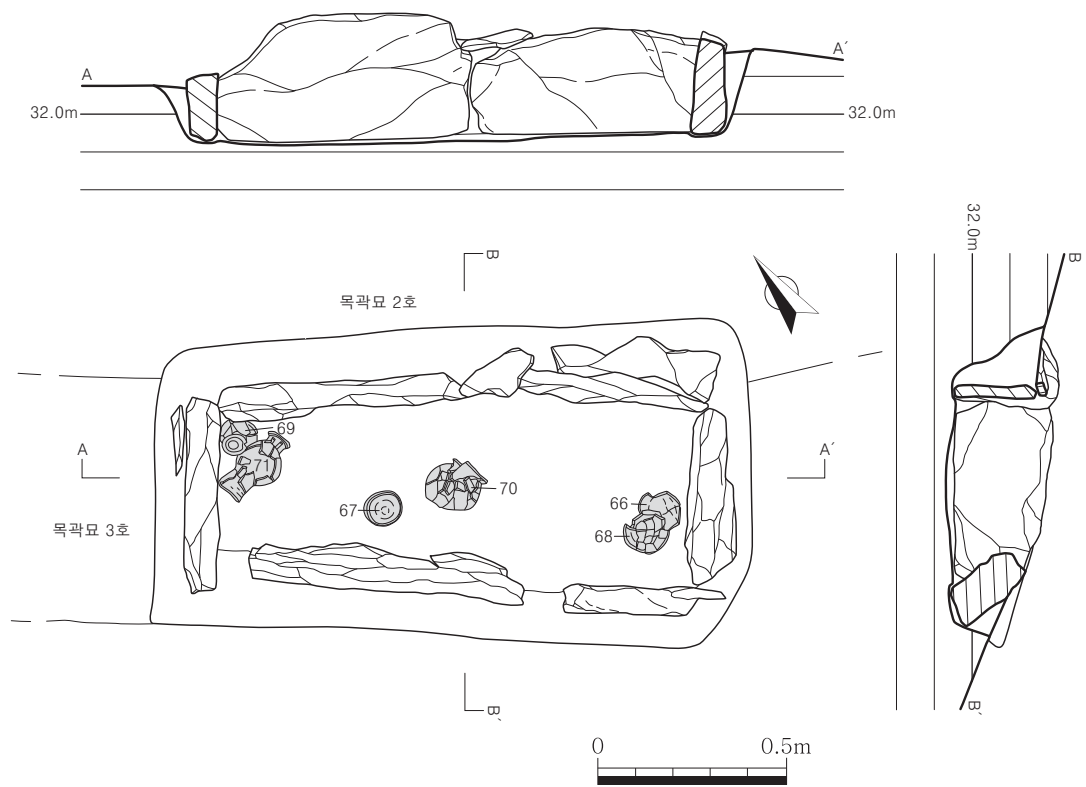
67. 개(도면 31-67, 도판 23-67)

구연단의 극히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 속심은 회색(N 5/)이다. 신부 내면에서 회색(N 6/)을 띠는 원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4.4cm, 구경 10.0cm, 꼭지고 0.5cm, 꼭지경 2.0cm

68. 고배(도면 31-68, 도판 23-68)

2단투창 고배로 구연부와 신부,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5Y 5/1)에 가깝다. 대각단에서 회황색(2.5Y 7/2)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



도면 31. 석곽묘 3호 및 출토유물

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제형 투창 4개씩을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9.9cm, 구경 11.5cm, 대각고 4.9cm, 저경 8.9cm

69. 고배(도면 31-69, 도판 23-69)

2단투창 고배로 구연부와 신부, 대각단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5/1), 속심은 갈회색(7.5YR 4/1)에 가깝다. 신부 내면 하위에서 짙은 회색, 회적갈색(2.5YR 5/3)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제형 투창 4개씩을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9.0cm, 구경 10.4cm, 대각고 4.9cm, 저경 8.0cm

70. 단경호(도면 31-70, 도판 23-70)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5/), 속심은 회갈색(5YR 4/2)이다. 내외면에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나,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구연부와 동체부는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하위는 회전각기 정면하였다. 저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11.9cm, 구경 9.1cm, 동최대경 13.8cm, 저경 6.0cm

71. 대부장경호(도면 31-71, 도판 23-71)

구정부 및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5/1),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내외면의 일부에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나,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저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구정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구정부는 2조와 1조의 돌대를 각 1열씩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다. 전부는 1조의 돌대를 돌렸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7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저부 외면에는 ‘*’자형 예새기호가 새겨져 있다.

기고 18.7cm, 구경 10.0cm, 동최대경 12.8cm, 대각고 3.3cm, 저경 8.7cm

(4) 석곽묘 4호

가. 유구(도면 32·33, 도판 23·24)

조사대상지 남동쪽, 해발 32.1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목곽묘 8호의 남동쪽 일부와 목곽묘 9호의 남단벽을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조사전 유구의 상부는 후대 교란 및 삭평으로 인해 유물과 벽석이 노출된 상태였다.

유구의 서쪽으로는 석곽묘 6호가 나란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석곽묘 5호가 인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3개 묘를 아우르는 주구가 호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구의 배치양상으로 볼 때 석곽묘 4~6호는 동일한 묘역 내에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구는 석곽묘 4호와 6호 북쪽으로 87c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양단부는 삭평되었으며, 평면형태는 호상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426cm, 너비 110cm, 최대 깊이 25cm 정도이다.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남-북(N-7°-E)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직교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30cm, 너비 119cm 정도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264cm, 너비 65cm, 깊이 32cm 정도이며, 장단비 4.0:1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1단만 잔존한다. 벽석은 묘광 바닥에 갈색 점질토를 2~3cm 정도 깔아 정지한 후,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면에 일부 흙을 만든 후, 그 흙에 41~69cm 정도 크기의 할석을 수직하여 축조하였다. 바닥은 별도의 시상을 마련하지 않고 정지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유물은 총 16점이 출토되었으며, 양단부장 하였다. 북단벽쪽에서 유개고배 3점과 고배 1점, 개 1점, 대부완 1점, 대부장경호 1점이, 남단벽쪽에서 대부장경호 1점과 단경호 2점이 출토되었다. 또한, 단경호 북동쪽 아래에서 집게 1점, 망치 2점, 모루 2점, 줄형철기 1점 등 단야구가 세트로 출토되었다.

나. 유물

72. 유개고배(도면 34-72, 도판 25-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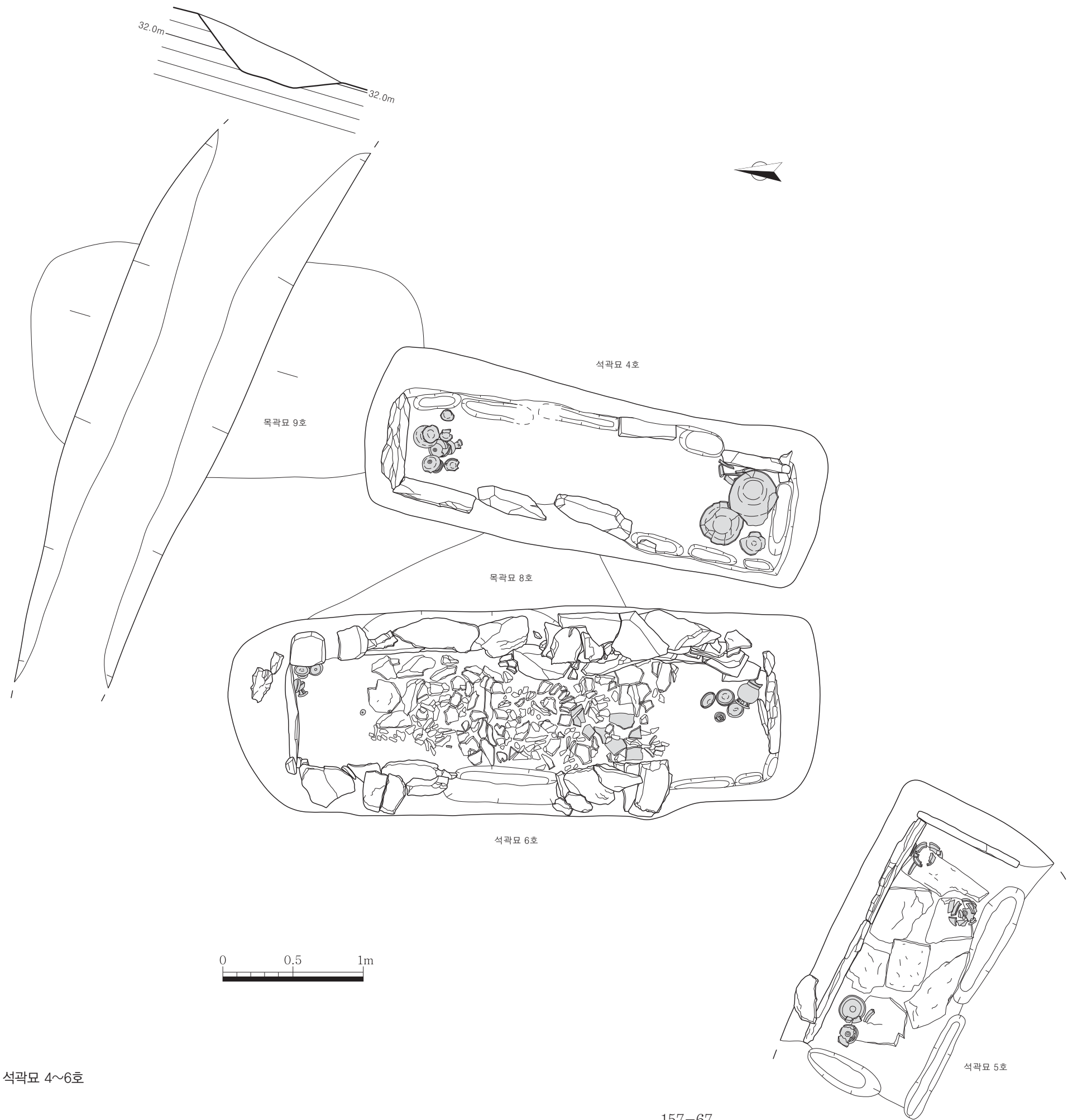
개는 구연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10YR 7/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고배는 2단투창 고배로 구연부와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10YR 7/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장방형 투창 3개씩을 등간격으로 엇갈리게 뚫었다.

- 개 : 기고 5.5cm, 구경 12.2cm, 꼭지고 1.0cm, 꼭지경 1.7cm
- 고배 : 복원기고 9.9cm, 구경 10.7cm, 복원대각고 5.8cm, 저경 7.9cm

73. 유개고배(도면 34-73, 도판 25-73)

개는 구연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신부가 찌그러졌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이다. 내외면에 회올리브색(7.5Y 4/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는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신부 내외면에서 갈회색(10YR 5/1)을 띠는 원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꼭지 내면과 신부 내외면에서 짙흔이 확



도면 32. 석곽묘 4~6호

인된다. 신부 외면에는 다른 토기의 구연단편이 부착되어 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고배는 2단투창 고배로 구연단과 뚜껑받이턱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1)이다. 내외면에 회올리브색(7.5Y 4/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신부 내면 하위와 대각단 내외면에서 회황갈색(10YR 6/2)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방형 투창 3개씩을 등간격으로 엇갈리게 뚫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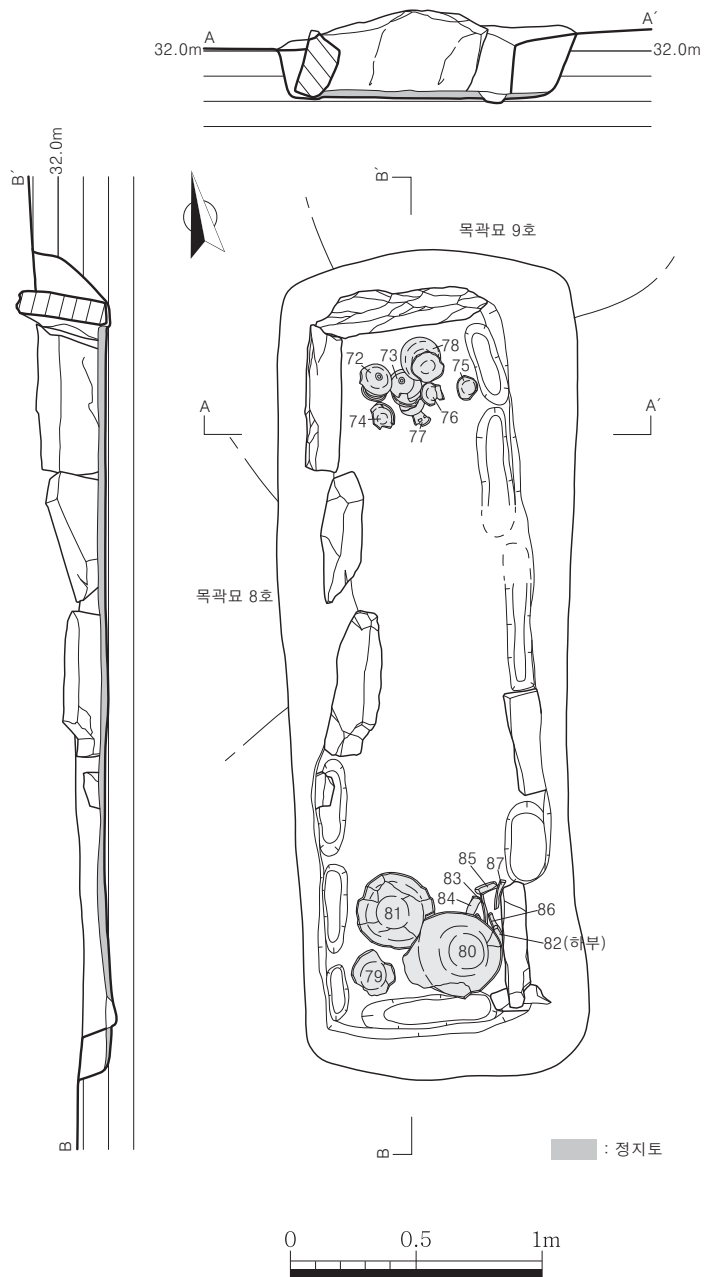
- 개 : 기고 5.3cm, 구경 11.0~12.6cm, 꼭지고 0.7cm, 꼭지경 2.0cm
- 고배 : 기고 9.7cm, 구경 10.1cm, 대각고 6.1cm, 저경 8.0cm

74. 유개고배(도면 34-74, 도판 25-74)

개는 신부 일부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외면과 속심이 명황색(2.5Y 7/3), 내면은 황회색(2.5Y 6/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고배는 2단투창 고배로 구연부와 신부,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황색(2.5Y 7/3)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장방형 투창 3개씩을 등간격으로 엇갈리게 뚫었다.

- 개 : 잔존기고 3.8cm
- 고배 : 복원기고 10.2cm, 구경 11.6cm, 복원대각고 5.9cm, 저경 7.9cm



도면 33. 석곽묘 4호

75. 개(도면 34-75, 도판 25-75)

신부 일부와 구연부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기고 5.3cm, 복원구경 12.5cm, 꼭지고 0.9cm, 꼭지경 2.0cm

76. 고배(도면 34-76, 도판 25-76)

2단투창 고배로 신부와 대각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명황색(2.5Y 7/3)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장방형 투창 3개씩을 등간격으로 엇갈리게 뚫었다.

잔존기고 9.8cm, 대각고 6.1cm, 저경 7.6cm

77. 대부완(도면 34-77, 도판 25-77)

신부와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6/1), 속심은 회색(N 5/)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하단에 방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8.6cm, 구경 9.9cm, 대각고 4.2cm, 저경 5.7cm

78. 대부장경호(도면 34-78, 도판 2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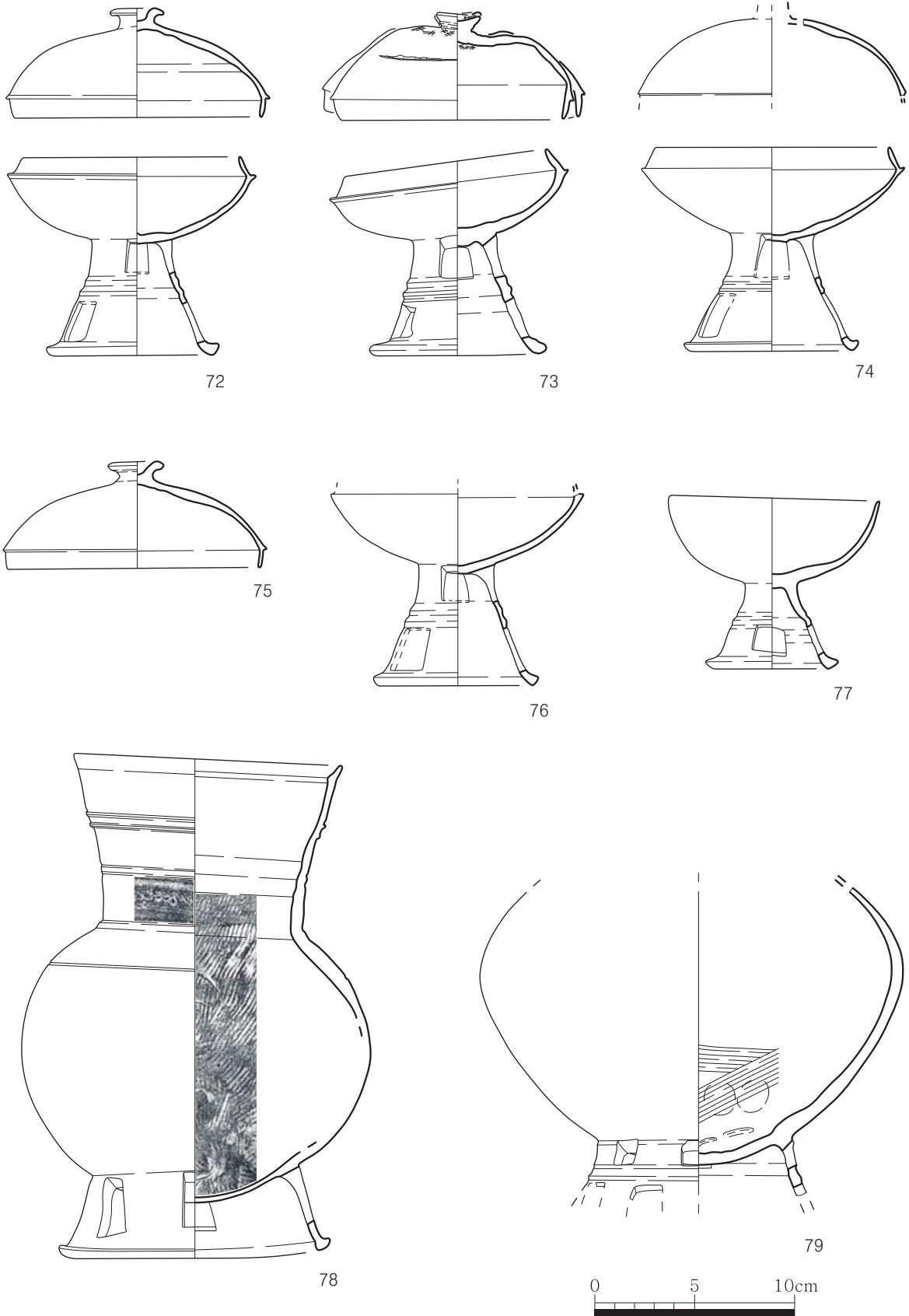
구경부 및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내면은 집선문 내박자 조정하였다. 저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구경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구경부는 2조와 1조의 돌대를 각 1열씩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으며, 하위 두 개 단에 1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견부에는 1조의 침선을 돌렸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8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24.6~25.2cm, 복원구경 13.2cm, 동최대경 17.3cm, 대각고 4.3cm, 저경 12.0cm

79. 대부장경호(도면 34-79, 도판 25-79)

동체부와 대각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저부는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획하였으며, 방형 투창 7개씩을 등간격으로 위아래가 엇갈리게 뚫었다.

잔존기고 15.3cm, 복원동최대경 21.1cm



도면 34. 석곽묘 4호 출토유물1

80. 단경호(도면 35-80, 도판 26-80)

구연부 및 동체부 상위의 극히 일부와 동체부와 저부가 분리되어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2.5Y 7/1)이다. 구연부와 동체부 상위의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내면은 집선문 내박자 조정 후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외면은 집선문 타날하였다.

잔존기고: 구연부 4.4cm, 동체부와 저부 22.6cm

81. 호(도면 35-81, 도판 26-81)

동체부 및 저부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등색(7.5YR 6/1)이다. 동체부 외면에서 흑반이 확인된다. 내면은 집선문 내박자 조정 후 부분적으로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외면은 집선문 타날하였다.

잔존기고 21.6cm, 복원동최대경 30.7cm

82. 줄형 철기(도면 36-82, 도판 26-82)

단조품으로 신부의 선단부와 병부 말단이 결실되었다. 표면은 녹흑으로 박락된 흔적이 확인된다. 신부에는 줄눈이 확인되지 않으며,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병부는 자루 목질흔이 확인된다.

잔존길이 11.3cm, 신부너비 1.2cm, 신부두께 0.3cm, 중량 17.4g

83. 집게(도면 36-83, 도판 2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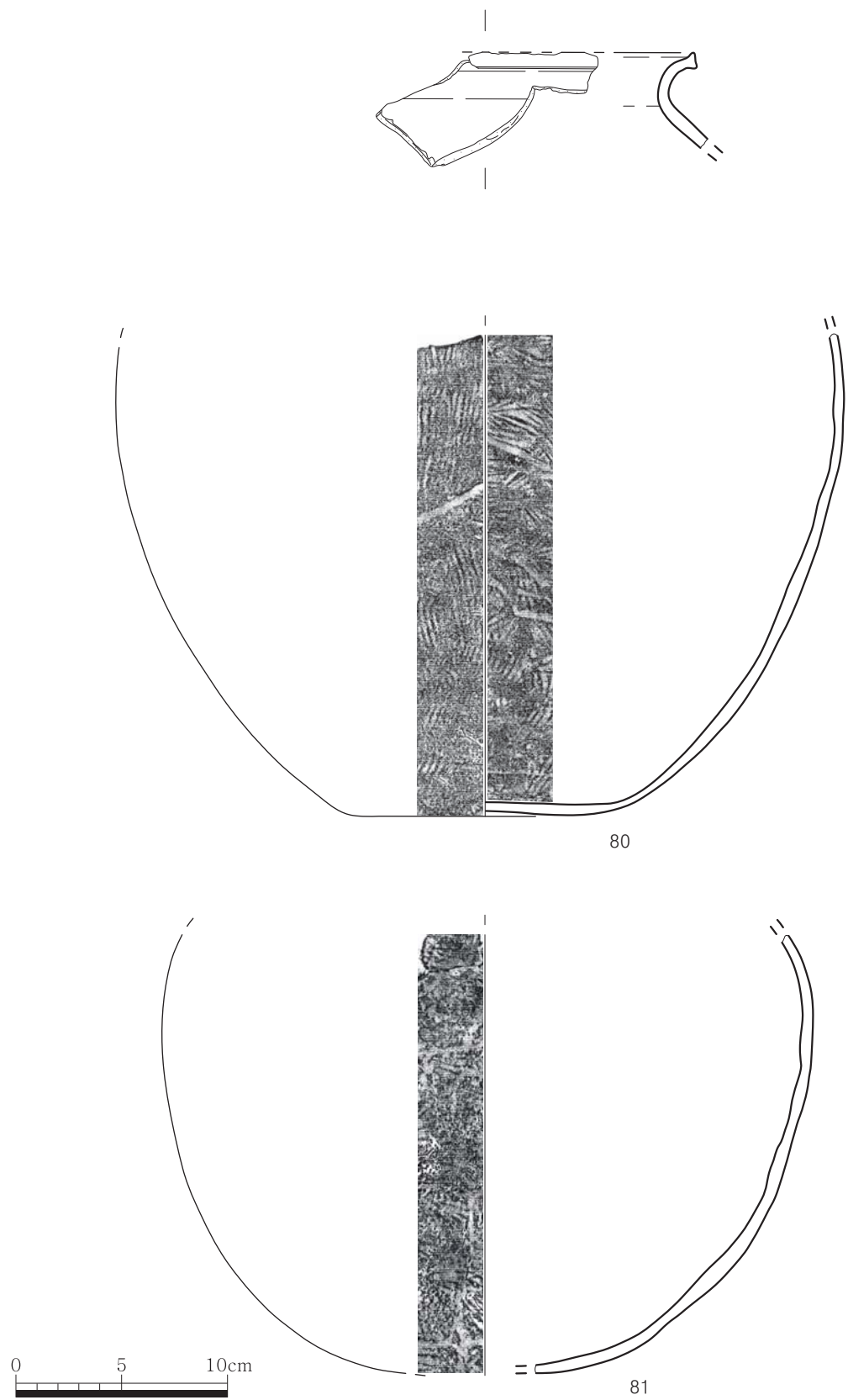
단조품으로 한쪽 손잡이부의 말단이 결실되었다. 표면은 부식으로 갈라짐과 녹흑으로 박락된 흔적이 확인된다. 집게부의 평면형태는 위쪽은 호선형이며, 아래쪽은 직선형으로 물건을 집고 두드리기 좋은 형태이다. 손잡이부의 평면형태도 아래쪽 말단부가 결실되었지만 집게부와 같이 위쪽은 호선형, 아래쪽은 직선형에 가깝다. 이와 같이 집게부는 호선형, 손잡이는 직선형과 집게부는 직선형, 손잡이는 호선형으로 제조한 2가닥을 교차시켜 리벳형태로 결합하여 회전축을 설치하였다.

길이 22.9cm, 손잡이부 길이 16.0cm, 손잡이부 두께 0.8cm, 집게부 길이 5.0cm, 집게부 두께 0.7cm, 중량 169.0g

84. 망치(도면 36-84, 도판 27-84)

단조품으로 완형이다. 같이 출토된 2개의 망치 중 소형이다. 신부의 평면형태는 정면은 중앙이 볼록하고 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배 모양이나, 측면은 세장방형에 가깝다. 양단은 평평하나 가장자리 쪽으로 많이 두드려 밀린 흔적이 확인된다. 자루구멍은 신부의 중앙부에서 한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 장방형으로 뚫었으며, 자루의 목질흔이 수착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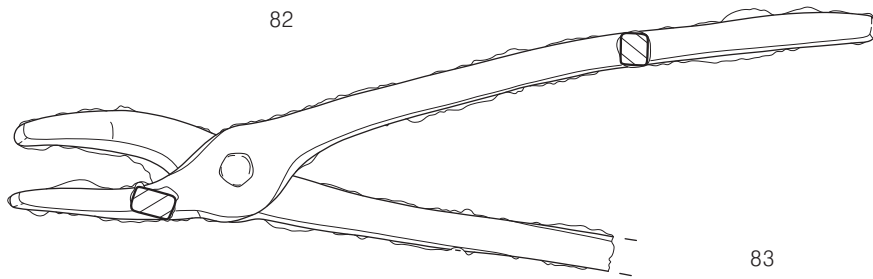
길이 7.9cm, 신부너비 1.7cm, 신부두께 1.8cm, 중량 99.2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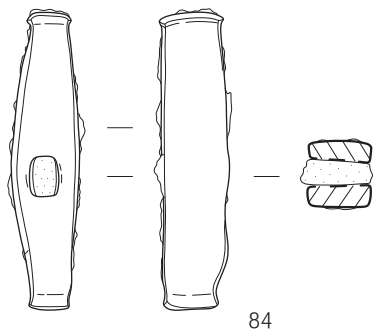
도면 35. 석곽묘 4호 출토유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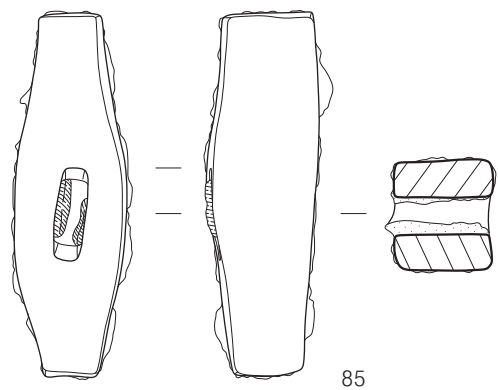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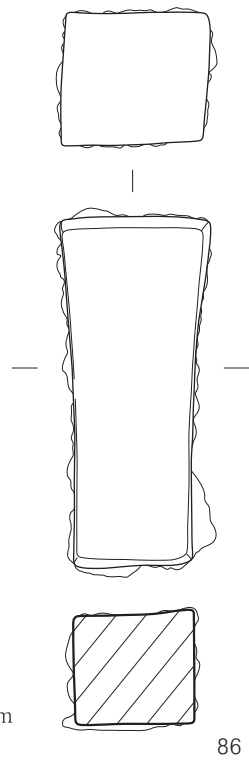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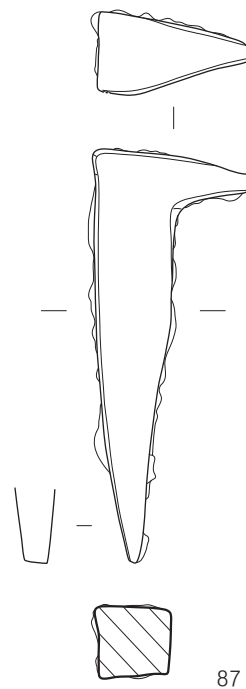
84



85



86



87



도면 36. 석곽묘 4호 출토유물3

85. 망치(도면 36-85, 도판 27-85)

단조품으로 완형이다. 같이 출토된 2개의 망치중 대형이다. 신부의 평면형태는 정면은 소형망치와 같이 배 모양이나, 측면은 세장방향에 가까우나 한쪽이 볼록한 형태이다. 양단은 평평한데, 상단부보다 하단부가 좁은 형태이다. 자루구멍은 신부의 중앙부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치우친 지점에 장방형으로 뚫었으며, 자루의 목질흔이 수작되어 있다.

길이 9.3cm, 신부너비 2.7cm, 신부두께 3.0cm, 중량 312.0g

86. 모루(도면 36-86, 도판 27-86)

단조품으로 완형이다. 표면은 녹흑으로 인해 박락이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가깝지만, 가운데 부분으로 약하게 만곡된 형태이며, 양단의 넓이가 차이가 약간 있다. 횡방향 단면형태는 방형이다.

길이 9.2cm, 신부너비 3.1~3.9cm, 중량 600.8g

87. 부리형¹²⁾ 모루(도면 36-87, 도판 27-87)

단조품으로 완형이다. 상단부는 이등변삼각형으로 뾰족하게 돌출되었으며, 신부는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좁아진다. 단면형태는 방형이다.

길이 10.9cm, 상단부 길이 4.0cm, 신부너비 0.6~2.2cm, 중량 176.2g

(5) 석곽묘 5호

가. 유구(도면 32·37, 도판 23·28)

조사대상지 남쪽 중앙, 해발 31.6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후대 삭평으로 인해 남장벽과 서단벽은 유실되었다. 북동쪽으로 석곽묘 4호·6호와 인접해 있으며, 동일한 묘역 내 조성한 배장묘로 판단된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69°-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147cm, 잔존너비 77cm 정도이다. 석곽의 크기는 벽석 홈 흔적으로 보아 길이 117cm, 너비 50cm, 깊이 17cm 정도이며, 장단비 2.3:1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1단만 잔존한다.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면에 일부 홈을 만든 후, 그 홈에 54~65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직하여 축조하였다. 바닥에는 전면에 갈색 사질점토를 3~5cm 정도 두께로 깔아 정지하였으며, 24~39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1겹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12) 현대 대장간에서는 ‘뿔모루’라고 칭하기도 한다.

유물은 총 6점이 출토되었으며, 양단부장 하였다. 동단벽쪽에서 유개고배 1점과 대부호의 대각 1점, 철촉 2점이, 서단벽쪽에서 유개고배 1점과 대부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88. 유개고배 (도면 37-88, 도판 28-88)

개는 구연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6/1), 속심은 회색(N 4/1)이다. 내외면에는 회올리브색(7.5Y 4/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는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신부 내면 상위에서 회색(N 5/)을 띠는 원형 소성흔이, 신부 외면에서 다른 토기의 구연단편이 확인된다. 꼭지와 신부 내면 상위에서 짚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고배는 구연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대각 내면에서 회황색(2.5Y 7/2)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 개 : 기고 5.0cm, 구경 11.7cm, 꼭지고 0.8cm, 꼭지경 2.0cm
- 고배 : 기고 5.1cm, 구경 10.3cm, 대각고 1.3cm, 저경 5.3cm

89. 유개고배(도면 37-89, 도판 28-89)

개는 구연부와 신부 하위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고배는 뚜껑받이턱과 대각단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 개 : 잔존기고 2.3cm, 복원구경 11.7cm
- 고배 : 기고 5.5cm, 구경 10.4cm, 대각고 1.4cm, 저경 5.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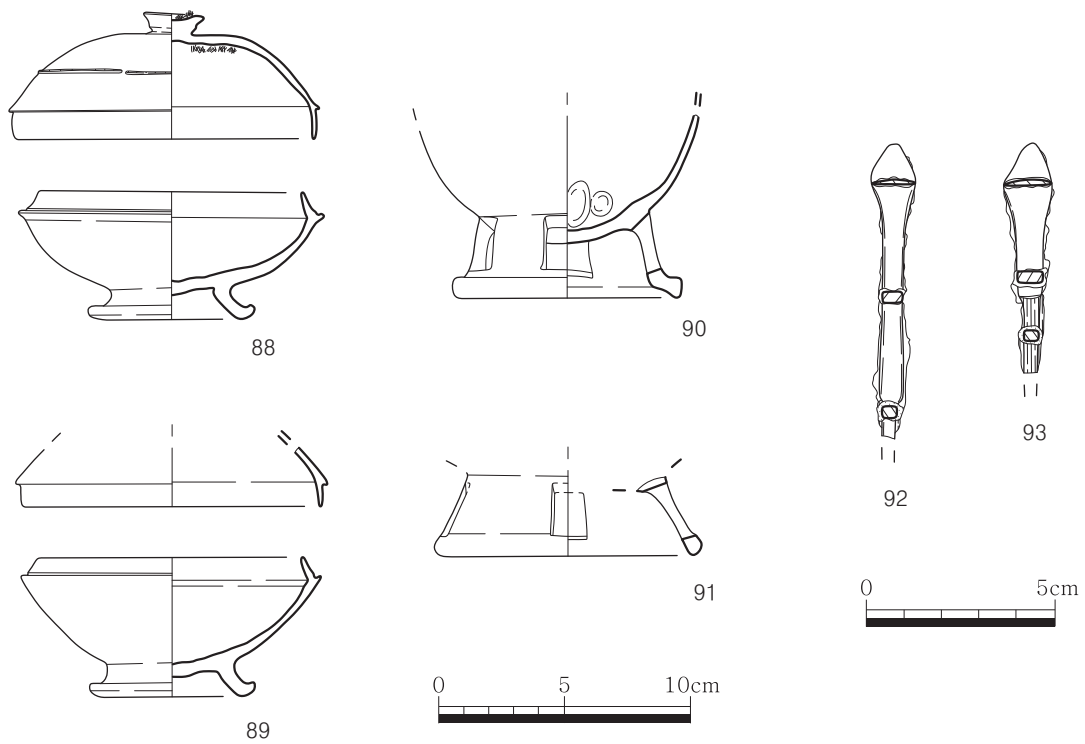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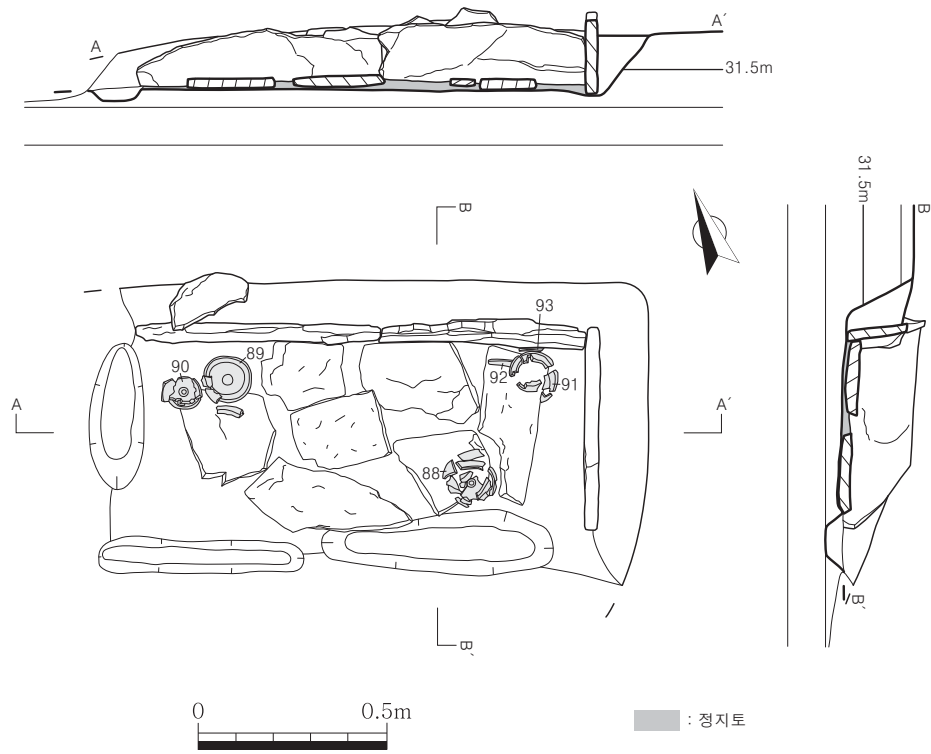
90. 대부호(도면 37-90, 도판 28-90)

동체부 하위와 대각 일부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황색(2.5Y 7/2), 속심은 황회색(2.5Y 5/1)이다. 저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5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잔존기고 7.2cm, 대각고 3.2cm, 저경 8.5cm

91. 대각(도면 37-91, 도판 28-91)

대부호의 대각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하며, 태토는 사립이 다량 혼입된



도면 37. 석곽묘 5호 및 출토유물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4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잔존기고 3.2cm, 대각고 3.2cm, 저경 9.9cm

92. 철촉(도면 37-92, 도판 28-92)

단조품으로 경부 말단이 결실되었다. 촉두부는 능형이며, 단면형태는 편볼록렌즈형이다. 단면형태는 신부가 장방형, 莖部는 방형이다. 莖部에는 화살대 목질흔이 소량 확인된다.

잔존길이 7.8cm, 두부너비 1.2cm, 두부두께 0.1cm, 중량 9.7g

93. 철촉(도면 37-93, 도판 28-93)

단조품으로 경부 말단이 결실되었다. 촉두부는 능형이며, 단면형태는 편볼록렌즈형이다. 단면형태는 신부가 장방형, 莖部는 방형이다. 莖部에는 화살대 목질흔이 다량 확인된다.

잔존길이 6.1cm, 두부너비 1.35cm, 두부두께 0.15cm, 중량 6.2g

(6) 석곽묘 6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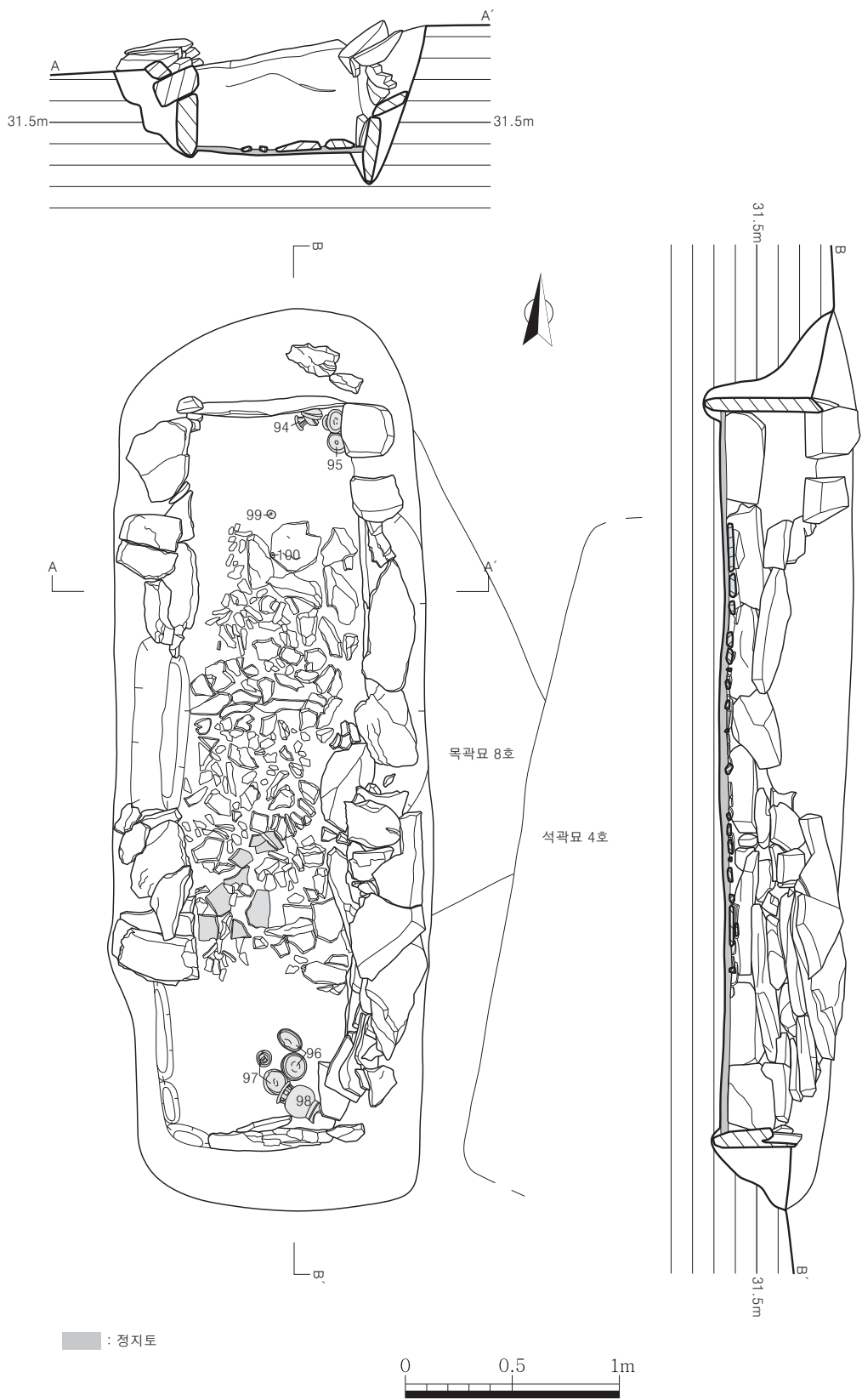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32·38, 도판 23·29·30)

조사대상지 중앙, 해발 31.9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목곽묘 8호의 서쪽을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조사전 유구의 상부는 후대 교란 및 삭평으로 인해 벽석이 파괴되거나 석곽 내부로 함몰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유구의 동쪽으로는 석곽묘 4호가 나란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석곽묘 5호가 인접해 있다. 북쪽으로는 주구가 호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구의 배치양상으로 볼 때 석곽묘 4~6호는 동일한 묘역 내에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은 양단벽과 서장벽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2단으로 굴착하였으며, 동장벽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4°-W)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422cm, 너비 146cm 정도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331cm, 너비 78cm, 깊이 58cm 정도이며, 장단비는 4.2:1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양단벽은 1단, 양장벽은 1~5단 정도 잔존한다. 벽석은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면에 일부 흠을 만든 후, 그 흠에 양단벽은 60~74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직하여 축조하였다. 양장벽은 27~58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직하여 최하단석을 축조하고, 최하단석 상부로는 15~60cm 정도 크기의 할석과 청석제 판석을 평적하여 축조하였다. 바닥은 벽석 축조 후 석곽 내부 전면에 갈색 점질토를 3~5cm 정도 두께로 깔아 정지한 후, 양단벽의 유물부장 공간을 제외한 전면에 10~27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1겹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도면 38. 석곽묘 6호

유물은 총 7점이 출토되었으며, 양단부장 하였다. 북단벽 동쪽 모서리에서 유개고배 2점, 남단벽 동쪽 모서리에서 유개고배 2점과 대부장경호 1점, 시상 북쪽에서 방추차 1점과 이식 1점이 출토되었다. 이식의 출토위치를 통해 볼 때 피장자의 두향은 북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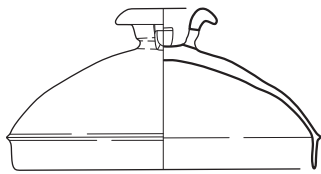
나. 유물

94~97. 유개고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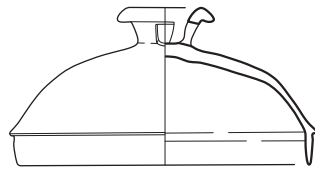
2단투창 유개고배 2점과 1단투창 유개고배 1점, 대각 단 수를 알 수 없는 유개고배 1점 등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대체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2단투창 고배는 대각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으로 구획한 후, 각 단에 장방형 투창 4개씩을 엇갈리게 뚫었다. 1단투창 고배는 장방형 투창 3개를 뚫었다.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징
94	개	39-94	30-94	기고 6.4 구경 11.8 꼭지고 1.6 꼭지경 2.9	구연단 극히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속심 회색(5Y 4/1). 꼭지 역제형 투창 3개 등간격으로 뚫음.
	1단 투창 고배			기고 9.8 구경 9.5 대각고 5.3 저경 6.8	구연부 및 신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 대각 장방형 투창 3개 등간격으로 뚫음.
95	개	39-95	30-95	기고 6.2 구경 11.5 꼭지고 1.5 꼭지경 2.9	구연부 및 신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속심 회색(N 4/). 신부 내면 상위 회백색(N 6/)을 띠는 원형 소성흔 확인. 꼭지 역제형 투창 3개 등간격으로 뚫음.
	2단 투창 고배			기고 9.3 구경 10.6 대각고 5.1 저경 7.5	구연단 및 뚜껑받이턱 극히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4/), 속심 갈회색(7.5YR 4/1). 대각 중위 2조 돌대 돌린 후, 상단에 장방형, 하단에 방형 투창 4개씩을 등간격으로 엇갈리게 뚫음.
96	개	39-96	30-96	기고 5.6 구경 11.1 꼭지고 1.2 꼭지경 2.4	구연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백색(2.5Y 7/1), 속심 암회색(2.5Y 6/1). 신부 내면 상위 황회색(2.5Y 5/1)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 확인.
	2단 투창 고배			기고 8.9 구경 10.4 대각고 4.6 저경 7.4	구연단 및 뚜껑받이턱 극히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4/), 속심 갈회색(7.5YR 4/1). 대각 중위 2조 돌대 돌린 후, 장방형 투창 4개씩을 등간격으로 엇갈리게 뚫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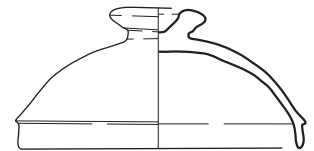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징
97	개	39-97	30-97	기고 5.9 구경 11.6 꼭지고 1.4 꼭지경 3.1	꼭지 및 구연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속심 갈회색(7.5YR 4/1). 꼭지 역제형 투창 3개 등간격으로 뚫음.
	고배			잔존기고 2.7 저경 6.5	대각단과 대각 하위의 극히 일부만 잔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5Y 6/1). 잔존한 대각에서 2개의 투창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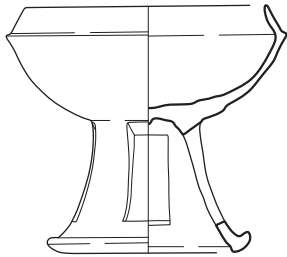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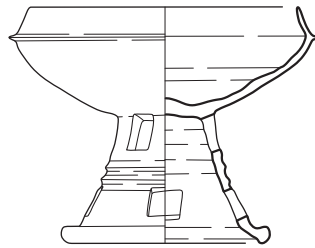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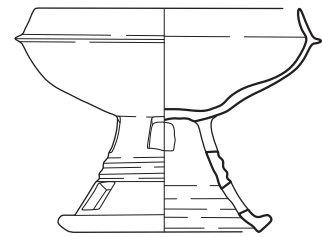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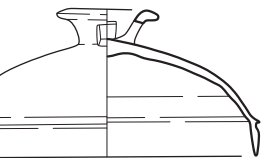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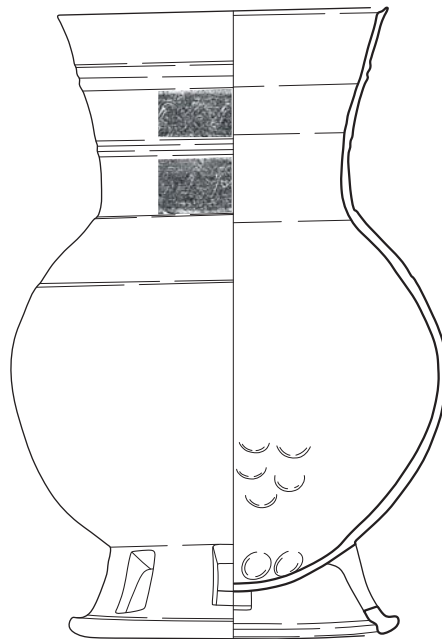
98



99



100



98. 대부장경호(도면 39-98, 도판 30-98)

구정부의 1/3 정도가 결실되어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와 저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구정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구정부는 2조와 1조의 돌대를 각 1열씩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으며, 하위 두 개 단에 10치구의 파상문을 시문하였다. 견부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렸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7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24.9cm, 복원구경 13.2cm, 동최대경 17.3cm, 대각고 3.7cm, 저경 11.7cm

99. 방추차(도면 39-99, 도판 30-99)

완형이다. 연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5YR 6/6)이다. 중앙부에는 직경 0.9cm 정도의 구멍을 양쪽에서 뚫었다.

직경 4.1cm, 두께 2.3cm

100. 이식(도면 39-100, 도판 30-100)

청동제이식으로 1점이 출토되었다. 청동녹이 전면에 형성되어 있어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다. 단면 형태 원형인 청동봉을 등글게 휘어 놓은 평면형태 원형이다.

직경 1.8×1.9cm, 두께 0.25cm, 중량 2.0g

(7) 석곽묘 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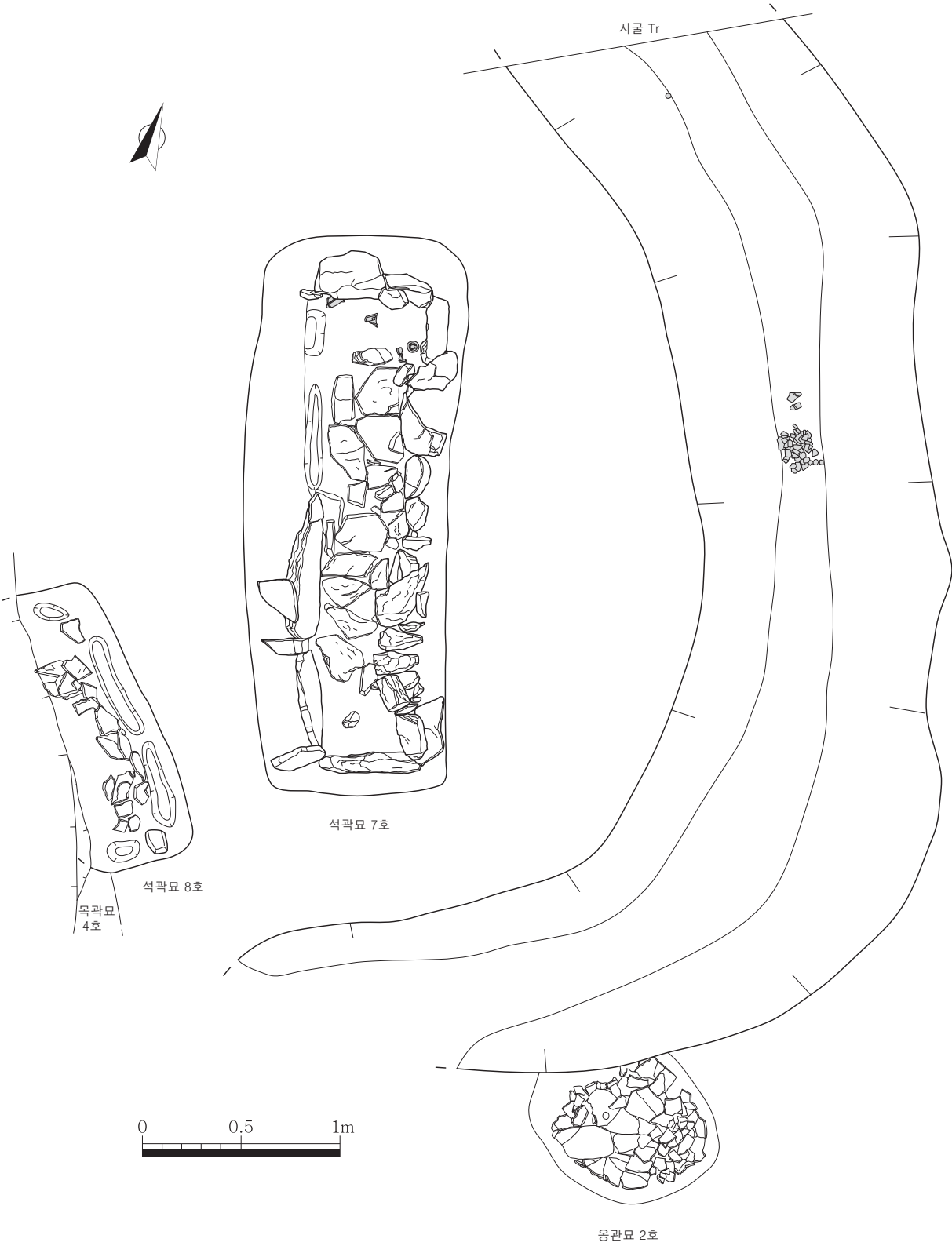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0·41, 도판 31·32)

조사대상지 중앙부 서쪽, 해발 32.2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구상유구 1호의 중앙부를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조사전 유구의 상부는 후대 교란 및 삭평으로 인해 벽석이 노출된 상태였다.

유구의 남쪽으로는 석곽묘 8호가 조성되어 있으며, 동쪽으로는 주구가 호상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구의 배치양상으로 볼 때 석곽묘 7호와 8호는 동일한 묘역 내에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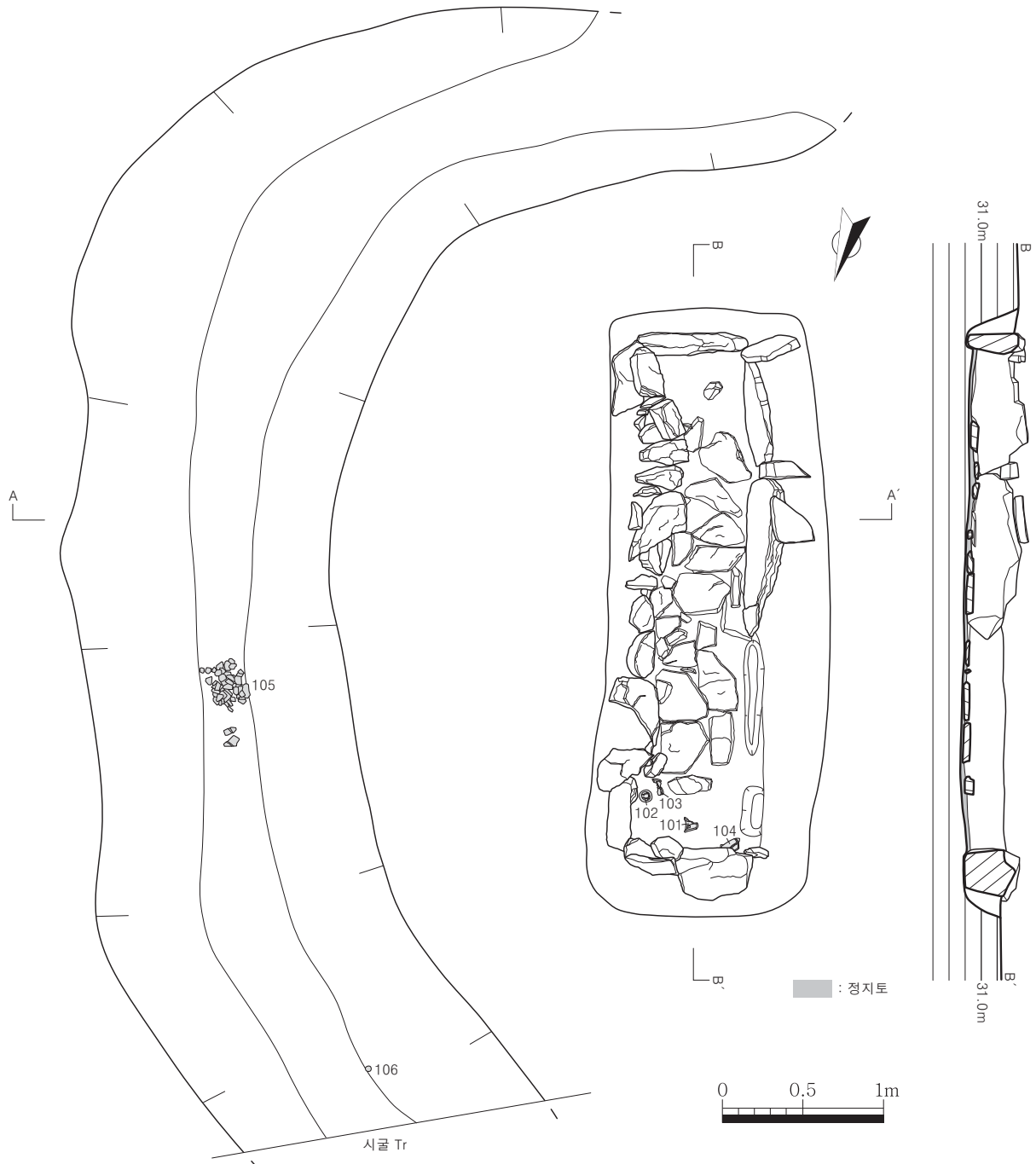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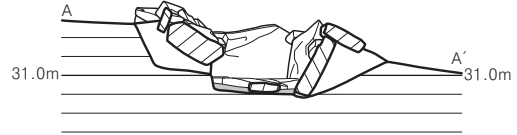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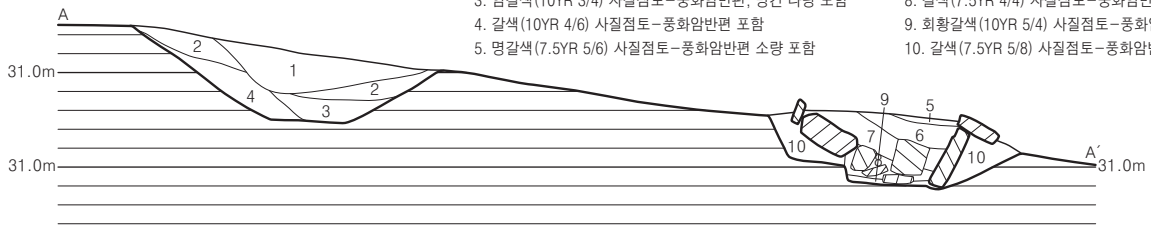
주구는 유구의 동쪽으로 173c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양단부는 삭평되었으며, 평면형태는 호상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840cm, 너비 170cm, 최대 깊이 37cm 정도이다.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총 2점이 출토되었다. 주구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쳐서 호 동체부편 1점과 북쪽에서 어망추 1점이 출토되었다.

묘곽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나, 동장벽만 2단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남-북(N-18°-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다. 묘곽의 규모는 길이 378cm, 너비 138cm 정도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307cm, 너비 55cm, 깊이 40cm이며, 장단비 5.5:1 정도이다.



도면 40. 석곽묘 7·8호

1. 황갈색(10YR 5/6) 사질점토-풍화암반면, 망간 다량 포함
2. 회황갈색(10YR 5/4) 사질점토-풍화암반면, 망간 다량 포함
3. 암갈색(10YR 3/4) 사질점토-풍화암반면, 망간 다량 포함
4. 갈색(10YR 4/6) 사질점토-풍화암반면 포함
5.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풍화암반면 소량 포함
6. 명갈색(7.5YR 5/6) 사질점토-풍화암반면 다량 포함
7. 등갈색(7.5YR 6/6) 사질점토-풍화암반면, 목탄 소량 포함
8. 갈색(7.5YR 4/4) 사질점토-풍화암반면 다량 포함
9. 회황갈색(10YR 5/4) 사질점토-풍화암반면 다량 포함
10. 갈색(7.5YR 5/8) 사질점토-풍화암반면 다량 포함



도면 41. 석곽묘 7호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1~2단 정도 잔존하며, 서장벽의 벽석 일부는 유실되어 바닥면에 벽석 축조를 위한 홈만 확인되었다. 동장벽은 2단으로 굴착하여 단이 형성된 상면에 30~43cm 정도 크기의 청석제를 판석으로 평적하여 축조하였다. 나머지 벽석은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면에 홈을 만든 후, 41~69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적하여 최하단석을 축조하고, 그 상부는 32~42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평적하여 축조하였다. 바닥은 벽석 축조 후 석곽 내부 전면에 갈색 점질토를 2~3cm 정도 깔아 정지하였다. 시상은 양단벽 유물 부장공간을 제외한 중앙부를 중심으로 정지토 상면에 15~37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1겹 깔아 마련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유물은 북단벽에서만 총 4점이 출토되었으나, 시상의 축조 상태를 통해 볼 때 남단벽쪽에도 유물 등을 부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대각편 3점과 직구호편 1점이 흐트러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나. 유물

101. 대각(도면 42-101, 도판 32-101)

대각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상하 엇갈리게 투창을 뚫었다. 투창은 3개가 확인된다.

잔존기고 6.7cm, 복원저경 9.9cm

102. 대각(도면 42-102, 도판 32-102)

대각 하위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N 7/)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한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하단에서 3개의 방형 투창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9cm, 저경 7.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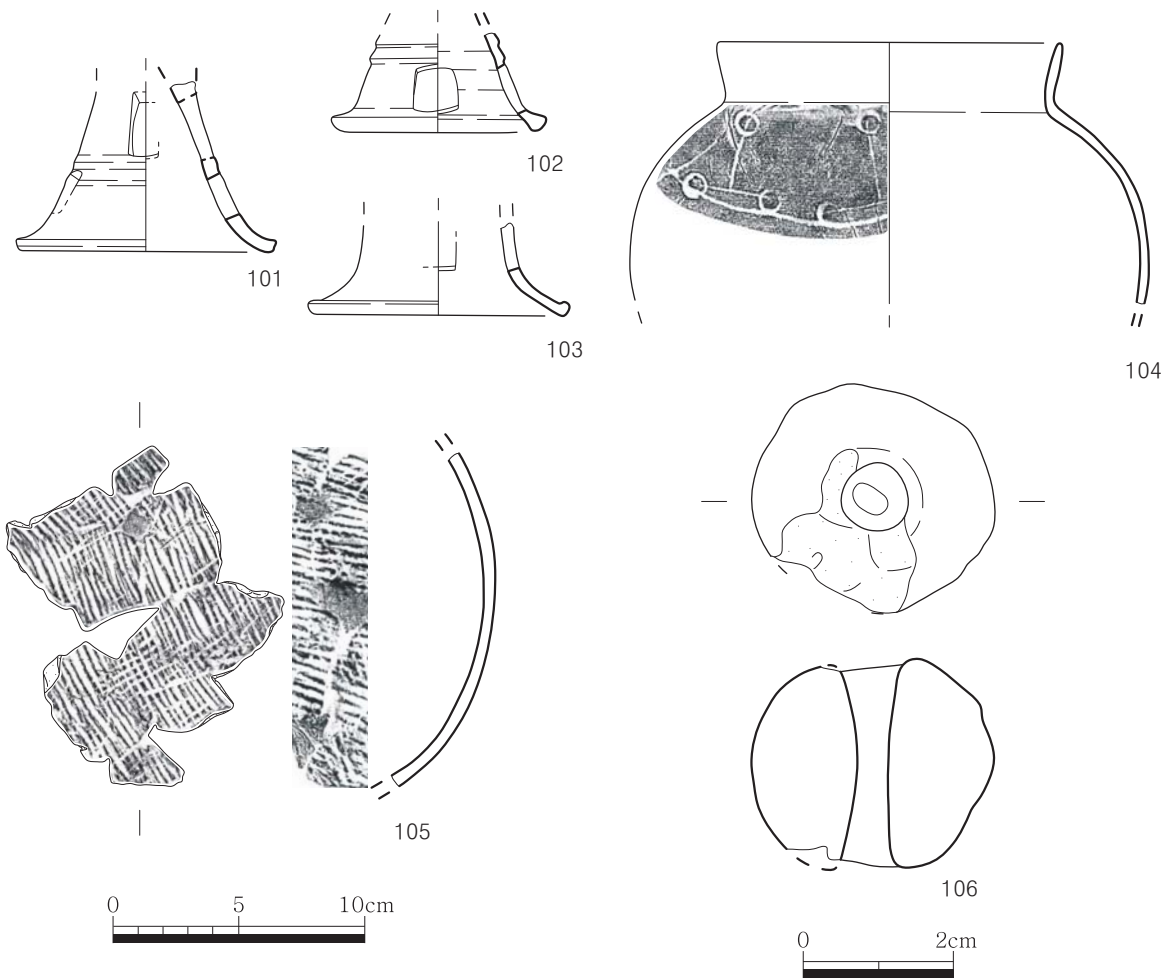
103. 대각(도면 42-103, 도판 32-103)

대각 하위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2.5Y 7/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한 대각에서 2개의 투창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6cm, 복원저경 9.8cm

104. 직구호(도면 42-104, 도판 32-104)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도면 42. 석곽묘 7호 및 주구 출토유물

7/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상위에는 ‘ㄴ’자형을 시문한 후, 양 끝쪽으로 원문을 시문하였다.

잔존기고 10.2cm, 복원구경 13.5cm

105. 호 동체부편(도면 42-105, 도판 32-105)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적갈색(5YR 5/4)이다. 내면은 집선문 내박자 조정하였고, 외면은 집선문 타날하였다.

잔존기고 13.1cm

106. 어망추(도면 42-106, 도판 32-106)

일부가 결실되었다. 토제 어망추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다. 태토는 세사립과 석립이 다량 혼입된 점

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등색(7.5YR 6/4)이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중심부에는 직경 1.0cm 정도의孔이 투공되었다.

길이 2.8cm, 직경 3.2cm

(8) 석곽묘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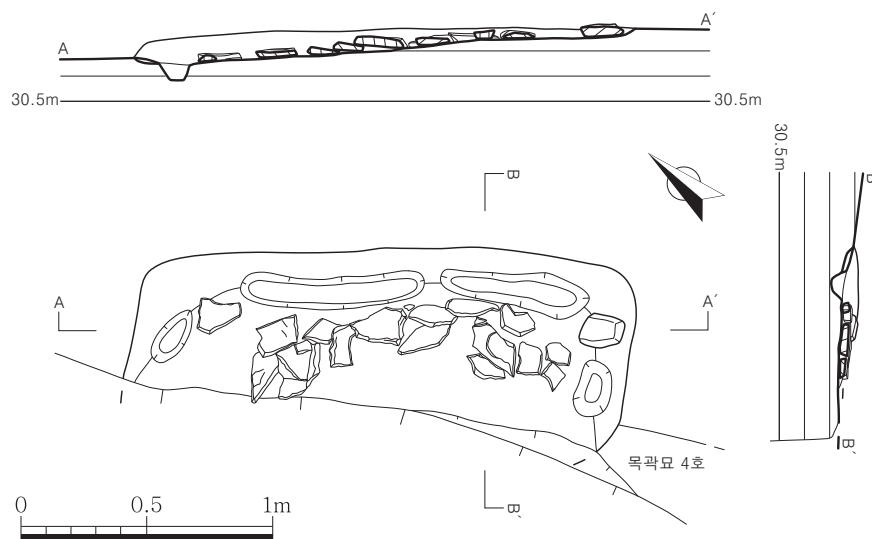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0·43, 도판 31·32)

조사대상지 중앙부 서쪽, 해발 30.8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는 목곽묘 4호의 상부를 파괴하고 조성하였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서장벽과 벽석은 유실되어 바닥만 잔존한다. 북쪽으로 석곽묘 7호가 인접해 있으며, 7호와 함께 동일한 묘역 내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42°-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198cm, 잔존너비 70cm 정도이다. 석곽의 규모는 벽석의 흠 흔적으로 보아 길이 162cm, 잔존너비 50cm, 깊이 7cm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모두 유실되었으며, 바닥면에서 벽석 축조를 위한 25~73cm 정도 크기의 흠이 확인되었다. 시상은 동장벽 중심으로 잔존하며, 12~22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1겹 깔아 마련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43. 석곽묘 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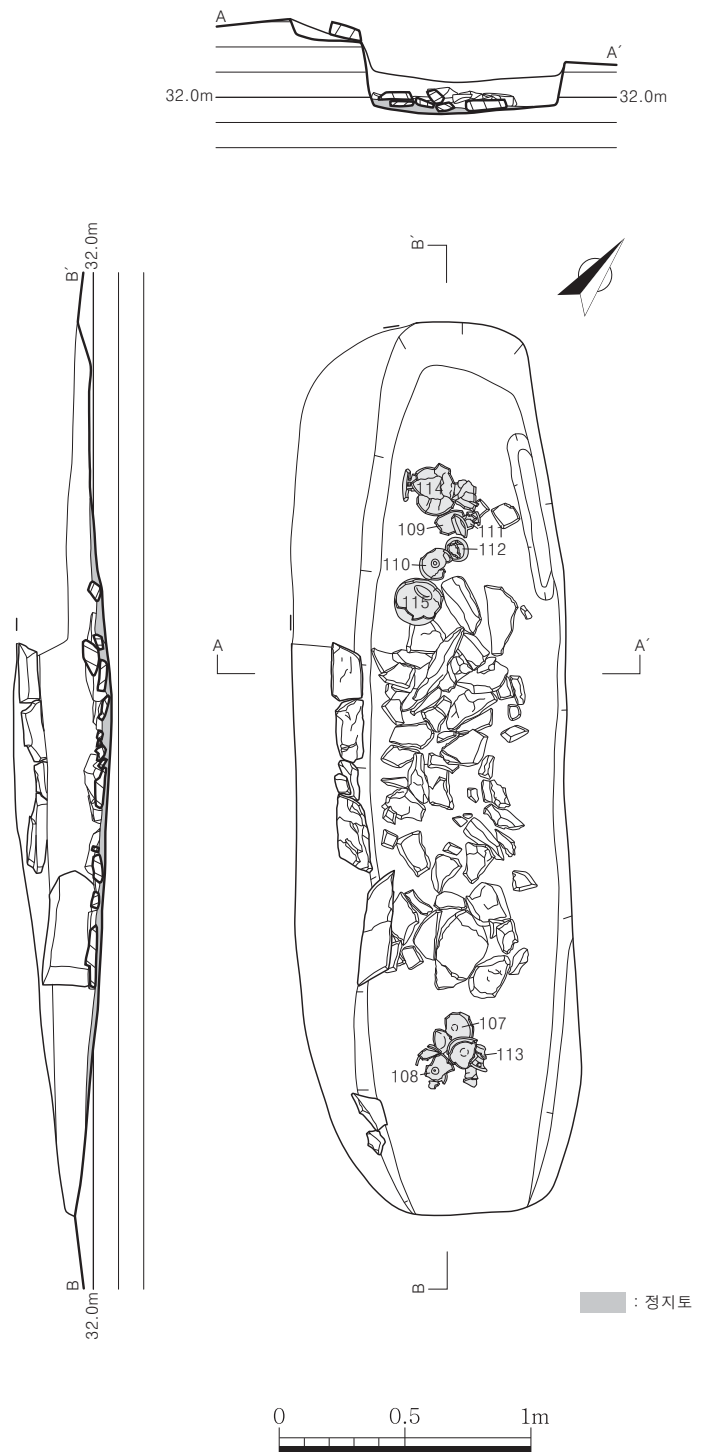
(9) 석곽묘 9호

가. 유구(도면 44, 도판 33)

조사대상지 중앙부 북쪽, 해발 32.3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북쪽으로는 구상유구, 남쪽으로는 석곽묘 4·6호, 남서쪽으로는 석곽묘 7·8호가 인접해 있다. 조사전 후대 삭평으로 인해 벽석이 유실되거나, 석곽 내부로 함몰되어 있었으며, 유물 일부가 노출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묘광은 풍화암반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나, 동장벽만 2단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바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25°-W)방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57cm, 너비 109cm 정도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337cm, 너비 75cm, 깊이 37cm이며, 장단비 4.4:1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회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벽석은 동장벽 중앙부에서만 1단 정도 잔존한다. 동장벽은 상단에 15~28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평적하여 축조하였다. 서장벽 남쪽 바닥면에는 벽석 축조를 위한 홈만 확인되었다. 바닥은 벽석 축조 후 석곽 내부 전면에 갈색 점질토를 2~3cm 정도 깔아 정지하였다. 시상은 양단벽 유물 부장공간을 제외한 중앙부를 중심으로 정지토 상면에 5~33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1겹 깔아 마련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도면 44. 석곽묘 9호

유물은 총 9점이 출토되었으며, 양단부장 하였다. 북단벽쪽에서 유개고배 2점과 대부완 1점, 남단 벽쪽에서 개 2점과 고배 1점, 대각편 1점, 호 1점, 대부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07. 유개고배(도면 45-107, 도판 34-107)

개는 구연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 손질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2치구의 ‘八’자 선문을 등간격으로 시문하였다.

고배는 2단투창 고배로 구연부의 1/2 정도와 신부 및 대각 일부가 결실되어 도면복원하였다. 도질 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6/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2치구의 ‘八’자 선문을 등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상단에는 장방형, 하단에는 제형 투창 3개씩을 등간격으로 엇갈리게 뚫었다.

- 개 : 기고 5.9cm, 구경 12.7cm, 꼭지고 1.1cm, 꼭지경 2.8cm
- 고배 : 기고 11.1~11.6cm, 복원구경 11.2cm, 대각고 6.6cm, 저경 8.1cm

108. 유개고배(도면 45-108, 도판 34-108)

개는 꼭지와 신부,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2치구의 ‘八’자 선문을 등간격으로 시문하였다.

고배는 2단투창 고배로 신부 일부 및 구연부와 대각 대부분이 결실되어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6/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2치구의 ‘八’자 선문을 등간격으로 시문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상단에 3개, 하단에 1개의 투창이 확인된다.

- 개 : 기고 3.8cm, 구경 12.5cm, 꼭지고 1.2cm, 꼭지경 2.8cm
- 고배 : 잔존기고 8.3cm, 복원구경 11.5cm

109. 개(도면 45-109, 도판 34-109)

신부 일부 및 구연부의 1/2 정도가 결실되어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5Y 6/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상위에서 꼭지 접합흔이 확인된다. 신부에는 2치구의 ‘八’자 선문을 등간격으로 시문하였다.

기고 5.7cm, 복원구경 13.1cm, 꼭지고 0.9cm, 꼭지경 2.6cm

110. 개(도면 45-110, 도판 34-110)

신부와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5Y 6/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 상위에서 꼭지 접합흔이 확인된다. 신부에는 2치구의 '八'자 선문을 등간격으로 시문하였다.

기고 6.1cm, 복원구경 12.7cm, 꼭지고 1.2cm, 꼭지경 2.8cm

111. 고배(도면 45-111, 도판 34-111)

2단투창 고배로 전체 기형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황회색(2.5Y 6/1),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내외면에 회올리브색(7.5Y 5/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신부 내면 하위에서 짙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상하단에서 각 2개씩의 투창이 확인된다.

기고 9.9cm, 복원구경 9.4cm, 대각고 6.3cm, 복원저경 7.6cm

112. 대각(도면 45-112, 도판 34-112)

대각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백색(5Y 7/1), 속심은 회황색(5Y 6/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방형 투창 3개씩을 등간격으로 엇갈리게 뚫었다.

잔존기고 7.1cm, 저경 8.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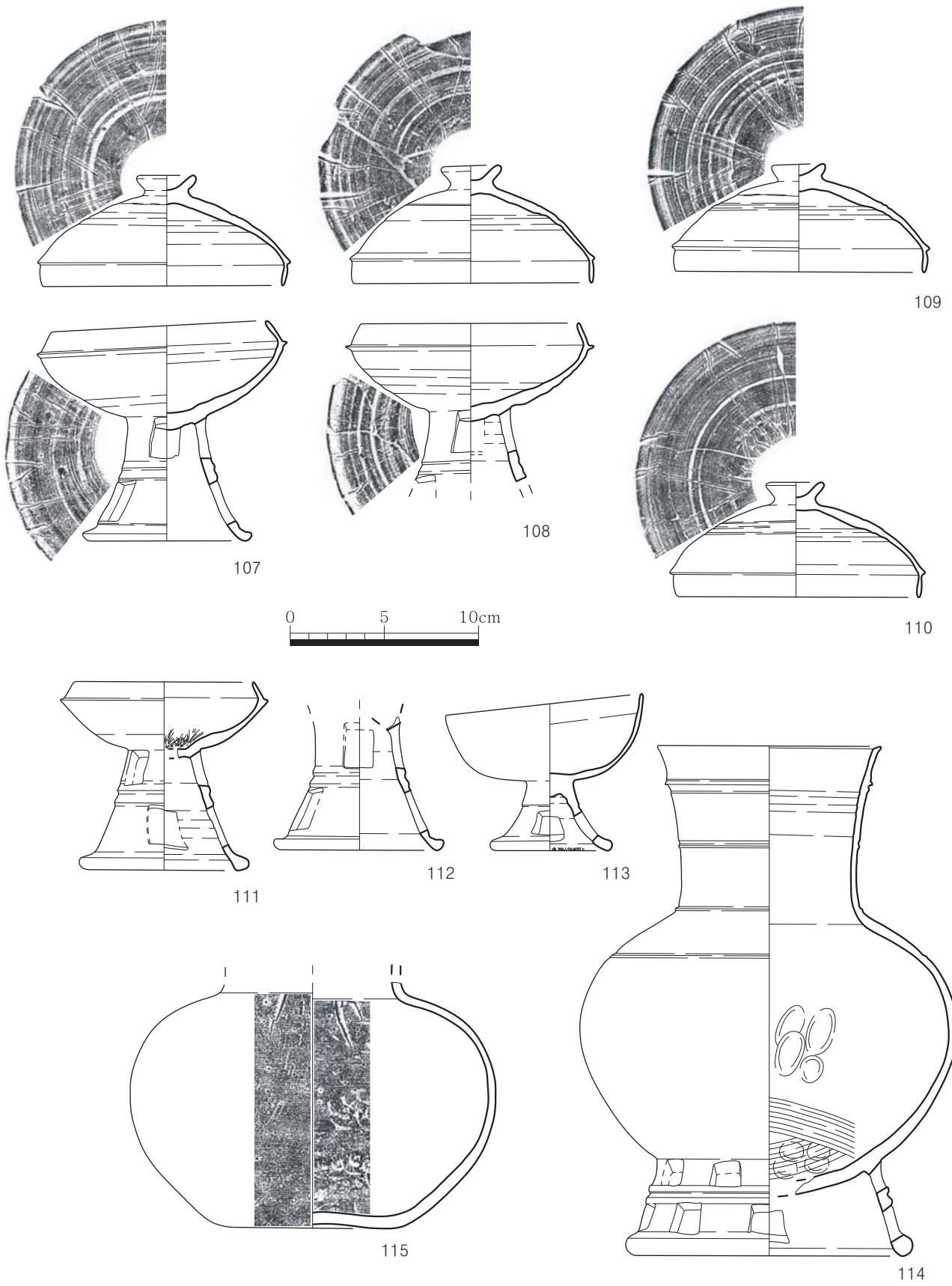
113. 대부완(도면 45-113, 도판 34-113)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내외면에는 회올리브색(5Y 5/3)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대각단 내면에서 짙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하단에 제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7.1~8.3cm, 구경 10.4cm, 대각고 3.7cm, 저경 6.0 cm

114. 대부장경호(도면 45-114, 도판 34-114)

전체 기형의 1/2 정도 잔존하는 것을 도면 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이다. 저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구경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구경부는 2조와 1조의 돌대를 각 1열씩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다. 견부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렸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제형



도면 45. 석곽묘 9호 출토유물

투창을 등간격으로 위아래가 엇갈리게 뚫었다. 투창은 각 단에서 5개가 확인된다.

기고 24.6~25.2cm, 복원구경 13.2cm, 동최대경 17.3cm, 대각고 4.3cm, 저경 12.0cm

115. 호(도면 45-115, 도판 34-115)

동체부의 1/2 정도와 저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5Y 4/1),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내외면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저부에서 황회색(2.5Y 6/1)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3.0cm, 복원동최대경 19.4cm, 저경 8.7cm

(10) 석곽묘 10호

가. 유구(도면 46, 도판 3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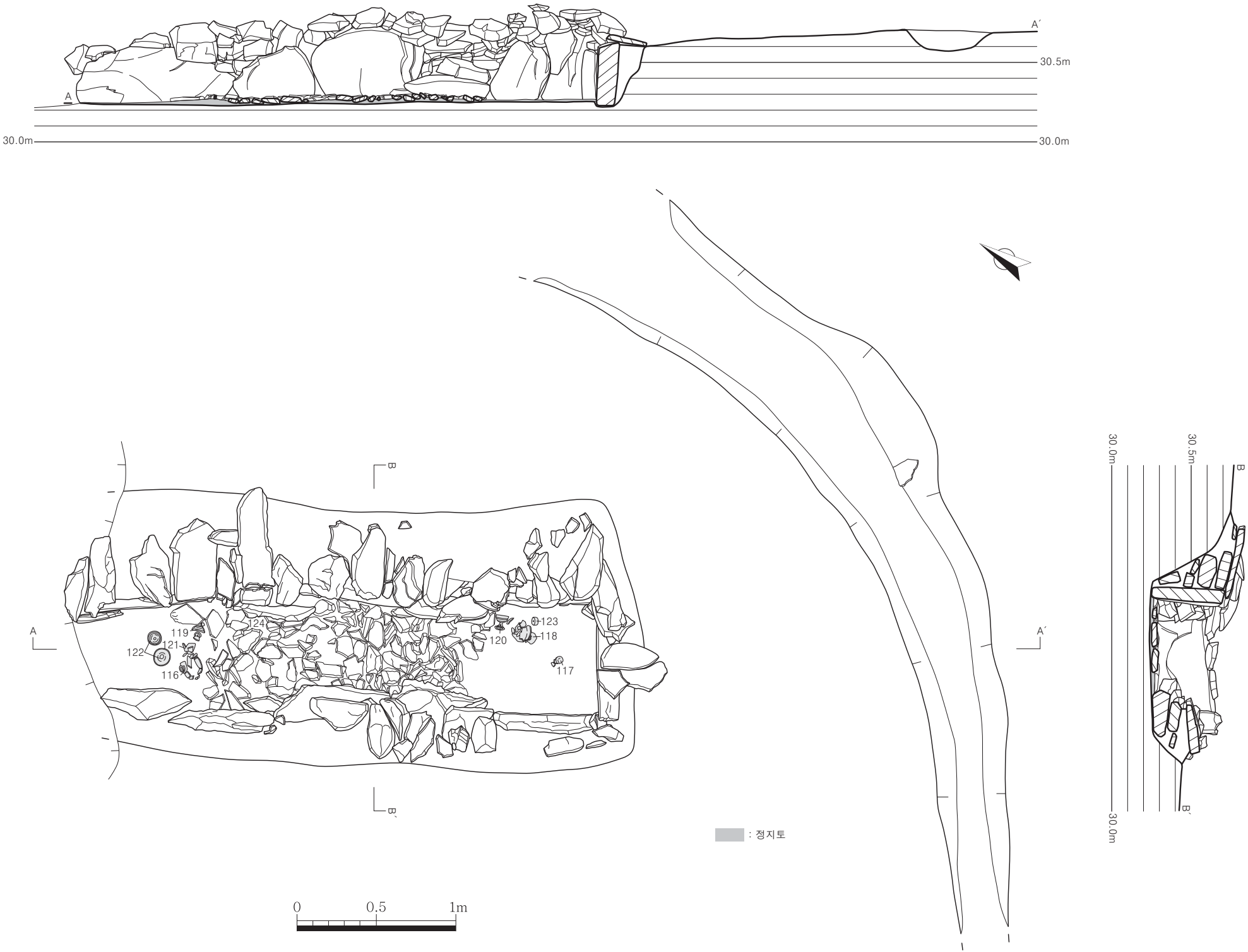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서쪽, 해발 30.7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남동쪽으로는 주구가 조성되어 있다. 조사전 유구의 북단벽은 후대 교란으로 인해 파괴되었다.

주구는 유구의 남동쪽으로 140cm 정도 떨어져 위치한다. 양단부는 삭평되었으며, 평면형태는 호상이다. 규모는 잔존길이 534cm, 너비 81cm, 최대 깊이 14cm 정도이다. 풍화암반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묘광은 풍화암반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나, 동장벽과 남단벽만 2단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30°-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370cm, 너비 167cm 정도이다.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325cm, 너비 68cm, 깊이 56cm이며, 장단비 4.7:1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1~3단 정도 잔존한다. 37~100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직하여 최하단석을 축조하고, 그 상부에 20~61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평적하여 축조하였다. 바닥에는 벽석 축조 후 갈색 점질토를 2~5cm 정도 깔아 정지하였다. 시상은 양단벽 유물 부장공간을 제외한 중앙부를 중심으로 정지토 상면에 7~17cm 정도 크기의 할석을 1겹 깔아 마련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유물은 총 9점이 출토되었으며, 양단부장하였다. 북단벽쪽에서 유개고배 1점, 고배 1점, 대부완 2점, 남단벽쪽에서 고배 2점, 대부완 1점, 방추차 1점이 출토되었다. 북동쪽 시상 상면에서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46. 석곽묘 10호

나. 유물

116. 고배(도면 47-116, 도판 36-116)

2단투창 고배로 구연부와 신부, 대각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방형 투창 3개씩을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11.3cm, 구경 12.9cm, 대각고 6.0cm, 복원저경 9.4cm

117. 고배(도면 47-117, 도판 36-117)

2단투창 고배로 구연부와 대각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잔존한 대각에서 3개의 투창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8.4cm

118. 고배(도면 47-118, 도판 36-118)

2단투창 고배로 신부의 극히 일부와 대각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황등색(10YR 6/4), 속심은 회백색(5Y 7/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방형 투창 3개씩을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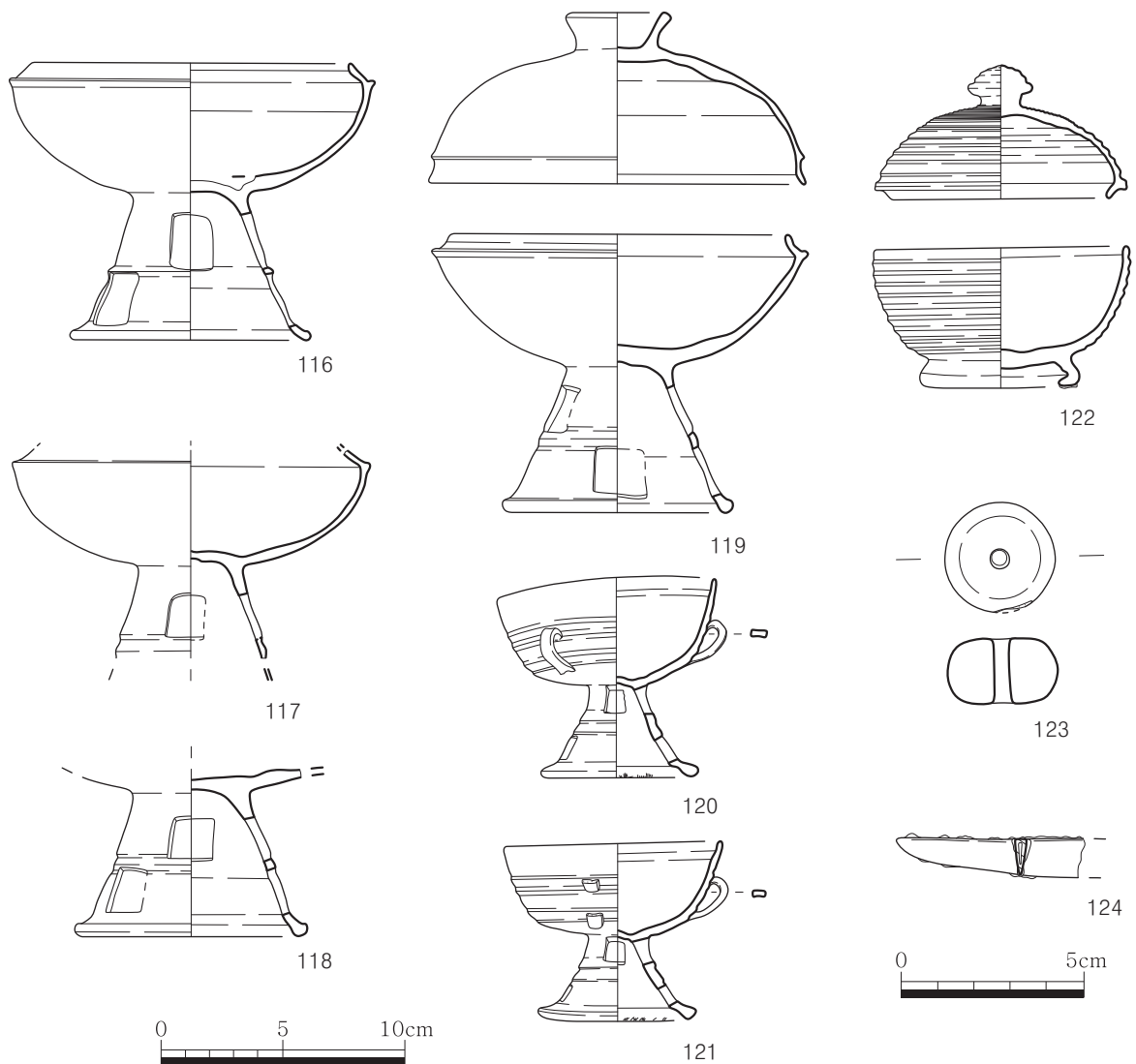
잔존기고 6.8cm, 대각고 5.8cm, 저경 8.8cm

119. 유개고배(도면 47-119, 도판 37-119)

개는 신부의 2/3 정도와 구연부 대부분이 결실되었으며, 표면이 대부분 박락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에서 3치구의 집선문이 희미하게 확인된다.

고배는 2단투창 고배로 구연부와 신부, 대각의 1/2 정도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5Y 7/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방형 투창 3개씩을 등간격으로 엇갈리게 뚫었다.

- 개 : 기고 7.0cm, 복원구경 15.3cm, 꼭지고 1.5cm, 꼭지경 3.8cm
- 고배 : 기고 11.3cm, 복원구경 13.6cm, 복원대각고 6.0cm, 저경 8.8cm



도면 47. 석곽묘 10호 출토유물

120. 대부완(도면 47-120, 도판 37-120)

신부 일부와 파수 1개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외면에는 올리브흑색(7.5Y 3/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대각단 내면에서 짙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2조의 돌대를 2열 돌렸으며, 단면형태가 장방형인 대상(帶狀)파수를 'D'자 형태로 3군데 부착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방형 투창 3개씩을 상하단 엇가리게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7.3~8.2cm, 구경 8.9cm, 대각고 3.8cm, 저경 5.9cm

121. 대부완(도면 47-121, 도판 37-121)

신부 일부와 파수 2개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내외면에는 올리브흑색(7.5Y 3/2)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일부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대각단 내면에서 짙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2조의 돌대를 2열 돌렸으며, 단면형태가 장방형인 대상(帶狀)파수를 'D'자 형태로 3군데 부착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방형 투창 3개씩을 상하단 엇가리게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7.3cm, 구경 8.8cm, 대각고 3.5cm, 저경 5.7cm

122. 유개대부완(도면 47-122, 도판 37-122)

개는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으나, 완형에 가깝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황색(2.5Y 7/2), 속심은 회색(N 4/)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꼭지에는 3조의 돌대를 돌렸다. 신부에는 14치구의 침선과 5조의 돌대를 돌렸다.

대부완은 구연부와 신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5Y 5/1), 속심은 회적색(10R 4/2)이다. 대각단에는 이물질이 부착되어 있으며,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신부에는 9조의 돌대를 돌렸다.

- 개 : 기고 5.5cm, 구경 8.8cm, 꼭지고 1.6cm, 꼭지경 2.6cm
- 대부완 : 기고 5.7cm, 구경 10.2cm, 대각고 1.1cm, 저경 5.1cm

123. 방추차(도면 47-123, 도판 37-123)

측면 일부가 결실되었다. 연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사립이 다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색조는 명적갈색(5YR 5/6)이다. 중앙부에는 직경 0.8cm 정도의 구멍을 양쪽에서 뚫었다.

직경 4.5cm, 두께 2.7cm

124. 도자편(도면 47-124, 도판 37-124)

단조품으로 신부의 선단부만 잔존한다.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다.

잔존길이 5.2cm, 신부너비 1.1cm, 두께 0.3cm, 중량 4.8g

(11) 석곽묘 1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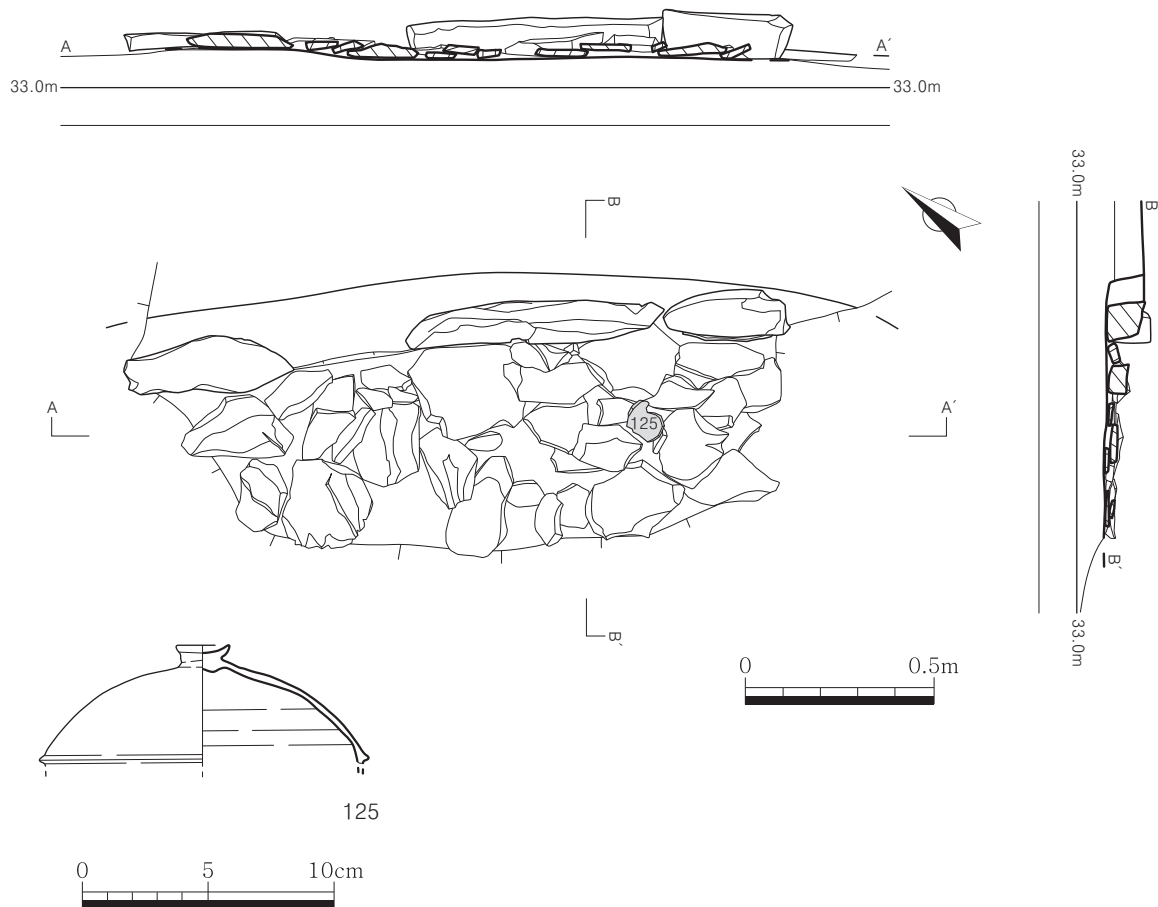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8, 도판 37)

조사대상지 북동쪽, 해발 33.1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남쪽으로는 목곽묘 6호가 인접해 있다. 조사 전 유구는 후대 삭평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어 동장벽 일부와 시상 일부가 노출된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묘광은 풍화암반층을 비스듬히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37°-W)향으로 등고선 방향과 평행하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203cm, 잔존너비 84cm 정도이며, 석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180cm, 잔존너비 54cm, 깊이 13cm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동장벽에서만 1단 정도 잔존하며, 32~69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직하여 축조하였다. 시상은 10~30cm 정도 길이의 청석제 판석을 1겹 깔아 마련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유물은 남쪽 시상 상면에서 개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48. 석곽묘 11호 및 출토유물

나. 유물

125. 개(도면 48-125, 도판 37-125)

신부와 구연부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5Y 6/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4.6cm, 꼭지고 0.9cm, 꼭지경 2.0cm

(12) 석곽묘 12호

가. 유구(도면 49·50, 도판 38·39)

조사대상지 동쪽 경계부, 해발 34.0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동단벽이 경계밖으로 이어져 경계부를 확장하여 조사하였다. 유구는 석곽묘 13호의 북장벽 묘광 일부를 파괴하고 후축되었다.

유구의 남쪽으로는 석곽묘 13호가 나란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석곽묘 14호가 직교되게 위치하고 있어 석곽묘 12·13·14호는 ‘ㄷ’자상의 배치양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구의 배치양상으로 볼 때 석곽묘 12·13·14호는 동일한 묘역 내에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나, 북장벽과 서단벽은 2단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79°-W)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31cm, 너비 117cm 정도이다. 석곽의 크기는 길이 277cm, 너비 65cm, 깊이 43cm이며, 장단비 4.2:1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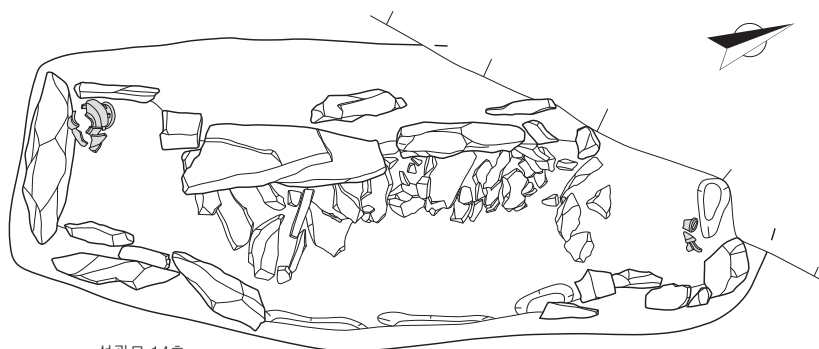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토압으로 인해 석곽 내부로 기울어진 상태였으며, 1~5단 정도 잔존한다.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면에 흙을 판 후, 그 흙에 30~114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직하여 최하단석을 축조하고, 그 상부에 20~80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평적하여 축조하였다. 바닥은 벽석 축조 후 석곽 내부 전면에 갈색 점질토를 5cm 정도 두께로 깔아 정지한 후, 양단벽의 유물부장 공간을 제외한 전면에 23~78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1겹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유물은 총 8점이 출토되었으며, 양단부장 하였다. 동단벽쪽에서 유개고배 4점과 대부장경호 1점, 철검 1점, 서단벽쪽에서 대각 1점이 출토되었다. 시상 남서쪽 상면에서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26~129. 유개고배

2단투창 유개고배 2점과 1단투창 유개고배 2점 등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대체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2단투창 고배는 대각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으로 구획한 후, 각 단에 방형과 장방형 투창 3~4개씩을 엇갈리게 뚫었다. 1단투창 고배는 세장방형과 제형 투창 3개를 뚫었다.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석곽묘 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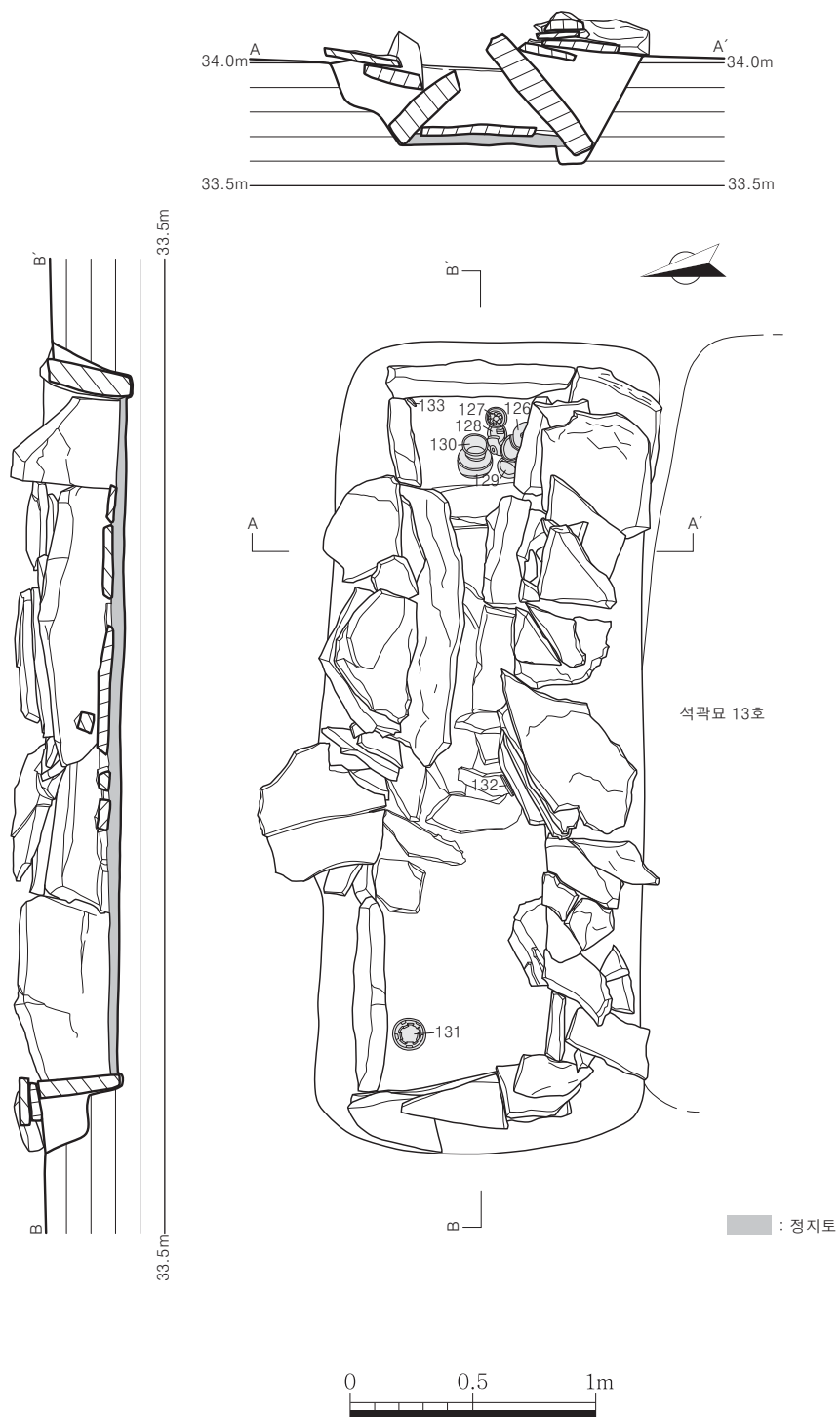


석곽묘 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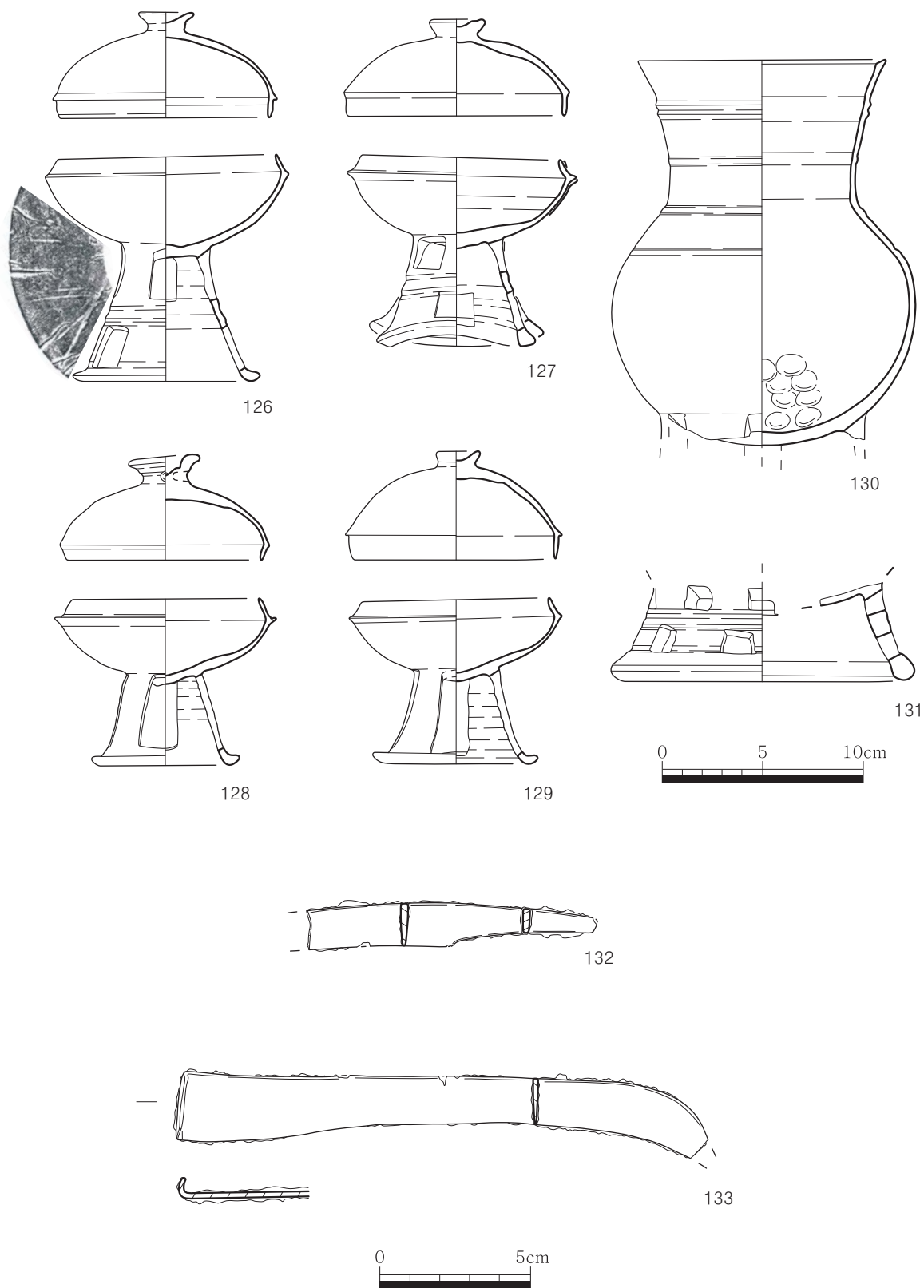
석곽묘 13호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징
126	개	51-126	40-126	기고 6.1 구경 13.3 꼭지고 1.5 꼭지경 3.1	꼭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
	2단 투창 고배			기고 11.1 복원구경 10.7 대각고 6.8 저경 8.3	구연부 대부분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 신부 2조의 '八'자 선문 등간격으로 시문. 대각 2조의 돌대 돌려 구분, 장방형 투창 4개씩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음. 대각 상하단에 2치구의 파상문 시문.
127	개	51-127	40-127	기고 4.8 복원구경 10.7 꼭지고 0.9 꼭지경 2.5	구연부 및 신부 대부분 결실되어 도면복원.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
	2단 투창 고배			기고 9.4 구경 9.8 대각고 5.6 저경 6.5~7.5	뚜껑받이턱 일부 결실, 완형에 가까움.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 내외면 일부 회올리브색(5Y 5/2) 자연유 흡착,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 대각 2조 돌대 돌려 구분, 방형 투창 3개씩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음.
128	개	51-128	40-128	기고 5.1 구경 9.6 꼭지고 1.3 꼭지경 2.8	구연부 극히 일부 결실, 완형에 가까움.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속심 회적색(10R 4/2). 내외면 회올리브색(7.5Y 5/3) 자연유 흡착,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 신부 외면 명황색(2.5Y 7/3)을 띠는 원형 소성흔 확인. 꼭지 원형 반투공 3개 등간격으로 뚫음.
	1단 투창 고배			기고 8.3 구경 9.2 대각고 4.6 저경 6.5	구연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 대각 세장방형 투창 3개 등간격으로 뚫음.
129	개	51-129	40-129	기고 5.4 구경 10.0 꼭지고 0.8 꼭지경 1.9	구연부 및 신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
	1단 투창 고배			기고 11.8~12.2 구경 10.0 대각고 7.5 저경 8.1	구연부의 1/3, 신부 및 대각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황색(2.5Y 7/2). 대각 제형 투창 3개 등간격으로 뚫음.



도면 50. 석곽묘 12호



도면 51. 석곽묘 12호 출토유물

130. 대부장경호(도면 51-130, 도판 40-130)

대각이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이다. 저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하위와 저부 내면에서 지두흔이 확인된다. 구경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구경부는 2조와 1조의 돌대를 각 1열씩 돌려 3단으로 구획하였다. 견부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렸다. 잔존한 대각에서 7개의 투창흔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19.1cm, 구경 12.2cm, 동최대경 15.1cm

131. 대각(도면 51-131, 도판 40-131)

대부호의 대각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보통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2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방형 투창 9개씩을 상하단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었다.

잔존기고 4.9cm, 저경 13.9cm

132. 도자(도면 51-132, 도판 40-132)

단조품으로 신부의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며, 병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잔존길이 9.6cm, 신부너비 1.4cm, 두께 0.2cm, 중량 14.7g

133. 철검(도면 51-133, 도판 40-133)

단조품으로 인부 선단부가 결실되었다. 기부는 ‘ㄴ’자형으로 꺾여 있다. 신부는 일정한 너비로 선단부로 이어지며, 선단부에서 곡선을 이루며 휘어졌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다.

잔존길이 17.6cm, 기부너비 2.3cm, 신부너비 1.6cm, 신부두께 0.2cm, 중량 32.1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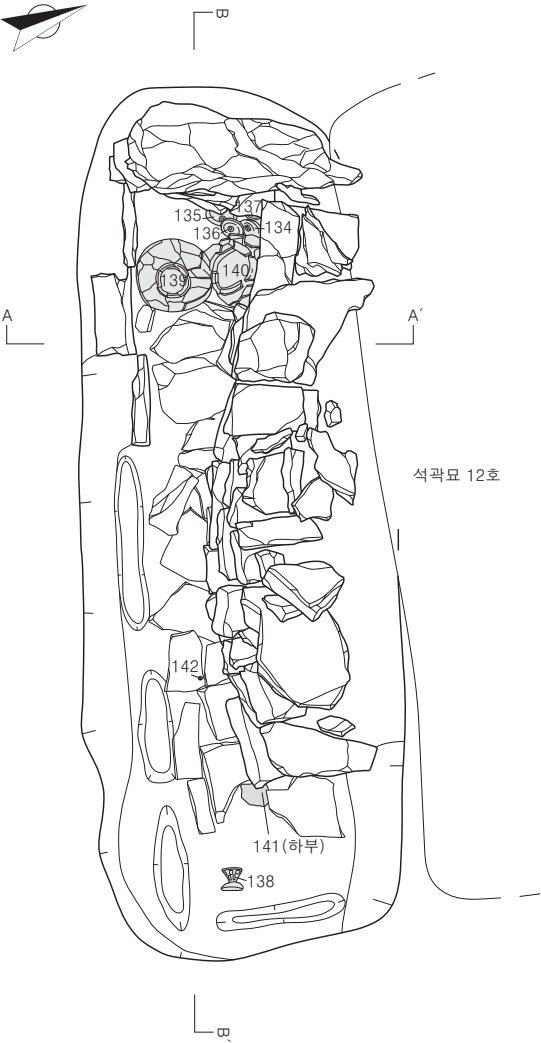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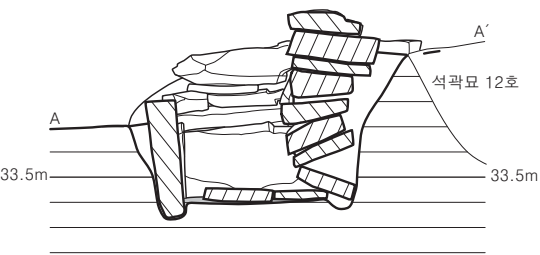
(13) 석곽묘 13호

가. 유구(도면 49·52, 도판 38·4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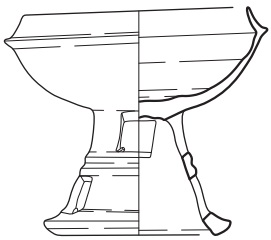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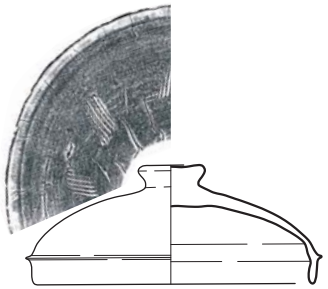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동쪽 경계부, 해발 34.0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동단벽이 경계밖으로 이어져 경계부를 확장하여 조사하였다. 조사전 동단벽과 남장벽 일부는 후대 교란으로 인해 벽석이 유실된 상태였고, 북장벽의 동쪽 묘광 일부는 석곽묘 12호가 후축되면서 파괴되었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묘광의 벽면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N-70°-W)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347cm, 너비 114cm 정도이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280cm, 너비 50cm, 깊이 77cm이며, 장단비 5.6:1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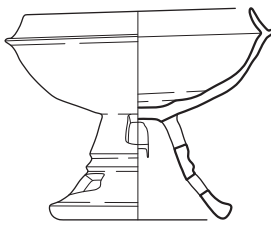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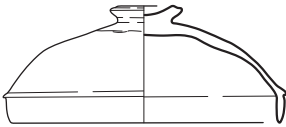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황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1~8단 정도 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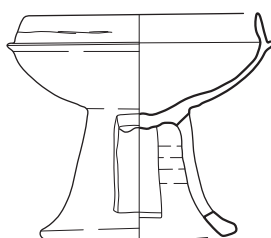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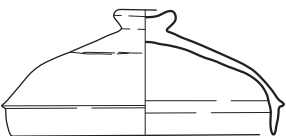
정지토



134



135



136



도면 52. 석곽묘 13호 및 출토유물1

존하며, 북장벽 서쪽은 토압으로 인해 수적되어졌던 최하단석이¹³⁾ 함몰되면서 석곽 내부로 기울어진 상태였다. 벽석은 묘광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면에 홈을 만든 후, 그 홈에 37~60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적하였으며, 최하단석 상부에는 15~50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으로 평적하여 축조하였다. 남장벽 동쪽과 동단벽 바닥에는 벽석을 축조하기 위한 홈만 확인되었다. 바닥은 벽석 축조 후 석곽 내부 전면에 갈색 점질토를 2~3cm 정도 두께로 깔아 정지한 후, 양단벽의 유물부장 공간을 제외한 전면에 22~35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1겹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유물은 총 9점이 출토되었으며, 양단부장하였다. 동단벽쪽에서 대부완 1점과 대부호 1점, 서단벽쪽에서는 유개고배 4점과 단경호 2점이 출토되었다. 동쪽 시상면에서 이식 한 쌍이 출토되었으며, 이식의 출토위치로 보아 피장자의 두향은 동쪽이다.

나. 유물

134~137. 유개고배

2단투창 유개고배 2점과 1단투창 유개고배 2점 등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대체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2단투창 고배는 대각 중위에 2조의 돌대를 돌려 2단으로 구획한 후, 각 단에 제형과 방형 투창 3개씩을 엇갈리게 뚫었다. 1단투창 고배는 세장방형 투창 3개를 뚫었다. 세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징
134	개	52-134	43-134	기고 4.7 구경 10.9 꼭지고 0.9 꼭지경 2.1	구연부 및 신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색(5Y 4/1), 속심 회적색(10R 4/2). 내외면 자연유 흡착, 대부분 산화 점상 박리. 신부 내외면 상위 회갈색(5YR 5/2)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 확인. 신부 3~6치구의 집선문 등간격으로 시문.
	2단 투창 고배			기고 8.9 구경 8.8 대각고 4.9 저경 6.2	구연단 극히 일부 결실, 완형에 가까움.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속심 회적색(10R 4/2). 대각 2조의 돌대 돌려 구분, 방형 투창 3개씩 엇갈리게 등간격으로 뚫음.
135	개	52-135	43-135	기고 4.6 구경 10.5 꼭지고 0.6 꼭지경 2.1	구연부 일부 결실, 완형에 가까움. 색조는 내외면 회색(N 5/), 속심 모두 회적색(10R 4/2). 내외면 흑올리브색(5Y 4/3) 자연유 흡착, 일부 산화 점상 박리.
	2단 투창 고배			기고 8.2 구경 8.9 대각고 4.2 저경 6.4	뚜껑반이턱 일부 결실, 완형에 가까움.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 대각 2조의 돌대 돌려 구분, 상단에 장방형, 하단에 제형 투창 3개씩 등간격으로 뚫음.

13) 묘광 바닥에서 홈이 확인되었으며, 최하단석과 상단석 사이에 다량의 토사가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최하단석은 수적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유물 번호	유물명	도면 번호	도판 번호	크기(cm)	특징
136	개	52-136	43-136	기고 5.0 구경 10.3 꼭지고 0.8 꼭지경 2.0	신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 신부 상위 꼭지 접합흔 확인.
	1단 투창 고배			기고 8.9 구경 9.1 대각고 5.2 저경 6.5	뚜껑받이턱 일부 결실, 완형에 가까움.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6/). 대각 내외면 회황색(2.5Y 7/2)을 띠는 부정형 소성흔 확인. 대각 세장방향 투창 3개 등간격으로 뚫음.
137	개	53-137	43-137	기고 4.8 구경 10.3 꼭지고 0.8 꼭지경 2.1	구연부 및 신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 회황색(N 4/), 속심 회색(N 5/). 내외면 회올리브색(7.5Y 4/2) 자연유 흡착, 일부 산화 점상 박리. 신부 외면 다른 토기의 구연 단편 부착.
	1단 투창 고배			기고 8.1 구경 9.4 대각고 4.4 저경 6.5	구연부 일부 결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색(N 5/). 대각 세장방향 투창 3개 등간격으로 뚫음.

138. 대부완(도면 53-138, 도판 43-138)

구연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N 6/), 속심은 회적색(2.5YR 4/2)이다. 내외면에는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나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대각은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하단에 제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기고 7.3cm, 구경 8.8cm, 대각고 3.5cm, 저경 5.7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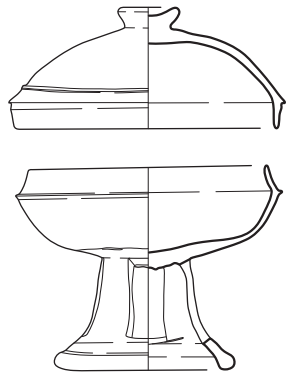
139. 단경호(도면 53-139, 도판 43-139)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편이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이다. 저부는 물손질 정면하였다. 동체부 내면은 집선문 내박자 조정하였고, 외면은 격자문 타날하였다. 구경부는 격자문 타날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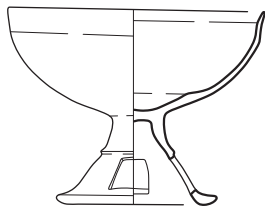
기고 26.4cm, 구경 19.0cm, 동최대경 29.4cm, 저경 12.1cm

140. 단경호(도면 53-140, 도판 43-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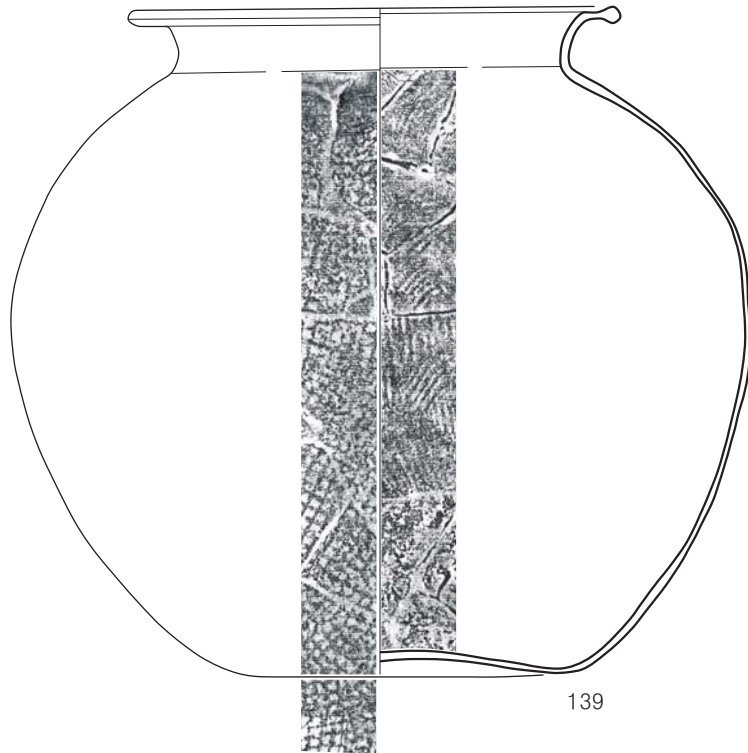
구연부와 동체부 일부가 결실되었다. 연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과 세석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등색(7.5YR 6/4)이다. 동체부와 저부 내면은 집선문 내박자 조정하였다. 외면은 집선문 타날 후, 동체부 상위에 6조의 침선을 돌렸다. 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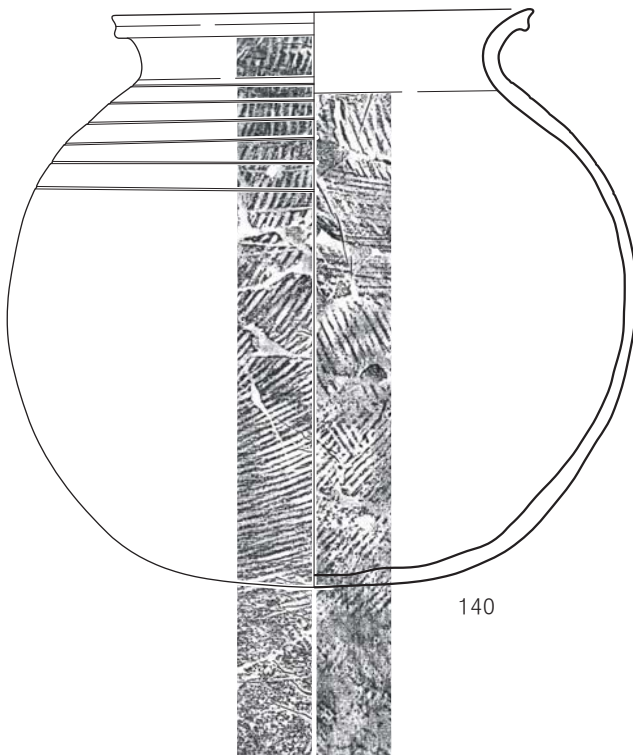
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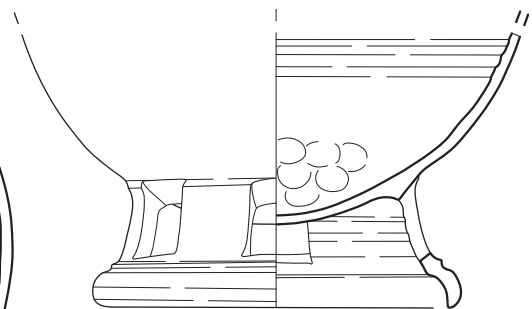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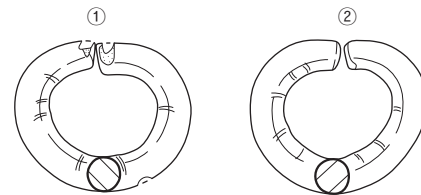
139



140



141



142



는 물손질 정면하여 타날흔을 지웠다.

기고 22.8cm, 구경 16.4cm, 동최대경 24.9cm

141. 대부호(도면 53-141, 도판 43-141)

동체부 하위 일부와 대각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6/1)이다. 저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7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잔존기고 10.9cm, 대각고 5.1cm, 저경 13.7cm

142. 이식(도면 53-142, 도판 43-142)

청동제 금장이식으로 1쌍(2점)이 출토되었다. 단면형태 원형인 청동봉에 금피을 입힌 것으로 금피의 접합흔이 확인되며, 금피의 일부가 박락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 좌 : 직경 2.3×1.9cm, 두께 0.4cm, 중량 6.8g
- 우 : 직경 2.3×2.0cm, 두께 0.4cm, 중량 6.9g

(14) 석곽묘 1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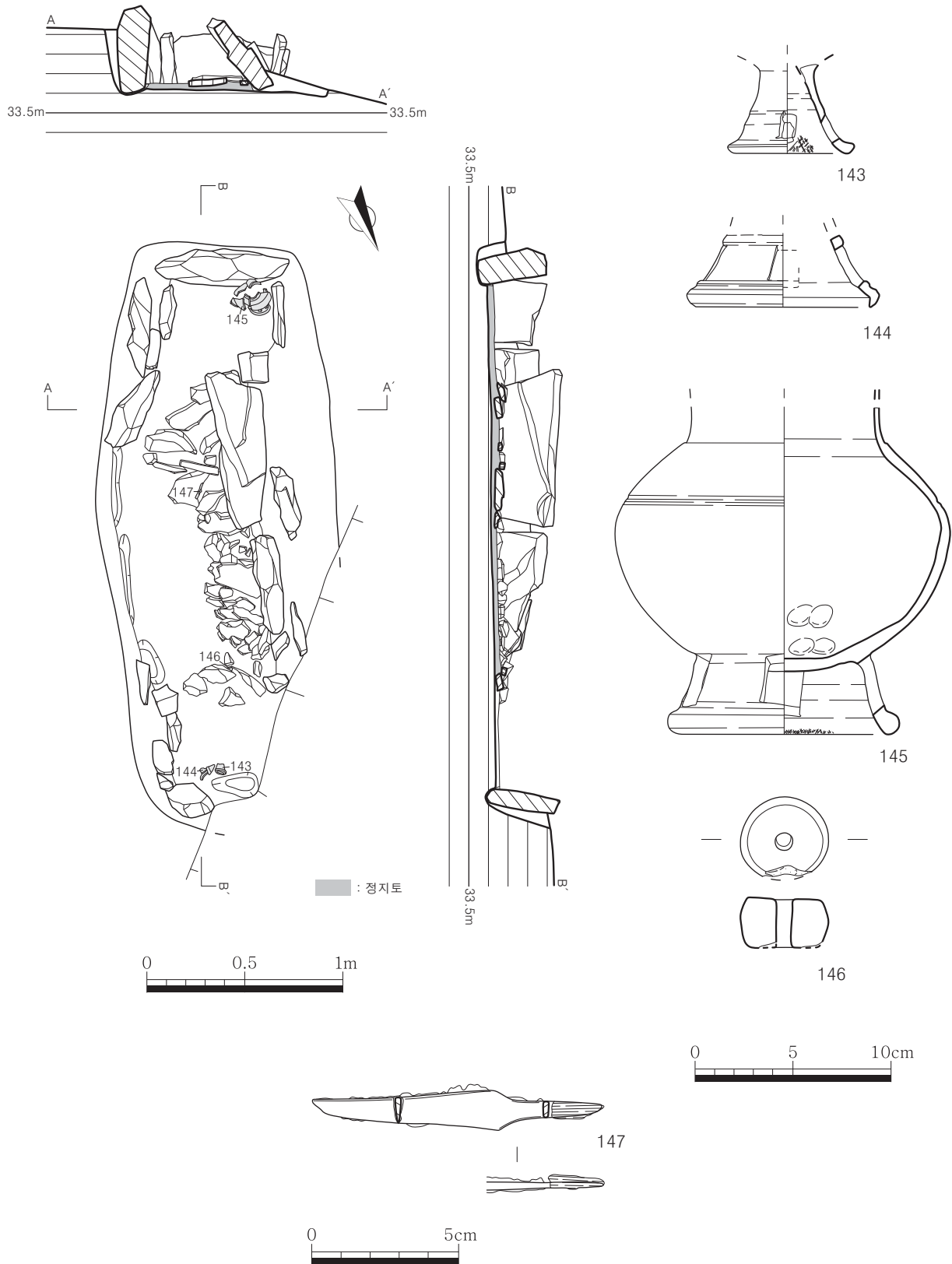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49·54, 도판 38·44)

조사대상지 동쪽 경계부, 해발 33.9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조사전 서장벽과 북단벽 일부는 후대 교란으로 인해 벽석이 유실된 상태였다.

묘광은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 방향은 북동-남서(N-36°-E)향으로 등고선과 직교한다. 묘광의 규모는 잔존길이 300cm, 너비 123cm 정도이다. 석곽의 규모는 벽석 홈 흔적으로 보아 길이 250cm, 너비 65cm, 깊이 32cm이며, 장단비 3.8:1 정도이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벽석은 1단 정도 잔존한다. 묘광의 가장자리를 따라 바닥면에 홈을 만든 후, 그 홈에 33~80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수직하여 축조하였다. 벽석이 유실된 북단벽과 동장벽 바닥에는 벽석을 축조하기 위한 홈이 확인되었다. 바닥은 벽석 축조 후 석곽 내부 전면에 갈색 점질토를 2~3cm 정도 두께로 깔아 정지한 후, 양단벽의 유물부장 공간을 제외한 부분에 6~27cm 정도 크기의 청석제 판석을 1겹 깔아 시상을 마련하였다. 시상은 서장벽을 중심으로 잔존한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암갈색 사질점토로 보강하였다.

유물은 총 5점이 출토되었으며, 양단부장하였다. 북단벽쪽에서 대각편 2점, 남단벽쪽에서 대부장경호 1점이 출토되었다. 북쪽 시상면에서 방추차 1점, 남쪽 시상면에서 도자 1점이 출토되었다.



도면 54. 석곽묘 14호 및 출토유물

4) 구상유구

(1) 구상유구 1호

가. 유구(도면 55, 도판 45)

조사대상지 서쪽, 해발 31.4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유구의 중앙부는 석곽묘 7호, 남쪽은 석곽묘 7호의 주구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서쪽은 후대 교란으로 인해 결실되었다.

평면형태는 호상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720cm, 너비 133cm, 깊이 29cm 정도이다.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내부에는 풍화암반편이 다량 혼입된 회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등이 퇴적되었다. 바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2) 구상유구 2호

가. 유구(도면 56, 도판 45·46)

조사대상지 북쪽 경계부, 해발 30.4~34.3m 정도에서 분묘와 중복없이 독립적으로 확인되었다. 유구의 동쪽과 서쪽은 조사경계 밖으로 이어진다.

주축방향은 동-서향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3,452cm, 너비 108~260cm, 깊이 48~60cm 정도이다. 풍화암반층을 'V'자상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갈색 사질점토와 풍화암반편과 망간이 혼입된 회황갈색 사질점토, 암갈색 사질점토, 황갈색 사질점토가 순으로 퇴적되었다. 바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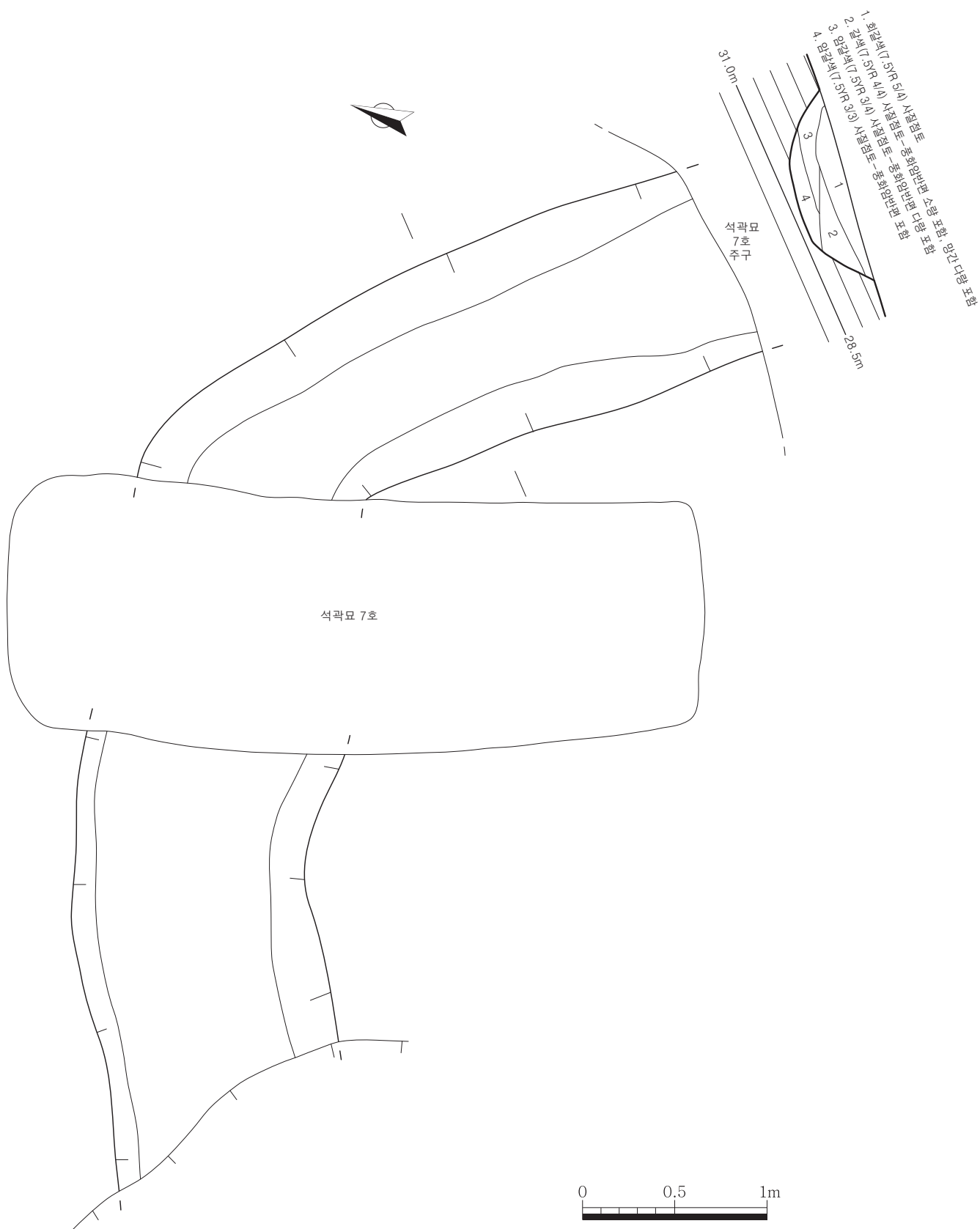
유물은 서쪽 바닥에서 호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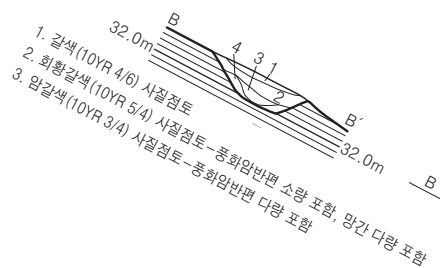
148. 호편(도면 56-148, 도판 46-148)

구경부와 동체부 상위 일부만 잔존하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회색(2.5Y 5/1)이다. 내외면에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나,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박리되었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기고 8.1cm, 복원구경 12.1cm



도면 55. 구상유구 1호



157-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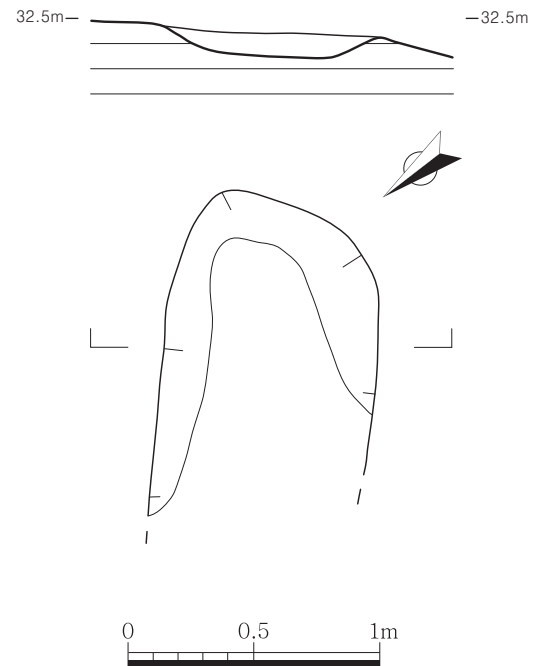
5) 수혈유구

가. 유구(도면 57, 도판 46)

조사대상지 동쪽, 해발 32.4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서쪽에는 석곽묘 4호·5호·6호의 주구가 인접해 있다. 후대 삭평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어 동쪽 일부만 잔존한다. 유구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 수혈유구로 명명하였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잔존길이 129cm, 너비 85cm, 깊이 9cm 정도이다. 갈색 사질점토층을 비스듬하게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내부에는 회암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었다. 바닥은 평평하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57. 수혈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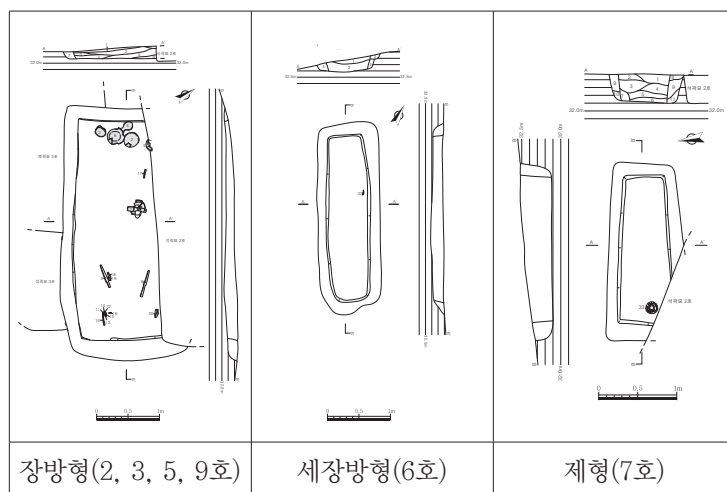
IV. 조사성과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의 발굴조사는 농어업시설 신축부지에 대한 소규모발굴조사 국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유구는 원삼국시대 목곽묘 10기, 삼국시대 석곽묘 14기, 옹관묘 2기, 구상유구 1기, 주구 1기, 수혈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총 148점으로 토기류가 주를 이루며, 그 외 단야구를 포함한 철기류, 토제품 등이 확인되었다. 본 장에서는 목곽묘와 석곽묘, 출토유물의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출토유물 중에서 단야구를 바탕으로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목곽묘

1) 유구

목곽묘는 해발 30~33m 정도에서 총 10기가 확인되었다. 5호와 6호를 제외한 대부분은 석곽묘에 의해 파괴되어서 잔존상태가 좋지 않다. 목곽묘의 장축방향은 5, 7호(동-서향), 9호(남-북향)를 제외하고는 등고선 방향과 평행한 북서-남동향으로 조성되었다. 확인된 목곽묘는 모두 단곽식으로, 묘광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장방형(2·3·5·9호)이나 길이가 세장한 정도에 따라 세장방형(4·6호)으로 구분이 되며 제형(7호)의 형태도 확인된다.¹⁴⁾ 규모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묘광의 평면형태에 따른 규모의 차이나 특징적인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묘광의 벽면은 비스듬하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은 비교적 평평하다. 바닥은 아무런 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와 회갈색점토를 깔아 다짐한 양상이 확인된다.



【도면 1】목곽묘 묘광 평면형태

점토를 깬 경우(4·5·8·9호)는 묘광 바닥 전체에 고루 깔아 다짐하였다. 한편, 목곽묘 5호의 경우 풍화암반층을 굴착하여 조성하였기 때문에 묘광 바닥에서 굴지구흔이 확인되며, 고르지 못하다. 따라서 바닥을 고르게 정지하기 위해 그 상부에는 전면적으로 점토다짐을 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묘광과 목곽 사이는 풍화암반편이 다량으로 혼입된 회암갈색 사

14) 묘광의 장단비에 있어서 3:1을 기준으로 미만은 장방형으로, 이상은 세장방형으로 구분하였다.

질점토로 충전하였다. 출토유물은 대부분이 한 쪽 단벽 가장자리에서 확인되었으며, 일부 중앙에 위치한 경우도 있다.¹⁵⁾

【표 1】목곽묘 속성표

호수	묘광(cm)		목곽(cm)			장단비	평면형태	장축방향	바닥시설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길이	너비	높이						
1	(115)	109	(95)	74	10		(장방형)	북서-남동 (N-67°-W)	없음	대부장경호편	
2	402	186	350	130	21	2.2:1	장방형	북서-남동 (N-64°-W)	없음	양이부호, 대부호, 단경호, 철모, 철촉 등	석곽묘 2호 후축, 목곽묘 3호 선축
3	307	134	271	88	41	2.3:1	장방형	북서-남동 (N-53°-W)	없음	대부직구호, 단경호	목곽묘 2호, 석곽묘 3호 후축/목곽부 식흔
4	334	(75)	285	(56)	47		(세장방형)	북서-남동 (N-28°-W)	점토 다짐	단경호 등	석곽묘 8호 후축
5	379	153	319	111	20	2.4:1	장방형	동-서 (N-83°-W)	점토 다짐	단경호편, 철검, 철모, 철 부, 도자, 등	
6	304	101	266	71	22	3.0:1	세장방형	북서-남동 (N-28°-W)	없음	불명철기	
7	227	97	192	68	35	2.3:1	제형	동-서 (N-82°-W)	없음	대부호	석곽묘 2호 후축
8	(202)	(93)	(137)	(71)	36			북서-남동 (N-38°-W)	점토 다짐		석곽묘 4·6호 후축
9	282	157	(229)	114	24	1.8:1	장방형	남-북 (N-7°-W)	없음	대부호	석곽묘 4호 후축
10	(161)	(107)	(129)	(82)	37			북서-남동 (N-66°-W)	점토 다짐		

15) 유물은 철모, 철부, 철촉, 철검, 철창 등의 다양한 철기류와 첨저용과 단경호, 대부호 등의 토기류가 확인되었다. 중앙부에서 확인된 유물은 목개 상부에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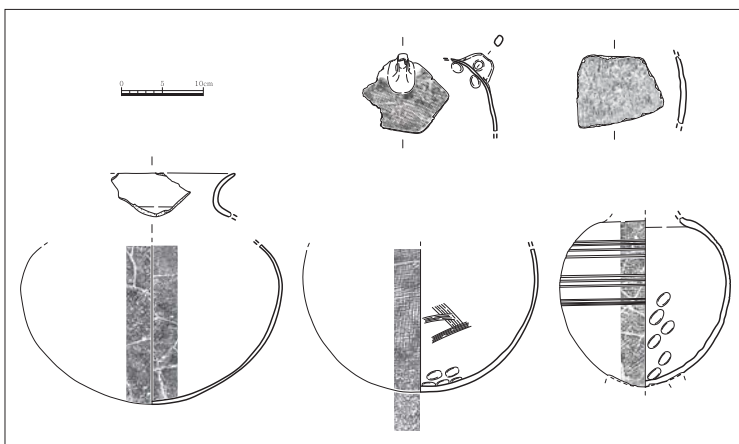
【사진 1】목곽묘 5호 묘광 바닥 굴착흔 및 점토다짐양상

2) 유물

목곽묘에서는 대부호, 단경호, 첨저옹 등의 연질 및 와질토기, 도질토기와 철모, 철촉, 철검, 철부, 철검, 철착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토기류가 적고, 잔존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세부적인 양상을 파악하거나 주변유적의 출토유물과 직접 비교하여 검토하기는 어렵다¹⁶⁾. 따라서 출토된 유물의 특징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토기

단경호는 연질 또는 와질계 토기로 외면에 격자문이 타날되며, 저부까지 타날이 된 경우가 다수로 동체에서 저부까지의 타날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확인된다. 대부호는 구연부와 대각이 다수가 결실되었다. 동체부에는 격자문이 타날되었으며, 동체부 하부까지 시문되었다. 대각은 ‘八’자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대부직구호의 경우는 외면에 마연흔만이 확인되며, 높이가 낮은 ‘八’자형의 대각을 갖추고 있다. 격자문이 타날 된 양이부호와 첨저옹, 승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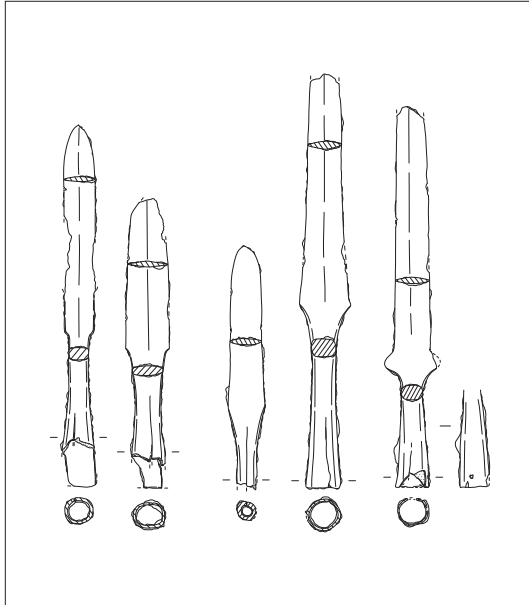
【도면 2】초곡리 목곽묘 출토 타날문토기

타날의 연질호편이 확인되는데, 격자문타날의 단경호와 함께 공반된다. 한편, 목곽묘 9호에서는 도질의 대부호 저부 일부 및 대각편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토기의 기종과 더불어 단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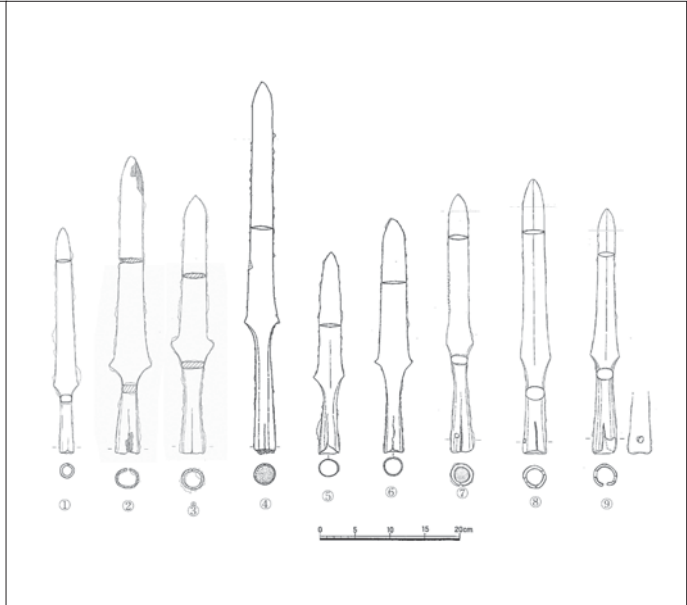
16) 특히 출토된 대부호의 경우 구연부가 대체로 결실되었으며, 대각도 결실되어 정확한 기종의 파악과 형태의 검토가 어렵다.

대부호에서 보이는 타날문양의 시문 방식과 양상 등을 종합해 보면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전반의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¹⁷⁾

(2) 철기



【도면 3】 초곡리 목곽묘 출토 철모



【도면 4】 영남지역 출토 <자>형 직기형철모

(①조양동3호, ②③옥성리31호, ④⑤하대44호, ⑥하대41호, ⑦도항리51호, ⑧말산리15호, ⑨말산리13호)

철기류는 철모, 철촉, 철부, 철검, 철창 등이 출토되었으며, 수량은 많지 않다. 철모에 있어서는 봉부가 2.5cm 이상의 넓은 폭을 가지며, 공부가 직기형이고 관부는 유관형이다. 관부가 완만하게 벌어지는 것과 < >자 상으로 돌출된 것도 함께 확인된다. 대체로 이러한 형태의 철모는 영남지역 원삼국 시대 전기부터 유행하는데, < >자 상으로 돌출된 관부를 갖춘 직기형 철모는 낙동강 이동지역인 경주 조양동고분군, 울산 하대고분군, 포항 옥성리 고분 등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며 낙동강유역권의 함안, 김해지역 일대에서는 1~2점 정도만이 부장된다.¹⁸⁾ 이후 3세기 전반이 되면 영남지역에서 연미형철모

17) 金龍星, 1998, 『新羅의 高塚과 地域集團 -Ⅳ.묘제의 變遷-』, 춘추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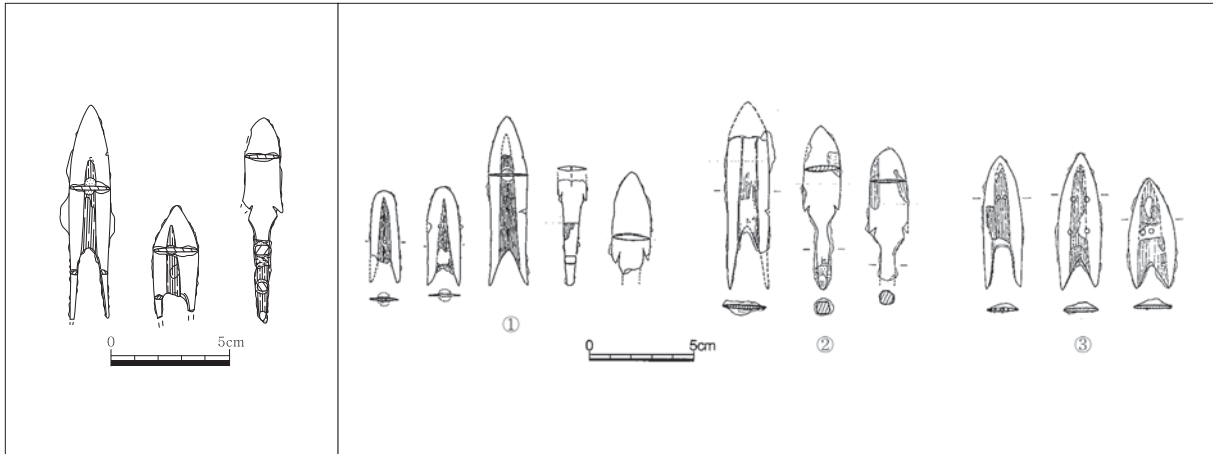
필자의 편년에 따르면 목곽묘2호에서 출토된 긴동체부의 대부호는 II 1e기에, 목곽묘9호의 도질토기 등장에 의하면 II 2a기에 해당하는데, 시기적으로 3세기 중반에서 3세기 말에 해당한다.

李盛周, 2000, 「打撈文土器의 展開와 陶質土器 發生」, 『韓國考古學報』42, 韓國考古學會.

필자가 분류한 목곽묘단계의 타날문토기 변화 과정에 따르면 격자문이 저부까지 타날되며, 동체부에서 저부까지의 타날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 나타나고, 격자문타날양이부호가 등장하는 양상은 II-3a~III-1에 해당한다. 이는 시기적으로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전반에 해당한다.

18) 신동조, 2007,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鐵斧와 鐵矛의 分布定型 研究」,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필자의 철모 형식분류에 따르면 초곡리유적 출토 철모는 I Aa식과 I Ac식(< >자상)에 해당하며, I Aa식은 기원전 1세기 전엽부터 6세기대까지 계속 분묘에 부장되지만, I Ac식의 경우는 1세기 중반부터 3세기 전반까지 부장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면 5】초곡리 목곽묘 출토 철촉

【도면 6】영남지역 출토 무경식·유경식역자형 철촉

(①하대44호, ②대성동29호, ③대성동45호)

가 등장하는데, 3세기 중반이 되면 영남 각지에 넓게 확인된다.

철촉은 촉신이 삼각형을 이루며, 양날개가 벌어진 무경식 석촉과 유경식의 역자형 철촉이 확인된다. 전자는 영남지역에서 원삼국시대 전반부터 후반까지 주로 부장이 되며, 3세기대 들어서면 점차 유경식석촉으로 대체되어 간다. 영남지역에서 출토되는 무경식철촉은 대부분이 양날개가 짧게 벌어져 있으며, 만입부가 삼각형 또는 제형으로 각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 초곡리 유적의 무경식 철촉은 양날개가 보다 직선적으로 세장하고, 만입부분이 각이 형성되지 않고 둥근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무경식 철촉은 김해 대성동 29호에서 출토된 무경식 철촉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역자형의 철촉도 함께 공반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 석곽묘

1) 유구

총 14기가 확인되었으며, 2~3기가 일정한 군집을 이루면서 조성되었다.¹⁹⁾ 이중 4·7·10호에서는 주구와 배장묘로 판단되는 소형 석곽이 함께 조성된 군집묘가 확인된다.²⁰⁾ 석곽의 평면형태는 대체로 장방형이지만, 1.8~3.9:1의 장단비를 보이고 있어 일부는 세장한 평면 형태도 존재한다. 주축방향은 대체로 북서-남동향으로 등고선과 평행하게 조성되어 있으나, 일부 남-북향(4·14호)도 확인된다. 규모는 소형분(3·5·8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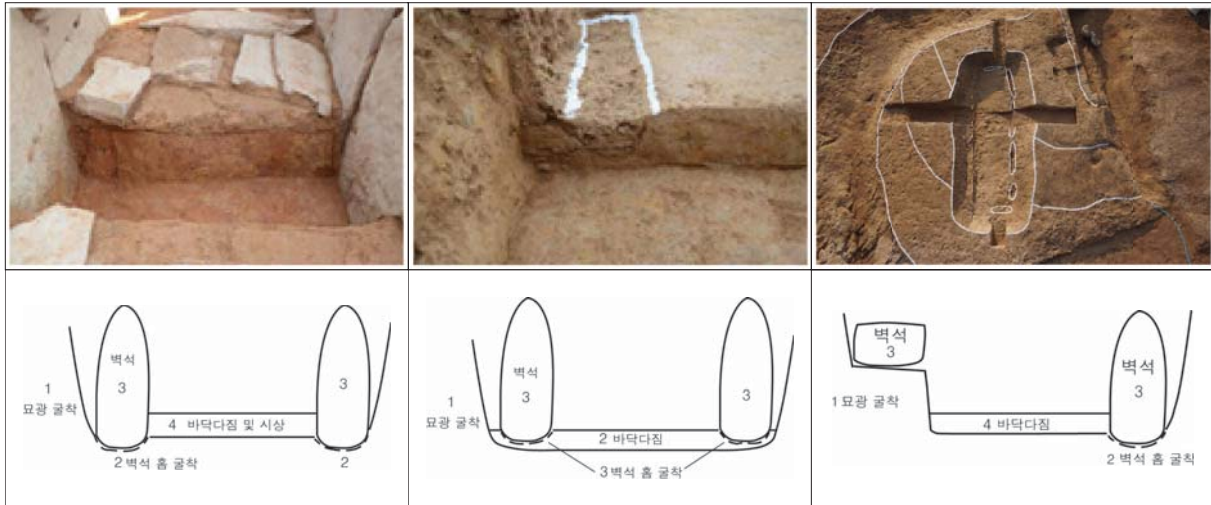
19) 2-3호, 4-5-6호, 7-8호, 12-13-14호

20) 석곽묘 2호에 인접하여 3호가, 석곽묘 4·6호에 인접하여 5호가, 석곽묘 7호에 인접하여 8호가 조성되어 있다.

【표 2】석곽묘 속성표

호수	묘광(cm)		석곽(cm)			장축방향	축조 유형	벽석 축조 방식	바닥 시설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길이	너비	높이						
1	(291)	(109)	264	60	30	북서-남동 (N-64°-W)	1유형	수적?	시상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철촉 등	
2	375	96	322	61	34	북서-남동 (N-64°-W)	1유형	수적 + 평적	점토 다짐 + 시상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철촉, 철도자 등	목곽묘 2, 7호 선축
3	158	85	125	48	34	북서-남동 (N-53°-W)	1유형	수적?	없음	고배, 대부장경호	목곽묘 2, 3호 선축
4	330	119	264	65	32	남-북 (N-7°-E)	2유형	수적?	점토 다짐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집게, 망치, 모루 등	목곽묘 8, 9호 선축
5	(147)	(77)	117	54	17	북서-남동 (N-69°-W)	1유형	수적?	점토 다짐 + 시상	유개고배, 철촉 등	
6	422	146	331	78	58	남-북 (N-4°-E)	1유형	수적 + 평적	점토 다짐 + 시상	유개고배, 이식, 방추차 등	목곽묘 8호 선축
7	378	138	307	55	40	남-북 (N-18°-W)	3유형	수적 + 평적/이단 굴착	점토다짐 +시상	고배, 단경호, 어망추 등	구상유구 2 호 선축
8	(198)	(70)	162	(50)	7	북서-남동 (N-42°-W)	2유형	시상	점토 다짐 + 시상		목곽묘 4호 선축
9	357	109	(336)	75	37	북서-남동 (N-25°-W)	3유형	수적 + 평적/이단 굴착 + 평적	점토 다짐 + 시상	고배, 개, 대부장경호 등	
10	(370)	167	(325)	68	56	북서-남동 (N-30°-W)	1유형	수적 + 평적	점토 다짐 + 시상	유개고배, 유개합, 철도자 등	
11	(203)	(84)	(180)	(54)	13	북서-남동 (N-37°-W)	2유형	수적?	시상	개	
12	331	117	227	65	43	북서-남동 (N-79°-W)	2유형	수적 + 평적	점토 다짐 + 시상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철검, 철도자 등	
13	347	114	280	50	77	북서-남동 (N-70°-W)	1유형	수적 + 평적	점토다짐 +시상	유개고배, 단경호, 이식 등	
14	(300)	123	250	65	32	북동-남서 (N-36°-E)	1유형	수적?	점토다짐 +시상	고배, 대부호, 방추차, 등	

【도면 7】 석곽묘 축조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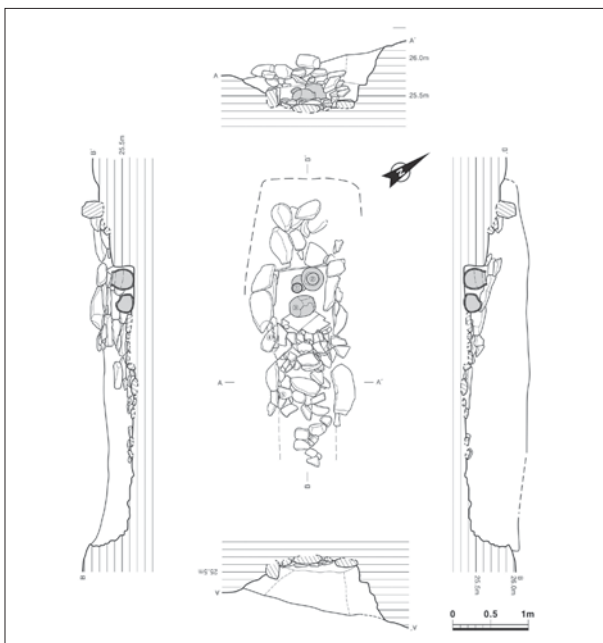


1유형(석곽묘 1, 2, 3, 5, 6, 10, 12, 13, 14호)

2유형(석곽묘 4호)

3유형(석곽묘 7, 9호)

석곽묘의 축조방법에 있어서는 크게 3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1유형은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유형으로, 묘광을 굴착한 다음에 묘광의 벽면을 따라 흙을 파서 벽석을 축조한 후 갈색 점질토 등으로 바닥다짐을 하거나 시상을 조성한 형식이다. 2유형은 묘광을 굴착한 다음에 바닥 전면에 점토다짐을 하고, 묘광 벽면에 접하여 흙을 굴착하여 벽석을 수적하는 방식이다. 초곡리 유적의 대부분의 석곽묘 바닥에는 시상을 설치한 반면, 4호에서는 점토다짐으로만 바닥을 조성하였다. 3유형은 묘광의 굴착 시 경사면이 높은 쪽의 벽면에는 이단으로 굴착하여 단이 형성된 기반면을 벽석의 최하단으로



【도면 8】 주매리 고분군 석곽묘 2호

이용하고, 그 상부에 판석으로 평적한 방식이다. 이외 다른 쪽의 벽석은 굴광면에 접하여 흙을 판 후 판석을 이용해 수적으로 조성하거나 수적과 평적의 방법을 혼용하여 조성하였다. 이는 유구가 입지한 대지가 단단한 암반으로 인해 깊은 굴착이 어려워 일부만 굴착한 후, 경사면이 높은 쪽은 기반면을 그대로 이용한 결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유형은 인접한 창녕 주매리 마산터 고분군의 석곽묘 1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²¹⁾ 한편, 일반적인 벽석의 축조 방식을 살펴보면, 최하단에는 판석을 1단으로 수적하고 그 상부에 1단 또는 다단으로

21) (재)우리문화재연구원, 2018, 『창녕 주매리 마산터고분군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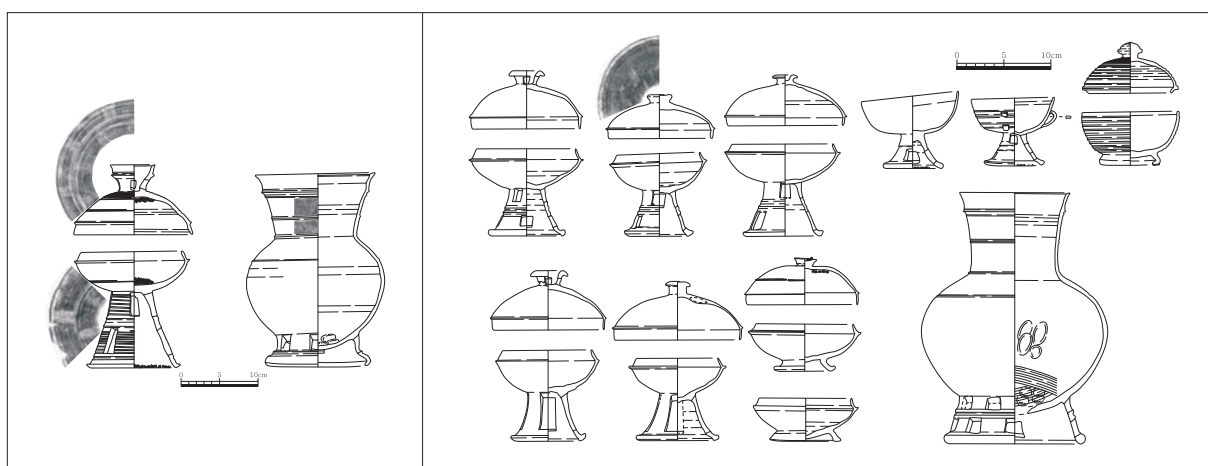
석곽묘2호에서 굴착된 기반암면을 그대로 이용하여 벽석의 최하단부로 이용하였다.

판석을 평적하는 방식이 나타난다²²⁾. 상부에 평적된 벽석의 경우 하부에 수적된 벽석의 높이와 묘광의 높이에 따라 단의 수를 조절해서 축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유물

석곽묘에서는 유개고배를 중심으로 개, 고배, 대부장경호, 대부완, 유개합 등의 토기류와 방추차, 어망추의 토제품, 그리고 철촉, 도자와 함께 모루, 집게, 망치 등의 철기류가 출토되었으며, 금동제이식도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의 수량이 많지 않아 토기류를 중심으로 조성 시기를 추정해보고, 단야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토기류



【도면 9】 석곽묘 1호 토기

【도면 10】 기타 석곽묘 토기

여기서는 출토된 토기 중에서 수량이 가장 많은 개와 고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개는 단추형의 꼭지를 가진 것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대각도치형에 방형의 투창이 있는 것도 있다. 대각도치형의 경우 석곽묘 1호에서만 중앙에 돌대가 있는 형태가 확인되며, 다른 경우는 모두 끝이 두툽한 형태이다. 개신부에는 문양이 없는 것이 주를 이루며, 문양이 있는 경우는 집선문이나 격자문, 八자선문이 시문되었다. 고배는 이단투창고배가 다수로 배신부에 비해 대각부가 긴 형태가 주를 이루며, 배신부와 대각부의 비율이 1:1에 가까운 고배도 확인된다. 배신부와 대각부는 대체로 호선적이며, 방형 및 장방형의 투창이 확인된다. 장방형의 일단투창고배와 대각이 매우 짧은 단각고배도 같이 공반되고 있다.

22) 일부 석곽묘에서는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수적한 벽석 상부에 부분적으로나마 평적한 벽석 일부가 남아 있거나, 부서진 석재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이러한 벽석 축조방식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3호 석곽묘의 경우 1단으로 수적 후, 5~6단으로 평적한 양상이 확인되고 있어 최하단을 수적 후 상부에 다단으로 평적 하는 축조방식도 일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6·13호).

선행 연구된 편년안(배정연 2012,²³⁾ 하승철 2014²⁴⁾)을 바탕으로 초곡리유적의 시기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우선 석곽묘 1호에서는 중앙에 돌대가 있는 대각도치형의 꼭지에 집선문이 시문된 개와 미미한 호선의 대각에 대각단이 돌출된 2단각 2투창의 유개고배가 확인된다. 여타 고배보다 기고가 높고, 배신부가 얇으며, 대각의 길이가 긴 것이 특징으로 기존의 창녕토기양식이 일부 잔존하는 양상을 보인다²⁵⁾. 이외 석곽묘의 고배류에서는 보다 기고가 낮고 배신부와 대각부의 비가 1:1에 가까운 것도 확인된다. 고배의 대각단은 두툼하게 처리되며, 대각이 많이 짧은 단각고배가 등장한다. 따라서 석곽묘 1호와 이외의 석곽묘는 토기양상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기적인 차이가 인정된다. 석곽묘 1호를 전형적인 창녕양식의 토기가 소멸되는 과정으로 판단하면, 배정연의 5기, 하승철의 Ⅲa에 해당하며, 6세기 1/4분기로 편년할 수 있다.²⁶⁾

다음으로 석곽묘 1호를 제외한 석곽묘는 대부분 신라 양식화된 토기가 부장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고배류의 양상과 더불어 단추형 꼭지에 무문양 위주의 개와 원점문이 시문된 장경호, 대부파수부완 및 유개합이 공반되고 있다. 따라서 배정연의 6기, 하승철의 Ⅲb에 해당하며, 6세기 2/4분기로 편년된다.

이와 같이 초곡리 유적의 석곽묘는 6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단야구

단야구는 창녕지역에서 삼국시대 고분을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다. 1점 또는 여러 점이 세트로 확인되고 있으나, 출토되는 수량은 적은편이다. 창녕 계성 및 교동유적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단야구가 세트관계로 출토되었으며, 일부 묘제에서는 1점만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석곽묘 4호에서는 망치와 모루가 각 2점, 집게, 줄형철기²⁷⁾가 각 1점씩 총 6점이 출토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다른 철기류가 확인되지 않아 특징적이다.

23) 배정연, 2012, 「三國時代 昌寧地域 土器文化 研究」,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4) 하승철, 2014, 「토기와 묘제로 본 고대 창녕의 정치적 동향」, 『嶺南考古學』70, 嶺南考古學會.

25) 전형적인 창녕양식토기는 중간에 돌대가 있는 대각도치형의 꼭지에 개신부에는 유충문이 주를 이루는 개와 대각은 직선적으로 벌어지며 각거부를 가진 3단각 2단투창의 고배를 지칭한다. 그러나 석곽묘 1호 유개고배는 개신부에 집선문이 새겨지며, 미미한 호선의 대각에 2단각에 가까운 2단투창을 갖추고 있어 전형적인 창녕양식에서는 약간 벗어난 형태로 판단된다.

26) 석곽묘 1호에서는 이외 확인된 고배류가 없으며, 대부장경호만이 공반되고 있어 선행 연구된 편년에 석곽묘 1호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승철의 편년 중에서 Ⅲa에 송현동 6·7호분이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송현동 6·7호분에서 출토된 유개고배는 대부분 창녕양식이 반영되어 있다. 게다가 다수 보이는 유충문이 초곡리유적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초곡리 석곽묘 1호의 시간적인 위치는 송현동 6·7호분 보다는 늦을 가능성도 있다.

27) 최초 유물의 노출 당시, 철기가 일부 파손되고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추정하기 어려워 보고당시는 ‘도자’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인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철기 양 측면이 반듯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기타유적에서 출토되는 ‘줄’의 형태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줄형철기’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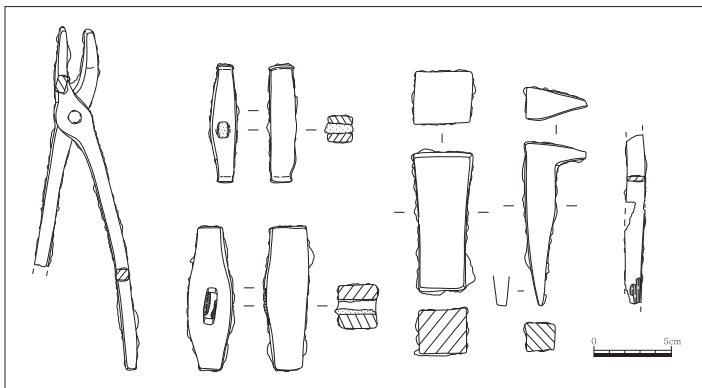
【표 3】창녕지역 출토 단야구 현황

유적(유구)명	출토 단야구
창녕 계성 I-26호 석곽	집게
창녕 계성 B-3호 석곽	집게
창녕 계성 B-7호 석곽	끌
창녕 계성 B-10호 석곽	끌
창녕 계성 B-17호 석곽	끌
창녕 계성 A-14호 석실	집게, 망치, 모루
창녕 계성 B39-1호 석실	망치, 모루
창녕 교동 89호 석실	집게, 망치, 모루
창녕 주매리 마산터고분군1호 석곽	집게, 망치

【표 4】석곽묘 4호 출토 철기류 속성

유물	전장cm	폭cm	두께cm	비고
망치	9.5	2.5	2.5	단면형태(방형)/양단형태(날을 좁힌 형태)
	7.5	1.7	1.5	집게부 형태(타원형)
집게	22	2.5	1	방형
모루	9.5	3.5	3.3	부리형
	10	2	1.5	양단부 결실
줄형철기	(12)	1.5	0.5	집게, 망치, 모루

※ ():잔존



【도면 11】석곽묘 4호 출토 단야구

한 쪽 또는 양쪽의 단을 좁힌 형태가 있는데, 창녕지역에서 확인되는 망치는 모두 후자에 가깝다.

석곽묘 4호에서 출토된 단야구 중에서, 망치는 방형의 단면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중앙 부분이 가장 두껍고 양 단으로 갈수록 두께가 좁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자루가 결합되는 목병공은 중앙에서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위치한다. 우리나라에서 확인되는 망치의 형태는 크게 두 종류로, 선단 양쪽이 중앙부와 동일한 넓이를 한 형태와

나. 유물

143. 대각(도면 54-143, 도판 44-143)

대각만 잔존한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5Y 4/1), 속심은 황회색(2.5Y 6/1)이다. 내외면에는 회올리브색(5Y 5/3)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며,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대각단 내면에서 짙흔이 확인된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은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으며, 하단에 장방형 투창 3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잔존기고 4.5cm, 대각고 4.2cm, 저경 5.7cm

144. 대각(도면 54-144, 도판 44-144)

대각 일부만 작존하는 것을 도면복원하였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회백색(2.5Y 7/1)이다.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한 대각의 상단에서 1개, 하단에서 2개의 투창이 확인된다.

잔존기고 3.6cm, 복원저경 8.9cm

145. 대부장경호(도면 54-145, 도판 44-145)

동체부 일부와 구경부 대부분이 결실되었다. 도질토기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이 소량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색조는 내외면이 회색(5Y 6/1), 속심은 회색(N 4/)이다. 내외면에 자연유가 흡착되었으나, 대부분 점상으로 산화 박리되었다. 동체부와 대각에는 기포가 형성되어 있다. 대각단 내면에서 짙흔이 확인된다. 저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지두흔이 확인된다. 그 외 기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구경부와 동체부의 경계는 1조의 돌대를 돌려 구분하였다. 견부에는 1조의 돌대를 돌렸다. 대각에는 장방형 투창 6개를 등간격으로 뚫었다.

잔존기고 16.6cm, 동최대경 17.0cm, 대각고 4.1cm, 저경 10.7cm

146. 방추차(도면 54-146, 도판 44-146)

일부가 결실되었다. 연질제로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태토는 세사립 혼입된 점토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인 색조는 등색(5YR 6/6)이다. 중앙부에는 직경 1.0cm 정도의 구멍을 양쪽에서 뚫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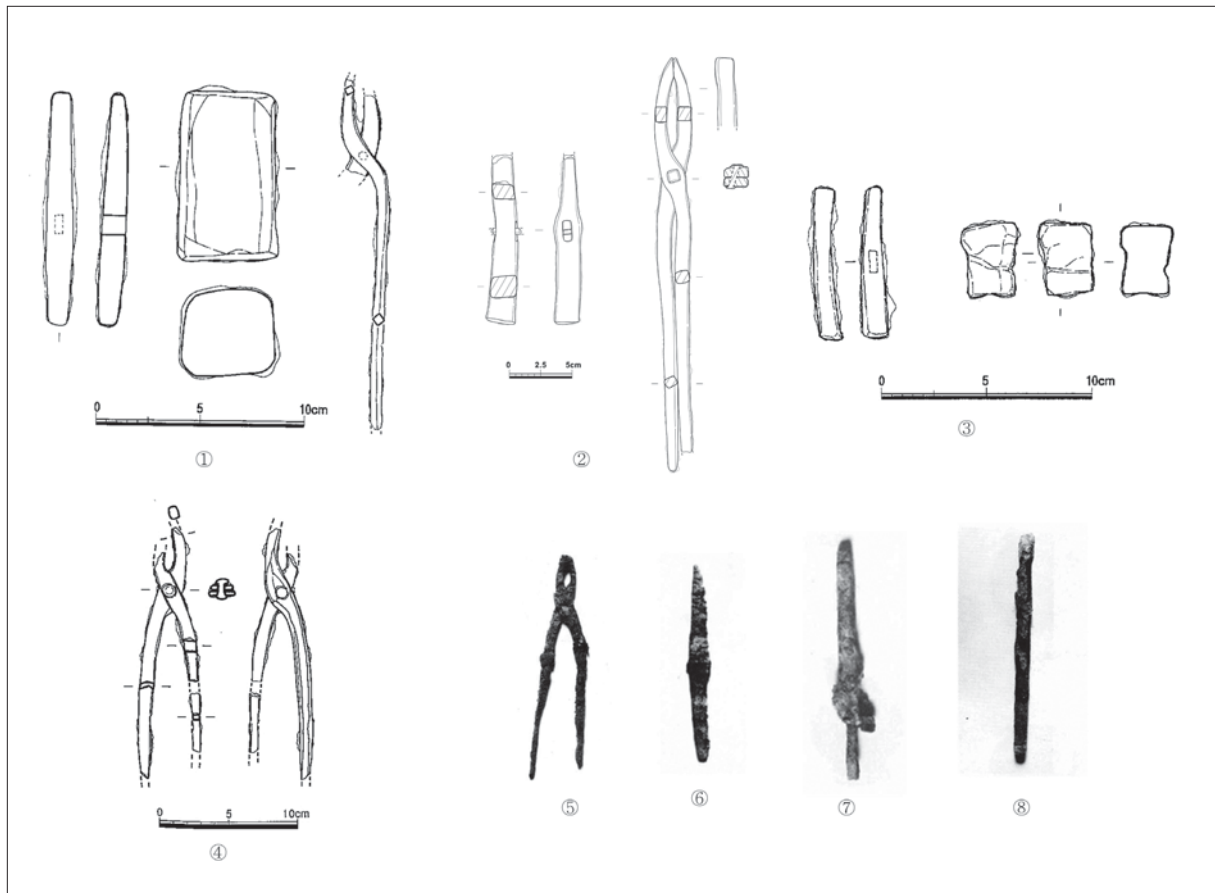
직경 4.5cm, 두께 2.6cm

147. 도자(도면 54-147, 도판 44-147)

단조품으로 완형이다. 신부의 단면형태는 이등변삼각형이며, 병부의 단면형태는 장방형이다. 관부에서 좁아져 병부로 이어지며 병부에는 자루 목질흔이 두껍게 잔존한다.

길이 10.0cm, 신부너비 1.1cm, 두께 0.2cm, 중량 8.7g

창녕지역에서 확인되는 망치는 초곡리 유적의 망치보다 세장하며 주로 한 쪽 단만 좁힌 형태로, 두께가 얇은 특징을 보인다. 전자의 망치가 1차가공이나 철물을 편평하게 펴는데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 반면, 초곡리유적을 포함한 창녕지역과 같은 후자의 망치는 철판의 절단이나 정교한 작업과 같이 양쪽 두부를 사용하는 단야공정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²⁸⁾



【도면 12】 창녕지역 출토 단야구

(①계성A-14호, ②창녕 주매리 마산터 석곽1호, ③계성B-39호, ④계성 I -26호, ⑤계성B-3호, ⑥계성B-7호, ⑦계성B-10호, ⑧계성B-17호)

집게부의 평면형태는 위쪽은 호선형, 아래쪽은 직선형이며, 손잡이부의 평면형태는 아래쪽 말단부가 결실되었지만 집게부와 같이 위쪽은 호선형, 아래쪽은 직선형에 가깝다. 이와 같은 형태는 창녕 계성A-14호에서 출토된 집게와 형태가 유사하다.

모루는 방형의 형태와 부리형의 형태²⁹⁾가 확인된다. 방형의 모루는 양단면의 크기가 서로 다르며,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모루의 형태이다. 창녕지역에서는 형태적으로는 비슷하나 다양한 크기의 모루가 확인된다.

28) 김승옥 · 이보람, 2011, 「原三國~三國時代 鍛冶具 研究 - 完州 上雲里遺蹟을 中心으로-」, 『중앙고고연구』 9, 중앙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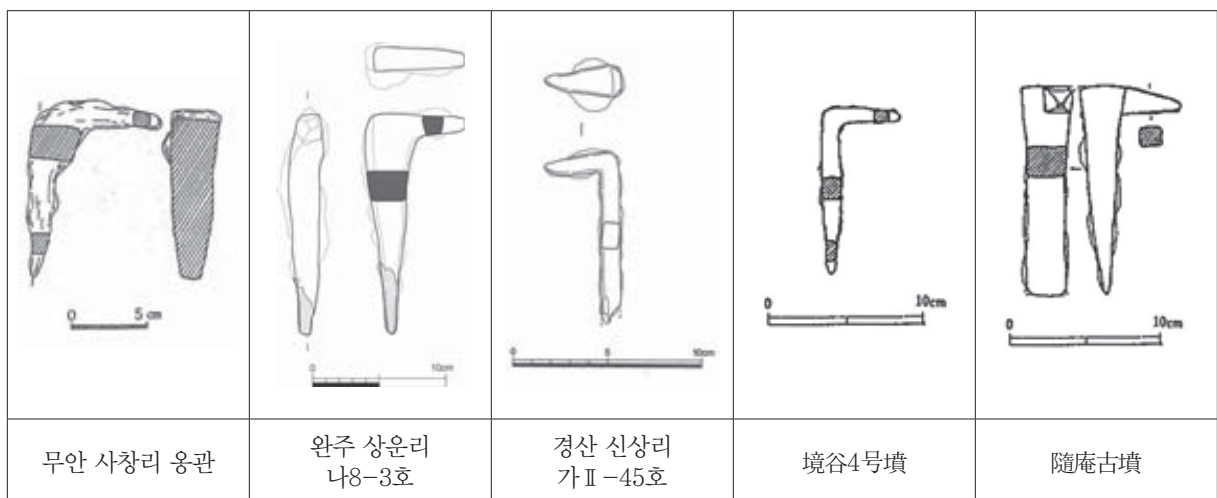
29) 명칭에 있어서는 연구자마다 다양한데, ‘ㄱ’자형모루, 역’ㄴ’자형모루 등으로 불리고 있다.

부리형의 모루는 매우 세장한 삼각형의 형태에 끝이 뾰족한 돌출부분과 삼각형의 짧은 돌출부분을 갖추고 있으며, 긴 돌출부분이 짧은 부분보다 뾰족한 형태이다. 부리형은 우리나라에서 출토예가 매우 적는데, 지금까지 3점(완주 상운리 나8-3호, 경산 신상리 가Ⅱ-45호, 무안 사창리 옹관³⁰⁾)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奈良縣御所市境谷4호분과 岡山縣総社市隨庵고분에서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유사하나 돌출부분에 따른 형태와 길이에 있어서 차이가 확인되며, 隨庵고분 출토 모루와 같이 돌출부분이 현저하게 다른 형태도 나타난다.

【표 5】 기타 유적 부리형모루 속성

유적명	전장cm	폭cm	두께cm	공반 단야구
무안 사창리 옹관	(9.1)	3.6	0.9	집게, 망치 ³¹⁾
완주 상운리(나8-3목곽)	16.4	2.8	2.2	집게, 망치, 줄
경산 신상리(가Ⅱ-45적석목곽)	9.1	3.6	2.9	집게, 망치
境谷4호분	11			집게, 망치
隨庵고분	14.5			집게, 망치, 줄

※ ():잔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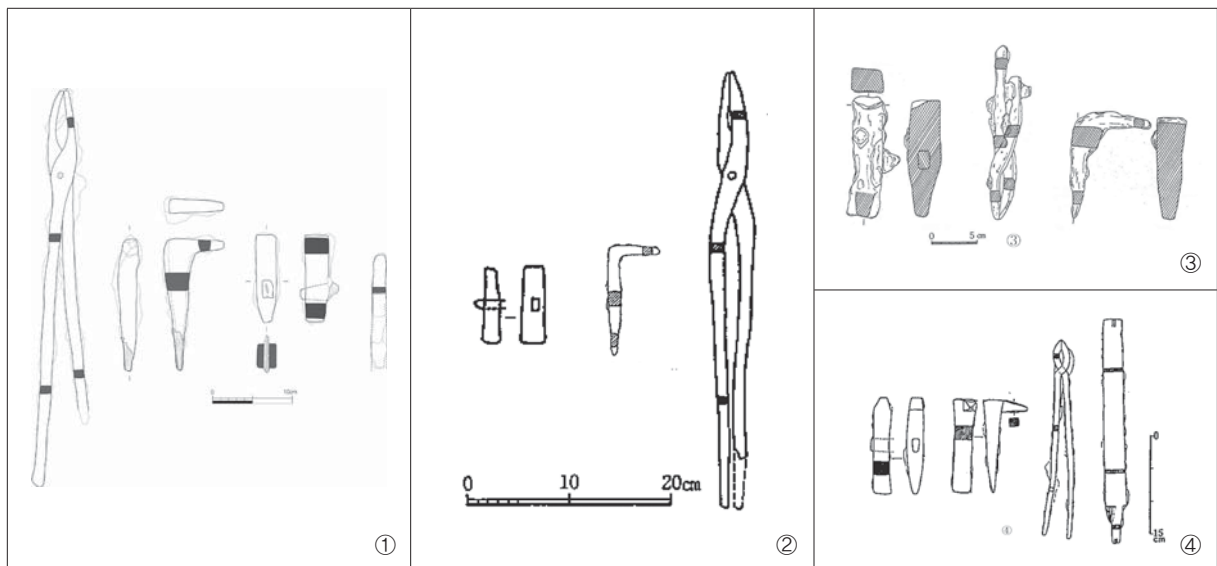
【도 13】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부리형 모루

한편, 상운리 유적과 隨庵고분에서는 모두 망치, 집게, 모루, 줄이 세트양상으로 출토되고 있어 초곡리 유적과 같은 단야구 세트 조성방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무안 사창리와 境谷 4호분에서는 줄은 확인되지 않지만, 집게와 망치가 같이 공반되고 있다. 망치는 소형의 크기에 한 쪽 단을 좁힌 세장한 형태가 확인되는데 창녕지역에서 확인되는 망치와 유사하며, 초곡리

30) 보고서에는 ‘ㄱ’자형 공구로 명칭하고 있으며, 목재를 가공하는 자귀로 추정하고 있다.

31) 보고서에는 철제유물이 여러 옹관 내부에서 출토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한 유구에 세트 관계로 출토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불분명하다.

유적의 망치보다는 세장한 형태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크기가 작고, 한 쪽 단이 좁게 형성되어 있어 용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집계에 있어서는 크기의 차이는 보이지만 타원형의 집계부에 병부가 집계부보다 많이 긴 형태가 확인된다. 따라서 각 유적별 시기³²⁾와 유물 크기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지만, 부리형모루가 확인된 유적에서는 대체로 비슷한 형태와 용도를 가진 단야구가 공반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도면 14】 유적별 부리형 모루와 공반되는 단야구

(① 상운리 나8-3목곽, ② 境谷4호분 ③ 무안 사창리 옹관, ④ 隨庵고분)

한편, 가야·신라권역에서의 단야구는 5~6세기대 묘제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고 있으며 세트르 부장하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 5세기대의 대형고분군에서는 단야구의 수량과 종류가 미약하며, 크기가 크고 소량으로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 연구자³³⁾들은, 4~5세기대의 묘제에 부장된 단야구는 실용성이 낮으며, 피장자는 단조작업과 철 생산 관련 작업을 운영하거나 관리했던 수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6세기대의 묘제에서는 단야구의 종류와 수량이 보다 늘어나며, 부장된 단야구는 실용성이 높아 피장자는 직접 작업에 종사한 야장(冶匠)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초곡리 석곽묘 4호에서 출토된 단야구는 실제로 사용된 도구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장자는 야장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32) 무안 사창리는 5세기 전반, 상운리유적은 4세기 중반~후반, 境谷4호분은 6세기 전반, 隨庵고분은 5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33) 車順喆, 2004, 「단야구 소유자에 대한 연구」, 『문화재』36권, 국립문화재연구소.

金銀珠, 2006, 「三國時代 鍛冶具 研究 -嶺南地方을 中心으로-」, 嶺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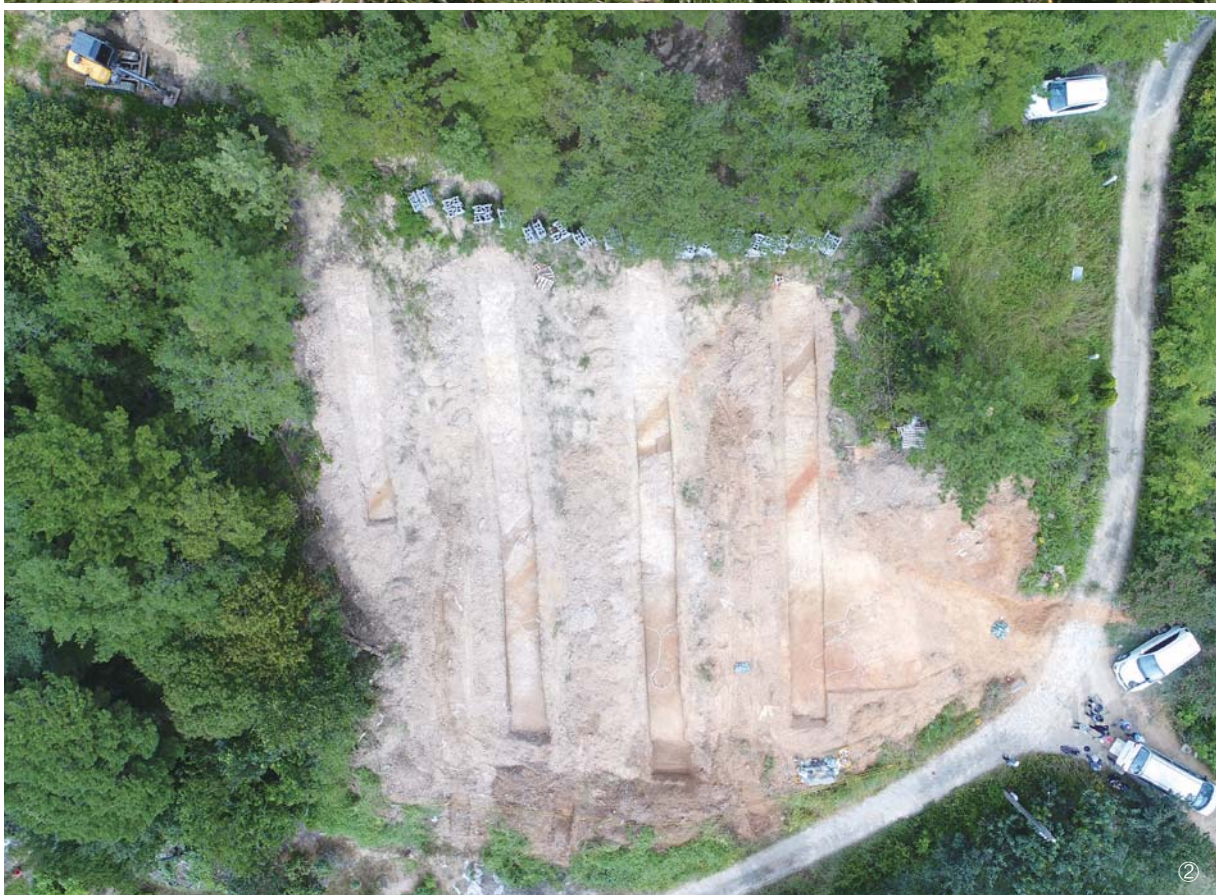
3. 맺음말

금번 발굴조사된 유적은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전반경의 목곽묘와 6세기 전반경의 석곽묘가 조성된 고분군으로, 그동안 문화유적분포지도상 ‘초곡리 소장미마을 고분군’으로 표기된 유적의 실체를 미약하게나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창녕지역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는 3~4세기대의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목곽묘가 처음 확인되는 성과를 바탕으로 그 동안 공백으로 있던 창녕지역의 목곽묘 단계 사회를 복원해 볼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삼국시대 수혈식석곽묘는 6세기를 전후로 하는 창녕지역의 묘제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특히 6세기대에 신라에 복속된 것으로 알려진 창녕지역이 가야세력권에서 신라화되는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석곽묘에서 출토된 단야구 세트는 창녕지역에서 확인된 단야구 중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로 피장자가 정교한 단야기술을 가진 장인이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서 확인예가 드문 부리형 모루는 비슷한 시기인 일본 境谷4호분과 隨庵고분에서 출토된 모루와 비교검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원경(항공사진), ②시굴 조사전(SE→NW))



도판 2. 조사대상지 시굴조사 후 전경(①SW→NE, ②항공사진)



도판 3. 트렌치 조사후(①트렌치 2(SW→NE), ②트렌치 3(SW→NE), ③트렌치 4(SW→NE), ④트렌치 5(SW→NE), ⑤트렌치 6(SW→NE))



도판 4. 조사대상지 발굴조사 중 전경(①항공사진), 목곽묘 1호(②조사전(SE→NW), ③유물노출 후(SE→NW), ④토층 (SE→NW), 1:출토유물)



도판 5. 목곽묘 2·3·7호 조사전(①NW→SE), 목곽묘 2호(②유물 노출후(NW→SE), ③④토층, ⑤⑥유물 출토상태)



도판 6. 목각묘 2호 출토유물1



도판 7. 목각묘 2호 출토유물2



도판 8. 목곡묘 3호(①유물 노출후(NW→SE), ②조사후(NW→SE), ③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21·22: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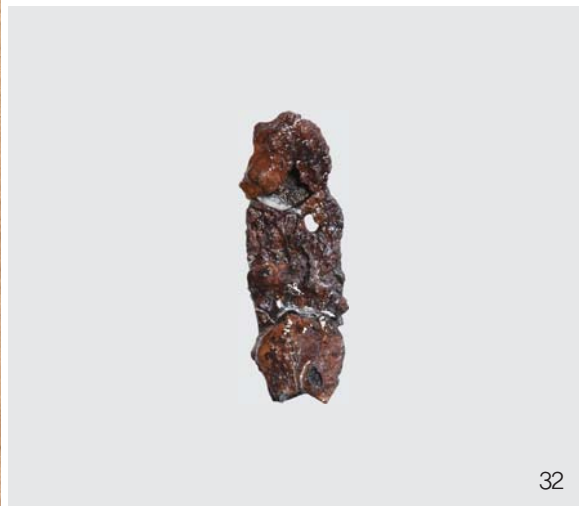
도판 9. 목곽묘 4호(①조사전(SW→NE), ②유물 노출후(SW→NE), ③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23·24:출토유물)



도판 10. 목곽묘 5호(①조사전(S→N), ②유물 노출후(S→N), ③조사후(S→N), ④토층, ⑤묘광 바닥 굴지구획)



도판 11. 목곽묘 5호(①②유물 출토상태, 26~31:출토유물)



도판 12. 목곽묘 6호(①유물 노출후(NW→SE), ②토층, 32:출토유물), 목곽묘 7호(③유물 노출후(W→E), ④토층, 33:출토유물)



도판 13. 목곽묘 8호(①조사전(SE→NW), ②조사후(NW→SE), ③토층), 목곽묘 9호(④유물 노출후(NW→SE), ⑤토층, 34:출토 유물)



도판 14. 목각묘 10호(①조사후(NW→SE), ②충전토 제거후(NW→SE)), 옹관묘 1호(③조사전(W→E), ④옹관 노출후(W→E), ⑤옹관 세부, 35: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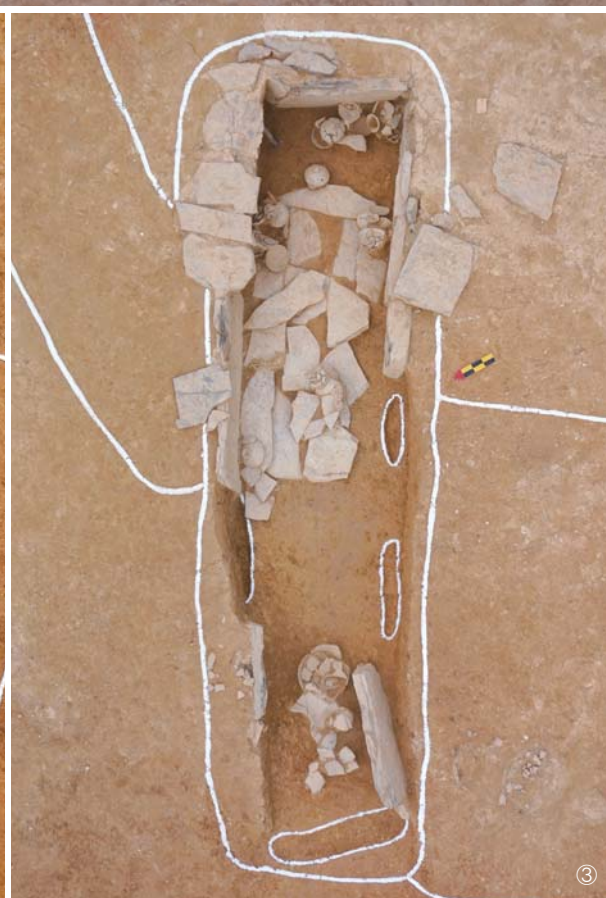
도판 15. 웅관묘 2호(①조사전(W→E), ②1차 노출후(W→E), ③2차 노출후(W→E), 36·37:출토유물)



도판 16. 석곽묘 1호(①조사전(SE→NW), ②유물 노출후(SE→NW), ③조사후(SE→NW), ④내부 토층, ⑤시상단면)



도판 17. 석곽묘 1호(①북장벽 축조상태, ②북장벽 묘광 토층, ③유물 출토상태, 38~42:출토유물)



도판 18. 석곽묘 2·3호 전경(①SW→NE), 석곽묘 2호(①조사전(NW→SE), ②유물 노출후(NW→SE))



도판 19. 석곽묘 2호(①동단벽 축조상태, ②남장벽 축조상태, ③북장벽 축조상태, ④바닥 축조상태, ⑤동단벽 묘광 토층, ⑥북장벽 묘광 토층, ⑦남장벽 묘광 토층, ⑧시상 축조상태, ⑨~⑫유물 출토상태)



도판 20. 석곽묘 2호 출토유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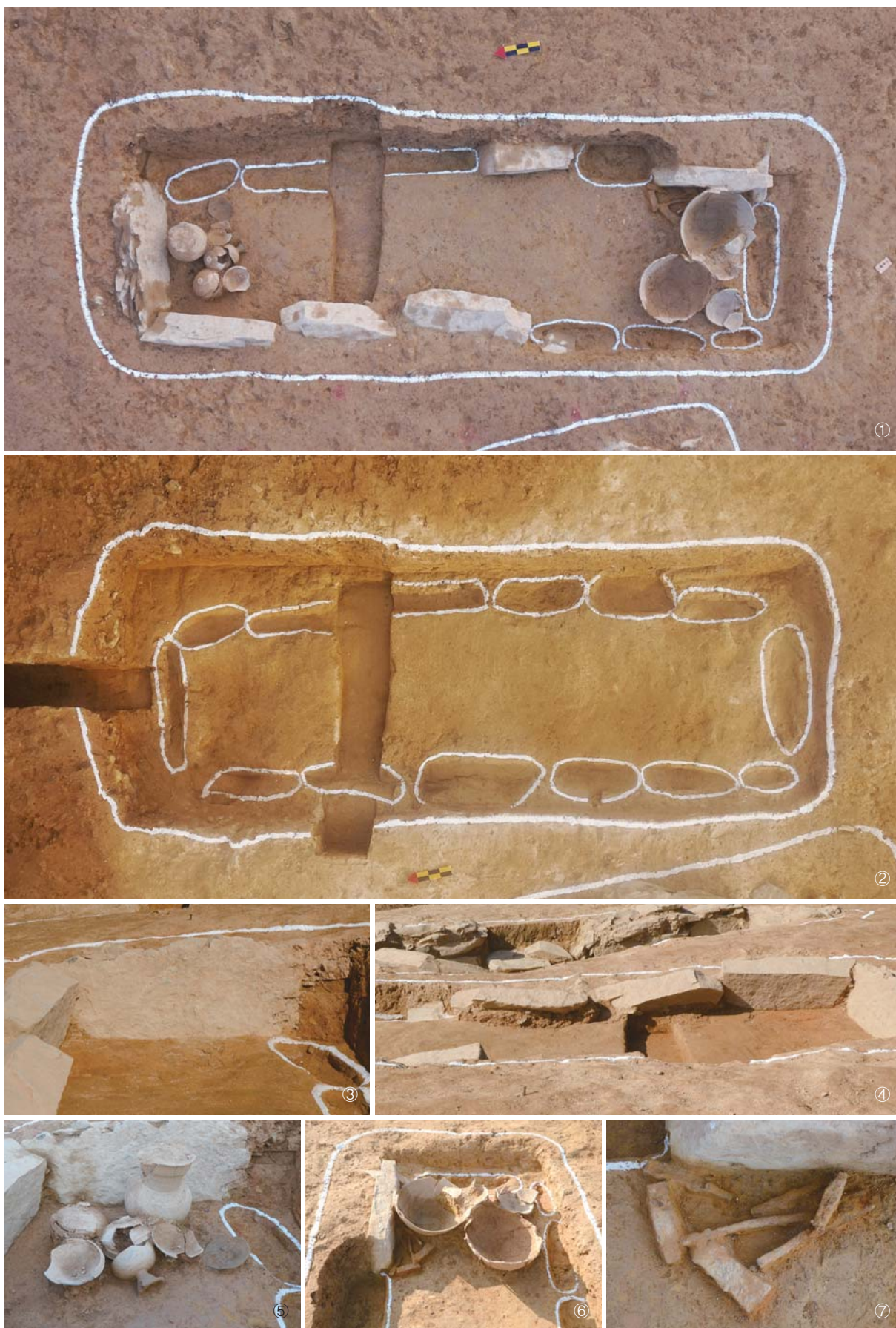
도판 21. 석곽묘 2호 출토유물(59~65), 석곽묘 3호(①유물 노출후(NW→SE), ②조사후(NW→SE))



도판 22. 석각묘 3호(①동단벽 축조상태, ②북장벽 축조상태, ③남장벽 축조상태, ④서단벽 축조상태, ⑤토층, ⑥남장벽 묘광 토층, ⑦북장벽 묘광 토층, ⑧⑨유물 출토상태)



도판 23. 석곽묘 3호 출토유물(66~71), 석곽묘 4~6호 전경(①S→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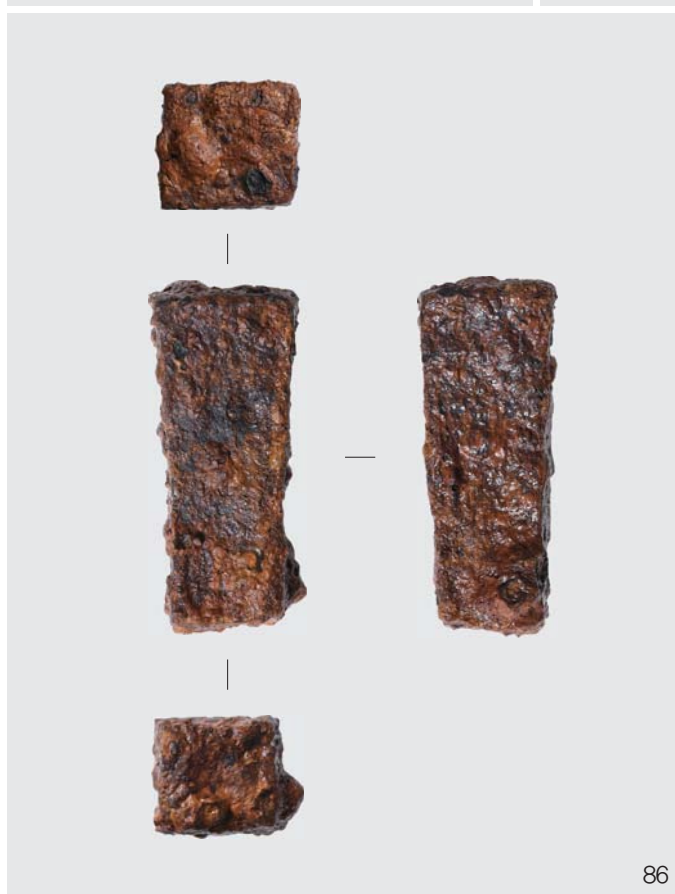
도판 24. 석곽묘 4호(①유물 노출후(W→E), ②조사후(W→E), ③북단벽 축조상태, ④서장벽 축조상태, ⑤~⑦유물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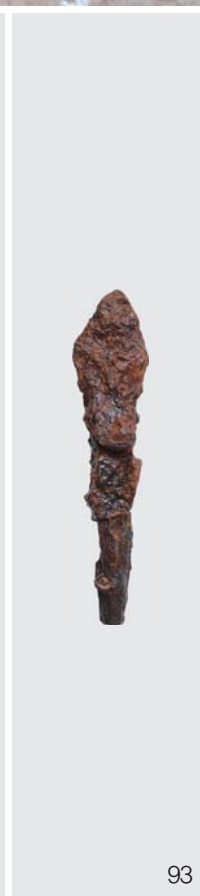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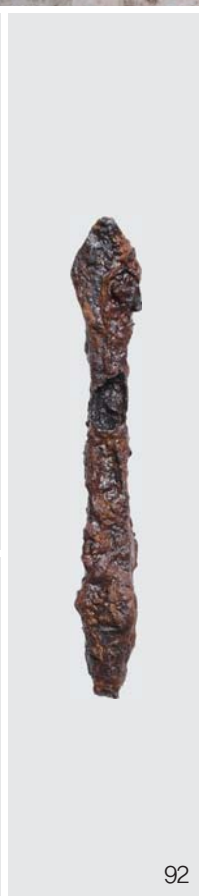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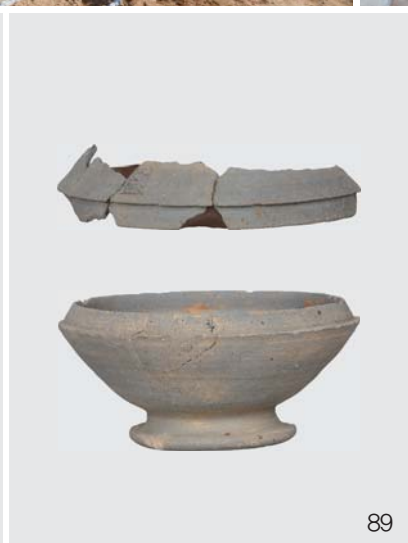
도판 25. 석곽묘 4호 출토유물1



도판 26. 석곽묘 4호 출토유물2



도판 27. 석곽묘 4호 출토유물3



도판 28. 석곽묘 5호(①유물 노출후(SW→NE), ②벽석 축조상태, ③동단벽 묘광 토층, 88~93:출토유물)



도판 29. 석곽묘 6호(①유물 노출후(W→E), ②북단벽 축조상태, ③동장벽 축조상태, ④서장벽 축조상태, ⑤바닥 축조상태, ⑥북단벽 묘광 토층, ⑦남단벽 묘광 토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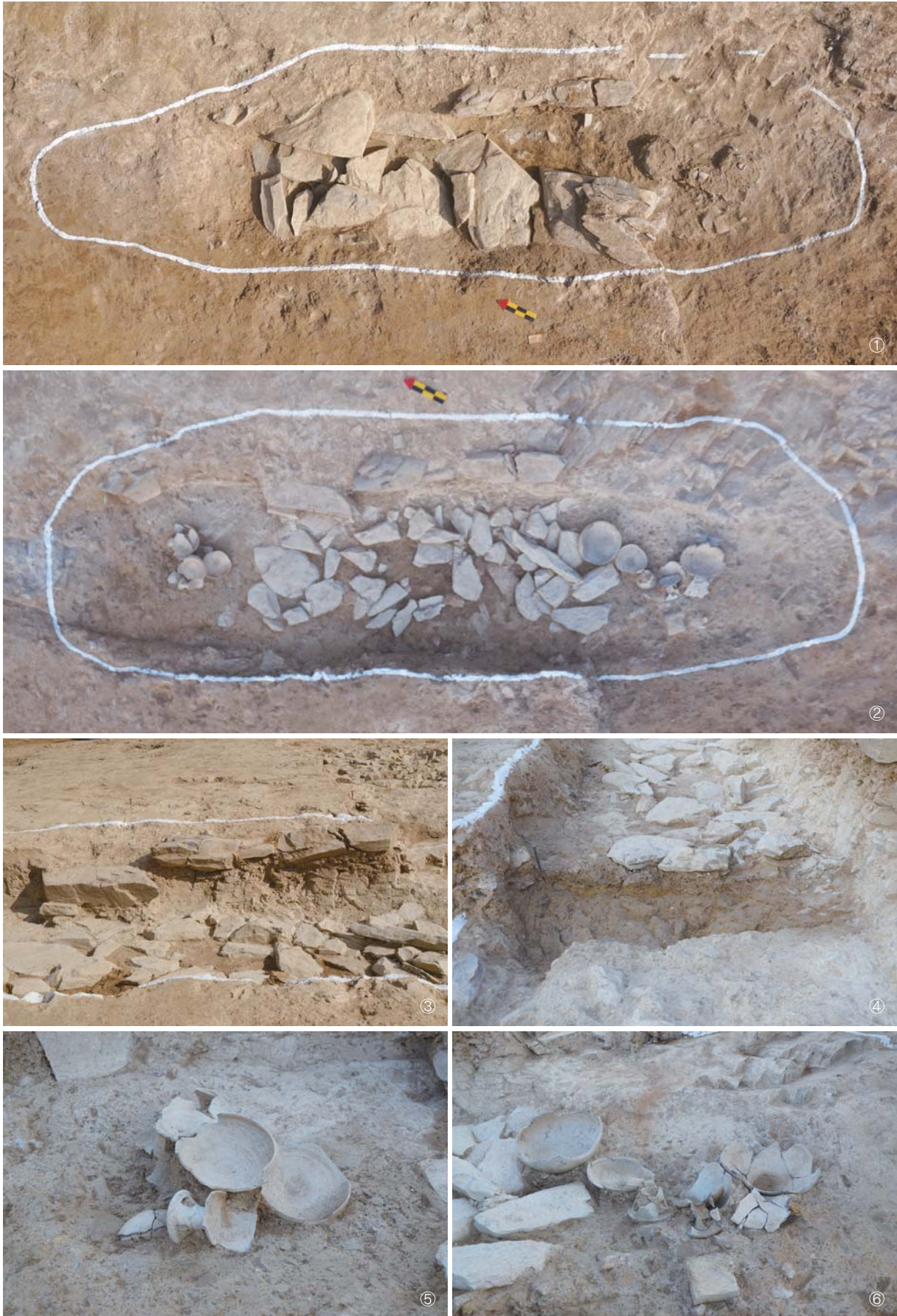
도판 30. 석곽묘 6호(①~③유물 출토상태, 94~100:출토유물)



도판 31. 석곽묘 7·8호(①전경(W→E)), 석곽묘 7호(②유물 노출후(N→S), ③조사후(N→S), ④서장벽 축조상태, ⑤서장벽 묘광 토층)



도판 32. 석곽묘 7호(①②유물 출토상태, ③주구 토층, 101~106:출토유물), 석곽묘 8호(④조사후(SW→NE), ⑤조사전(NW→SE))



도판 33. 석곽묘 9호(①조사전(SW→NE), ②유물 노출후(SW→NE), ③동장벽 축조상태, ④바닥 축조상태, ⑤⑥유물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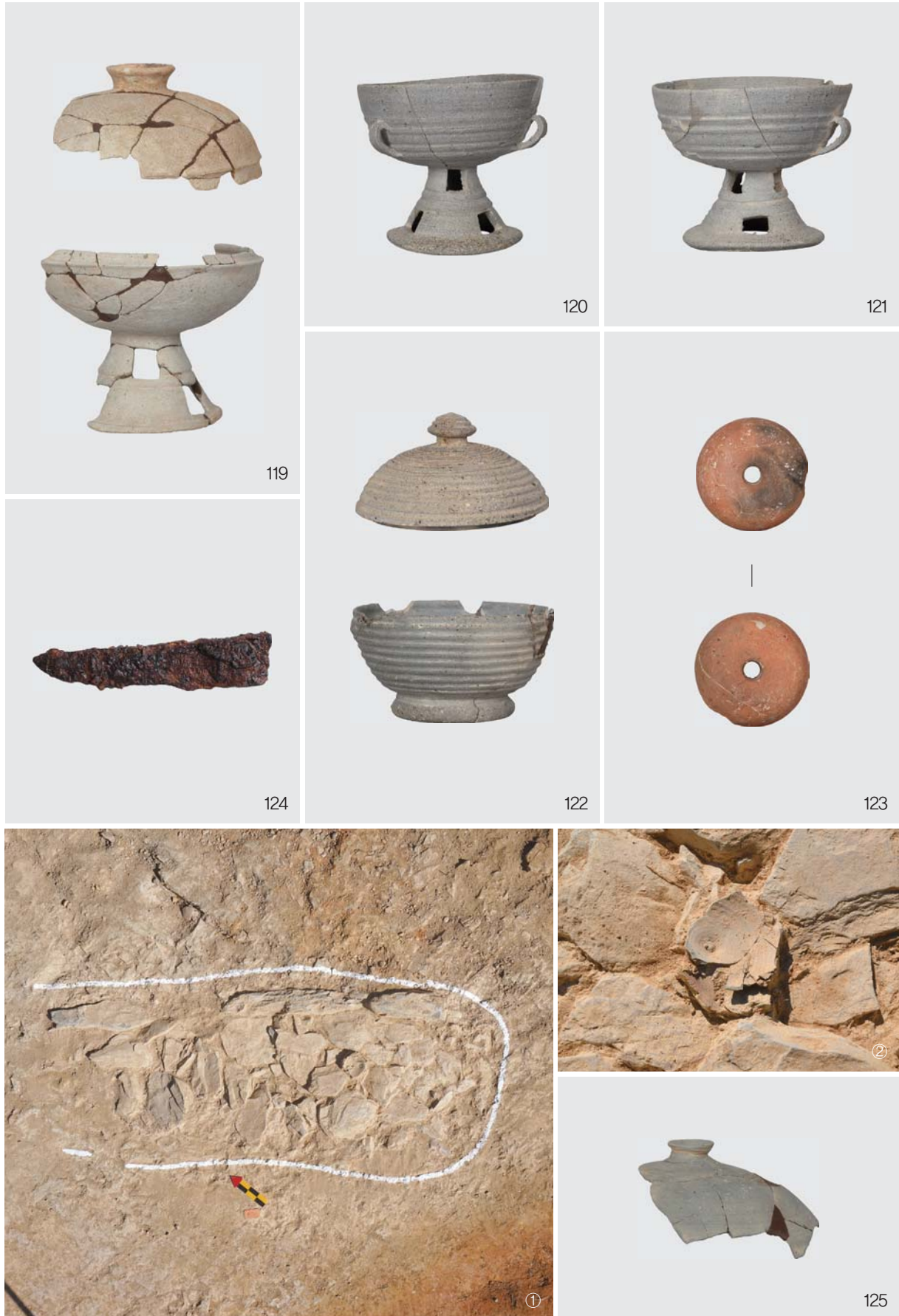
도판 34. 석곽묘 9호 출토유물1



도판 35. 석곽묘 10호(①전경(SW→NE), ②유물 노출후(NW→SE), ③조사후(NW→SE))



도판 36. 석곽묘 10호(①동장벽 축조상태, ②남단벽 축조상태, ③서장벽 축조상태, ④동장벽 묘광 토층, ⑤유물 출토상태, ⑥주구 토층, 116~118:출토유물)



도판 37. 석곽묘 10호 출토유물(119~124), 석곽묘 11호(①유물 노출후(SW→NE), ②유물 출토상태, 125:출토유물)



도판 38. 석곽묘 12~14호(①조사전(NE→SW), ②유물 노출후(SW→NE))



도판 39. 석곽묘 12호(①유물 노출후(NW→SE), ②조사후(NW→SE), ③남장벽 축조상태, ④서단벽 축조상태, ⑤동단벽 축조 상태, ⑥북장벽 축조상태, ⑦석곽묘 12·13호 묘광 중복상태, ⑧유물 출토상태)



도판 40. 석곽묘 12호 출토유물



도판 41. 석곽묘 13호(①유물 노출후(SW→NE), ②조사후(SW→NE), ③북장벽 축조상태)



도판 42. 석곽묘 13호(①남장벽 축조상태, ②서단벽 축조상태, ③북서 모서리 축조상태, ④남장벽 묘광 토층, ⑤~⑧유물 출토상태)



도판 43. 석곽묘 13호 출토유물1



도판 44. 석곽묘 14호(①유물 노출후(N-S), ②서장벽 축조상태, ③남단벽 축조상태, ④바닥 축조상태, ⑤⑥유물 출토상태, 143~147:출토유물)



도판 45. 구상유구 1호(①조사전(SW→NE), ②조사후(SW→NE), ③토층), 구상유구 2호(④조사전(항공사진))



도판 46. 구상유구 2호(①조사후(항공사진), ②동쪽 토층, ③서쪽 토층, ④유물 출토상태, 148:출토유물), 수혈유구(⑤조사전(항공사진), ⑥조사후(S→W))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70-0001	대부호	1	목곽묘 1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8.9	0.0	0.0	6-1 4-1	Y
2017-1170-0002	대부호	1	목곽묘 2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20.4	0.0	0.0	8-2 6-2	Y
2017-1170-0003	대부호	1	목곽묘 2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15.5	0.0	14.0	8-3 6-3	Y
2017-1170-0004	대부호편	1	목곽묘 2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6.1	0.0	0.0	8-4 6-4	Y
2017-1170-0005	양이부호편	1	목곽묘 2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9.4	0.0	0.0	8-5 6-5	Y
2017-1170-0006	호 저부편	1	목곽묘 2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9.7	0.0	0.0	8-6 6-6	Y
2017-1170-0007	첨저옹	1	목곽묘 2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18.5	0.0	0.0	8-7 6-7	Y
2017-1170-0008	철모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40.5	3.7	0.9	9-8 6-8	Y
2017-1170-0009	철모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37.1	3.5	0.7	9-9 6-9	Y
2017-1170-0010	철모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23.8	2.1	0.0	9-10 6-10	Y
2017-1170-0011	유경식 철촉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8.7	1.5	0.15	10-11 7-11	Y
2017-1170-0012	무경식 철촉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9.0	1.8	0.2	10-12 7-12	Y
2017-1170-0013	무경식 철촉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5.5	2.0	0.15	10-13 7-13	Y
2017-1170-0014	무경식 철촉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4.8	1.9	0.2	10-14 7-14	Y
2017-1170-0015	무경식 철촉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3.8	1.8	0.2	10-15 7-15	Y
2017-1170-0016	도자편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5.3	1.3	0.4	10-16 7-16	Y
2017-1170-0017	철착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12.9	2.0	0.0	10-17 7-17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70-0018	철검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14.0	3.6	0.4	10-18 7-18	Y
2017-1170-0019	철부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6.5	3.0	0.0	10-19 7-19	Y
2017-1170-0020	철부	1	목곽묘 2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15.4	5.2	0.0	10-20 7-20	Y
2017-1170-0021	대부직구호	1	목곽묘 3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14.0	10.2	10.5	12-21 8-21	Y
2017-1170-0022	단경호	1	목곽묘 3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3.3/ 잔존 11.3	0.0	0.0	12-22 8-22	Y
2017-1170-0023	단경호	1	목곽묘 4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5.2/ 잔존 19.3	0.0	0.0	14-23 9-23	Y
2017-1170-0024	호	1	목곽묘 4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17.4	0.0	0.0	14-24 9-24	Y
2017-1170-0025	호편	1	목곽묘 5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8.1	0.0	0.0	15-25 11-25	Y
2017-1170-0026	철검	1	목곽묘 5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34.4	2.0	0.5	16-26 11-26	Y
2017-1170-0027	철모	1	목곽묘 5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28.1	4.2	0.7	16-27 11-27	Y
2017-1170-0028	철모	1	목곽묘 5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35.4	3.1	0.5	16-28 11-28	Y
2017-1170-0029	도자	1	목곽묘 5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11.7	1.2	0.3	16-29 11-29	Y
2017-1170-0030	철착	1	목곽묘 5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13.5	2.5	0.0	16-30 11-30	Y
2017-1170-0031	철부	1	목곽묘 5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9.9	3.8	0.0	16-31 11-31	Y
2017-1170-0032	불명철기편	1	목곽묘 6호	금속류	원삼국시대	잔존 3.8	잔존 1.2	0.0	17-32 12-32	Y
2017-1170-0033	대부호	1	목곽묘 7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11.3	0.0	복원 10.3	18-33 12-33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70-0034	대부호	1	목곽묘 9호	토도류	원삼국시대	잔존 3.9	0.0	12.1	20-34 13-34	Y
2017-1170-0035	양이부호	1	옹관묘 1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15.0/ 잔존 60.3	0.0	0.0	22-35 14-35	Y
2017-1170-0036	양이부침저옹	1	옹관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93.3~ 94.2	복원 43.2	0.0	24-36 15-36	Y
2017-1170-0037	연질호편	1	옹관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23.1	0.0	0.0	24-37 15-37	Y
2017-1170-0038	유개고배	2	석곽묘 1호	토도류	삼국시대	9.1/ 15.1	15.2/ 13.0	0.0/ 10.9	26-38 17-38	Y
2017-1170-0039	개	1	석곽묘 1호	토도류	삼국시대	5.1	11.2	0.0	26-39 17-39	Y
2017-1170-0040	대부장경호	1	석곽묘 1호	토도류	삼국시대	25.1	15.4	12.5	26-40 17-40	Y
2017-1170-0041	대부호	1	석곽묘 1호	토도류	삼국시대	22.5~ 23.0	0.0	13.4	26-41 17-41	Y
2017-1170-0042	유경식 철촉	1	석곽묘 1호	금속류	삼국시대	잔존 9.8	1.0	0.2	26-42 17-42	Y
2017-1170-0043	유개고배	2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6.3/ 8.8	13.4/ 8.6	0.0/ 7.8	29-43 20-43	Y
2017-1170-0044	유개고배	2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5.6/ 8.6~ 9.1	11.5/ 9.4	0.0/ 7.4	29-44 20-44	Y
2017-1170-0045	개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5.2	10.7	0.0	29-45 20-45	Y
2017-1170-0046	개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4.9	11.5	0.0	29-46 20-46	Y
2017-1170-0047	개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5.5	10.9	0.0	29-47 20-47	Y
2017-1170-0048	개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5.2	10.3	0.0	29-48 20-48	Y
2017-1170-0049	개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4.8	0.0	0.0	29-49 20-49	Y
2017-1170-0050	개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6.5	11.8~ 13.0	0.0	29-50 20-50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70-0051	개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4.3	0.0	0.0	29-51 20-51	Y
2017-1170-0052	고배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8.7	복원 11.1	7.1	29-52 20-52	Y
2017-1170-0053	고배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9.1	11.1	7.8	29-53 20-53	Y
2017-1170-0054	고배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8.8	복원 9.0	8.0	29-54 20-54	Y
2017-1170-0055	고배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7.0	0.0	6.5	29-55 20-55	Y
2017-1170-0056	고배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6.6	9.3	0.0	29-56 20-56	Y
2017-1170-0057	고배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5.5	0.0	0.0	29-57 20-57	Y
2017-1170-0058	고배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4.7	9.8	6.3	29-58 20-58	Y
2017-1170-0059	장경호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22.4	복원 12.3	0.0	30-59 21-59	Y
2017-1170-0060	장경호 구연부편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9.1	복원 18.0	0.0	30-60 21-60	Y
2017-1170-0061	단경호	1	석곽묘 2호	토도류	삼국시대	26.0	복원 18.4	0.0	30-61 21-61	Y
2017-1170-0062	도자	1	석곽묘 2호	금속류	삼국시대	잔존 7.7	1.3	0.3	30-62 21-62	Y
2017-1170-0063	철촉	1	석곽묘 2호	금속류	삼국시대	잔존 7.3	1.1	0.2	30-63 21-63	Y
2017-1170-0064	철촉	1	석곽묘 2호	금속류	삼국시대	5.3	1.0	0.15	30-64 21-64	Y
2017-1170-0065	철촉	1	석곽묘 2호	금속류	삼국시대	잔존 4.3	1.0	0.0	30-65 21-65	Y
2017-1170-0066	개	1	석곽묘 3호	토도류	삼국시대	5.6	12.1	0.0	31-66 23-66	Y
2017-1170-0067	개	1	석곽묘 3호	토도류	삼국시대	4.4	10.0	0.0	31-67 23-67	Y
2017-1170-0068	고배	1	석곽묘 3호	토도류	삼국시대	9.9	11.5	8.9	31-68 23-68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70-0069	고배	1	석곽묘 3호	토도류	삼국시대	9.0	10.4	8.0	31-69 23-69	Y
2017-1170-0070	단경호	1	석곽묘 3호	토도류	삼국시대	11.9	9.1	6.0	31-70 23-70	Y
2017-1170-0071	대부장경호	1	석곽묘 3호	토도류	삼국시대	18.7	10.0	8.7	31-71 23-71	Y
2017-1170-0072	유개고배	2	석곽묘 4호	토도류	삼국시대	5.5/ 복원 9.9	12.2/ 10.7	0.0/ 7.9	34-72 25-72	Y
2017-1170-0073	유개고배	2	석곽묘 4호	토도류	삼국시대	5.3/ 9.7	11.0~ 12.6/10.1	0.0/ 8.0	34-73 25-73	Y
2017-1170-0074	유개고배	2	석곽묘 4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3.8/ 복원 10.2	0.0/ 11.6	0.0/ 7.9	34-74 25-74	Y
2017-1170-0075	개	1	석곽묘 4호	토도류	삼국시대	5.3	복원 12.5	0.0	34-75 25-75	Y
2017-1170-0076	고배	1	석곽묘 4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9.8	0.0	7.6	34-76 25-76	Y
2017-1170-0077	대부완	1	석곽묘 4호	토도류	삼국시대	8.6	9.9	5.7	34-77 25-77	Y
2017-1170-0078	대부장경호	1	석곽묘 4호	토도류	삼국시대	24.6~ 25.2	복원 13.2	12.0	34-78 25-78	Y
2017-1170-0079	대부장경호	1	석곽묘 4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15.3	0.0	0.0	34-79 25-79	Y
2017-1170-0080	단경호	1	석곽묘 4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4.4/ 잔존 22.6	0.0	0.0	35-80 26-80	Y
2017-1170-0081	호	1	석곽묘 4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21.6	0.0	0.0	35-81 26-81	Y
2017-1170-0082	줄형 철기	1	석곽묘 4호	금속류	삼국시대	잔존 11.3	1.2	0.3	36-82 26-82	Y
2017-1170-0083	집게	1	석곽묘 4호	금속류	삼국시대	22.9	0.0	0.7~0.8	36-83 26-83	Y
2017-1170-0084	망치	1	석곽묘 4호	금속류	삼국시대	7.9	1.7	1.8	36-84 27-84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70-0085	망치	1	석곽묘 4호	금속류	삼국시대	9.3	2.7	3.0	36-85 27-85	Y
2017-1170-0086	모루	1	석곽묘 4호	금속류	삼국시대	9.2	3.1~3.9	0.0	36-86 27-86	Y
2017-1170-0087	부리형 모루	1	석곽묘 4호	금속류	삼국시대	10.9	0.6~2.2	0.0	36-87 27-87	Y
2017-1170-0088	유개고배	2	석곽묘 5호	토도류	삼국시대	5.0/ 5.1	11.7/ 10.3	0.0/ 5.3	37-88 28-88	Y
2017-1170-0089	유개고배	2	석곽묘 5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2.3/ 5.5	복원 11.7/ 10.4	0.0/ 5.4	37-89 28-89	Y
2017-1170-0090	대부호	1	석곽묘 5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7.2	0.0	8.5	37-90 28-90	Y
2017-1170-0091	대각	1	석곽묘 5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3.2	0.0	9.9	37-91 28-91	Y
2017-1170-0092	철촉	1	석곽묘 5호	금속류	삼국시대	잔존 7.8	1.2	0.1	37-92 28-92	Y
2017-1170-0093	철촉	1	석곽묘 5호	금속류	삼국시대	잔존 6.1	1.35	0.15	37-93 28-93	Y
2017-1170-0094	유개고배	2	석곽묘 6호	토도류	삼국시대	6.4/ 9.8	11.8/ 9.5	0.0/ 6.8	39-94 30-94	Y
2017-1170-0095	유개고배	2	석곽묘 6호	토도류	삼국시대	6.2/ 9.3	11.5/ 10.6	0.0/ 7.5	39-95 30-95	Y
2017-1170-0096	유개고배	2	석곽묘 6호	토도류	삼국시대	5.6/ 8.9	11.1/ 10.4	0.0/ 7.4	39-96 30-96	Y
2017-1170-0097	유개고배	2	석곽묘 6호	토도류	삼국시대	5.9/ 잔존 2.7	11.6/ 0.0	0.0/ 6.5	39-97 30-97	Y
2017-1170-0098	대부장경호	1	석곽묘 6호	토도류	삼국시대	24.9	복원 13.2	11.7	39-98 30-98	Y
2017-1170-0099	방추차	1	석곽묘 6호	토도류	삼국시대	4.1	0.0	2.3	39-99 30-99	Y
2017-1170-0100	이식	1	석곽묘 6호	금속류	삼국시대	1.8×1.9	0.0	0.25	39-100 30-100	Y
2017-1170-0101	대각	1	석곽묘 7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6.7	0.0	복원 9.9	42-101 32-101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70-0102	대각	1	석곽묘 7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3.9	0.0	7.3	42-102 32-102	Y
2017-1170-0103	대각	1	석곽묘 7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3.6	0.0	복원 9.8	42-103 32-103	Y
2017-1170-0104	직구호	1	석곽묘 7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10.2	복원 13.5	0.0	42-104 32-104	Y
2017-1170-0105	호 동체부편	1	석곽묘 7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13.1	0.0	0.0	42-105 32-105	Y
2017-1170-0106	어망추	1	석곽묘 7호	토도류	삼국시대	2.8	0.0	0.0	42-106 32-106	Y
2017-1170-0107	유개고배	2	석곽묘 9호	토도류	삼국시대	5.9/ 11.1~ 11.6	12.7/ 복원 11.2	0.0/8.1	45-107 34-107	Y
2017-1170-0108	유개고배	2	석곽묘 9호	토도류	삼국시대	3.8/ 잔존 8.3	12.5/ 복원 11.5	0.0/0.0	45-108 34-108	Y
2017-1170-0109	개	1	석곽묘 9호	토도류	삼국시대	5.7	복원 13.1	0.0	45-109 34-109	Y
2017-1170-0110	개	1	석곽묘 9호	토도류	삼국시대	6.1	복원 12.7	0.0	45-110 34-110	Y
2017-1170-0111	고배	1	석곽묘 9호	토도류	삼국시대	9.9	복원 9.4	복원 7.6	45-111 34-111	Y
2017-1170-0112	대각	1	석곽묘 9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7.1	0.0	8.3	45-112 34-112	Y
2017-1170-0113	대부완	1	석곽묘 9호	토도류	삼국시대	7.1~8.3	10.4	6.0	45-113 34-113	Y
2017-1170-0114	대부장경호	1	석곽묘 9호	토도류	삼국시대	24.6~ 25.2	복원 13.2	12.0	45-114 34-114	Y
2017-1170-0115	호	1	석곽묘 9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13.0	0.0	8.7	45-115 34-115	Y
2017-1170-0116	고배	1	석곽묘 10호	토도류	삼국시대	11.3	12.9	복원 9.4	47-116 36-116	Y
2017-1170-0117	고배	1	석곽묘 10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8.4	0.0	0.0	47-117 36-117	Y
2017-1170-0118	고배	1	석곽묘 10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6.8	0.0	8.8	47-118 36-118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70-0119	유개고배	2	석곽묘 10호	토도류	삼국시대	7.0/ 11.3	복원 15.3/ 복원 13.6	0.0/8.8	47-119 37-119	Y
2017-1170-0120	대부완	1	석곽묘 10호	토도류	삼국시대	7.3~8.2	8.9	5.9	47-120 37-120	Y
2017-1170-0121	대부완	1	석곽묘 10호	토도류	삼국시대	7.3	8.8	5.7	47-121 37-121	Y
2017-1170-0122	유개대부완	2	석곽묘 10호	토도류	삼국시대	5.5/ 5.7	8.8/ 10.2	0.0/ 5.1	47-122 37-122	Y
2017-1170-0123	방추차	1	석곽묘 10호	토도류	삼국시대	4.5	0.0	2.7	47-123 37-123	Y
2017-1170-0124	도자편	1	석곽묘 10호	금속류	삼국시대	잔존 5.2	1.1	0.3	47-124 37-124	Y
2017-1170-0125	개	1	석곽묘 11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4.6	0.0	0.0	48-125 37-125	Y
2017-1170-0126	유개고배	2	석곽묘 12호	토도류	삼국시대	6.1/ 11.1	13.3/ 복원 10.7	0.0/ 8.3	51-126 40-126	Y
2017-1170-0127	유개고배	2	석곽묘 12호	토도류	삼국시대	4.8/ 9.4	복원 10.7/ 9.8	0.0/ 6.5~7.5	51-127 40-127	Y
2017-1170-0128	유개고배	2	석곽묘 12호	토도류	삼국시대	5.1/ 8.3	9.6/ 9.2	0.0/ 6.5	51-128 40-128	Y
2017-1170-0129	유개고배	2	석곽묘 12호	토도류	삼국시대	5.4/ 11.8~ 12.2	10.0/ 10.0	0.0/ 8.1	51-129 40-129	Y
2017-1170-0130	대부장경호	1	석곽묘 12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19.1	12.2	0.0	51-130 40-130	Y
2017-1170-0131	대각	1	석곽묘 12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4.9	0.0	13.9	51-131 40-131	Y
2017-1170-0132	도자	1	석곽묘 12호	금속류	삼국시대	잔존 9.6	1.4	0.2	51-132 40-132	Y
2017-1170-0133	철검	1	석곽묘 12호	금속류	삼국시대	잔존 17.6	2.3/1.6	0.2	51-133 40-133	Y
2017-1170-0134	유개고배	2	석곽묘 13호	토도류	삼국시대	4.7/ 8.9	10.9/ 8.8	0.0/ 6.2	52-134 43-134	Y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170-0135	유개고배	2	석곽묘 13호	토도류	삼국시대	4.6/ 8.2	10.5/ 8.9	0.0/ 6.4	52-135 43-135	Y
2017-1170-0136	유개고배	2	석곽묘 13호	토도류	삼국시대	5.0/ 8.9	10.3/ 9.1	0.0/ 6.5	52-136 43-136	Y
2017-1170-0137	유개고배	2	석곽묘 13호	토도류	삼국시대	4.8/ 8.1	10.3/ 9.4	0.0/ 6.5	53-137 43-137	Y
2017-1170-0138	대부완	1	석곽묘 13호	토도류	삼국시대	7.3	8.8	5.7	53-138 43-138	Y
2017-1170-0139	단경호	1	석곽묘 13호	토도류	삼국시대	26.4	19.0	12.1	53-139 43-139	Y
2017-1170-0140	단경호	1	석곽묘 13호	토도류	삼국시대	22.8	16.4	0.0	53-140 43-140	Y
2017-1170-0141	대부호	1	석곽묘 13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10.9	0.0	13.7	53-141 43-141	Y
2017-1170-0142	이식	2	석곽묘 13호	금속류	삼국시대	2.3×1.9 / 2.3×2.0	0.0	0.4/0.4	53-142 43-142	Y
2017-1170-0143	대각	1	석곽묘 14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4.5	0.0	5.7	54-143 44-143	Y
2017-1170-0144	대각	1	석곽묘 14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3.6	0.0	복원 8.9	54-144 44-144	Y
2017-1170-0145	대부장경호	1	석곽묘 14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16.6	0.0	10.7	54-145 44-145	Y
2017-1170-0146	방추차	1	석곽묘 14호	토도류	삼국시대	4.5	0.0	2.6	54-146 44-146	Y
2017-1170-0147	도자	1	석곽묘 14호	금속류	삼국시대	10.0	1.1	0.2	54-147 44-147	Y
2017-1170-0148	호편	1	구상유구 2호	토도류	삼국시대	잔존 8.1	복원 12.1	0.0	56-148 46-148	Y

掘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한국문화재단			
	住所	(06153)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2-2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執筆・編輯者	박종섭, 노재민, 박무식, 하혜진, 신동민, 문준호, 강성귀				
調査 緣由	농·어업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조사				
發掘調査者	박종섭, 박무식, 하혜진, 신동민, 문준호				
遺蹟調査地番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초곡리 1002번지				
調査面積	시굴 : 1,222㎡, 발굴 : 710㎡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목곽묘	원삼국시대	10	대부호, 철모, 철촉 등		
옹관묘	삼국시대	2	양이부호, 양이부침저용 등		
석곽묘		14	유개고배, 대부장경호, 이식 등		
구상유구		2	대부호, 철모, 철촉 등		
수혈유구	시대미상	1	호편		

158. 상주 무양동 202-1번지 유적

다온문화재연구원

일러두기

1. 도면과 사진의 유구방향은 자북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유구도면의 축소비율은 1/30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외의 경우에는 별도로 축척을 표시하였다.
3. 유구의 단면도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고도를 나타낸다.
4. 유구의 길이와 너비는 단면선을 기준으로 측정하였으며, 결실된 경우와 깊이는 최대치를 측정하였다.
5. 유구의 토층과 유물의 색조는 “일본 농림수산성농림수산물기술회의사무국 감수·재단법인 일본색채연구소 색표감수, 『新版 標準土色帖』(2018년)”을 참고하였다.
6. 유물의 축소비율은 토도류 1/3, 기와류 1/4을 기준으로 하였다.
7. 토도류의 기고는 중심축을, 구경과 저경은 최대치를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片은 잔존상태의 최대치를 계측하였다.
8. 기와류의 길이와 너비는 최대치를 계측하였으며, 두께는 단면선을 기준으로 계측하였다.
9. 기와류는 문양에 상관없이 사용방향에 맞게 도면을 제도하고 배치하였다. 등면과 배면의 문양은 탁본으로 처리하였다.
10. 유물의 일련번호는 유구도면의 출토위치 번호와 유물도면 및 유물사진 번호와 일치하며, 국가귀속문화재 유물번호와 동일하다.
11. TM좌표는 2010년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지정 동부원점(GRS80)을 사용하였다. 표기한 X, Y, Z의 순서는 토목에서 사용하는 방행으로 X는 북쪽 방향, Y는 동쪽 방향으로 일반적인 방향과는 다르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목 차

I. 조사개요	158-7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58-9
III. 조사내용	158-21
1) 수혈유구.....	158-23
(1) 수혈유구 1호	158-23
(2) 수혈유구 2호	158-26
(3) 수혈유구 3호	158-30
(4) 수혈유구 4호	158-30
(5) 수혈유구 5호	158-33
(6) 수혈유구 6호	158-34
(7) 수혈유구 7호	158-34
(8) 수혈유구 8호	158-41
IV. 조사성과	158-42

도면 목록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158-12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1918년)	158-13
도면 3. 여지도(상주목, 1736~1767년 사이 제작 추정)에서의 유적 위치	158-14
도면 4. 조사대상지 지형도(S=1:5,000)	158-15
도면 5. 조사대상지 지적도(S=1:1,000)	158-16
도면 6. 유구배치도(S=1:200)	158-22
도면 7. 수혈유구 1호(S=1:30)	158-24
도면 8.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1~3)	158-25
도면 9. 수혈유구 2호(S=1:30)	158-27
도면 10.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4, 6 · 7)	158-28
도면 11.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5)	158-29
도면 12. 수혈유구 3호(S=1:30)	158-31
도면 13. 수혈유구 4호(S=1:30) 및 출토유물(8 · 9)	158-32
도면 14. 수혈유구 5호(S=1:30)	158-33
도면 15. 수혈유구 6호(S=1:30)	158-34
도면 16. 수혈유구 7호(S=1:30)	158-34
도면 17.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0 · 11)	158-36
도면 18.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2 · 13)	158-37
도면 19.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4 · 15)	158-39
도면 20.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6)	158-40
도면 21. 수혈유구 8호(S=1:30)	158-41

도 판 목 차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전, ②조사후)	158-45
도판 2. 조사대상지 전경(조사후)	158-46
도판 3.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⑤노지 조사중 세부, ⑥주혈4 조사전, ⑦주혈4 토층)	158-47
도판 4. 수혈유구 1호(①~③유물출토상태, ④주혈4 조사후, ⑤주혈1·2 조사후, ⑥조사후)	158-48
도판 5.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1~3)	158-49
도판 6.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1, ③~⑤토층, ⑥노지 조사중, ⑦노지 토층)	158-50
도판 7. 수혈유구 2호(①조사중2, ②~⑤유물출토상태, ⑥조사후)	158-51
도판 8.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4~7)	158-52
도판 9. 수혈유구 3호(①조사전, ②동서토층, ③④남북토층, ⑤조사중, ⑥조사후)	158-53
도판 10.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토층 및 조사중, ③조사후, ④⑤유물출토상태) 및 출토 유물(8·9)	158-54
도판 11. 수혈유구 5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④동서토층, ⑤⑥남북토층, ⑦세부, ⑧조사후)	158-55
도판 12. 수혈유구 6호(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후), 수혈유구 7호(⑤조사전, ⑥토층, ⑦조사중-유물출토상태, ⑧조사후)	158-56
도판 13.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0~12, 14)	158-57
도판 14.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3, 15·16)	158-58
도판 15. 수혈유구 8호(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후)	158-59

I. 조사개요

조사대상지는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202-1번지에 위치하며, 사업시행자인 최한영씨가 계획 중인 근린생활시설 신축예정부지(대지면적 : 496㎡, 건축연면적 : 249.2㎡)이다. 자세한 조사 경위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자는 건물신축공사에 앞서 상주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고, 상주시는 건축 허가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신청지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하므로 발굴(표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통보하였다[상주시 문화융성과-11417(2017.8.10.)].

발굴(표본)조사는 2017년 08월 23일부터 09월 06일까지 (재)금오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수혈유구와 주혈 등의 유구가 확인되어 사업 시행에 앞서 발굴(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¹⁾. 이러한 결과를 보고받은 상주시 문화융성과는 사업 시행 전 발굴(표본)조사 전체 면적인 496㎡에 대하여 발굴(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통보하였다[상주시 문화융성과-14399(2017.10.13.)].

이후 사업시행자는 본 조사가 국비지원 발굴조사 대상에 해당됨을 상주시를 통하여 확인하고, 한국문화재단에 국비지원 발굴조사를 신청하였다. 이에 한국문화재단은 본 연구원으로 발굴(정밀발굴)조사를 의뢰하여 이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조사 의뢰를 받은 본 연구원은 조사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였으며, 2017년 11월 17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제2017-1495호)를 받았다.

발굴(정밀발굴)조사는 2017년 11월 20일에 착수하였다. 조사결과, 수혈 8기가 확인되었으며, 유물로 자기편과 와편이 출토되었다.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2017년 12월 12일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회의 결과, “본 유적은 인근에서 조사된 유적과 동시기의 동일 유적으로 판단되며, 철저한 기록 보존 후 적절한 행정절차를 거쳐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²⁾. 이후 유적 내에서 확인된 유구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완료하고, 유적의 주변 정리를 한 후 2017년 12월 15일(현장조사일수 15일) 현장조사를 완료하였다.

발굴(정밀발굴)조사 당시 조사단 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 사 단 장 : 정 상 수(다운문화재연구원 원장)
 책임조사원 : 김 지 훈(다운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실장)
 조 사 원 : 강 재 현(다운문화재연구원 과장)
 준 조 사 원 : 김 주 영(다운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이 은 진(다운문화재연구원 연구원)

*()는 조사당시 직명임.

1) 금오문화재연구원, 2017, 「상주시 무양동 202-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약보고서」.

2) 학술자문위원 : 전옥연(상주박물관장), 김광명(대경문화재연구원 원장).

발굴조사 후 보고서 발간작업은 현장조사를 담당하였던 상기 조사원들이 주도적으로 진행하였고, 각 부문별 분담 업무에 대한 참여자는 다음과 같다.

총 괄 : 김 지 훈

연 구 기 획 : 강 재 현

유물정리 및 복원 : 강 재 현 · 김 주 영

유물실측 및 탁본 : 장 효 성

유구 및 유물 제도 : 김 주 영(유구) · 장 효 성(유물)

유 물 사 진 촬 영 : 김 주 영

도면 및 도판편집 : 장 효 성

본 문 작 성 : I. 조사개요 - 강 재 현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 김 주 영

 III. 조사내용 - 김 주 영(유구) · 장 효 성(유물)

 IV. 조사성과 - 강 재 현

교 정 : 강 재 현 · 김 주 영

교 열 : 정 상 수 · 김 지 훈

Ⅱ. 유적의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202-1번지이며, 경·위도 상으로는 동경 128° 09'25, 북위 36°25'22에 위치한다. 조사대상지는 상주시청에서 후천교 사거리 방향으로 상산로를 따라 1.34km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여 동수4길을 따라 162m 정도 이동하면 진행방향의 좌측에 접한 나대지였다. 조사대상지는 발굴(정밀발굴)조사 전 표본조사를 시행한 후 트렌치를 복토하여 공지로 남아 있었으며, 북쪽은 도로, 동쪽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남쪽은 주택 담장, 서쪽은 밭으로 이용되는 경작지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자연·지리적 환경을 살펴보면³⁾,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상주시는 경상북도의 서북부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예천군과 의성군, 서쪽은 충청북도 괴산군·보은군·옥천군, 남쪽은 구미시와 김천시, 북쪽은 문경시와 각기 경계를 이루고 있다. 상주의 지형은 동쪽에 남류하는 낙동강 상류를 따라 분지와 저지가 발달하였고, 서쪽은 백두대간을 끼고 있어 서고동저의 지세를 이룬다. 산세를 보면, 동쪽은 북쪽에서 남쪽으로는 흐르는 낙동강을 따라 마니산(해발 385.9m)·병풍산(해발 365.6m)·갑장산(해발 805.7m)·수선산(해발 683.6m)·삼봉산(해발 447.6m) 등이 솟아 있다. 서쪽은 속리산(해발 1,058m)·봉황산(해발 740.8m)·팔음산(해발 762.3m) 등이 산맥을 이루며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다. 남쪽은 백화산(해발 933m)·도장산(827.9m)·국수봉(해발 793m)·지장산(해발 772m) 등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져 있다. 동쪽은 낙동강 건너 예천군·의성군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건지봉(해발 421m)·삼봉산(해발 478m)·복우산(해발 509m)이 솟아 있다. 이처럼 사방이 산들로 둘러쳐진 가운데 산세는 비교적 서쪽이 높고 동쪽으로 가면서 차츰 낮아져 경북선 철도와 국도 3호선이 지나는 시가지 주변은 분지상의 평야를 이루고 있다.

수계는 시의 동부 지역은 낙동강 수계에 해당하지만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은 다른 강에 해당한다. 즉, 서북부 수계는 남한강, 서남부 수계는 금강이다. 청화산 늪재에서 시작하여 충북 괴산군으로 북류하는 화양천은 남한강의 지류에 해당하며, 봉황산에서 내려와 백화산 아래를 지나 충북 영동군 황간면으로 흐르는 석천은 금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이다. 이들 지류를 제외한 이안천, 병성천, 영강 등 동부 수계는 모두 낙동강에 해당한다. 이안천은 화북면 동관리 형제봉과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함창분지 남동쪽에서 영강과 합수하여 동쪽으로 흐르다 낙동강에 합류하고, 병성천은 공성면 영도리 국수봉에서 발원하여 청리면을 지나 화개동에서 북천과 합수하여 북동쪽으로 흐르다 동천과 다시 합수하여 동쪽으로 흘러 도남동에서 낙동강과 합류한다.

상주의 지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육괴 가운데 하나인 소백산지괴로 캄브리아기 이전에 형성되었다. 구성암은 화강편마암과 변성퇴적암이 주체를 이루고 있으나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조산운

3) 자연·지리적 환경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1.
 ②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6, 『尙州 屏風山城』.
 ③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尙州 伏龍洞 10-4番地遺蹟 I』.

동 때 이를 관입한 화강암이 이들 변성암 중에 분포하고 있다. 대체로 동부 일대에는 화강암질 편마암이 넓게 분포해 있고, 서부는 편마암류가 중생대 퇴적암층에 의해 덮여 있으며, 북부는 불국사기의 알칼리 화강암과 석영반암에 의하여 관입되었다.

상주의 기후는 남부지방에 위치하여 온난하지만 낙동분지에 속하므로 한서의 차가 심한 내륙성기후를 나타낸다. 연평균 기온은 12.8℃, 최한월 1월과 최난월 8월의 평균기온이 -10℃, 25.2~27℃ 정도이며, 대체적으로 기온 분포는 서북부 산간 지방이 낮고 남동부로 갈수록 상주 분지 저지대에서 높아져 기온 분포의 동서성이 인정된다. 연간 강우량은 1,050mm 내외로 낙동강 유역 대부분의 내륙지방이 1,000mm 정도에 비하면 다소 많은 편이다. 일조시간은 최근 10년간 맑은 날이 연평균 156일에 달하고 있으며 넓은 평야와 적절한 강우량, 여름철 높은 기온, 많은 일조량 등 농작물 재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무양동은 상주시 중심부에서 북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북쪽에 북천, 서쪽에 개운천이 흐르며 이들 하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 상에 위치한다. 그리고 국도 3호선이 남북으로 중앙을 관통하여 예부터 조령을 넘는 길목으로 상주를 사통팔달(四通八達) 지역이라 하게 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동쪽은 계림동과 동문동, 서쪽은 남원동과 외서면, 남쪽은 남원동 그리고 북쪽은 외서천을 경계로 외서면과 사별면에 인접되어 있다.

역사적 환경을 살펴보면⁴⁾, 상주지역에서의 인간 활동은 낙동면 신상리와 청리유적을 통해 구석기시대 이래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신석기시대 유적이나 유물은 확인된 바 없으나 청동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다. 특히 청동기문화가 발달하면서 소국단계로 들어서 사벌국(沙伐國)이 성립하였다. 사벌국은 249년(沾解尼師今 1) 신라에 편입되어 사벌주(沙伐州)라 불렸다. 525년(法興王 12) 이 지역에 상주(上州)가 설치되고 군주(軍主)가 파견되었는데, 당시 사벌주가 설치된 상주는 조령을 넘어 충주로 통하는 코스와 화령을 넘어 보은, 청주로 통하는 코스가 교차하는 요충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제도 개편은 신라가 고구려 장수왕에게 빼앗긴 서북방일대의 회복과 대백제 견제의 의미가 포함된 북진정책의 강한 의사표시를 나타낸 것이다. 557년(眞興王 18) 상주의 주치(州治)가 감문주(甘文州)로 옮겨진 뒤 상락군(上洛郡)이 되었다. 군사적 성격의 주치가 감문주로 옮겨진 것은 대가야 정복을 위한 조치로서 사벌주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한 신라군의 진공로는 상주의 금돌성(今突城)이 그 전위기지(前衛基地)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주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 687년(神文王 7) 9주제도가 시행되면서 다시 주치가 되어 사벌주가 되었다. 757년(景德王 16) 사벌주를 상주(尙州)로 개명하였으나 주의 영역범위 및 주치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776년(惠恭王 12) 상주가 사벌주로 지명의 복고가 이루어졌다. 신라 말 아자개(阿慈介)가 ‘以農自活’하여 사벌성(沙伐城)에 웅거하여 자칭 장군이라 하였는데, 아자개는 견훤(甄萱)의 부(父)로 알려져 있다. 889년(眞聖女王 3) 왕이 전국에 공부(貢賦)를 독촉하는 사신을 보냈으며, 이로 인해 도처에서 도적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때 원종(元宗)·애노(哀奴) 등은 사벌주에 근거하여 농민반란을 일

4) 尙州市·尙州産業大學校附設 尙州文化研究所, 1996, 『古代沙伐國 關聯文化遺蹟 地表調查報告書』, pp.36~57.

으켰다. 이처럼 상주지역에는 아자개와 원종·애노의 세력이 있었으며, 신라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후삼국시대 아자개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상주는 918년(太祖 1) 고려에 항복하였다. 940년(太祖 23) 사벌주에서 상주로 개칭되었으며, 이어 안동도독부(安東都督府)로 고쳐졌다. 그 뒤 983년(成宗 2) 전국에 12목을 설치할 때 상주목(尙州牧)이 되었다. 1012년(顯宗 3)에는 안동대도호부(安東大都護府)로, 1018년에는 다시 상주목이 되었다. 그런 다음 계수관(界首官)으로서 7군 17현이 소속되었다. 함창지역은 고령군(古寧郡)이 되었다가 964년(光宗 15) 함령군(咸寧郡)으로 고쳐졌다. 그 뒤 1018년(顯宗 9) 함창군(咸昌郡)으로 바뀐 뒤 1172년(明宗 2) 감무(監務)가 파견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와 8도체제가 확립되면서 1408년(太宗 8) 상주에 경상도감영을 두어 경상도감사가 상주목사를 겸하였다. 1457년(世祖 3) 진(鎭)이 설치되어 군사적 요지가 되었으며, 함창에는 1413년(太宗 13) 현감이 파견되었다. 조선시대의 상주는 화령현·중모현·산양현·단밀현 등을 속읍으로 거느린, 道 이름에 그 이름이 차용될 정도로 큰 영남의 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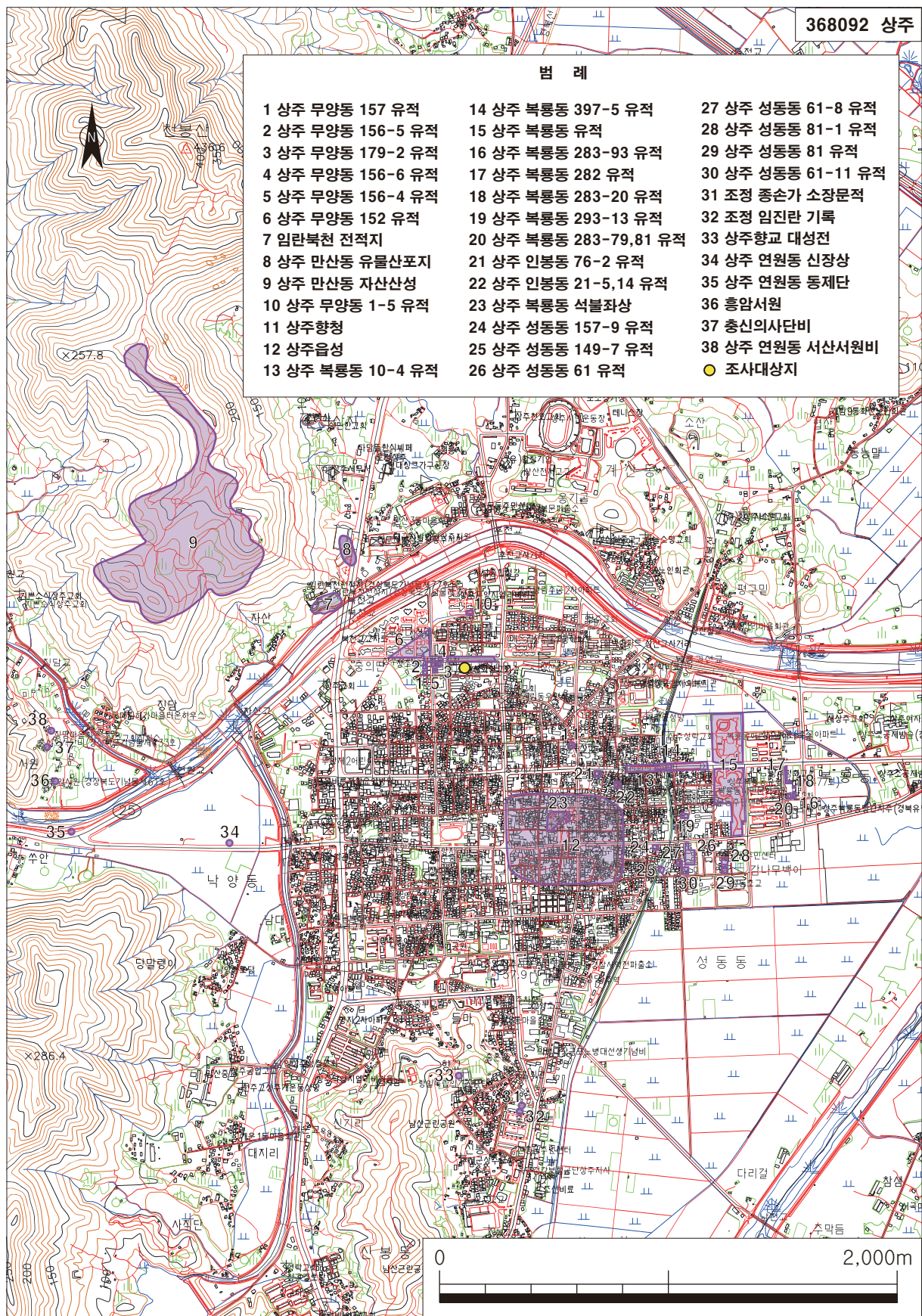
1895년 지방제도 개편 시에 상주목은 상주군으로, 함창현은 함창군으로 개칭되어 안동부에 소속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상주군과 함창군이 통합되어, 18개 면을 관할하는 상주군이 되었다. 그 뒤 1931년 상주면이 읍으로 승격되었다. 1980년 함창면이 읍으로 승격되었고, 1986년 상주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시·군이 분리되었다. 1989년에는 화북면 남부출장소가 화남면으로 승격했으며, 1995년 도농통합에 따라 상주시와 상주군이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사대상지기 위치한 무양동은 조선 후기 상주군 내서면에 속한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무동(武洞), 봉양리(鳳陽里), 토성리(土城里) 등을 통합하여 무양리가 되어 상주면에 편입되었다. 1988년 5월 동(洞)을 리(里)로 개칭할 때 상주시 무양리가 되었다가 1995년 1월 상주군과 상주시가 통합되어 상주시가 됨에 따라 상주시 무양동이 되었다. 무양동은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북문동(北門洞) 관할하에 있다. 무양이란 지명은 무동과 봉양리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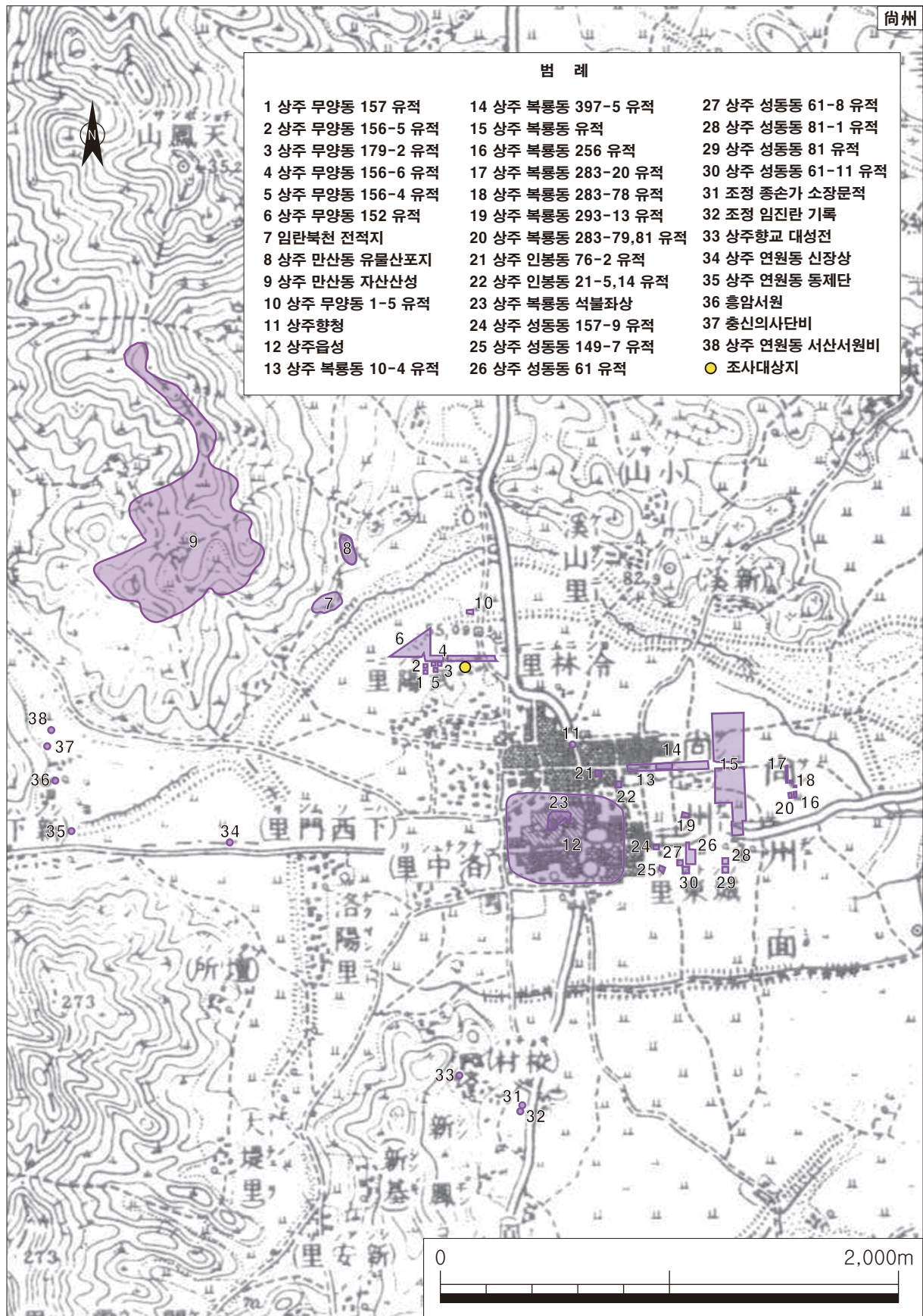
고고학적 환경을 살펴보면, 상주지역은 경북 서북부의 낙동강 상류에 위치하며, 낙동강에 합류하는 많은 지류 주변에 넓은 평야와 얇은 구릉지대가 있어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지리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갖춘 상주에는 많은 유적들이 산재해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굴 조사된 구석기유적인 신상리 유적을 통해 상주지역에 이미 구석기시대부터 인간의 활동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⁵⁾. 현재까지 신석기시대 유적이거나 유물은 확인된 바 없으나 지석묘와 입석, 무문토기로 대변되는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인 지석묘는 상주시 부원동, 중덕동, 헌신동 등 약 10여개소 이상의 유적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입석은 상주시 부원동, 중덕동, 헌신동 등에 다수 분포하는데 지석묘군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상주시 남적동, 낙동면 구잠리, 사벌면 금흔리 등지는 무문토기와 석기산포지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상주지역에는 삼국시대 대단위 고분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고분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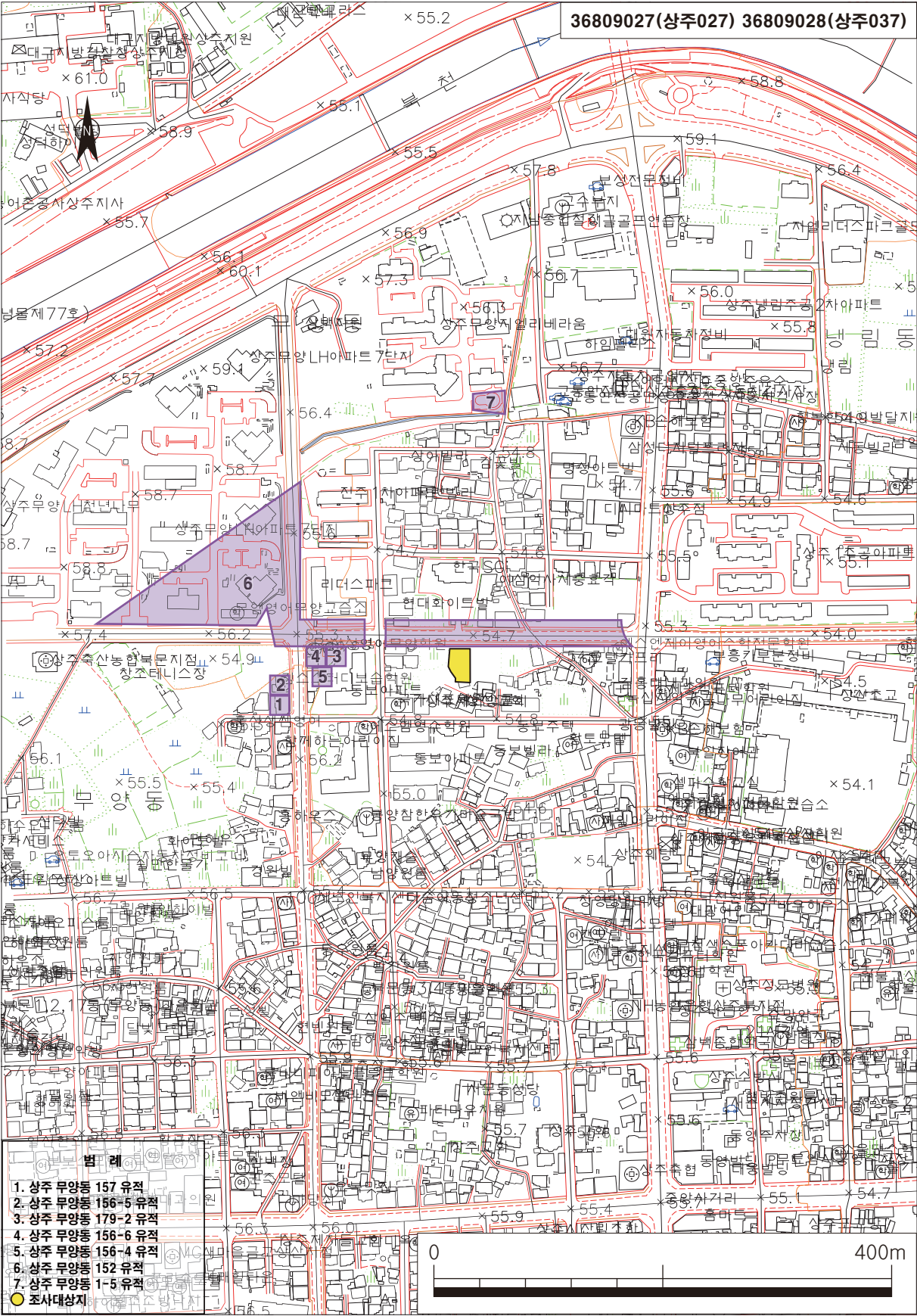
5)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3, 『尙州 新上里 舊石器遺蹟·遺物散布址』,
2005, 『尙州 新上里 舊石器遺蹟』.



도면 1.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1918년)



도면 4. 조사대상지 지형도(S=1:5,000)

이 병성동 고분군⁶⁾으로 상주 관내에서는 제일 큰 규모의 고분군이다. 이밖에 신흥리⁷⁾, 현신동⁸⁾, 성동리⁹⁾ 고분군들이 발굴조사된 바 있다. 고분군은 고산지대를 제외하고 상주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은 함창읍에서 공성면에 이르는 남북으로 형성된 낙동강과 그 지류인 병성천 유역의 평야지대 구릉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상주 시가지 서쪽에 복룡동 당간지주가 있으며, 그 주변에 삼국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생활지·건물지 등이 발굴조사된 복룡동 유적¹⁰⁾이 있는데, 사적 제477호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낙동면 구잠리에서는 7세기대 토기요지가 조사되어 토기생산 체계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제시되었다¹¹⁾. 이와 함께 백화산 일대에는 조선시대 요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중 상주 호음리 골프장 조성부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통해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에 운영된 백자가마터가 확인되었다¹²⁾.

본 조사대상지 주변으로는 북쪽으로 205m 정도 떨어져 조선시대 석축 제방시설이 조사된 상주 무양동 제방유적¹³⁾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대상지 북쪽 경계부에 접한 상주 무양동 152번지 유적¹⁴⁾과 서쪽으로 93m 정도 떨어져 위치한 상주 무양동 179-2번지 유적¹⁵⁾, 그리고 이에 인접한 상주 무양동 156-6번지 유적¹⁶⁾, 상주 무양동 156-4번지 유적¹⁷⁾, 상주 무양동 156-5번지 유적¹⁸⁾, 상주 무양동 157번지 유적¹⁹⁾에서는 건물지, 주거지, 수혈유구, 우물, 구상유구, 주혈 등 고려~조선시대 생활유구 등이 발굴조사된 바 있다.

6)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1, 『여주-구미간 중부내륙고속도로 13공구 구간내 나구역 尙州 屏城洞 古墳群』.

7)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尙州 新興里古墳群』.

8)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3, 『尙州 軒新洞 古墳群』.

9)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9, 『尙州 城洞里古墳群』.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3, 『尙州 城洞里 古墳群Ⅱ』.

10) 상주 복룡동 유적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의 생활유구가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고대 도시로서의 상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당시 서민생활상을 복원,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2007년 5월 31일 사적 제477호로 지정되었다. 최초 지정구역은 상주 복룡동 283-7번지 일원 및 복룡동 230-3번지 일원의 29,932㎡이었으나, 이후 복룡동 256번지 일원의 30,136㎡가 추가로 지정되었다.

(영남문화재연구원, 2008, 『尙州 伏龍洞 256番地遺蹟Ⅰ~Ⅳ』외)

11)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2001, 『尙州 九潛里 토기 가마』.

12) 대경문화재연구원, 2007, 『尙州 好音里 遺蹟』.

13)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尙州 武陽洞 堤防遺蹟』.

14) 대동문화재연구원, 2011, 『尙州 武陽洞 152遺蹟Ⅰ·Ⅱ』.

15) 한국문화재단, 2014, 「상주 무양동 179-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16) 한국문화재단, 2015, 「상주 무양동 156-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17) 한국문화재단, 2015, 「상주 무양동 156-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18) 세종문화재연구원, 2015, 「상주 무양동 156-5번지 근린생활시설부지내 유적 국비지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식 보고서」.

19) 한국문화재단, 2015, 「상주 무양동 15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표 1】 조사대상지 주변유적 분포현황(도면 1 참조)

번호	유적명	이격거리 (m)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	상주 무양동 157 유적	서쪽 160m	고려~조선시대 건물지, 수혈, 우물 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5, 「상주 무양동 15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 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	상주 무양동 156-5 유적	서쪽 160m	조선시대 건물지, 수혈 등	세종문화재연구원, 2014, 「상주 무양동 156-5번지 근린생활시설 부지내 유적 국비지원 문화재 정밀발굴 조사 약식보고서」	
3	상주 무양동 179-2번지 유적	서쪽 120m	조선시대 수혈, 구상유구, 주혈 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상주 무양동 179-2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4	상주 무양동 156-6 유적	서쪽 120m	조선시대 주거지, 수혈, 주혈 등	한국문화재재단, 2015, 「상주 무양동 156-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5	상주 무양동 156-4 유적	서쪽 120m	고려~조선시대 수혈, 우물, 소성유구 등	한국문화재재단, 2015, 「상주 무양동 156-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 사 약보고서」	
6	상주 무양동 152 유적	북서쪽 경계	고려~조선시대 주거지, 건물지, 수혈, 우물, 매납유구 등	대동문화재연구원, 2011, 『상주 무양동 152 유적 I』	
7	임란북천 전적지	북서쪽 610m	조선시대 전적지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기념물 제77호
8	상주 만산동 유물산포지	북서쪽 670m	삼국~조선시대 토기편, 자기편 확인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9	상주 만산동 자산산성	북서쪽 1km	삼국시대 산성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10	상주 무양동 1-5 유적	북쪽 210m	조선시대 석축 제방시설	영남문화재연구원, 2014,「상주시 무양 동 1-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장 내 유 적 문화재 발굴조사 약보고서」	
11	상주향청	남동쪽 620m	조선시대 관아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문화재 자료 제336호
12	상주읍성	남동쪽 820m	시대미상 읍성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13	상주 복룡동 10-4번지 유적	남동쪽 920m	통일신라~조선시대 건물지, 우물, 연못 등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尙州 伏龍洞 10-4番地 遺蹟 I · II』	

번호	유적명	이격거리 (m)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14	상주 복룡동 397-5번지 유적	남동쪽 1.1km	통일신라~조선시대 수혈, 우물 등	영남문화재연구원, 2006, 『상주 복룡동 397-5번지 유적』	
15	상주 복룡동 유적	남동쪽 1.2km	통일신라~조선시대 적심, 수혈, 우물 등	영남문화재연구원, 2009, 『상주 복룡동 230-3번지유적』	사적 제477호
16	상주 복룡동 283-93 유적	남동쪽 1.5km	청동기~조선시대 주거지, 건물지, 우물 등	세종문화재연구원, 2014, 「상주 복룡동 283-93번지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국비지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식보고서」	
17	상주 복룡동 282 유적	남동쪽 1.5km	조선시대 건물지, 수혈, 우물 등	한국문화재연구원, 2015, 「상주 복룡동 282번지 건축물 신축부지 내 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18	상주 복룡동 283-20 유적	남동쪽 1.5km	조선시대 적심, 석렬 등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2, 「상주 복룡동 283-20번지 근생시설 건립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19	상주 복룡동 293-13 유적	남동쪽 1.2km	통일신라시대 적심, 수혈, 구 등	세종문화재연구원, 2014, 「상주 복룡동 293-13번지 단독주택 신축 공사부지내 유적 국비지원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20	상주 복룡동 283-79, 283-81 유적	남동쪽 1.5km	통일신라~조선 적심, 수혈, 구 등	세종문화재연구원, 2014, 「상주 복룡동 283-79, 283-81번지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 부지 내 유적 국비 지원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약보고서」	
21	상주 인봉동 76-2 유적	남동쪽 760m	조선시대 수혈, 우물, 석렬, 집석 유구 등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상주 인봉동 76-2번지 유적』	
22	상주 인봉동 21-5, 21-14 유적	남동쪽 860m	삼국~조선시대 주거지, 건물지, 수혈 등	한국문화재재단, 2015, 「상주 인봉동 21-5·14번지 유적」,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	
23	상주 복룡동 석불좌상	남동쪽 830m	고려시대 불상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보물 제119호
24	상주 성동동 157-9 유적	남동쪽 1.2km	조선시대 집석유구, 주혈 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상주 성동동 157-9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 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25	상주 성동동 149-7 유적	남동쪽 1.3km	조선시대 집석유구, 수혈 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4, 「상주 성동동 149-7번지 농업용 창고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번호	유적명	이격거리 (m)	유적시기 및 성격	참고문헌	비고
26	상주 성동동 61 유적	남동쪽 1.3km	조선시대 석축시설, 우물, 주혈군	세종문화재연구원, 2012, 『상주 성동동 61번지 유적』	
27	상주 성동동 61-8 유적	남동쪽 1.3km	초기철기~통일신라시대 수혈, 주혈	세종문화재연구원, 2012, 『상주 성동동 61-8번지 유적』	
28	상주 성동동 81-1 유적	남동쪽 1.4k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적심, 우물 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상주 성동동 81-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29	상주 성동동 81 유적	남동쪽 1.5k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담장지, 수혈 등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13, 「상주 성동동 81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부지 내 문화유적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30	상주 성동동 61-11 유적	남동쪽 1.3km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수혈, 주혈 등	세종문화재연구원, 2010, 「상주 성동동 61-11번지 공동주택 신축 부지 내 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 보고서」	
31	조정 종손가 소장문적	남동쪽 2km	조선시대 서화·전적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보물 제1004호
32	조정 임진란 기록	남동쪽 2km	조선시대 서화·전적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보물 제1003호
33	상주향교 대성전	남쪽 1.8km	조선시대 향교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유형 문화재 제155호
34	상주 연원동 신장상	남서쪽 1.3km	시대미상 불상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35	상주 연원동 동제단	남서쪽 1.9km	시대미상 당목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36	홍암서원	남서쪽 1.9km	조선시대 서원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기념물 제61호
37	충신의사단비	남서쪽 1.8km	조선시대 비석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기념물 제133호
38	상주 연원동 서산서원비	남서쪽 1.8km	조선시대 비석	상주시·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상주시-』	

Ⅲ. 조사내용

조사대상지는 북천과 병성천, 개운천 사이의 충적대지로 상주 시가지의 북서쪽 끝부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사대상지의 북쪽은 도로, 동쪽은 아파트 모델하우스, 남쪽은 주택 담장, 서쪽은 경작지로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평면형태는 동서에 비해 남북이 긴 장방형에 가깝다. 조사 전 이곳은 밭으로 이용되었으나 발굴(표본)조사 이후 복토되고 나서는 공지로 남아 있는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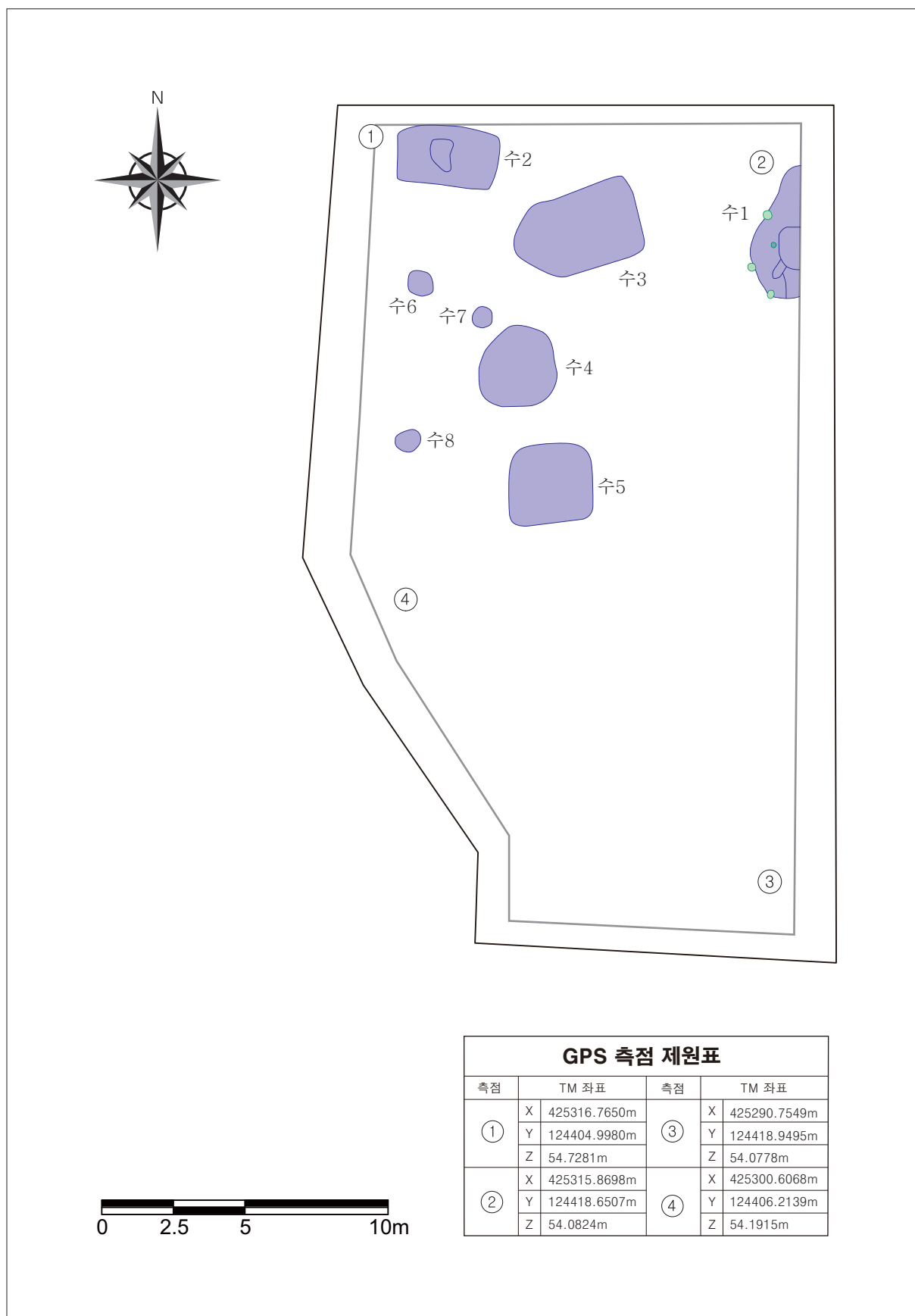
발굴(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제토는 발굴(표본)조사 시 트렌치에서 확인된 문화층을 중심으로 전면 제토를 실시하였다. 제토범위는 조사대상지 주변으로 인도, 아파트 모델하우스, 주택 담장 등과 접하고 있어 안전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조사 경계에서 0.5~1.0m 정도 이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지의 전체적인 지형은 조사 전, 대상지역이 논과 밭으로 이용되었던 관계로 편평한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 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조사대상지의 퇴적 층위는 전구역이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조사대상지의 전반적인 퇴적 양상은 이곳이 북천의 범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이었으므로 범람 퇴적층이 현대 경작층 아래에서 바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현대 경작층은 퇴적층을 복토한 후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에는 사용하던 대지를 밭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두껍게 성토가 되었으며, 그 후 밭으로 경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지의 전체 토층 양상은 동쪽 경계 벽면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2】 조사대상지 토층(동쪽 경계면)

	1층 : 갈색 사질점토층(표토, 복토층)
	2층 : 흑갈색 사질점토층(구 지표층, 현대 경작층)
	3층 : 갈색 사질점토층
	4층 : 암갈색 사질점토층
	5층 : 흑갈색 사질점토층
	6층 : 갈색 사질토(생토층, 유구확인층)

조사대상지의 층위는 크게 6개 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표토층으로 사질성이 강한 갈색 사질점토층이며, 생활쓰레기가 일부 혼입된 복토로 이루어진 층이다. 2층은 구 지표로 흑갈색 사질점토층이며, 현대 경작층이다. 3층은 갈색 사질점토층, 4층은 암갈색 사질점토층, 5층은 흑갈색 사질점토층이며, 3~5층은 유물포함층이다. 6층은 갈색 사질토로 생토층이며, 유구가 확인되는 층이다. 생토층 일부는 갈색 사질토에 5~10cm 정도의 크기의 자갈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도면 6. 유구배치도(S=1:200)

발굴(정밀발굴)조사 결과, 고려~조선시대로 추정되는 수혈유구 8기가 확인되었고, 유물로 토기 병과 청자 접시, 기와 등 16점이 출토되었다.

1) 수혈유구

조사대상지의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쳐진 곳에 분포하며, 총 8기가 확인되었다. 유구는 갈색 사질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중복되어 확인된 유구는 없었다. 평면형태는 원형, (장)방형, 부정형으로 확인되었으며, 수혈 1호와 2호에서 아궁이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되었다.

(1) 수혈유구 1호

가. 유구(도면 7, 도판 3·4)

조사대상지 북동쪽 경계에 접한 해발 54.12m에서 확인되었으며, 북서쪽으로 4m 떨어진 지점에 수혈 3호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동쪽 경계에 접해 일부만 확인된 상태였으며, 상부는 후대 교란으로 파괴가 심하게 이루어진 상태였다.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동쪽 일부를 확장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확인된 유구의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잔존 규모는 길이 450cm, 너비 170cm, 깊이 25cm 정도이다. 생토층인 갈색 사질토를 비스듬히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내부에는 목탄이 바닥 전면에 깔려 있는 상태였다.

유구 내부의 서쪽에서 소토 덩어리가 굴광선을 따라 연결되어 확인되는데, 이는 갈색 사질토의 생토면 위에 불다짐하여 바닥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에서는 아궁이와 주혈 4기가 확인되었다.

아궁이는 수혈의 중앙부에 위치하며, 크기 20cm 정도의 피열된 할석 3매가 부분적으로 확인되는데 남쪽에 위치한 할석은 수직된 상태여서 지각으로 추정된다. 아궁이 내부에는 목탄과 소토가 다량 확인되며, 바닥에는 불의 영향으로 인해 생토층인 갈색 사질토가 적갈색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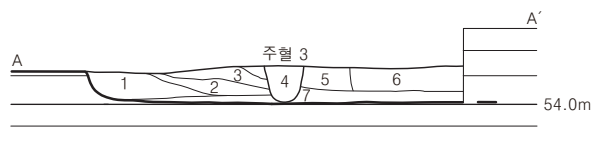
주혈은 서쪽 굴광선에 걸쳐 3기, 아궁이의 서쪽에 접해 1기가 확인되었다. 주혈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크기는 직경 15~25cm, 깊이 20cm 내외이다. 내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북쪽에 위치한 주혈 내부에서는 토기 병이 매납되어 있었다.

유물은 토기 병 1점, 청자 호 저부편 1점, 수키와편 1점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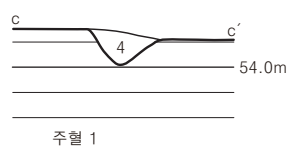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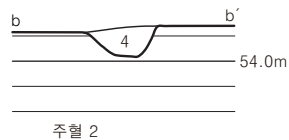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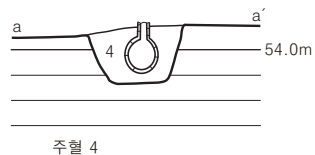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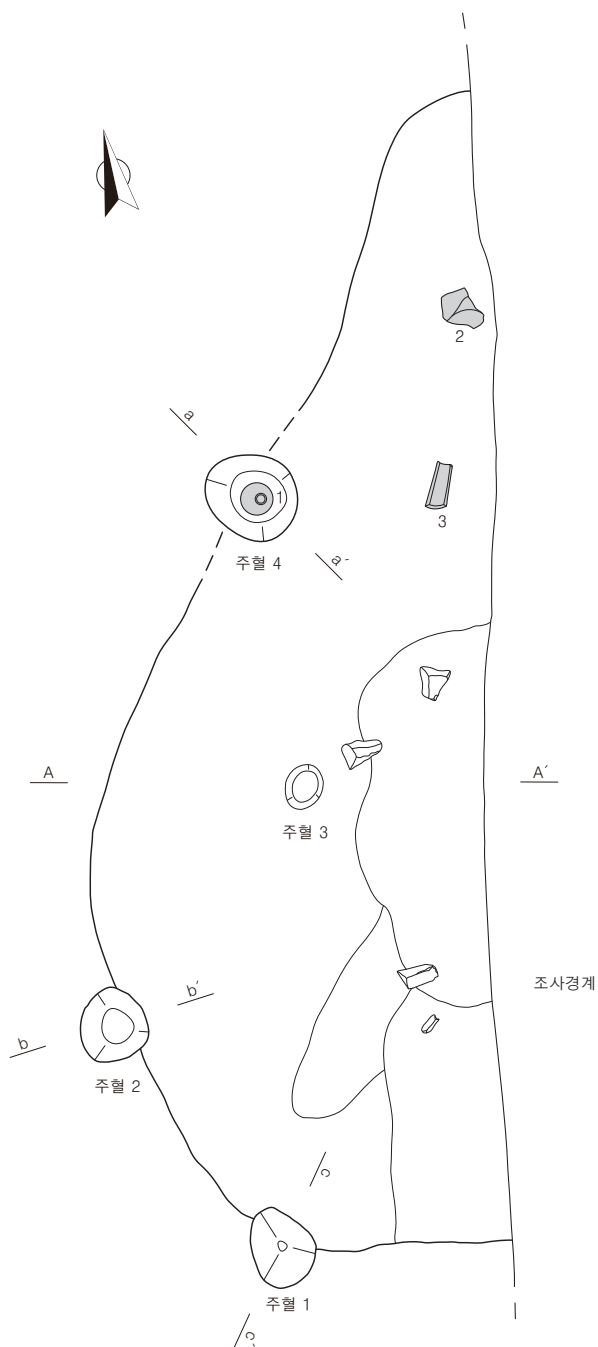
나. 유물

1. 병(도면 8-1, 도판 5-1)

주혈(4) 내에 정치된 상태로 출토된 도질토기 병이다. 전체적으로 고른 회청색을 띠며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석영질 세석립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목이 길고 구연은 결실되었으며, 견부에 1열의 회전침선문이 시문되었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정면되었다. 부분적으로 소형 기포가 발생하여 기면이 고



1. 황갈색 사질점토(10YR 5/6)
2. 회황갈색 사질점토(10YR 4/2)
3. 흑갈색 사질점토(10YR 2/2)-목탄 다량 혼입
4. 흑갈색 사질점토(10YR 3/1)-목탄 소량 혼입
5. 명황갈색 사질점토(10YR 6/6)-소토 및 목탄 소량 혼입
6. 황갈색 사질점토(10YR 5/8)-소토 및 목탄 소량 혼입
7. 흑갈색 사질점토(10YR 3/2)-목탄 소량 혼입



도면 7. 수혈유구 1호(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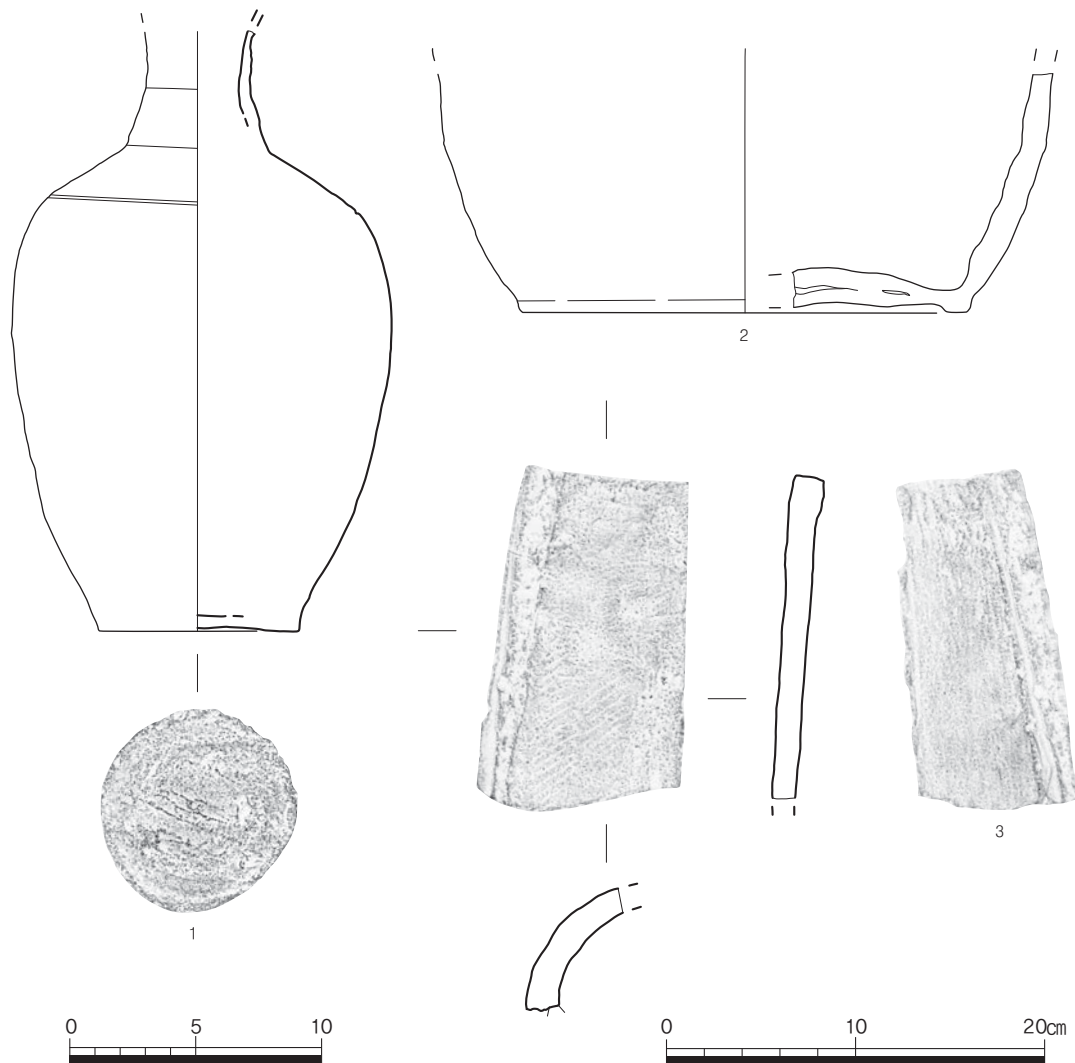
르지 않으며 물레성형에 의한 굴곡이 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단단한 경질이다. 접지면은 손으로 정면하여 손누름흔적이 관찰된다.

잔존고 : 23.8cm 저경 : 7.9cm 동최대경 : 14.9cm 두께 : 0.2~0.5cm

2. 청자 호 저부편(도면 8-2, 도판 5-2)

수혈 내부 노지의 북쪽 바닥에서 출토되었으며, 굽을 포함한 바닥면과 동체 일부가 남아 있다. 굽은 다리굽이며, 굽 안바닥을 얇게 깎아 내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였고 속심은 황갈색을 띤다. 태토의 밀도가 낮고 기공이 다수 확인되며 바닥이 부풀어 두께가 일정하지 않다. 유약은 녹회색을 띠며, 전면 시유되었으나 대부분 묻혀있고 기면에 다량의 기공이 관찰된다. 유조가 고르지 못하고 유색이 탁하며 반점 형태로 박리되기도 하였다.

잔존고 : 9.5cm 복원저경 : 17.8cm 두께 : 0.5~1.0cm



도면 8.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1~3)

3. 수키와편(도면 8-3, 도판 5-3)

수혈 내부 노지의 북쪽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상단부와 좌측면 일부가 잔존하는 수키와편이다. 고화도 소성의 경질 기와이고, 색조는 연회색과 흑회색이 섞였다. 태토는 운모가 포함된 점토에 석영질 세사립이 다량 섞였다. 기면의 마모가 심한 편이다. 등면에 단사선문 타날 후 상단은 물손질정면하였고, 배면에는 포목흔이 남아있으나 거의 마모되었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그었고, 깊이는 0.5~1.0cm 내외로 일정하지 않다.

잔존길이 : 17.2cm 잔존너비 : 5.1cm 두께 : 1.2~1.6cm

(2) 수혈유구 2호

가. 유구(도면 9, 도판 6·7)

조사대상지 북서쪽 모서리에 접한 해발 54.16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남동쪽으로 2m 정도 떨어져 수혈 3호, 남서쪽으로 3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수혈 6호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잔존 규모는 길이 350cm, 너비 220cm, 깊이 15cm 정도이다. 생토층인 갈색 사질토를 비스듬히 굴착하고 조성되었으며, 내부토는 상부에서부터 암갈색 사질점토, 흑갈색 사질점토, 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내부에는 타원형에 가까운 부정형의 목탄 범위가 확인되는데 목탄 범위의 규모는 길이 120cm, 너비 80cm 정도이다. 목탄 범위의 형태나 양쪽에 기와가 평행하게 놓인 것으로 보아 아궁이 시설로 추정되며, 화구의 방향은 남쪽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잔존상태가 불량하여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다.

유물은 내부 바닥에서 청자 접시 1점, 수키와 1점, 암키와편 2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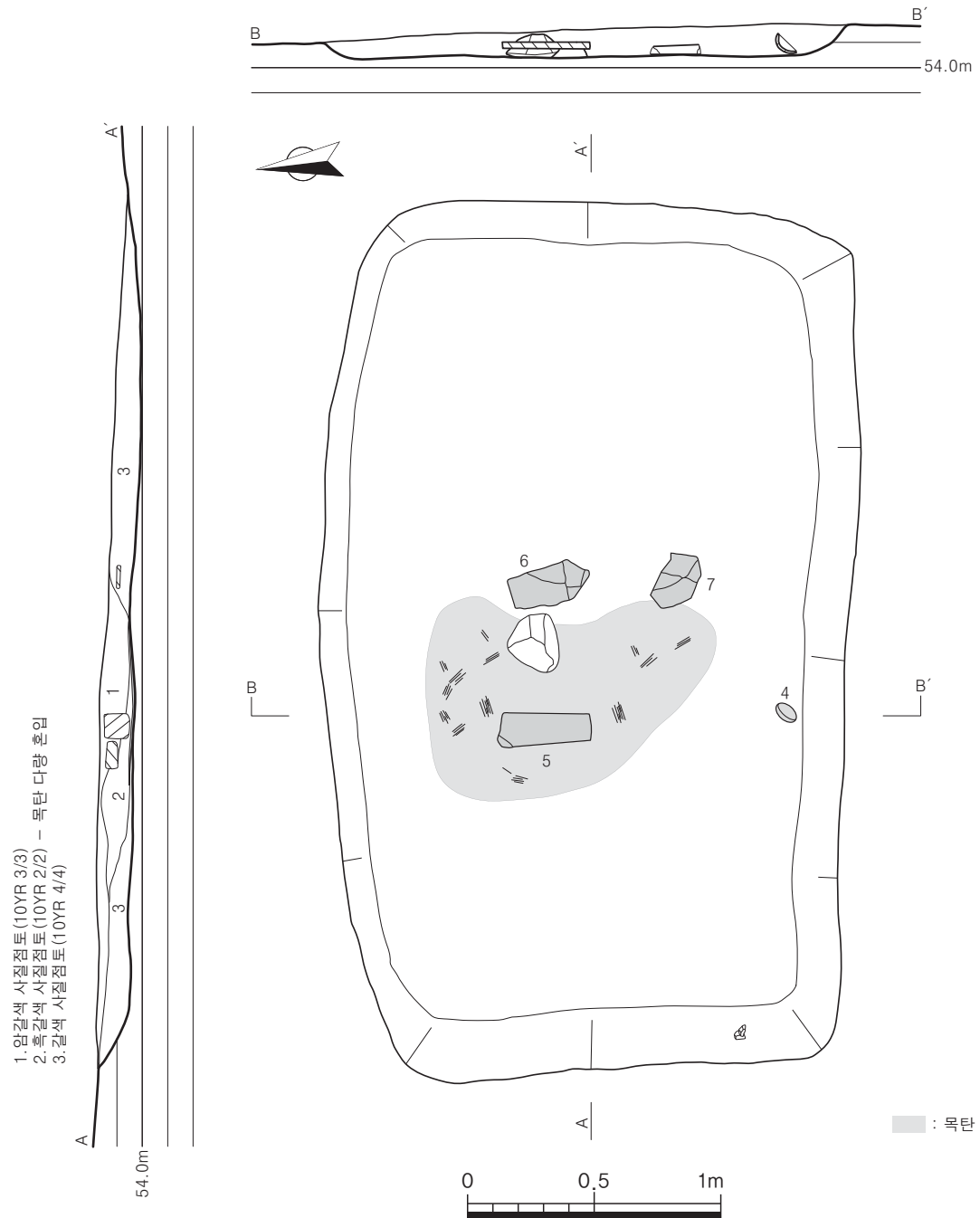
4. 청자 접시(도면 10-4, 도판 8-4)

수혈의 중앙부 목탄층의 남쪽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태토는 점토와 세사립을 섞어 사용하였고 밀도가 높고 단단하다. 전면 시유 되었으나 용융되지 않아 연황색을 띠고 속심은 밝은 회청색이다. 굽은 안굽이며, 굽 안바닥을 얇게 깎아 내었다. 외저면은 사선으로 돌려 깎은 뒤 정면하여 측면의 형태는 반구형에 가깝다. 굽 안바닥에 가는 모래받침 흔적이 확인된다.

고 : 3.5cm 구경 : 9.2cm 저경 : 3.8cm 두께 : 0.3~0.5cm

5. 수키와(도면 11-5, 도판 8-5)

수혈의 중앙부 목탄층에서 출토되었다. 측면 일부가 결실된 토수키와로 회청색을 띠며 내면에 암갈색 흑반이 생성되었다. 태토는 점토에 세사립과 5mm 내외의 석영질 석립을 다량 섞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단단한 경질소성이다. 등면에 태선어골문타날이 시문되었으나 정면과 마모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워졌다. 하단부는 건장치기 후 정면하였고, 가는 모래와 점토를 섞은 받침 흔적이 남아있다. 배면에는 얇은 사질흔과 윤철흔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그었고, 깊이는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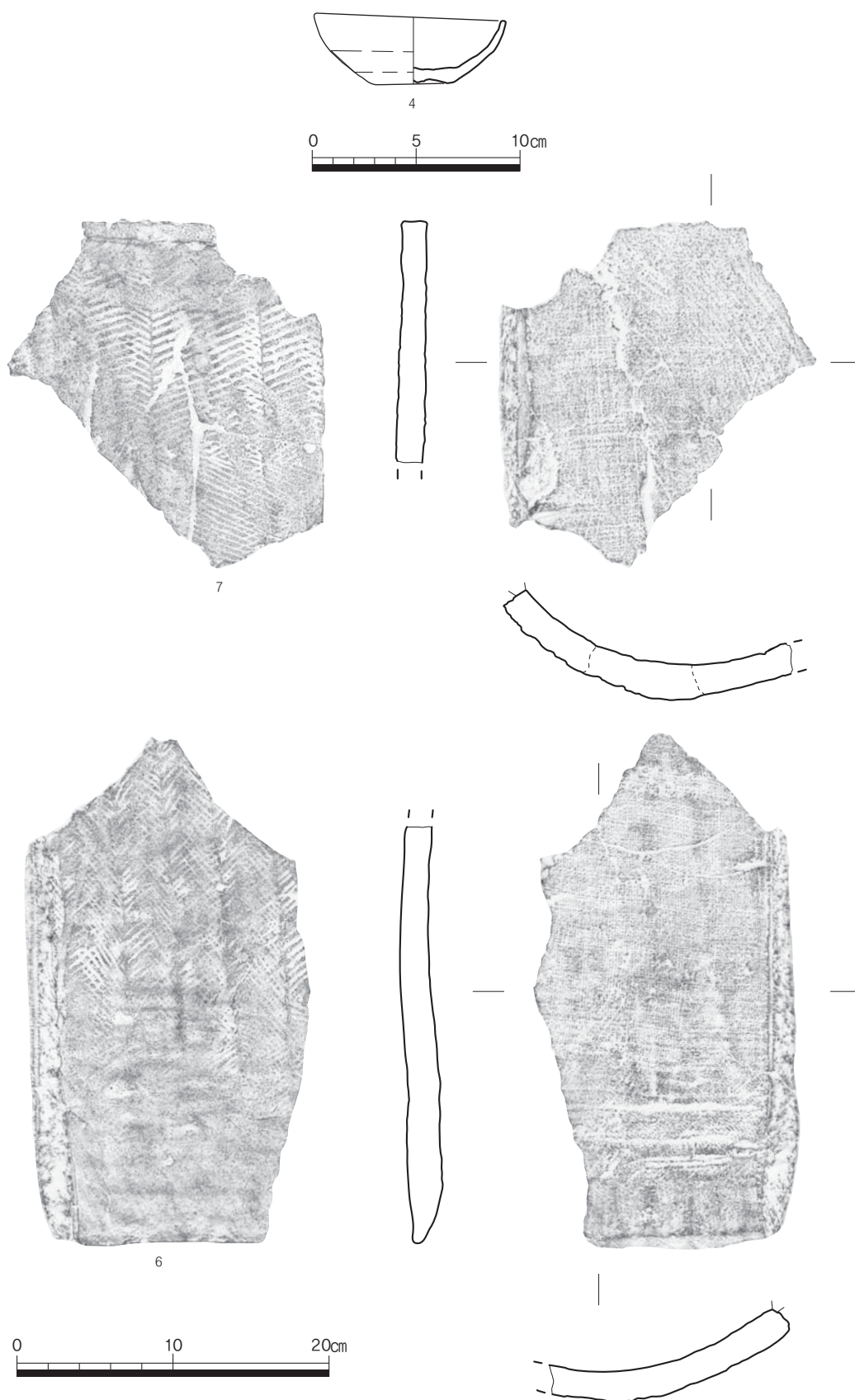
도면 9. 수혈유구 2호(S=1:30)

0.8cm 내외로 일정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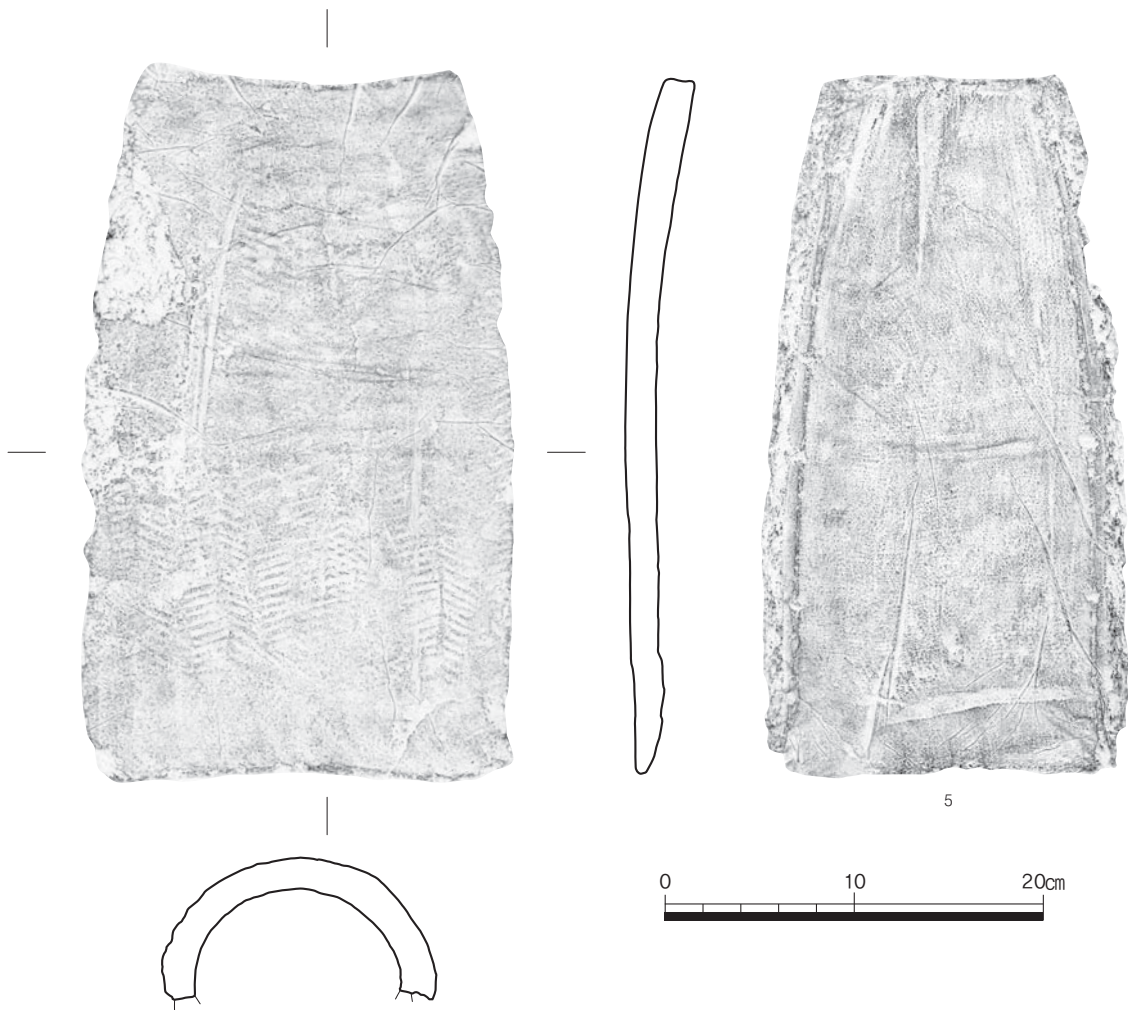
길이 : 37.1cm 너비 : 14.6cm 두께 : 1.5~1.8cm

6. 암키와편(도면 10-6, 도판 8-6)

수혈의 중앙부 목탄층 주변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하단부와 측면의 일부가 잔존하는 암키와편으로



도면 10.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4, 6·7)



도면 11.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5)

전체적으로 암회청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암갈색이다. 태토는 미세한 운모가 다량 포함된 점토에 세사립과 5mm 내외의 석영질 석립을 섞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단단한 경질소성이다. 등면에 태선어골문타날이 중첩되게 시문되었고, 하단은 물손질정면에 의해 지워졌다. 하단부는 건장치기 후 간략하게 정면하여 요철이 심하다. 배면에는 포목흔과 얇은 사절흔, 윤철흔이 선명하게 관찰된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그였으며, 깊이는 0.5cm 내외이다.

잔존길이 : 32.4cm 잔존너비 : 15.5cm 두께 : 1.5~2.0cm

7. 암키와편(도면 10-7, 도판 8-7)

수혈의 중앙부 목탄층 주변 바닥에서 출토되었다. 상단부와 측면의 일부가 잔존하는 암키와편으로 전체적으로 암회청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암갈색이다. 태토는 미세한 운모가 다량 포함된 점토에 세사립과 5mm 내외의 석영질 석립을 섞었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단단한 경질소성이다. 등면에 태선어골문타날

이 중첩되게 시문되었고, 상단은 물손질정면에 의해 지워졌다. 배면에는 포목흔과 얇은 사절흔, 윤철흔이 선명하게 관찰된다. 와도질은 안에서 밖으로 1/2 내외의 깊이로 그었다. 와도의 깊이는 0.5~0.8cm 내외이다.

잔존길이 : 21.8cm 잔존너비 : 17.5cm 두께 : 1.9cm

(3) 수혈유구 3호

가. 유구(도면 12, 도판 9)

조사대상지 중앙부에서 북쪽으로 치우쳐진 해발 54.11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북서쪽으로 2m 정도 떨어져 수혈 2호, 남서쪽으로 2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수혈 4호가 위치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규모는 길이 450cm, 너비 280cm, 깊이 25cm 정도이다. 유구는 생토층인 갈색 사질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상부에서부터 암갈색 사질점토와 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이 갈색 사질토의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4) 수혈유구 4호

가. 유구(도면 13, 도판 10)

조사대상지 중앙부에서 북서쪽으로 약간 치우쳐진 해발 54.12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남쪽으로 1.5m 정도 떨어져 수혈 5호, 북서쪽으로 0.5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수혈 7호가 위치한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원형이며, 규모는 길이 280cm, 너비 270cm, 깊이 20cm 정도이다. 생토층인 갈색 사질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상부에서부터 흑갈색 사질점토와 암갈색 사질점토 순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이 갈색 사질토의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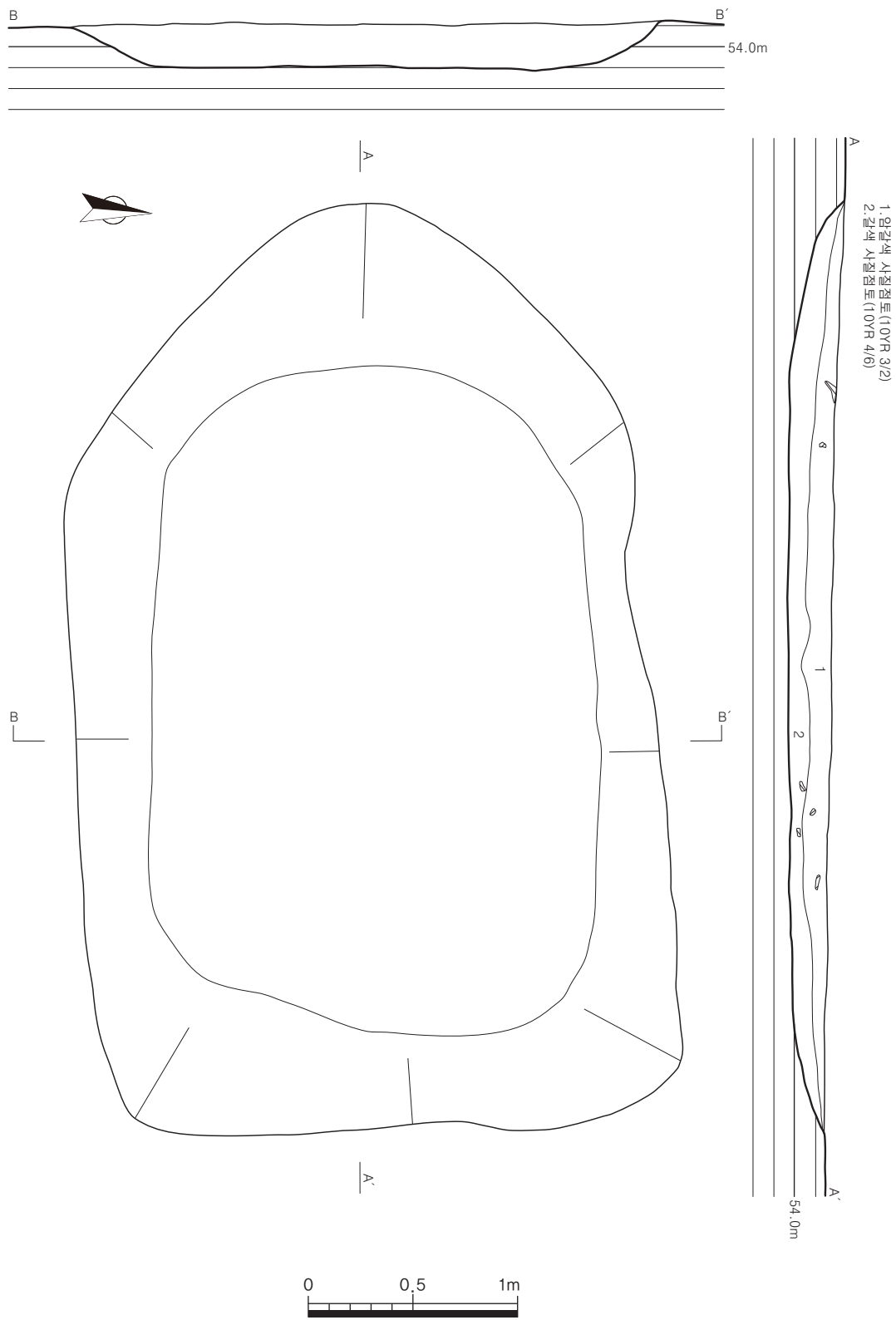
유물은 남서쪽과 북동쪽 바닥에서 청자 접시편 1점, 청자 발 저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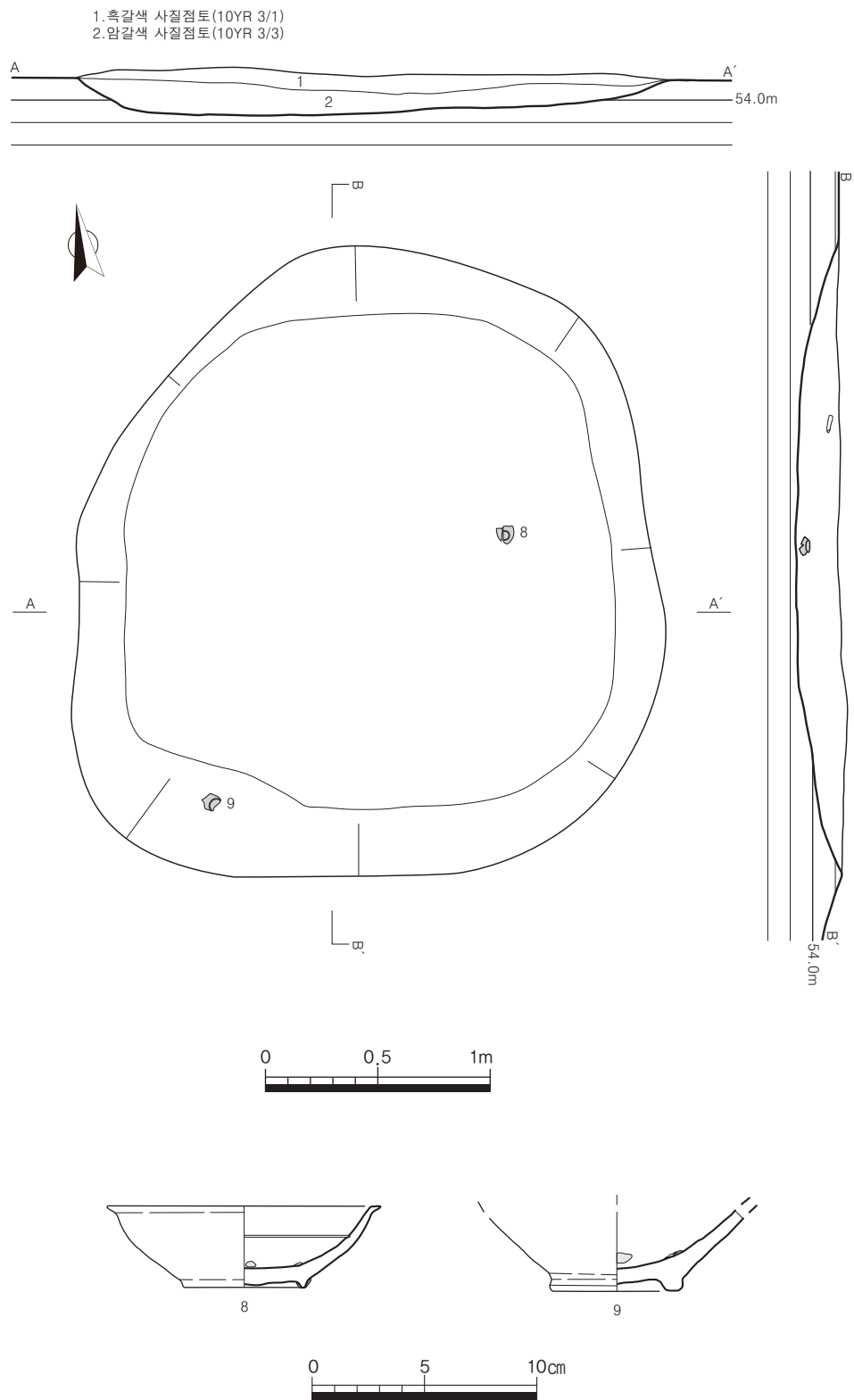
8. 청자 접시편(도면 13-8, 도판 10-8)

수혈 내부 바닥에 도치된 상태로 출토된 청자 소접으로 반파되어 도면복원하였다. 태토는 고운 점토이며 기공이 다수 관찰된다. 측사면은 저부 쪽으로 둥글게 좁아지고 굽은 다리굽이다. 구연은 수직으로 꺾여 외반하고 위를 편평하게 정면하였다. 내측사면 중앙에 회전침선문이 1열 시문되었고, 안바닥과 굽 접지면에 각 2개의 태토받침흔적이 잔존한다. 소성상태는 양호하며 유색은 투명한 녹색을 띤다. 굽 안바닥과 접지면까지 전면 시유 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얇고 고르게 용융되었다. 내외면 전면 에 잔빙렬이 생성되었다.

고 : 3.6cm 복원구경 : 12.2cm 저경 : 5.6cm 두께 : 0.3~0.5cm



도면 12. 수혈유구 3호(S=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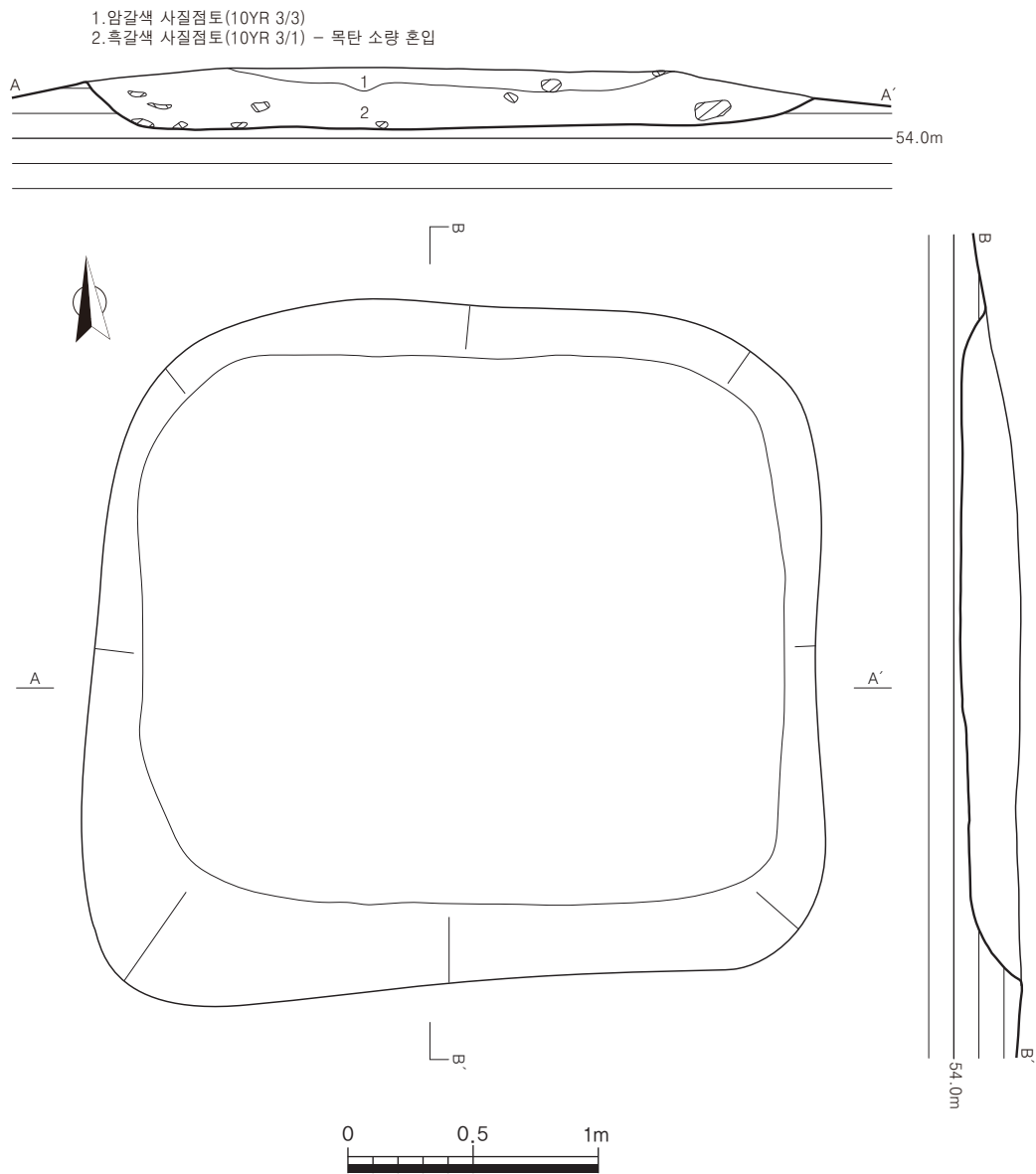
도면 13. 수혈유구 4호(S=1:30) 및 출토유물(8·9)

9. 청자 발 저부편(도면 13-9, 도판 10-9)

수혈의 비스듬한 남벽에 걸쳐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청자 저부 소편으로 기종은 발로 추정된다. 태토는 세사립을 섞은 고운 점토이며 밀도가 높다. 굽은 다리굽이고, 노태되었다. 속심은 암적갈색을 띠고 유색은 암녹색을 띤다. 유는 고르게 용융되었고 투명하며 잔빙렬이 생성되었다. 안바닥에는 점토와 가는 모래를 섞은 받침흔이 2개 잔존하고 접지면은 마모되어있다.

잔존고 : 3.7cm 저경 : 6.0cm 두께 : 0.5~1.0cm

(5) 수혈유구 5호



도면 14. 수혈유구 5호(S=1:30)

가. 유구(도면 14, 도판 11)

조사대상지 중앙부의 해발 54.26m 정도에서 확인되었다. 북서쪽으로 1.5m 정도 떨어져 수혈 4호, 북서쪽으로 3m 정도 떨어져 수혈 8호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의 평면형태는 방형이며, 규모는 길이 290cm, 너비 275cm, 깊이 25cm 정도이다. 조사전 중앙부를 중심으로 북동쪽과 남동쪽으로 목탄과 소결흔이 일부 확인되었다. 유구는 갈색 사질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내부에는 상부에서부터 암갈색 사질점토와 목탄과 소토 알갱이가 소량 혼입된 흑갈색 사질점토가 퇴적되어 있었다. 서쪽 일부는 후대 교란으로 인해 강자갈이 다량 채워져 있었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이 갈색 사질토의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6) 수혈유구 6호

가. 유구(도면 15, 도판 12)

조사대상지 북서쪽 경계에 인접한 해발 54.14m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북동쪽으로 3m 정도 떨어져 수혈 2호, 남동쪽으로 1.5m 정도 떨어져 수혈 7호가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갈색 사질토를 굴착하여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전체적인 규모는 지름 85cm, 깊이 20cm이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다. 내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소량의 목탄 알갱이가 혼입되어 있었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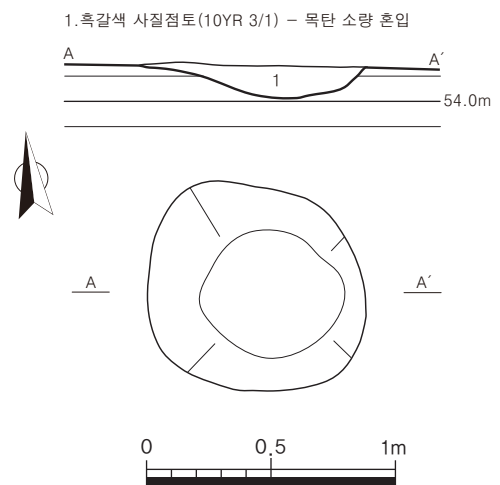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7) 수혈유구 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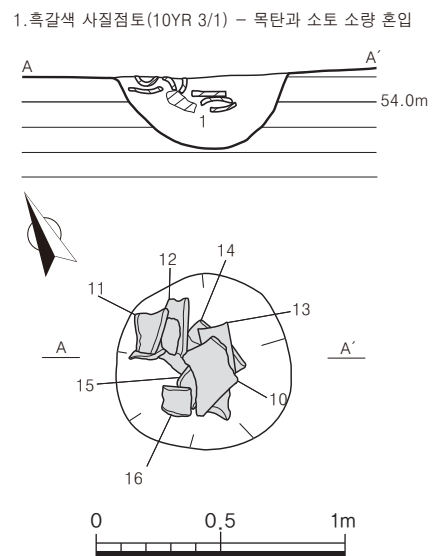
가. 유구(도면 16, 도판 12)

조사대상지 중앙부에서 북서쪽으로 치우쳐진 해발 54.12m 정도에서 확인되었으며, 북동쪽으로 2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수혈 3호, 남동쪽에 인접한 곳에 수혈 4호가 위치한다.

유구는 갈색 사질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전체적인 규모는 지름 80cm, 깊이 30cm이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다.



도면 15. 수혈유구 6호(S=1:30)



도면 16. 수혈유구 7호(S=1:30)

내부에는 목탄과 소토가 소량 혼입된 흑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바닥은 별다른 시설 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수키와편 6점, 암키와편 1점이 출토되었다.

나. 유물

10. 수키와편(도면 17-10, 도판 13-10)

상단부와 단측면 일부가 잔존하는 수키와편이다. 전체적으로 고른 회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황갈색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다량의 세사립과 3mm 이하의 석영질 석립을 섞었다. 등면은 단사선문타날 후 정면하여 문양을 지워낸 흔적이 남았고, 배면에는 깊고 선명한 포목흔과 종방향의 합철흔이 관찰된다. 와도는 안에서 밖으로 그었으며, 깊이는 0.5~1.0cm 내외이다.

잔존길이 : 20.5cm 잔존너비 : 12.8cm 두께 : 1.5~2.0cm

11. 수키와편(도면 17-11, 도판 13-11)

상단부가 결실된 수키와편이다. 전체적으로 고른 회색을 띠나 부분적으로 흑반이 있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미세한 운모와 세사립, 3mm 내외의 장식립을 섞었다. 등면은 단사선문타날이 시문되었고, 배면의 포목흔은 마모되어 선명하지 않다. 하단 부분은 건장치기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는 안쪽에서 밖으로 그었으며, 깊이는 0.5~1.2cm 내외로 일정하지 않다.

잔존길이 : 24.8cm 잔존너비 : 14.0cm 두께 : 1.8~2.0cm

12. 수키와편(도면 18-12, 도판 1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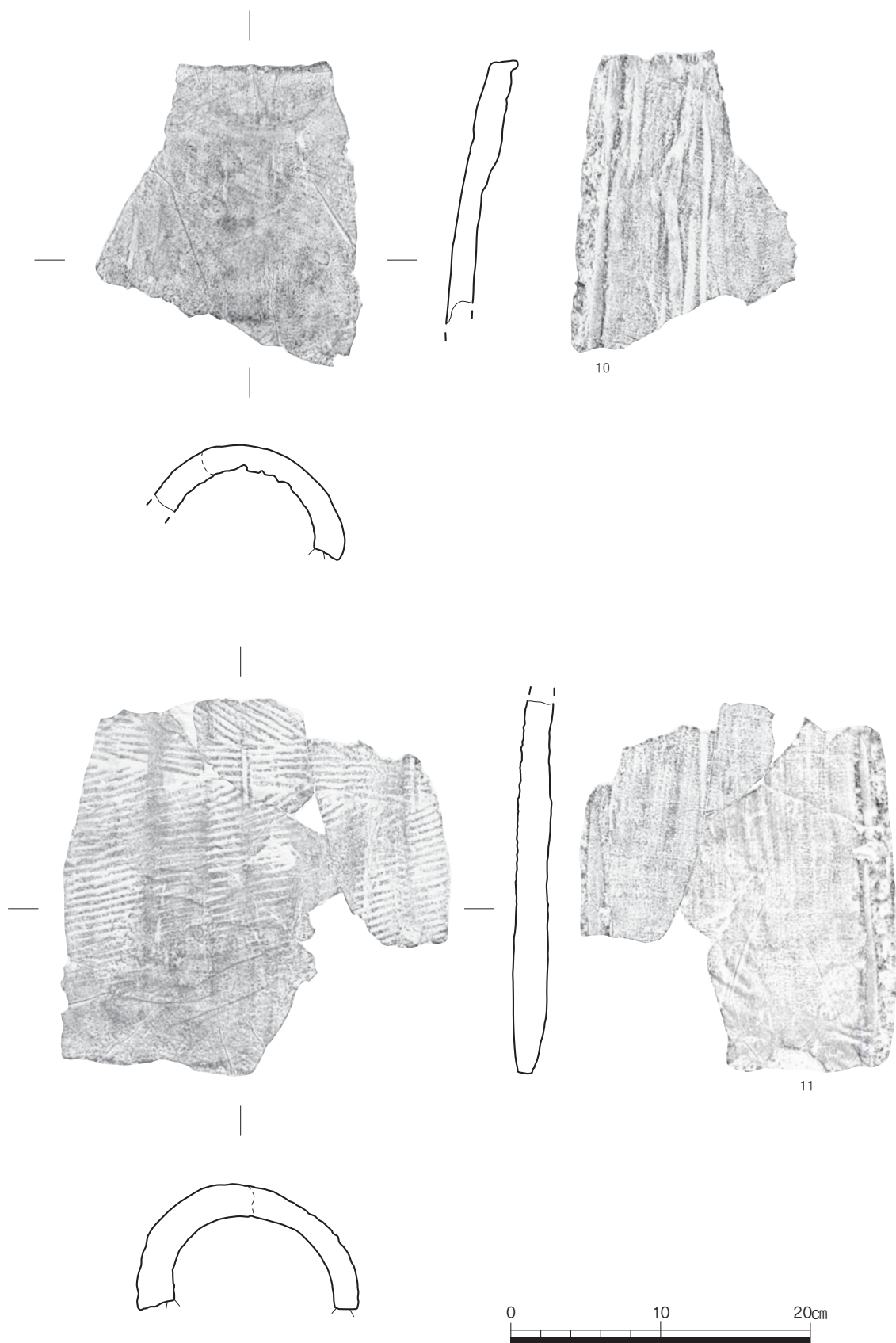
상단부가 반파된 수키와편이다. 전체적으로 암회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흑갈색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세사립, 3mm 내외의 장식립을 섞었다. 등면은 중판어골문타날이 종방향으로 중첩되게 시문되었고, 배면에는 선명한 사절흔이 관찰된다. 사절흔에 의해 포목 흔적은 대부분 지워졌다. 하단 부분은 건장치기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와도는 안쪽에서 밖으로 그었으며, 깊이는 0.8cm 내외이다.

잔존길이 : 23.3cm 잔존너비 : 14.5cm 두께 :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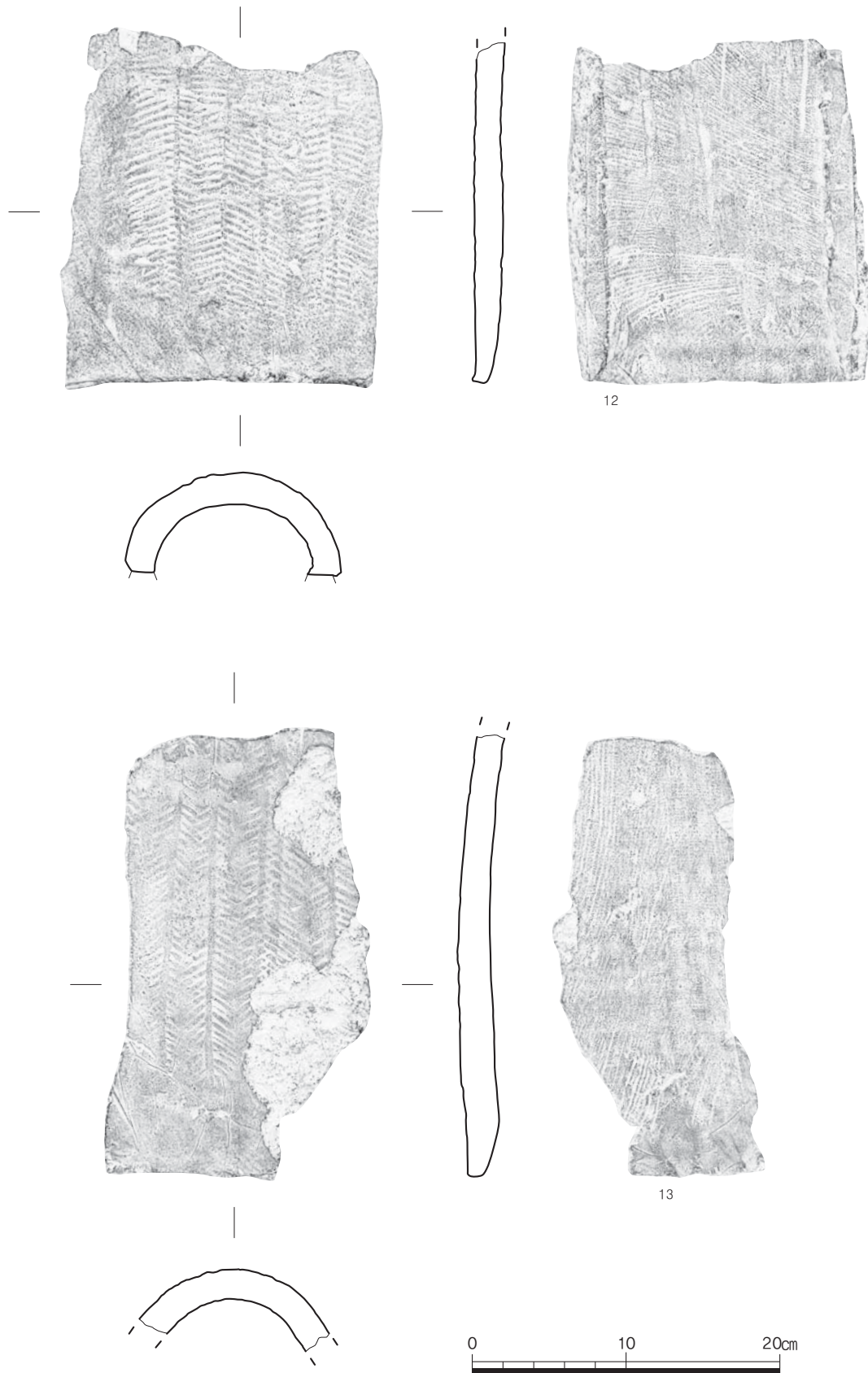
13. 수키와편(도면 18-13, 도판 14-13)

상단부와 양측면이 결실된 수키와편이다. 등면은 회색, 내면은 흑회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미세한 운모와 세사립, 3mm 내외의 장식립을 섞었다. 등면은 중판어골문타날이 종방향으로 중첩되게 시문되었고, 배면에는 선명한 사절흔이 관찰된다. 사절흔에 의해 포목 흔적은 대부분 지워졌다. 하단 부분은 건장치기 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잔존길이 : 29.2cm 잔존너비 : 13.5cm 두께 : 2.0cm



도면 17.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0·11)



도면 18.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2·13)

14. 수키와편(도면 19-14, 도판 13-14)

하단 1/3가량 잔존하는 수키와편이다. 전체적으로 탁한 황갈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다량의 운모와 세사립을 섞었다. 등면은 삼각거치문타날이 종방향으로 시문되었으나 상부는 지워졌고, 배면에는 선명한 사절흔이 관찰된다. 사절흔에 의해 포목흔은 대부분 지워졌으며, 하단은 건장치기 후 물손질정면 하였다. 와도는 안쪽에서 밖으로 그였으며, 깊이는 1.0~1.3cm 내외이다.

잔존길이 : 22.3cm 잔존너비 : 13.3cm 두께 : 2.0cm

15. 수키와편(도면 19-15, 도판 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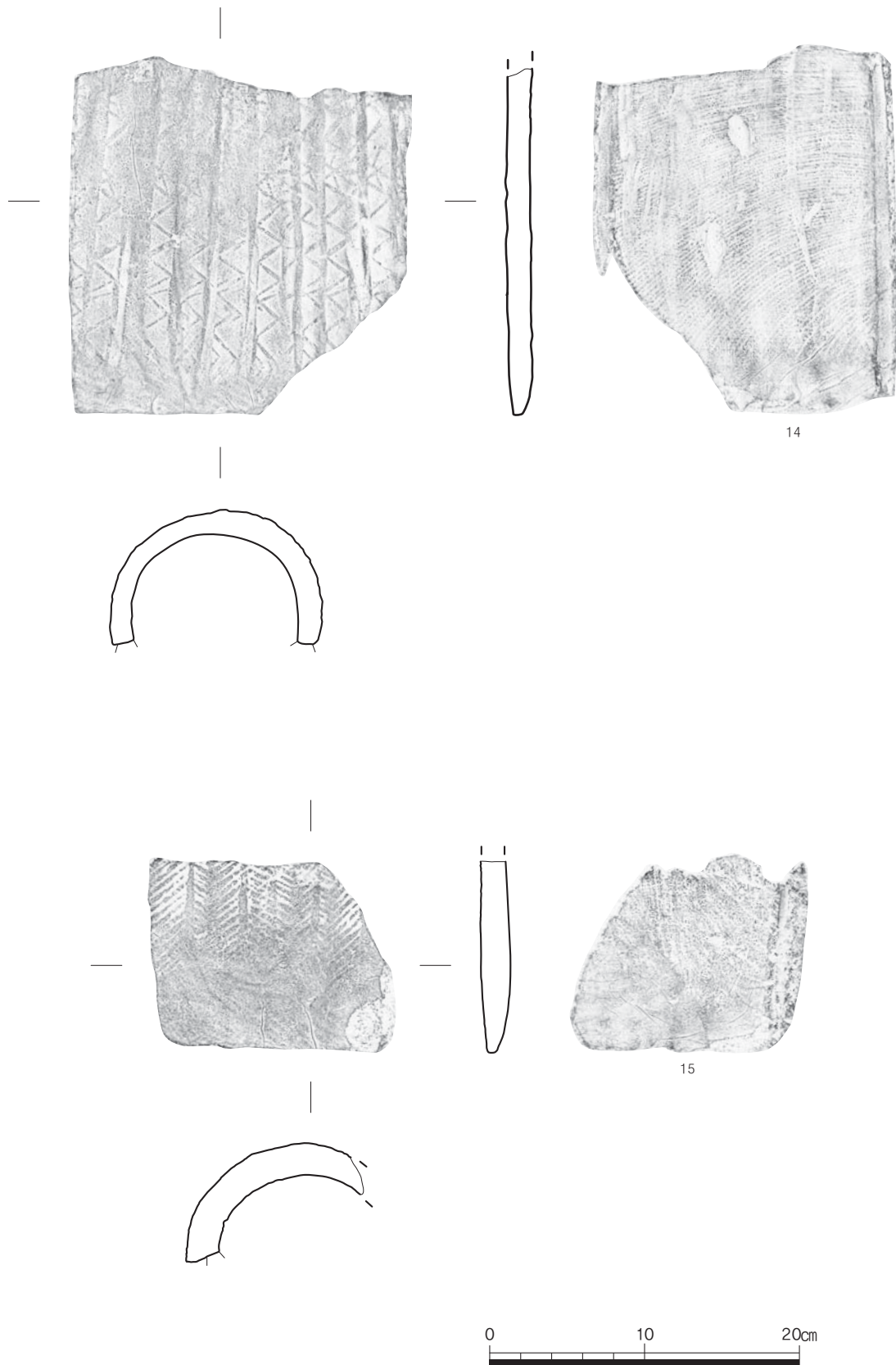
하단 일부가 잔존하는 수키와편이다. 외면은 흑갈색, 속심은 회색을 띤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다량의 운모와 세사립, 2~5mm 내외의 장식립을 섞었다. 등면은 어골문타날이 종방향으로 중첩되게 시문되었고, 배면에는 사절흔이 확인된다. 하단부는 건장치기 후 물손질로 정면 하였다. 와도는 안쪽에서 밖으로 그었고, 깊이는 0.8mm 내외이다.

잔존길이 : 12.3cm 잔존너비 : 13.0cm 두께 :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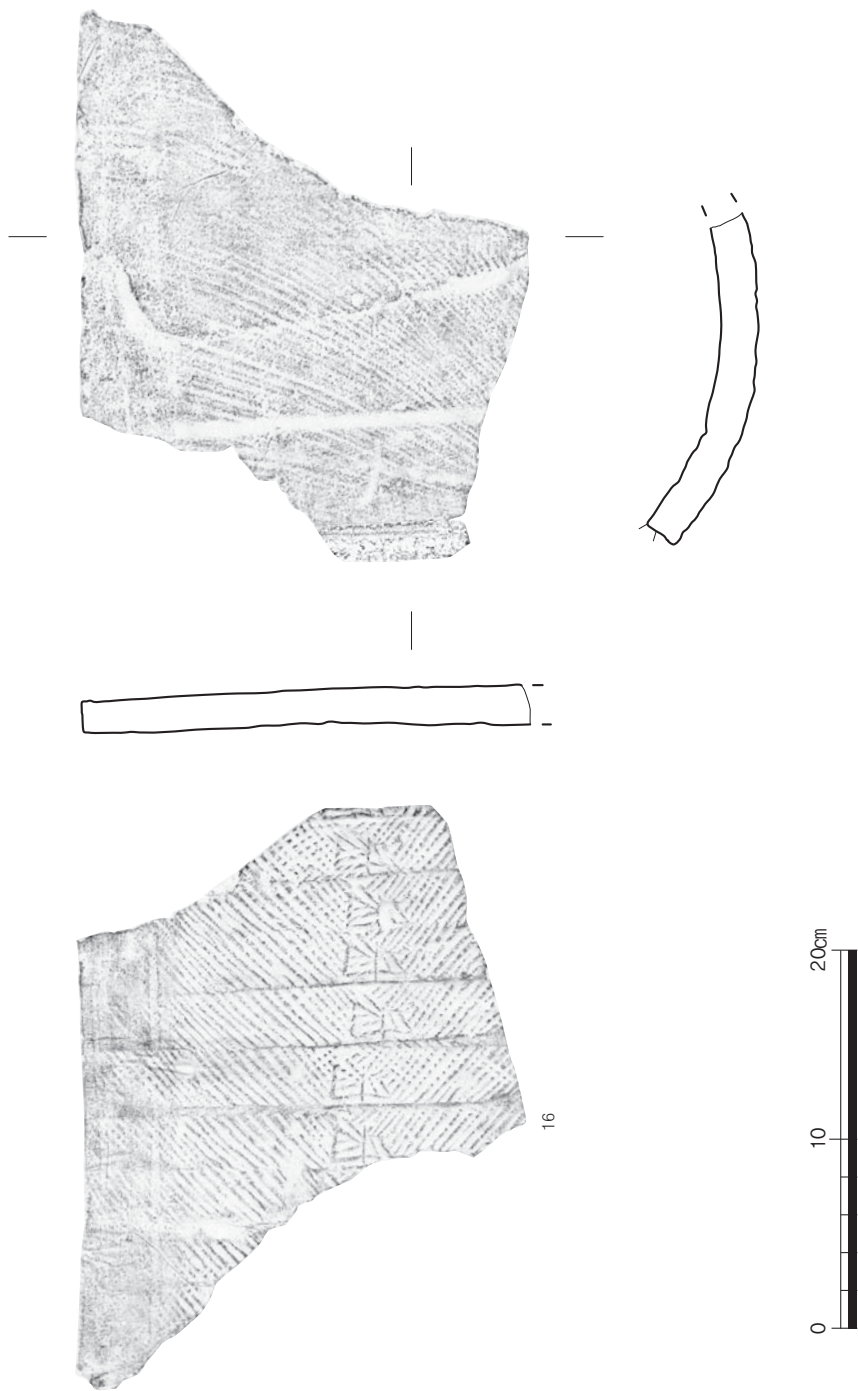
16. 암키와편(도면 20-16, 도판 14-16)

상단부와 측면 일부가 잔존하는 암키와편이다. 색조는 회색과 청회색이 섞여있고, 태토는 정선된 점토에 3mm 내외의 석립과 세사립이 섞였다. 등면은 장판의 단사선집선문타날이 종방향으로 시문되었고, 배면에는 선명한 사절흔과 점토판 접합 흔적이 확인된다. 상단 부분은 소략히 정면되었고, 윤철흔과 눈테 흔적이 희미하게 관찰된다. 와도는 안쪽에서 밖으로 그였으며, 깊이는 6mm 내외이다.

잔존길이 : 23.7cm 잔존너비 : 26.0cm 두께 : 2.0cm



도면 19.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4 · 15)



도면 20.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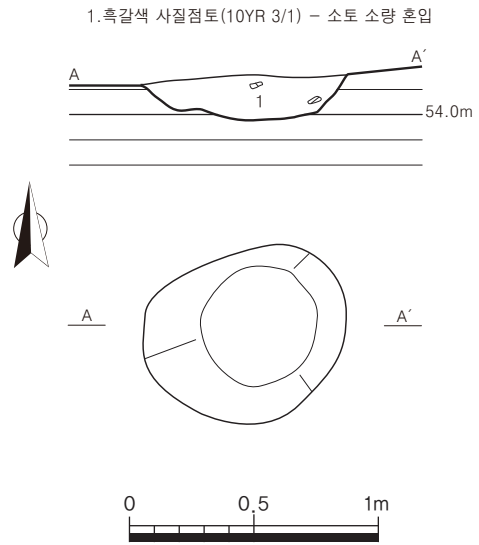
(8) 수혈유구 8호

가. 유구(도면 21, 도판 15)

조사대상지 북서쪽 경계에 인접한 해발 54.17m에서 확인되었으며, 북동쪽으로 2.2m 떨어져 수혈 4호, 남동쪽으로 3m 떨어져 수혈 5호가 위치한다.

유구는 갈색 사질토를 굴착하고 조성하였으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전체적인 규모는 지름 80cm, 깊이 25cm이며, 단면형태는 완만한 ‘U’자형이다. 내부에는 흑갈색 사질점토가 채워져 있었으며, 소량의 소토 덩어리가 일부 혼입되어 있었다. 바닥은 별다른 시설없이 생토면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도면 21. 수혈유구 8호(S=1:30)

【표 3】수혈 속성표

유구 번호	규모(cm)			평면 형태	장축 방향	내부시설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450	(170)	25	부정형	남-북	아궁이(추정), 주혈	병, 청자 호 저부편, 수키와편	
2	350	220	15	장방형	동-서	아궁이(추정)	청자 접시, 수키와, 암키와편	
3	450	280	25	부정형	동-서	-	-	
4	280	270	20	원형	-	-	청자 접시편, 청자 발 저부편	
5	290	275	25	방형	동-서	-	-	
6	85	-	20	원형	-	-	-	
7	80	-	30	원형	-	-	수키와편, 암키와편	
8	80	-	25	원형	-	-	-	

IV. 조사성과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202-1번지에 위치하며, 근린생활시설 신축부지에 대한 국비지원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조사대상지에서 수혈유구 8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기형과 문양 등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을 중심으로 토기 병, 청자 접시, 기와편 등 총 16점을 선별하여 수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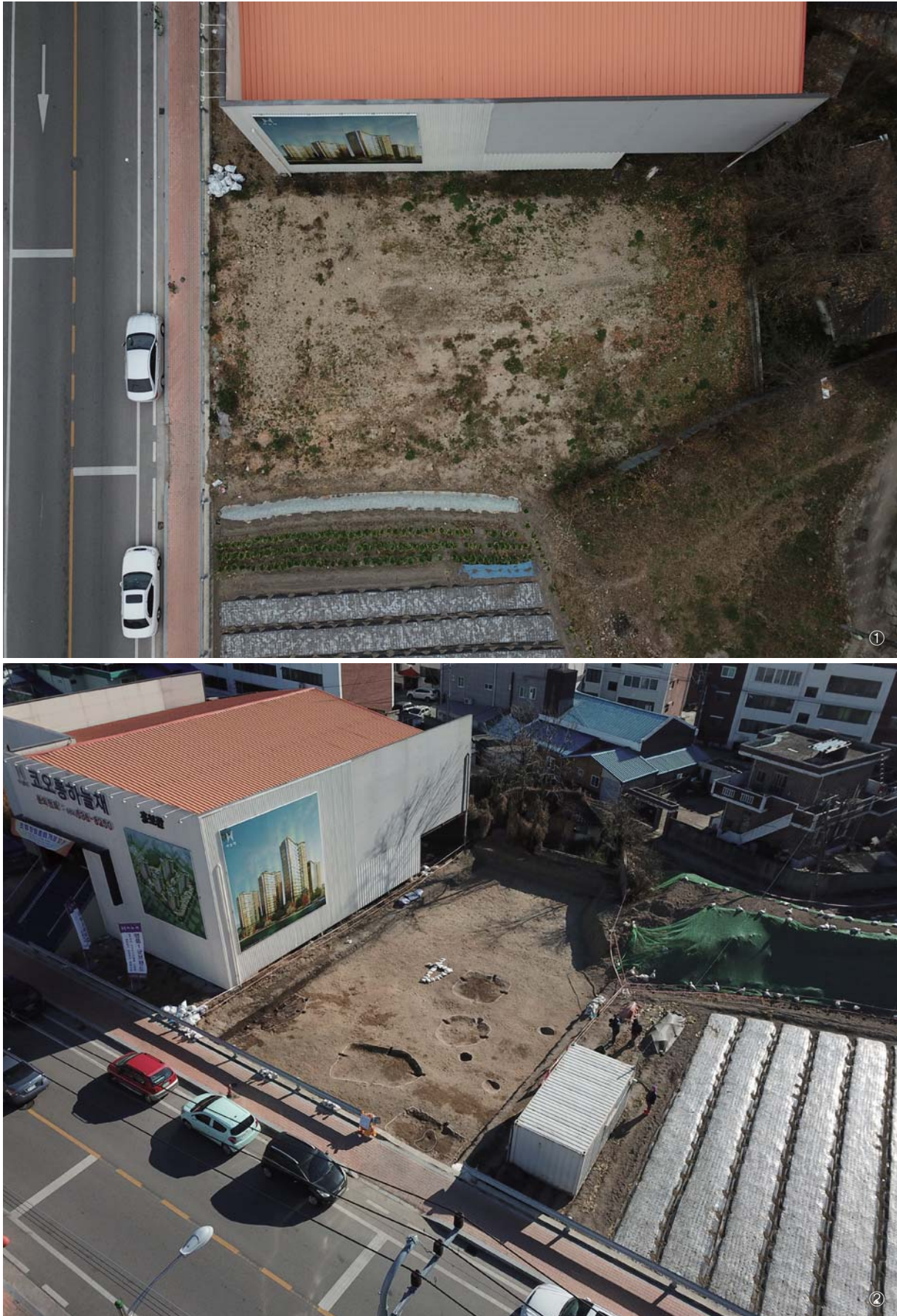
수혈유구는 생토층인 갈색 사질토를 굴착하여 조성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 (장)방형, 부정형 등이 확인되었다. 수혈 1호와 2호에서 아궁이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되었으며, 나머지 수혈에서는 별다른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구의 잔존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수혈 내부에서 아궁이로 추정되는 시설과 주혈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주거지로 추정된다. 다만 생활면으로 추정되는 바닥면이 고르지 않고, 바닥면 아래에서 생토층이 바로 확인되는 등 생활면이 얇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임시 거처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1점, 자기류 4점, 기와류 11점 등 총 16점이 출토되었다. 자기류는 모두 청자로서 접시, 발 등의 기종이 확인되었으며, 굽은 안굽(4)과 다리굽(2, 8, 9)이다. 기와류는 대부분 어골문(5~7, 12, 13, 15)이 확인되었다. 기와 편년연구에서 분석요소 중 하나인 문양은 존속기간이 긴 속성으로, 특히 문양 가운데 어골문은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까지 확인되어 문양만으로 연대를 비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문양 외 속성으로 타날판의 길이, 타날면 형태, 분할계선의 유무, 하단내면 조정방법, 윤철흔의 유무, 형태(토수기와/미구기와) 등도 함께 검토 되었다²⁰⁾. 이와 같은 속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본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들 중 5~7, 16번은 윤철흔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11세기 전기 이후로 보인다. 그리고 5번 수키와는 토수기와로, 토수기와는 12세기 전기부터 소멸하고 미구기와 일색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볼 때 11세기 후기 이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는 그 중심연대가 11세기로 판단된다. 또한 본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는 주변의 기와건물에서 사용하였던 기와를 재활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적의 조성시기는 11세기 이후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본 유적에서 수혈유구 8기가 확인되었으며, 이들 유구는 주거 등의 생활유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된 유구의 수가 적고 이마저도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유구의 성격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본 유적의 북쪽 경계부와 접한 상주 무양동 152번지 유적과 서쪽으로 93m 정도 떨어져 위치한 상주 무양동 179-2번지 유적, 그리고 그 주변으로 분포하는 다수의 유적에서 건물지, 주거지, 수혈유구, 우물 등 고려~조선시대 생활유구 등이 발굴조사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상주읍성 북쪽의 북천변 일원에 고려~조선시대 서민의 취락유적이 대규모로 조성되어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 역시 고려~조선시대 서민 취락유적의 일부로서 본 유적도 동일한 마을의 분포범위 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0) 이인숙, 2004, 「통일신라~조선전기 평기와 제작기법의 변천」 『韓國考古學報』54, pp.63~90.

도 판



도판 1. 조사대상지 전경(①조사전, ②조사후)



도판 2. 조사대상지 전경(조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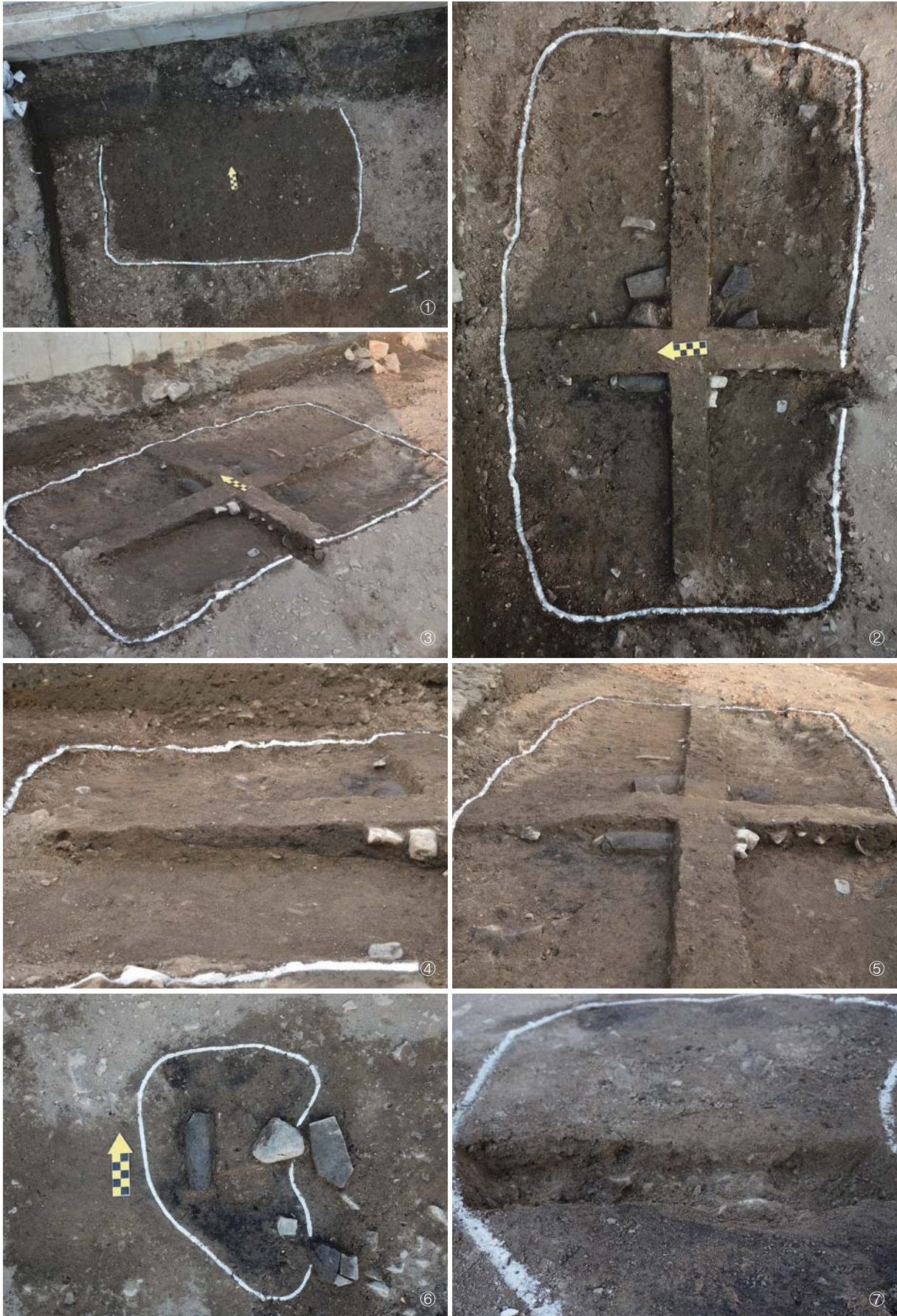
도판 3. 수혈유구 1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토층, ④⑤노지 조사중 세부, ⑥주혈4 조사전, ⑦주혈4 토층)



도판 4. 수혈유구 1호(①~③유물출토상태, ④주혈4 조사후, ⑤주혈1·2 조사후, ⑥조사후)



도판 5. 수혈유구 1호 출토유물(1~3)



도판 6. 수혈유구 2호(①조사전, ②조사중1, ③~⑤토층, ⑥노지 조사중, ⑦노지 토층)



도판 7. 수혈유구 2호(①조사중, ②~⑤유물출토상태, ⑥조사후)



도판 8. 수혈유구 2호 출토유물(4~7)



도판 9. 수혈유구 3호(①조사전, ②동서토층, ③④남북토층, ⑤조사중, ⑥조사후)



도판 10. 수혈유구 4호(①조사전, ②토층 및 조사중, ③조사후, ④⑤유물출토상태) 및 출토 유물(8·9)



도판 11. 수혈유구 5호(①조사전, ②조사중, ③④동서토층, ⑤⑥남북토층, ⑦세부, ⑧조사후)



도판 12. 수혈유구 6호(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후), 수혈유구 7호(⑤조사전, ⑥토층, ⑦조사중-유물출토상태, ⑧조사후)



도판 13.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0~12, 14)



도판 14. 수혈유구 7호 출토유물(13, 15 · 16)



도판 15. 수혈유구 8호(①조사전, ②토층, ③조사중, ④조사후)

상주 무양동 202-1번지 유적 유물목록

유물번호	유물명	수량 (점)	출토유구	분류		크기(cm)			도면번호 도판번호	선별 결과
				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2017-1495-0001	병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고려시대	23.8	—	7.9	8-1 5-1	Y
2017-1495-0002	청자 호 저부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고려시대	9.5	—	17.8	8-2 5-2	Y
2017-1495-0003	수키와편	1	수혈유구 1호	토도류	고려시대	(17.2)	(5.1)	1.2~1.6	8-3 5-3	Y
2017-1495-0004	청자 접시	1	수혈유구 2호	토도류	고려시대	3.5	9.2	3.8	10-4 8-4	Y
2017-1495-0005	수키와	1	수혈유구 2호	토도류	고려시대	(37.1)	(14.6)	1.5~1.8	11-5 8-5	Y
2017-1495-0006	암키와편	1	수혈유구 2호	토도류	고려시대	(32.4)	(15.5)	1.5~2.0	10-6 8-6	Y
2017-1495-0007	암키와편	1	수혈유구 2호	토도류	고려시대	(21.8)	(17.5)	1.9	10-7 8-7	Y
2017-1495-0008	청자 접시편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고려시대	3.6	12.2	5.6	13-8 10-8	Y
2017-1495-0009	청자 발 저부편	1	수혈유구 4호	토도류	고려시대	3.7	—	6.0	13-9, 10-9	Y
2017-1495-0010	수키와편	1	수혈유구 7호	토도류	고려시대	(20.5)	(12.8)	1.5~2.0	17-10 13-10	Y
2017-1495-0011	수키와편	1	수혈유구 7호	토도류	고려시대	(24.8)	(14.0)	1.8~2.0	17-11 13-11	Y
2017-1495-0012	수키와편	1	수혈유구 7호	토도류	고려시대	(23.3)	(14.5)	2.0	18-12 13-12	Y
2017-1495-0013	수키와편	1	수혈유구 7호	토도류	고려시대	(29.2)	(13.5)	2.0	18-13 14-13	Y
2017-1495-0014	수키와편	1	수혈유구 7호	토도류	고려시대	(22.3)	(13.3)	2.0	19-14 13-14	Y
2017-1495-0015	수키와편	1	수혈유구 7호	토도류	고려시대	(12.3)	(13.0)	2.0	19-15 14-15	Y
2017-1495-0016	암키와편	1	수혈유구 7호	토도류	고려시대	(23.7)	(26.0)	2.0	20-16 14-16	Y

掘調査報告書 抄録

報告書名	상주 무양동 202-1번지 유적			發行日	2019年 12月 23日
發行機關	名稱	재단법인 다온문화재연구원			
	住所	본 원 : 경북 경주시 초당길27번길 11-1, 2층 대구사무실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649길 22-7, 3층(우편물접수)			
	TEL	(053)811-3696	FAX	(053)811-3697	
執筆・編輯者	정상수, 김지훈, 강재현, 장효성, 김주영				
調査 緣由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구제발굴				
發掘調査者	정상수, 김지훈, 강재현, 김주영, 이은진				
遺蹟調査地番	경상북도 상주시 무양동 202-1번지				
調査面積	496m ²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생활유적	고려	수혈유구 8기	토기 병, 청자 접시, 수키와, 암키와 등	—	

2017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권별 유적 목록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I	1	경주 황남동 95-1번지 유적	VII	45	경주 황남동 231번지 유적
	2	무안 양장리 1117-3번지 유적		46	합천 구원리 506·507번지 유적
	3	경주 신서리 208-12번지 외 1필지 유적		47	제주 건입동 1378-1번지 유적
	4	영광 녹사리 89-35번지 유적		48	경주 인왕동 696-1번지 유적
	5	하남 미사동 411번지 외 1필지 유적		49	경주 인왕동 696-9번지 유적
	6	경주 구황동 657번지 유적	VIII	50	경주 인동리 696-2번지 유적
	7	강릉 방동리 63-20번지 유적		51	경주 교동 145번지, 146번지 유적
	8	경주 울동 산3-14번지 유적		52	춘천 천전리 97-8번지 외 2필지 유적
II	9	청주 송절동 447번지 유적		53	함안 가야리 133-8번지 유적
	10	서울 가회동 31-6번지 유적		54	춘천 우두동 118번지 외 2필지 유적
	11	경주 배동 181번지 유적		55	창원 진동리 246-3번지 유적
	12	양평 양수리 769-8번지 유적	IX	56	경주 울동 산2-6번지 유적
	13	부여 쌍북리 343번지 유적		57	경주 망성리 382-3, 383-3번지 유적
	14	청양 왕진리 599번지 유적		58	제주 광령리 1815-3번지 유적
	15	김해 대성동 145-1번지 유적		59	제주 외도1동 34-5번지 유적
	16	서울 권농동 171-12번지 유적		60	가평 청평리 714-4번지 유적
III	17	서울 암사동 115번지 유적		61	대구 비산동 265-9번지 유적
	18	제주 광령리 1622-1번지 유적	X	62	제주 삼양1동 1662-11번지 유적
	19	가평 청평리 709-5번지 유적		63	춘천 신매리 70-6번지 일원 유적
	20	김해 봉황동 303-5번지 유적		64	양평 양덕리 50-2번지 유적
	21	용인 마북동 502-398번지 유적		65	울산 상안동 411-2번지 유적
	22	공주 중동 49-6번지 유적		66	창녕 교리 384-10번지 유적
	23	춘천 신매리 786번지 유적		67	부여 구아리 89-5번지 유적
	24	김해 대성동 123번지 유적		68	부여 구아리 89-4번지 유적
IV	25	경산 조영동 251-7번지 유적	XI	69	부여 구아리 89-10번지 유적
	26	대구 옥수동 115번지 유적		70	김해 봉황동 223-13번지 유적
	27	하남 춘궁동 303-1번지 유적		71	경주 밀구1길 158-34 유적
	28	강화 관청리 697번지 유적	XII	72	제주 용담2동 2704-5번지 유적
	29	구미 신기리 70-23번지 유적		73	김해 서상동 222-2번지 유적
	30	성주 성산리 979-2번지 유적		74	울산 동동 505-2번지 유적
	31	서울 누하동 224번지 유적		75	춘천 지내리 679-4번지 유적
V	32	경주 용강동 1175-18번지 유적		76	하남 향동 142번지 유적
	33	강릉 초당동 316번지 유적	XIII	77	경주 황남동 229-19번지 유적
	34	춘천 신매리 393-1번지 유적		78	경주 탑동 514-4번지 외 1필지 유적
	35	강화 신문리 627-2번지 유적		79	제주 광지리 2017-2번지 유적
	36	울산 서동 200번지 유적		80	공주 중동 54번지 유적
	37	춘천 천전리 64-11번지 유적		81	경주 황오동 42-4번지 유적
VI	38	경주 탑동 56-8·14번지 유적	XIII	82	경주 배동 545-4번지 유적
	39	경주 소현리 109번지 유적		83	대전 읍내동 306-6번지 유적
	40	경주 황남동 189-2번지 외 1필지 유적		84	제주 감산리 1500-1번지 유적
	41	부여 쌍북리 389-2번지 유적		85	공주 중동 50-5번지 유적
	42	산청 강누리 451-2번지 유적		86	고령 고곡리 940번지 유적
	43	광주 신창동 552-23번지 유적		87	경산 부적리 286-1, 268-2번지 유적
VII	44	경주 황남동 232번지 유적			

권	연번	유적명	권	연번	유적명
XIV	88	경주 남산동 222-9번지 유적	XX	130	김해 동상동 722-13번지 유적
	89	서울 체부동 111-2번지 유적		131	하남 미사동 409-8번지 유적
	90	고령 고아리 20-2번지 유적		132	울진 화성리 402번지 유적
	91	경주 아화리 140-4번지 유적		133	양평 상자포리 414-2번지 유적
	92	부여 관북리 147-2번지 유적	XXI	134	서울 누하동 176번지 유적
	93	강릉 초당동 248-2번지 유적		135	광주 상변천리 526-1번지 유적
	94	경주 아화리 140-1번지 유적		136	옥천 금산리 157번지 유적
	95	경주 아화리 140-3번지 유적		137	안성 중북리 605-4번지 유적
XV	96	경주 개곡리 836번지 유적		138	양평 하자포리 244-2번지 유적
	97	경주 인왕동 814-3번지 유적		139	사천 선진리 1055번지 유적
XVI	98	경주 인왕동 814-4번지 유적		140	서울 효자동 33-1번지 유적
	99	경주 방어리 39, 39-4번지 유적		141	대전 읍내동 338-1번지 유적
	100	제주 용담2동 2623-11번지 유적		142	춘천 신매리 210-2번지 외 1필지 유적
	101	제주 화순리 757-2, 757-5번지 유적		143	울주 석천리 250-4번지 외 1필지 유적
	102	경주 조전리 601-8번지 유적		144	제주 광령리 1607-5번지 유적
	103	경주 쾌릉리 산37-1번지 유적	XXII	145	춘천 신매리 111-29번지 외 1필지 유적
XVII	104	김해 동상동 841번지 유적		146	김해 내삼리 794-2번지 유적
	105	제주 용담2동 652-33번지 유적		147	강릉 초당동 330번지 유적
	106	제주 삼양2동 2101-18번지 유적		148	김해 동상동 538-6번지 유적
	107	보은 병원리 246-3번지 유적		149	군위 화북리 632번지 유적
	108	울주 대대리 541번지 유적		150	경주 동부동 37번지 유적
	109	영양 청기리 243-4번지 유적		151	제주 삼양2동 2140-6번지 유적
	110	고령 연조리 594-4번지 유적		152	대구 불로동 30-14, 30-15번지 유적
	111	포항 구만리 328번지 유적		153	춘천 장학리 439-8번지 유적
XVIII	112	경주 성건동 326-4번지 유적	XXIII	154	경산 조영동 251-22번지 외 1필지 유적
	113	가평 청평리 721-5번지 외 1필지 유적		155	홍천 신장대리 63-15번지 유적
	114	경주 동부동 32-1번지 유적		156	경주 구황동 875-3번지
	115	경주 황남동 150-3번지 유적		157	창녕 초곡리 1002번지 유적
	116	강릉 초당동 124-3번지 유적	XXIV	158	상주 무양동 202-1번지 유적
	117	부산 월내리 237-14번지 유적		159	울산 중산동 684-2, 532-20번지 유적
	118	경산 소월리 907, 907-1번지 유적		160	제주 함덕리 3363번지 유적
	119	공주 반죽동 288번지 유적		161	경주 화곡리 22번지 유적
	120	서울 누하동 175-3번지 유적		162	정선 덕천리 29-3번지 유적
	121	하남 미사동 254-1번지 유적		163	춘천 신매리 67-8번지 유적
	122	함안 묘사리 산134번지 유적		164	제주 화순리 695-4번지 유적
XIX	123	경주 아화리 136-4번지 외 1필지 유적	XXV	165	제주 함덕리 3366-1번지 유적
	124	경주 아화리 136-6번지 유적		166	부여 쌍북리 615-5번지 유적
	125	경주 화산리 314번지 유적		167	상주 외답동 45-2, 45-3번지 유적
	126	공주 반죽동 281-5번지 유적		168	부여 가탑리 94-7번지 유적
	127	경주 소현리 115번지 유적		169	부여 동남리 235번지 유적
	128	춘천 금산리 446-2번지 유적		170	창녕 교리 523-1번지 유적
	129	춘천 지내리 680-2번지 외 1필지 유적		171	경주 황오동 42-2번지 유적
				172	경산 조영동 239-26번지 유적

학술조사보고 제395책

2017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XXIII

| 154~158 |

2019년 12월 20일 印刷

2019년 12월 23일 發行

編輯 : 한국문화재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http://www.cprc.or.kr>)

發行 : 한국문화재재단(<http://www.chf.or.kr>)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06
Tel. 02)3011-2173 Fax. 02)566-5954
ISBN 978-89-6433-273-3
978-89-6433-018-0 (세트)

印刷 : 창조사
Tel. 062)234-0904 Fax. 062)222-8558
